

How's Life? 2015

웰빙의 측정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OECD의 공식적인 번역물이 아닙니다. 번역의 질과 원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책임사항이며, 원본과 한국어판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원본이 우선합니다.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의견과 논의들이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지 삽화(Illustration): Christophe Lavirotte/Plus d'images Prod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OECD(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본 영문원본의 저작권은 2015년 영문 원본을 출판한 OECD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한국어판 서문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국제적인 기준과 정책경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는 보건, 사회,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OECD가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한 “How’s Life? 2015: 웰빙의 측정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은 심화되는 불평등의 추세, 원인, 대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핵심 영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 연구를 위하여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조경숙 부분부장, 김동준 연구원, 이ური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2016년 9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나성웅

서문

How's Life?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의 권장을 목표로 하는 OECD의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의 일부로, OECD의 최우선 미션(overarching mission)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How's Life?는 2년마다 발간되는 통계보고서로 광범위한 웰빙 성과들과, 그 성과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인구집단 간 및 국가 간 변화 추이를 기록한다. 이 평가는 11개의 웰빙 영역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의 유지를 돕는 4가지 자원을 다룬 다차원적 웰빙 프레임워크(multi-dimensional framework)에 근거한다. 각 판(issue)은 또한 웰빙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상세한 시각을 제공하는 특별한 장(chapter)을 담고 있다. 2015년 판은 아동의 웰빙, 웰빙에서 자원봉사(volunteering)의 역할, 지역 수준에서의 웰빙의 측정에 초점을 두었다.

본 보고서는 OECD 통계국의 웰빙 및 발전부서(Well-Being and Progress Unit)가 작성하였으며, 고용노동사회정책국(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의 사회정책과(Social Policy Division; 제4장) 및 공공지역개발국(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의 지역개발정책과(Regional Development Policy Division; 제6장)가 보고서 작성에 기여하였다. 몇몇 다른 OECD 국(Directorate)도 본 보고서의 데이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여와 조언에 감사드린다.

각 장의 수석 작성자는 Carlotta Balestra(제5장), Monica Brezzi와 Paolo Veneri(제6장), Carrie Exton(제1, 2, 3장), Dominic Richardson과 Clara Welteke(제4장)이다. 제2장과 제3장에 대해 광범위한 통계 및 연구 지원을 제공한 Elena Tosetto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Anne-Charlotte Boughalem(제3장)과 Eric Gonnard(제6장) 역시 연구 및 통계적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 Carrie Exton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Romina Boarini, Marco Mira d'Ercole과 Martine Durand이 감독하고 감수했다. Martine Zaïda는 How's Life?의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본 출간물에 동반된 국가별 보고서(country notes)를 작성한 Sophia Schneidewind에게 감사드린다. 여러 장(chapter)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준 Willem Adema, Rolf Alter, Joaquim Oliveira Martins, Monika Quiesser, Paul Schreyer, Peter van de Ven과 OECD 보건과(Health Division)에게 감사드린다. Sue Kendall-Bilicki, Vincent Finat-Duclos, Patrick Hamm은 전반적인 편집을 지원하였다. 소중한 지원을 제공한 모든 분들과 본 보고서의 출간을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OECD 통계정책위원회(OECD Committee on Statistics and Statistical Policy)에 파견된 각국 대표들(모든 장)과 사회정책실무그룹(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제4장) 및 지역지표실무그룹(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제6장)이 제공한 보고서 초안에 대한 유용한 의견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기여와 조언에 또한 감사드린다.

논평: 더 나은 삶, 오늘과 내일

내일의 웰빙에 대한 투자는 오늘 시작된다

2015년의 마지막 몇 달 동안에 미래 세대의 웰빙을 결정할 두 번의 중요한 순간이 도래한다: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최종안에 대한 합의와, 기후변화의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전 세계 지도자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인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현재 이곳의 웰빙을 확보하고 개선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이들이 나중에 웰빙을 누릴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관한 좋은 결정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에 달려있다. 2011년에 최초로 발간된 How's Life?는 광범위한 웰빙 지표들을 요약해 놓은 선구적인 보고서로 OECD와 파트너 국가들의 웰빙 추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책 입안가와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How's Life?의 세 번째 판인 본 보고서는 현재의 웰빙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세 가지 중요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웰빙 예측에 관한 첫 일별을 제공한다. 첫째, 본 보고서는 현재 측정이 가능하고 미래의 웰빙을 결정할 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총량의 일부를 고찰한다. 둘째, 미래의 삶의 가능성이 오늘 직면하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웰빙 성과를 기록한다. 셋째, 자원봉사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데 자원봉사는 사회 자본에 대한 중요한 형태의 투자로, 현재와 미래에 그리고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신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는 투자이다.

모든 국가의 웰빙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OECD 국가들 간 상대적 웰빙 강약점에 관한 분석은 어떤 국가가 다양한 웰빙 성과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잘 하는 국가는 없음을 보여준다. 웰빙의 일부 측면들(가구소득, 자산, 일자리,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OECD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더 낫지만, GDP가 높은 일부 국가들은 일과 삶의 균형, 실직 위험, 개인적 안전, 낮은 기대 수명의 측면에서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보고서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연구결과는 1인당 GDP 수준이 매우 비슷한 국가들의 웰빙 성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나 하는 점이다. 이는 GDP 이외에도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웰빙 개선을 더욱 이루기 위해 “무엇이 효과적인가(what works)”의 측면에서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원봉사는 “윈-윈”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자원봉사는 전통적인 경제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협동과 신뢰를 고취시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면서, 웰빙에 중요한 “숨은 기여(hidden contribution)”를 한다. OECD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사용한 시간의 가치를 합하면 평균적으로 GDP의 약 2%에 달한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경제적으로 더 유복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실직자에 비해) 직업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시간을 할애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되돌려 받는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지식과 기술 증가라는 편익을 얻고,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낀다. 자원봉사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은 웰빙에 대한 윈-윈 상황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애초부터 덜 가진 사람들을 더 배제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의 기회를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프랑스의 시민서비스(Service Civique)와 같은 공공 이니셔티브가 그 예이다.

웰빙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훨씬 초월한다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들과 신흥 경제국가들에서 여러 기록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순가구자산(household net wealth)* 측면의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는 더욱 두드러진다.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OECD 17개국에서 평균적으로 분배 상위 1% 가구는 하위 60% 가구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한다. OECD 17개국에서 자산은 소득보다 훨씬 덜 공평하게 분배되는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5%를 버는 반면, 전체 자산의 50%를 소유한다.

그러나 웰빙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을 훨씬 넘어선다. 본 보고서는 웰빙 격차에 관한 몇 가지 시각을 제공한다. 한 가지는 같은 국가 내 *지역 간 웰빙의 큰 격차*인데 OECD 국가 간 격차와 동일하거나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지역 고용률은 캄파니아(Campania)의 40%부터 볼차노(Bolzano)의 73%까지 다양한데, 이는 그리스(49%)와 아이슬란드(82%) 간 국가 고용률 격차와 비교될 수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그들이 숨쉬는 대기의 질, 서비스 접근성, 소득 불평등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OECD 국가에서 공공지출의 약 40%와 공공투자의 2/3가 지방정부(sub-national governments)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웰빙에 관한 지역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웰빙 측면의 *세대 간 불평등*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띤다. 평균적으로 30세 미만의 사람들이 50세 이상의 사람들보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젊은 세대의 노동연령 인구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준 것은 아니다. 전체 OECD 국가의 2/3에서 청년(15-24세)들이 핵심연령근로자(prime age worker: 25-54세)보다 1년 이상 실직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장기 실업률은 2배 이상이다. 또한 2009년 이후 몇몇 국가에서 발생한 장기 실업률 급등은 대체로 젊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는 미래 웰빙에 중요한 위험요소(risk factor)다.

모든 아이들이 삶에서 최선의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삶에서 좋은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웰빙에 중요하며, 아이들의 향후 삶의 가능성 역시 개선시킨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된 증거자료는 어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나은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득

빈곤이 OECD 지역 내 7명의 아동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10%의 아동은 실직 가정에서 산다. 11세, 13세, 15세 아동의 10%가 지난 2개월 간 최소 2회의 왕따를 당한 것으로 보고되며 이 비율은 일부 국가에서 15% 이상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아동 웰빙 격차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가정이 부유할수록 아동의 건강상태는 더 좋으며 더 행복한 학교생활과 연관있다. 이와 반대로, 빈곤 가정의 아동은 학교에서 더 압박감을 느끼며, 학교를 덜 좋아한다고 말하고,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친구가 더 적으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삶에 대한 만족도, 읽기와 문제 해결 능력, 부모와의 의사소통, 투표할 의향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가정 출신의 아동에게서 모두 더 낮다.

아이들에게 잘하는 국가들이 대개 성인들에게도 잘하지만 이 두 집단에 대한 웰빙 성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 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다. 반면에 성인 웰빙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국가들 중 일부는 아동 웰빙 성과가 좋지 않다. 이는 이 국가들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금 성인들이 누리는 수준의 웰빙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그 자원을 지금 점검해야 한다. 이번 *How's Life?* 판(edition)은 현재와 미래 모두의 웰빙을 지탱하는 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총량” 요소들에 관한 일련의 설명지표들(illustrative indicators)을 처음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 영역들 중에서 일부 핵심 위험 요소들, 즉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상승, 비만을 상승, 정부에 대한 최근의 신뢰 하락, 경제적 자산(건물, 인프라, 기계 및 장비류 등)에 대한 투자 하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늘날 상황에 대한 모습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이와 국가별 상대적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웰빙 성과와 시간의 지남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자료

웰빙에 관한 OECD의 작업은 과정(Progress)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새로운 자료 출처들(가구자산과 분배, 일자리의 질, 주관적 웰빙에 관한 자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모든 웰빙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의 질과 비교가능성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발전도를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통합이 정책 입안에 대한 좀 더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OECD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프로젝트와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이니셔티브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다. UN의 새로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는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들에 대한 촉매제가 될 것이고, 정책들은 전통적으로 공식적 통계의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로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 노력은 계속된다.



마틴 듀란(Martine Durand)
OECD 수석 통계학자,
OECD 통계국장

목차

독자를 위한 가이드	15
요약	17
제1장 오늘의 웰빙과 내일의 웰빙: 개관	19
도입	20
현재의 웰빙: OECD 국가들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22
평균을 넘어서: 웰빙 성과들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28
지난 수년간 삶이 어떻게 변화였나?	29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	31
웰빙의 어떤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 또 누구에게 중요한가?	33
웰빙 데이터의 측정과 사용: OECD와 파트너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35
주	39
참고문헌	40
부록 1.A 국가 수준에서의 웰빙의 강약점들	45
부록 1.B 국가 수준에서의 웰빙의 강약점들	52
제2장 그림으로 보는 How's Life?	55
소득과 자산	56
직업과 근로소득	63
일자리와 근로소득의 분배	70
주거 조건	72
건강 상태	75
일과 삶의 균형	79
교육과 기술	83
사회적 관계	88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90
환경의 질	95
개인적 안전	99
주관적 웰빙	105
주	111
참고문헌	112

제3장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117
	자연 자본	121
	인적 자원	130
	사회적 자본	137
	경제적 자본	141
	주	151
	참고 문헌	151
제4장	아이들의 삶은 어떤가?	155
	서론: 아동 웰빙이 중요한 이유	156
	아동웰빙의 측정	157
	측정 도전과제들	163
	아동 웰빙에 관한 증거자료	165
	아동 웰빙에 대한 향후 통계적 과제	197
	주	198
	참고 문헌	200
	부록4.A 아동웰빙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영역들과 지표들에 대한 개관	205
제5장	주는 것의 가치: 자원봉사와 웰빙	209
	서론: 자원봉사가 웰빙에 중요한 이유	210
	자원봉사의 정의와 측정	211
	자원봉사를 측정할 지표들의 선정과 데이터 출처	216
	자원봉사에 관한 증거자료	218
	자원봉사의 웰빙 편익 측정	230
	자원봉사에 대한 향후 통계 과제	243
	주	244
	참고 문헌	248
	부록 5.A 자원봉사자들의 특징	256
	부록 5.B 자원봉사와 인적 자본	258
	부록 5.C 자원봉사와 주관적 웰빙	260
제6장	지역으로 들어가기: 지역의 웰빙 측정	263
	서론: 웰빙의 측정을 위해 지역적 관점이 중요한 이유	264
	지역 웰빙의 측정	268
	웰빙의 지리학	276
	지역적 웰빙의 측정을 위한 향후 통계적 과제	287
	주	290
	참고문헌	291

표 목차

표 1.1.	현재 웰빙의 중심 지표들	24
표 2.1.	법규 개발에서의 정부이해당사자 참여	92
표 3.1.	제2장과 3장에 나타난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들을 감시하는 설명지표들	120
표 4.1.	아동 웰빙의 영역들과 지표들	160
표 4.A.1.	아동웰빙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영역들과 지표들에 대한 개관	206
표 5.1.	국민계정체계(SNA)의 NPI 위성계정 내 비영리단체의 처리	213
표 5.2.	국민계정체계 2008 의 근로 유형	214
표 5.3.	자원봉사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출처의 품질	218
표 5.4.	OECD 지역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	232
표 5.5.	유럽 국가들 내 50세 이상의 사람들의 자원봉사 참여에 의한 건강 성과	234
표 5.6.	성인 숙달도 수준과 시간당 임금,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국가별	235
표 5.7.	기술숙달도와 근로소득에 대한 공식적 자원봉사 계수	238
표 5.8.	주관적 웰빙 지표들,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국가별	239
표 5.9.	미국 생활시간 조사의 감정 밸런스와 U 지수, 활동별	242
표 5.A.1.	공식적 자원봉사의 보급률과 빈도, 개인과 가구의 특징별	256
표 5.A.2.	비공식적 자원봉사의 보급률과 빈도, 개인과 가구의 특징별	257
표 5.B.1.	공식적 자원봉사가 기술 숙달도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258
표 5.C.1.	긍정적·부정적 느낌들, 자원봉사 참여와 국가별	260
표 5.C.2.	공식적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분위 회귀분석	261
표 6.1.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장소에 기반한 웰빙의 여러 가지 동인들	268
표 6.2.	지역과 국가 단위의 웰빙의 측정을 위한 영역들과 지표들	271

그림 목차

그림 1.1.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프레임 워크	21
그림 1.2.	1인당 GDP가 최상위인 OECD 국가들의 웰빙 강약점들	26
그림 1.3.	1인당 GDP가 중간 수준인 OECD 국가들의 웰빙 강약점들	27
그림 1.4.	1인당 GDP가 낮은 OECD 국가들의 웰빙 강약점들	28
그림 1.5.	더 나은 삶 지수(BLI)	33
그림 1.6.	OECD 국가들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사용자들의 웰빙 우선순위	34
그림 1.A.1.	국가별 상대적 웰빙 강점들과 약점들	46
그림 1.B.1.	연령별 교육, 소득, 삶에 대한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BLI 사용자 평점	52
그림 1.B.2.	연령별 환경, 건강, 시민 참여, 안전에 대한 BLI 사용자 평점	53
그림 2.1.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HADI)	57
그림 2.2.	가구순금융자산	58
그림 2.3.	가구당 평균 및 중위 순자산, 비금융자산 포함	59
그림 2.4.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61

그림 2.5.	십분위 간 소득분배비율(S90/S10)	62
그림 2.6.	가구순자산의 분배	63
그림 2.7.	고용률	64
그림 2.8.	장기 실업률	65
그림 2.9.	실직할 가능성	66
그림 2.10.	전일제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총근로소득	66
그림 2.11.	OECD 국가들의 일자리의 질	68
그림 2.12.	청년 근로자와 핵심생산층 근로자 사이의 장기 실업률 격차	70
그림 2.13.	연령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 실업률의 변화	71
그림 2.14.	장기 실업률에서의 성별 격차	71
그림 2.15.	개인당 방의 개수	72
그림 2.16.	기본 위생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73
그림 2.17.	주택관련 지출	74
그림 2.18.	출생 시 기대수명	76
그림 2.19.	인지하는 건강 상태	77
그림 2.20.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 사이의 인지하는 건강상태 측면의 격차	79
그림 2.21.	매우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	80
그림 2.22.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81
그림 2.23.	남성과 여성이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83
그림 2.24.	성인노동인구의 교육이수율	84
그림 2.25.	15세 학생의 인지능력	84
그림 2.26.	성인인구의 역량	86
그림 2.27.	청년 노동연령 인구나 장년층 노동연령 인구의 교육이수율	87
그림 2.28.	인지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88
그림 2.29.	연령 집단별 사회적 지지 수준의 격차	90
그림 2.30.	투표율	91
그림 2.31.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규제정(rule-making)에 관한 정부 협의의 변화	93
그림 2.32.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연간 노출도	96
그림 2.33.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 한계치별	97
그림 2.34.	지역 수질에 대한 만족도	97
그림 2.35.	폭행에 의한 사망	100
그림 2.36.	자기 보고 피해자율	101
그림 2.37.	밤에 홀로 걸을 때의 안전에 대한 느낌	103
그림 2.38.	남성과 여성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104
그림 2.39.	남성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느낌	104
그림 2.40.	연령대별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느낌	105
그림 2.41.	삶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가치에 대한 느낌	106
그림 2.42.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	107
그림 2.43.	긍정적 감정 밸런스	107
그림 2.44.	연령대별 삶에 대한 평가	110

그림 2.45.	연령대별 긍정적 감정 밸런스	110
그림 3.1.	웰빙의 측정을 위한 How's Life? 프레임 워크에 나타난 자본 총량(stocks)	118
그림 3.2.	산림지역	124
그림 3.3.	국내 생산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	126
그림 3.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의 총량	127
그림 3.5.	담수 추출량	128
그림 3.6.	위협받고 있는 종들,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129
그림 3.7.	25-34세 인구의 교육이수율	132
그림 3.8.	교육 기대년수	133
그림 3.9.	흡연율	134
그림 3.10.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	135
그림 3.11.	비만율	136
그림 3.12.	남성과 여성의 비만율	137
그림 3.13.	타인에 대한 신뢰, 유럽 국가들	138
그림 3.14.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유럽 국가들	140
그림 3.15.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부에 대한 OECD 평균 신뢰도	141
그림 3.16.	가구 부채	143
그림 3.17.	1인당 순고정자산	143
그림 3.18.	총고정자산 형성, OECD 평균 수치	146
그림 3.19.	지적 재산 상품	147
그림 3.20.	R&D 에 대한 투자	147
그림 3.21.	전체 경제의 금융순자산	148
그림 3.22.	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149
그림 3.23.	일반 정부의 금융순자산	150
그림 4.1.	과체중 아동들	162
그림 4.2.	아동 1인당 가처분 소득	166
그림 4.3.	아동빈곤율	167
그림 4.4.	실직 가구에서 사는 아동들	168
그림 4.5.	장기 실업 상태인 부모가 있는 아동들	168
그림 4.6.	자녀가 있는 가구 내 1인당 평균 방의 개수	169
그림 4.7.	기본적 시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아동들	170
그림 4.8.	열악한 환경적 조건에서 사는 아동들	171
그림 4.9.	영아사망률	172
그림 4.10.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동들	173
그림 4.11.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한 10대들	174
그림 4.12.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아동들	174
그림 4.13.	아동자살률	175
그림 4.14.	10대 출산율	176
그림 4.15.	아동의 흡연율	177
그림 4.16.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아동들	178

그림 4.17. 매일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들 179

그림 4.18. 아동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점수 180

그림 4.19. PISA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영역에서의 학생들 수행도 181

그림 4.20.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취업이나 직업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 182

그림 4.21. 교육적 결핍 183

그림 4.22. 아이들의 투표 의향 184

그림 4.23. 사회적 참여를 하는 10대들 184

그림 4.24. 자신의 급우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고 말한 10대들 185

그림 4.25. 학업에 의한 압박을 느끼는 아동들 186

그림 4.26.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들 187

그림 4.27.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는 아이들 188

그림 4.28.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189

그림 4.29. 부모와 대화하기 쉽다고 응답한 10대들 190

그림 4.30. 아동살해율 191

그림 4.31. 왕따를 당했다고 응답한 아이들 192

그림 4.32. 아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193

그림 4.33. OECD 전체 국가들의 아동 웰빙 개관 194

그림 5.1. 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참가율 219

그림 5.2. 유럽 국가들의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참가율 220

그림 5.3. 공식적·비공식적 자원봉사에 할애한 시간 221

그림 5.4. 활동 분야 별 자원봉사자의 분포 222

그림 5.5. 선정된 인구집단의 OECD 지역 내 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평균 참여율과 빈도 224

그림 5.6. 선정된 인구집단의 OECD 지역 내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평균 참여율과 빈도 225

그림 5.7. 학생들의 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 227

그림 5.8. 유럽 국가들 내 50세 이상 인구의 공식적 자원봉사 참여율 228

그림 5.9. 유럽 국가들 내 50세 이상 인구의 비공식적 자원봉사 참여율 229

그림 5.10. 유럽 국가들에서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 230

그림 5.11. 공식적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41

그림 5.12. 미국 생활시간 조사의 불편한 상태로 지낸 시간과 긍정적 감정 밸런스, 자원봉사활동 유무별 243

그림 6.1. 지역과 지방 수준의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프레임 워크 269

그림 6.2. 웰빙의 4가지 영역에서의 국가평균 vs 지역간 격차 277

그림 6.3. 1인당 GDP, 가구시장소득, 가구가처분소득의 지역적 격차 279

그림 6.4. 가구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의 지역값 280

그림 6.5. 지역 내 소득불평등 281

그림 6.6. 지역별 상대적 빈곤율 282

그림 6.7. 실업률 측면에서의 지역적 격차 283

그림 6.8. 노동인구의 교육이수율 측면에서의 지역적 격차 284

그림 6.9. 대기오염에 대한 평균 노출도의 지역적 격차 285

그림 6.10. 충족되지 않은 의료적 욕구를 보고한 인구 비율에서의 지역적 격차 287

Follow OECD Publications on: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lidlibrary>



<http://www.oecd.org/oeccdirect/>

This book has...

StatLink 

A service that delivers Excel® files from the printed page!

Look for the *StatLink*  at the bottom of the tables or graphs in this book. To download the matching Excel® spreadsheet, just type the link into your Internet browser, starting with the <http://dx.doi.org> prefix, or click on the link from the e-book edition.

독자를 위한 가이드

표기 규칙

- 각 그림에서, OECD와 OECD EU라고 보여지는 자료는 달리 표기가 되지 않는 한 각 그림에서 나타난 OECD 국가들의 단순 평균치이다. OECD 34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자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계산에 포함된 국가의 숫자가 표에 명시된다(예: OECD 33개국).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경우 OECD 평균은 모든 시점(all time points)의 자료가 가능한 국가들만을 말한다.
- 인구 가중치를 준(population-weighted) OECD 평균이 사용된 경우 이는 그림 주석에 명시된다. 이는 전체 OECD 인구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인구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준 단순 평균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구 규모가 작은 국가보다 큰 국가에 더 큰 가중치를 두게 되는데 “OECD 평균 시민”(“OECD 평균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님)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 각 그림은 해당 기간을 명시하며 그림 주석은 데이터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다른 연도를 언급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는 가능한 경우 OECD 국가들 표의 별도 부분에 제시된다.
- 제4장의 몇몇 차트는 점추정(point-estimates)의 95% 신뢰구간을 제시한다. 신뢰구간은 원칙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조사 등에서 가능한 관측치들의 표본에 근거해 추정된 설득력이 큰 모수의 구간추정치이다. 신뢰구간의 규모가 점추정의 정밀성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사용된 국가별 지역별 코드

AUS	호주	GRC	그리스	NLD	네덜란드
AUT	오스트리아	FIN	핀란드	NOR	노르웨이
BEL	벨기에	HUN	헝가리	NZL	뉴질랜드
BRA	브라질	IDN	인도네시아	OECD	OECD 평균
CAN	캐나다	IND	인도	OECD EU	OECD 유럽 평균
CHE	스위스	IRL	아일랜드	POL	폴란드
CHL	칠레	ISL	아이슬란드	PRT	포르투갈
CZE	체코	ISR	이스라엘	RUS	러시아
DEU	독일	ITA	이탈리아	SVK	슬로바키아
DNK	덴마크	JPN	일본	SVN	슬로베니아
ESP	스페인	KOR	한국	SWE	스웨덴
EST	에스토니아	LUX	룩셈부르크	TUR	터키
GBR	영국	MEX	멕시코	USA	미국

요약

How's life? 개관

사람들의 웰빙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웰빙은 시민참여, 주택, 가구소득, 일과 삶의 균형, 기술, 건강상태 등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 걸쳐 있고 다차원적 성격을 가진다.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준(human scale)에 의해 파악되고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지표(metrics)가 필요하다. 이것이 본 보고서가 제공하려는 목표이다.

삶의 11가지 영역에서 웰빙에 관한 최신 증거는 OECD 국가들의 강약점들이 다양한 패턴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상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상위 1/3에 속하는 국가들은 특별히 가구소득과 근로소득 등 물질적 웰빙 성과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GDP 수준과 상관없이 일자리 안전, 대기의 질, 주택구매능력, 일과 삶의 균형 등과 같은 영역에서 상대적 약점을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삶에서 GDP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본 보고서는 가장 부유한 OECD 국가들조차 자국 시민들의 웰빙을 개선할 여지가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웰빙의 불평등

국가 평균은 단지 웰빙의 일부만을 말해준다: 전체 인구 내 각 집단들은 매우 다른 웰빙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보통 국가별로 다르며 가구소득 측면의 차이를 훨씬 초월한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그리스, 스페인에서 분배 하위 60%는 전체 순자산의 20% 이상을 소유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에서는 8% 미만을 소유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지만, 대학교육을 받은 30세 남성은 초등교육을 받은 남성보다 국가에 따라 4년부터 18년까지 더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몇몇 OECD 국가들(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호주, 룩셈부르크, 영국)에서 젊은 근로자들(15-24세)의 장기 실업률은 핵심연령근로자들의 장기 실업률의 최소 2배이다. 노르딕 국가들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성별 및 연령과 관련된 격차 등 삶 성과의 질 측면에서 격차가 훨씬 적은 경향이 있다.

삶이 나아지고 있나?

몇 가지 측면에서 평균 OECD 시민은 2009년보다 삶이 더 나아졌지만, 웰빙 측면에서 변화는 국가별로 그리고 지표별로 엇갈린 결과를 보인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가구소득은 위기수준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지만 다른 영역들(장기 실업률, 긴 노동시간, 투표율)에서의 진전은 일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이래 가구소득에서 가장 극심한 하락을 경험한 국가들(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은 높은 실업률, 줄어든 근로소득, 낮아진

주택구매능력 등 다른식으로 계속 고통을 느끼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2009년 이래 고등학교 교육이수율과 기대수명 측면에서 약간의 증가를 경험하였으나, 이러한 성과들은 물질적 웰빙 성과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걸쳐 진화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자원 모니터링

현재 존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웰빙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의 총량(stocks)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미래 웰빙의 전망을 이해하는 첫 단계다. 본 보고서는 미래의 웰빙 기회를 결정할 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총량 요소들을 설명하는 몇 가지 측정방법들과 자원의 투자, 고갈, 총량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소들을 고찰한다. 고찰되는 추세에는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 상승, 청소년의 학업이수율 증가, 가구부채 수준의 변화, 정부에 대한 최근의 신뢰 하락이 있다. 이 지표세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발전될 것이며 How's Life?에서 사용된 현재의 웰빙 성과의 대쉬보드를 장기적 시각으로 제공하는 지표들로 보완할 것이다.

아이들의 삶은 어떠한가?

모든 아이들이 삶에서 최선의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OECD 국가들에서 아동 7명 중 1명은 빈곤한 삶을 사는데 거의 10%의 아동이 실직상태의 가구에서 살며 10명 중 1명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웰빙에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부유한 가정의 아동이 더 좋은 건강상태, 더 높은 역량, 더 높은 시민참여, 더 좋은 부모 및 동료와의 관계를 갖는다. 유복한 가정 출신의 아이일수록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낮고 학교에서 소속감도 더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들 간의 웰빙 불평등이 그들 자녀들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와 웰빙

자원봉사는 정치참여에서 이웃 노인 돌보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의 증거자료는 OECD 국가들에서 성인 3명 중 1명이 1년에 1회 이상 기관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유럽인 10명 중 7명이 친구, 이웃, 낯선 사람에게 비공식적 도움을 제공함을 보여준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들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원봉사가 경력개발 또는 고용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또한 비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는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써 삶이 나아지는 선순환을 보여준다. OECD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소비하는 시간의 가치는 GDP의 2%에 근접한다. 단지 개략적 추산이긴 하지만, 이는 자원봉사가 전체 사회에 대개 드러나지는 않지만 큰 기여를 함을 시사한다.

거주 지역이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안전, 대기오염, 고용기회, 서비스 접근성 등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사람들의 거주 지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삶의 질과 물질적 조건 측면에서의 국가내 격차는 종종 국가 간 격차만큼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내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격차가 20% 포인트 가까이 났었다. 이는 거의 그리스와 노르웨이 간 국가평균 실업률 격차만큼 큰 것이다. 또한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정도의 측면에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소득불평등은 대도시 지역에서 특히 높다. 웰빙의 지역 간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음을 근거자료가 보여주기 때문에 지역적 시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제1장

오늘의 웰빙과 내일의 웰빙: 개관

본 장은 웰빙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프레임 워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제2장과 제3장에서 제시될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웰빙의 강약점 분석은 모든 OECD 국가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간에도 웰빙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국가 내에도 큰 웰빙 격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젊은층과 장년층, 남성과 여성, 그리고 교육수준이 다른 사람들 간의 웰빙 격차가 클 수 있다. 2009년 이후 웰빙의 변화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데 일부 국가와 일부 지표에서는 발전이 있었으나 또 다른 국가와 지표는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과 관련된 최근의 추세는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을 강조한다. www.oecdbetterlifeindex.org의 데이터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BLI)를 구축할 때 어떤 웰빙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웰빙 데이터의 측정과 사용 측면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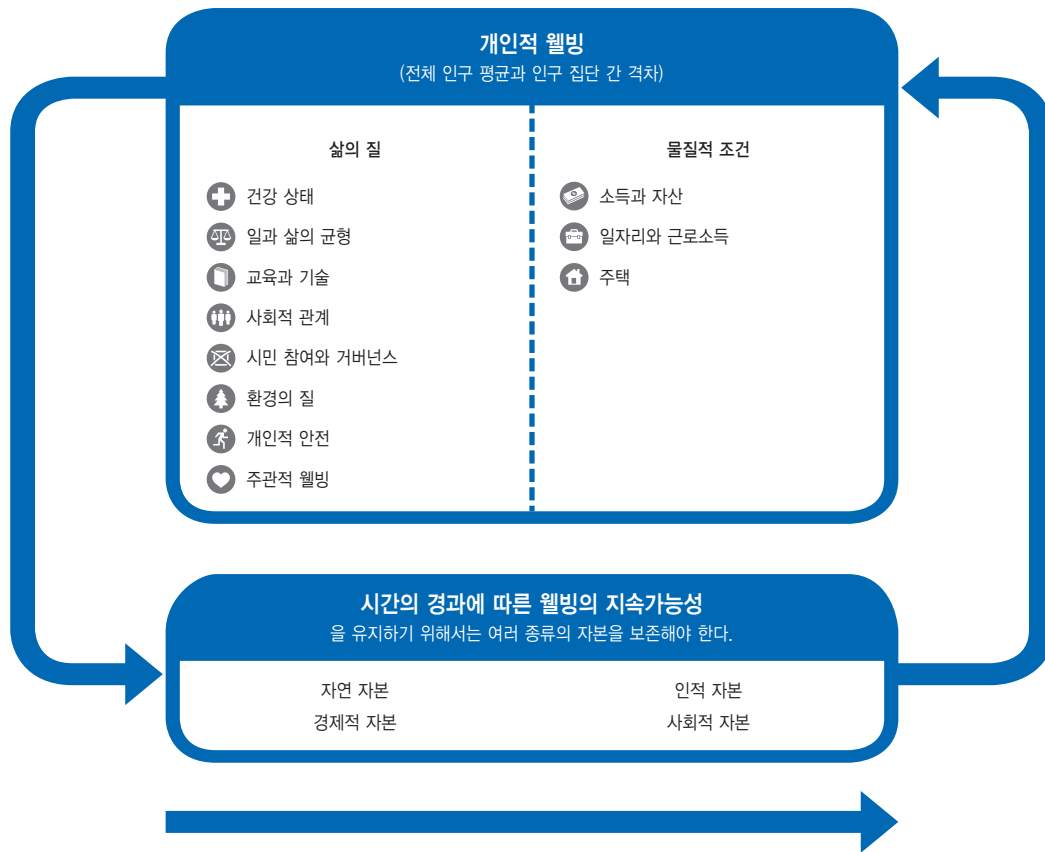
OECD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의 현재 웰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통계는 OECD 국가들과 선별된 파트너 국가들(브라질,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사는 조건에 대한 객관적 정보, 삶에서 갖는 기회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느낌을 반영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여러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폭넓은 그림(broad picture)을 그려봄으로써 본 보고서는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좀 더 깊고 적극적인 논의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웰빙을 위한 유일한 비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한 구성요건들의 목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 웰빙의 측정을 위한 OECD 프레임 워크는 현재의 웰빙을 위해서 중요한 11개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영역들은 물질적 조건(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근로소득, 주택)과 삶의 질(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이라는 두 개의 큰 주제로 분류된다(그림 1.1). “평균을 초월해서 보는 것(going beyond the average)”이 프레임 워크의 중요한 특징인데 삶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나아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 장년층과 청소년, 고소득집단과 저소득집단, 교육수준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포함된다.

그러나 프레임 워크는 또한 자연자본,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 현재 측정이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웰빙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원(또는 “자본”)의 총량(stocks)을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웰빙을 넘어서 보고 있다.

본 장의 목적은 제2장과 제3장의 연구결과를 요약 설명하면서 웰빙의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려보는 것인데, 제2장은 현재의 웰빙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3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의 유지를 도울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OECD 지역 내 삶의 간략한 정보(snapshot)와 OECD 국가들의 웰빙 강점들과 약점들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제공한다. 다음에는 전체 인구에서 다른 집단 간 웰빙의 격차가 제시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변화를 설명하는 섹션이 이어진다. 본 장은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핵심 자본 총량의 변화에 관한 최근의 추세를 검토하고 요약한다. 그 다음에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BLI) 웹 툴(www.oecdbetterlifeindex.org)에서 가져온 사용자 응답에 관한 일부 데이터를 서술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는 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 섹션은 웰빙 데이터의 측정과 사용에 관한 최근 추세를 설명한다.

그림 1.1.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프레임 워크



출처: OECD(2011), How's Life?: 웰빙의 측정, OECD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박스 1.1. OECD 웰빙 측정 접근법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프레임 워크는 *How's Life? 2011*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프레임 워크는 광범위한 측정법을 활용해 사회의 발전을 측정하는 다양한 국가적·국제적 이니셔티브들, Stiglitz, Sen and Fitoussi(2009)의 권고들, 그리고 OECD 통계정책위원회의 대표인 국가통계청들(NSOs)이 제공한 기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개념적으로 이 프레임 워크는 실현능력 접근법(Sen, 1985; Alkire and Sarwar, 2009; Anand, Durand and Heckman, 2011)의 요소들을 반영하며, 건강, 교육, 소득 등 사람들이 가치있게 여기는 삶을 살 선택권과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다루는 등 여러 영역들을 포함한다(OECD, 2013a 참조).

박스 1.1. OECD 웰빙 측정 접근법(계속)

현재의 웰빙을 측정하는 접근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 이 접근법은 **사람들(개인들과 가구들)**을 평가의 중심에 놓고 그들 삶의 환경과 웰빙에 대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 이 접근법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 아닌, 사람들에게 직접적이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삶의 측면인 웰빙 성과에 초점을 둔다. 예컨대, 교육 영역에서는 학교에 쓰여진 돈이나 훈련된 교사의 숫자가 아닌 성취된 기술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 측정한다.
- 이 접근법은 **객관적(제3자에 의해 관찰될 수 있음) 성과와 본질적으로 주관적(해당되는 사람만이 자신 내면의 느낌과 상태를 보고할 수 있음) 성과**를 모두 포함하는데, 사람들의 삶의 환경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관한 정보에 의해서 유용하게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 이 접근법은 웰빙 성과의 전체 인구 간 분배와 연령, 성별, 교육, 소득과 관련된 격차를 측정에 반영할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한다.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측정하는 OECD 접근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웰빙에 내재하며 개인의 웰빙을 지속시키는 좀 더 광범위한 자연, 경제적, 인적, 사회적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자본” 또는 자원의 총량에 초점을 둔 것은 Stiglitz, Sen and Fitoussi 보고서(2009)의 권고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엔유럽경제위원회-유럽통계청-OECD태스크포스(유엔, 2009), 유엔대학-IDHP-유엔환경계획의 포용적 자산보고서(2012), 유럽통계기관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측정에 관한 권고회의(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14) 등 최근 측정 이니셔티브들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들의 이니셔티브들(스위스연방통계청(FSO), 2013; 뉴질랜드통계청, 2011)의 권고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몇 가지 프레임 워크들의 주된 특징은 “현재 이곳(Here and now)”의 웰빙과 “나중(later)” 미래 세대의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들을 구분한 점이다. 이러한 접근법들 중의 일부는 이러한 자원의 총량(stocks)이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며 또는 위협받는 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단순히 총량을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웰빙을 유지시키는 것과 결부된 범세계적 도전과제와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면서 이 접근법들 중의 다수는 웰빙의 “그 밖의 지역(elsewhere)”이라는 영역을 둬으로써 한 국가에서 취한 조치가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How's Life? 웰빙 측정(OECD, 2011; 2013a).

현재의 웰빙: OECD 국가들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가능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OECD 거주민은 평균 약 27,000 USD(1인당 기준; 세금 공제와 이전 이후)의 연간 가구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가구 평균 금융순자산은 이 소득(1인당)의 두 배이다. 15-64세 인구의 약 2/3가 고용된 상태이나 OECD 노동인구에서 38명 중 1명은 1년 이상 실업상태이다. OECD 지역의 연평균 총 근로소득은 전일제 근로자 1인당 40,600 USD이며 장시간 근로는 드문 일이 아니어서, 8명의 근로자 중 1명은 주당 50시간 이상을 규칙적으로 일한다. 전일제 근로자는 수면에 사용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평균 15시간

미만을 사용한다. 평균적으로 OECD 가구는 매년 총 가치분소득의 20%를 주택비용에 지불한다. 평균적으로 주택은 거주자 수보다 많은 방(1인당 1.7개)을 보유하고 있으나, 10개의 OECD 국가에서는 2% 이상의 사람들이 가족 전용 실내수세식 화장실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다. OECD 국가들에서 80%의 사람들은 지역의 수질에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40%의 사람들만이 초미세먼지 연간 노출(PM_{2.5})의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한계치인 입방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미만인 지역에서 살고 있다.

OECD 국가들의 2/3에서 오늘 태어난 아기는 80세 이상을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성인들 중에서 69%는 자신의 건강이 “좋거나” 더 나아졌다고 말한다. 매년 성인 25명 중 1명은 폭행의 피해자라고 보고하며 OECD 지역에서 25,000명 중 1명이 폭행으로 사망한다. 2/3의 사람들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밤길을 걸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데 투표하도록 등록된 사람들의 약 68%가 최근 선거에서 투표했다. OECD 전역에서 25-64세 인구의 3/4만이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 또는 친척이 있다고 느끼지만 8명 중 1명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OECD에서 25%의 사람들은 거의 매일 즐거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느낌, 미소나 웃음보다 분노, 걱정, 슬픔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평균적인 OECD 거주자는 10점 만점에 7점을 약간 웃도는 점수를 보고한다.

“평균 OECD 거주자(average OECD resident)”는 물론 통계적 해석(statistical construction)이다: 전체 인구의 경험을 요약한 것이지만 대다수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모두에게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 경험에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본 섹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웰빙 격차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섹션에서는 국가들 내에서의 패턴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관찰한다.

웰빙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이므로 간결하게 요약되기 어렵다. 개인 단위에서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누가 웰빙을 “소유”하며 누구의 웰빙이 “부족”한지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제2장에서는 그림 1.1에 포함된 36개국의 11개 영역을 다룬 현재의 웰빙을 측정하는 30여 개의 지표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섹션은 몇 개의 “중심(headline)” 지표들 전체에서 관찰되는 어떤 일반적 패턴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별로 웰빙의 강약점이 다르며 모든 국가마다 수행도가 높거나 낮은 지역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연구결과는 1인당 GDP 수준이 매우 비슷한 국가들에서 웰빙 성과가 여러 영역들에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한 국가의 웰빙 경험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GDP 이외의 많은 요소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제시되는 분석은 How's Life?의 이전 판들에서도 보고되었던 “중심” 지표들의 핵심 세트에 관하여 사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다(OECD, 2011 and 2013a; 표 1.1 참조). 이 지표들은 웰빙 평가의 적절성(예: 안전타당도, 개인 또는 가구에 초점을 맞춤, 투입이나 산출이 아닌 요약 성과에 관함), 품질, 가능성(예: 합의된 정의에 근거하고, 데이터 수집이 비교가능한 방법이며, 합리적 빈도와 시의적절성에 따라 생산되며, 대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사용 가능함; 추가 정보는 OECD 2011a 및 2013a 참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 대부분의 중심지표들이 이러한 기준 대부분을 충족하지만, 더 나은 지표들의 개발은 지속적인 과제이다(아래와 제2장 참조).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하는 공식 통계가 모든 국가에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공식 데이터 출처에서 가져온 대체치(placeholder)가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지원, 수질, 자가보고피해자(self-reported victimisation), 주관적 웰빙에 관한 데이터가 해당된다. OECD 전역 데이터의 사용 가능성이 지표 선정에 여전히 중요한 제약요인인데 이는 더 적절하고 더 비교 가능한 통계치가 사용 가능해지면 개선될 것이다.

표 1.1. 현재 웰빙의 중심 지표들

웰빙 영역	개념	지표	년도 ¹	측정 단위
소득과 자산	가구소득 금융자산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2013	2010 구매력평가(PPP), 1인당 미달러
		가구당 순금융자산	2013	현재 구매력평가(PPP), 1인당 미달러
일자리와 근로소득	고용	고용률	2014	15-64세 인구에서 고용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근로소득	2013	2013 구매력평가(PPP) 미달러 기준 연평균 총근로소득
	일자리 안정성 장기 실업률	실직 가능성	2014	실업으로의 연간 유입(% 포인트)
		장기 실업	2014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노동인구의 비율
일과 삶의 균형	근로 시간	매우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	2013	주당 50시간 이상을 규칙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휴식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된 시간	다양함	1일 시간 수, 전일제 근로자에게만 해당
주택	개인당 방의 개수	개인당 방의 개수	2013	개인 당 방의 평균 개수(욕실, 화장실, 부엌, 설거지공간, 다용도실, 차고 제외)
	주택구매능력	주택에 대한 지출	2012	가구총가처분소득에서 주택 및 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기본 위생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집	2013	가족 전용 실내수세실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
환경의 질	수질 대기의 질(PM _{2.5})	수질 만족도	2014	전체 인구에서 만족한 사람들의 비율
		초미세먼지 (PM _{2.5}), 대기오염 연간 노출도	2010-2012 평균	PM _{2.5} 농도에 대한 인구 가중 노출도, 입방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건강 상태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수명	2013	신생아가 살 것으로 기대되는 년 수
	인지하는 건강	인지하는 건강상태	2013	자신의 건강이 “좋은” 상태이거나 “더 좋은” 상태라고 말하는 성인의 비율
교육과 기술	교육이수율 인지능력	성인의 교육이수율	2013	최소 고졸 학력을 가진 25-64세 사람의 비율
		15세 학생의 인지가능	2012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프로그램은 읽기, 수학, 과학의 평균점수
	성인역량	16-65세 성인인구의 숙달도	2012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프로그램은 문자해독 능력과 수리력의 평균 숙달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인지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2014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 혹은 친척이 있는 사람의 비율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투표율	투표율	2014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 투표한 사람의 비율
개인적 안전	폭행에 의한 사망 자가보고 피해자	폭행에 의한 사망	2012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율
		자가보고 폭행	2010	지난 12개월 동안 공격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람의 비율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평가	삶에 대한 만족도	2014	칸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의 0-10점 기준 (가능한 최상의 삶(10점)과 최악의 삶(0))을 사용하여 보고된 평균값

1. 일부 국가의 경우, 사용 가능한 최근 연도는 나타난 것보다 이전이다.

다른 1인당 GDP 수준에서의 웰빙의 강약점들

웰빙의 다차원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순요약접근을 넘어서 어느 국가가 어느 웰빙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 1.A(그림 1.A.1)는 국가별 근거와 지수별 근거에 기반해서 상대적 강약점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어떤 국가는 웰빙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나은 수행도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국가는 없다: 광범위한 성과들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는 상대적 강점의 영역과 상대적 약점의 영역을 가진다. 부록 1.A는 매우 넓은 지리적 측면에서 그룹화된 국가들에 대한 웰빙 요약물 제시하지만, 좀 더 해상도가 높은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섹션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즉 2013년 1인당 GDP 기준 상위 1/3, 중간 1/3, 하위 1/3 국가들의 상대적 웰빙 수준을 살펴본다(박스 1.2 참조).

박스 1.2. 1인당 GDP가 다른 수준에서 웰빙의 상대적 강약점 평가

그림 1.2부터 1.4(아래)에 보여진 분석은 OECD 지역 내 여러 국가들의 상대적 웰빙 수행도에 초점을 맞춘다. 고찰된 지표들은 표 1.1에서 상세히 설명된 “중심” 지표들이다. 첫 단계로서, 각 웰빙 지표의 점수에 따라 국가 순위가 매겨진다. 어떤 국가가 OECD 국가들 내 상위 1/3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outcome)는 상대적 “강점”으로 간주되며, 중간순위는 OECD 국가들 중 중간 1/3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국가가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 1/3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outcome)는 상대적 “약점”으로 간주된다. 몇몇 국가들의 경우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 데이터 격차가 존재한다: 성인역량(PIAAC)과 휴식시간(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된 시간)은 이러한 제한된 국가 범위(coverage)에 의해 특히 영향을 받는 두 가지 성과이다. 이 경우에 강점과 약점들은 가용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만약 21개의 국가들만을 다룬 경우 상위 1/3은 이 국가들 중 상위 7개국을 의미한다.

그림 1.2부터 1.4까지는 2013년 1인당 GDP 수준(미달러로 표시된 현재구매력평가, 데이터 출처는 OECD, 2015a)에 따라 그룹화된 세 개의 국가 집단들의 강약점들을 요약한다. 그림 1.2는 1인당 GDP 기준 상위 1/3인 OECD 지역 내 12개 국가들(캐나다(USD 43,000)부터 룩셈부르크(USD 91,000))의 웰빙 강약점들을 보여준다. 그림 1.3은 1인당 GDP 기준 중간 수준인 11개 국가들(이스라엘(USD 32,500)부터 아이슬란드(USD 42,000))의 강약점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그림 1.4는 1인당 GDP 기준 하위 1/3에 해당하는 11개 국가들(멕시코(USD 16,900)부터 슬로베니아(USD 28,900))의 강약점들을 설명한다.

비록 1인당 GDP가 높을 국가일수록 많은 웰빙 성과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림 1.2부터 1.4까지는 높은 GDP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웰빙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매우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자원을 가진 국가들 역시 다수의 웰빙 성과에서 매우 상이한 수준의 수행도를 보여줄 수 있다. 이는 GDP 너머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국가의 평균적 웰빙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더 나은 웰빙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무엇이 효과적인지”의 측면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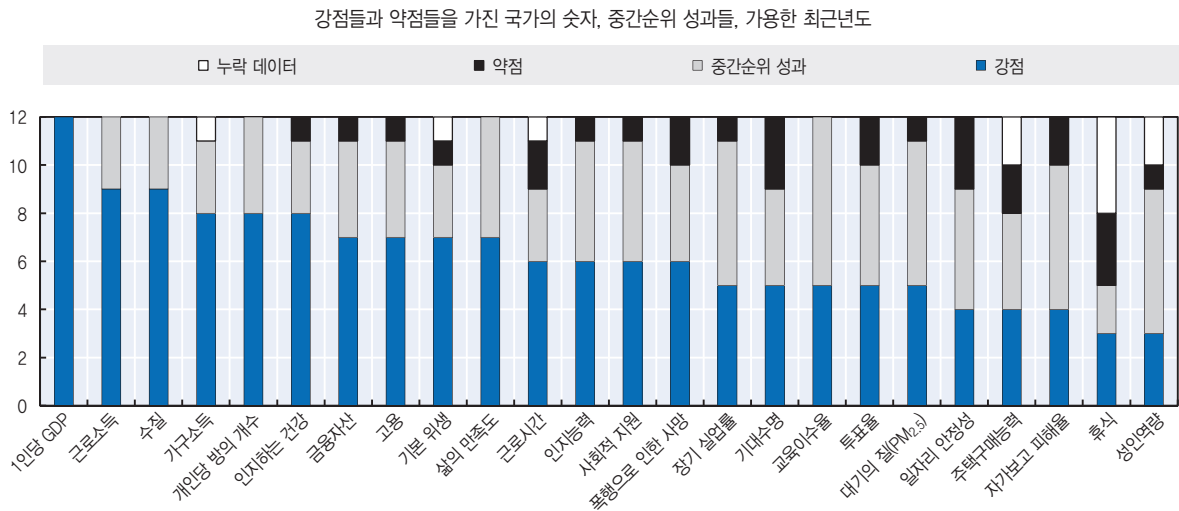
물론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국가의 위치는 전반적 웰빙 수행도의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상대적 강점과 약점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분석은 확실히 어떤 제한점이 있다. GDP와 웰빙 성과들을 “상위 1/3”, “중위 1/3”, “하위 1/3”로 분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의적인데 이러한 특정한 기준의 사용에 관한 실증적 근거(empirical basis)는 없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또한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들(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이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기대 대비 또는 특정 정책 목표 대비 모든 OECD 국가들이 좋은 수행도를 보이는 웰빙영역들을 강조할 수 없다. 미래에 이 분석을 확대해서 웰빙 측면의 불평등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웰빙 강약점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OECD 국가들(1인당 GDP 수준이 OECD 국가들 중 상위 1/3: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덴마크, 독일, 캐나다)에서 평균적인 웰빙 수행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림 1.2는 이 국가들의 성과들이, 특히 근로소득, 수질, 가구순가처분소득, 개인당 방의 개수 측면에서, 좋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최소한 2/3의 경우에서 강점임을 보여준다(그리고 GDP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에 이 영역들에서 심각한 약점을 가진 국가는 없다). GDP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또한 인지하는 건강, 기본 위생, 순금융자산, 고용, 삶에 대한 만족도, 근로시간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높은 1인당 GDP가 모든 웰빙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GDP 수준이 높은 상위 12개국 중 4개국만이 일자리 안전(실직할 가능성을 측정함)과 자가보고 피해율에서 강점을 가진다. 가용 자료가 있는 상위 GDP 국가들 중에서 1/3만이 성인역량과 휴식시간(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쓰여진 시간)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실제로 휴식시간, 일자리 안전, 기대수명은 GDP가 높은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약점 영역인데, GDP가 높은 국가들 중 최소 3개국이 이 측정법에 근거해서 OECD의 하위 1/3에 해당된다. GDP가 높은 국가들 중 최소 2개국 또한 근로시간, 주택구매능력, 폭행으로 인한 사망, 자가보고 피해율, 투표율과 관련해서 약점을 갖는다.

그림 1.2. 1인당 GDP가 최상위인 OECD 국가들의 웰빙 강약점들



주: 2013년 기준 미달러화 환산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들은 OECD 지역에서 1인당 GDP가 상위 1/3 안에 드는 국가들(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덴마크, 독일, 캐나다)이다. x축에 나타난 웰빙 지표에 대하여 “강점”은 성과가 전체 OECD 국가들(34개국) 중에서 상위 1/3 안에 드는 것을 의미하고 “약점”은 성과가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 1/3 안에 드는 것을 의미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838>

1인당 GDP가 중간 수준인 OECD 국가들의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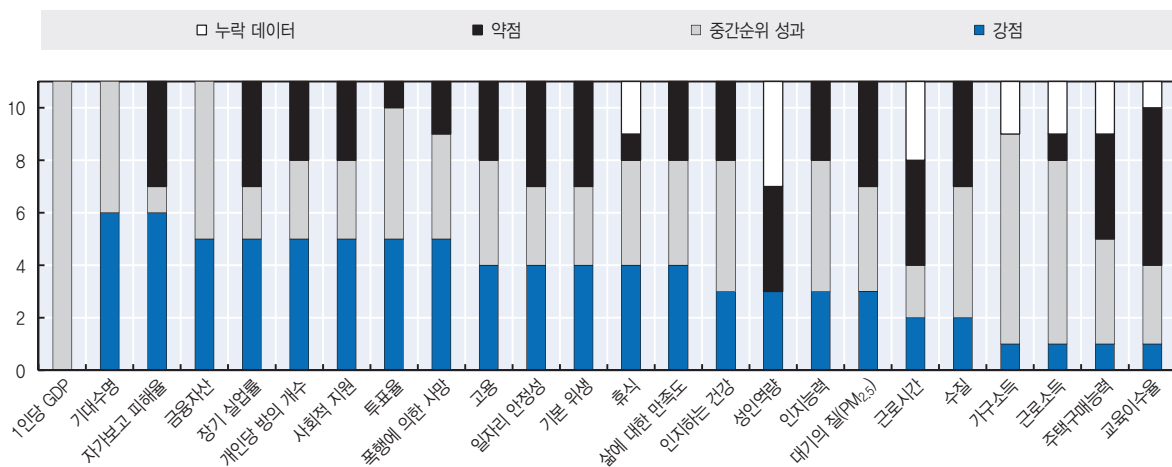
중간 순위의 GDP가 항상 중간 순위의 웰빙 성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인당 GDP 측면에서 중간 1/3에 속한 국가들(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영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이스라엘)은 중심 지표들에서 매우 뒤섞인 수행도를 보인다. 중위 GDP 국가들의 1/2 이상(11개국 중 6개국)은 기대수명과 자가보고

피해율과 관련하여 강점을 가지며, 11개국 중 5개국은 순금융자산, 투표율, 폭행에 의한 사망, 개인당 방의 개수, 사회적 지원, 장기 실업률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중위 GDP 국가들의 도전과제는 교육이수율과 성인역량인데 이 부문들은 이 중위그룹에 속한 국가들의 약 60%가 약점을 갖는다. 근로시간과 주택구매능력 역시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의 약 절반이 약점을 갖는다. 1/3 이상의 국가들이 자가보고 피해율, 장기 실업률, 일자리 안정성, 기본 위생, 대기의 질, 수질과 관련하여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위 GDP 그룹에 속한 국가 중 가구소득, 순금융자산, 또는 기대수명에서 상대적 약점을 가진 국가는 없다.

그림 1.3. 1인당 GDP가 중간 수준인 OECD 국가들의 웰빙 강약점들

강점들과 약점들을 가진 국가의 숫자, 중간순위 성과들, 가용한 최근년도



주: 2013년 기준 미달러화 환산 1인당 GDP가 중간 수준인 국가들은 OECD 지역에서 1인당 GDP가 중간 1/3에 해당하는 국가들(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영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이스라엘)이다. x축에 나타난 웰빙 지표에 대하여 “강점”은 성과가 전체 OECD 국가들 (34개국) 중에서 상위 1/3 안에 드는 것을 의미하고 “약점”은 성과가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 1/3 안에 드는 것을 의미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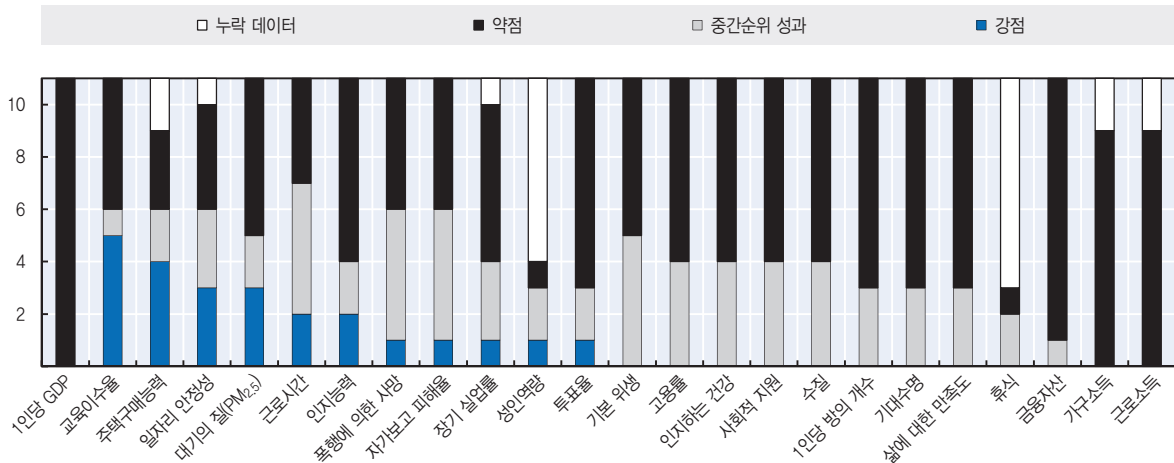
1인당 GDP 수준이 가장 낮은 OECD 국가들의 웰빙

OECD 지역에서 1인당 GDP가 하위 1/3에 속하는 국가들(슬로베니아, 체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칠레, 터키, 멕시코)은 전반적으로 중심 지표들에서 낮은 웰빙 수준을 보이지만 (그림 1.4) 예외가 있다. 이 그룹에 속하며 가용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의 거의 절반이 교육이수율과 주택구매능력과 관련하여 강점을 가지며 1/4 정도는 일자리 안정성과 대기의 질에서 강점을 가진다. 이 그룹에 속한 11개국 중 2개국은 또한 근로시간과 15세 학생의 인지능력과 관련해서 강점을 가진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특정한 공통적인 웰빙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예상대로 GDP가 낮은 모든 국가들은 가구소득과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약점을 갖는다. 2/3 이상이 또한 순금융자산, 투표율, 삶에 대한 만족도, 기대수명, 개인당 방의 개수 측면에서 약점을 갖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택구매능력과 일자리 안정성은 저소득 국가들 중 약 1/3 정도만이 약점을 가진다. 성인역량과 휴식과 관련하여 저GDP 국가들에게 매우 큰 데이터 갭(데이터 누락)이 존재한다.

그림 1.4. 1인당 GDP가 낮은 OECD 국가들의 웰빙 강약점들

강점들과 약점들을 가진 국가의 숫자, 중간순위 성과들, 가용한 최근년도



주: 2013년 기준 미달러화 환산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국가들은 OECD 지역에서 1인당 GDP가 하위 1/3에 속하는 국가들(슬로베니아, 체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칠레, 터키, 멕시코)이다. x축에 나타난 웰빙 지표에 대하여 “강점”은 성과가 전체 OECD 국가들(34개국) 중에서 상위 1/3 안에 드는 것을 의미하고 “약점”은 성과가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 1/3 안에 드는 것을 의미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857>

평균을 넘어서: 웰빙 성과들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웰빙의 분배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데이터의 가용성으로 인해 종종 제약을 받지만, 교육, 소득, 성별 및 연령과 연관된 다수의 성과 측면의 격차들은 제2장에서 설명된다. How’s Life? 2013판(OECD, 2013a)은 성별 격차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판에서는 특별히 연령과 관련된 격차를 다루며 제4장에서는 아동 웰빙의 증거자료를 보완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찰할 때 연령 자체(노화과정 또는 생애주기 변화로 인한 격차)로 인한 격차와 집단효과(cohort effect: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관련된 효과)로 인한 격차 사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게다가 생애주기의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수준,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등 삶의 상황이 보통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과 관련된 격차는 반드시 연령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은 아니고 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다른 다양한 요소들을 참조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금융위기 첫 몇 해 동안 특히 영향을 받았고(OECD, 2013b; 2014a) 이 추세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되었다. OECD 국가 2/3에서 청년(15-24세)들은 핵심생산층(25-54세) 근로자들보다 장기 실직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몇몇 국가들(예: 벨기에, 헝가리, 호주, 룩셈부르크, 영국, 이탈리아)에서 청년 장기 실업률은 핵심생산층 근로자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이다.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몇몇 국가(예: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에서 발생했던 장기 실업률 급등은 또한 핵심생산층 근로자와 비교해서 15-24세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쳤다.

OECD 국가들 내 젊은 노동연령인구는 나이든 세대에 비해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연령 집단에 비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있다고 느낄 확률이 높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15-29세의 93%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보고하는 반면에, 50세 이상은 87%만이 그렇다고 말한다.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의 연령 관련 격차는 터키, 한국, 칠레, 그리스, 포르투갈에서 특히 크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에서는 매우

작다. 50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른 연령대의 성인들보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적는데 15-29세와 30-49세인 사람들의 약 75%가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반면에, 50세 이상 사람들의 68%만이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주관적 웰빙 성과 측면에서, 연령 관련 격차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몇몇 남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일상적인 감정과 느낌은 나이든 연령 집단들 사이에서 낮은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북유럽 및 영어사용 국가들에서 주관적 웰빙 성과는 중년층(30-49세)에서 가장 낮고 50세 이상 연령층이 주관적 웰빙을 느끼는 정도는 15-29세 연령층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연령별 주관적 웰빙에 대한 격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는데, 특히 많은 노르딕 국가들에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령별 격차가 매우 작다.

제2장에서 연구되는 다른 웰빙 격차들에는 장기 실업률, 일과 삶의 균형, 개인적 안전과 관련된 남성과 여성 간 격차가 포함된다. 모든 국가들에서 성별 격차는 젠더격차(gender gap)의 규모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 차이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양하다(즉, 특정 성과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더 나은 수행도를 보여주는지). OECD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현재 장기적으로 실직할 가능성이 동일하게 높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당 50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대체로 시간을 덜 할애한다(이는 일에 대한 전체적 부담(유급근로와 무급근로)이 여성에게 훨씬 높은 것을 의미함). 남성의 전일제, 전년제 근로소득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보다 높는데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평균 약 85센트를 번다.³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은 또한 남성에게 비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밤거리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남성은 폭행에 의한 더 높은 사망률을 경험한다.

교육의 편익은 대개 일자리와 근로소득이라는 틀 안에서 집계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민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제5장 참조)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보고하며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웰빙 측면에서 다른 형태의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관련된 격차의 크기는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가용 데이터가 있는 OECD 15개 국가에서 대졸 학력을 가진 30세 남성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에게 비해 평균 8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이 격차의 크기는 국가에 따라 18년에서 4년까지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니계수와 십분위 간 소득비율(S90/S10)⁴을 통하여 측정된 소득 불평등 또한 OECD 국가들 사이에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 칠레, 멕시코에서 상위 10%(하위 10% 대비)가 벌어들인 소득의 몫의 비율은 덴마크,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 관찰된 비율보다 3배 이상 높는데 이는 앞에 언급된 3개국 뒤에서 언급된 5개국보다 훨씬 소득 집중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순가구자산(비금융자산 포함) 분배에 관한 새로운 OECD 데이터는 자산이 소득보다 훨씬 불균등하게 분배됨을 시사한다: 순자산에 관한 가용 데이터가 있는 18개국의 분포도에서 최상위 십분위가 전체 가구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전체 가구 자산의 약 50%를 차지한다.

지난 수년간 삶이 어떻게 변화였나?

물질적 웰빙이 어떤 사람에게는 개선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악화되었다.

평균 OECD 거주자의 물질적 웰빙은 금융위기 초반 몇 년 이래로 느리게만 회복되고 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이후 가구 평균 순금융자산이 OECD 국가 전체에서 증가했지만 2013년의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은 2009년보다

실제로 겨우 1.9%가 더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2013년 OECD 지역의 연평균 총 근로소득은 2009년보다 겨우 2.3%가 더 높았던 반면에 2014년 평균 고용률은 2009년보다 약 1% 포인트 높았다. OECD 국가 중 2/3 이상에서 2014년 장기 실업률은 2009년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됐다. 2013년에 실직될 가능성은 2009년보다 1.8% 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실제로 OECD 평균은 국가별 물질적 웰빙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숨기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소득, 고용률, 근로소득은 2009년 수준과 비교해서 하락했고 이 국가들은 또한 장기 실업률, 전체소득에서 주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실직 가능성의 영역에서 큰 상승을 경험했다(스페인의 경우는 예외인데 실직 가능성이 2009년에 이미 OECD 평균 수준의 2배를 넘음).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슬로베니아는 또한 장기 실업률, 고용률, 근로소득, 가구소득(덴마크는 예외) 등과 같은 몇 가지 지표에서 2009년 이래 물질적 조건의 악화를 겪고 있다. OECD 국가 중 1/4 이상에서 2014년의 장기 실업률과 실직 가능성이 2009년보다 여전히 높았다. 1/3 이상의 국가들에서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순가구가처분소득이 실질적으로 하락했는데 연평균 총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에 주택 구매능력이 전체 OECD 국가들 중 절반의 국가들에서 하락했다. 2011년부터 가용 데이터가 있는 최근년도(대개 2012년) 사이의 십분위 간 소득비율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이스라엘에서 증가했는데 이는 예전보다 전체 소득 중 더 많은 비율이 최상위 10%에게 돌아감을 시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는 미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에서 또한 증가했지만 슬로바키아와 이스라엘에서는 감소했다.

한국과 독일은 2009년 이래 물질적 조건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개선을 경험하고 있는데 가구소득, 금융자산, 고용률, 근로소득이 모두 상승했고 동시에 장기 실업률, 실직 가능성, 기본 위생이 없는 가구 수가 감소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1인당 가구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고용률이 상승했고 장기 실업률이 하락했고 총소득에서 주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고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가구 수가 감소했으나, 평균 근로소득은 약간 줄었다. 에스토니아, 일본, 캐나다, 스웨덴에서 가구소득, 고용률, 근로소득, 금융자산이 증가했고 실직 가능성은 감소했으나 스웨덴과 캐나다는 (대다수의 OECD 국가들처럼)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장기 실업률의 증가를 경험했다.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 이상의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의 (누적)증가를 경험했다. 헝가리와 터키는 실업률의 커다란 상승 및 장기 실업률과 실직 가능성의 하락을 경험했으나 헝가리에서는 평균 가구소득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평균 근로소득은 소폭 하락했다(이 지표들에 관한 터키 데이터 가용 불가).

2009년 이래 삶의 질의 변화는 엇갈린 양상을 띤다.

삶의 질 측면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은 더욱 제한적이며 가용 데이터도 엇갈린 양상을 보여준다. 건강 측면에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OECD 국가에서 평균 기대수명은 9개월 늘어난 반면에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성인(25-64세) 비율은 OECD 지역 전체에서 3%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투표율은 2007년 이래 평균 5% 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주당 50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이래 0.5%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OECD 평균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 비록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기대수명은 대개 안정적이거나 개선되고 있었으나 일부 국가들은 동 기간에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개선을 경험했다. 2009년 이래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는 아이슬란드, 일본, 독일(2009년의 평균 기대수명이 이미 높은 수준임)의 수개월부터 터키와 에스토니아(OECD 지역에서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낮았음)의 2년 이상에 이르기도 했다.

-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성인의 비율은 포르투갈,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이 영역의 성과가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밑돌음)에서 가장 많이 증가(5% 포인트 이상)했다. 미국, 슬로바키아, 독일, 스위스에서 교육이수율의 증가가 가장 적었는데 이 국가들의 수준은 2009년에 이미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몇몇 국가들에서 규칙적으로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승했으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 비율이 하락했다. 영국, 아일랜드, 슬로바키아에서 1% 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고 포르투갈, 칠레에서 4% 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브라질, 체코, 이스라엘, 터키에서 장시간 근로 발생률이 2%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OECD 국가 중 2/3에서 투표율이 하락했는데 가장 커다란 감소는 미국, 일본, 그리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발생했다. 투표자 수는 한국, 폴란드, 영국, 이스라엘, 터키에서 더 안정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멕시코에서는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 에스토니아, 칠레 등 다른 몇몇 국가에서는 하락했다.

어떤 국가도 2009년 이래 웰빙의 “모든 영역에서(across the board)” 강력한 개선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웰빙 성과들은 다른 속도로 진화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5년 동안에 물질적 조건에서 강력한 개선을 경험했지만 자가보고 건강(self-reported health)과 인지하는 사회적 지원(perceived social support)에서 감소가 나타났고,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의 비율이 증가했다. 멕시코는 물질적 웰빙의 몇몇 측면에서 개선을 경험했으나, 평균 근로소득과 인지하는 사회적 지원이 소폭 하락했고 폭행에 의한 사망률은 크게 증가했다. 독일은 물질적 조건의 많은 측면에서 강력한 개선을 경험했으나 평가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삶의 질 성과에서 비교적 적은 변화가 기록됐고 2005년 의회선거 이래 투표율은 하락했다.

금융위기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은 2009년 이래 다수의 웰빙 성과에서 전반적으로 극심한 하락을 경험했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그리스는 모든 물질적 웰빙 성과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 영역(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 밸런스)과 투표율에서 매우 강력한 하락을 겪었다. 그리스는 성인의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의 상승과 기본 위생 시설이 없는 가정 비율의 하락을 경험했다.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웰빙 변화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공유했지만 대부분의 지표에서 덜 심한 하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포르투갈에서 거의 두 배(4.4% 포인트 증가)가 되었지만 그리스에서의 증가폭은 이보다 적었다(1% 포인트 증가).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

How's Life? 본 판은 사람들의 미래 웰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 지표를 최초로 제시한다(제3장). 제시된 지표들은 현재에 측정될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웰빙 기회를 결정할 자원과 관련 있다. 선택된 지표들은 네 종류의 자원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웰빙 “자산(wealth)”의 축적물(stores)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들의 총량(stocks)이다. 이 자원들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갈 및 총량의 안정성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위험요소들 역시 고려되었다. 이 잠정 지표들은 국제통계기판장회의(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14)에 의해 권고되었고 How's Life? 2013판에서 논의되었던(제6장, OECD, 2013a)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측정 프레임 워크의 요소들을 시행한다.

제3장에서 제시되는 일련의 제한된 지표들은 시간 경과에 따른 웰빙의 유지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고 특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많은 경우에서 데이터 갭이 상당한데 특히 여러 국가들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자본 총량의 변화를 측정할 때 특히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용한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폭넓은 패턴을 찾을 수 있다:

- **자연 자본**의 경우, 기후변화 위험은 미래의 웰빙에 큰 위협을 계속 제기한다. 대기권의 온실가스 농도는 지난 4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몇몇 OECD 국가들에서 달성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증가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의 웰빙 상황(제2장)에서 고찰됐지만 초미세먼지(PM_{2.5})에 대한 만성적 노출 역시 미래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약 40%의 OECD 거주자들은 연간 미세먼지 노출도가 권고수준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OECD 지역 내에서 약 42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와 EU의 대기의 질 가이드라인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입방미터당 연간 25에서 35마이크로그램의 PM_{2.5}에 노출되어 있다. 산림은 인간의 웰빙을 이롭게 하는 많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OECD 지역 국가들은 세계 산림 지역의 약 25%를 차지한다. 2000년 이래 OECD 전체적으로 1천명당 평균 산림지역이 7% 감소했는데 이는 총 토지에서 차지하는 산림 면적(cover) 비율이 소폭 감소했고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림 지역의 전 세계적 손실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연간 약 520만 헥타르(대략 코스타리카 크기임)로 추정된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10).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은 또한 대부분 OECD 국가들의 우려 사항인데 상당한 비율의 포유류, 조류, 관속식물들이 멸종위기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 **인적 자본** 총량의 몇 가지 요소들은 대다수 OECD 국가들에서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노동연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OECD 전역에 걸쳐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34세 연령대 사람들의 교육이수율이 몇몇 국가에서 제자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하락함에 따라 미래에 현재 노동인구의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장기 실업률은 또한 인적 자본을 고갈시킬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 실업률이 몇몇 국가에서 급증했고 2014년에 OECD 국가들의 2/3에서 2009년보다 높았다. OECD 전역에서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위험 요소들은 미래에 사람들이 경험할 건강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흡연율은 2000년 이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하락했지만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비만율의 증가는 미래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 **사회적 자본**은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로도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사회적 신뢰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최신 데이터는 유럽 국가들에게만 한정된다. 이 데이터는 유럽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보다 높으며 경찰에 대한 신뢰는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고소득 집단 및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반면에 실직자는 고용된 사람, 은퇴자 또는 교육 혹은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준다(유럽통계청, 2015a). 현재 웰빙에 대한 측정방법으로써 시민참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 보여질 수 있다. 투표율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2007년 이래 투자를 덜 한다: 34개 OECD 국가들 중 21개국에서 투표율이 하락했고 평균 감소율은 5% 포인트였다. 자원봉사 역시 사회적 자본 총량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ECD 국가들에서 성인 3명 중 대략 1명이 1년에 최소 1회 기관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증거자료는 자원봉사가 상당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짐을 시사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 참조).
- **경제적 자본**의 수준은 OECD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가구 차원의 순금융자산(비금융자산 제외)은 2009년보다 2013년에 더 높다. 가구부채를 따로 고찰하면(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2013년 OECD 평균 가구부채수준은 2007년보다 약간 낮지만 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패턴을 숨기고

있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5개 국가에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1인당 순고정자산(net fixed assets) 총량은 증가했다. 그러나 OECD 전체의 고정자본(fixed capital)에 대한 투자율은 2008년과 2009년에 크게 하락했다. 2010년에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율이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되었으나 최근 수년동안 미약한 상태이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 1인당 재무상태 역시 최근 10년간 OECD 국가별로 각기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은행권의 레버리지와 일반정부 부문의 금융순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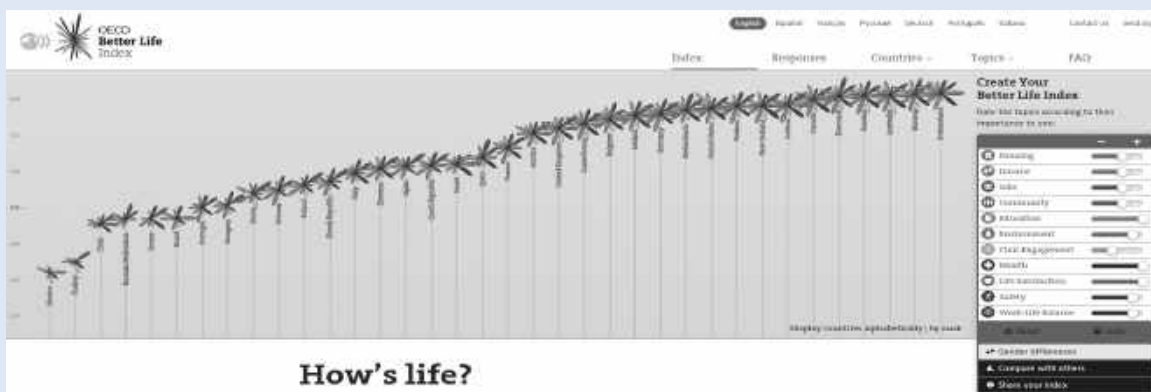
웰빙의 어떤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 또 누구에게 중요한가?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웹사이트는 일련의 쌍방향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제2장에서 설명되는 일부 웰빙 통계를 사용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박스 1.3). 현재 7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 웹사이트는 2011년 5월에 개설된 이래 7백만의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이 사이트의 주요 특징은 사용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웰빙 영역들의 점수를 매김으로써 맞춤형된 전반적 웰빙 지수를 구축하도록 요청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춤형된 지수에 근거한 전반적 수행도의 측면에서 국가들의 순위를 볼 수 있다.

박스 1.3. 더 나은 삶 지수: 운영 방법

더 나은 삶이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웰빙의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한가? 더 나은 삶 지수(BLI)는 OECD, 러시아, 브라질의 웰빙 통계치를 연구하는 쌍방향 웹사이트이다. 이 도구는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4개의 중심 웰빙 지표들에 근거하며, 웰빙을 측정하는 OECD 프레임 워크의 11개 영역을 반영하여 11개의 종합적이며 정규화된 측정치로 합산된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그림 1.5의 우측에 있는 툴바를 사용하고 11개의 영역에 근거해서 자신의 요약 지수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이 각 영역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에 따라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림 1.5. 더 나은 삶 지수(B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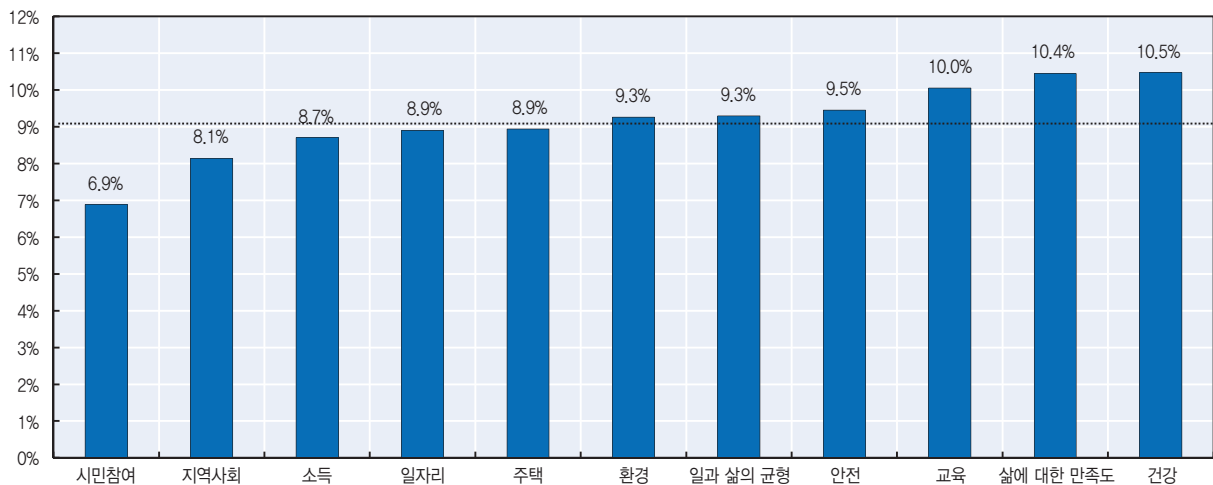


출처: www.oecdbetterlifeindex.org.

이 웹사이트는 또한 사용자들이 웰빙 측면에서의 성별격차를 살펴보고, 주제별 및 국가별로 분류된 웰빙 통계치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에 대해 자신이 부여한 중요도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OECD와 공유할 수 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OECD 지역 내에 거주하는 약 74,000명의 BLI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웰빙 영역에 대해 자신들이 매긴 순위를 공유했다. 이 순위는 대개 웰빙의 모든 영역들이 중요하다고 간주되지만 건강, 삶에 대한 만족도, 교육이 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참여와 지역사회는 평균적으로 낮은 순위에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그림 1.6).⁵ 자신들의 BLI 순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나 성별과 연령 측면에서 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예컨대, 어리거나 나이 든 여성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편향(bias)을 교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조정했다.⁶ 그러나 이러한 조정작업 후에도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데 사용자 표집이 랜덤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고, 웹사이트에는 OECD의 작업에 대해 알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층이 제공된 언어 사용자들에 한정된다는 점 때문이다.⁷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웰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사용자들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영역을 조망할 수 있다. 박스 1.4는 이 영역에 대한 최근의 다른 연구에 관해 설명한다.

그림 1.6. OECD 국가들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사용자들의 웰빙 우선순위



주: 사용자들이 제공한 연령과 성별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표본의 연령 및 성별 구성에서의 편향(bias)을 교정하기 위해서 응답들에 대해 사후 가중치를 두었다. 웹사이트는 0-5 평가 척도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평점은 할당된 총 평점에 대한 %로 표현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11개의 모든 영역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주었다면 각 영역은 전체에서 9.09%를 얻은 것이다(이 수준이 그림에서 수평 점선으로 보여짐).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용자가 건강을 "5"로 평가하고 다른 성과들을 "4"로 평가한 경우 모든 가중치들의 합은 45가 될 것이며 전체에서 건강이 차지하는 평점은 11.1%가 될 것이다.

출처: OECD 거주자들에 의해 공유된 73,761 명의 BLI 사용자 평점에 근거한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861>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의해 여러 영역들에 할당되는 평점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특히 소득(여성 평점: 8.4%, 남성 평점: 9%), 환경의 질(여성 평점: 9.4%, 남성 평점: 9.1%), 지역사회 유대감(여성 평점: 8.3%, 남성 평점: 8%) 영역의 경우에 약간의 격차가 있다. 또한 다른 연령 집단에 의해 할당되는 평점에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부록 1.B, 그림 1.B.1과 1.B.2 참조). 예를 들어, 모든 연령 집단의 사람들이 교육에 비교적 높은 평점을 부여하지만 이 경향은 25세 미만의 사람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득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약간 낮게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젊은 노동연령 인구는 교육, 소득, 일자리, 삶에 대한 만족도에 조금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환경, 건강, 시민 참여에 조금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다. 일과 삶의 균형에 부여되는 중요도 역시 25-34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고 55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반면에, 안전과 주택은 25-34세 연령 집단 사이에서 다소 덜 중요하게 나타났다. 연령 집단 사이의 이러한 차이들은 흥미롭지만, 다른 영역에 주어진 평점에서의 전반적 차이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 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과들에 관한 여러 연령대 사람들 간의 일치가 불일치보다 더 큼을 보여준다.

박스 1.4.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측정하기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더 나은 측정의 중요성은 최근 연구에 반영되고 있는데, 상세한 질문과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해서 웰빙 영역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관련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예: Benjamin, Heffetz, Kimball and Szembrot, 2014; Benjamin, Heffetz, Kimball and Rees-Jones, 2014; Becchetti, Corrado and Fiaschetti, 2013; Kettner, Koberl, Mayrhuber and Karmasin Steiniger, 2012). 국가통계청에 의해서 시작된 웰빙의 측정을 위한 다수의 이니셔티브들은 또한 광범위한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s)를 거치는데 사람들에게 웰빙이 어떤 의미이며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예: 호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2015년에 프랑스와 독일은 새로운 공공 협의를 시작했는데, 정책 입안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들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진보의 개념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한 양국의 과거 위원회(commissions)를 기반으로 했다(프랑스 전략연구소와 CESE, 2015; 독일연방정부, 2015). 곧 발표 예정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해서(SDGs, 아래 박스 1.7 참조), 유엔 역시 글로벌 온라인 조사("My World")를 개설해서 17개의 목록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6 가지 이슈에 관한 투표를 하도록 사람들에게 요청한다: <http://vote.myworld2015.org/>.

사람들에게서 웰빙에 관한 견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주된 이유는 이 분야에서의 측정 노력이 좋은 삶을 위해 사람들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맥락에서 사람들의 웰빙 우선순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정책을 위한 타깃 설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목표들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s) (예: 물질적 웰빙 성과와 일과 삶의 균형 사이의 상충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것과 다른 집단들 사이에 이러한 견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웰빙 데이터의 측정과 사용: OECD와 파트너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OECD는 웰빙 측정에 관한 통계적 과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본 판의 다른 장들에서 측정상 주요 도전과제들과 구체적 분야에서의 우선순위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이 섹션에서는 OECD와 파트너들이 이러한 갭의 일부를 메우기 위해 시작한 주요 이니셔티브들에 관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OECD의 정책작업에 웰빙 지표들을 도입하기 위해 이미 취해진 조치들도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은 2015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합의된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이 분야에서 미래 통계과제에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현재 웰빙의 측정법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OECD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 가구경제자원의 분배에 관한 OECD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개발. 18개 OECD 국가들의 가구자산분배에 관한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 데이터베이스의 개설이 포함된다(<http://stats.oecd.org/Index.aspx?Data>

SetCode=WEALTH). 새 온라인 툴도 개발되었는데 방문자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신의 인식 및 이상을 자국 내 현실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www.oecd.org/statistics/compare-your-income.htm). 미시적 가구 데이터와 거시적 가구 데이터를 조율하기 위해서 OECD는 국민계정 프레임 워크(national accounting framework) 안에 있는 가구들 간의 격차를 측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예: Fesseau and Mattonetti, 2013a; Fesseau, Wolff and Mattonetti, 2013b).

-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측정하며 평가하는 작업(박스 1.5)
- OECD의 젠더 데이터 포털(Gender Data Portal). 교육, 고용, 기업가(entrepreneurship) 성과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업데이트된 통계를 계속 제공함(www.oecd.org/gender/data).
-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ies)을 측정하는 새 프로젝트. 성별, 교육, 사망원인에 따른 연령 측면에서의 격차에 대해 보다 비교가능한 측정치의 수집을 목적으로 함.

박스 1.5. OECD 일자리의 질 프레임 워크

일자리의 질은 근로자의 웰빙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OECD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고차원(high-level) 지표를 개발했다: i) 근로소득의 수준과 노동인구에 분배되는 근로소득을 감안한 근로소득의 질에 관한 복합 지표(synthetic index), ii) 실업의 위험, 실업의 예상기간, 보장범위와 액수 측면에서의 실업보험을 결합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지표, iii) 근무 환경의 질 측정치로 높은 직무요구도(예: 시간압박, 신체적 건강 위험에 대한 노출도)와 낮은 업무 자원(예: 업무 자율성,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을 결합해서 반영한 직무긴장(job strain)에 초점을 맞춤.

일자리의 질에 관한 OECD 작업의 다른 산출(outputs)에는 근무 환경의 질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 인벤토리 (Inventory of Survey Questions on the Quality of Working Environment)가 포함되는데 이는 OECD와 비OECD 국가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 데이터 출처이다. 일자리의 질(Job Quality)에 관한 새 OECD 데이터베이스는 www.oecd.stat.org를 통해서 2015년 말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는 OECD의 일자리의 질 지표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데이터세트는 또한 세분화된 데이터(disaggregated data)를 제공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근로자의 특징과 관련된 일자리의 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다음 단계에, OECD는 “근무 환경의 질(qual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에 관한 측정 가이드라인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데, 데이터 생산자는 이 가이드라인들을 사용하여 데이터 갭을 메우고 미래에 측정치들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OECD(2014b), OECD Employment Outlook 2014의 “How good is your job?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6-en; Cazes, Hijzen과 Saint-Martin(2015), 출간 예정.

몇몇 측정 이니셔티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웰빙의 유지를 돕는 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들의 품질과 포괄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타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관한 더 개선되고 정책 관련성이 높은 지표들을 만들기 위한 새 방법론적 작업. OECD 신뢰전략(OECD’s Trust Strategy)의 일환임. 이 활동은 최근에 설립된 UN City Group of Governance Statistics의 업무에 기여할 것이다(Praia 그룹; 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15). 거버넌스 통계에 관한 다른

진척사항에는 출간 예정인 규제정책개관(Regulatory Policy Outlook, OECD, 2015b)이 있는데 이 보고서는 2014 OECD 규제지표 설문조사(Regulatory Indicator Survey)를 기반으로 정부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관한 새로운 종합지표(composite index)를 제시할 것이다.

- 새로운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핵심 프레임 워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OECD 내에서 진행 중인 작업은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s)에 관한 비교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분류, 회계 규정을 명시하고 국민계정 프레임 워크와 호환가능한 구조를 채택한다(UNSC, 2012).
- 녹색 성장 지표 이니셔티브(OECD, 2014c)는 자연자산기반(natural asset base)과 그 기반의 관리 그리고 삶의 환경적 질의 측면에 관한 개선된 측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최근의 혁신적 작업에는 인공위성 기반 관측치(satellite-based observations)에서 가져온 초미세먼지(PM_{2.5})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의 새 추정치를 포함한다(Brezzi and Sanchez-Serra, 2014; OECD 2014d). 미래에는 지리공간 및 지리참조(geospatial and geo-referenced) 데이터가 자연자산기반(예: 토지사용 및 토지 피복)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적 질의 측면(예: 녹색 공간의 접근)에 관한 국가 정보와 국가 내 하위 지역(sub-national) 정보의 귀중한 출처를 제공할 수 있다.

2013년, OECD의 주도 아래, 경제적 수행도와 사회적 발전도 측정 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의 권고안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행도와 사회 발전도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igh-Level Experts Group: HLEG)이 설립되었다(Stiglitz, Sen and Fitoussi, 2009). 고위전문가그룹(HLEG)은 그 업무를 4개의 평가 영역, 즉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다차원적인 글로벌 불평등, 주관적 웰빙,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구체적 내용은 www.oecd.org/statistics/measuringeconomic-social-progress 참조).

2013년 이래 How's Life? 시리즈도 확장되고 있다. How's Life in Your Region?(당신 지역에서의 삶은 어떤가?) (OECD, 2014d)는 OECD 362개 지역들의 웰빙 성과를 하위 지역(sub-national) 차원에서 고찰한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데이터 시각화 툴에 의해 보완되었는데(www.oecdregionalwellbeing.org/), 시각화 툴에는 How's Life? 웰빙 영역들 중 8개의 영역이 포함된다. 웰빙 측면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핵심 발견내용들과 지역적 웰빙 이니셔티브의 근거가 되는 통계적 작업이 본 보고서의 제6장에서 논의된다. OECD와 클리오 인프라(Clio Infra) 연구 프로젝트 사이에 맺어진 최근의 파트너십을 통해 또한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이 2014년에 출간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웰빙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전 세계적인 추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van Zanden et al., 2014).

웰빙 지표들은 이미 새로운 혹은 기존의 다양한 OECD 정책 활동에 도입되고 있다(박스 1.6). 다양한 이벤트와 플랫폼을 통해서 OECD는 또한 정책입안자들, 통계학자들, 시민사회, 연구 단체를 웰빙 관련 활동에 관여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정책을 변화시키면, 삶이 변한다(Transforming Policy, Changing Lives)”라는 주제로 멕시코 구아달라자라(Guadalajara)에서 2013년 10월에 개최된 제5차 OECD 통계, 지식 및 정책 세계포럼(5th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사들의 목적은 웰빙과 사회발전 측정방법과 새 측정치들을 정책입안에 통합시키는 방법에 관해 진행 중인 숙고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OECD가 만든 웹사이트인 Wikiprogress.org는 웰빙과 진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연구학자들, 정책 입안자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위한 온라인 지역사회를 구축 중이다.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OECD, 2013c)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OECD는 또한 주관적 웰빙 데이터의 측정과 정책적 사용에 관한 일련의 지역 워크숍들을 개최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정책, 통계, 시민사회, 학계에서 온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사용자를 참여시킨다. 이러한 논의들의 성과는 OECD 가이드라인의 향후 발간물에 반영될 것이다.

박스 1.6. 웰빙 통계를 OECD 정책 조언에 도입

웰빙 지표들은 OECD 내의 다양한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활동에 도입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8개월마다 OECD 국가들에 관한 상세한 경제적 검토를 제공하는 국가 경제조사(Economic country surveys)는 해당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개선시킬 잠재력이 있는 정책들에 초점을 둔다. 이 조사는 대개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에서부터 과세, 공공 지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최근에 발행된 호주(OECD, 2013d), 미국(OECD, 2014e), 이탈리아(OECD, 2015c), 멕시코(OECD, 2015d)에 관한 리뷰에는 웰빙 및 웰빙의 분배 측면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개발정책에 관한 조언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는 다차원적 국가리뷰(MDCRs)는 OECD 프레임 워크를 비회원국 상황에 적합하게 맞춘다. 다차원적 국가리뷰는 OECD 개발센터에서 수행되는데 다수의 개발 목표들을 고려하고 OECD 국가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웰빙 프레임 워크에서 채택된 프레임 워크에 근거한다 (Boarini, Kolev and McGregor, 2014).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기대되는 발전도를 기준으로 어떤 국가의 다양한 웰빙 영역들에서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다차원적 국가리뷰의 목표는 한 국가가 좀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진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한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얀마(OECD, 2013e), 우루과이(OECD/ECLAC, 2014)를 위해 평가 리뷰들이 출간되었고 필리핀, 아이보리 코스트, 페루, 카자흐스탄을 위한 리뷰가 진행 중이다.
- OECD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프로젝트는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NAEC) 이니셔티브*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균형이 이뤄져야하는 정책 옵션들과 상충관계(trade-offs)를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계작업은 경제성장이 다양한 인구 집단을 위한 더 높은 삶의 기준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측정 프레임 워크의 개발을 포함한다. 이 틀은 전체 인구에 걸쳐서 정책이 웰빙 영역의 하위세트(소득, 고용,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사회적 진보를 위한 기술(Skills for Social Progress)은 소득, 고용, 건강, 주관적 웰빙 등 광범위한 물질적·비물질적 웰빙 성과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감정적 스킬(예: 인내심, 친화력, 자존감)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찰한다. 2015년에 OECD 9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 세트를 근거로 수행된 분석작업을 통합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OECD, 2015e),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9년부터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 OECD가 주도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tudy)가 시행될 것이다.

* NAEC 이니셔티브는 정책에 대해 좀 더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권장하며, 좀 더 통합적인 정책 분석을 위한 틀을 개발하며, 실험적·행태론적 과학으로부터 전문기술을 도입한다. 2015 NAEC 종합보고서에서는 성장이 모든 사람을 위한 진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웰빙과 그 분배에 더 역점을 둘 것을 요구하며”, “정책 선택(policy choices)은 선택이 다양한 웰빙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분배에 따른 결과를 평가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OECD, 2015f).

유럽 내에서 유럽통계청은 EU를 위하여 일련의 삶의 질(QoL)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유럽통계청, 2015b). 온라인 출간물(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dicators)은 가용한 정보를 상세히 보여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세와 국가별 그리고 다른 인구 집단별 차이점을 설명한다. 최근에는 2013년 EU 소득 및 생활수준 데이터 수집의 일환으로 웰빙에 관한 임시 모듈을 실행시켜서(fielding)

주관적 웰빙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한 양질(high-quality)의 추정치(유럽통계청, 2015c)와 사회적 신뢰에 관한 통계치(유럽통계청, 2015a)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본 보고서의 제2장과 제3장에서 각각 제공된다. 웰빙의 측정과 시간 경과에 따른 웰빙의 유지에 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개별 국가들에서도 진행 중인데, 호주(ABS, 2014),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통계청, 2014), 프랑스(INSEE, 2015), 독일(DESTATIS, 2014), 이탈리아(ISTAT, 2015), 멕시코(INEGI, 2014), 네덜란드(네덜란드 통계청, 2015), 스페인(INE, 2015), 스위스(FSO, 2014), 포르투갈(포르투갈 통계청, 2014; 2015), 영국(ONS, 2015)의 국가통계청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박스 1.7)는 향후 15년간 전 세계적인 통계역량 구축에 특히 역점을 둔다. SDG는 지속 가능한 개발 사례의 이행(implementation)에 관심을 가지며,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우선순위를 강조한 정치적으로 절충된 일련의 야심찬 목표 및 타깃들이다. SDG 프로세스가 정책 중심(policy-driven)의 실행과제이지만 “GDP를 넘어선 수행도 평가(measuring performance beyond GDP)”에 관한 통계과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왜냐하면 SDG가 담고 있는 많은 목표들, 타깃들, 지표들이 본 보고서에서 설명되는 웰빙 성과들과 일정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럽통계기관장회의(CES)의 권고안들(유럽경제위원회, 2014)은 이 이슈를 “현재 여기”, “미래”, “다른 국가들(그 밖의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웰빙 욕구(needs)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루었다. 어떤 경우들에서는 SDG 감시에 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계인프라 구축을 강조할 것이다. 다른 경우들에서는 거버넌스(예: 거버넌스 통계에 관한 파리 그룹)와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한 측정 이니셔티브들 또는 새로운 방법론(빅데이터, 지리공간 및 지리참조 데이터의 사용 등)에 관한 측정 이니셔티브들 역시 웰빙측정 과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박스 1.7.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포스트 2015 개발 과제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웰빙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측정 과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보편적이며,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든 국가에서 이루고자하는 전 세계적 목표인 SDG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잇는 야심찬 프레임 워크다.

SDG를 위한 제안들은 유례를 찾기 힘든 광범위한 다차원적 이행당사자 협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발되었다. 2014년 7월에, 유엔 총회의 위임 아래, 정부간 공개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Open Working Group)은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169개의 타깃을 설정했다(OWG, 2014). 2015년 가을에 유엔총회에서 SDGs가 채택되면 그 이후에 유엔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의 주도에 따라 목표 대비 진전도를 감시하기 위한 지표세트를 개발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본 보고서가 집필 중인 현재 시점에서, 지표 프레임 워크는 유엔통계위원회의 2016년 3월 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sustainabledevelopmentgoals>

주

1. 2010 가격으로 보고됨; 전체 정의는 박스 2.1 참조.
2. 일상의 감정들은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되는데, 긍정적 감정 밸런스란 사람들이 보고하는 긍정적 느낌들과 감정들이 부정적 느낌들과 감정들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제2장, 박스 2.11).

3. OECD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의 중위임금과 여성의 중위임금 간의 차이를 남성의 중위임금으로 나누어 구해지며 15.5%이다.
4. 최상위 10%가 수령하는 소득의 몫을 최하위 10%가 수령하는 소득의 몫으로 나누어서 구함(S90/S10).
5. BLI 사용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순위를 매기는 방법의 국가별 차이를 보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www.oecdbetterlifeindex.org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사용자 평균 순위는 이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표본 편향(bias)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
6. 데이터는 사용자가 제공한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해서 연령과 성별 측면에서 국가 내 인구의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사후에 교정되었다. 설계 가중치는 포함확률(inclusion probability)의 역순으로 계산되고 재설정(rescale)되어 표본규모에 합산된다. 그러나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같은 기타 중요한 특징에 관한 데이터는 가능하지 않다.
7. 웹사이트 방문자가 마음 속 견해를 표현하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모든 사용자가 각 영역이 무엇을 나타내도록 의도되는지에 관한 공통된 인식을 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이트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참고문헌

-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4),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2013*, www.abs.gov.au/AUSSTATS/abs@.nsf/mf/1370.0 (accessed on 22 May 2015).
- Alkire, S. and M.B. Sarwar(2009), *Multidimensional Measures of Poverty and Well-being*,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Oxfor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Oxford.
- Anand, P., M. Durand and J. Heckman(2011), "Editorial: The Measurement of Progress – som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Vol. 174, pp. 851-855.
- Becchetti, L., L. Corrado and M. Fiaschetti(2013), "The heterogeneity of wellbeing 'expenditure' preferences: evidence from a simulated allocation choice on the BES indicators", *CEIS Research Paper 297*, Tor Vergata University,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44695.
- Benjamin, D.J., O. Heffetz, M.S. Kimball, and A. Rees-Jones(2014), "Can Marginal Rates of Substitution Be Inferred From Happiness Data? Evidence from Residency Cho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4, No. 11, pp. 3498-3528.
- Benjamin, D.J., O. Heffetz, M.S. Kimball, and N. Szembrot(2014), "Beyond Happiness and Satisfaction: Toward Well-Being Indices Based on Stated Prefer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4, No. 9, pp. 2698-2735.
- Boarini, R., A. Kolev and A. McGregor(2014),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in Countries a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Towards a More Universal Conceptual Framework", *OECD Development Centre Working Papers*, No. 32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ss4hv2d8n-en>.

- Brezzi, M. and D. Sanchez-Serra(2014), “Breathing the Same Air? Measuring Air Pollution in Cities and Region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4/1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rb7rkxf21-en>.
- Bundesregierung(2015) website, www.gut-leben-in-deutschland.de/DE/Home/home_node(accessed on 5 May 2015).
- Cazes, S., Hijzen, A. and A. Saint-Martin(2015), “How good is your job? The new OECD framework for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OECD Working Paper*, forthcoming.
- Destatis(2014), *Sustainable Development in Germany Indicator Report 2014*, Statistisches Bundesamt (Federal Statistical Office), Wiesbaden, 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Indicators2014.pdf?__blob=publicationFile(accessed on 29 May 2015).
- Eurostat(2015a), “Quality of life in Europe – facts and views – governance”, in *Quality of Life*, an online publication,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dicators (accessed on 4 July 2015).
- Eurostat(2015b), *Quality of life indicators*. Online publication, Eurostat, Luxembourg,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dicators(accessed on 25 May 2015).
- Eurostat(2015c), *Quality of life in Europe – facts and views – overall life satisfaction*,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_Europe_-_facts_and_views_-_overall_life_satisfaction(accessed on 25 May 2015).
- Fesseau, M. and M.L. Mattonetti(2013a), “Distributional Measures Across Household Group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 Results from an Experimental Cross-country Exercise on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3/0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3wdjqr775f-en>.
- Fesseau, M., F. Wolff and M.L. Mattonetti(2013b),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between Micro Sources and National Accounts Aggregat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3/0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3wdjrn7mv-en>.
- FAO(2010),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0, Main Report*, *FAO Forestry Paper 163*,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www.fao.org/docrep/013/i1757e/i1757e.pdf.
- France Strategie and CESE(2015), website, www.strategie.gouv.fr/actualites/indicateurs-evaluersituation-pays(accessed on 5 May 2015).
- FSO(2014), *Indicator system for the measurement of well-being 2014*,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Neuchatel,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news/medienmitteilungen.html?pressID=9882 (accessed on 29 May 2015).

- FSO(2013), *Sustainable Development – A Brief Guide 2013: 17 key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Neuchatel,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01/new.html?gnpID=2013-267(accessed on 29 May 2015).
- INE(2015), *Quality of Life Indicators*, www.ine.es/ss/Satellite?param1=PYSDetalleGratuitas&c=INEPublicacion_C&p=1254735110672¶m4=Ocultar&pagename=ProductosYServicios%2FPYSLayout&cid=1259937499084&L=1(accessed on 25 May 2015).
- INEGI (2014), *Niveles de bienestar en Mexico*,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INEGI, Aguascalientes, www3.inegi.org.mx/sistemas/biblioteca/ficha.aspx?upc=702825450557(accessed on 29 May 2015).
- INSEE(2015),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Following up on the Stiglitz Report*, www.insee.fr/en/publications-et-services/default.asp?page=dossiers_web/stiglitz/performance_eco.htm#deux(accessed on 25 May 2015).
- ISTAT(2015), “The BES project to measure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www.misuredelbenessere.it/index.php?id=documents(accessed on 25 May 2015).
- Kettner, C., K. Koberl, C. Mayrhuber, S. Karmasin and N. Steiniger(2012), “Mehr als Wachstum. Messung von Wohlstand und Lebensqualität in ausgewählten Ländern mit dem OECD Better Life Index auf Basis der österreichischen Präferenzen”, *Austr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IFO) monograph*, Vienna: WIFO, www.wifo.ac.at/publikationen?detail-view=yes&publikation_id=45900(accessed on 5 May 2015).
- OECD(2015a), “Aggregate National Accounts, SNA 2008: Gross domestic product”,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001-en>(accessed on 24 May 2015).
- OECD(2015b), *Regulatory Policy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forthcoming).
- OECD(2015c), *OECD Economic Surveys: Italy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ita-2015-en.
- OECD(2015d), *OECD Economic Surveys: Mexico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mex-2015-en.
- OECD(2015e), *Skills for Social Progress: The Power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OECD Skills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6159-en>.
- OECD(2015f), *Final NAEC Synthesis: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a report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Paris, 3-4 June 2015, www.oecd.org/mcm/documents/Final-NAEC-Synthesis-Report-CMIN2015-2.pdf.
- OECD(2014a),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6-en.

- OECD(2014b), “How good is your job?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in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6-en.
- OECD(2014c), *Green Growth Indicators 2014*, OECD Green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030-en>.
- OECD(2014d),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 OECD(2014e),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usa-2014-en.
- OECD(2013a),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92-en>.
- OECD(2013b),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Paris, 29-30 May 2013, www.oecd.org/newsroom/Action-plan-youth.pdf(accessed on 7 May 2015).
- OECD(2013c),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2013d), *OECD Economic Surveys: Austria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aut-2013-en.
- OECD(2013e), *Multi-dimensional Review of Myanmar: Volume 1. Initial Assessment*, OECD Development Pathway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085-en>.
- OECD(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ECLAC(2014), *Multi-dimensional Review of Uruguay: Volume 1: Initial Assessment*, OECD Development Pathway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9459-en>.
- ONS(2015),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website, www.ons.gov.uk/ons/guide-method/user-guidance/well-being/index.html(accessed on 25 May 2015).
- OWG(2014),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ull report of the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ocument A/68/970, <http://undocs.org/A/68/970>(accessed on 29 May 2015).
- Sen, A.(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North-Holland Publishing, Amsterdam.
- Statistics Netherlands(2015), *Sustainability Monitor of the Netherlands 2014*, Statistics Netherlands, the Hague, www.cbs.nl/en-GB/menu/themas/dossiers/duurzaamheid/publicaties/publicaties/archief/2015/monitor-duurzaam-nederland-2014.htm(accessed on 29 May 2015).

- Statistics New Zealand(2011), *Key findings on New Zealand'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2010*, Statistics New Zealand, Wellington, 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snapshots-of-nz/Measuring-NZ-progress-sustainable-dev-%20approach/key-findings-2010.aspx(accessed on 29 May 2015).
- Statistics Portugal(2014), “The Portuguese Index of Wellbeing”, Statistics Portugal, Lisbon, https://www.ine.pt/xportal/xmain?xpid=INE&xpgid=ine_indbemestar&xlang=en(accessed on 12 July 2015).
- Statistics Portugal(2015),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tatistics Portugal, Lisbon, https://www.ine.pt/xportal/xmain?xpid=INE&xpgid=ine_dossie_idsustentavel&xlang=en(accessed on 12 July 2015).
- Statistik Austria(2014), *How's Austria?* www.statistik.at/web_en/statistics/-----/hows_austria/index.html (accessed on 11 July 2015).
- Stiglitz, J.E., A. Sen and J.-P.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documents/rapport_anglais.pdf (accessed on 12 May 2015).
- UNECE(2014),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Recommendations on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www.unece.org/fileadmin/DAM/stats/publications/2013/CES_SD_web.pdf(accessed on 10 April 2015).
- UNECE(2015), *Report of Cabo Verde on Governance, Peace and Security Statistics*,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for the forty-sixth session of UN Statistical Commission on 3-6 March 2015, <https://unstats.un.org/unsd/statcom/doc15/2015-17-CaboVerde.pdf>(accessed on 29 May 2015).
- United Nations(2009),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prepared in cooperation with the OECD and the Statistical Office for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New York and Geneva.
- UNSC(2012),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Central Framework*, UN Statistical Commission, white cover publication, pre-edited text subject to official editing, http://unstats.un.org/unsd/envaccounting/White_cover.pdf.
- UNU-IHDP and UNEP(2012) *Inclusive Wealth Report 2012. Measuring progress towards sustain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Zanden, J., et al.(eds.) (2014),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4262-en>.

부록 1.A

국가 수준에서의 웰빙의 강약점들

본 장에서 요약되고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웰빙 성과들은, 미달러 기준 근로자 근로소득부터 연수로 표시된 1인당 기대수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측정단위를 사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측정방법들을 비슷한 척도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 1.A.1은 표준화점수(또는 “z 점수”)를 사용하는데, 각 지표에서 OECD 평균은 “0”으로 설정되었고 값(values)은 OECD 평균으로부터의 표준편차를 반영한다.

한 국가가 특정 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낼 때, 표준점수는 양(+)의 값을 띠고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낼 때, 표준점수는 음(-)의 값을 띤다. 대부분 지표들의 경우 약 2/3의 국가들이 평균으로부터 +1에서 -1 사이의 표준편차를 보이는 성과(outcomes)를 나타낸다. 어떤 지표에서 +1 보다 큰 값은 그 국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가짐을 의미하는데, 대개 34개 국가 중 약 5개국이 이러한 값을 가질 것이다. 반면에 -1 값은 그 국가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가짐을 의미하는데, 대개 5개국만이 이런 점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점수의 범위는 쉽게 나타나기 위하여 -2에서 +2 사이로 설정되는데 일부 국가의 표준값은 극단적인 경우에 이 범위를 초과한다.

이러한 표준화점수는 중심 웰빙 지표들에서 국가들의 상대적 강점들과 약점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snapshot)를 제공한다. 그림 1.A.1은 국가들을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그룹화했다.

* 모든 OECD 국가들에 대한 단순평균은 여기서 벤치마킹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때때로 제2장에서 보여지는 OECD 평균과 약간 다르다. 제2장에서 보여지는 OECD 평균은 OECD 거주자 평균(OECD 국가 평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님)을 대표하는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개 인구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림 1.A.1. 국가별 상대적 웰빙 강점들과 약점들

표준화 점수,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패널 A: 북유럽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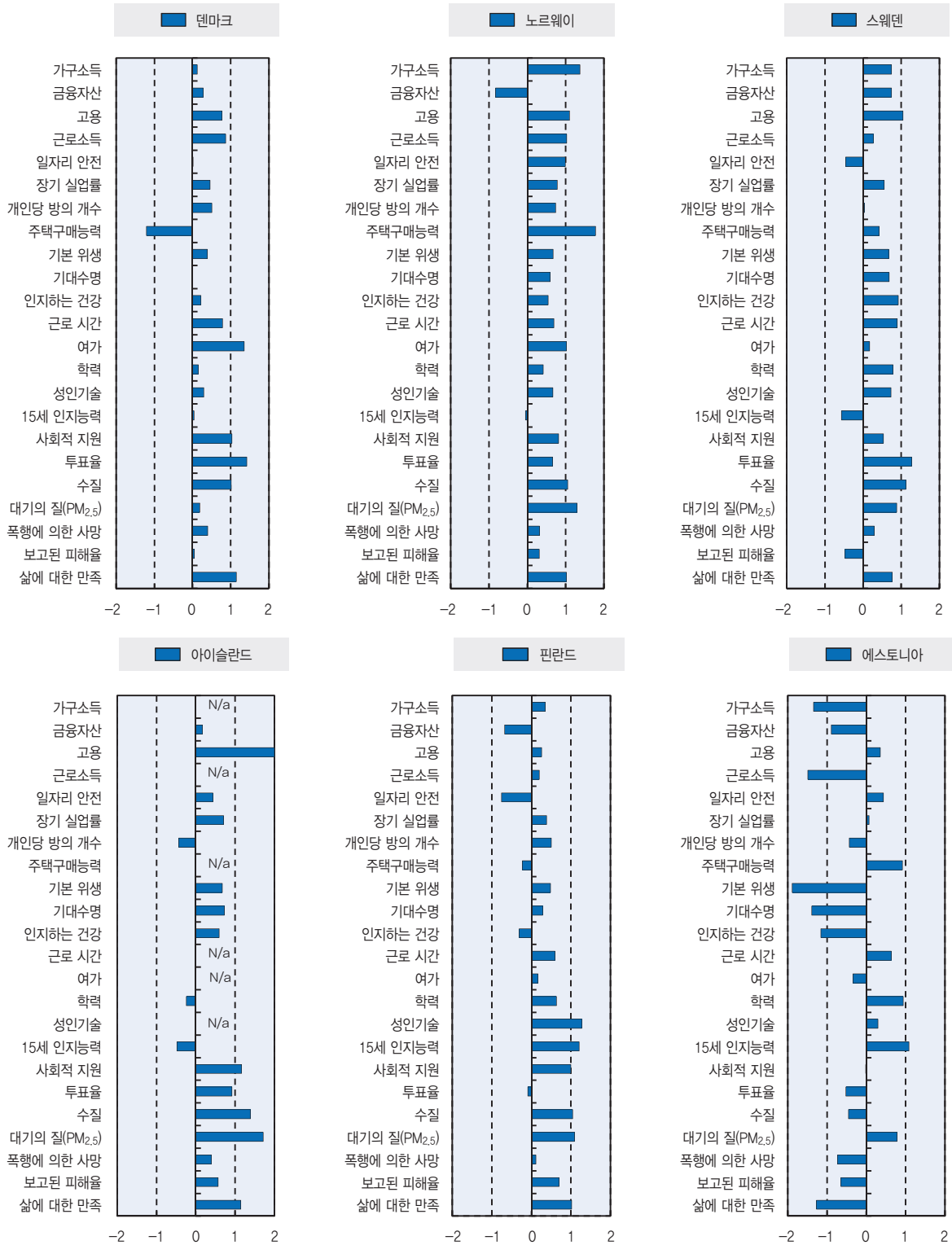


그림 1.A.1. 상대적 웰빙 강점들과 약점들, 국가별(계속)

패널 B: 유럽 대륙 국가들, 영국과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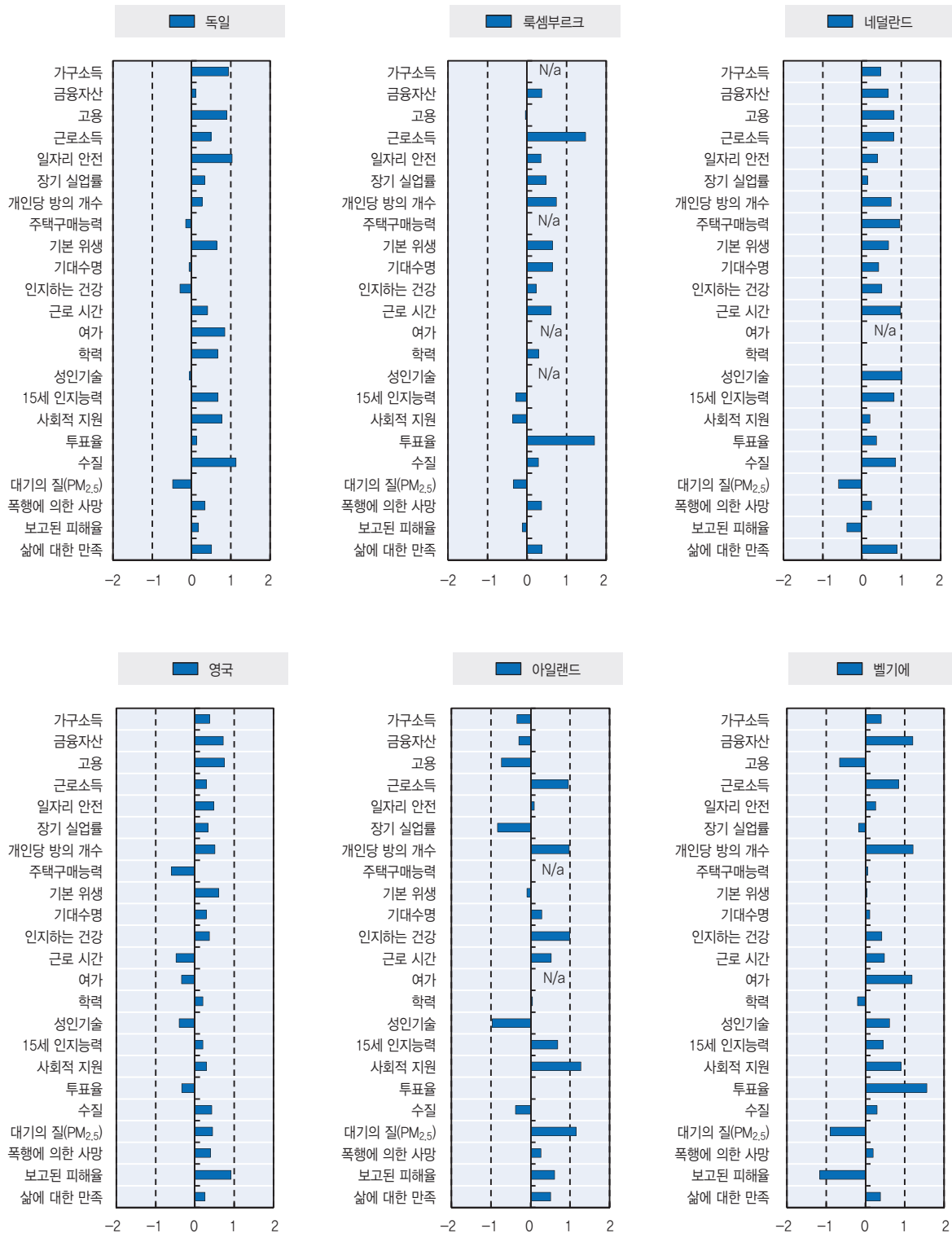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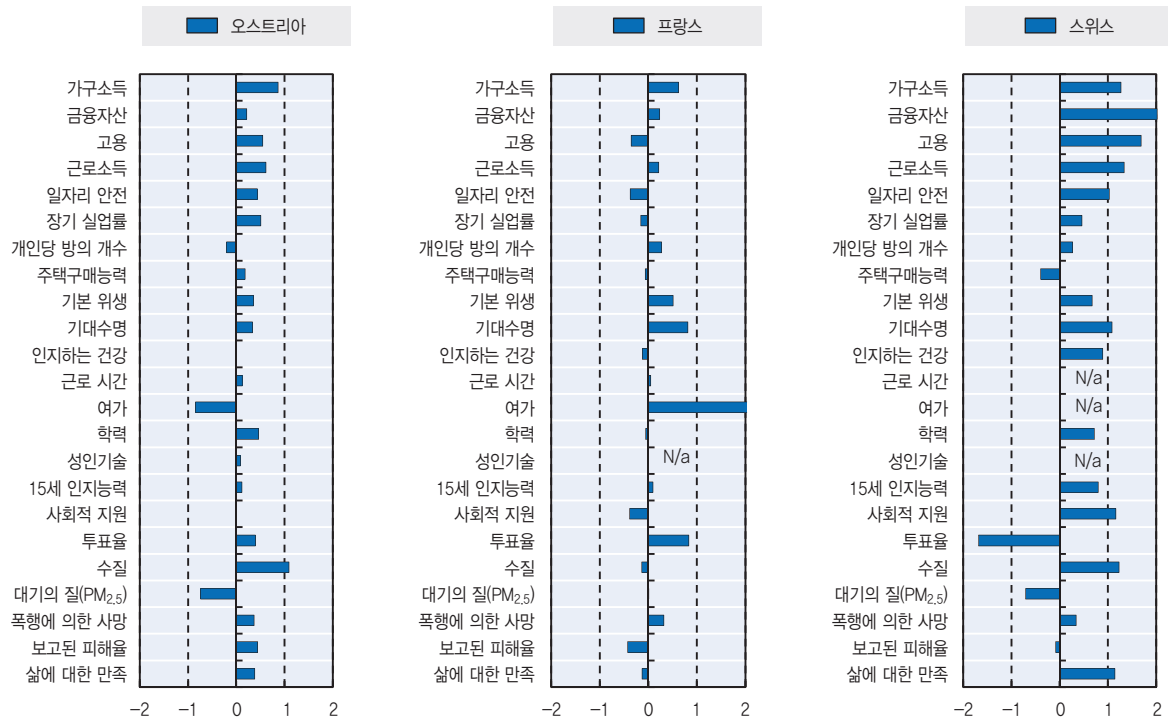


그림 1.A.1. 상대적 웰빙 강점들과 약점들, 국가별(계속)



패널C: 남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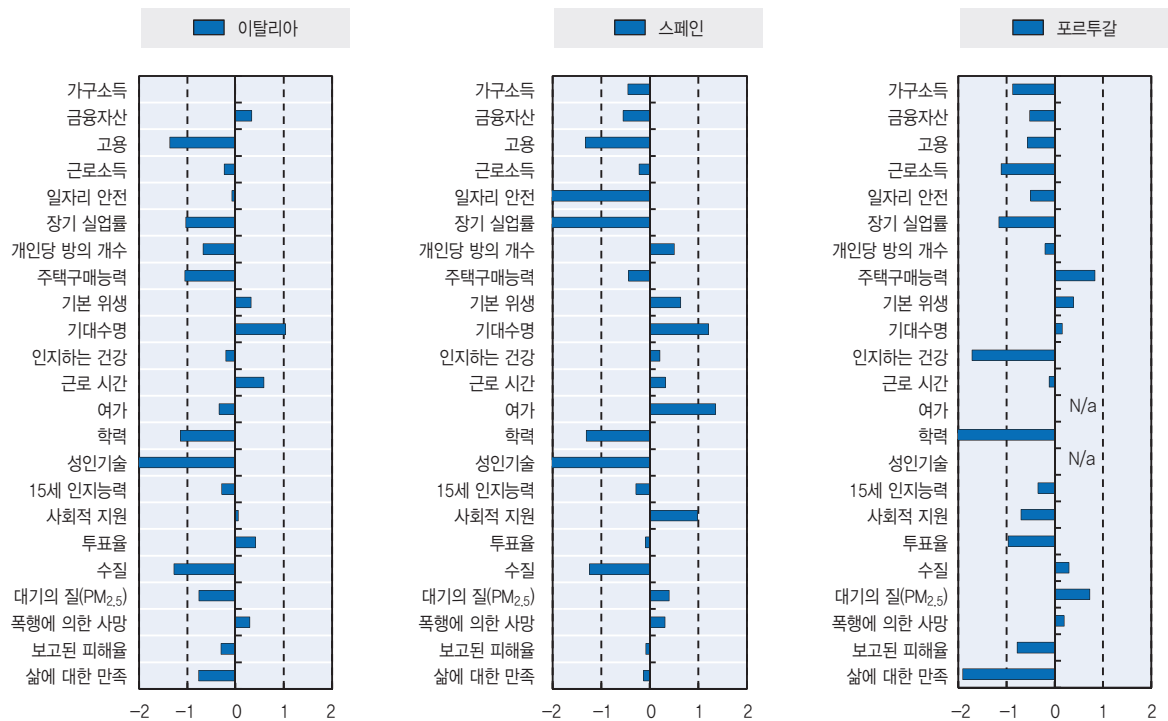


그림 1.A.1. 상대적 웰빙 강점들과 약점들, 국가별(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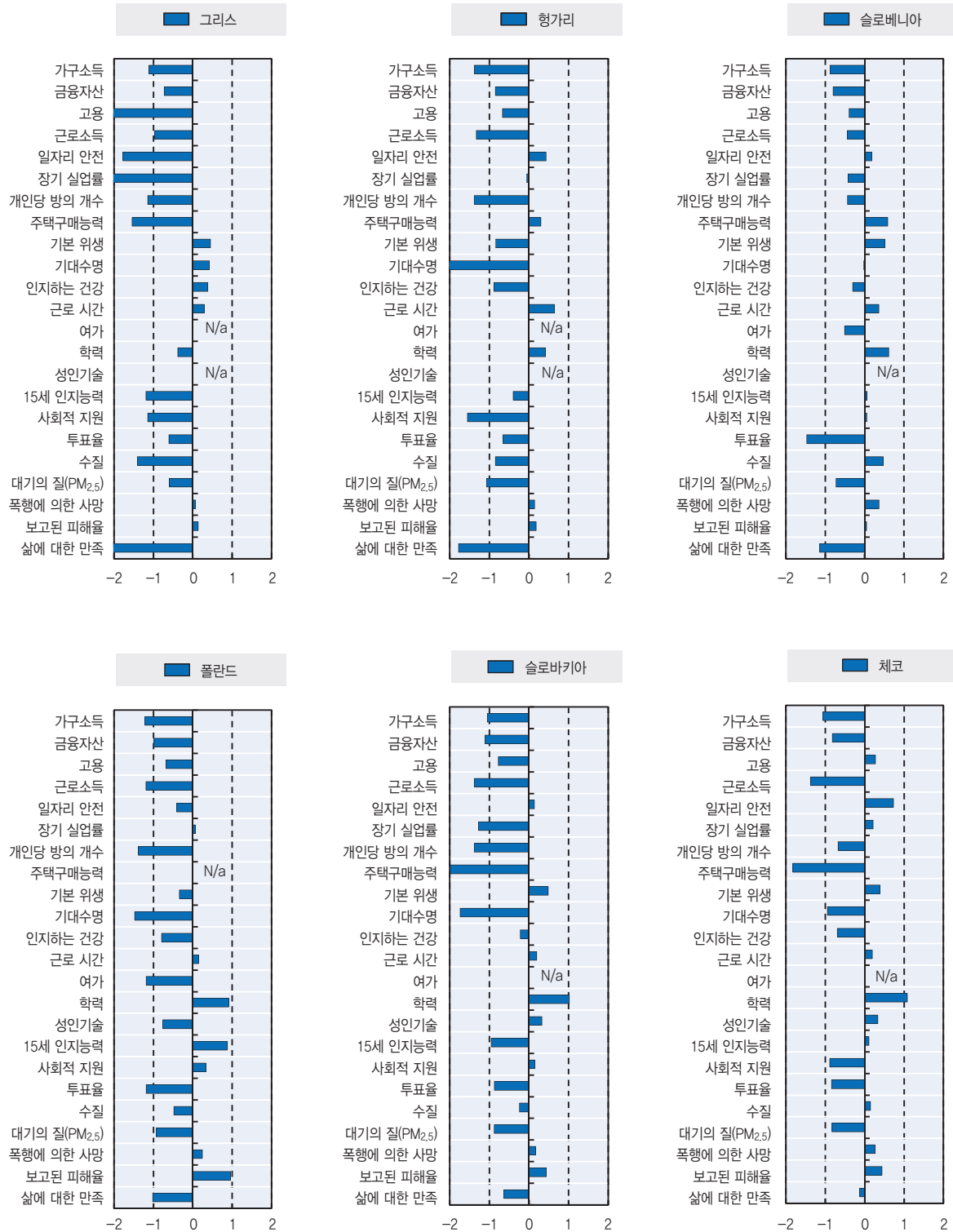


그림 1.A.1. 상대적 웰빙 강점들과 약점들, 국가별(계속)

패널 D: 미국,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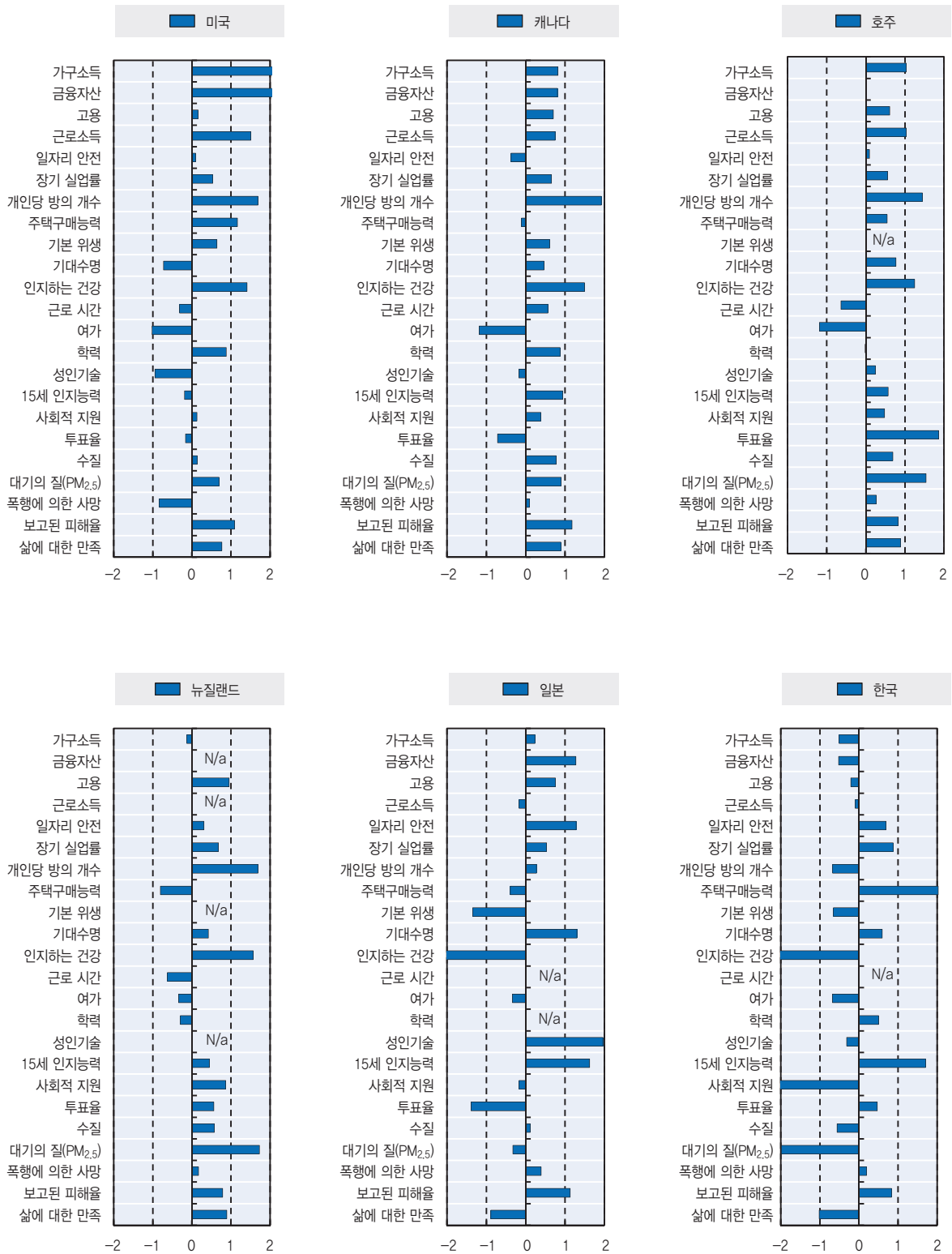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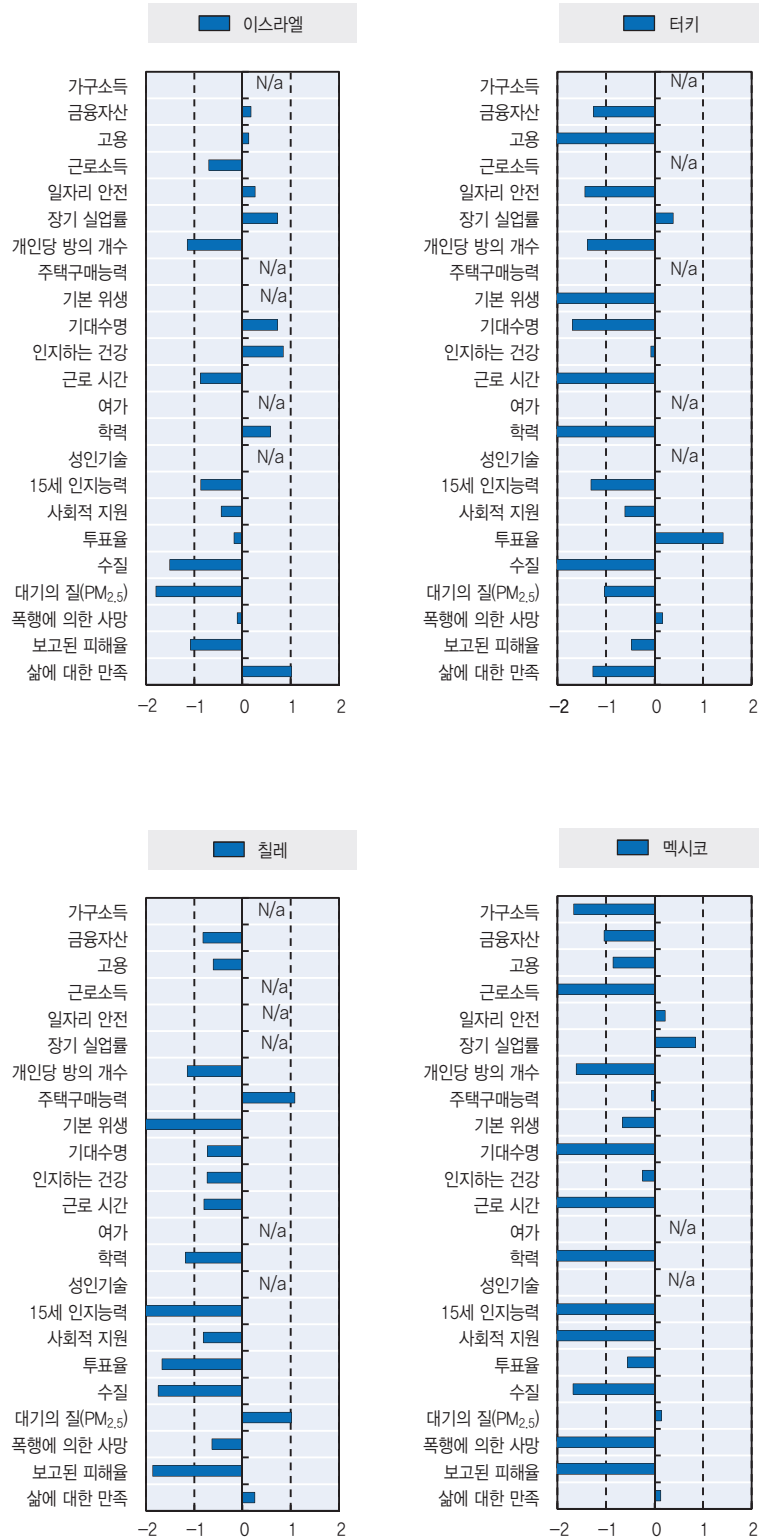


그림 1.A.1. 상대적 웰빙 강점들과 약점들, 국가별(계속)

패널 E: 기타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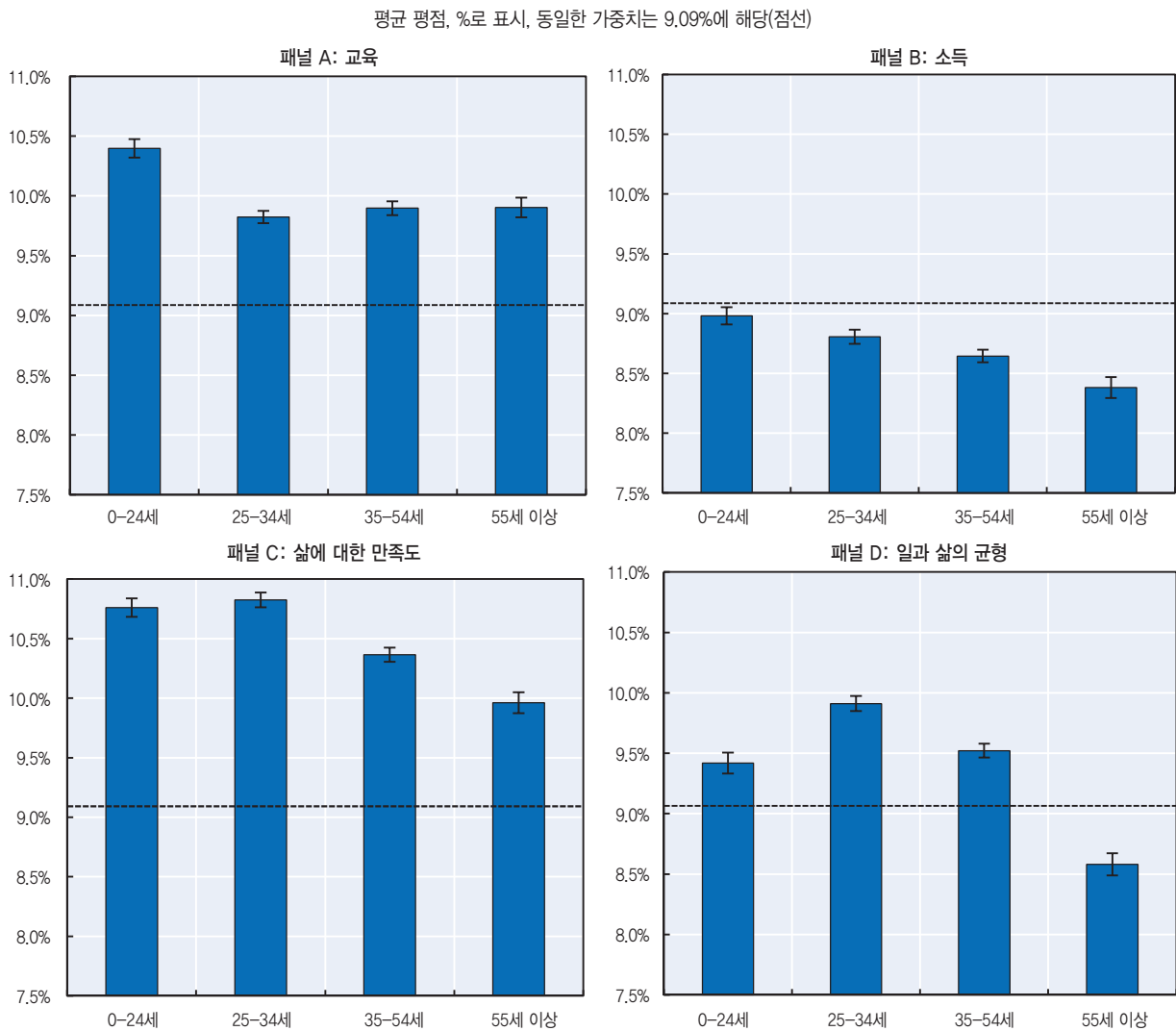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875>

부록 1.B

연령별 더 나은 삶 지표(BLI) 사용자 평점

그림 1.B.1. 연령별 교육, 소득, 삶에 대한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BLI 사용자 평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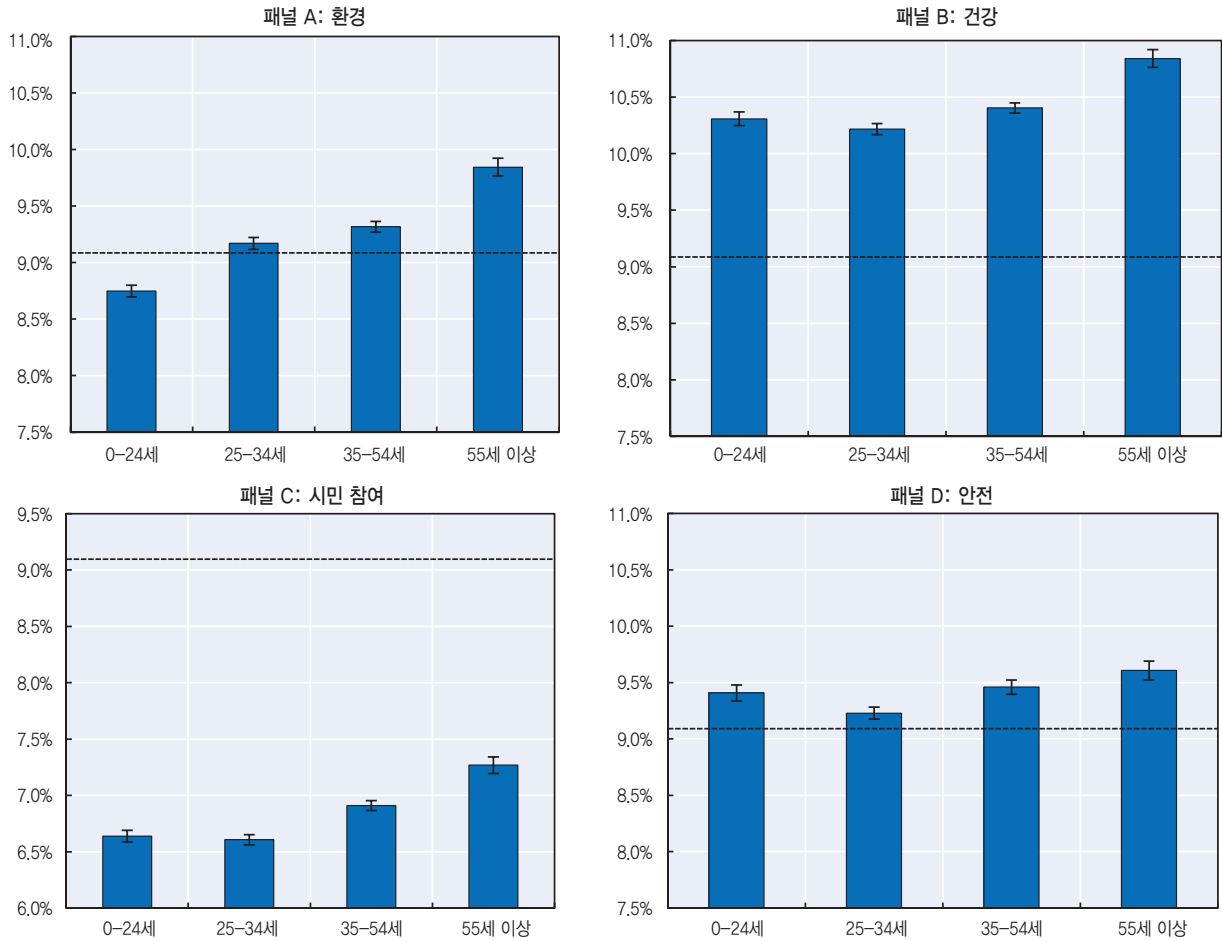


주: 응답은 사용자가 제공한 연령과 성별에 관한 정보를 사용해서 표본의 연령과 성별 구성에서의 편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후에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파란 막대는 평균 중위 평점을 보여주는데 오차 막대(whisker)는 평균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출처: OECD 거주자에 의해 공유된 BLI 사용자 평점에 근거한 OECD 계산. 표본크기: 0-24세 20,457명; 25-34세 22,908명; 35-54세 23,242명; 55세 이상 7,124명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882>

그림 1.B.2. 연령별 환경, 건강, 시민 참여, 안전에 대한 BLI 사용자 평점

평균 평점, %로 표시, 동일한 가중치는 9.09%에 해당(점선)



주: 응답은 사용자가 제공한 연령과 성별에 관한 정보를 사용해서 표본의 연령과 성별 구성에서의 편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후에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파란 막대는 평균 중위 평점을 보여준는데 오차 막대(whisker)는 평균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출처: OECD 거주자에 의해 공유된 BLI 사용자 평점에 근거한 OECD 계산. 표본크기: 0-24세 20,457명; 25-34세 22,908명; 35-54세 23,242명; 55세 이상 7,124명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893>

제2장

그림으로 보는 How's Life?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한 것을 측정하는 일은 인간 척도(human scale)로 파악되며, 여러 인구 집단들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표들을 필요로 한다. 본 장은 OECD 국가들과 파트너 국가들에서의 현재의 웰빙에 관한 최신 증거자료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물질적 삶의 조건(수입과 자산, 직업과 근로소득, 주택 등)으로부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 등)에 이르기까지 11개의 삶의 영역에 관한 중요한 통계치를 제공한다. 사람들의 현재 웰빙에 관한 간략한 정보(snapshot)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본 장은 삶이 최근들어 나아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장은 2009년 이래 5년간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표들과 국가들 모두 매우 혼재된 수행도를 나타낸다. 연령, 성별, 학력, 소득에 따른 사람들의 웰빙 격차도 설명되는데 웰빙 성과들의 불평등이 OECD 국가별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장은 OECD 및 파트너 국가들의 웰빙 측면의 국가 간 격차, 시간 경과에 따른 웰빙의 변화, 웰빙에서의 불평등에 관한 최신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본 장은 How's Life?의 2011년판과 2013년판(OECD 2011a; 2013a)의 중심 지표들에 근거하고 그 지표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OECD 프레임 워크에 포함된 현재의 웰빙 11개 영역들(제1장 참조)을 다루며 2009년 이래 5년 간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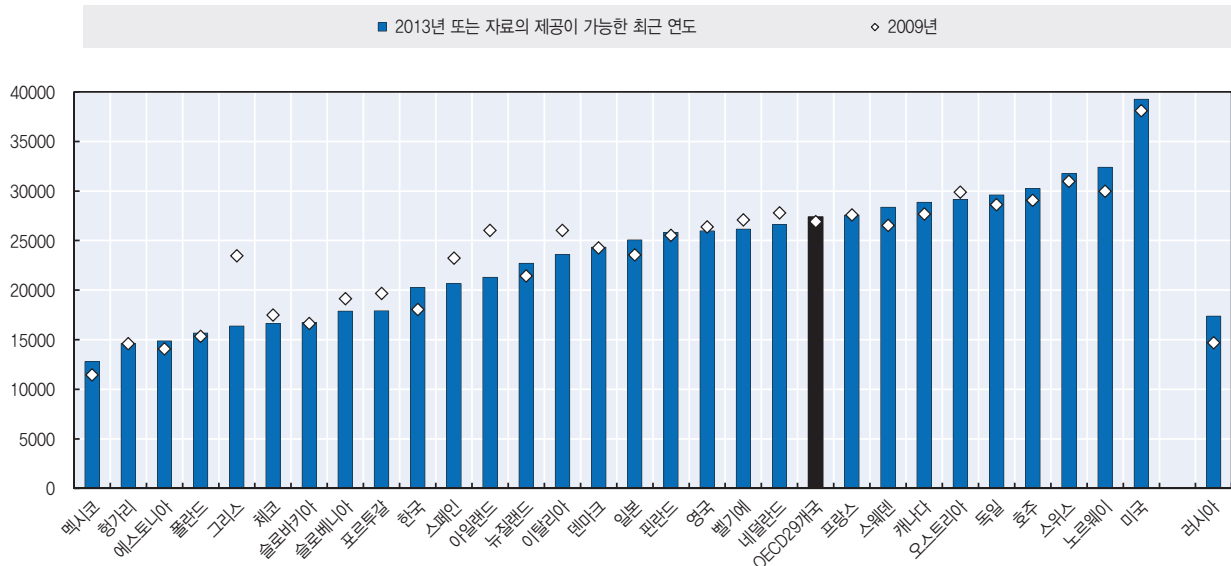
소득과 자산

돈이 웰빙을 위해 필요한 전부는 아니지만, 소득은 적절한 주택으로부터 좋은 영양상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경제적 충격(economic shocks)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의 축적은 미래를 위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늘려주는데, 그것은 친구 및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안락한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다.

2013년에 OECD 평균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HADI), 즉 지급받은 현금과 현물 이전(in-kind transfers)이 포함된 세후 가용한 소득(정확한 정의를 보려면 박스 2.1 참조)은 1인당 약 27,630달러였다. 그러나 국가 간 차이가 커서, 미국의 평균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은 멕시코와 헝가리의 약 3배였던 반면에,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의 평균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은 호주, 캐나다, 스위스의 절반 정도였다(그림 2.1).

그림 2.1.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HADI)

미달러 표시 2010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주: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의 경우 가능한 최근 연도는 2014년,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스위스, 러시아의 경우 2012년이다. 한국의 경우 보여진 최초 연도는 2010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노르웨이 데이터는 노르웨이 통계청의 Statbank(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옴, <https://www.ssb.no/en/statistikban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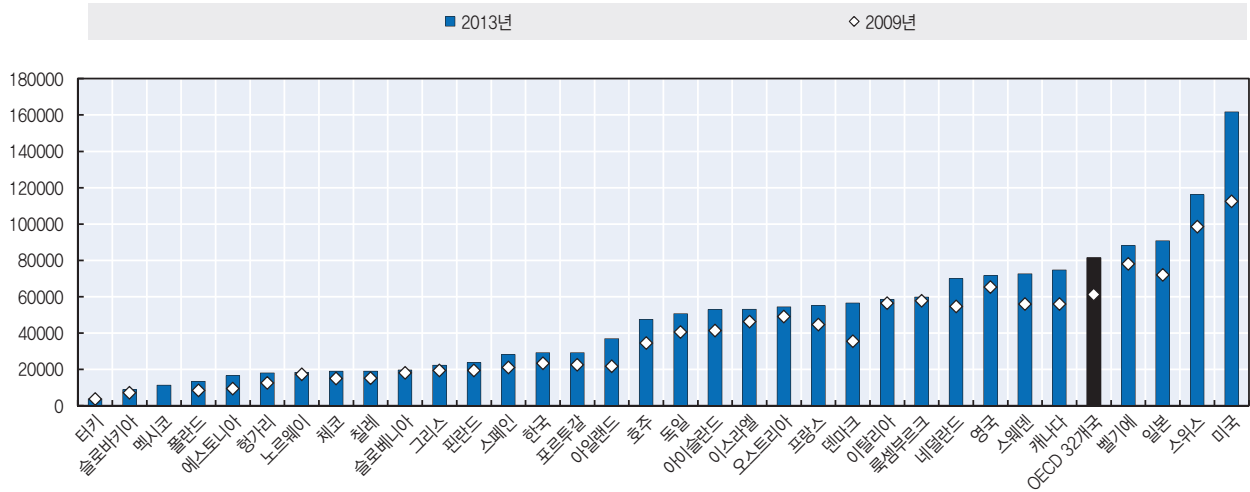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09>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1인당 OECD 평균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은 누적해서 1.9%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1/3은 가구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가장 큰 폭의 누적 감소는 그리스(-30%), 아일랜드(-18%), 스페인(-11%), 포르투갈(-9%), 이탈리아(-9%) 등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기록된 나라는 노르웨이(8%), 멕시코(12%), 한국(12%), 러시아(18%)이다.

2013년도에 가구순금융자산(정의를 보려면 박스 2.1 참조)은 데이터가 가능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2009년보다 증가했으며 평균 누적증가율은 약 30%였다(그림 2.2). 2013년에 1인당 가구순금융자산은 미국의 16만 달러 이상에서부터 슬로바키아와 터키의 1만 달러 미만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크다. 그러나 이 측정방법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가구의 전체 순자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토지와 주택과 같은 비금융자산은 배제시킨다.

그림 2.2. 가구순금융자산

미달러 표시 현재 구매력평가(PPP), 1인당



주: 한국의 경우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2012년, 멕시코의 경우 2009년이다. 데이터는 2008년 국민계정통계(SNA)이나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는 예외적으로 1993년 SNA이다. 구매력평가는 가구의 민간소비에 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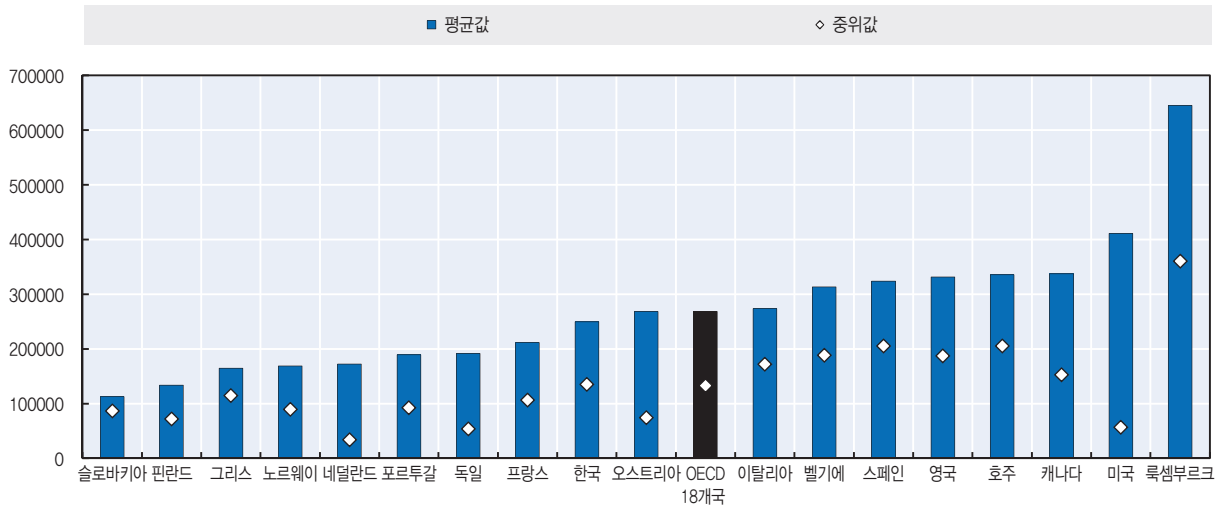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17>

가구의 총 순자산(비금융자산 포함, 박스 2.1 참조) 추정치는 OECD 18개국을 다룬 새 OECD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능하다. 2010년경, 가구당 순자산의 평균 수준은 룩셈부르크와 미국에서 가장 높았고 슬로바키아와 핀란드에서 가장 낮았다(그림 2.3). 중위값은 특히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에서 평균값보다 훨씬 낮는데 이는 순자산이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3. 가구당 평균 및 중위 순자산, 비금융자산 포함

2010년 또는 가능한 최근 연도, 2005년 미달러 가치 기준



주: 가능한 최근 연도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이다. 구매력평가는 가구의 민간소비에 관한 것이다. 영국(UK)에 대한 데이터는 Great Britain의 자료이다.

출처: OECD Wealth Distribution(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27>

박스 2.1. 가구소득 및 자산의 측정과 분배

소득과 자산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인당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HADI)은 사람들의 총소득(근로소득, 자영 및 자본소득, 타 부문으로부터 받은 현재의 금전적 이전(monetary transfer))과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교육과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합친 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과 가구에서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를 빼서 구해진다. 여기서 사용된 측정방법은 OECD 국민계정에서 가져온 것으로 가구에 의해 소비된 자본재의 감가상각도 고려한다.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은 1인 기준으로 2010년 가치 기준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실제 개인 소비에 대해 구매력평가를 통해 조정하였다.
- 1인당 가구순금융자산은 국민계정체계(SNA)에서 정의된 것처럼 현금과 예금,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 대여금, 주식과 기타자기자본(투자펀드에서 발행한 주식 포함), 기술적 보험준비금, 기타매출채권과 매입채무로 구성되며 순가구부채는 제외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기여(unfunded) 연금수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구순금융자산은 여기서는 1인 기준으로 현재가치 기준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가구의 민간소비에 대해 구매력평가를 사용하여 조정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데이터는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 가구순자산은 한 국가에서 민간 가구 구성원에 의해 보유된 실제 금융자산과 부채를 모두 의미하며 마이크로 데이터로 측정되었다. 측정값은 2005년 가치 기준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가구의 민간소비에 대해 구매력평가를 사용하여 조정하였다. 자산의 개념은 가구자산에 대한 마이크로 통계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박스 2.1. 가구소득 및 자산의 측정과 분배(계속)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2013b)의 권고와 일치하며, 데이터는 가구당 기준으로(개인당 혹은 성인 1인당 기준이 아님) 가구 크기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 데이터는 OECD 자산분배 데이터베이스(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에서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통계청과 기타 공식 통계(가구조사 또는 세금 및 행정기록에 근거한 통계)의 데이터와 유럽중앙은행의 공용데이터(유로체계가구금융 및 소비 조사에 참가한 11개국을 위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는 은퇴제도의 특징에 따라 OECD 국가별로 규모와 분배가 현격히 다른 연금자산은 배제한다. 부유한 가구의 과다표집 정도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호주에서는 과다표집이 없으나 미국과 스페인은 과다표집의 정도가 크다).

- **지니계수**는 인구 내 소득불평등의 요약측정법이다. 세금과 이전(transfer) 이후의 가구소득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가구조사와 행정기록으로부터 수집됨)를 근거로 계산되는데 이 때 가구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른 욕구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된다. 지니계수는 분배 과정에서의 변화에 더 민감한데 “0”(모든 사람의 평균소득이 같음)에서 “1”(모든 소득이 가장 부자인 한 사람에게로 돌아감)까지로 표시된다. “0”부터 “1”까지의 점수 분포에서 1 “지니 포인트”의 변화는 0.01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에 제시된 추정치는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서 가져온 가구소득데이터에 근거한다.
- **십분위 간 소득분배비율(S90/S10)**은 분배의 양 끝부분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한 소득 불평등 측정방법으로서 인구 중 소득 최상위 10%가 받은 모든 소득을 최하위 10%가 받은 모든 소득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이는 세금을 공제하고 이전을 포함시킨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가구 규모 차이에 대해 조정됨)의 측정치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나타난 추정치들은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서 가져온 것이다

앞의 두 지표(국민계정을 근거로 함)의 경우에, 데이터는 비법인기업(unincorporated enterprises)과 가구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를 포함한 모든 가구를 합산한 것이다. 여기서 보여준 지표들은 GDP와 생산성(productivity)과 같은 경제전반 지표들과 일관성을 갖는다. 사용된 소득개념은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가능한 가구의 소비 가능성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측정법이다. 그러나 순금융자산은 가구의 물질적 웰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택과 토지와 같은 일련의 자산들을 배제한다. 이러한 비금융자산에 관한 데이터는 현재 소수의 OECD 국가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에서만 가능하다. 위에 나타난 가구순자산 측정법은 18 개 OECD 국가들의 비금융자산을 포함하지만 마이크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다.

여기서 보여준 데이터는 한계를 가진다. 첫째, 소수의 국민계정체계만이 가구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배제시킨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것은 여기에 나타난 첫 두 지표의 범위가 가구조사에서 사용된 지표보다 다소 넓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구 욕구의 차이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는 이상적으로 “균등화”, 즉 소비 단위 측면에서 표현되어야 하는데, 반면 국민계정체계(SNA)의 데이터는 1인당 기준 데이터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거시경제적 차원의 국민계정 데이터는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구에 관한 마이크로 데이터와 매크로 데이터를 조화시키기 위해 OECD는 국민계정 프레임 워크 내 가구들 사이의 격차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예: Fesseau and Mattonetti, 2013a; Fesseau, Wolff and Mattonetti, 2013b). OECD는 최근에 가구자산 분배의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OECD, 2013b)과 소득, 소비, 자산의 통합적 분석을 위한 프레임 워크(OECD, 2013c)를 발간했다.

박스 2.1. 가구소득 및 자산의 측정과 분배(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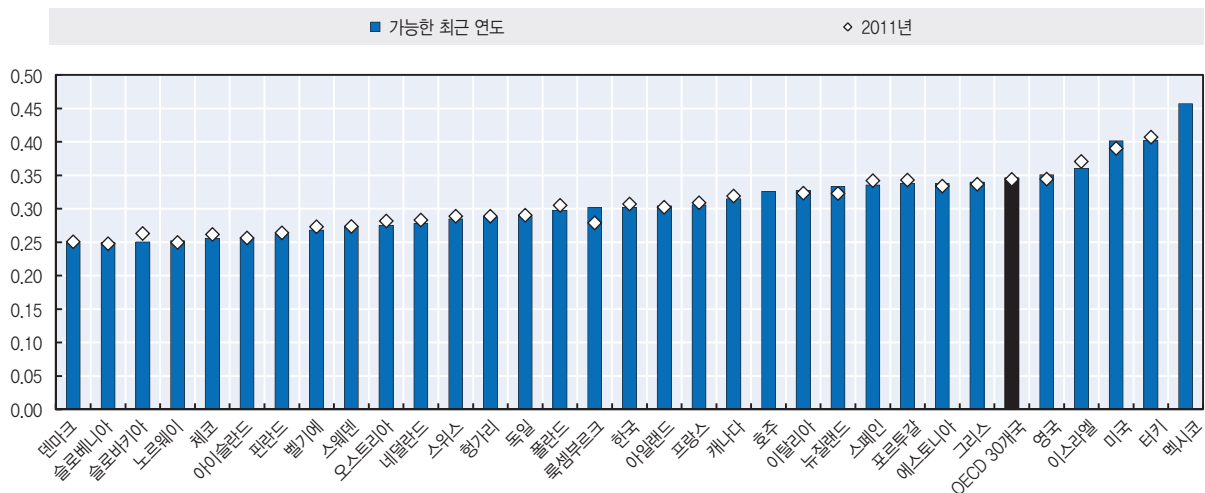
더 읽을 거리:

- Murin, F. and M. Mira d'Ercole (2015), "Household wealth inequality across OECD countries: New OECDbevidence", *OECD Statistics Brief*, No. 21, www.oecd.org/social/household-wealth-inequality-across-OECDcountries-OECDSB21.pdf.
- OECD (2015a),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 OECD (2013b),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78-en>.

소득과 자산의 분배

부유한 가구와 빈곤한 가구 간 격차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30년 기간 중에 지금이 가장 높다(OECD, 2015a). 2012년경에 소득 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정의를 보려면 박스 2.1 참조)는 멕시코, 터키, 미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았고, 덴마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체코에서 가장 낮았다(그림 2.4). 엄밀하게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최초 년도인 2011년 이래 OECD 평균 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에서 소득 불평등이 1 지니 포인트 하락했던 반면 미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에서 1 지니 포인트 상승했다.

그림 2.4.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주: 헝가리의 경우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2014년,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는 2013년, 기타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2012년이다. 보여진 최초 년도는 캐나다의 경우 2010년, 헝가리, 한국, 미국의 경우 2012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주었다.

출처: "소득분배", OECD 사회 및 복지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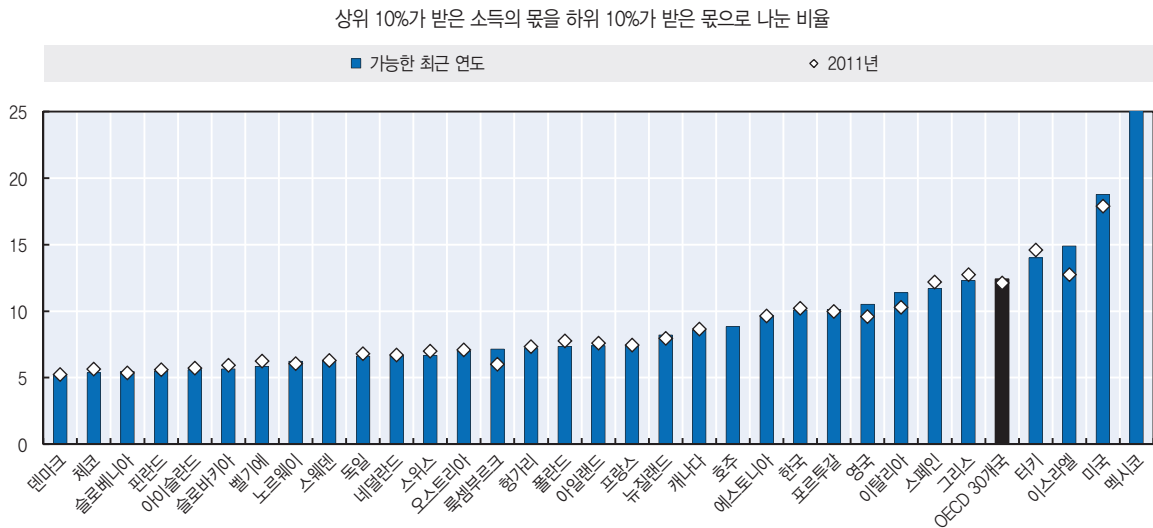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49>

소득 분배에 관한 대체적 관점(alternative perspective)은 십분위 간소득분배비율(S90/S10)에 의해 제공된다 (그림 2.5, 정의를 보려면 박스 2.1 참조). 2012년경에 이 비율은 덴마크,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에서 가장 낮았는데, 최상위 10%가 받은 소득의 몫이 최하위 10%가 받은 몫의 5배를 조금 넘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에서는 최상위 10%가 최하위 10% 사람들의 소득의 15배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19배에 근접했으며, 멕시코에서는 25 배였다. 2011년 이래 십분위 간 소득분배비율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에서 약 1포인트, 이스라엘에서 약 2포인트 상승했다.

OECD 국가들에서 가구순자산은 분포도의 최상위층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그림 2.6은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분배의 상위 1%가 하위 60%를 합친 것보다 대개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하위 60%는 OECD 내에서 가구순자산의 약 13%를 소유하는 반면에, 상위 1%는 가구순자산의 18%를 소유한다. 자산은 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여기 보여진 국가들에서 분배의 상위 10%는 모든 가구 자산의 50%를 차지하지만, 모든 가구 소득의 대략 25%만을 차지한다(OECD, 2015a).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은 연금자산은 배제하는데 연금자산의 규모와 분배는 은퇴제도의 성격에 따라 OECD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 십분위 간 소득분배비율(S90/S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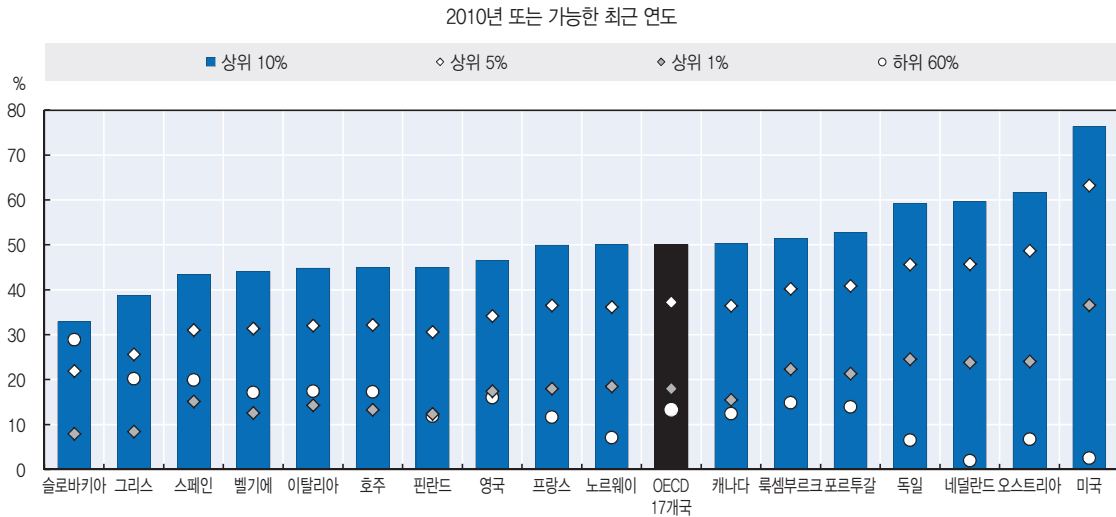


주: 헝가리의 경우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가 2014년,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 2013년이다. 보여진 최초의 연도는 캐나다의 경우 2010년, 헝가리, 한국, 미국의 경우 2012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것이다,

출처: "소득 분배", OECD 사회 및 복지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49>

그림 2.6. 가구순자산의 분배



주: 가능한 최근 연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영국(UK)의 데이터는 Great Britain만을 의미한다.

출처: OECD 자산분배(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58>

OECD(2015a)에서 좀 더 깊이 논의한 것처럼 가구자산은 가구주(head of household)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55세에서 64세 사이인 경우 일반적으로 더 높다. 주 거주주택(principal residence)이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비금융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더 평등하게 분배된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부채 수준이 상승하는데, 과다채무는 중간 소득 집단과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에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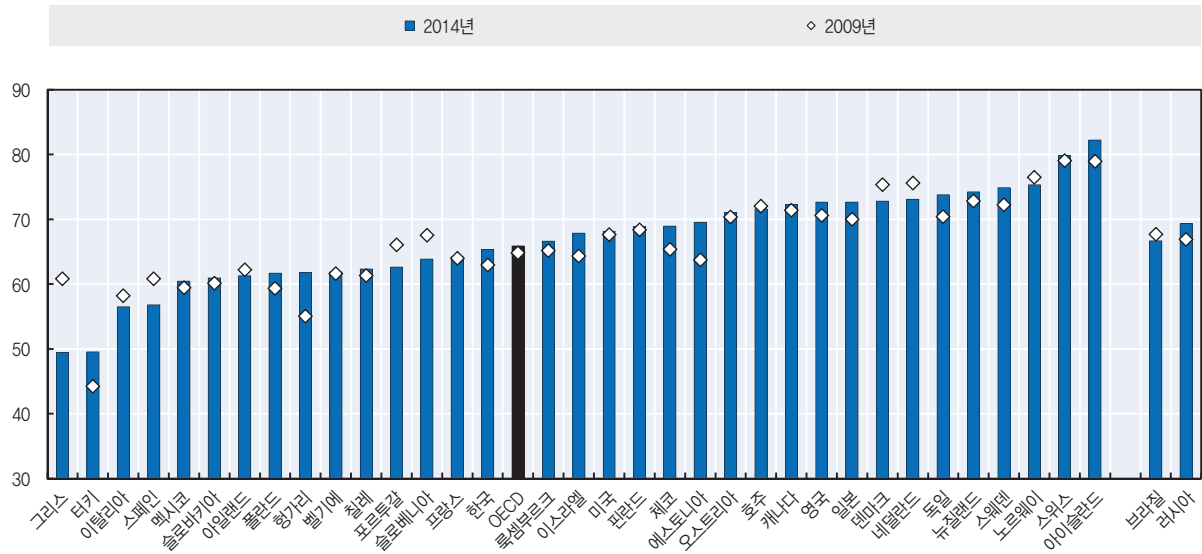
직업과 근로소득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양질의 일자리는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로부터 새로운 기술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다른 웰빙 편익을 가져다 준다. 실업은 가구의 재정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신체 및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자리에 관한 한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 많은 차원에서 직업을 잃는 것이 웰빙에 좋지 않지만 일자리의 질이 나쁜 것도 근로자의 건강과 전반적 웰빙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고용률은 일자리의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정의를 보려면 박스 2.2 참조). 일반적으로 고용률은 남부 및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서 비교적 낮고 노르딕 및 북유럽 국가들, 스위스, 뉴질랜드, 일본에서 높다. 고용률은 OECD 지역에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약 1% 포인트 상승했다(그림 2.7).² 그러나 금융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 동기간에 고용률이 크게 하락했는데, 그리스에서 2014년의 고용률은 2009년보다 여전히 11.4% 포인트 낮았고, 같은 기간, 스페인(-4.0% 포인트), 슬로베니아(-3.6% 포인트), 포르투갈(-3.5% 포인트), 덴마크(-2.5% 포인트), 네덜란드(-2.5% 포인트)는 크게 하락했다.

그림 2.7. 고용률

15-64세의 고용된 사람이 동일 연령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 칠레와 브라질의 경우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가 2013년이다. 시계열의 단절로 인해 칠레의 최초 연도는 2011년이다. 2010년에 발생한 노동인력 조사의 재설계(redesign)로 인해 독일과 포르투갈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는 주의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것이다.

출처: “노동인구 통계”, OECD 고용 및 노동시장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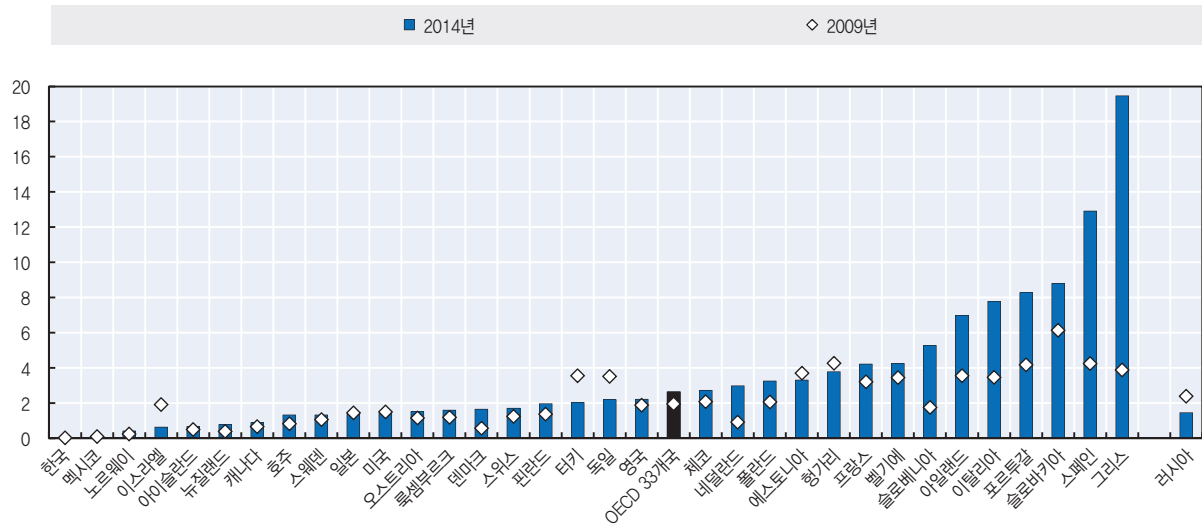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75>

장기 실업률은 사람들을 가난, 결핍, 사회적 배제, 낙인화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며 또한 자존감 하락과 낙담과 같은 심리적 비용을 동반할 수 있다. 2014년에 1년 이상 실업상태인 노동인구의 비율은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1% 미만,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서 7% 이상, 스페인에서 12.9%, 그리스에서 19.5%였다(그림 2.8).

2009년 이래 장기 실업률은 OECD 국가들의 3분의 2 이상에서 상승했고 OECD 평균은 0.7% 포인트 상승했다(누적적으로). 그리스에서 2014년에 장기 실업률이 2009년 보다 5배 이상 증가했고, 네덜란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덴마크에서 동기간에 3배로 증가했고,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일랜드에서 2배가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터키, 독일, 이스라엘에서 장기 실업률이 1%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그림 2.8. 장기 실업률

노동인구에서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한국의 경우 2013년이다. 시계열의 단절로 인해 벨기에의 최초 연도는 2011년이다. 2010년에 발생한 노동인력 조사의 재설계(redesign)로 인해 독일과 포르투갈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는 주의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것이다.

출처: “노동인구 통계”, OECD 고용 및 노동시장통계(데이터베이스), 인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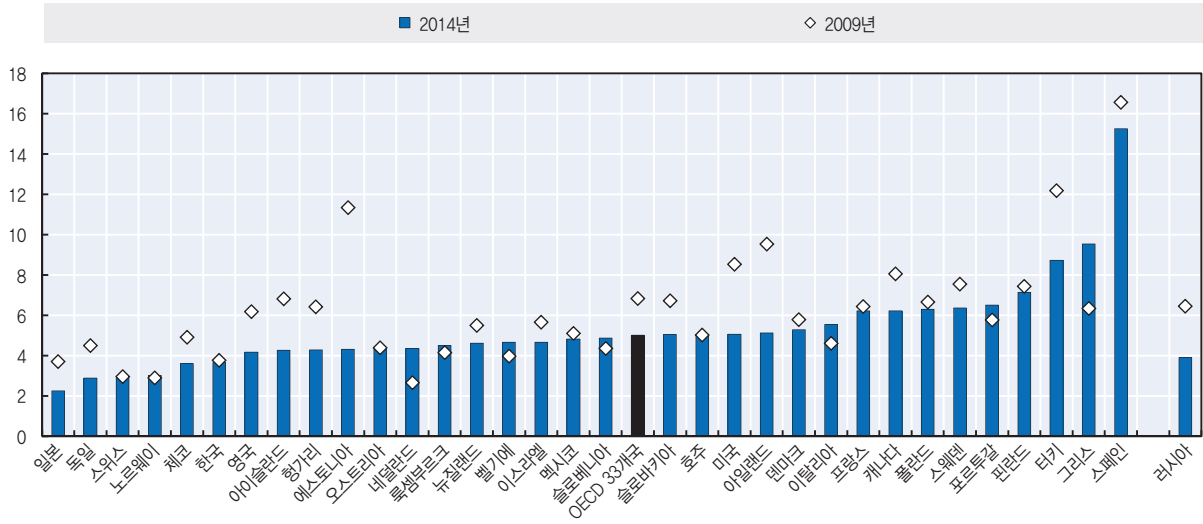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75>

2014년에 실직할 가능성(정의를 보려면 박스 2.2 참조)은 일본,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에서 가장 낮았는데 실직할 가능성이 33명의 근로자 중 1명 미만에게 영향을 미쳤다(그림 2.9).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직할 가능성은 포르투갈, 핀란드에서 15명의 근로자 중 대략 1명에게, 터키에서는 11명의 근로자 중 1명 이상에게, 그리스에서는 10명 중 거의 1명에게, 스페인에서는 7명 중 1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쳤다. OECD 전체적으로 실직할 가능성은 2014년에는 2009년보다 1.8% 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실업의 위험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등 OECD 국가의 약 4분의 1에서 증가했다.

2013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연간 총 근로소득(정의를 보려면 박스 2.2 참조)은 미국과 룩셈부르크의 56,000 미달러부터 에스토니아와 멕시코에서의 20,000미달러 미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범위에 걸쳐있다(그림 2.10). OECD 국가들의 3분의 1에서 총근로소득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감소하였는데 그리스의 경우 22%,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우 6%, 영국의 경우 4%, 멕시코의 경우 3% 감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균 근로소득이 노르웨이, 한국, 캐나다, 폴란드에서 5% 이상 증가했다.

그림 2.9. 실직할 가능성

전년도의 고용 인구에서 연간 실업 유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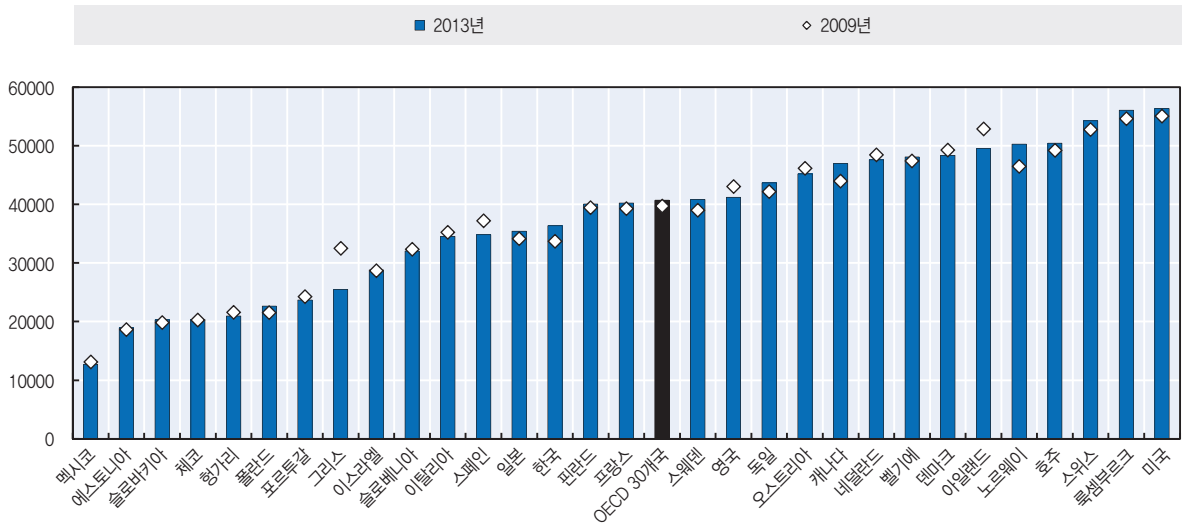
주: 시계열의 분절로 인해 벨기에의 경우 보여진 최초 연도는 2011년이다. 2010년에 발생한 노동인력 조사의 재설계(redesign)로 인해 독일과 포르투갈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는 주의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것이다.

출처: “노동인구 통계”, OECD 고용 및 노동시장통계를 근거로 한 OECD 계산(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86>

그림 2.10. 전일제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총근로소득

미달려화 표시 2013년 구매력평가 및 2013년 불변가격



주: 멕시코의 경우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가 2011년이다. 임금은 전일제, 전년제에 기반하여 표현된다. 구매력평가(PPP)는 가구의 민간소비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것이다.

출처: OECD 근로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와 OECD 전일제/전년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결합한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8996>

일자리의 질 측정: OECD 일자리의 질 프레임 워크

근로자의 웰빙은 가용한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How's Life?의 접근법에 의거하고 이 분야에서 수행된 국제노동기구(ILO, 2012)와 UN유럽경제위원회(2015)의 작업을 토대로 하여 OECD는 개인 차원에서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의 질과 일자리의 분배를 측정·평가하는 프레임 워크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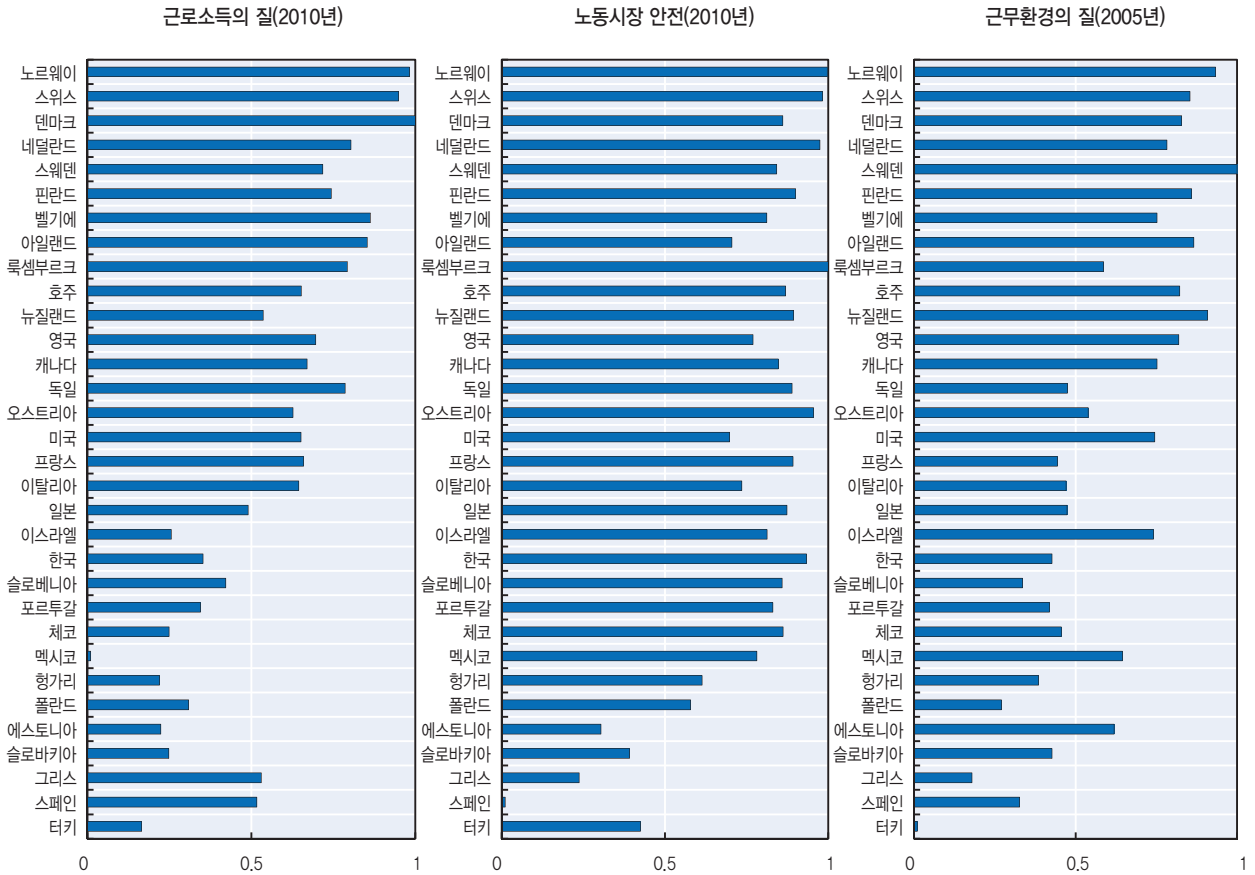
이 프레임 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뚜렷한 영역이 있다.

- **근로소득의 질**은 시간당 임금(hourly wages)과 노동인구 내 시간당 임금의 분배를 고려하는 측정법이다³.
- **노동시장(불)안정**은 실직할 가능성, 전체적 실업기간의 예상되는 평균지속기간, 가용한 실업보험을 결합해서 실업과 관련된 예상되는 근로소득의 손실을 파악한다.
- **근무환경의 질**은 근로자들 사이의 직무긴장(job strain)의 발생빈도로 측정된다. 이는 높은 직무요구(예: 시간압박, 신체적 건강 위험에 대한 노출)와 낮은 직무자원(예: 자율성, 배움 기회, 좋은 직장 관계)의 결합으로 정의되며 자가보고를 통해 측정된다.

이 세 영역에 대한 상세한 연구결과는 OECD 국가들의 경우는 OECD 2014 고용전망에 12개 신흥경제국가들의 경우는 OECD 2015 고용전망에 수록되었다. 그림 2.1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국가들(예: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은 일자리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도가 좋은 반면, 다른 국가들은 상대적 강점과 약점의 영역이 뚜렷이 구분된다.

그림 2.11. OECD 국가들의 일자리의 질

정규화 점수는 0에서 1 사이임⁴



주: 근로소득의 질과 노동시장 안전에 관한 데이터는 2010년, 근무환경의 질에 관한 데이터는 2005년을 의미한다.

출처: "일자리의 질", OECD 고용 및 노동시장통계(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06>

박스 2.2. 일자리와 근로소득의 측정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4개의 중심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고용률**은 지난 주에 돈벌이가 되는 고용상태에서 최소 1시간 동안 일했다고 보고한 노동연령 인구(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5-64세의 사람들)의 비율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직무를 이미 해왔고, 공식적으로 직무에 속해 있지만 기준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육아휴직, 병가, 연차휴가로 인함)도 포함된다. 고용률에 관한 데이터는 OECD 연간노동인구통계(ALFS)데이터베이스에서 집계된 국가노동력조사(LFSs)로부터 가져왔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부합된다.

박스 2.2. 일자리와 근로소득의 측정(계속)

- 장기 실업률은 전체 노동인구(고용된 사람들과 실업상태인 사람들의 합)에서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사람들의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상태의 사람이란 현재 일하지 않지만 일할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데이터는 OECD 고용전망데이터베이스의 가능한 국가 노동인구조사에서 가져온다.
- 실직할 가능성은 연간 실업으로의 유입으로 계산되는데, 즉 전년도에 고용된 사람 수에서 1년 미만 실직 상태인 사람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지표는 OECD의 노동인구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계산되며 연간 수치로 표현된다. 실업률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의 총량(stock)을 측정하는 반면, 실직할 가능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일자리가 있어도 내일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측정한다.
-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총연간 근로소득이란 모든 경제 부문에서 전일제 및 전년제로 표시되며 모든 형태의 임금 근로(dependent employment)직에 있는 근로자의 평균연간임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자의 총 보수인데, 즉 근로자의 사회적 기여분을 포함해서 세금,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분, 생명보험료, 노조 회비와 기타 납부의무와 관련해서 고용주가 공제하기 전의 액수를 말한다. 이 지표는 국민계정에서 가져온 총 임금액(total wage bill)을 경제 전체의 전일제환산근로자(FTE) 숫자로 나눔으로써 얻어진다. 전일제환산근로자(FTE)의 숫자는 근로자의 숫자에 관한 데이터에 모든 근로자가 일한 시간의 비율과 전일제로 일한 시간의 비율을 곱함으로써 구하는데, 이는 시간제 근로의 발생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며 시간제 근로는 국가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 지표는 OECD 근로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와 OECD 전일제 및 전년제 환산 임금근로자 당 연평균 근로소득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데이터를 결합한다.

일반적으로 고용, 실업, 근로소득에 관한 데이터는 질이 양호하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의에 따라 수집된다. 여기 보이는 실직할 가능성에 대한 측정법은 횡단면(cross-sectional)데이터(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인에게서 얻는 패널 데이터가 아님)에 의존한다. 이는 실업으로의 유입은 고용으로부터 오며, 실업으로부터의 유출은 고용으로 가는 것을 가정하는데 노동력에서의 유출입은 파악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 읽을 거리:

- Cazes, S., Hijzen, A. and A. Saint-Martin, (2015), "How good is your job? the new OECD framework for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OECD Working Paper*, forthcoming.
- OECD (2015b),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 OECD (2013d), "Well-being in the workplace: Measuring job quality", in OECD,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3-9-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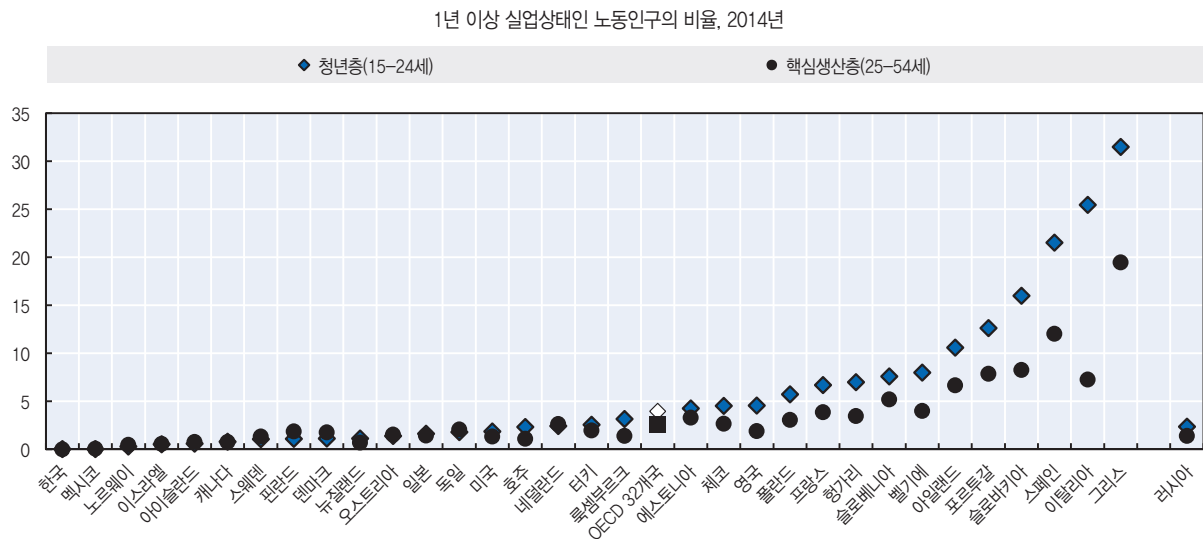
일자리와 근로소득의 분배

모든 OECD 국가의 3분의 2에서 청년들은 핵심생산층 근로자들(prime-age workers)보다 장기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2.12). 벨기에, 헝가리, 호주, 룩셈부르크, 영국에서 청년 근로자들 사이의 장기실업은 핵심생산층 근로자의 최소 두 배이다.

이탈리아에서 14명의 핵심생산층 근로자들 중 1명이 장기실업 상태이지만 청년들의 경우 그 비율이 4명 중 1명 꼴로 증가한다. 그리스에서 15-24세 근로자 3명 중 1명이 장기 실업상태이다.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장기 실업률의 상승은 예컨대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또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특히 심각한 타격을 끼쳤다(그림 2. 13). 청년 근로자들은 또한 대개 비정규고용의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하는데 임시직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OECD, 2014a)⁵.

그림 2.12. 청년 근로자와 핵심생산층 근로자 사이의 장기 실업률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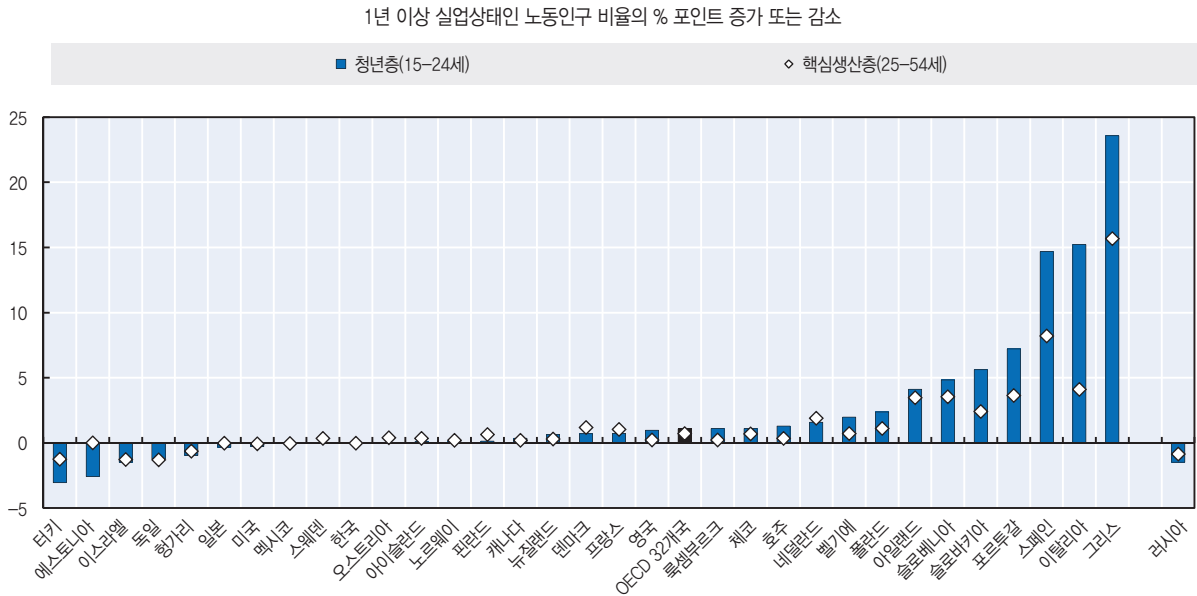


주: 한국의 경우 가능한 최근 연도는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노동인구통계”, OECD 고용 및 노동시장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13>

그림 2.13. 연령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 실업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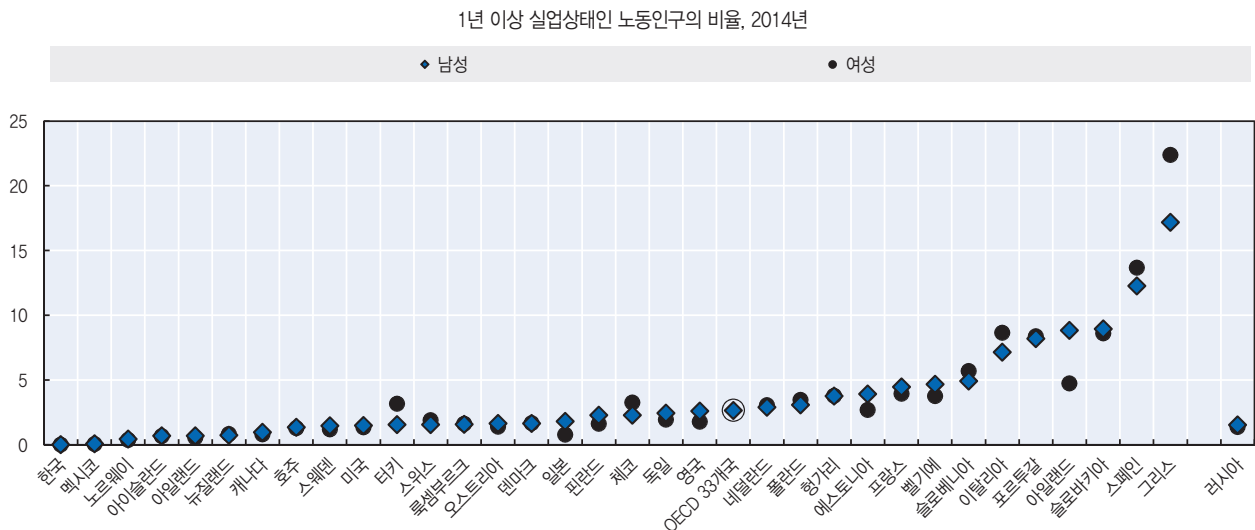
주: 한국의 경우 가능한 최근 연도 2013년이다. 벨기에의 경우 시계열의 단절 때문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화가 계산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노동인구통계”, OECD 고용 및 노동시장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23>

OECD 지역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장기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은 동일하다(노동인구 38명 중 1명의 비율). 그러나 아일랜드에서는 성별 격차가 큰데 남성의 장기 실업률이 여성의 장기 실업률의 2배이며, 터키, 그리스, 체코에서는 여성의 장기 실업률이 더 높다.

그림 2.14. 장기 실업률에서의 성별 격차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노동인구통계”, OECD 고용 및 노동시장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39>

남성(전일제, 전년제)의 근로소득이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보다 높으며 평균 성별임금격차⁶는 현재 15.5%이다(OECD, 2015c). 달리 말하면,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단지 85센트 미만을 번다. 남성과 여성 간 근로소득의 격차는 한국, 에스토니아, 일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며(임금격차가 20%를 훨씬 초과), 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뉴질랜드(임금격차가 7% 미만)에서 가장 작다.

주거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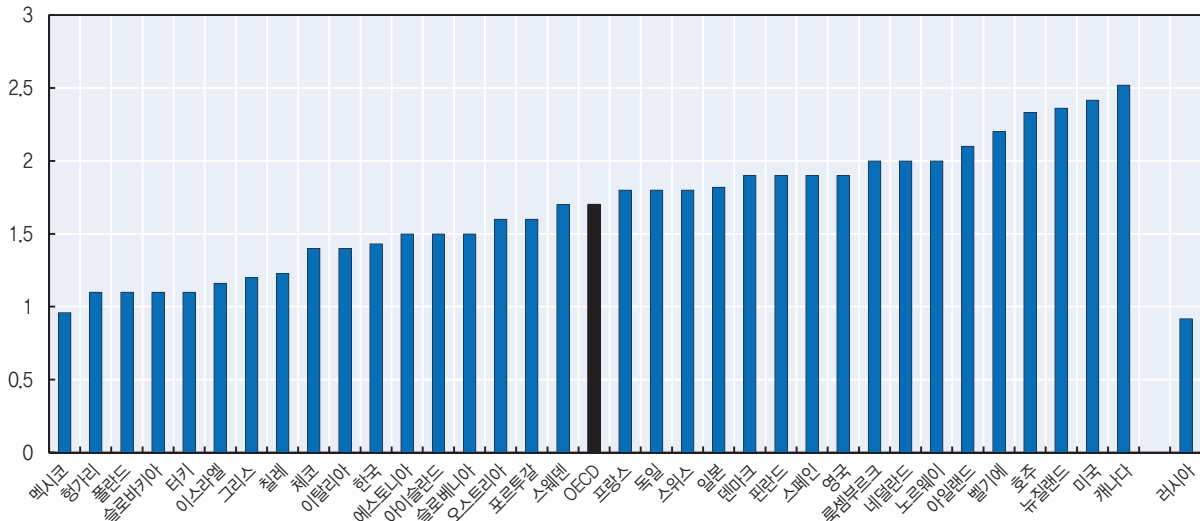
주거 조건,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기타 인프라 등 사람이 사는 장소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은 피난처를 찾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며 또한 양질의 주택은 안전의식, 프라이버시와 개인적 공간을 제공한다. 주택은 친구들과 친교를 나눌 공간과 가족을 부양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사람들의 관계에 중요하다. 주택 구매능력(housing affordability)은 종종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재정적 고려사항이다.

개인 당 방의 개수(정의를 보려면 박스 2.3 참조)는 OECD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벨기에의 주택 내 1인당 방의 개수는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의 2배이다(그림 2.15).

기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정의를 보려면 박스 2.3 참조)은 OECD 전역에서 보편적이지만 5% 이상의 일본, 에스토니아, 칠레, 터키, 브라질, 러시아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상당 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가족전용 실내수세식 화장실 없이 살고 있다(그림 2.16). 대부분이 국가에서 기본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이래 대체로 감소했다.

그림 2.15. 개인당 방의 개수

평균 숫자, 2013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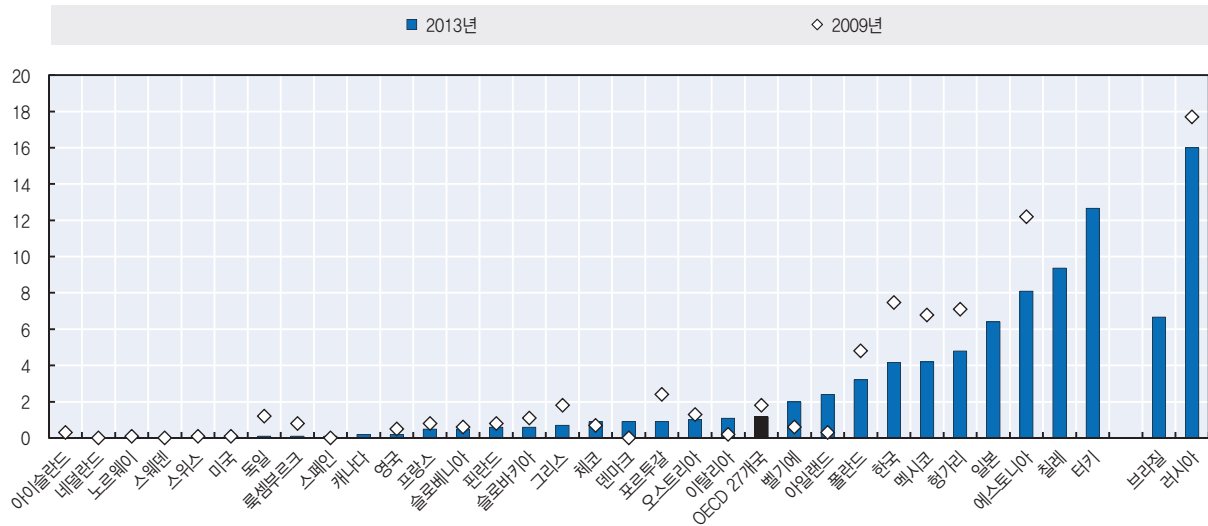
주: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 칠레, 러시아에 대한 OECD 추정치는 국가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경우 2012년, 호주, 러시아, 터키, 캐나다의 경우 2011년, 한국, 멕시코의 경우 2010년, 일본의 경우 2008년, 칠레의 경우 2002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EU 국가들과 노르웨이의 경우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호주의 경우 인구 및 주택 ABS 센서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국립가구조사, 칠레의 경우 INE Censo 2002,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가구지출조사, 일본의 경우 주택 및 토지 조사, 한국의 경우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멕시코의 경우 INEGI Censo de Poblacion y Vivienda 2010,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센서스, 터키의 경우 터키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미국의 경우 아메리칸 지역사회 서베이, 러시아의 경우 ROSSTAT 가구 소득, 지출, 소비 통계보고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48>

그림 2.16. 기본 위생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구 단독 사용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가 아일랜드의 경우 2012년,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2010년이다. 최초로 보여지는 년도는 멕시코의 경우 2006년이며 한국의 경우 2005년이다. 유일한 입수 가능한 관측연도가 브라질, 터키의 경우 2010년, 일본의 경우 2008년, 칠레의 경우 2010년, 캐나다의 경우 1997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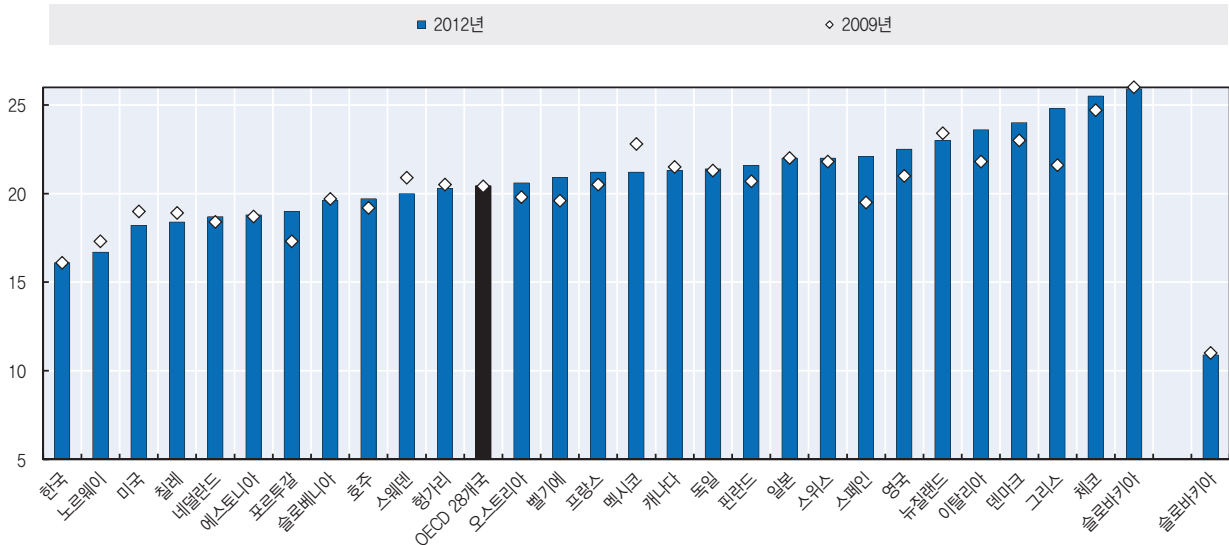
출처: EU 국가들과 노르웨이의 경우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가구 설비 및 장비 조사, 칠레의 경우 INE Censo 2002, 일본의 경우 주택 및 토지 조사, 한국의 경우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멕시코의 경우 INEGI Censo de Poblacion y Vivienda 2010, 터키의 경우 터키 소득 및 생활 환경 조사, 미국의 경우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 브라질의 경우 Universo do Censo Demografico 2010, 러시아의 경우 ROSSTAT 가구 소득, 지출, 소비 통계보고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57>

주택비용은 대개 가구 예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사람들은 주택에 연간총가처분가구소득의 20% 이상을 소비한다(전체 정의를 보려면 박스 2.3 참조). 주택 관련 지출은 뉴질랜드, 이탈리아, 덴마크에서 가구연간총소득의 23%를 초과하고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25%를 초과한다(그림 2.17). 주택관련 지출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모든 OECD 국가 중 절반에서 증가했다. 가장 큰 상승은 가구소득이 주택비용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감소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에서 나타났다.

그림 2.17. 주택관련 지출

가구총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 뉴질랜드의 경우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가 2011년이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처음에 보여진 연도는 2010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64>

박스 2.3. 주거 조건에 대한 측정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주거 조건 중심 지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개인 당 방의 개수**는 사람들이 혼잡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법이다. 이 지표는 주택 내 방의 개수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나눔으로써 측정된다. 여기에서 부엌, 설거지실/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차고, 상담실, 사무실 또는 상점은 제외시킨다. 데이터의 출처는 그림 2.15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나와있다.
- **기본적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가족 전용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 밖에 위치한 수세식 화장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샤워 시설이나 욕조도 구비된 룬안에 함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포함된다. 데이터의 출처는 그림 2.16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나와있다.
- **주택과 주택유지에 소비된 가구총가처분 소득의 비율**은 국민계정체계(SNA)에 정의된 대로, 주택의 실제·귀속 임대료, 주택의 유지보수(기타 서비스 포함)를 위한 지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 및 기타 연료비, 가구, 집기, 생활비품에 대한 지출, 주택의 정기적 보수를 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경비를 합산해서 가구총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된다.

이러한 주택 비용 측정치에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에 대한 가구의 지불액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가구들과 가구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들을 합산한 것으로 OECD 국민계정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박스 2.3. 주거 조건에 대한 측정(계속)

가구 혼잡도에 관한 지표에는 다수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는 주택의 규모와 주택의 위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충관계(trade-off)는 감안하지 않는데, 어떤 가구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작은 주택에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둘째, 주택 내의 1인당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이상적 지표는 이용 가능한 방의 개수뿐만 아니라 전반적 크기(예: 1인당 평방미터 등)를 가리켜야 한다. 예컨대, 도시 지역에서 방의 크기가 시골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더 작아서 국제적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주택 혼잡도 지표들은 가구 조사에서 보고되는 인지하는 공간 부족에 관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완되면 이상적일 것이다.

실내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는 두 번째 지표는 “질 좋은 주택(decent housing)”의 개념에 대한 대리 측정법(proxy measure)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상적인 지표는 적절한 전기 및 배관 설비, 바닥과 문의 품질, 구조적 손상과 적절한 난방 등과 같은 주거 조건의 다른 기본적 측면들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상적 주거 환경지표들 또한 가구의 보유 상태, 가구예산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거비용에 대한 압박, 여기 사용된 지표에서 다루지 않은 기타 유형의 주거 지출(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지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적 특징들(예: 실외 공해, 소음에 대한 노출도, 공공 서비스의 근접성)에 대한 측정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거 조건에 대한 측정은 어렵는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가 매우 적으며 국가 간에 일치된 주거환경조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OECD는 좀 더 완벽한 주택부동산시장에 대한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동산가격지수(RPPIs)라고도 불리는 주택가격지수(HPIs)와 기타 관련 지표들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개발 중이다. 이 작업에 2015년 여름에 발표되는 새 OECD “주택가격 및 관련 지표들”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

더 읽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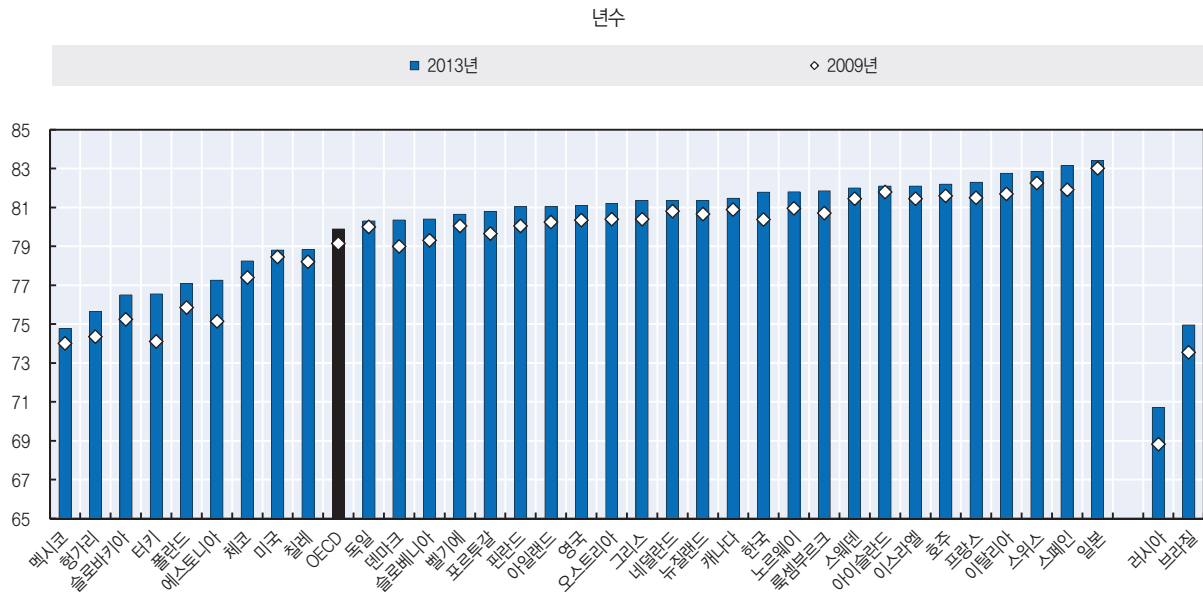
- Balestra, C. and J. Sultan (2013), “Home Sweet Home: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its Relation with Well-being”,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3/0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bcx0czc0x-en>.
- OECD (2011b), “Housing conditions”, in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6-en>.

건강 상태

건강과 웰빙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신이 가치롭게 여기는 활동에 참여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건강한 것이 모든 연령 대 사람들의 웰빙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다. 열악한 건강 상태는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낮은 만족감과 매일의 감정과 경험의 악화와 일관성 있게 연관된다. 건강은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OECD 국가들의 3분의 2 이상에서 출생 시 기대수명이 현재 80세를 넘어섰다(그림 2.18, 정의를 보려면 박스 2.4 참조). 가장 낮은 기대수명이 관측되는 국가는 멕시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인데 이 국가들에서 기대수명은 77세 미만이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기대수명의 누적된 증가는 아이슬란드, 독일, 미국, 일본에서 4개월이었고 터키, 에스토니아에서 2년 이상이다.

그림 2.18. 출생 시 기대수명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멕시코의 경우 2014년, 캐나다의 경우 2011년이다. 독일에 대한 값은 연방통계청(Destatis)에서 제공하며 2007-2009년, 2010-2012년을 의미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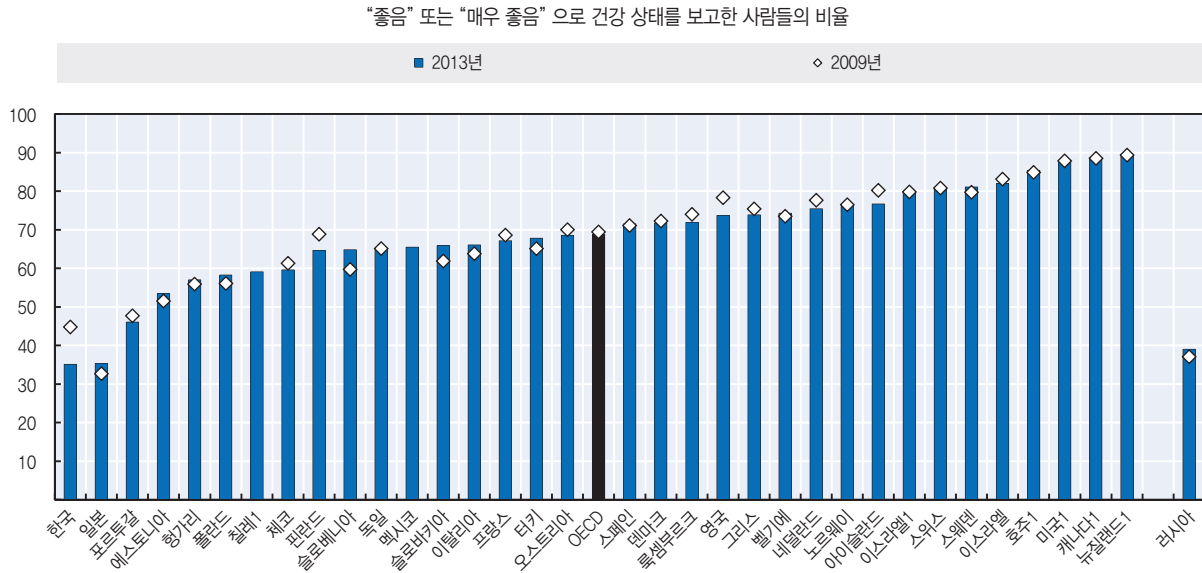
출처: "건강 상태",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40-en>; 연방통계청(Destatis) (2015),

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Bevoelkerung/Sterbefaelle/Tabellen/SterbetafelDeutschland.xls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75>

더 오래 사는 삶이 반드시 더 건강한 삶은 아니며, 인지하는 건강은 사람들의 경험을 보완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OECD 지역에서 겨우 3분 2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 좋음 ” 또는 “ 매우 좋음 ” 이라고 말한다(그림 2.19, 정의를 보려면 박스 2.4 참조).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안정적인데 한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에서 3% 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 4%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림 2.19. 인지하는 건강 상태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러시아의 경우 2014년이다. 2009년 값은 호주,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2007년, 러시아의 경우 2011년을 의미한다. 단일 데이터 포인트는 멕시코의 경우 2006년, 칠레의 경우 2011년을 의미한다. 성인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1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1”로 표시된 국가들의 결과는 다른 국가들의 결과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데 응답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에 대한 보고된 추정치의 상향편향(upward bias)이 나타날 수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건강 상태”,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40-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86>

박스 2.4. 건강 상태의 측정

앞에서 제시된 건강 상태에 관한 두개의 중심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출생시 기대여명**은 현재 일반적인 연령별 사망률을 근거로 해서 오늘 태어난 신생아가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년수를 측정한다. 전체 인구에 대한 출생 시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 수명으로 계산된다. 데이터는 OECD에 의해 집계되고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공식국가통계에 근거한다.
-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건강 상태를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으로 보고한 15세 이상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가 있다. 이 지표는 “당신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어떠한가?”라는 질문과 대부분 국가에서 “매우 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이라는 범주의 응답을 근거로 한다. 측정 방법론에서의 일부 국가별 차이 (예를 들면, 다른 응답척도가 사용됨)는 국가별 비교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림 2.19에 대한 주석에서 더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데이터는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집계되었고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조사(EU-SILC), 일반가구조사, 또는 여러 국가들에서 국가공식조사의 일환으로 시행된 더 자세한 건강면접조사(Health Interviews)를 기반으로 한다.

박스 2.4. 건강 상태의 측정(계속)

출생시 기대여명은 특정 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의 기대수명의 추정치만을 제공하는데 특정 기간에 태어나는 코호트(cohort)의 실제 사망률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에 대한 측정치들은 모든 OECD 국가들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에 근거하며 성별에 의해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에 관한 일상적 정보(routine information)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데 이 측정법은 사망기록을 인구센서스와 연동시키거나 사망자의 교육수준에 관한 정보를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에 기록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적 상태(병과 질환의 발생)는 더 어렵다. 한 가지 접근법은 사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시력, 청력, 걷기, 인지, 또는 감정(기분, 정서, 느낌)과 같은 영역에서 어떤 제약을 경험하는지와 통증과 피로를 느끼는지에 역점을 둔다. 건강상태 측정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세계보건기구/유럽통계청 태스크포스(또는 부다페스트 이니셔티브)와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그룹이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련의 문항을 제안했으나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신건강 성과에 관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통계에서도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2014 유럽보건면접조사는 가까운 미래에 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일련의 보건통계지표들에 관한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해낼 것이다.

인지하는 건강상태 지표는 모든 OECD 국가들을 위해 이용 가능한 소수의 병적 상태 지표들 중 하나이다. 이런 측정법은 병적상태의 광범위한 영역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측정법은 응답자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지하는 건강상태 지표는 객관적 용어로 병적상태를 규정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측정 방법의 사용, 문화적 편견, 기타 상황적 요소들인 국가 간 데이터 비교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더 읽을 거리:

- OECD (2015d),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 OECD (2014b), *Making Mental Health Count: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Neglecting Mental Health Care*,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8445-en>.

건강 성과의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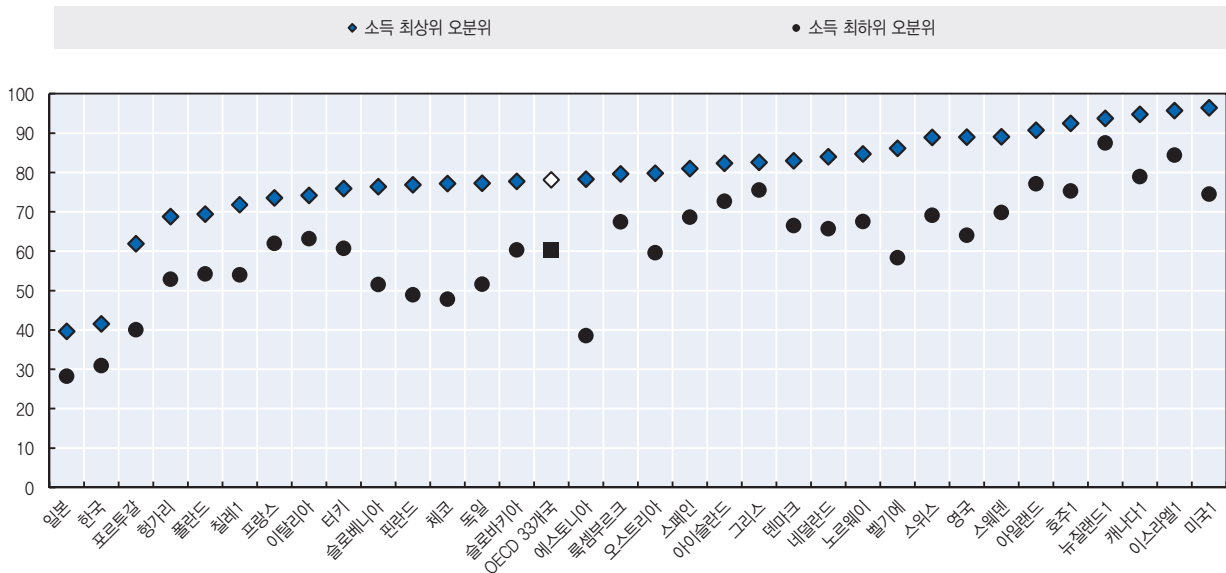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대개 남성보다 덜 건강하다고 느낀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지만 자가보고 건강상태(self-reported health status)는 일반적으로 더 나쁘다(OECD, 2013a). 증거 자료에 따르면 또한 건강상태는 교육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기대수명을 누린다고 한다(OECD, 2012; OECD 2015d; EU 2013).

예를 들어, 데이터가 가능한⁷ OECD 15개국들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30세 남성이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8년 더 살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격차가 4년이다(OECD, 2015d). 이 격차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에서 가장 크고,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에서 가장 작다. 예컨대 체코에서 대학학위가 있는 30세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남성보다 18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에스토니아에서 그 격차가 15년이지만,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에서는 그 격차가 4년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에서 인지하는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사회적 편차(social gradient)가 존재한다: 소득 최상위 오분위에 속한 사람들의 78%가 건강상태가 좋거나 더 좋아졌다고 보고하는 반면에 최하위 오분위에 속한 사람의 60%만이 그렇다고 보고한다(그림 2.20). 자가보고 건강 상태의 불평등은 에스토니아, 체코, 핀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슬로베니아에서 특히 큰데 이 나라들에서 소득의 최상위 오분위와 소득 최하위 오분위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건강 상태 측면의 격차는 25% 포인트 이상이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 그리스, 아이슬란드에서 그 격차는 10% 포인트 미만이다.⁸

그림 2.20.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 사이의 인지하는 건강상태 측면의 격차

건강상태가 “좋음” “매우 좋음” 보고한 성인의 비율, 2013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데이터가 뉴질랜드의 경우 2014년, 칠레는 2011년, 호주는 2007년을 의미한다. 성인은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1”로 표시된 국가들의 결과는 다른 국가들의 결과와 엄밀한 비교가 불가능한데 보고 기준(reporting scales)의 차이 때문이며, 이 차이는 보고된 추정치에서의 상향편의(upward bias)를 낳을 수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건강 상태”,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40-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090>

일과 삶의 균형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들의 좀 더 광범위한 웰빙의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다른 어떤 종류의 활동보다 깨어있는 시간의 가장 큰 부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삶과 일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전체 지역사회와의 관계에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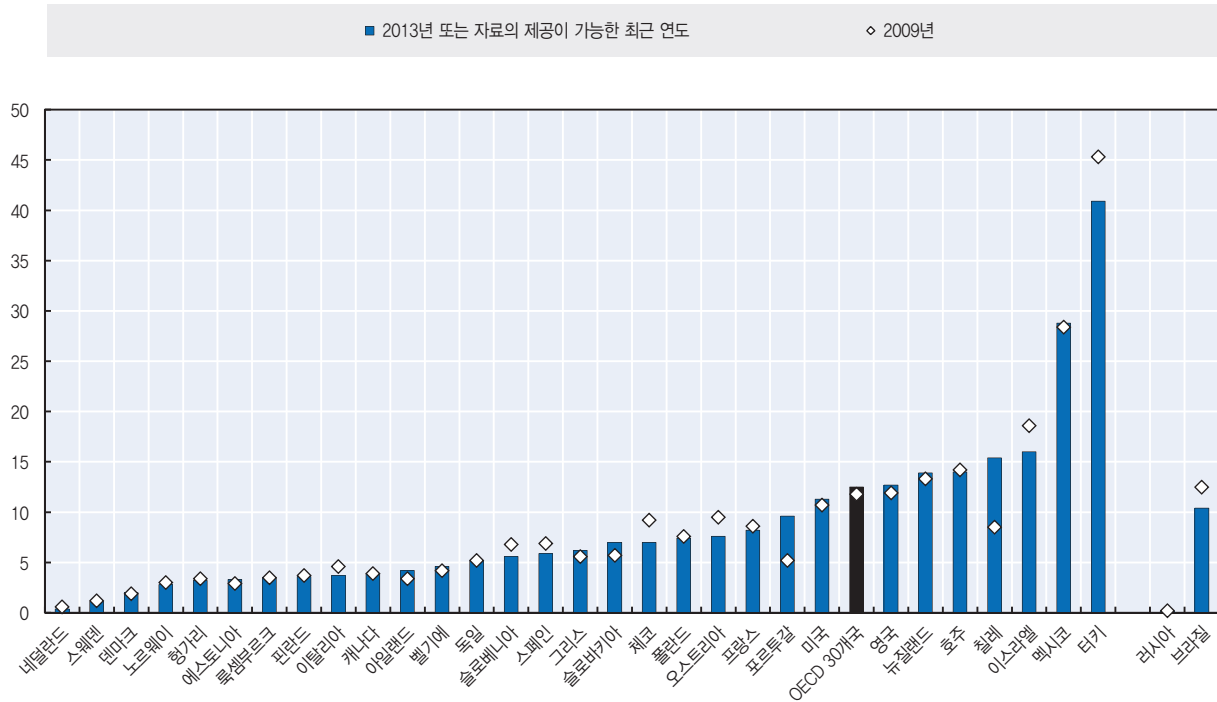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의 웰빙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녀와 다른 부양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전일제 근무 직업(full-time job)과 조화를 이루어 수행해야 할 중요한 형태의 “무급근로”이다.

OECD 전역에서 8명의 근로자 중 1명이 규칙적으로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한다(그림 2.21, 정의를 보려면 박스 2.5 참조). 매우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은 네덜란드에서 250명 중 1명에 불과하지만 터키에서는 2.4명당 1명꼴이다. 2009년 이래 매우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비율은 OECD 전역에서 0.7% 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에 포르투갈과 칠레에서 장시간 일하는 빈도는 2009년 수준의 거의 배가 되었는데 칠레에서 6.9% 포인트 증가했고 포르투갈에서 4.4%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미국, 그리스, 뉴질랜드에서 약 1% 포인트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터키, 이스라엘, 체코, 오스트리아, 브라질에서 대략 2% 또는 그 이상 감소했다.

그림 2.21. 매우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

대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율



주: 데이터는 대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러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데이터가 51시간 이상을 일했던 사람들을 나타낸다. 다뤄진 업무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미국의 경우는 주된 일자리 (main job)이고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는 모든 종류의 일을 말한다. 2002년부터 슬로바키아의 경우 평상시의 근로시간에서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을 제외시킨다. 데이터는 칠레와 브라질의 경우 2012년을 의미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노동인구 통계", OECD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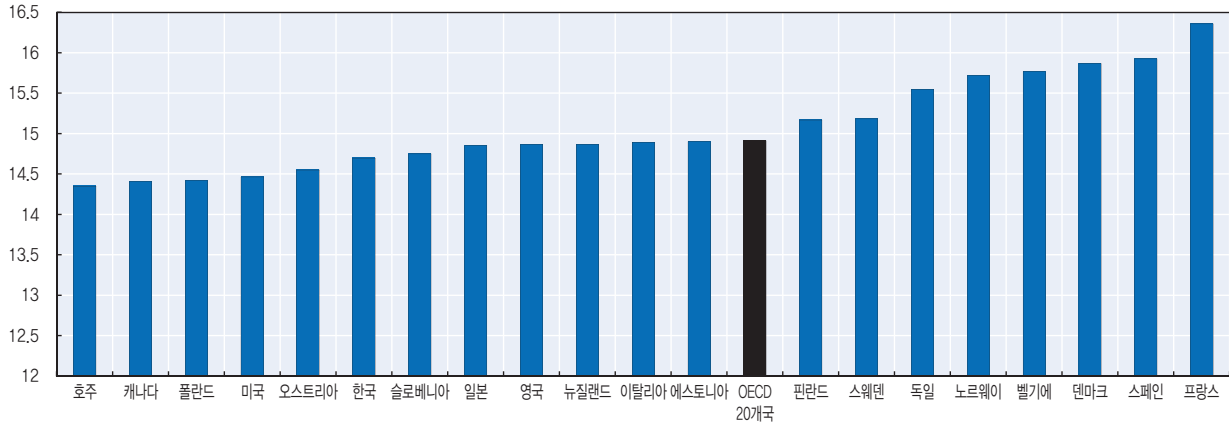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05>

수면, 식사, 위생, 운동,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등 여가와 개인적 돌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사람들의 일과 삶 사이의 균형감과 전반적 웰빙에 중요하다. 데이터가 가능한 20개의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인 전일제 근로자가 하루에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겨우 15시간 미만이다(그림 2.22).

국가별로 시간을 보내는 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에 사는 전일제 근로자는 하루 15시간 30분 이상을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한다. 이 시간은 미국, 폴란드, 캐나다, 호주에서 14시간 30분 미만으로 줄어든다.

그림 2.22.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1일당 시간 수, 전일제 고용 근로자,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 2013년, 일본의 경우 2011년, 캐나다의 경우 2010년, 스페인, 뉴질랜드, 프랑스, 에스토니아의 경우 2009-2010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09년, 호주의 경우 2006년, 벨기에, 영국의 경우 2005년, 폴란드의 경우 2003-2004년, 독일의 경우 2001-2002년, 덴마크의 경우 2001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00-2001년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하루당 1,440분으로 정규화(normalized)되었는데 즉, 시간사용을 합쳐서 1,440분이 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누락된 혹은 추가의 시간(대개 30-40분)은 모든 활동에 걸쳐 공평하게 분배된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데이터는 배제되었는데 그 국가들은 시간제 고용 근로자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전체 표본에 포함되는 사람의 연령은 뉴질랜드에서는 12세 이상,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미국에서는 15세 이상,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는 20-74세, 한국에서는 20세 이상이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전일제 근로자들에게만 한정된다. 주당 최소근로시간은 캐나다에서 30시간, 일본에서 35시간, 한국에서 36시간, 미국에서 35시간으로 각각 설정된다. OECD 평균은 여기 차트에 포함된 값에 인구 가중 평균치를 부여한 것이다.

출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조화로운 유럽 생활시간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을 근거로 한 OECD 계산 (<https://www.h2.scb.se/tus/tus/>); 유럽통계청 데이터베이스,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tus_00selfstat&lang=en; 비유럽회원국의 경우 국가통계청에서 가져온 공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및 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11>

박스 2.5. 일과 삶의 균형 측정

앞에서 제시된 일과 삶의 균형의 두 가지 중심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임금을 받기 위해서 보통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 관한 데이터는 모든 연령층의 전체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여진다. 지표는 개인사업근로자들(self-employed)을 제외한다. 기준은 50시간으로 설정되는데 출퇴근, 무급근로, 기본적 욕구(수면과 식사 등)를 감안하면 주당 50시간 이상을 규칙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활동을 위해서 매우 적은 시간(하루 1-2시간)만이 남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대근무시간(maximum working hours)에 관한 규정이 있는 나라들에서 이 기준은 대개 주당 48시간으로 제한된다. 데이터는 국가노동인구조사에서 가져오면 대체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한 시간에 관한 데이터는 일상적인 하루(typical day)에 대한 것을 보여주며 고용률이 다른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일제 근로자들만을 나타낸다.

박스 2.5. 일과 삶의 균형 측정(계속)

정보는 국가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s)를 통해서 수집되는데 조사 참여 응답자에게 특정 기간에 대표성을 띠는 하루 혹은 며칠 간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일지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수집된다.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된 시간”이라는 정의에서 감안된 활동에는 수면, 식사, 위생, 운동, 친구 및 가족과 보낸 시간, 여가와 개인적 돌봄을 위한 이동시간이 포함된다. 일부 국가와 일부 특정 활동의 경우 이 조사들 간의 비교가능성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여기 보여지는 데이터는 OECD에 의해 사후에 조정되었다. 데이터는 유럽 국가들을 위한 조화로운 유럽 생활시간 조사(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유럽통계청 생활시간 데이터베이스, 공용(public-use) 생활시간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국가 통계청의 표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중심 지표들은 개인과 가족의 웰빙에 기여하는 비근로 활동(non-work activities)에 사용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직·간접적 측정치를 제공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측정하기란 더 어려운 과제이다. 첫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은 필요, 개인적 선호도, 문화적·사회적·가족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는 어떤 사람이 “균형잡힌” 것으로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균형잡힌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에게는 장시간 일하는 별도의 동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장시간 근로에 관한 데이터에서 배제되지만 자영업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여기서 사용된 지표들은 여러 과제들에 할당된 시간의 양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근로 외에 다른 과제에 쓰여진 시간의 질에 대한 조망은 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람들의 개인적 즐거움 또는 인지하는 시간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셋째, 생활시간조사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또는 간헐적(매 5년 또는 10년 마다)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체로 추정치의 적시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더 읽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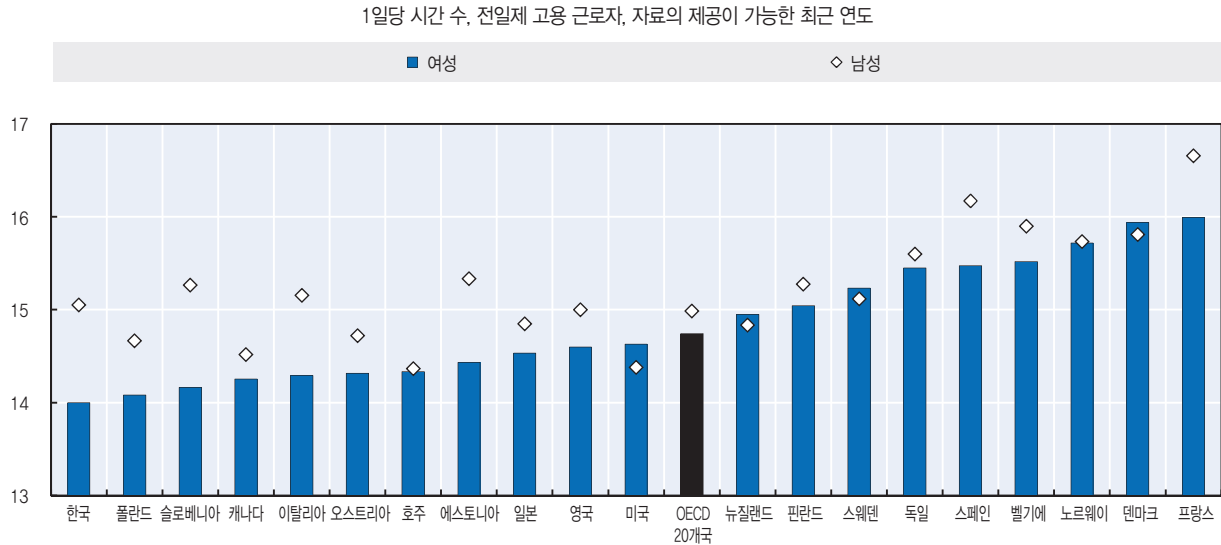
- OECD (2014c), “Improving well-being”, in OECD,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usa-2014-5-en.
- OECD (2011c),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8367-en>.
- OECD (2007),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32477-en>.

일과 삶의 균형 성과들의 분배

성별(gender)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의 불평등을 고려할 때 핵심적 요소이다(OECD, 2013a).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남성 근로자가 유급 근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유급근로와 무급 근로(가사일 등)를 모두 감안하면 여성이 더 오랜 시간을 일한다(OECD, 2013a). 실제로 데이터가 가능한 OECD 국가들의 3분의 2에서 전일제 여성 근로자는 전일제 남성 근로자보다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한다(그림 2. 23). 한국과

슬로베니아에서 그 격차가 가장 큰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하루 1시간 이상을 더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하며 이탈리아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성별격차가 대략 55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대략 6분을 더 사용하며 미국에서는 대략 18분을 더 사용한다.

그림 2.23. 남성과 여성이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주: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 2013년, 일본의 경우 2011년, 캐나다의 경우 2010년, 스페인, 뉴질랜드, 프랑스, 에스토니아의 경우 2009-2010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09년, 호주의 경우 2006년, 벨기에, 영국의 경우 2005년, 폴란드의 경우 2003-2004년, 독일의 경우 2001-2002년, 덴마크의 경우 2001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00-2001년이다. 데이터는 하루당 1,440분으로 정규화(normalized)되었는데 즉, 시간사용을 합쳐서 1,440분이 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누락된 혹은 추가의 시간(대개 30-40분)은 모든 활동에 걸쳐 공평하게 분배된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데이터는 배제되었는데 그 국가들은 시간제 고용 근로자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전체 표본에 포함되는 사람의 연령은 뉴질랜드에서는 12세 이상,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미국에서는 15세 이상,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는 20-74세, 한국에서는 20세 이상이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전일제 근로자들에게만 한정된다. 주당 최소근로시간은 캐나다에서 30시간, 일본에서 35시간, 한국에서 36시간, 미국에서 35시간으로 각각 설정된다. OECD 평균은 여기 차트에 포함된 값에 인구 가중 평균치를 부여한 것이다.

출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조화로운 유럽 생활시간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을 근거로 한 OECD 계산 (<https://www.h2.scb.se/tus/tus/>); 유럽통계청 데이터베이스,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tus_00selfstat&lang=en; 비유럽회원국의 경우 국가통계청에서 가져온 공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및 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24>

교육과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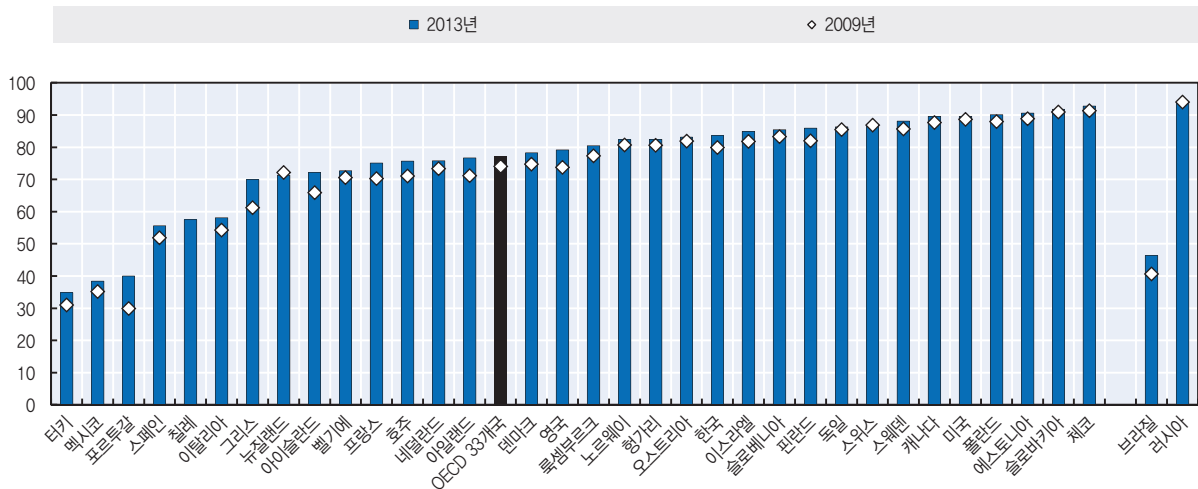
좋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가 더 쉽지만 좋은 교육은 직장으로 가는 열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회는 본질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지만 교육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대개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서 인정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좋은 건강 상태와 더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연관이 된다.

OECD 지역 전체적으로 25세에서 64세까지 사람들의 4분 3이상만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다(그림 2.24, 정의를 보려면 박스 2.6 참조). 이 비율은 폴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러시아에서 90% 이상으로 상승한다. 반면에 이탈리아, 칠레,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터키에서는 25세에서 64세까지의 사람들 중 60% 미만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이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상승해서 평균적으로 3.2% 포인트 증가했다.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에서의 인지능력(그림 2.25, 정의를 보려면 박스 2.6 참조)은 학교를 다닌 년수나 자격증이 아닌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2012년에 OECD 전역에서 한국,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 학생들의 인지능력이 가장 높았고, 멕시코, 칠레, 터키, 그리스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2.24. 성인노동인구의 교육이수율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25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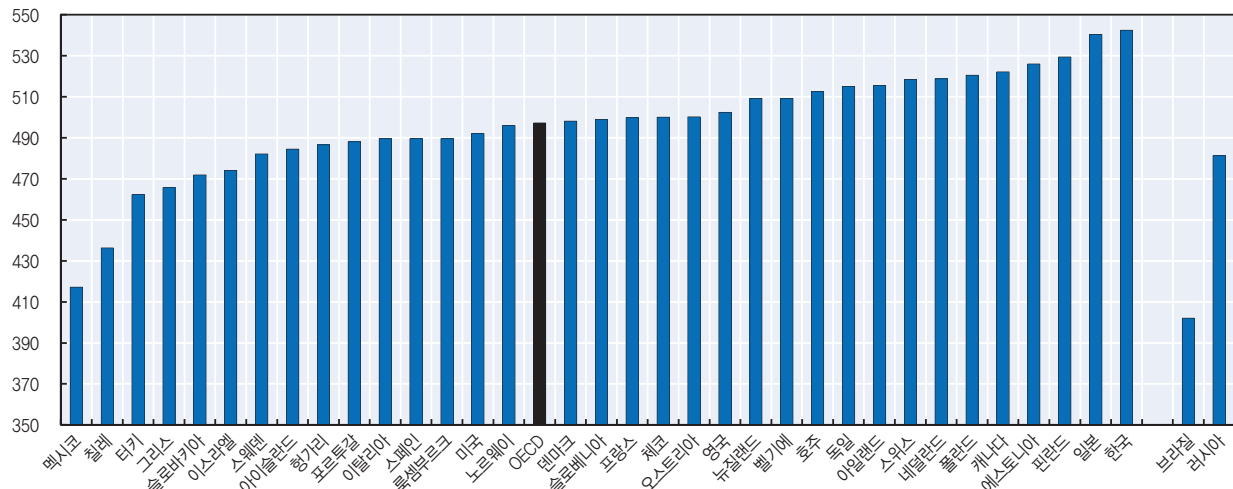
주: 칠레에 대한 데이터는 2011년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경우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2012년이고 최초 연도는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에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OECD(2015e), 한눈에 보는 교육중간보고서: 고용 및 교육이수율 지표 업데이트, OECD, 파리, www.oecd.org/edu/EAG-Interim-report.pdf.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33>

그림 2.25. 15세 학생의 인지능력

읽기, 수학, 과학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평균 점수, 2012년



주: 읽기, 수학, 과학에 관한 PISA 점수는 OECD 평균을 500점에 표준화한 것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출처: OECD(2014e), PISA 2012 결과: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1 권, 개정판): 수학, 읽기, 과학에서의 학생 수행도, PISA,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08780-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40>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국제성인역량조사)는 문자해독력, 수리력 및 첨단 기술환경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성인들의 숙달도를 평가한다(정확한 정의를 보려면 박스 2.6 참조). 이 조사에 따르면 OECD 지역 내 성인들의 역량은 국가 간 격차가 큰데(그림 2. 26) 특히 수리력 부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과 핀란드는 수리력과 언어능력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반면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두 영역에서 낮은 수행도를 보인다.

성인역량에 대한 국가들의 비교 순위는 15세 학생들 사이의 인지능력 결과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성인능력 측정치에서 순위가 훨씬 높고 한국의 경우 15세 학생들의 인지능력은 최정상이지만 성인역량은 평균 수준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박스 2.6. 교육과 역량의 측정

앞에서 제시된 교육 및 역량에 관한 세 가지 중심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성인 인구의 교육 이수율은 25세부터 64세의 인구 중 최소 고등학교 교육(국제표준교육분류법(ISCED)의 정의에 따름)을 마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한다.**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의는 국제표준교육분류법(ISCED)의 레벨 3 이상(ISCED 레벨 3C short programs 제외)에 해당하며 i) 학생들에게 보통 추가 교육을 준비시키기 위해 기획된 “general(일반)”으로 규정된 프로그램과 ii) 직업훈련교육(VET)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킨다. 이 지표의 기초 데이터는 국가학력분류기준(NEAC)에 관한 연례 OECD 설문조사문항을 통해 수집되며 노동력 조사(LFS)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 **읽기, 수학, 과학 부문의 평균 점수는 OECD가 관장하는 국제성취도평가(PISA)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15세 학생에 대한 평가점수를 제공한다.** 읽기, 수학, 과학 부문의 역량은 각각 따로 평가되며 점수는 OECD 평균을 500으로 표준화한 기준에 근거해서 측정된다. 여기 보여진 요약점수는 세 과목 평가에 대한 평균 점수이다.
- **성인 인구의 수리력과 문자해독력 부문의 평균 점수는 OECD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성인역량프로그램의 (PIAAC)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OECD 성인역량조사(OECD Survey of Adult Skills)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한다.** 이 지표는 16세부터 65세까지의 성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PIAAC의 주된 구성요소는 핵심 정보처리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문자해독능력, 수리능력, 첨단 기술환경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각 영역에서의 점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정보처리 과제에 대한 숙달도와 관련된 능력으로 간주된다. 능력과 연관된 능력의 연속체로서 간주된다. 점수는 500점을 기준으로 표시된다.

교육이수율은 사람들이 취득한 학력수준 또는 서류상 자격을 반영하는 반면에, PIAAC는 현재까지의 공식 및 비공식적 생애학습 경험의 최종 결과(net result)를 파악한다. 현재, 그러나 PIAAC를 시행하는 국가의 숫자는 얼마되지 않으며 시행 주기는 10년이다.

박스 2.6. 교육과 역량의 측정(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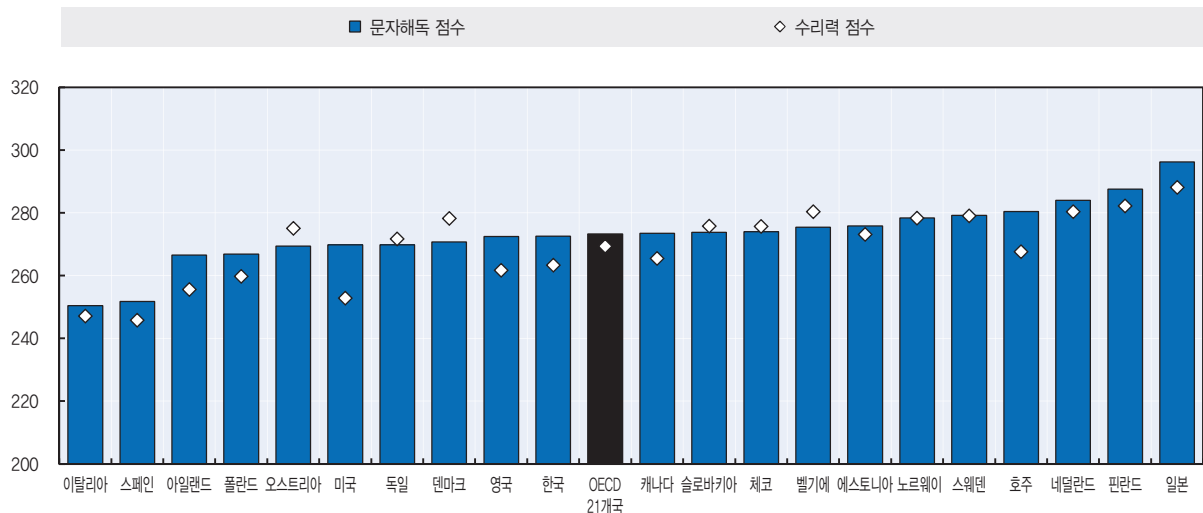
사람들의 교육과 역량에 관한 이상적 측정치들은 전체 인구의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을 반영하고 표준화된 점수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 제시된 지표들은 이러한 이상적 측정치들의 대리지표들이다. 그러나 이들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지표들은 개인의 습득된 능력들만을 측정하며 삶에서 이 능력들이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비인지적(사회적/정서적)능력은 파악하지 않는다. 교육 및 사회적 진보에 관한 OECD 프로젝트(project on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OECD, 2015f 참조)는 후자(비인지적 능력)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방법들을 개발 중인데, 비인지적 능력의 구성은 OECD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2019년에 시작될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의 주제이다.

더 읽을 거리:

- OECD (2015f), *Skills for Social Progress: The Power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OECD Skills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6159-en>.
- OECD (2014d),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4-en>.
- OECD (2013e),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4256-en>.

그림 2.26. 성인인구의 역량

16-65세 성인의 평균 숙달도



주: 벨기에에 대한 데이터는 플랜더스,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자료이다. 각 영역에서 점수는 500점 기준으로 표시된다.

출처: OECD(2013e), OECD 역량 전망 2013: 성인 역량 조사의 첫 번째 결과,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0425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56>

교육과 역량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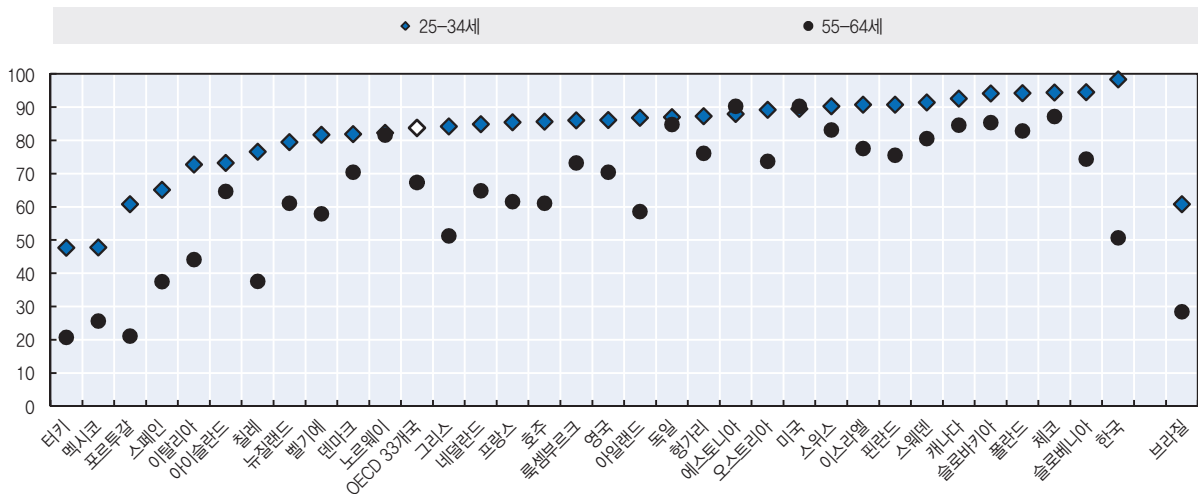
모든 OECD 국가에서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의 교육수준에서의 격차는 일반적으로 좁혀졌으나 25-64세의 여성들의 역량 측면에서의 성별 격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는데, OECD 성인역량조사(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에 따르면 여성의 역량은 특히 수리력에서 대체로 남성보다 낮다(OECD, 2013e). 15세 인구의 경우, 교육에서의 양성격차는 학습 과목에 따라 다른데 남학생이 읽기에서 평균적으로 여학생보다 수행도가 낮지만 수학에서는 수행도가 높다(OECD, 2015g; OECD, 2015h).

15세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다. 가장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가장 나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사회·경제·문화적 지위에 관한 PISA지표에서 최상위 오분위와 최하위 오분위에 각각 속함)을 가진 학생들 사이의 인지능력 격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데, 가장 격차가 큰 국가들에서는 2년 이상의 교과과정에서 습득되는 역량에 상응하는 차이가 있다(OECD, 2013a). 벨기에,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의 PISA 점수는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이지만,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나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사이의 수행도 격차가 매우 크지만, 한국,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PISA 점수가 높고 배경이 다른 학생들 간의 성적 격차도 더 적다.

젊은 노동연령 인구나 나이든 노동연령 인구 사이의 교육수준의 격차도 국가별로 다르다(그림 2.27). 젊은 세대의 근로자들은 나이든 세대에 비해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OECD 지역에서 25-34세 연령층의 교육이수율은 55-64세 연령층보다 평균 16% 포인트 높다.

그림 2.27. 청년 노동연령 인구나 장년층 노동연령 인구의 교육이수율

25-34세 연령층과 55-64세 연령층에서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사람의 비율, 2013년



주: 데이터가 칠레의 경우 2011년을 의미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다.

출처: OECD(2015e), 한눈에 본 교육 중간 보고서: 고용 및 교육이수율 지표의 업데이트, OECD, 파리, www.oecd.org/edu/EAG-Interim-report.pdf.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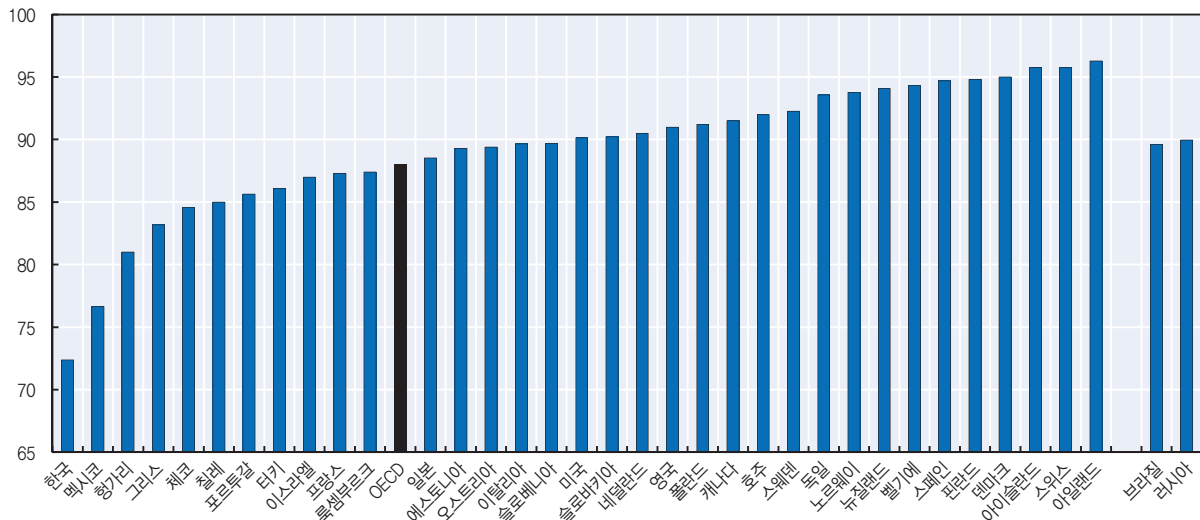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웰빙의 강력한 원천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 활동에서 가장 즐거운 부분임을 보여준다.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낮은 주관적 웰빙의 결정적 요소이다. 강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직업이 있고 건강 상태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적어도 85%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고 보고한다(그림 2.28).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최상위권 OECD 국가들 간에는 작은 반면에,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에서 보고된 지지 수준(약 95-97%)과 한국과 멕시코(약 72-77%)에서 보고된 지지 수준 사이에는 20% 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림 2.28. 인지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의존할 친척 또는 친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14년



주: 아이슬란드의 경우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것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77>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인지하는 지지 수준이 멕시코(9% 포인트)와 한국(7% 포인트)에서 하락했지만 터키(10% 포인트)에서 상승했다(갤럽조사, 2015).

박스 2.7. 사회적 관계의 측정

앞에서 제시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심 지표들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 인지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은 “만약 당신이 곤란에 처한 경우 도움 받기를 원할 때마다 의존할 친척 또는 친구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 라는 설문조사 질문을 근거로 한다. 여기에 나타난 데이터는 “그렇다”고 응답한 표본의 비중을 반영한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 갤럽세계조사인데 매년 국가별로 1,000명의 사람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다. 표본은 국가적인 대표성을 갖는 15세 이상의 사람들(시골 지역 포함)을 대상으로 사전에 결정되며, 비임의적 응답 패턴에 대한 보정을 하고, 표본 데이터는 갤럽이 제공하는 가중치를 사용해서 인구에 대한 가중치를 준다.*

사회적 지지는 여러 출처(파트너, 친구, 가족 구성원, 직장동료 등)에서 올 수 있고, 정서적 지지, 실질적 지원(부양가족 돌봄 등), 재정적 지원, 경력 또는 직무 관련 지원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띤다. 여기 제시된 측정법은 곤란할 때의 도움에 초점을 맞추지만 제공된 지지의 질이나 성격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상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지표들은 질과 양적으로 여러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가장 흔한 접근법 중 하나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수(스포츠 클럽, 종교 단체, 직장 단체 등) 또는 특정 지역에서 자원봉사 단체의 밀집성 등 간접지표들에 의존한다(제5장 참조).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법들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공식적 관계망(formal networks)에 대한 참여에 한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친구들/친척들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식적인 회원지위와 그것이 사람들의 웰빙에 미치는 중요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생활시간일지는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타인과 보낸 시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 관계망과 개인들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다양한 공식적 조사로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는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s)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공식적 통계의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지 않다(Scrivens and Smith, 2013).

더 읽을 거리:

- Scrivens, K. and C. Smith (2013), “F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Capital: An Agenda for Measurement”,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3/0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bcx010wmt-en>.
- Siegler, V. (2015),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An Analysis of Social Capital in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www.ons.gov.uk/ons/rel/wellbeing/measuring-national-well-being/analysis-of-social-well-being--socialcapital--in-the-uk---2013-14/art-measuring-national-well-being---an-analysis-of-social-capital-in-the-uk.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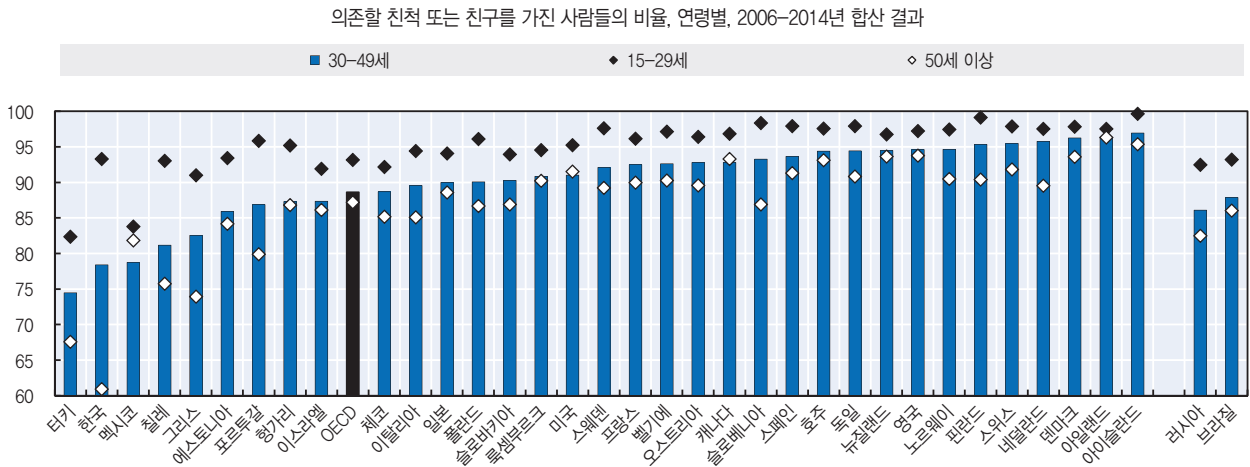
* 갤럽세계조사에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부여 과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첫째, 지리적인 불균형(주요 도시들에 대한 과대표집 등으로 인한)에 대해 조정을 하고, 둘째 표본선정확률(가구 내 성인의 수, 집전화와 핸드폰 이중 사용자)을 조정하고, 셋째,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 따른 인구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조정한다.

사회적 관계의 분포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필요할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OECD, 2013a). 젊은 사람(15-29세)이 나이 든 사람(50세 이상)보다 대체로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2.29).

OECD 국가중에서 연령과 관련된 격차는 한국, 칠레,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에서 가장 크고 영어사용국가들, 멕시코,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작다. OECD 국가의 3분의 2 이상에서 사회적 지지가 결핍된 나이든 사람의 비율이 젊은이의 2배에서 3배인데 이는 전반적 지지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에도 해당된다.

그림 2.29. 연령 집단별 사회적 지지 수준의 격차



주: 데이터는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자료 제공이 가능한 모든 년도에서 수집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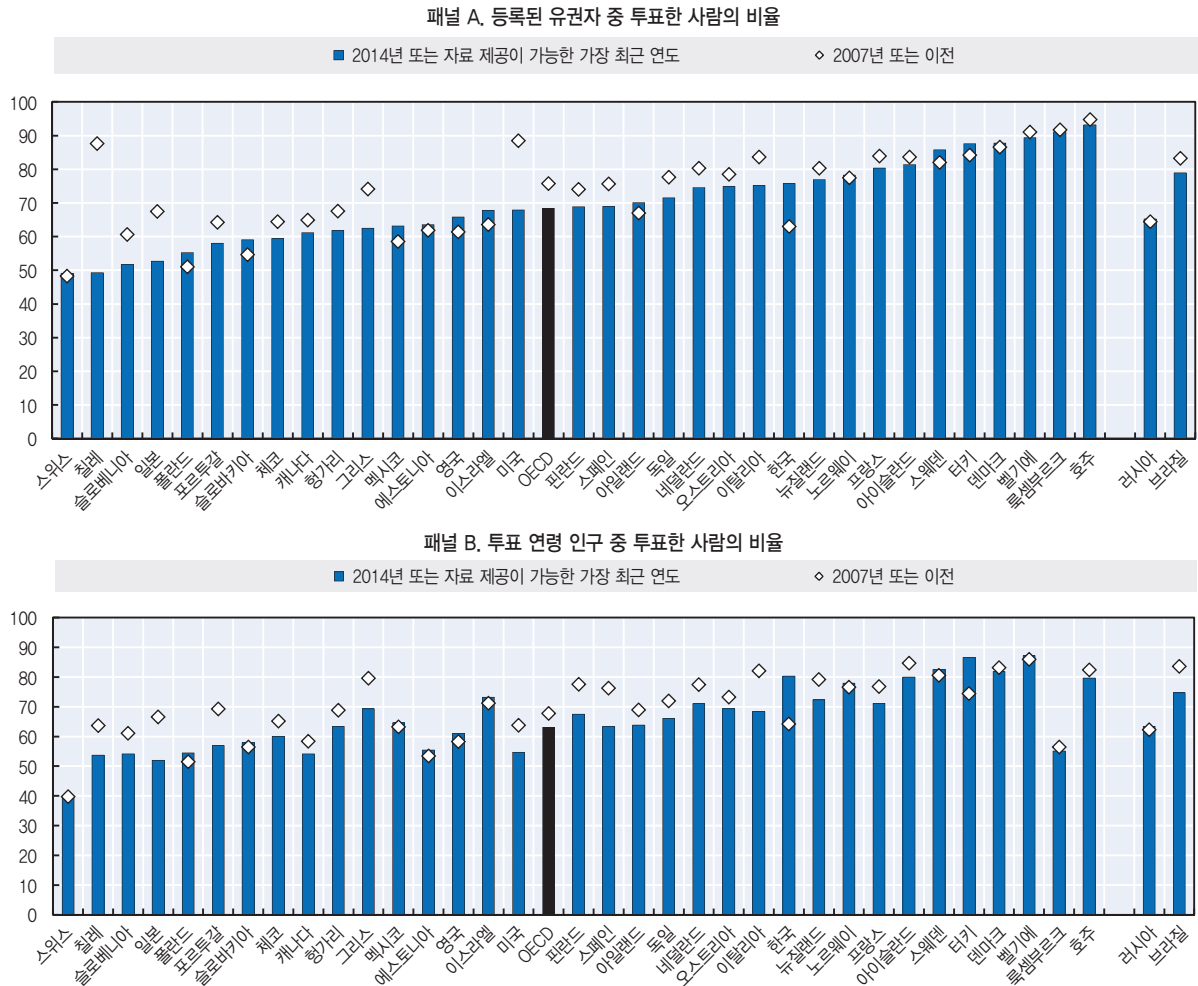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81>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사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기본적 자유이자 효과적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이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인구 대비 투표자의 비율인 투표율은 OECD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그림 2. 30, 패널 A). 이는 선거제도의 차이를 일부 반영하는데 특히 높은 투표율(등록된 인구의 85% 이상)로 이어지는 일부 OECD 국가의 의무투표제도(호주, 룩셈부르크, 벨기에, 터키;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IDEA), 2015)⁹ 때문이다. 스위스는 OECD 지역에서 국가적 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가장 낮지만 고도의 직접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시행하는데 유권자들은 지역사회, 지역 또는 국가 단위의 이슈들에 대해 일년에 여러차례 투표를 한다. 2007년 이래 OECD 국가들의 거의 3분의 2에서 투표율이 하락했는데 칠레(2012년에 의무투표제도가 폐지됨), 미국, 일본, 그리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¹⁰

전체 투표연령인구 중(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이 아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수를 고려하면 투표율에 있어서 국가 간 패턴이 약간 다른데(그림 2. 30, 패널 B), 유권자 등록의 국가별 차이점, 선거인 등록부 운영법, 비거주자(non-resident) 투표에 관한 규정, 국가 선거에 투표자격을 갖지 못한 거주민의 숫자가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 A와 패널 B는 OECD 지역 전체에서 최근 몇 년간 나타난 투표 패턴의 하락추세를 대체로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

그림 2.30. 투표율



주: 국가적 선거는 의회선거를 말하는데 핀란드, 프랑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 브라질, 러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고려되었다.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슬로베니아, 일본, 뉴질랜드, 헝가리, 스웨덴, 브라질, 벨기에의 경우 2014년, 룩셈부르크, 칠레,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호주,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3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멕시코, 그리스, 프랑스, 한국의 경우 2012년,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터키의 경우 2011년, 영국과 폴란드의 경우 2010년이다. 자료 제공이 가능한 최초의 연도는 호주,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터키, 프랑스, 한국의 경우 2007년,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핀란드, 멕시코, 브라질의 경우 2006년, 칠레, 독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폴란드의 경우 2005년,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미국, 러시아의 경우 2004년이다. 각 패널에서 OECD 평균은 인구에 대한 가중치를 준 것이다.

출처: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IDEA), www.idea.i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196>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도 공공정책 입안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해당사자들을 법률과 규정 개발에 참여시키는 것은 해당 법안의 품질과 포용성을 개선시키는데, 이는 법안 발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공의 감시를 거치고, 부패를 막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가능하다. 거의 3분의 2의 OECD 회원국이 모든 주요 법률(primary law)을 개발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요건을 이행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개발할 때는 절반의 OECD 회원국이 비슷한 요건을 이행한다(표 2.1). 그러나

2. 그림으로 보는 How's Life?

규칙제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프로세스의 후반 단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입법 초안이 마련된 때이다.

표 2.1. 법규 개발에서의 정부이해당사자 참여

	이해당사자 참여를 시행하는 요건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관리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이해당사자 참여		나중 단계: 규정초안/제안된 규칙에 관한 협의	
	주요 법률	하위규정	주요 법률	하위규정	주요 법률	하위규정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
캐나다	■	■	▲	■	■	■
칠레	▲	▲	▲	▲	▲	▲
체코	▲	▲	▲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
독일	■	■	▲	▲	■	■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	■	●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	▲	●	●	●	▲
한국	▲	▲	▲	●	■	■
룩셈부르크	■	■	▲	▲	■	■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	■	■	■	■	■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	■	▲	▲	▲	▲
영국	■	■	▲	▲	■	■
미국	x	■	x	▲	x	■
EU	▲	▲	▲	▲	●	■
OECD 전체						
■ 모든 규정	21	18	1	2	24	18
▲ 중요 규정	4	7	5	3	2	7
▲ 일부 규정	6	6	22	21	6	8
● 어떤 규정도 아님	2	3	5	8	1	1
x 적용 불가	1	0	1	0	1	0

주: 데이터는 행정부에 의해 발의된 주요 법률과 하위 법령만 해당됨. 주요 법률에 관한 관한 모든 문항은 미국에서 적용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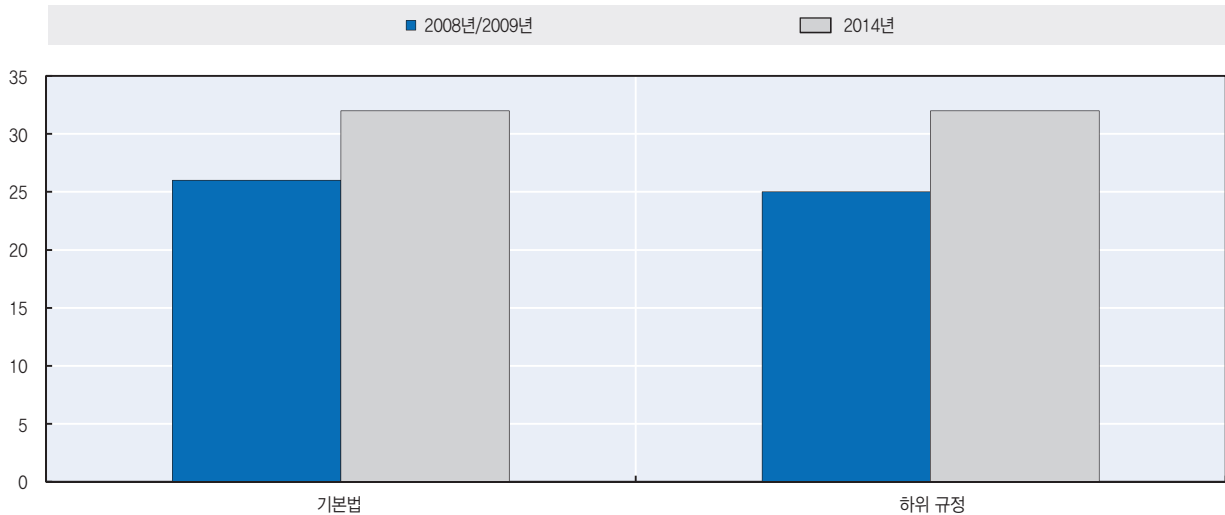
출처: OECD(2015), 2014 OECD 규제정책 설문조사(Regulatory Indicator Survey) 결과에 근거한 2015 규제정책개관(Regulatory Policy Outlook)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주요 법률(primary laws) 개발과정에서 후반 단계의 협의를 가지고 또한 약 절반의 OECD 국가는 하위 법령의 개발과정에서 역시 나중 단계에 협의를 거친다. 정책 입안 과정의 초기 단계에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는 일부 규정에만 적용된다.

그림 2.31은 새 규정을 개발할 때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의무적 요건으로 만든 OECD 국가들의 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2014년 기준 2개국만이 주요 법률에 관한 협의 요건이 없고 3개국만이 하위 법령과 관련된 협의 요건이 없다. 이는 2008/2009년 OECD의 예전 자료를 수집한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2.31.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규제정(rule-making)에 관한 정부 협의의 변화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새로운 초안 개발 과정에서 의무화한 국가의 숫자



주: 여기에 보여진 결과는 OECD 규제관리제도에 관한 지표조사 2008/2009년과 2014 OECD 규제정책 설문조사(2014 Regulatory Indicator Survey)에 근거함.

출처: OECD(2015) 한눈에 보는 정부,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08>

박스 2.8.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의 측정

앞에서 제시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의 중심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투표율**은 국가 선거에 대한 참여 정도를 측정한다. 여기에 보이는 투표율은 두 가지 측정법: i)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국가 선거에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과 ii) 전체 투표연령 인구에서 국가 선거에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을 사용한다. 투표제도의 제도적 특징은 국가별로 그리고 선거의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여진 지표는 각국에서 가장 많은 투표자가 참여한 선거(의회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를 의미한다. 등록된 인구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인구를 말한다. 투표율에 관한 데이터는 국가통계청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수집되고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IDEA)에 의해 집계된다(IDEA).

박스 2.8.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의 측정(계속)

- **이해당사자 참여:** 제시된 지표들은 모든 OECD 국가와 EU 집행위원회(EC)를 대상으로 한 규제정책 설문조사(2014 Regulatory Indicator Survey)에 대한 국가의 응답에 기반한다. 응답들은 중앙정부관리에 의해서 OECD 규제정책 위원회에 제공된 것이다. 지표들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한 국가들의 요건 및 관행들과, 1998년, 2005년, 2008/2009년 시행되었던 이전 규제정책 설문조사들에 대한 조치들을 반영한다. 이전의 지표들과 비교해서 표 2.1에 제시된 지표들은 증거(evidence), 전문가 응답(expert response)을 옹호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제정책 요건에 대해 국가마다 접근법이 얼마나 다른 지를 보여주는 데 더 역점을 둔다. 데이터는 행정부에 의해 발의된 주요 법률과 하위 법령만을 다루고 있다. 주요 법률은 입법부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하위 법령은 정부 수반, 개별 장관 또는 내각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주요 법률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미국에 적용될 수 없는데 미 행정부가 주요 법률을 발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 협의(early-stage consultation)란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책들에 관한 정보를 관리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말한다. 후반 단계(later-stage consultation)의 협의란 선호되는 해결책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규정의 초안이 발표된 후 이해당사자 참여를 말한다.

OECD 규제정책 설문조사에 근거한 모든 OECD 국가들과 EU 집행위원회를 위한 이해당사자 참여에 관한 새 종합지표는 규제정책개관(Regulatory Policy Outlook) 일부로써 출간될 것이다(OECD, 2015i; also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참조). 이 종합지표는 동일한 가중치를 준 4개의 카테고리, 즉 이해당사자 참여요건의 체계적 채택, 협의를 위해 사용된 방법, 감시 및 품질관리, 투명성(공개정부원칙으로 정부의 결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는지와 관련됨)으로 구성될 것이다.

여기에 보여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들은 제한된 활동들만을 다루지만 이상적 지표들(ideal indicators)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사회 활동과 정치적 활동 참여에 관한 측정치들을 포함시킬 것이다. 규제정책 제정 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는 정부이해당사자 참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법규 제정(rule-making)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제도의 설립이 반드시 실질적이며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을 수 있다.

거버넌스의 질에 관한 비교가능한 증거(comparative evidence)는 현재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새롭게 설립된 거버넌스 통계에 관한 유엔 프라이아 실무단(Praia Group on Governance Statistics)은 거버넌스 통계 생산을 위한 개념화, 방법론, 도구(instruments)를 다룰 예정인데 이 영역에서의 국제적 권고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OECD는 또한 정부 기관과 더 폭넓게는 타인에 대한 신뢰에 관한 더 낮고 정책 관련성이 높은 신뢰지표들을 생산하기 위해 새 방법론에 의한 작업에 착수 중인데, 이는 OECD 신뢰 전략의 일부이다.

더 읽을 거리:

- Boarini, R. and M. Díaz (2015), "Cast a Ballot or Protest in the Street – Did our Grandparents Do More of Both?: An Age-Period-Cohort Analysis in Political Participation",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2015/0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636gn50jb-en>.
- OECD (2015j),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en.
- OECD (2015i),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시민 참여의 분포도

비교가 제한적인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35세 미만의 사람들은 투표를 덜하고 25세 미만의 투표율이 65세 이상의 사람들보다 평균 28% 포인트 낮다(OECD, 2011a).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Boarini and Díaz (2015)는 또한 유럽에서 젊은 세대들이 공식적 참여(투표 등)와 공식성이 적은 활동들(시위 등) 모두에 대한 정치적 참여가 적다는 점을 발견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 역시 투표할 가능성이 낮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OECD, 2011a).

환경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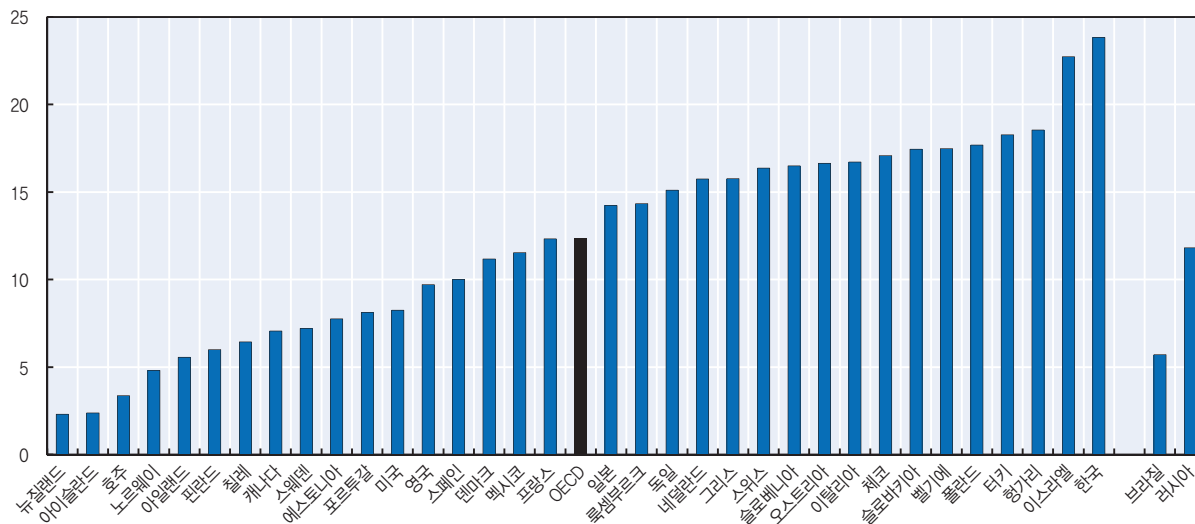
환경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험한 오염물질, 유해물질과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은 개인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기여한다. 환경의 건강(health of the environment) 역시 녹색공간의 품질부터 다른 중을 위한 자연환경의 보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다양한 자연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환경에 의존한다. 이러한 좀 더 장기적 고려사항은 제3장에서 더 깊게 논의하겠지만, 본 섹션은 현재의 삶의 질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질 측면에 집중한다.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exposure to air pollution)은 공중 보건의 우려사항이다. 가장 커다란 건강상의 위험(health risks)은 열악한 품질의 대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PM)에 대한 만성적 노출은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폐암을 유발시킬 위험에 기여한다(OECD, 2014f). 자동차 배기가스, 에너지 생산, 농업용 바이오매스의 연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PM_{2.5})는 사람들의 건강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의 질 가이드라인은 연평균 입방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권장한다(WHO, 2006). 대기의 질 EU 명령(European Union Air Quality Directive)은 3년 평균에 근거해서 인구의 연간 초미세먼지 노출농도를 입방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으로 제한하는 의무를 국가들에게 부과한다(EU 집행위원회, 2015).

지상기반 감시측정소(ground-level monitoring stations)는 지역에서의 대기오염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단기간 동안 그리고 특정지역에서의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들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지상기반 감시측정소의 데이터는 국가 간 비교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장소별 감시측정소의 불균등한 커버리지와 측정기술과 보고방법의 차이 때문이다(Brezzi and Sanchez-Serra, 2014). 지상기반 감시측정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위성기반 관측(satellite-based observations)에서 가져온 새로운 대기오염 측정치는 정확성은 떨어지지만(특히 사막과 눈이 덮인 지표면의 경우), 국가 간 비교가능한 방법에 근거해서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구전체에 대한 평균 노출도를 고찰한다(더 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박스 2.9 참조). 이러한 위성기반 데이터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평균 노출이 34개의 OECD 국가 중 21개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32).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평균 노출은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호주, 노르웨이에서 가장 낮고 이스라엘, 한국에서 가장 높는데 이 두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EU 대기의 질 권고치를 모두 초과한다.

그림 2.32.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연간 노출도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노출도, 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 2010-2012년 평균



주: 값은 OECD 추정치로 3년 평균(2010-2012년)이며 van Donkelaar, A., R.V. Martin, M. Brauer and B.L. Boys(2015), “초미세입자의 글로벌 농도의 장기노출측정을 위한 위성관측치 사용”, 환경 보건적 관점, Vol. 123, Issue 2에서 가져온 위성사진에 근거한다. 지상기반 측정치의 일관성을 위해서 50%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기준이 채택되었다. 각 국가의 값은 초미세먼지 연간농도에 대한 인구가중평균치이다. OECD 평균은 인구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OECD 지역 웰빙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70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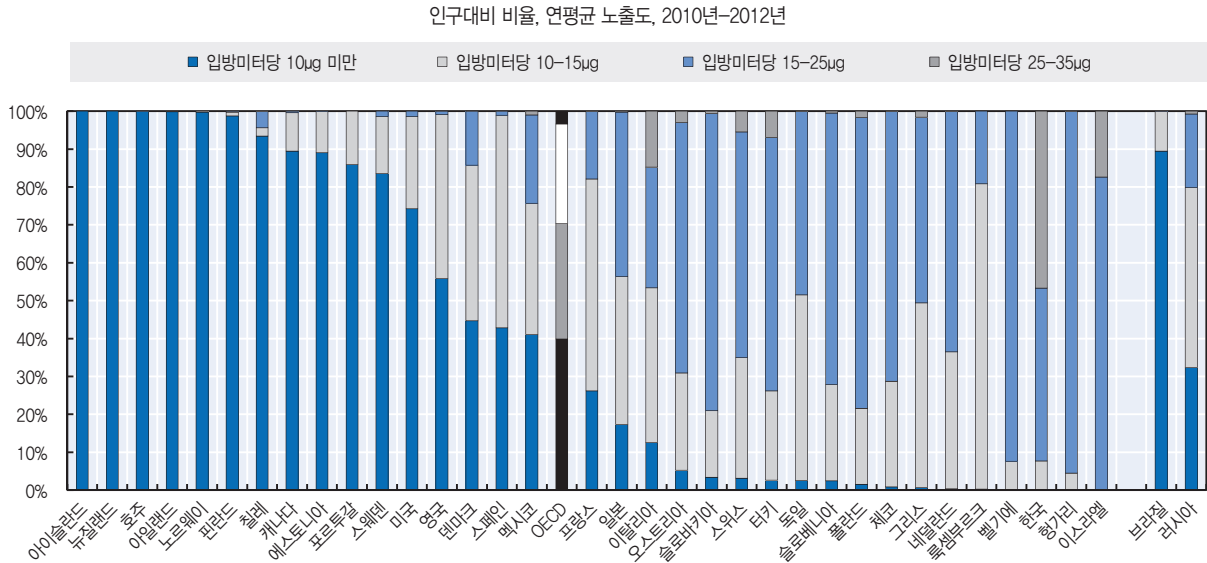
대기오염은 특히 도시화, 산업과 수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과 도시 수준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도는 국가 내 격차(within-country differences)가 상당히 크다(제6장 참조; Brezzi and Sanchez-Serra, 2014; OECD, 2014g).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ECD 지역 거주자의 약 40%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치인 입방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연평균노출을 경험했다(그림 2.33). 그러나 OECD 전역에서 약 4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입방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EU 대기의질 가이드라인을 모두 초과한 수치이다. 여기에는 한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구의 15% 이상이 포함된다.

다른 중요한 대기오염원에는 지상오존(ground-level ozone),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₁₀)가 있다. 이전에 How's Life?(OECD, 2013)에서 보고된 세계은행 미세먼지 추정치는 비록 도시에서의 미세먼지 노출이 최근 20년간 감소해왔지만 2009년에 OECD 국가 중 거의 절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연간 제한치인 입방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도시의 연간 미세먼지농도를 나타냈음을 보여준다(WHO, 2006). 반면에 유럽통계청의 유럽데이터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중 오존농도(ambient ozone concentrations)에 대한 노출도가 EU 지역에서 연평균 1.7% 상승했음을 보이는데, 도시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OECD, 2014f).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은 환경의 질의 또 다른 측면이다. 모든 OECD 국가들에서의 비교가능한 객관적 수질 측정치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의 지역 수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파악한 자료의 제공은 가능하다(그림 2.34, 정의를 보려면 박스 2.9 참조).

2014년에 OECD 국가들 내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만족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 그리스에서 70% 미만의 사람들이 만족했고 러시아에서 그 비율은 약 50%였다.

그림 2.33.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 한계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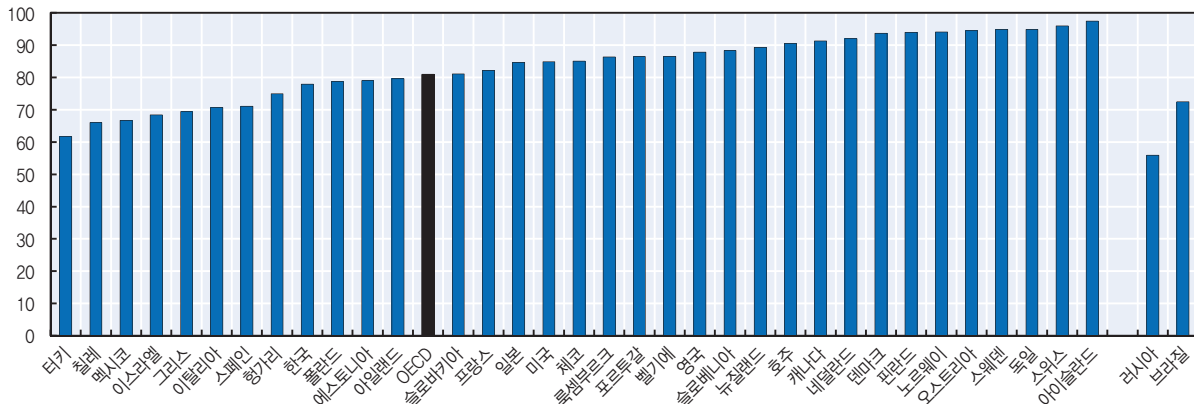


주: 값은 3년에 걸쳐 평균을 낸 OECD 추정치이다. 지상기반 측정치와의 일관성을 위해서 50%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기준이 채택되었다.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4가지 기준에 따른 초미세먼지농도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입방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연평균 노출은 보여주지 않는데 나타난 모든 국가들에서 1% 미만의 인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OECD (근간 예정) 한눈에 본 지역 2016, OECD 출판국, 파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25>

그림 2.34. 지역 수질에 대한 만족도

전체 인구에서 만족한 사람들의 비율, 2014년 또는 자료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3년 데이터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36>

박스 2.9. 환경적 질의 측정

앞에서 제시된 환경적 질의 두 가지 중심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대기오염에 대한 연간노출도**는 직경이 2.5 마이크론 미만의 초미세먼지(PM_{2.5})에 대한 인구 전체의 평균 노출과 다른 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미세먼지의 중요 성분은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염화나트륨, 블랙 카본, 광물성 분진, 물이다. 여기에 수록된 데이터는 OECD 지역적 웰빙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 van Donkelaar et al.(2014)에서 보고한 위성기반 관측치에서 계산한 것이다. 인구 노출도는 1 제곱킬로미터의 해상도(resolution)에서의 위성기반 추정치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국가평균 노출도는 해당 국가의 국경안에 속한 1 제곱킬로미터 격자 셀(grid cell)안에 있는 초미세먼지값에 인구가중치를 주어 합계를 냄으로써 구해진다.
-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한다. 이는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의 수질이 만족스러운가 또는 불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수질에 만족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데이터는 매년 매 국가당 1,000명의 사람들에게 대한 표본조사를 시행하는 갤럽세계조사를 기초로 한다. 표본은 시골 지역을 포함해서 15세 이상의 국가적 대표성을 띠는 인구로 사전에 설정된다(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박스 2.7 참조).

“환경의 질”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하며, 이상적인 지표들은 다수의 환경 매개체(토양, 물, 공기), 환경적 서비스와 편의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 환경적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타깝게도 가능한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수질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의 부재는 상당한 데이터 갭을 나타내며, 인식에 기반한(perception-based) 측정법은 비교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물이 음용수를 말하는지 지역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을 말하는지 확실치 않음). 녹색 공간의 접근성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는 누락된 중요한 자료인데, 위성기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 잠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대기오염의 요약추정치를 개발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인데, 대기의 질은 오염물질의 복잡한 혼합결과물로 시간의 경과, 공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Brezzi and Sanchez-Serra(2014)는 위성기반 대기오염 추정치들과 지상기반 감시측정소의 대기오염 추정치를 비교한 강약점들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제공한다. 간단히 말해서, 지상기반 감시측정소는 지역의 오염 노출도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단기간 동안에 특정지역 내 광범위한 오염물질들(지상오존 등)을 다루지만, 국가 간 그리고 지역간 비교가 제한적인데 감시측정소의 불균등한 커버리지와 측정기술 및 보고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초미세먼지(PM_{2.5}) 농도가 지상기반 측정소에서 감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대조적으로 위성기반 추정치는 국가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방법론상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고, 시골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전체인구에 대한 노출도가 추정 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위성기반 추정치는 모형화된 데이터(modelled data)에 의존하고, 밝은 표면(눈이나 사막 등)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현재 다년간의 관측치에 대한 평균(multi-year averages)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

같은 도시 내에서조차 대기오염에 대한 개인적 노출도는 거주지, 근무지, 직업, 생활습관, 행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인구평균노출도가 커다란 차이와 불평등을 감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 노인, 환자는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특히 취약하다.

박스 2.9. 환경적 질의 측정(계속)

더 읽을 거리:

- Brezzi, M. and D. Sanchez-Serra (2014), “Breathing the Same Air? Measuring Air Pollution in Cities and Region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4/1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rb7rkxf21-en>.
- OECD (2014g),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 OECD (2014h),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in OECD, *Green Growth Indicators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030-9-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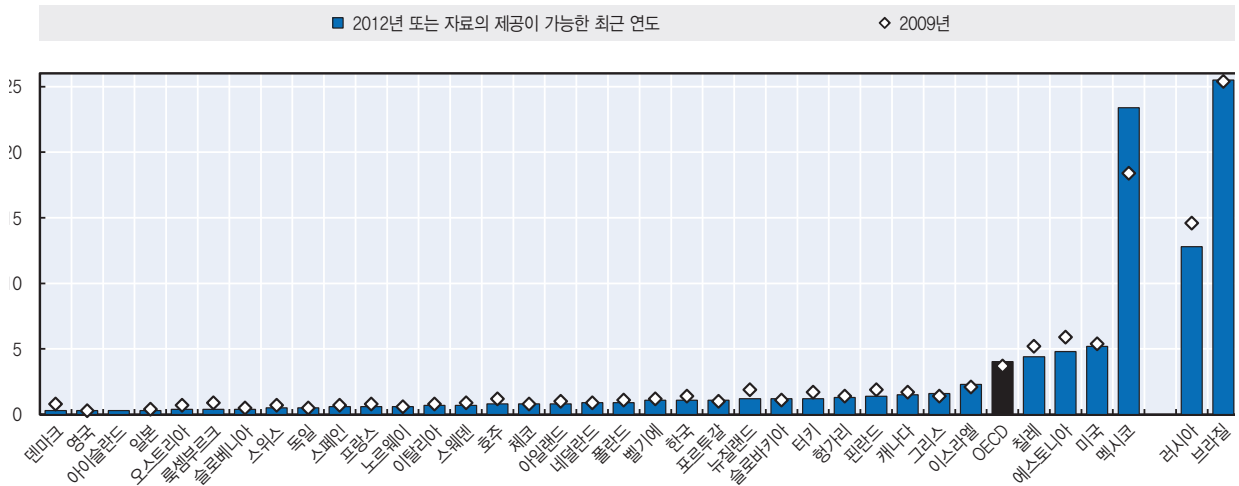
개인적 안전

개인적 안전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경험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위협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불안과 걱정을 증가시키거나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웰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폭행에 의한 사망(정의를 보려면 박스 2.10 참조)은 비교적 드물어서 대개 연간 인구 10만명당 2명 미만의 비율로 발생한다(그림 2.35). 폭행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칠레, 에스토니아, 미국, 멕시코인데 멕시코의 비율은 OECD 평균의 5배 이상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폭행에 의한 사망은 OECD 국가의 3분의 2 이상에서 감소했으나 멕시코에서는 증가했다.

그림 2.35. 폭행에 의한 사망

연령표준화 비율, 인구 10만명당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일본, 터키의 경우 2011년,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의 경우 2010년,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9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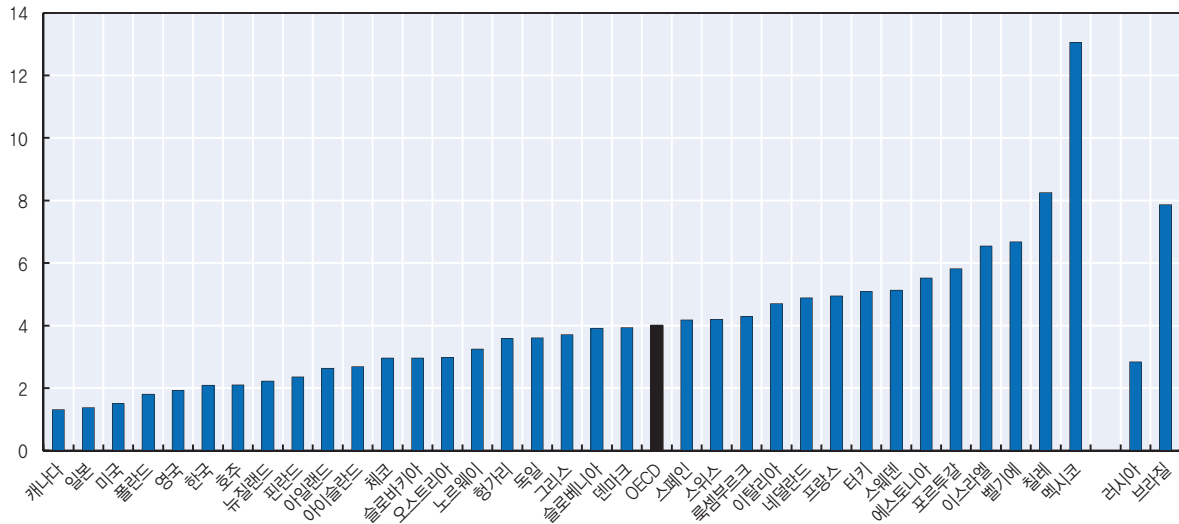
출처: "OECD 보건 데이터: 사망의 원인들",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40-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42>

2010년에 OECD 지역에서 25명 중 1명은 지난 12개월 동안 폭행의 피해자였음을 보고했다(그림 2.36). 폭행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몇몇 국가들의 경우 자가보고 피해자율(self-reported victimization) 역시 더 높은데 멕시코에서는 대략 8 명중 1명, 칠레와 브라질에서는 대략 13명 중 1명이 지난 12개월간 폭행의 피해자였음을 보고했다.

그림 2.36. 자기 보고 피해자율

지난 12개월 동안에 폭행 당한 경험이 있음을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2010년



주: 멕시코의 경우 2012년, 칠레의 경우 2011년, 에스토니아, 스위스의 경우 2009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경우 2008년 데이터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59>

박스 2.10. 개인적 안전의 측정

개인적 안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폭행에 의한 사망**은 공식사망기록부에 폭행이 사망의 원인으로 등록된 건수를 말한다. 이는 연령 표준화율로서 보여지고 인구 10만명당으로 표시된다. 사망원인통계치는 국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가져와서 국가 기관에 의해 집계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석한다. 의료인의 증명된 사망원인만을 포함시킨다. 여기 보여진 데이터는 OECD 사망원인 데이터베이스(Causes of Mortality Database)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 **자기 보고 피해자율**은 “지난 12개월 동안 폭행이나 강도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조사 질문을 근거로 하며 여기 보여진 데이터는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말한다.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오는데 이 조사는 매년 국가당 1천명의 표본을 조사한다. 이 질문이 갤럽의 핵심질문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는 2010년 자료다. 표본은 국가적 대표성을 갖도록 15세 이상의 인구로 사전에 설정되는데 시골지역도 포함된다.
-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혼자 밤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을 근거로 하며 여기 보여진 데이터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말한다.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왔다(위를 참조하고 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박스 2.7 참조)

박스 2.10. 개인적 안전의 측정(계속)

개인적 안전에 대한 이상적 지표들은 개인에 의해 경험된 다양한 범죄와 범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심각성에 따라 범죄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에 관한 공식 기록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가 간 범죄로 간주되는 기준의 차이와 기록관행의 변화 때문이다. 여기에 보여진 데이터는 국가주민등록시스템 상에 기록된 폭행에 의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지 경찰에 의해 기록된 살인(homicides)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멕시코 통계청(INEGI)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최근 공동 보고서는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범죄 통계의 가용성과 품질을 개선할 로드맵(roadmap)을 제시한다(유엔마약범죄사무소, 2013, 아래 참조).

범죄 피해 조사는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경험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러한 조사가 일부 국가에 존재하지만, 공통의 기준과 방법론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제시된 지표는 폭행만을 가리키며(재산 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는 배제됨), 소규모 표본이 특징인 비공식 조사인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왔는데, 이 특징은 전체 인구 중 대개 적은 비율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측정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사 데이터는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영향을 미치는 범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만약 조사가 일관성있는 방법론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시행된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범죄 수준의 변화에 관한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OECD 국가는 거의 없고 존재하는 국가 데이터도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사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들의 수치에 대한 대리지표를 제공할 뿐이다. 첫째,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해석 때문에 어떤 범죄는 과소추정되거나 과대추정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폭행이나 배우자 폭력과 같은 민감한 사건에 관한 정보를 밝히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둘째, 피해자 조사의 정확성은 피해자가 지나간 범죄를 기억해내는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해낼 가능성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부패(corruption)와 같은 비전통적 형태의 범죄는 가구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렵다.

사람들의 개인적 안전에 대한 위험은 범죄 이외의 다른 원인에서 올 수 있다. 운송 및 도로교통사고, 직무 관련 위험, 자연 재해의 위험이 개인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폭력적 투쟁과 전쟁 역시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면서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더 읽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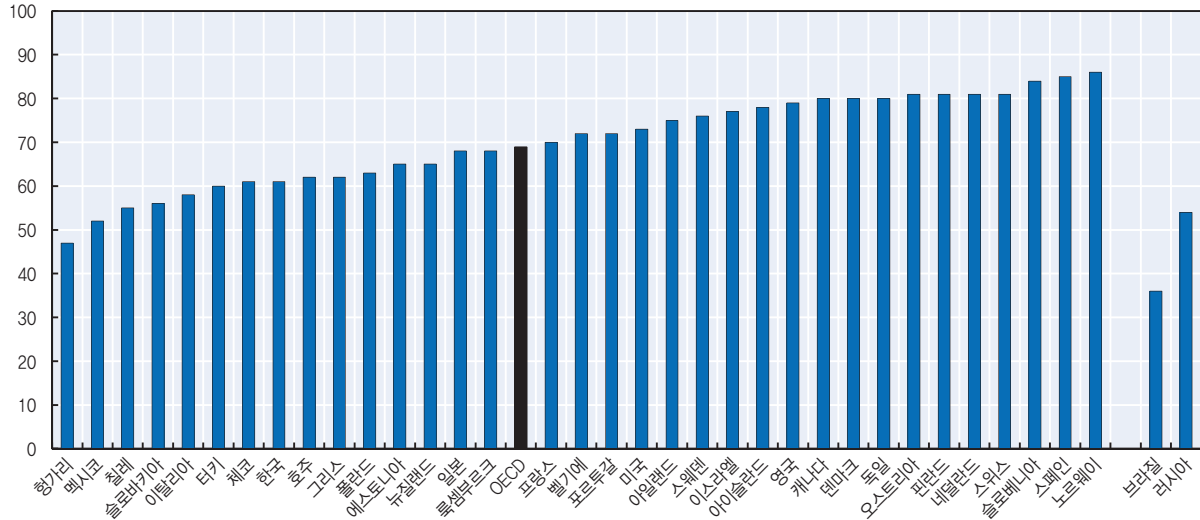
- OECD (2011d), "Personal security", in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13-en>.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2013),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3/2013-11-CrimeStats-E.pdf>.

* 연령 표준화를 통해서 인구의 연령 구조가 다른 국가들끼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안전하다는 느낌(그림 2.37; 정의를 보려면 박스 2.10 참조)은 개인적 안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OECD 지역 전체에서 3분의 2의 사람들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에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한다.

그림 2.37. 밤에 홀로 걸을 때의 안전에 대한 느낌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길을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14년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가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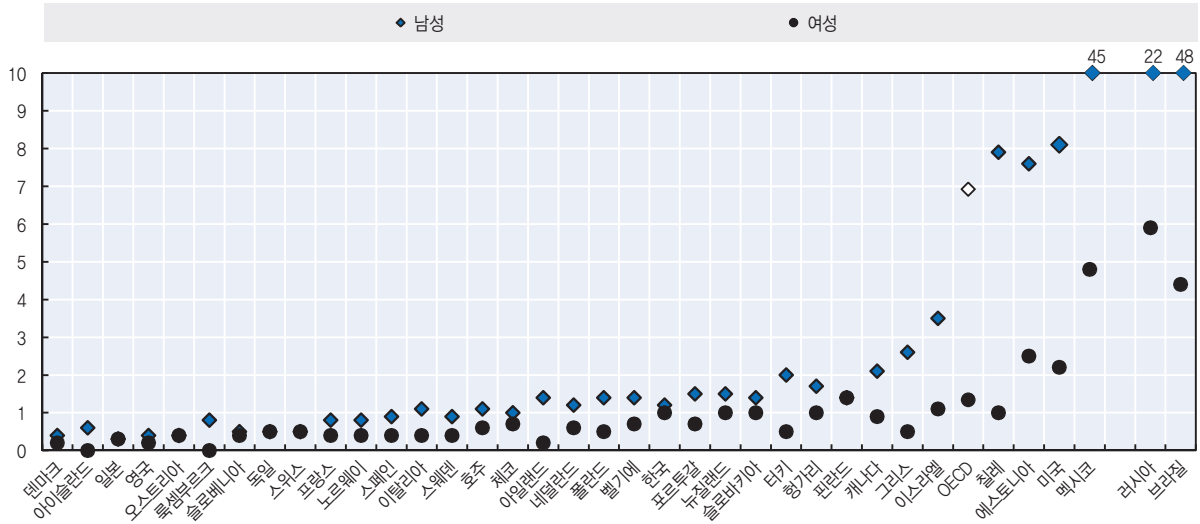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65>

개인적 안전의 분포도

OECD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폭행으로 사망할 확률이 5배 높다(그림 2.38).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의 여성은 다른 지역의 여성보다 훨씬 위험이 높지만 이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남성에게 비해서는 여전히 훨씬 낮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길을 홀로 걸을 때 남성보다 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며(그림 2.39), 대부분의 국가에서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그림 2.40).

그림 2.38. 남성과 여성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연령 표준화 연간비율, 인구 10만명 당, 2012년 또는 자료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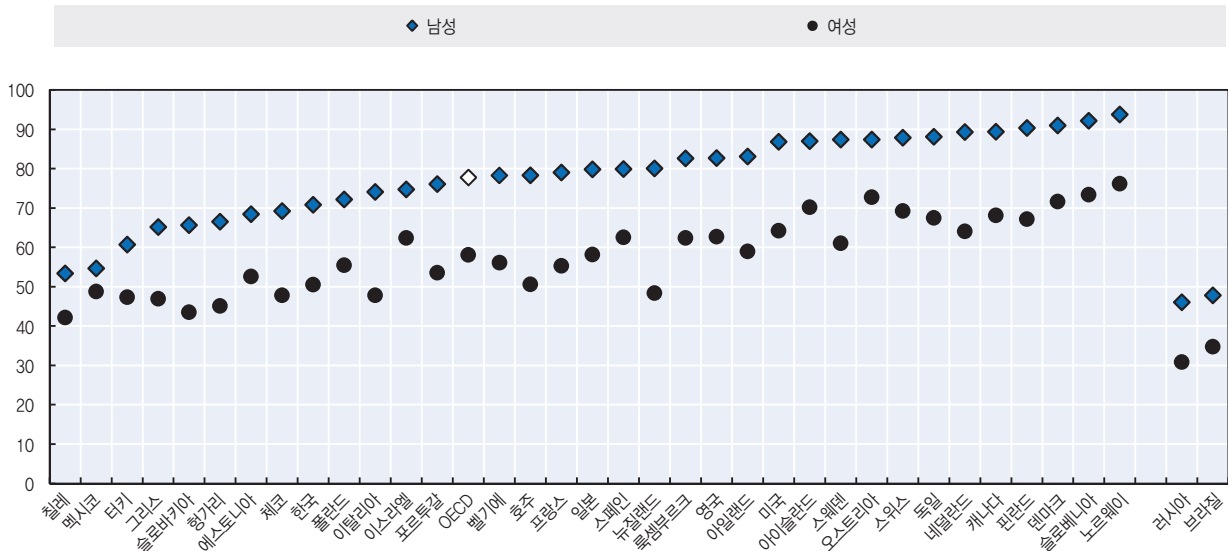
주: 멕시코(44.5), 러시아(21.8), 브라질(48.1)의 남성에 대한 폭행에 의한 사망률은 y축의 상한계를 초과한다.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터키의 경우 2011년, 벨기에, 브라질, 아일랜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미국의 경우 2010년,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9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OECD 보건 데이터: 사망의 원인들",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40-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79>

그림 2.39. 남성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느낌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길을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 2006-2014년 합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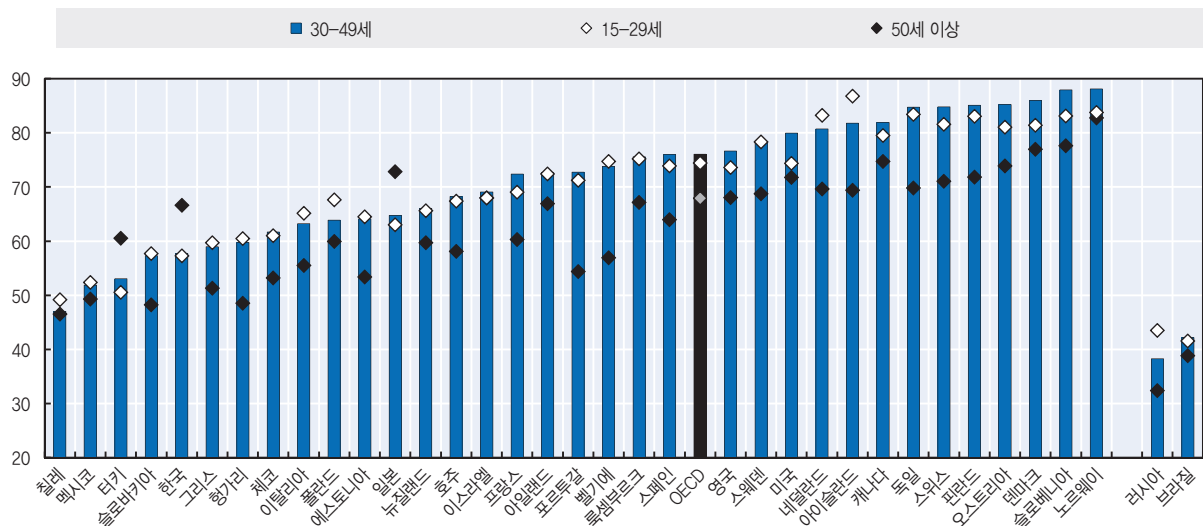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 제공이 가능한 모든 연도에서 합산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83>

그림 2.40. 연령대별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느낌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길을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 2006-2014년 합산 결과



주: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 제공이 가능한 모든 년도에서 합산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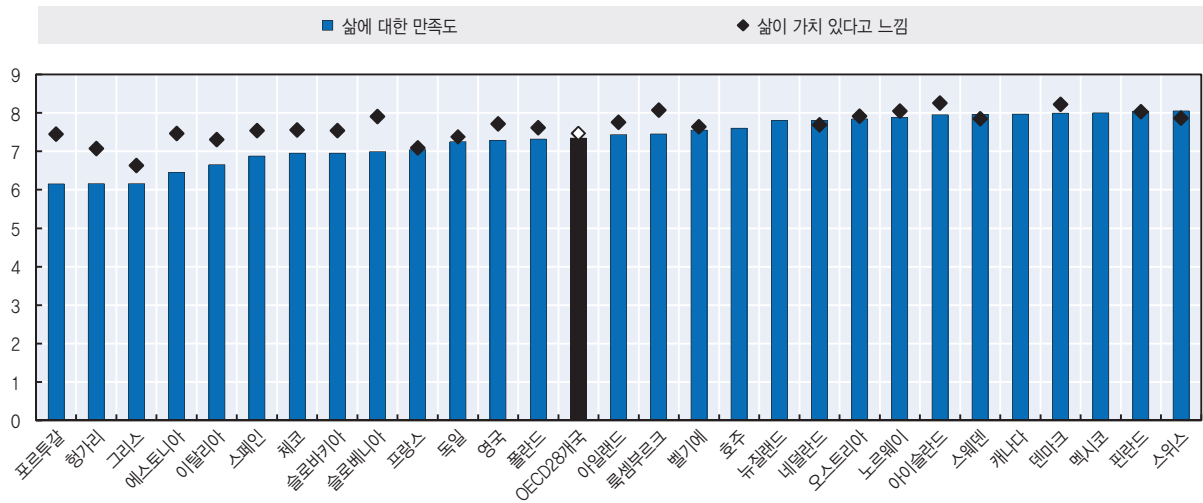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

삶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는 “삶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완벽할 수는 없다. 주관적 웰빙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느낌, 경험으로 구성된다. 주관적 웰빙에는 3개의 뚜렷한 구성요소가 존재하는데, 각각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s)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삶에 대한 만족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실현적(eudaimonic) 측정법¹¹은 사람들의 삶의 의미, 목적, 가치에 대한 느낌과 관계가 있고, 감정(affect) 측정법(경험된 웰빙이라고도 함)은 긍정적(즐거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느낌) 상태와 부정적(슬픔, 걱정) 상태에 대한 경험을 포함한 기분, 느낌,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OECD, 2013f).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에 관한 데이터는 OECD 주관적 웰빙 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의 권고와 일관성을 갖는 비교가능한 측정법에 근거한 공식 출처에서 입수가 가능하다(OECD, 2013f; 박스 2.11 참조).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스에서는 10점 만점에 6점이며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멕시코, 핀란드, 스위스에서는 10점 만점에 8점이다(그림 2.41)¹². 일반적으로 남부와 동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북부와 서부 유럽,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 보다 낮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삶이 가치있다고 느끼느냐에 관한 데이터가 또한 표 2.41에 보여진다. 이 지표에 관한 국가 간 격차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격차보다 대개 작다.

그림 2.41. 삶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가치에 대한 느낌

0-10점을 기준으로한 평균 값, 2013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2014년, 멕시코의 경우 2012년 1사분기를 말한다. 삶이 가치있다고 느끼느냐에 관한 데이터는 유럽 국가들만을 포함한다(OECD 24).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EU 국가들의 경우, 유럽통계청(2015), “소득과 생활여건(EU-SILC)에 대한 EU 통계조사(EU-SILC)”,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호주의 경우 호주 통계국, 2014 종합사회조사, www.abs.gov.au/ausstats/abs@.nsf/mf/4159.0#Anchor3;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통계청, 2013 캐나다 지역사회 보건 조사, <http://www23.statcan.gc.ca/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3226>; INEGI, 멕시코의 경우 가구지출국가조사(BIARE-ENGASTO) 2012, www.inegi.org.mx/inegi/contenidos/investigacion/Experimentales/Bienestar/default.aspx;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통계청, 2014 종합사회조사, 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people_and_communities/Households/hzgs_HOTP2014/Tables.aspx에서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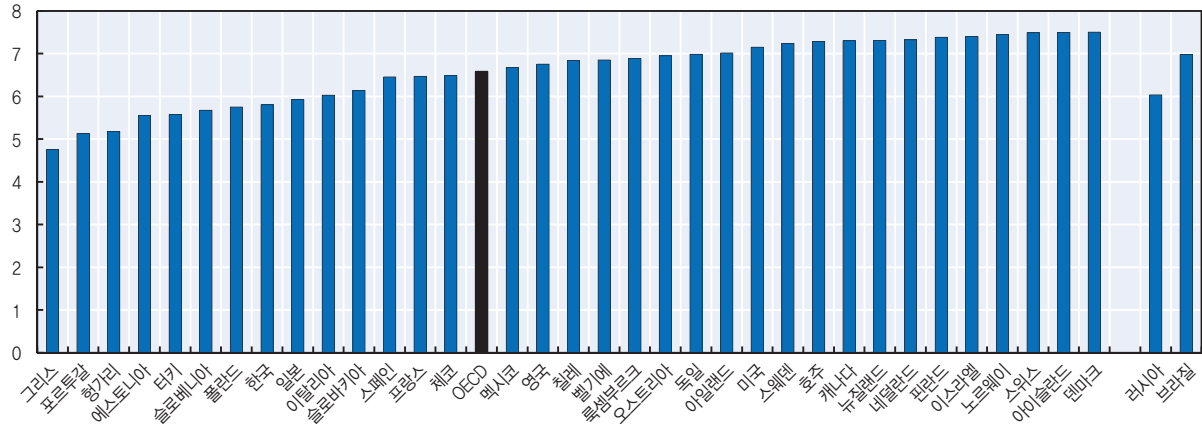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08>

가까운 미래에 비교 가능한 공식 데이터가 한국과 이스라엘 등을 추가로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간에, 삶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 측정법(그림 2.42, 정의를 보려면 박스 2.11 참조)이 보여진다. 2014년에 터키, 한국, 일본, 러시아에서 삶에 대한 평가가 OECD 평균을 밑돈 반면에, 칠레, 브라질, 미국, 이스라엘에서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그리스에서 삶에 대한 평가가 0-10점 기준점수에서 1.3점 하락했다(갤럽, 2015). 경기 대침체(Great Recession)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은 몇몇 국가들은 경제위기의 초기 몇 년동안 삶의 평가에서 역시 하락을 경험했다(OECD, 2013a).

사람들의 일상의 경험과 감정 역시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하다. 2014년에 OECD 지역 사람들의 4분의 3이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가졌다(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했음, 전체적인 정의를 보려면 박스 2.11 참조). 멕시코,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에서 그 비율은 80%를 초과했던 반면에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그 비율은 65% 미만이었다. 2014년에 긍정적인 감정 밸런스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에서 2009년보다 8% 포인트 낮았지만, 프랑스에서는 9% 포인트 높았다(갤럽 2015에 근거하여 OECD가 계산).

그림 2.42.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

"최악의 삶"에서 "최상의 삶"을 0-10점 기준으로 측정, 평균 값,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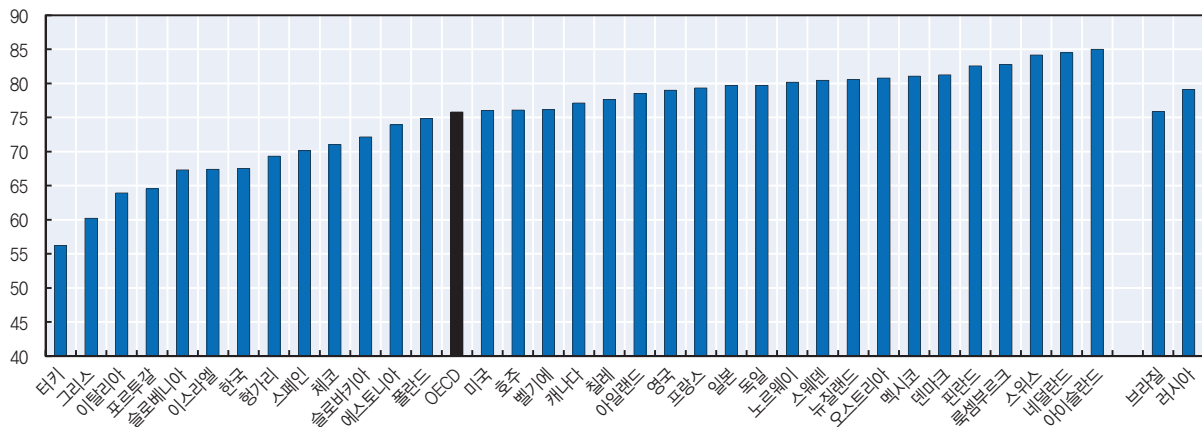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17>

그림 2.43. 긍정적 감정 밸런스

어제 전반적으로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꼈음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14년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3년이다. 평가된 긍정적 느낌은 기쁨, 폭 신 느낌, 웃거나 미소를 많이 짓기와 관계가 있고 부정적 느낌은 걱정, 분노, 슬픔과 관계가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26>

박스 2.11. 주관적 웰빙의 측정

How's Life?의 본 판은 주관적 웰빙의 다양한 여러 가지 측정법을 보여주는데 이 영역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을 반영한다:

- **삶에 대한 만족도는 11 포인트 척도(0-10점)에서의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는 OECD 가이드라인(OECD, 2013f)이 권고한 포맷을 전반적으로 따른 조사 문항에 기반하는데, “전반적으로 당신은 요사이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 0점(“전혀 만족스럽지 않음”)부터 10점(“완전히 만족함”)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유럽의 데이터는 2013년 시행된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의 웰빙에 관한 임시 모듈에서 가져왔고 모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EU-SILC은 16세 이상의 모든 민간 가구구성원들을 다룬 대규모 표본(EU 회원국 중 최소 약 4,000명부터 최대 약 16,000 명의 표본)을 가진 국가적 대표성을 띠는 조사이다. 호주에 대한 데이터는 호주 통계국의 2014 종합사회조사,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통계청의 2013 캐나다 지역사회보건조사,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국가통계청(INEGI)의 2012년 1분기에 대한 가구지출국가조사,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통계청의 2014 종합사회조사에 기반한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대한 데이터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며 멕시코에 대한 데이터는 18-70세 연령층을 말한다.
- **삶이 가치롭다는 느낌은 0점(전혀 가치롭지 않음)부터 10점(대단히 가치로움)까지 11 포인트 척도에서의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당신이 삶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롭다고 느끼니까?”라는 질문에 근거한다. 여기 보이는 데이터는 2013년에 시행된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의 웰빙에 관한 임시 모듈에서 가져왔고 모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자료가 제공이 가능하다.
- **캐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측정법에 근거한 삶의 평가는 11 포인트 척도에서의 평균점수이다.** 이는 캐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를 사용한 측정법으로 조사 문항은 응답자에게 0에서 10까지 단계가 있는 사다리(10 단계는 최상의 삶이고 0단계는 최악의 삶)를 상상해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사다리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 표시하라고 요청한다. 여기 보여지는 데이터는 매년마다 국가당 1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온다. 표본은 15세 이상의 인구를 국가적 대표성을 갖도록 사전에 조정된다(박스 2.7 참조).
- **긍정적 감정 밸런스는 여기에서 전날에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6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하는데 질문은 “당신은 어제 다음과 같은 느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걱정은 얼마나 느꼈나요?” 등과 같이 만들어지며 응답은 간단한 “예/아니오” 형태를 사용해서 제공된다. 걱정, 분노, 슬픔의 경험에 의해 부정적 감정이 측정되고 반면에 긍정적 감정은 즐거움, 폭 쉬고 난 느낌, 미소나 웃기를 많이 함과 같은 경험에 의해 파악된다. 만약 긍정적 질문에 대한 “예”의 답변이 부정적 질문에 대한 “예”의 답변보다 많다면 해당 개인은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 보여지는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위와 박스 2.7 참조).

주관적 웰빙측정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2013f)은 웰빙의 3가지 중요 구성요소들(삶에 대한 평가, 삶의 가치에 대한 평가, 감정)에 관한 주관적 웰빙을 수집·보고·분석하는데 대한 국제적인 권고를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법론상 이슈들과 조사설계에 대해 세밀히 고려하고, 조사에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를 원할 때 국가 및 국제 기관들이

박스 2.11. 주관적 웰빙의 측정(계속)

채택할 수 있는 다수의 원형적(prototype) 질문 모듈들을 포함한다. 주관적 웰빙 질문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 하에서 사용된다 해도 타당성 있고 유의미한 응답들을 생산해낸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문항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차이점들이나 응답척도 사용법에 있어서의 국가별 차이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정도의 측정 에러를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 주관적 웰빙의 평균치의 작은 차이에 커다란 해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OECD, 2013f; Exton, Smith and Vandendriessche, 근간 예정 OECD 통계 연구보고서).

더 읽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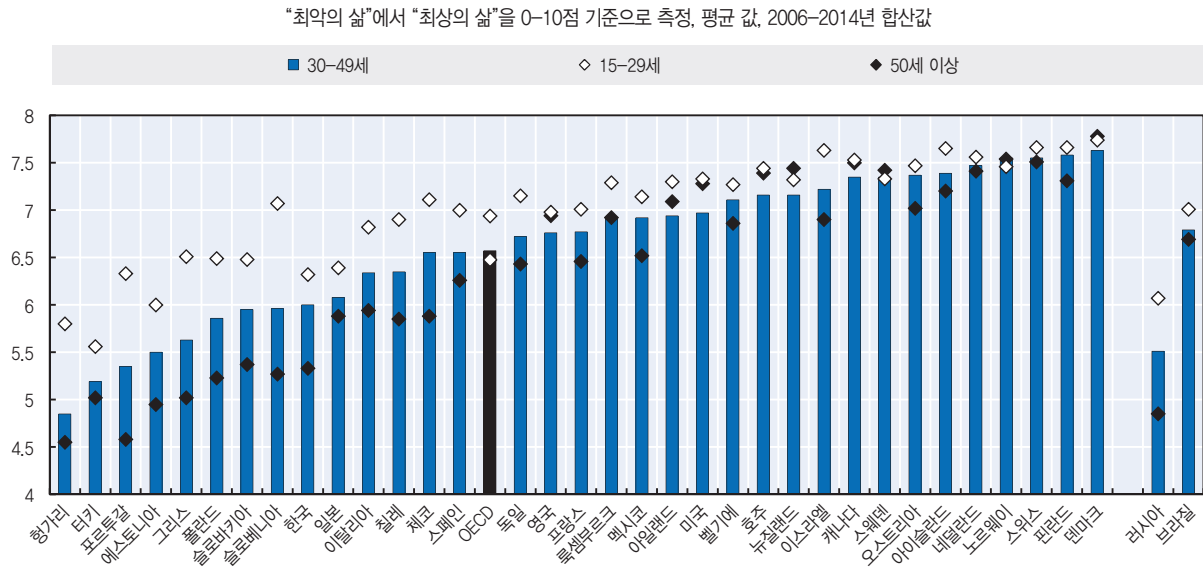
- Eurostat (2015), “Quality of life in Europe – facts and views – overall life satisfaction”,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_Europe_-_facts_and_views_-_overall_life_satisfaction.
- OECD (2013f),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www.oecd.org/statistics/guidelines-on-measuring-subjective-well-being.htm.

주관적 웰빙의 분포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경험은 OECD 전지역에서 매우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이 긍정적 감정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다(OECD, 2013a).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개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연관이 있지만, 교육 효과가 일부 국가들(특히 포르투갈, 한국, 그리스, 헝가리)에서 다른 국가들 보다 더 강하다(OECD, 2012a). EU 국가들에 대해 수집된 삶의 만족도 데이터는 또한 성별과 교육과 관련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삶에 대한 평가가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낮았다(그림 2.44). 특히 영어사용 국가들의 중년층에서 보고된 삶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다(그림 2.44). 작은 “은퇴 효과”(50-64세의 연령층보다 65-74세 연령층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음)도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관측되고 있다(유럽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공식 데이터에 근거함, 유럽통계청, 2015).

그림 2.44. 연령대별 삶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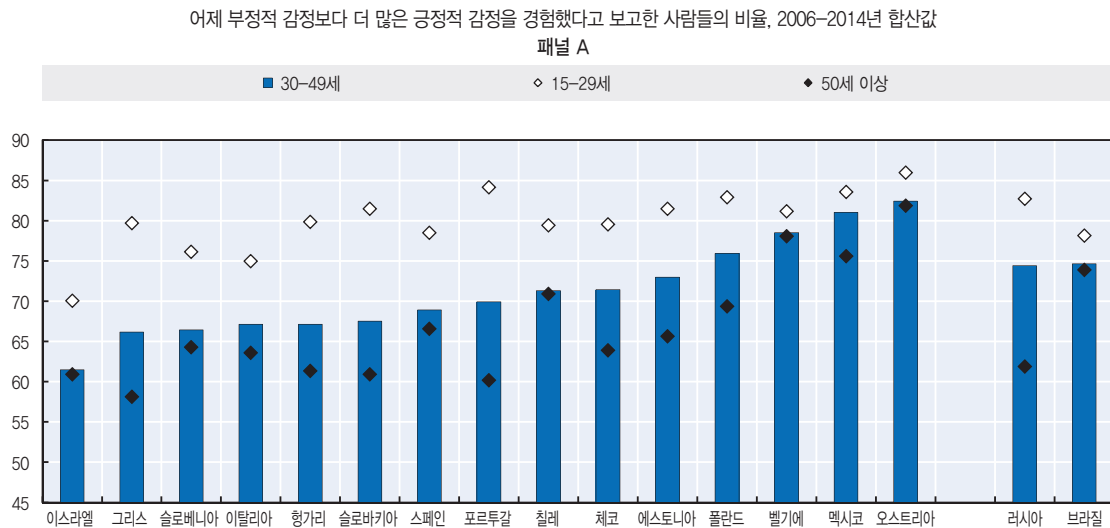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2006-2014년까지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모든 연도에서 합산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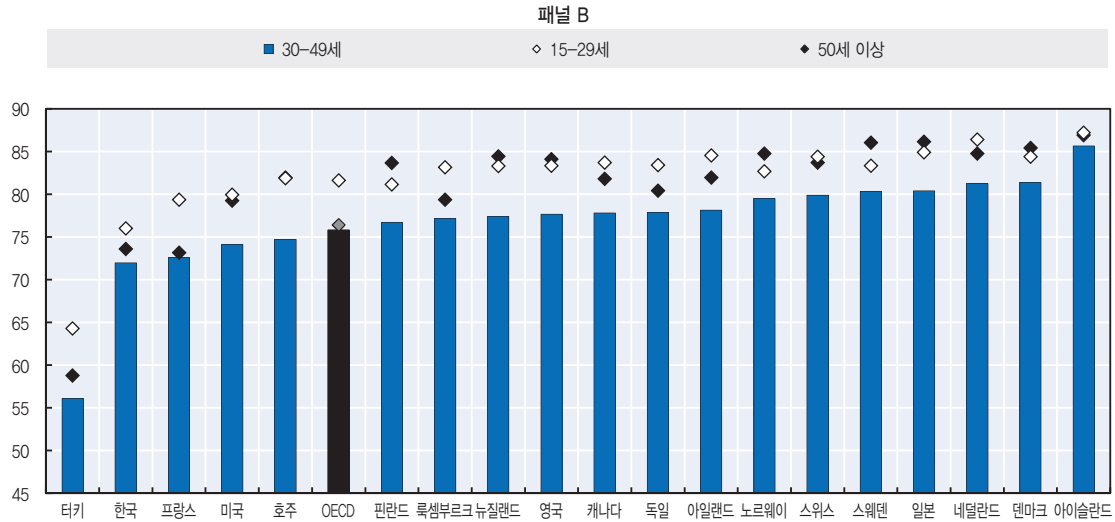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32>

일부 OECD 국가에서 연령층별로 경험된 웰빙에도 역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젊은층(15-29세)은 절반 이상의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지만(그림 2.45, 패널 A와 B) 중년층은 대부분의 북유럽, 터키,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영어사용국가들에서 정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그림 2.45. 연령대별 긍정적 감정 밸런스





주: 데이터는 2006-2014년까지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모든 년도를 합산한 것이다. 평가된 긍정적 느낌은 즐거움, 폭 신 느낌, 많이 웃거나 미소지음과 연관되고 부정적 느낌은 걱정, 분노, 슬픔과 관련이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42>

주

1. 지니계수와 심분위 간 소득비율에 대한 최초의 비교 가능 년도는, 값 추정 방법에 대한 최근의 변화로 인해 2011년이다. 장기간에 걸친 소득 불평등의 변화는 “다 함께 같이(In It Together)”에 기록되어 있다(OECD, 2015a).
2. 2007년과 2014년 사이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추이는 OECD 전역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2009년에 일본과 미국(그리고 평균적으로 OECD 전체적으로 볼 때)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가장 높았는데 2014년에 들어서 위기 전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9년 이후 유로지역에서 실업은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 정점을 기록했다. OECD(2015b)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3. OECD 일자리의 질 프레임 워크는 일자리의 질보다 일자리의 양과 더 관련이 있는 근로자들 간 근무 시간의 차이에서 추출한 시간당 근로소득을 감안한다.
4.
$$X' = \frac{x - \text{최저}(x)}{\text{최대}(x) - \text{최저}(x)}$$
5.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5-24세 사이의 근로자의 4분의 1 이상이 2011년-2012년에 기간제 근로계약(fixed-term contract)을 체결했는데 이 비율은 25-54세의 핵심생산층 근로자보다 대개 3배가 높다(OECD, 2014a).
6. 즉 남성 중위 임금으로 나눈 남성과 여성의 중위 임금의 격차
7.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기준연도는 2005년부터 2010년.

8. 이러한 발견 내용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연령, 소득,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청년들과 은퇴자들은 모두 핵심생산층 근로자들보다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나쁜 건강상태에 대한 취약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9. 몇몇 다른 OECD 국가들은 비강제적 규정(그리스 등)이 있거나 과거에 의무투표제(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를 실시한 역사가 있다. 칠레는 2012년에 투표의무제를 폐지했다.
10. 이 지표의 변화는 이 장에서의 다른 섹션에서 사용된 지표보다 더 오랜 기간 고찰되었는데 모든 국가들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 최소 한 번의 선거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1. 자기실현적(eudaimonic) 측정방법들은 종종 “심리적 웰빙” 또는 “번영”으로 불리어지는데 그 측정방법들이 자존감의 느낌과 역량과 같은 심리적 기능의 측면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12. 그림 2.41에 보여진 지표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제한되는데 왜냐하면 소득과 생활여건(EU-SILC)에 대한 EU 통계 조사에서 가져오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Balestra, C. and J. Sultan (2013), “Home Sweet Home: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its Relation with Well-being”,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3/0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bcx0czc0x-en>.
- Boarini, R. and M. Diaz (2015), “Cast a Ballot or Protest in the Street – Did our Grandparents Do More of Both? An Age-Period-Cohort Analysis in Political Participation”,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5/0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636gn50jb-en>.
- Brezzi, M. and D. Sanchez-Serra (2014), “Breathing the Same Air? Measuring Air Pollution in Cities and Region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4/1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rb7rkxf21-en>.
- Cazes, S., Hijzen, A. and A. Saint-Martin (2015), “How good is your job? the new OECD framework for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OECD Working Paper*, forthcoming.
- European Commission (2015), *Air Quality Standards*, <http://ec.europa.eu/environment/air/quality/standards.htm> (accessed on 5 July 2015).
- European Union (2013), “Health inequalities in the EU” – Final report of a consortium, http://ec.europa.eu/health/social_determinants/docs/healthinequalitiesineu_2013_en.pdf.
- Eurostat (2015), “Quality of life in Europe – facts and views – overall life satisfaction”,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_Europe_-_facts_and_views_-_overall_life_satisfaction (accessed on 3 July 2015).
- Exton, C., Smith, C., and D. Vandendriessche (forthcoming), “Comparing happiness across countries: does culture matter?”,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 Fesseau, M. and M.L. Mattonetti (2013a), “Distributional Measures Across Household Group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 Results from an Experimental Cross-country Exercise on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3/0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3wdjqr775f-en>.
- Fesseau, M., F. Wolff and M.L. Mattonetti (2013b),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between Micro Sources and National Accounts Aggregat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3/0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3wdjrn7mv-en>.
- Gallup (2015), *the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accessed on 5 July 2015).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www.idea.int/ (accessed on 22 March 2015).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2012), *Decent Work Indicators: Concepts and definitions*, ILO Manual, First edition, Geneva.
- Murtin, F. and M. Mira d'Ercole (2015), “Household wealth inequality across OECD countries: New OECD evidence”, *OECD Statistics Brief*, No. 21, www.oecd.org/social/household-wealth-inequality-across-OECD-countries-OECD21.pdf.
- OECD (forthcoming), *Regions at a Glance 2016*,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a),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 OECD (2015b),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 OECD (2015c), *OECD Gender Portal*, www.oecd.org/gender/data/ (accessed on 12 May 2015).
- OECD (2015d),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 OECD (2015e),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du/EAG-Interim-report.pdf.
- OECD (2015f), *Skills for Social Progress: The Power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OECD Skills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6159-en>.
- OECD (2015g), “What Lies Behind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 *PISA in Focus*, No. 4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4xffh30-en>.
- OECD (2015h), *The ABC of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Aptitude, Behaviour, Confidence*,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9945-en>.
- OECD (2015i), *Regulatory Policy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 OECD (2015j),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en.
- OECD (2014a),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en.
- OECD (2014b), *Making Mental Health Count: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Neglecting Mental Health Care*,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8445-en>.
- OECD (2014c), “Improving well-being”, in OECD,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usa-2014-5-en.
- OECD (2014d),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4-en>.
- OECD (2014e), *PISA 2012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Volume I, Revised edition, February 2014): Student Performance in Mathematics, Reading and Science,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8780-en>.
- OECD (2014f), *Green Growth Indicators 2014*, OECD Green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030-en>.
- OECD (2014g),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 OECD (2014h),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in OECD, *Green Growth Indicators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030-9-en>.
- OECD (2013a),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92-en>.
- OECD (2013b),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78-en>.
- OECD (2013c),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30-en>.
- OECD (2013d), “Well-being in the workplace: Measuring job quality”, in OECD,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3-9-en.
- OECD (2013e),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4256-en>.
- OECD (2013f),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2-en>.
- OECD (2011a),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 (2011b), "Housing conditions", in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6-en>.
- OECD (2011c),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8367-en>.
- OECD (2011d), "Personal security", in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13-en>.
- OECD (2007),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32477-en>.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2015), *Handbook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A Statistical Framework*, prepared by the Expert Group on Measur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2015/4_Add.2_Rev1_Guidelines_on_QoEmployment.pdf (accessed on 14 July 2015).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2013),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3/2013-II-CrimeStats-E.pdf>.
- van Donkelaar, A., R.V. Martin, M.Brauer and B.L. Boys (2015), "Use of Satellite Observations for Long-Term Exposure Assessment of Global Concentratio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123, Issue 2.
-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2006), *World Health Organization: Air Quality Guidelines for Particulate Matter, Ozone, Nitrogen Dioxide and Sulfur Dioxide*, Global Update 2005, www.who.int/phe/health_topics/outdoorair/outdoorair_aqg/en/.

Database references

- Eurostat (2015)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accessed on 28 June 2015).
- Eurostat (2015) *Time Use Database*,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tus_00selfstat&lang=en (accessed on 5 July 2015).
-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accessed on 5 July 2015).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web application, <https://www.h2.scb.se/tus/tus/> (accessed on 1 July 2015).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www.idea.int/ (accessed on 22 March 2015).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652-en> (accessed on 5 July 2015).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accessed on 5 July 2015).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socwel-data-en> (accessed on 5 July 2015).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lfs-data-en> (accessed on 5 July 2015).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accessed on 5 July 2015).

제3장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오늘 한 선택과 오늘 내린 결정이 내일의 웰빙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래의 웰빙 전망에 관한 첫 일별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일부 핵심 자원들에 초점을 맞춘다. 본 장은 현재 존재하며, 미래의 웰빙을 위한 축적자산(store of wealth)을 제공하는 자연·인적·사회적·경제적 “자본 총량(capital stocks)”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측정법들을 제시한다. 본 장은 또한 이 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중 일부에 대해 고찰한다. 이 지표들은 산림면적,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청년의 교육이수율, 가계부채 등으로 다양하다. 이 지표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지만, 본 장은 현재 이미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하고, 미래에 더 완벽한 대쉬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메울 필요가 있는 갭(gaps)을 강조한다. 좀 더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진 자원이라는 맥락에서 현재의 웰빙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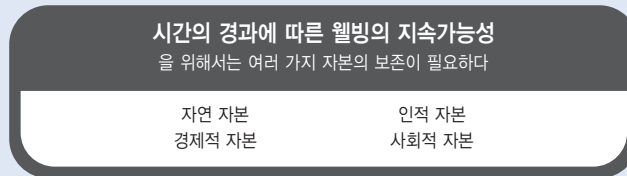
미래 웰빙에 관한 전망에 대해서 오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오늘 내려야 한다. **How's Life?** 측정 프레임 워크는 현재의 웰빙 성과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다(박스 3.1). 본 장은 웰빙 프레임 워크의 후자(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들)를 다루는데, 오늘 관측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내려진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며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웰빙에도 중요한 네 가지 종류의 자원(또는 “자본”)에 초점을 맞춘다.

이 섹션에서 취한 접근법은 **How's Life? 2013**에 포함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웰빙의 지속가능성 측정 (**Measuring the sustainability of well-being over time**)에 관한 장(OECD, 2013a)의 내용을 따르며, 지속 가능한 개발 측정에 관한 유럽통계기관장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의 권고들의 몇가지 요소들을 시행한다(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14). 이 접근법은 미래 웰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자연·인적·사회적·경제적 자원의 요소들을 반영한 몇가지 측정법과 함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자원들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처음으로 소개한다. 아래에 설명할 증거자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목표는 미래 세대(“나중의”)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이라는 맥락 하에서 오늘의 웰빙(“현재 여기”)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자원들 중 몇 가지는 글로벌 공공재이므로 “그 밖의 다른 지역(한 국가의 국경 밖에서)”에서 발생한 일은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가용한 증거를 통해서만 부분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스 3.1).

박스 3.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시키는 자원 총량(stocks)의 측정

지속 가능한 개발 측정에 관한 유럽통계기관장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의 권고들(유엔유럽 경제 위원회, 2014)과 **Stiglitz, Sen and Fitoussi Report(2009)**에 따라서, 웰빙 측정을 위한 **How's Life?** 프레임 워크는 현재의 웰빙이 시간이 경과되어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자본 기반(**capital-based**) 접근법”을 채택한다(OECD 2013a 제6장 참조).

그림 3.1. 웰빙의 측정을 위한 How's Life? 프레임 워크에 나타난 자본 총량(stocks)



출처: OECD(2011), **How's Life? 웰빙의 측정**,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박스 3.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시키는 자원 총량(stocks)의 측정(계속)

이 자원들은 미래의 웰빙을 위한 가치의 축적(store)을 표현하는 총량(stocks)의 개념을 반영하는 “자본”의 형태들이다. 이러한 다른 형태의 자본은 여러 가지 공통적 성격을 갖는다: 각각 광범위한 웰빙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며, 각기 유지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 접근법은 기본적 총량(underlying stocks)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의 추이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본 장에 포함된 지표들은 10년에서 15년의 시기에 걸쳐서 보여지는데, 실제로 적절한 기간(time-spans)은 해당 자본 총량(stock)의 성격에 좌우된다*. 정보는 또한 유입(투자 등), 유출(자원의 고갈 또는 질 저하 등), 자본 총량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 요소들, 그 자본들의 충격(shocks)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후자의 지표들은 미래의 웰빙을 위한 전망을 개선시키기 위해 오늘 결정권자(decision-makers)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한 방편들(levers)을 시사한다.

이 장에서 사용된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유럽통계청/OECD 태스크포스(유엔, 2009; 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14) 등 몇 가지 다른 기존의 측정 이니셔티브들과 UNU-IDHP(유엔대학의 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국제 인간개발프로그램)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포용적인 자산 보고서(2012; 2014), 그리고 스위스 연방통계청(2013)과 뉴질랜드통계청(2011) 등 몇몇 국가통계청들에 의해 개발된 이니셔티브들과 일관성이 있다. 이러한 프레임 워크들 중 다수의 핵심적인 특징은 “현재 이곳”의 웰빙 욕구(needs)를 충족시키는 것과 “나중의” 미래 세대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총량(stocks) 사이에 구분을 지은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들 중 몇 가지는 자원 총량(stocks)의 수준을 단순히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며 또는 위협받는 지를 고찰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유지와 관련된 전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인식하여,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2014) 접근법은 한 국가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다른 국가 사람들의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즉 “그 밖의 다른 지역(elsewhere)”의 웰빙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영향(cross-boundary impacts)은 긍정적(공식개발원조(ODA)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받은 취약한 국가 내에서의 잘 기획된 빈곤감소 프로그램 등)이거나 부정적(교육과 훈련에 투자한 국가들의 인적자원을 고갈시키는 숙련 근로자의 유출 등)일 수 있다. 이 영향은 실제로 “전 세계적인(global)” 자본 총량(대기 중 온실가스 총량의 증가 등) 또는 특정 국가들에 위치하지만 그것의 고갈이 전 세계적 우려와 전 세계적 책임이 될 수 있는 자본 총량(전 세계적 소비 방식에 의한 열대우림의 고갈 등)의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영향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본 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미래의 연구와 측정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측정을 위한 가장 적절한 기간(timespan)의 선택은 고려된 자본의 유형에 좌우된다. 본 장의 초점은 오늘날 존재하고 측정될 수 있으며 미래의 웰빙의 유지와도 관련된 자원들에 맞춘다. 함축적으로 말하면 본 섹션에서 제안된 인적·사회적 자본의 측정법들은 “나중(later)” (즉, 미래 웰빙)이 대체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현재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의 나중의 삶의 기간(life-span)을 의미한다. 역으로, 재생 불가능한(non-renewable) 자연 자본의 경우, 오늘날 자원의 관리는 먼 미래의 모든 세대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자본의 적절한 timespan(기간)은 이러한 두 유형의 자본의 중간이다: 경제적 자본은 많은 세대(lifetimes)를 견디어 낼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건물, 교량 등)뿐만 아니라 위기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금융자본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자본 총량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one size fits all)” 기간(timeframe)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OECD(2013): 웰빙의 측정,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92-en>;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2014), 지속 가능한 개발의 측정에 관한 유럽통계기관장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의 권고, 뉴욕과 제네바, www.unece.org/fileadmin/DAM/stats/publications/2013/CES_SD_web.pdf.

현재의 웰빙의 측정은 개인, 가구, 지역사회의 경험에 많은 역점을 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래 웰빙에 대한 위협은 개인의 웰빙이 뿌리내리고 있는 더 넓은 시스템에 대한 교란(disruption)과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후체계의 변화 또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체계 내 리스크의 증가이다. 간단히 말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의 대쉬보드는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측정법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society-wide) 특징들과 시스템 기반(system-based) 특징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본 섹션에서 고찰된 측정치들 중 다수는 1인당 기준으로 표현되는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systemic features)을 개인들의 경험들과 연관시키고 인구변화가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본 섹션에서 고찰된 4가지 유형(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의 “자본”은 서로 다른 종류들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의 측정은 어렵다. 본 장에서 언급된 설명지표들은 표 3.1에 제시된다. 어떤 영역에서, “현재 여기서(Here and now)” 웰빙 성과로 고찰된 동일한 지표들이 또한 미래의 웰빙을 위한 가능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제2장에서 현재의 웰빙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몇 가지 측정방법들이 여기서도 매우 관련성이 높기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구 자산(경제적 자본의 총량(stock)), 성인의 기술과 역량(인적 자본의 총량(stock)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장기 실업률(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 투표율과 정부 이해당사자 참여(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음),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단기적·장기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질의 한 가지 측면) 등과 같은 요소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성과들로부터 나온 웰빙 편익(또는 비용)이 미래로 이어지지만 현재의 웰빙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 동일한 지표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제2장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추세를 다음 부분에서 고찰하지는 않지만, 이 지표들은 아래 표 3.1의 첫 번째 칼럼에서 강조되며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들을 평가하는 지표들의 더 폭넓은 “대쉬보드”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 제2장과 3장에 나타난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들을 감시하는 설명지표들

자본 총량(stock)	제2장	제3장	제3장	제3장
	현재와 미래의 웰빙과 모두 관련된 지표들	자본 “총량(stock)”의 지표들	“흐름” 지표들(자본 stock에 대한 투자 및 고갈)	기타 위험 요소들
자연 자본	대기오염 연간노출도 (PM _{2.5})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토지 자산: 1인당 산림면적(forest cover) 1인당 담수 자산	1인당 온실 가스배출량 1인당 담수추출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인적 자본	교육이수율 15세 학생의 인지능력 성인의 역량 장기 실업률 출생 시 기대수명	25-34세의 교육 수준	교육적 기대년수(5-39세)	흡연을 비만을
사회적 자본	투표율 정부 이해당사자 참여	타인에 대한 신뢰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경제적 자본	가구순자산 가구순금융자산	1인당 순고정자산 1인당 지식 자산 전체 경제 내 1인당 순금융자산	총고정자산 형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민간(가구)부문 부채 일반정부의 금융순자산 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여기에 제시된 측정방법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의 총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들이 결코 완벽한 평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자본 총량의 중요한 특징들이 표 3.1에서 설명된 대시보드에서 누락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적 자본의 영역(많은 측정방법들이 아직 개발 중임)의 지표들과 자연 자본의 몇 가지 측면들(광물, 에너지, 토지 자원들이 중요한 누락임)이 포함된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한 “흐름” 지표들과 위험 요소들도 고찰될 수 있다¹. 또한 오늘날 가장 어린 세대가 미래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 총량의 필수적 투입(input)일 것이며 성인으로서 자신들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하여 제4장에 나오는 아동 웰빙의 측정방법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논의와 관련이 있다.

표 3.1에 나타난 지표들 가운데, 다루는 국가의 범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 가능성, 데이터품질은 몇 가지 사례들에 제한된다. 달리 말하면 본 장에서 설명된 데이터는 “이상적” 지표들이 아닌 첫 번째로 수집된 측정치들이다. 미래 웰빙의 전망에 관한 더 완벽한 평가를 위해서는, 더 폭넓은 지표들의 대시보드와 지표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더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 데이터들에 대한 해석을 크게 개선시킬 한 가지 중요한 연구 과제는 비선형성(non-linearities), 예컨대 미래 웰빙에 대한 위협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또한 아마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지점인 임계치(critical thresholds)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s)에 대한 평가이다. 많은 발전이 여전히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장은 또한 현재 가용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미래 웰빙을 위한 광범위한 자원에 대한 감시를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 자본

자연 자본은 자연 환경의 중요한 측면을 말한다. 광물질, 에너지 자원, 토지, 토양, 물, 나무, 식물과 야생동물과 같은 개별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생물 생태계, 즉 산림, 토양, 수중 환경과 대기 등의 각기 다른 환경적 자산들 간의 공동 기능과 상호작용 역시 포함할 수 있다. 자연 자산의 웰빙 편익의 일부는 “현재 이곳에서” 느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숨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 마실 안전한 물, 또는 레크리에이션, 레저와 지역사회 행사를 위한 녹색 공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대기 오염과 수질에 대한 측정방법들은 제2장에 현재 웰빙의 지표들로서 포함되었지만, 특히 공해에 대한 노출의 누적 효과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연 자원의 많은 편익은 다른 자본들의 생산에서 수행하는 역할로부터 오는데, 그 결과 현재와 미래에 사람들의 물질적 웰빙과 삶의 질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자연 자원은 흔히 경제적 생산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조업, 농업, 관광업 등에서 경제적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 에너지, 원재료를 공급한다. 자연 자본은 또한 인적 자본에도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을 위해 물, 식량, 가정과 직장의 난방용 연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계는 또한 중요한 싱크 기능(sink function: 오염, 폐기물, 탄소를 저장)을 제공하고 자연적 위해요소(natural hazards: 지진이나 홍수 등)로부터 보호해 준다. 이와 유사하게, 희소한 자연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나 식량, 물, 광물 또는 에너지의 미래 공급에 대한 불안(insecurity)은 사회적 자본을 위협할 수 있고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웰빙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연 자원의 총량(stocks)과 흐름(flow)에 관한 매우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정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집되는 지표는 비교적 적다. 이 지표들 중 다수는 어떤 국가에서는 희귀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형태의 자원들(담수와 산림 등)과 관련이 있다. 측정방법론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가 많은 관련 지표들의 경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자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수의 측정방법들이 여기에서 선택되었는데(박스 3.2 참조), 훨씬 풍부한 지표들이 제시되는 OECD 녹색성장지표간행물(OECD, 2014a)과 OECD의 한눈에 보는 환경(OECD's Environment at a Glance; 2013b)에 나타난 “자연자산 기반(natural asset base)”에 관한 지표들을 근거로 한다.

박스 3.2. 자연 자원 측정을 위한 설명지표들

다음의 지표들이 자연 자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 **1천명당 산림면적**은 숲과 나무가 우거진 땅의 총량을 말하며 제곱 킬로미터로 표시된다. 여기에는 수관밀도 (canopy cover)가 10% 이상 또는 그 장소에 이 기준에 도달 가능한 나무들이 있는 0.5 헥타르 이상의 산림지역이 포함된다. 주로 농업 또는 도시토지 이용을 위해 사용되거나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산림이나 식생은 제외한다. 여기에 보이는 데이터는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에서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전 세계산림자원평가(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에 의해 보고된 데이터를 담고 있다. FAO의 평가 방법론은 국가 통신문(correspondents)과 원격탐사(remote sensing)에 의해서 작성된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s)에 의존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6가지의 온실 가스와 관련이 있는데, 이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CO₂: 에너지 사용과 시멘트 생산 등 산업공정에서 나온 배출가스), 메탄(CH₄: 고형 폐기물, 가축, 석탄 및 갈탄 채굴, 논, 농업,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누출가스),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 있고 “온난화 잠재력(warming potential)”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진다. 이 데이터는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인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한 2014 국가인벤토리보고서제출 (National Inventory Submissions)과 OECD 국가의 환경 설문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한다. 데이터는 총직접배출을 말하며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산림으로부터의 배출과 제거를 배제한다.
-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은 장기적인 연평균 가용성을 말하며 1인당 입방미터 기준이다. 이 자원은 내부적 흐름 (자연상태에서 강물 유출과 발생된 지하수의 총량으로, 오직 한 영토에 내리는 강수량에 의함)과 외부적 흐름(인접 영토들로부터 온 강과 지하수 흐름의 총량)의 합을 말한다. 여기에 보이는 데이터는 OECD의 녹색성장지표들의 일부이며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 **담수 추출량**은 1인당 입방미터 기준 지하수(groundwater) 또는 지표수(surface)로부터의 총추출량을 말한다. 여기에는 농업(관개 등)과 산업용(냉방과 산업공정 등) 추출뿐만 아니라 공적 공급(public supply)을 위한 추출도 포함된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는 실제 추출량이 아닌 가용허가수량(water permits)을 말한다. 여기에 보이는 데이터는 OECD의 녹색성장지표들의 일부이며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 **위협받고 있는 종(species)**이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위협에 처하거나 취약한 포유류, 조류, 관속식물을 말하는데, 이 동식물들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리스트(Red List) 범주 및 기준을 근거로 하며, 멸종 위기에 있거나 곧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이는 데이터에서 어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동물, 균류는 제외된다. 데이터는 자료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해당된다. 데이터 출처는 OECD의 녹색성장지표들인데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데이터는 이스라엘 자연 및 공원관리청(Israel Nature and Parks Authority)에 의해 제공되었다. 위협받고 있는 종의 상태에 관한 데이터는 OECD 환경 참조지표(reference series)의 연례품질보증(AQA)에 관한 국가의 응답에 근거한다. 이 데이터들은 환경정보에 관한 OECD 실무단(WPEI)의 작업을 통해서 조율된다.

박스 3.2. 자연 자본 측정을 위한 설명지표들(계속)

1천명당 산림면적은 산림피복에 관한 측정방법과 함께 특정 지역의 산림의 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산림 총량에 관한 더 완벽한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수목과 다른 종들), 산림훼손, 산림피복의 인위적 파괴 등과 같은 측면 즉 산림의 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산림이 자연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자연 식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속적 자연지대(natural areas)의 인위적 파괴(fragmentation)는 고려 가능한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이다.

물 부족(water stress)은 국가 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한 국가 내 다른 지역의 담수 자원의 수준이 매우 다를 수 있고 계절적 변동이 담수 자원의 압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담수 자원에 대한 정의와 추산방법은 국가별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OECD, 2014a).

위협받고 있는 종에 관한 데이터에는 다수의 제한점이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기준과 정의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엄격함의 정도가 다르고, 알려진 또는 평가된 종의 숫자가 현존하고 있는 종의 숫자를 항상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데이터는 또한 대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OECD, 2014a).

자연자본 총량의 포괄적 대쉬보드에는 여기에 보여진 자산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자산들이 포함된다(OECD, 2013a; 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14). 다른 중요한 자연 자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즉 토지이용변화, 물추출, 종 풍부도에 관한 더 완전한 설명은 OECD 녹색성장지표(Green Growth Indicators)에서 제공된다(OECD, 2014a).

시간이 경과하면, OECD 녹색성장지표에는 더 광범위한 자연 자원의 측정방법이 포함될 것이며 여기에는: i) 담수, 산림, 어류와 같은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 총량의 가용성과 질, ii) 금속, 산업 광물, 화석에너지 매개체(fossil energy carriers)와 같은 재생불가능한 자연자원 총량의 가용성과 접근성, iii) 종과 서식지다양성 등 생물학적 다양성과 생태계와 토지 및 토양 자원의 생산성이 포함된다.

OECD 내에서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국제적 기준의 새로운 핵심 측면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은 국민계정체제 내 경제적 자원의 측정방법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원 자본에 관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 읽을 거리:

- FA O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2010),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0 Main Report*, FA O Forestry Paper 163, www.fao.org/docrep/013/i1757eli1757e.pdf.
- IIEA (2014), *Energy,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2014 Insights*, IEA,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0744-en>.
- OECD (2014a), *Green Growth Indicators 2014*, OECD Green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030-en>.
- OECD (2012),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The Consequences of Inac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2246-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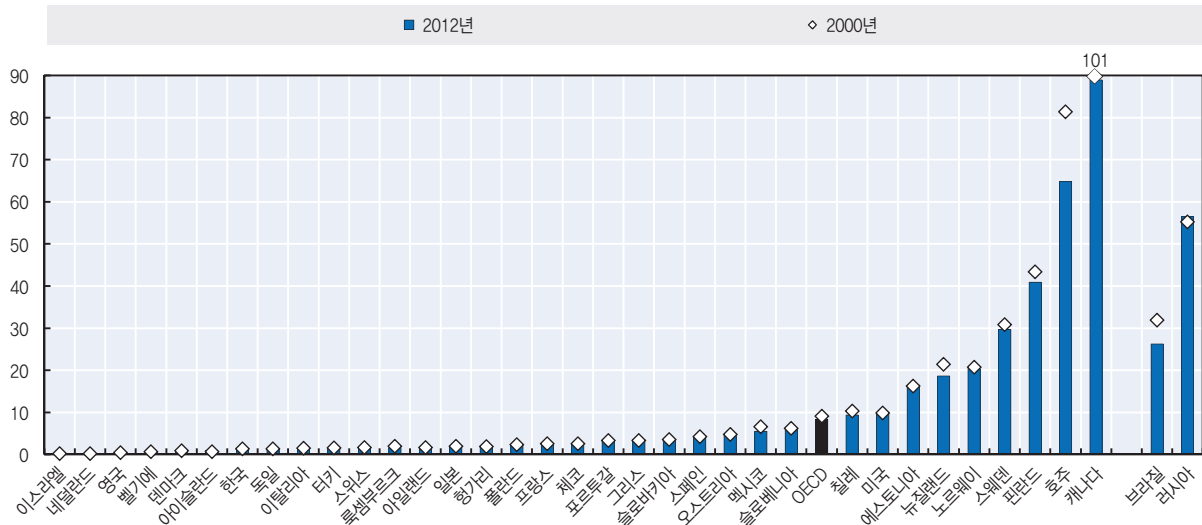
산림은 많은 다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산림은 건축용 목재, 연료, 목재 및 종이 기반(wood and paper-based) 제품 등 경제적 생산에 투입(input)을 제공하고, 토지를 토양침식과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식물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산림은 또한 탄소흡수원(carbon sink)으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 탄소순환(carbon cycle)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은 전 세계 산림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의 토지면적의 약 3분의 1이 산림으로 뒤덮여있다.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서 산림은 총 토지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 비율은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에서는 10% 미만이다(OECD, 2014a).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그림 3.2),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호주, 캐나다는 2011년에 인구 1천명당 2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림총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5 제곱킬로미터 미만을 가졌으며, 이스라엘, 네덜란드, 영국은 그 수치가 1 제곱킬로미터 미만이었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OECD 지역의 인구 1천명당 평균 산림면적은 7%가 감소해서 2000년에 9.1 제곱킬로미터에서 2012년에 8.4 제곱킬로미터가 되었다. 호주, 캐나다, 브라질에서 커다란 감소가 발생했다. 호주와 브라질의 경우 이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산림식피(forest cover) 비율의 감소(호주의 경우 20%에서 19%로 감소, 브라질의 경우 65%에서 62%로 감소)와 더불어 나타난 인구 규모의 증가를 반영한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산림식피의 비율이 안정된 상태였지만 인구가 크게 증가해서 1인당 산림지역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림 3.2. 산림지역

제곱킬로미터로 표시된 산림지역, 1천명당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초 년도는 미국의 경우 2009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토지 자원"에 근거한 OECD 계산,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U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5>

산림은 많은 지역적 편익을 갖지만 산림자원의 전체 총량은 또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OECD 전역에서 2000년 이래 나타난 1인당 산림면적의 감소는 좀 더 광범위한 전 세계적인 산림파괴 추세의 상황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적 순감소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매년 약 520만 헥타르로 추산되었는데, 대략 코스타리카 크기에 해당한다(FAO, 2010).

일부 국가에서, 산림은 자연적으로 희소하므로 산림회복은 식생과 자연서식지에 따른 다른 측정방법과 토지이용변화(도시지역에 의해 봉쇄된 토지면적의 양 등)에 관한 정보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자연 식생과 종다양성 풍부 지역의 인위적 분절(예를 들어, 시가지(built-up area)와 수송 인프라로 인한)은 중서식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연속적인 자연지역의 분절화 또한 미래에 고려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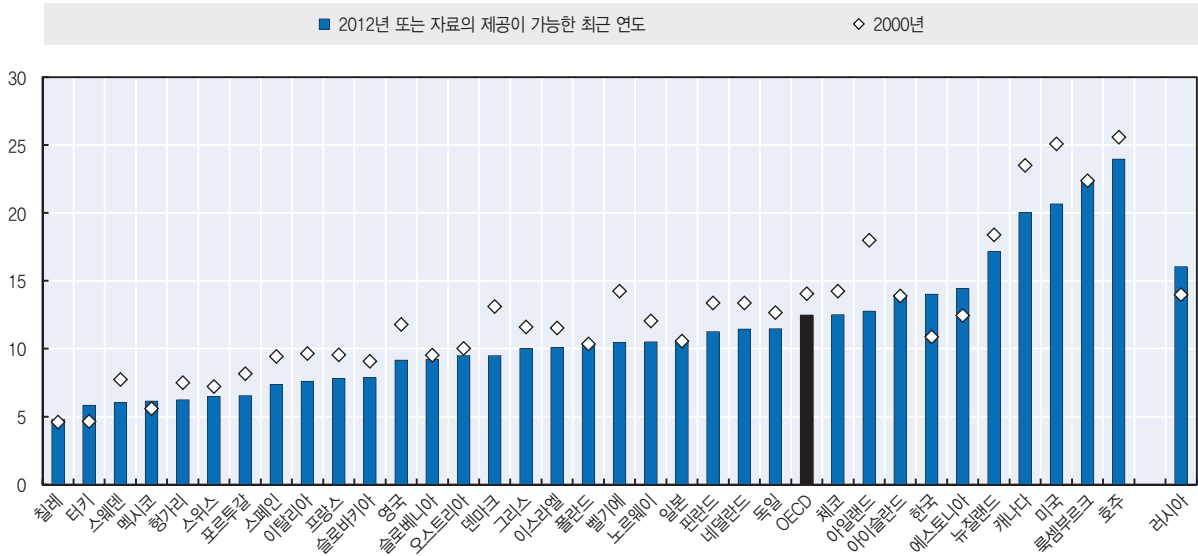
대기는 기후규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자연 자산이다. 특히,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기후 변화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되며 만약 억제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인간 웰빙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OECD, 2012; OECD, 2015a). 현재 수준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²에 포함된 6가지 온실가스의 농도는 산업혁명전 수준에서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50%임을 의미한다(유럽환경청, 2015). 그러므로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제 정책의 핵심 도전과제이다.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 가스의 대기중 농도는 유엔의 전문 기관인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해서 보고된다. 2014 세계기상기구온실가스연보(Greenhouse Gas Bulletin: WMO, 2014)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전 세계 평균 추정치가 201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산화탄소는 396.0 \pm 0.1 ppm, 메탄은 824 \pm 2ppb, 아산화질소는 325.9 \pm 0.1ppb였다. 이는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전(1750년 이전) 수준보다 42%가 높고, 메탄 농도는 153% 높으며, 아산화질소 농도는 21%가 높음을 의미한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간변화가 2.9ppm 으로 198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WMO, 2014). 모두 합쳐보면,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6가지 온실가스는 2012년 이산화탄소 449ppm에 상당하며, 이는 산업혁명전 수준과 비교해서 171ppm(약 +62%)이 증가한 것이다(유럽환경청, 2015).³

공기중으로의 온실가스 배출량(그림 3.3, 정의를 보려면 박스 3.2 참조)은 온실 가스의 대기중 축적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는 “흐름” 지표를 제공한다. 2012년에 OECD 지역에서 각국에서 발생한 활동에서 나온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이 캐나다, 미국, 룩셈부르크, 호주에서 가장 많았으며(1인당 2만 킬로그램 이상), 멕시코, 스웨덴, 터키, 칠레에서 가장 적었다(1인당 약 6천 킬로그램).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국내 경제생산에서 발생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감소했다.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영국,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배출량은 20% 이상 감소했다. 소수의 국가들에서, 대개는 훨씬 낮은 1인당 기저(per capita base)에서 출발한 국가들인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국(거의 30%), 에스토니아와 터키(15% 이상), 러시아와 멕시코(10% 이상)에서 증가했다.

그림 3.3. 국내 생산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킬로그램, 이산화탄소 등가물, 천 단위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경우 2011년, 멕시코의 경우 2010년, 칠레의 경우 2006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값이다.

출처: “출처별 온실가스배출량”,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9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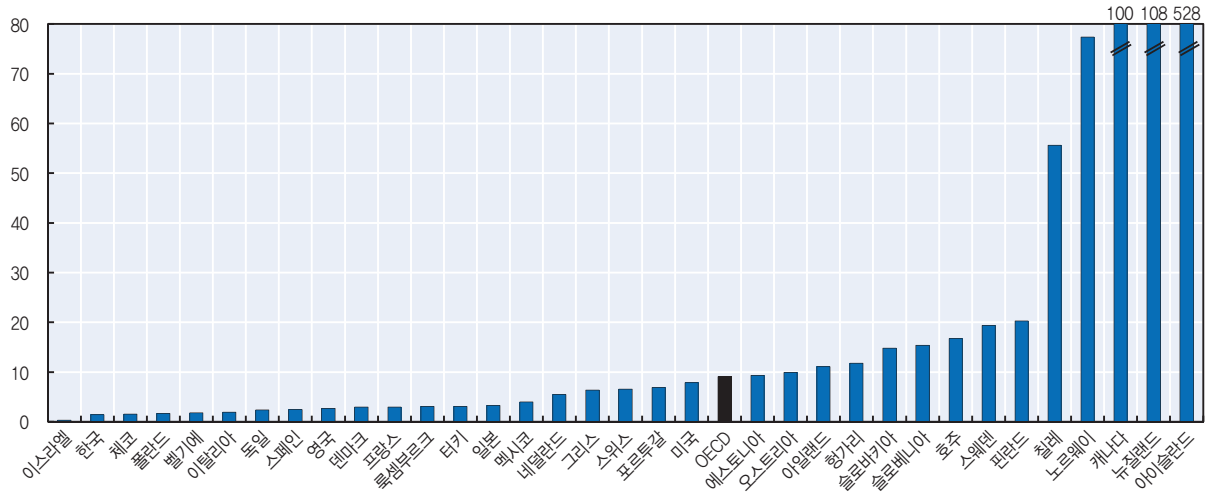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62>

1인당 기준 탄소배출량은 만약 어떤 국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 1인당 배출량이 줄어들어도 총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배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그 영향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데, 즉 배출 지역과 관계없이 탄소 배출은 온실가스 농도 상승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효과를 가장 심하게 느낄 국가는 전 세계 탄소배출에 가장 적게 기여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 국가의 경제적 생산과 관련된 배출량이 그 국가의 소비방식에 의한 배출량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실험적 측정법은 국제 무역(또한 글로벌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s)에 근거함)에서 구체화된 것처럼, OECD 국가들은 내재된(embedded) 탄소의 순 수입국들인데, 즉 OECD 전체로서 소비로부터의 배출량은 생산으로부터의 배출량보다 높다(OECD, 2015b, www.oecd.org/sti/inputoutput/co2).

담수 자원은 농업과 산업 생산 그리고 국내 물공급에 필수적 투입(input)이다. 재생가능한 담수 자원의 가용성은 OECD 국가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그림 3.4). 가장 많은 양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칠레에서 발견되며 각각 연간 1인당 5만 입방미터 이상의 재생 가능한 담수가 사용 가능하다. 이는 다수의 OECD 국가들의 상황과 대조가 되는데 그 국가들에서 대개 1인당 2만 입방미터 미만이 사용 가능하다(OECD 평균은 1인당 9,080 입방미터임).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의 총량은 이스라엘, 한국, 체코,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적는데 각각 연간 1인당 2천 입방미터 미만이 사용 가능하다.

그림 3.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의 총량

1인당 1,000 입방미터, 장기적인 연평균 이용 가능성



주: 영국에 대한 값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말한다. 캐나다(100), 뉴질랜드(108), 아일랜드(528)에 대한 값은 그림의 상한계를 초과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물: 담수 자원”,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env-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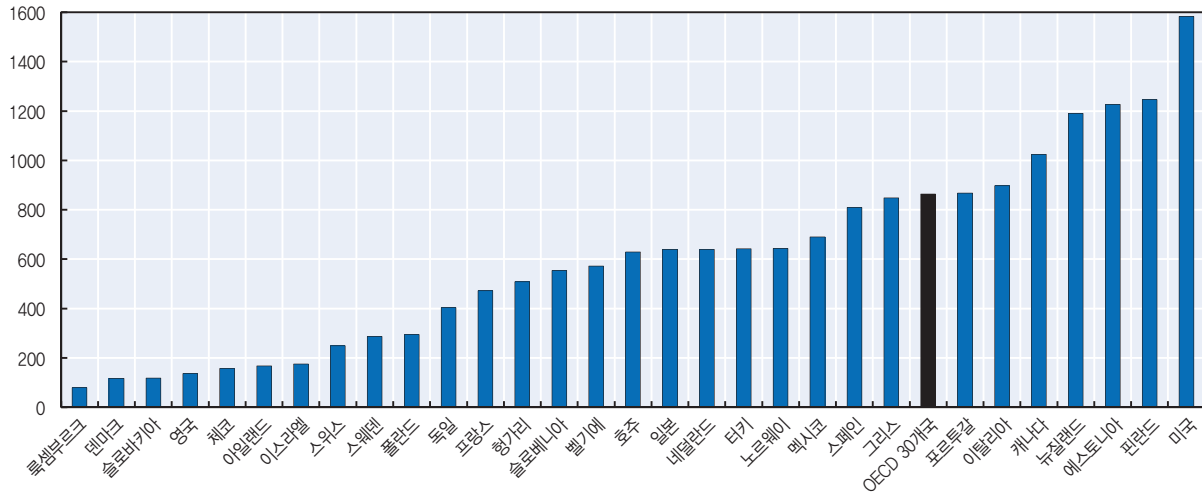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75>

담수 추출량은 물사용의 강도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가 제공 가능한 OECD 국가들 중에서 총 담수 추출량은 미국, 핀란드,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가장 높고(1인당 1,000 입방미터 이상),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체코, 아일랜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다(1인당 200 입방미터 미만) (그림 3.5). 높은 담수추출률을 기록하는 일부 국가들은 비교적 풍부한 담수자원을 가진(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 등) 반면, 몇몇 OECD 국가들(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이스라엘)은 국내의 물 자원과 관련해서 “물부족(water stress)”을 겪고 있다(가용한 자원의 40% 이상을 추출함).

1970년대에 늘어난 이후 OECD 전역에서 총 담수추출량은 199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안정세를 유지했다(OECD, 2014a).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난 100년간 물 수요 증가는 인구성장률의 두 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OECD, 2014a; 2015c). 물부족은 또한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50년에 이르면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극심한 물부족 상태에서 살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12; 2013c).

그림 3.5. 담수 추출량

1인당 입방미터, 2006년 이후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멕시코의 경우 2013년,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에스토니아의 경우 2012년,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2011년, 이스라엘, 스웨덴, 독일, 터키, 뉴질랜드, 미국의 경우 2010년, 아일랜드, 벨기에, 일본의 경우 2009년, 이탈리아의 경우 2008년, 노르웨이, 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우 2007년, 핀란드의 경우 2006년이다. 영국에 대한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말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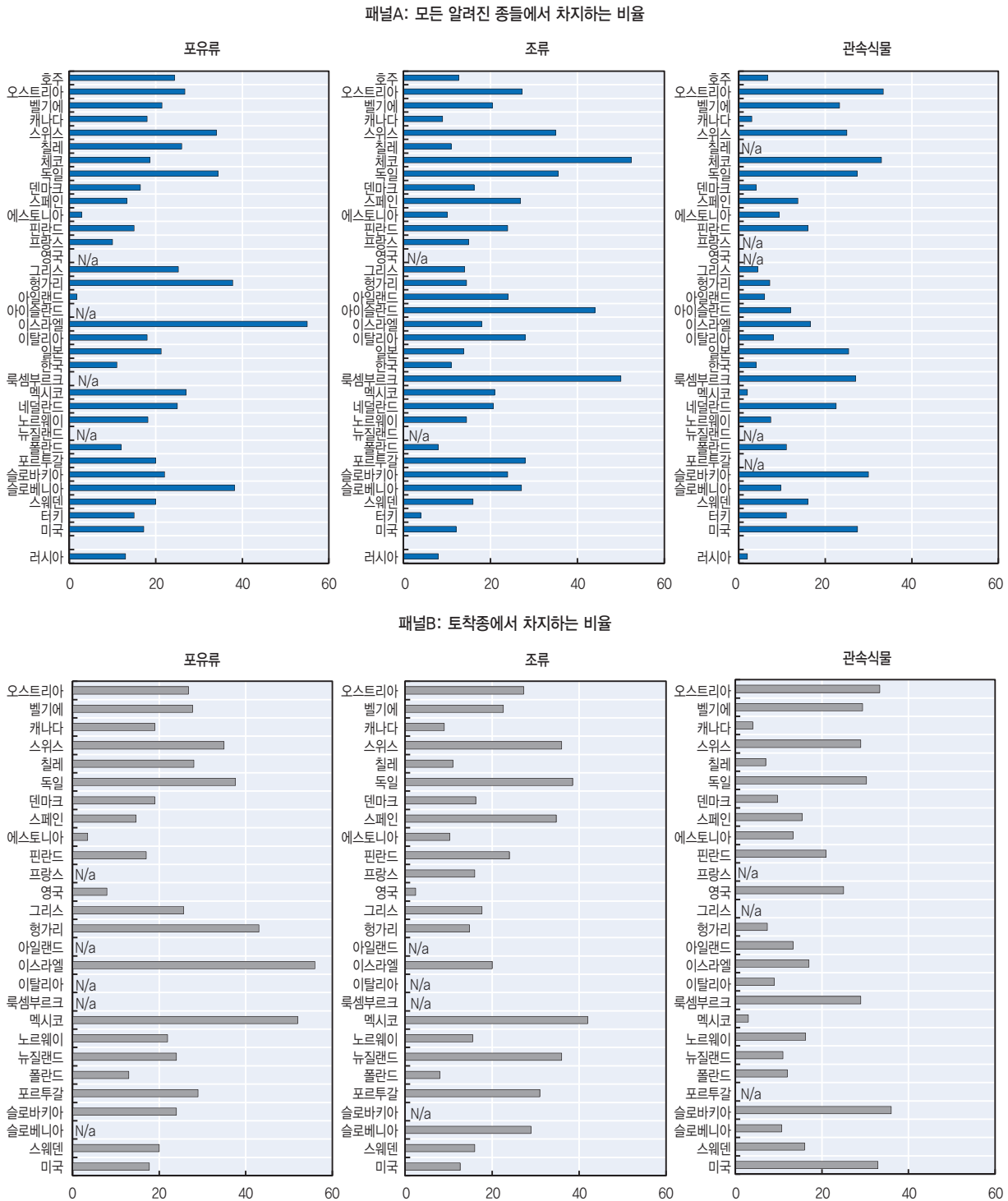
출처: “물: 담수 추출량”,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602-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80>

생물학적 다양성은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소중하며, 생물학적 자원은 또한 인간의 웰빙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위협에는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의 변화, 화학물질 오염과 공해, 침입외래종, 기후변화가 있다(OECD, 2014a). 위협받고 있는 종(멸종 위협에 처하거나 곧 멸종될 것 같은 종; 정의를 보려면 박스 3.2 참조)에 관한 데이터는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압박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3.6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OECD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고 포유류, 조류, 관속 식물이 고려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알려진 포유류 종의 30% 이상이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헝가리, 독일, 스위스에서 위협에 처해있고, 알려진 조류의 종의 30% 이상이 체코,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독일, 스위스에서 위협에 처해있고, 알려진 관속 식물 종의 30% 이상이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위협에 처해있다(그림 3.6, 패널 A). 이와는 대조적으로 각 유형의 종들 중 20% 미만이 위협받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한국, 터키이다. 토착종(indigenous species)의 비율을 고려하면(알려진 종이 아님) 위협받고 있는 종의 비율은 대개 더 높다(그림 3.6, 패널 B).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확인된 동식물 종의 숫자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조류 8종 중 1종이 멸종 위기에 있다(OECD, 2014a).

그림 3.6. 위협받고 있는 종들,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위협받고 있는” 이란 “위험에 처한”, “대단히 위험에 처한”, “취약한” 종을 말하는데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나 곧 멸종될 위기에 처한 종을 의미한다. 여기 제시된 데이터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를 말하며 이는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해당된다.

출처: “위협받고 있는 종”, OECD 환경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605-en>; 이스라엘에 대한 데이터는 이스라엘 자연 및 공원관리청에 의해 제공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398>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은 대개 개인의 기술, 역량, 건강상태를 말한다. 인적 자원의 개념은 원래 노동의 “질”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인적 자원을 경제적 생산과 소득 창출의 필수적 투입물(input)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역할 외에도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에는 상당한 비화폐적 편익이 존재한다: 즉 좋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교육, 훈련, 노동시장, 사회관계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은 또한 주관적 웰빙과 커다란 관계가 있다(OECD, 2011; 2013a). 이와 유사하게, 더 높은 기술과 역량은 더 많은 근로소득, 더 높은 고용가능성, 더 나은 건강상태, 더 높은 시민의식, 더 많은 정치 참여와 관련이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낮은 범죄관련성, 강력한 사회통합, 더 높은 정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14; OECD, 2011).

제2장은 인적 자본의 측정과 강력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지표들, 즉 교육과 기술, 장기 실업률, 건강 상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금 여기”의 현재 웰빙뿐만 아니라 “이 후” 웰빙의 유지를 도울 인적 자본의 총량과도 연관이 있다. 예를 들면, 장기 실업률은 인적 자본에 대한 위협 요소인데, 경제적·심리적 두 측면에서 기술손실의 가능성과 장기적 상처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기술의 미래 총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적 지표들과 더불어 미래에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 요소들의 선택된 지표들이 제시된다(박스 3.3 참조).

박스 3.3. 인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설명 지표들

인적 자본과 연관된 몇 가지 지표들이 이미 제2장에서 설명되었다(“일자리와 근로소득”, “건강 상태”, “교육과 기술”에서). 여기 제시된 4가지 추가 지표들은 미래에 기술의 공급과 건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 **젊은 인구의 교육이수율은** 25세부터 34세까지의 인구 중 최소 고등학교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의는 국제표준교육분류법(ISCED)의 레벨 3 이상(ISCED 레벨 3C short programs 제외)에 해당하며 i) 학생들에게 보통 추가 교육을 준비시키기 위해 기획된 “general(일반)”로 규정된 프로그램과 ii) 직업훈련교육(VET)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킨다. 이 지표의 기초 데이터는 국가학력분류기준(NEAC)에 관한 연례 OECD 설문조사문항을 통해 수집되며 노동력 조사(LFS)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 **교육 기대년수는** 5세의 아동이 39세가 될 때까지 경험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교육 기간으로 정의된다. 이는 현재의 학교등록 상황에 근거하여 계산되는데 5세부터 각 연령의 순등록률(net enrolment rate)을 계속 더해 구한다. 이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school-work transition)에 관한 연례 OECD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되며 노동력 조사를 중요한 정보 출처로 의존한다.*
- **흡연율은**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보고한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 국제적 비교 가능성은 제한적인데, OECD 국가 전역의 건강면접조사에서 흡연습관 측정의 표준화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설문문항의 어휘선택, 설문참가자에게 제시된 응답의 범주,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된 방법들이 다르다. 데이터는 국가건강면접조사, 건강 조사, 기타 가구조사원에서 수집되어 OECD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집계된다.

박스 3.3. 인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설명 지표들(계속)

- 비만(자기 보고 또는 측정된)은 15세 이상 인구중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30 이상으로 정의된 비만의 기준에 부합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체질량 지수는 개인의 신장과 비교한 체중으로 평가되는데(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체중은 킬로그램으로 신장은 미터로 표시함). 여기 사용된 비만 분류법은 모든 인종 집단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인종 집단마다 더 높거나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 동등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나타난 데이터는 여러 국가들의 여러 출처에서 가져왔다(그림 3.11의 주 참조): 어떤 국가에서는 건강면접설문(질문 포맷과 응답척도가 매우 다양함)에서 가져온 자가보고(self-reported) 정보에 근거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건강검진(시행방법이 다양함)을 통해 직접 측정된다. 건강 검진에서 온 추정치는 대개 보건 면접설문에서 온 추정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OECD, 2013d). 데이터는 OECD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교육이수율과 교육기대년수 측정법은 교육 수준이나 사람들이 획득한 문서상 자격을 반영하지만, 이러한 측정법들이 교육의 질이나 사람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역량에 대해 말해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지식, 기술, 건강의 측면들은 합쳐져서 인적 자본의 전체 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립된 각각의 특징은 인적 자본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만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인적 자본의 측정방법들은 인적 자본 총량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요소들의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평생소득(lifetime income) 접근법과 같은 인적자본 총량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다(검토하려면 Boarini et al., 2012 참조; 예를 보려면 Liu, 2011 참조). 그러나 기존의 접근방법들은 인적 자본 총량의 경제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더 높은 기술과 더 나은 건강과 같은 요소들로부터 흘러올 수 있는 광범위한 비시장적 웰빙 편익(non-market well-being benefits)을 배제한다.

더 읽을 거리:

- Boarini, R., M. Mira d'Ercole and G. Liu (2012), "Approaches to Measuring the Stock of Human Capital: A Review of Country Practic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2012/0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8zlm5bc3ns-en>.
- Liu, G. (2011), "Measuring the Stock of Human Capital for Comparative Analysis: An Application of the Lifetime Income Approach to Selected Countri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No. 41*, 2011/0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3h0jnn9r5-en>.
- OECD (2015d),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OECD, Paris, www.oecd.org/edu/EAG-Interim-report.pdf.
- OECD (2013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3-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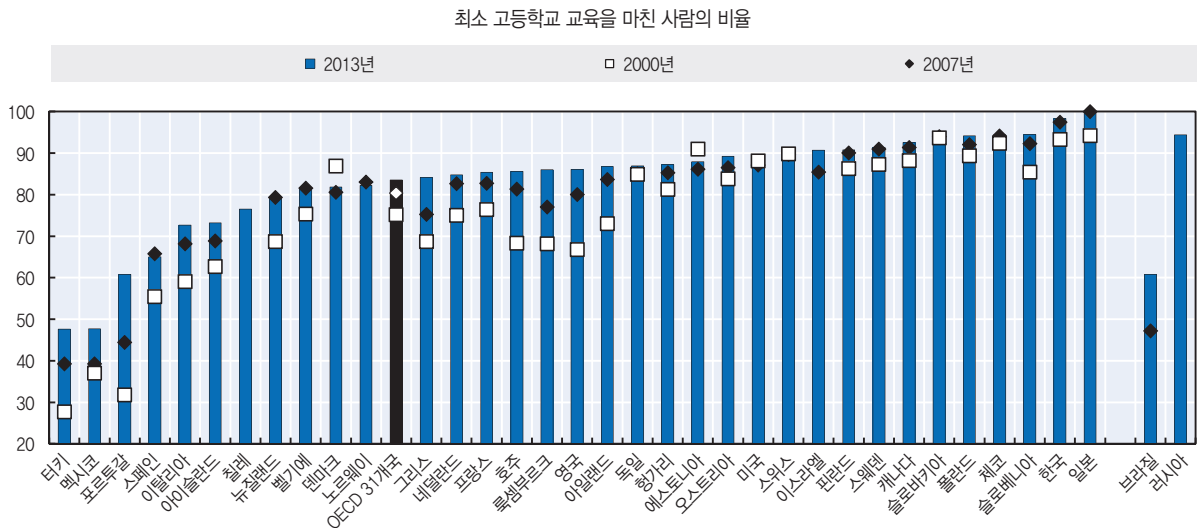
* 본 지표는 OECD(2013)에 현재 웰빙의 측정법으로 포함되었던 지표임; 이 장에서는 이 지표의 전향적(forward-looking) 특징들 때문에 "이 후" 웰빙의 측정법으로 고려됨.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젊은 세대의 교육이수율은 특히 중요한데 미래의 년도들로 이월될 기술 총량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림 3.7은 2000년, 2007년, 2013년에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25-34세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수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청년들 사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한국과 일본이 터키와 멕시코의 두 배이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역시 청년들 사이에 최소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OECD 평균대미 낮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2000년 이래 젊은이층(24-35세)의 교육이수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낮은 기저(lower base)에서 출발한 국가의 경우에 그러하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최소 고졸 학력자의 OECD 평균 누적 증가율은 5% 포인트였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 증가율은 3% 포인트로 둔화되었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가장 커다란 누적 증가는 포르투갈(29% 포인트), 터키(20% 포인트), 영국(19% 포인트), 룩셈부르크(18% 포인트), 호주(17% 포인트)에서 발생했다. 동기간에 젊은이들 사이에 고등학교 이수율 상승률이 슬로바키아, 스위스, 미국, 체코, 독일에서 훨씬 미약했는데(2% 포인트 미만) 이 국가들의 2007년 시작기준은 훨씬 높았다. 대부분의 국가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에스토니아(-3% 포인트)와 덴마크(-5% 포인트)에서 젊은이의 교육이수율은 2013년이 2000년 수준보다 낮았다.

그림 3.7. 25-34세 인구의 교육이수율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러시아의 경우 2012년, 칠레의 경우 2011년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시계열의 분절로 인해 보여지는 최초의 연도가 2007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OECD(2015d), 한눈에 보는 교육 중간 보고서: 고용과 교육이수율 지표들의 업데이트, OECD 출판국, 파리, www.oecd.org/edu/EAG-Interim-report.pdf.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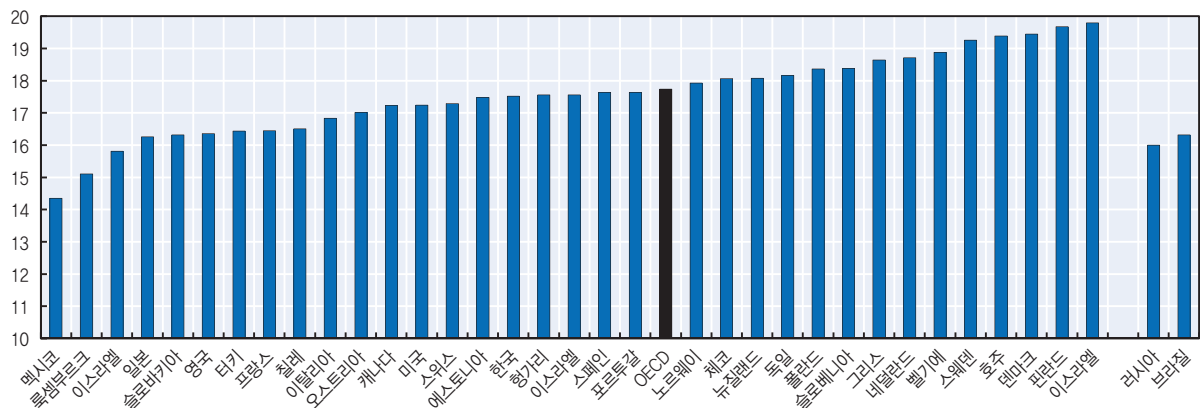
교육 기대년수 역시 미래 기술의 공급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현재 5세된 아이는 평균적으로 거의 18년간을 더 공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 호주, 스웨덴에서 이 숫자는 19년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그림 3.8), 반면에 멕시코, 룩셈부르크, 이스라엘에서는 16년간 또는 그 이하가 된다. 현재의 노동연령인구의 평균 학습년수와 비교해보면 이 지표는 세대교체의 과정에서 OECD 평균

학교 교육년수가 2050년에는 거의 6년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일본과 영국의 경우 3년 미만이고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는 9년 이상이다.

본 판의 제2장에서 서술한 대로 출생 시 기대여명은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 특히 장수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에서도 증가하고 있다(Oeppen and Vaupel, 2002; Wilmoth, 2011 참조). 동시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고혈압, 설탕과 소금의 과다 섭취 등)이 특히 흡연과 비만 분야에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여기에서” 개인의 건강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생애에 걸친 건강 상태에 높은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림 3.8. 교육 기대년수

5세 아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평균 교육년수(39세 전까지), 2012년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캐나다의 경우 2012년이다. 독일에 대한 정보는 심층연구사업(advanced research programmes)을 제외한다.

출처: OECD(2014b), 한눈에 본 교육 2014: OECD 지표들,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ag-201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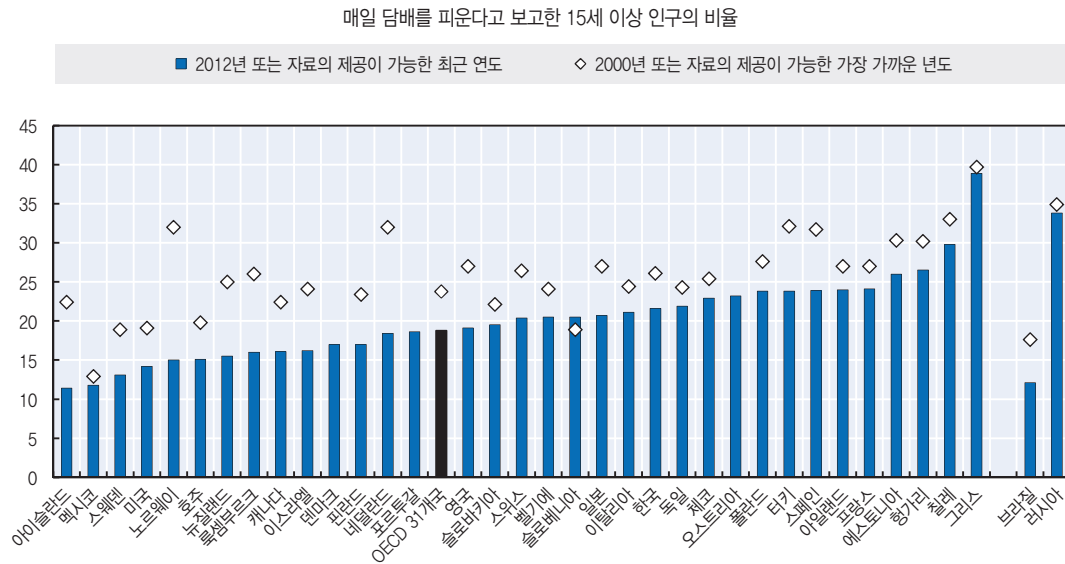
흡연은 OECD 국가들에서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OECD, 2013d). 그림 3.9는 성인들 중에 가장 높은 매일 흡연율은 그리스(약 40%), 칠레(30%), 헝가리와 에스토니아(25%)에서 관측됨을 보여준다. 가장 낮은 흡연율은 아이슬란드와 멕시코에서 발견되는데 이 두 국가에서 성인 8명 중 1명 미만이 매일 담배를 피운다. 흡연율은 많은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이 2000년 이래 10%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멕시코, 그리스, 러시아에서 흡연율의 감소(약 1% 포인트)가 가장 작은 것으로 기록된 반면, 슬로베니아에서는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이 2000년 이래 약간 증가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보고한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그림 3.10, 상단) 이 패턴에 예외가 되는 두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으로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영국, 아일랜드에서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 차이가 또한 비교적 작다. OECD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 터키, 일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멕시코로 남성의 흡연율이 최소 여성의 두 배이다. 러시아에서 남성이 매일 흡연할 확률이 여성의 3배 이상이다.

3.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2000년과 2013년 사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경우에 흡연율이 일반적으로 감소했으나(그림 3.10, 하단), 한국과 러시아(이 두 국가에서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할 때조차 여성의 흡연율은 상승했음), 슬로베니아의 경우는 예외이다. 약 절반의 OECD 국가에서 남성의 흡연이 여성의 흡연보다 훨씬 크게 감소했다(절대적 측면에서).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더 높은 비율의 남성이 처음부터 흡연자였다. 흡연 행태에도 사회·경제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흡연율 및 흡연강도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OECD, 2013d).

그림 3.9. 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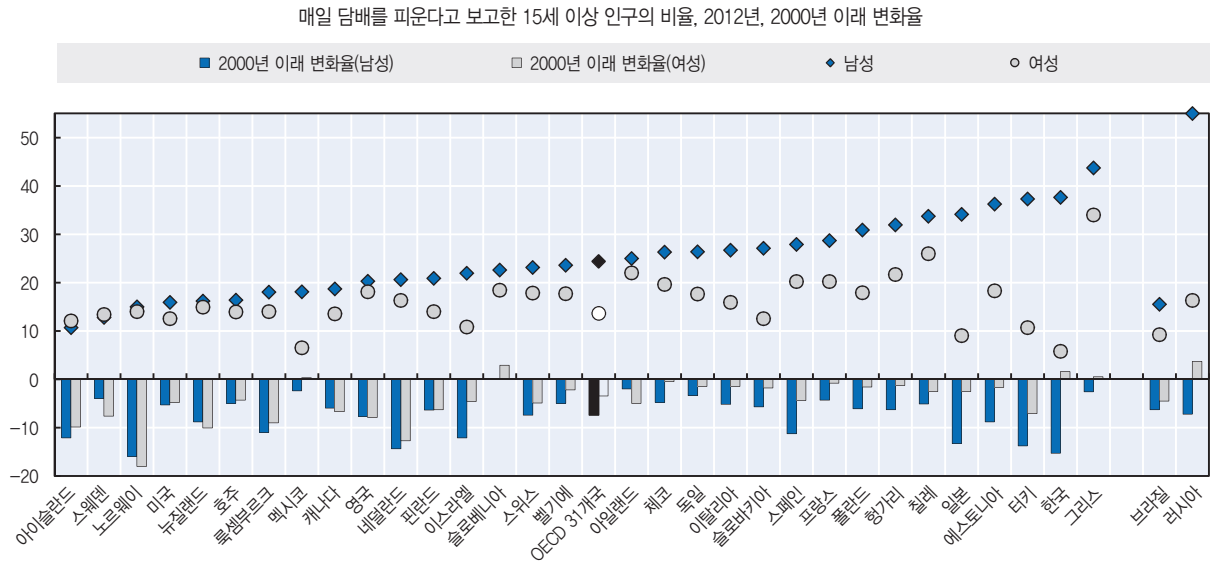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 2013년, 스페인, 영국의 경우 2011년, 호주, 그리스의 경우 2010년, 칠레,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러시아의 경우 2009년, 벨기에의 경우 2008년, 아일랜드의 경우 2007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경우 2006년이다. 보여진 첫번째 해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한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의 경우 2001년, 아일랜드, 스위스의 경우 2002년, 칠레, 독일, 슬로바키아, 터키, 브라질의 경우 2003년, 체코의 경우 2004년,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7년, 그리스의 경우 2008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비 의료적 건강 결정요인”,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4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22>

그림 3.10.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 2013년, 스페인, 영국의 경우 2011년, 호주, 그리스의 경우 2010년, 칠레,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러시아의 경우 2009년, 벨기에의 경우 2008년, 아일랜드의 경우 2007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경우 2006년이다. 보여진 첫번째 해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한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의 경우 2001년, 아일랜드, 스위스의 경우 2002년, 칠레, 독일, 슬로바키아, 터키, 브라질의 경우 2003년, 체코의 경우 2004년,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7년, 그리스의 경우 2008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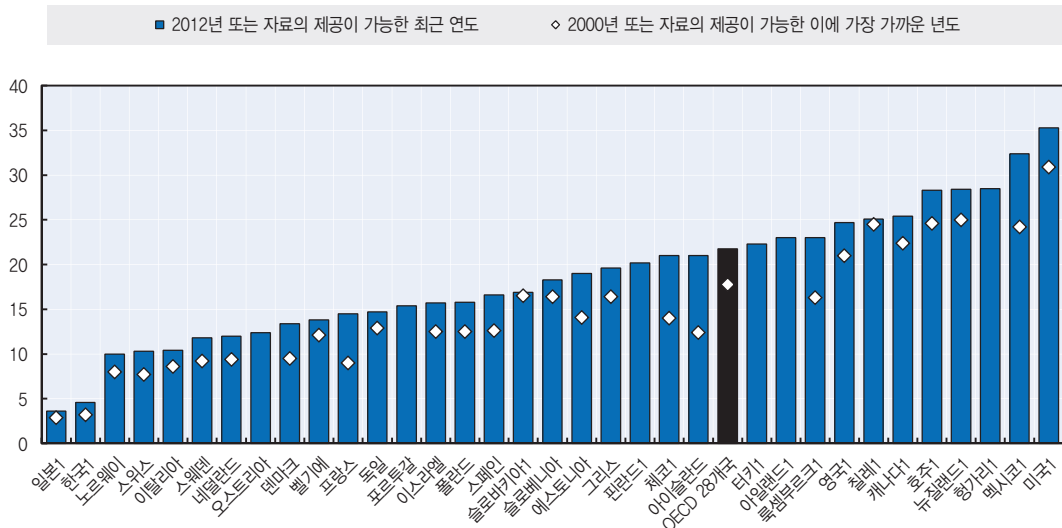
출처: “비 의료적 건강 결정요인”,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4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34>

하락하고 있는 흡연율과는 대조적으로 2000년 이래 OECD 전역에서 비만으로 분류된 성인의 비율이 증가했다(그림 3.11). 2012년에 비만율은 일본의 4%, 한국의 5% 로부터 멕시코와 미국의 30% 이상까지 다양한데, 상이한 데이터 수집방법론 때문에 비교가능성은 제한적이다(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박스 3.3 참조). 2000년 이래 비만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증가했는데 비만율이 이미 높았던 국가들에서 특히 커다란 증가가 기록되었다(멕시코에서 8% 포인트 이상 증가, 미국에서 4% 포인트 증가). 아이슬란드(9% 포인트), 체코와 룩셈부르크(7% 포인트), 프랑스와 에스토니아(5% 포인트)에서 상당한 비만율의 증가가 역시 기록되었다. 슬로바키아, 칠레, 일본(1% 포인트 미만)에서 가장 작은 비만율의 증가가 기록되었다.

그림 3.11. 비만율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보고 또는 측정됨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호주, 스페인, 터키의 경우 2011년, 캐나다, 체코,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의 경우 2010년, 칠레, 독일, 헝가리, 폴란드의 경우 2009년, 벨기에,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8년, 핀란드, 아일랜드의 경우 2007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경우 2006년이다. 여기 보여진 최초의 연도는 벨기에, 한국, 스페인의 경우 2001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2002년, 칠레, 독일, 뉴질랜드의 경우 2003년, 캐나다,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4년, 그리스의 경우 2006년, 호주,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7년이다. “1”이 표기된 국가의 결과치는 건강면접설문이 아닌 건강검진을 근거로 하였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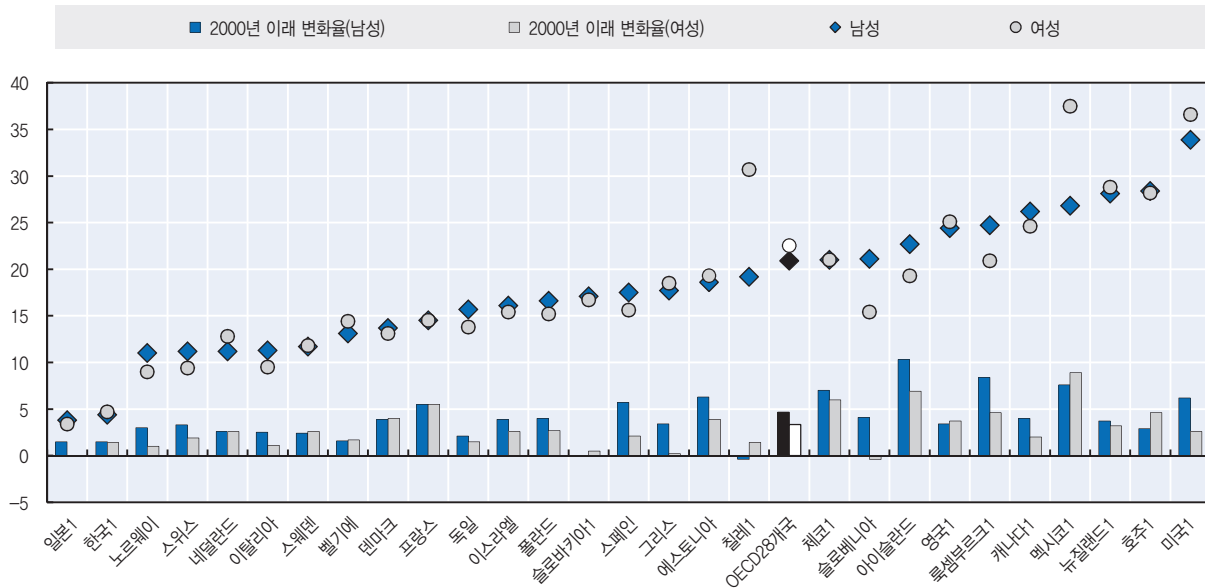
출처: “비 의학적 건강 결정요인”,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4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49>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비만율 차이는 비교적 작다. 슬로베니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만율이 높지만 터키, 칠레, 멕시코에서는 이와 반대이다(그림 3.12). 2000년 이래 비만율의 증가는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미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몇몇 OECD 국가들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림 3.12. 남성과 여성의 비만을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2012년, 2000년 이래 변화율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호주, 스페인, 터키의 경우 2011년, 캐나다, 체코,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의 경우 2010년, 칠레, 독일, 헝가리, 폴란드의 경우 2009년, 벨기에,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8년, 핀란드, 아일랜드의 경우 2007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경우 2006년이다. 여기 보이는 최초의 연도는 벨기에, 한국, 스페인의 경우 2001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2002년, 칠레, 독일, 뉴질랜드의 경우 2003년, 캐나다,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4년, 그리스의 경우 2006년, 호주,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7년이다. "1"이 표기된 국가의 결과는 보건면접설문이 아닌 건강검진을 근거로 하였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비 의료적 건강 결정요인",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54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5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Scrivens and Smith(2013)는 사회적 자본의 네 가지 측면 또는 해석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인적 관계, 시민 참여, 사회적관계망 지원, 신뢰와 협동 규범. Scrivens and Smith(2013)는 신뢰와 협동 규범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측정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은 아래 보여진 설명 지표들(박스 3.4 참조)에 반영되는데, 사회적 자본에서 신뢰와 더불어 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유럽통계기관장회의(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2014)의 권고와도 일맥 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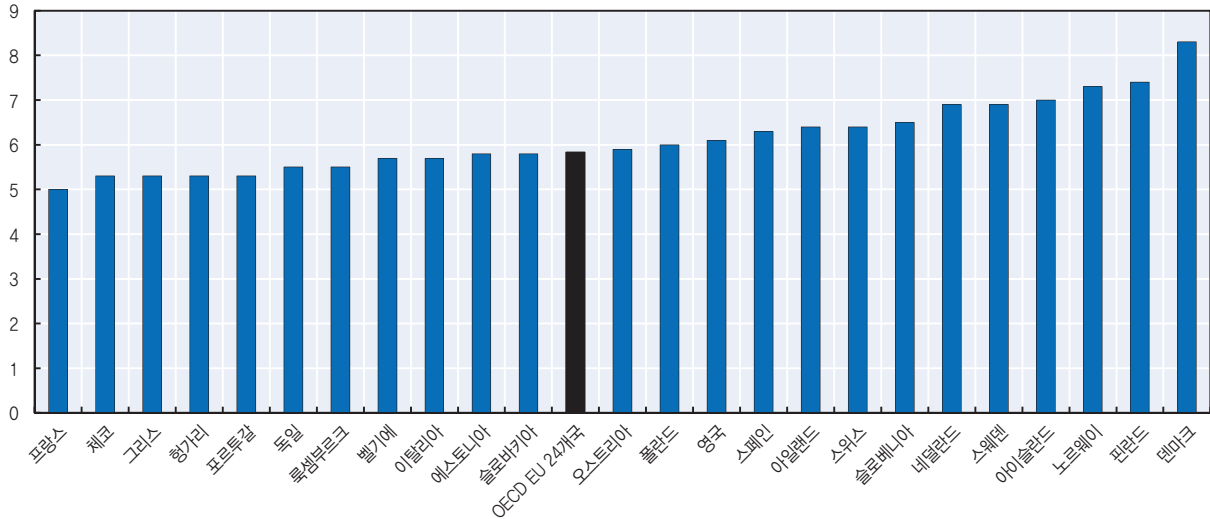
사회적 자본은 자원의 효율적 할당, 공공재(치안 또는 금융시장 안정 등)의 생산, 공유자산(생태계 등)의 보존을 촉진하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연·경제적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OECD, 2013a; Scrivens and Smith, 2013; UNECE, 2014).

신뢰라는 개념은 지역사회가 어떻게 기능(공동선을 달성하고 조율실패를 극복할 능력 등)하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규정하는 지속적인 특징들을 파악한다. “일반적인 신뢰”에 관한 설문문항은 타인이 신뢰할 만한지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3년에,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

(EU-SILC)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타인에 대한 신뢰에 관한 일반적 질문이 포함되었다(그림 3.13, 정의를 보려면 박스 3.4 참조). 유럽 전역에서 노르딕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높았고, 프랑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3.13. 타인에 대한 신뢰, 유럽 국가들

평균 응답, 0-10점, 2013년



주: 응답 선택지는 0(“다른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10(“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까지이다. OECD EU 평균은 이 표에 포함된 값의 인구 가중 평균이다.

출처: 유럽통계청(2015),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pw03&lang=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60>

박스 3.4.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설명 지표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측정방법들이 사용된다:

- 타인에 대한 신뢰는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설문 문항을 근거로 한다. 응답자들은 0 (“다른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10(“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까지 11 포인트의 척도를 사용해서 응답한다. 이 데이터는 웰빙에 관한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조사(EU-SILC) 2013의 임시 모듈의 일부로 수집되었으며(유럽통계청, 2015) 국가적 대표성이 있는 16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범위가 유럽 국가들에 제한된다.
-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치제도, 사법제도, 경찰에 대한 신뢰에 관한 세가지 설문 문항을 근거로 한다. 도입부 질문은 “당신은 다음의 각 국가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이다. 응답자들은 0(“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10(“완전히 신뢰한다”)까지 11 포인트의 척도를 사용해서 응답한다. 이 데이터는 웰빙에 관한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조사(EU-SILC) 2013의 임시 모듈의 일부로 수집되었다(유럽통계청, 2015).

박스 3.4.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설명 지표들(계속)

-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 국가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을 신뢰합니까 또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국가 정부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보여진 데이터는 “예”라고 응답한 표본의 비율을 반영한다(다른 응답 범주에는 “아니오”와 “잘 모르겠다”가 있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 매년 국가별로 약 1천명의 사람들에게 대한 표본조사를 하는 갤럽세계조사이다. 표본은 국가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15세 이상의 사람들로 사전에 설계되며(시골 지역을 포함), 비무작위적(non-random) 응답 패턴에 대한 조정을 하며, 표본 데이터에 갤럽이 제공하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인구크기에 대한 가중치를 준다.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는 특히 평가하기가 힘든데, 이상적 측정방법들은 단체적으로 행동할 능력을 함양시키는 신뢰의 지속적 측면들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응답자들에 의해 질문이 더 좁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관한 질문의 응답에서 응답자들은 좀 더 넓게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가 아닌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말할 위험이 있다.

비록 국가통계청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치들을 파악하는데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지만(Siegler, 2015, and Scrivens and Smith, 2013 참조)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를 제외하고는 이 데이터세트들 간의 일치성은 낮다. 결과적으로 비유럽 국가들을 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가용한 지표들의 몇몇은 비공식적 출처로부터 오며 대체치(placeholders)로서 가장 잘 고려된다.

OECD는 기관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추어 더 개선된, 더 정책 관련성이 높은 신뢰에 관한 측정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방법론적 작업을 수행 중이다. 여기에는 참가자가 많은 유사실험(quasi-experimental)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도구(tools)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러한 통계적 작업은 OECD 신뢰전략(Trust Strategy)의 일환인데, 공개되고 정보에 입각한 공정한 정책의 입안이 목적이다. 이러한 OECD 작업의 흐름은 최근 설립된 거버넌스 통계에 관한 유엔 프라이아 그룹(Praia Group on Governance Statistics)의 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더 읽을 거리:

- Eurostat (2015) “Quality of life in Europe – facts and views – governance”, in *Quality of Life*, an online publication: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dicators.
- The OECD Trust Strategy: www.oecd.org/gov/trust-in-government.htm.
- SScrivens, K. and C. Smith (2013), “F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Capital: An Agenda for Measurement”,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3/0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bcx010wmt-en>.
- Siegler, V. (2015),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An Analysis of Social Capital in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www.ons.gov.uk/ons/rell/wellbeing/measuring-national-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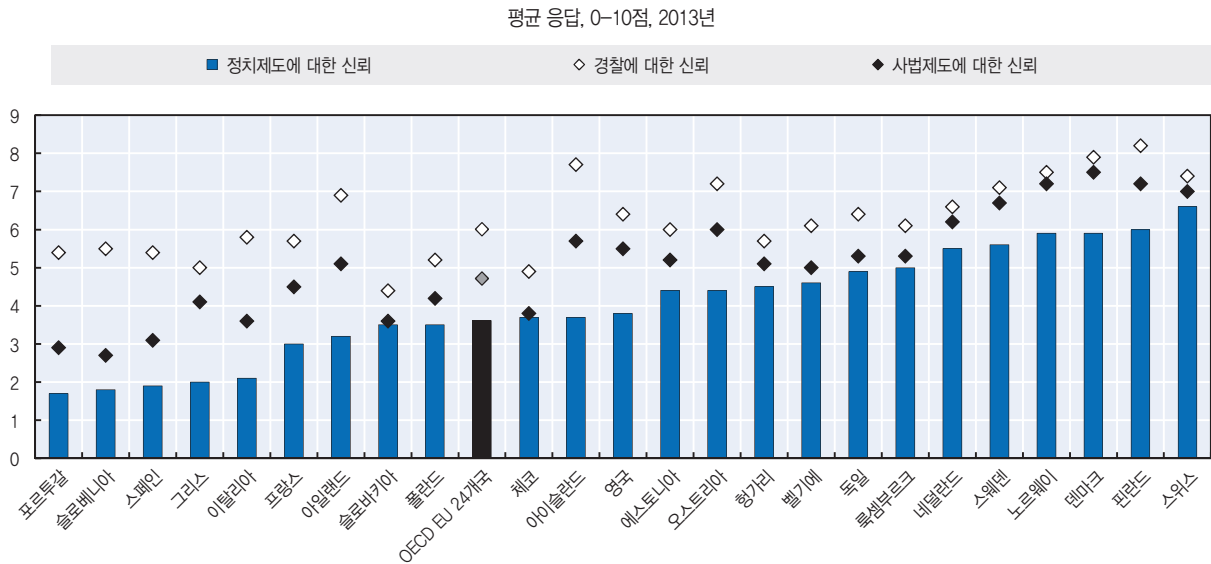
* 갤럽세계조사의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부여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첫번째, 지리적 불균형에 대한 조정을 한다(주요 도시에서의 과대표집으로 인한); 두번째, 표본 선택 확률에 대한 조정을 한다(가구 내 성인의 수; 집전화와 핸드폰 이중 사용자); 세 번째,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 따른 인구분포를 반영하기 위해서 가중치가 조정된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또한 2009/2010년에 갤럽세계조사를 통해 좀 더 넓은 범위의 국가들에서 평가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관한 하나의 예/아니오 질문을 담고 있다. 이 데이터들은 How's Life? 2011에 보여주며(OECD, 2011) OECD 지역 전체적으로 3명의 사람 중 1명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시사했다. 몇몇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미국,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평균 이상의 신뢰를 보고했던 반면에 멕시코, 한국, 칠레 사람들은 OECD 평균 이하의 신뢰를 보고했다.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에 관한 유럽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경향이 있고 그 다음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이고 마지막으로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이다(그림 3.14). 국가별 차이는 타인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노르딕 국가들, 북유럽, 스위스의 사람들이 대개 공공 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고하고 남부 및 동부 유럽 사람, 프랑스 사람들은 대개 낮은 신뢰도를 보고한다. 그러한 국가의 상대적 위치는 경찰에 대한 신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혹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고려되었느냐에 따라 변한다.

유럽 데이터는 또한 전체 인구 내 다른 집단들 사이의 신뢰감에 대한 어떤 통찰을 제공한다. 2013년에 EU 국가들 전체에서 신뢰감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매우 비슷했고 다른 연령집단들 사이의 신뢰의 격차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신뢰에 대한 더 큰 격차는 소득, 교육, 고용 상태, 가구 유형의 경우에 두드러졌다(유럽통계청, 2015).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모두가 고소득 집단들(저소득 집단들과 비교해서)의 경우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해서)의 경우에 더 높았다. 실직한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들, 교육 및 훈련 과정의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고했다. 최소 1명의 부양할 자녀가 있는 싱글 가구(single household)는 모든 가구 유형에서 가장 낮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보고했다(유럽통계청, 2015).

그림 3.14.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유럽 국가들



주: 응답 선택지는 0("결코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10점("완전히 신뢰한다")까지이다. OECD EU 평균은 이 표에 포함된 값의 인구 가중 평균이다.

출처: 유럽통계청(2015),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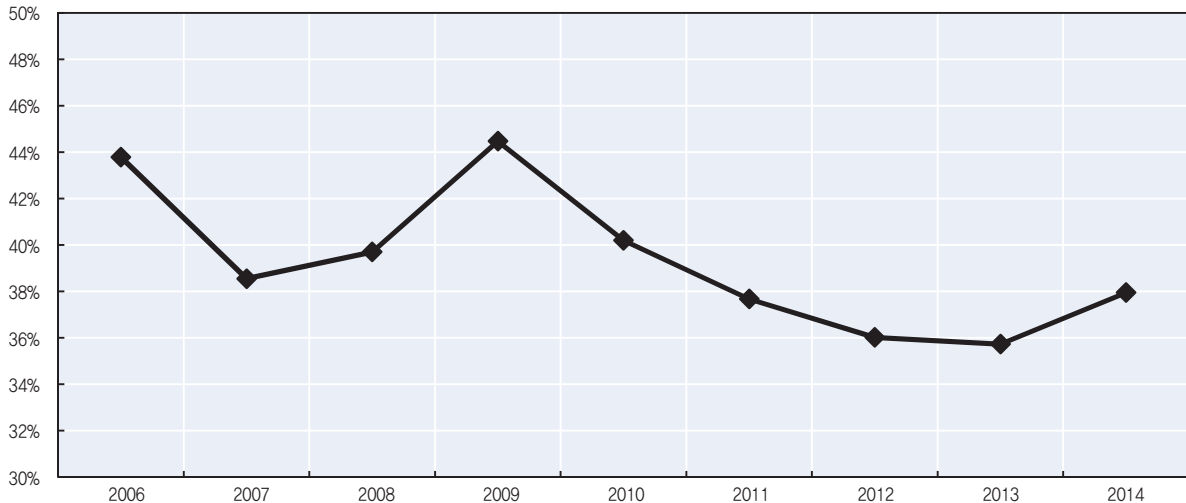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pw03&lang=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77>

갤럽세계조사 결과, OECD 지역 전체에서 2006-2014년은 국가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그림 3.15). 2014년에 OECD 지역 내 응답자의 약 38%가 국가 정부를 신뢰함을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2009년의 약 44%에서 하락한 것이다. 국가 정부에 대한 더 높은 신뢰로 특징지어진 국가의 사람들은 또한 사법제도에 대한 더 높은 신뢰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3.15.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부에 대한 OECD 평균 신뢰도

국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2006-2014년



주: OECD 평균은 28개국을 근거로 하는데 시계열에서 2회 이상 연속시점(time point)이 누락된 국가들(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시계열에서 하나의 시점(time point)이 누락된 국가들의 경우 인접한 두 개 년도의 평균을 취했다. OECD 28개국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82>

신뢰의 개념은 총량에 해당하지만 이 측면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입과 고갈에 대한 측정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는 자원봉사(제5장 참조),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활동에 쓰여진 시간, 투표와 같은 형태의 시민 참여(제2장 참조)가 포함된다. 역으로, 집단 사이의 갈등과 기회주의적 행동들(부정행위와 부패 등)은 사회적 자본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것들의 변화에 관한 정보는 더 정책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의 출처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이러한 유형의 측정치들은 좀처럼 가능하지 않다.

경제적 자본

경제적 자본은 사람들의 물질적 삶의 조건(주택, 일자리, 근로소득 등)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자신의 웰빙을 추구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폭넓은 역할을 한다. 결정적으로, 경제적 자본은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으로, 소득 쇼크(shock)에 대한 완충장치(buffer)를 제공하며, 사람, 기업, 정부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제적 자원은 **생산된 자본**(건물, 기계류, 수송 인프라, 재고 등 유형 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본화된 연구개발(R&D) 산출물, 엔터테인먼트, 문학 및 예술 작품 등 지식 자산)과 **금융 자본**(현금, 예금, 대여금 및 채무증권 형식의 부채, 생산된 자본에 대한 채권(claims) 등 다양한 금융 자산 등)을 말한다. 이 섹션은 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National Accounts Database)를 사용하고, 한눈에 보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보고서(OECD, 2014c)에 나타난 선정 지표(selected indicators)들을 활용하여, 국민계정체계에서 가져온 경제적 자본의 측정치(박스 3.5 참조)들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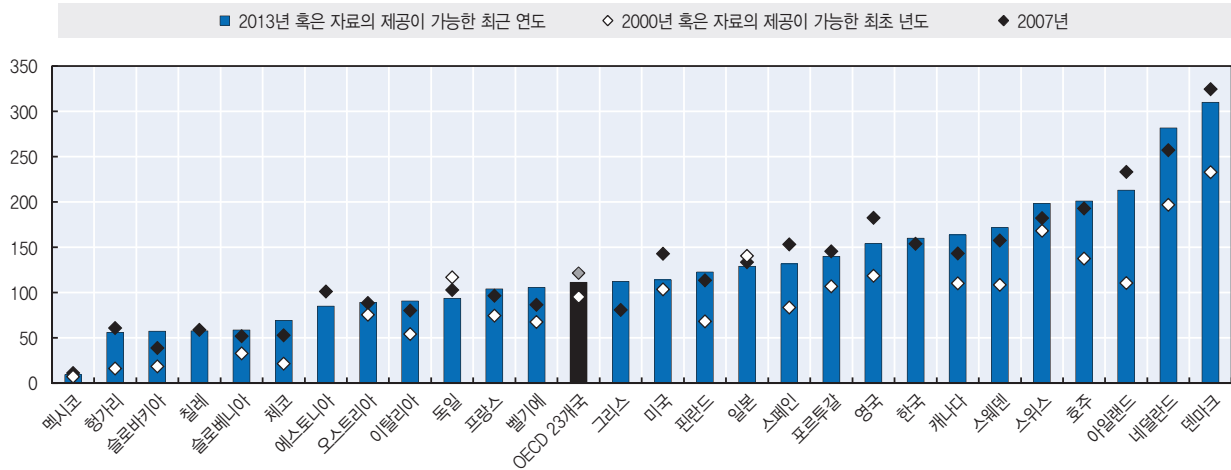
개인적 웰빙의 관점에서 보면, 가구의 경제적 자본은 “현재 여기서”의 웰빙과 “미래” 웰빙 모두에 특별히 관련이 있다. 1인당 가구 순금융자산(국민계정 출처에서 가져옴)과 총가구자산(마이크로 데이터로 측정됨)은 제2장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가구 자산의 수준과 분배 모두의 측면에서 OECD 국가 간 커다란 격차를 보여준다. 본 장은 추가적으로 가구의 부채를 고찰하는데 이것이 서브프라임 위기의 결정적 요소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유지를 측정하는데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6은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써 가구 부채를 보여주는데(완전한 정의를 보려면 박스 3.5 참조), 이는 2013년에 멕시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에서 60% 미만을 차지했고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200% 이상을 차지했다.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한 OECD 국가들의 절반 이상에서 2013년에 가구 부채는 2007년이나 2000년보다 높았다. 이 패턴의 예외가 되는 국가는 미국, 스페인, 영국으로 가구 부채가 2000년부터 상승해서 200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하락했고,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덴마크에서는 가구 부채가 2009년에 정점에 달했고(보여지지 않음), 포르투갈에서는 2012년에 정점에 달했다(역시 보여지지 않음). 다른 국가들과 큰 대조를 보이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가구부채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하락했다.

경제적 자본의 범경제(economy-wide)적 측정법들로 화제를 돌려보면, 대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생산된 자본**의 주요 유형은 주택, 비주거용 건물, 인프라, 기계류 및 장비(정의를 보려면 박스 3.5 참조)와 같은 고정 자산이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 가능한 19개 OECD 국가들 간 1인당 고정자본의 총 가치는 2012년에 차이가 매우 크다(그림 3.17). 오스트리아, 미국, 덴마크, 독일, 호주, 스웨덴에서 가치가 가장 높았고(14만 달러 이상),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그리스(9만 달러 미만)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3.16. 가구 부채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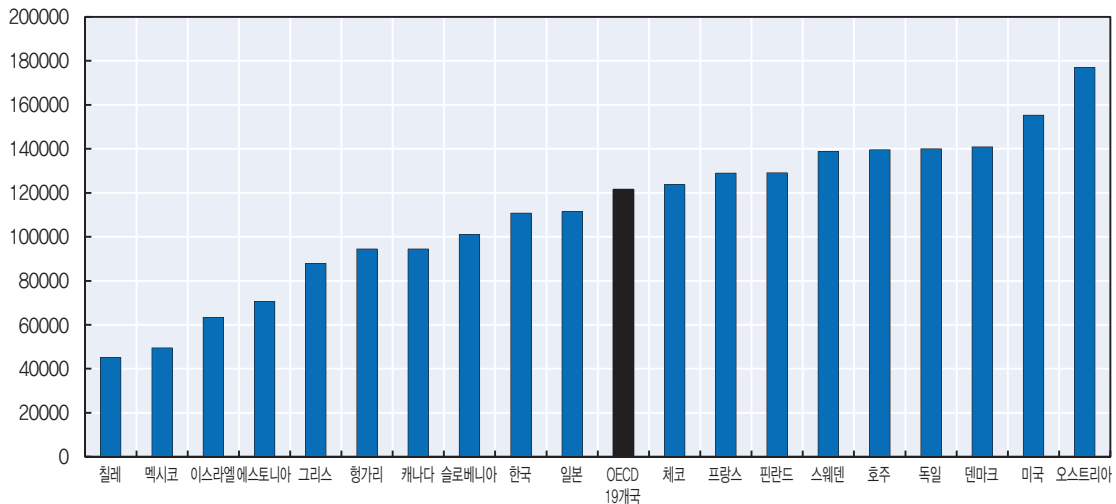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포르투갈과 스웨덴의 경우 2014년, 한국과 스위스의 경우 2012년, 멕시코의 경우 2009년이다. 보여진 최초 연도는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1년, 멕시코의 경우 2003년, 칠레와 에스토니아의 경우 2008년, 한국의 경우 2010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한눈에 보는 국민계정”, OECD 국민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369-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495>

그림 3.17. 1인당 순고정자산

미달러화 표시 현재 구매력평가(PPP), 2012년



주: OECD 평균은 이 표의 값들에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OECD 국민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08>

박스 3.5. 경제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설명지표들

1인당 가구순금융자산(국민계정 출처에서 가져옴)과 총가구자산(마이크로 데이터로 측정됨)은 제2장(“소득과 자산” 편)에서 논의되었다. 여기서 경제적 자본의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추가적 측정방법들은 모두 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다.

- **가구부채**는 가구가 갚아야 할 총 부채가 가구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채는 대출금(loans), 금융파생상품을 제외한 채무증권(debt securities), 기타 외상 매입(accounts payable) 등의 채무를 합침으로써 계산 된다. 대부분 가구들의 경우, 부채는 주로 가계주택대출과, 신용대출(credit lines), 신용카드, 기타 소비자 신용(자동차론 또는 학자금 대출) 등 기타 채무로 구성된다.
- **순고정자산**(주택, 비거주용 건물, 인프라, 기계류 및 장비)은 여기에서 GDP에 대한 구매력평가를 이용해서 2012년 현재가격 기준 1인당 미달러로 표시된다. 데이터는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른 정의에 의거한 전체 경제에 대한 순고정자산을 말한다. **총고정자산의 형성**(주택, 건물/기타 구조물, 수송장비, 기타 기계/장비, 육성자산(cultivated assets),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연간 성장 역시 설명되었다.
- **지식 자본**은 **지적재산**의 총량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GDP에 대한 구매력평가를 이용해서 2012년 현재가격 기준 1인당 미달러로 표시된다. 데이터는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른 정의에 의거한 전체 경제에 대한 지적재산(연구 및 개발(R&D),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광물자원 탐사 및 평가, 엔터테인먼트, 예술 및 문학 창작물 등)을 말한다.
- **R&D 투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표시된다. R&D 투자는 인간, 문화, 사회의 지식 등 지식의 총량과 새 어플리케이션의 고안을 위해 이러한 지식의 총량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창의적 작업에 대한 거주민 생산자의 지출액이다. 연구는 활동이 그 소유자에게 어떤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주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형성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에는 중간 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로 취급된다.
- **총경제에서의 금융순자산**은 총금융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여기에서는 1인당 기준으로 표시된다. 화폐용 금(monetary gold), 현금과 기타 은행 예금, 채무증권, 대출금, 자본 및 투자 펀드 주식/지분, 보험연금, 표준화 보증(standardized guarantee), 기타 외상 매출/매입이 포함된다. 매매가능 상품(tradable instruments)은 현 시가로 기록되는 반면에 다른 상품들은 명목 또는 장부 가치로 매겨진다. 원래의 데이터(국가 화폐로 표시)는 GDP에 대한 현재의 구매력평가(PPP)를 사용해서 미달러화로 전환시켰다.
- **은행권의 레버리지**는 은행권의 선택된 금융자산들(금융대차대조표 상의 자산란에 기입된 현금, 예금, 금융파생상품을 제외한 채권, 대출)과 총자기자본(금융대차대조표 상 부채란에 기입된 주식, 뮤추얼펀드 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식)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은 중앙은행(S121), 기타 예금성회사(S122), 보험회사/연금펀드를 제외한 기타 금융중개기관(S123)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는 국가 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기타 금융중개기관”에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영국에서는 금융부대기관(financial auxiliaries) (S124)이 포함된다. 데이터는 호주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비연결식(non-consolidated)이다.
- **일반 정부의 금융순자산**은 중앙, 주, 지역 정부로 구성된 일반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총 금융자산가치에서 갚아야 할 총 부채의 가치를 뺀 것을 말한다. 표준 관행에 따라 여기에서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표시된다. 국민계정체계(SNA)는 정부부문의 금융자산을 현금 및 예금, 대여금, 주식과

박스 3.5. 경제적 자원의 측정을 위한 설명지표들(계속)

기타 자본, 주식을 제외한 채권, 보험책임준비금, 기타 외상 매출로 정의한다. 화폐성 금(monetary gold)과 특별인출권(SDRs)은 영국, 미국과 같은 극소수의 국가에서 정부 금융 자산의 일부이다. 미변제 부채는 일반 정부의 금융대차대조표에서 총부채를 말한다.

데이터 수집에 관한 잘 정립된 국제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경제적 자산에 관한 비교가능한 데이터의 가용성은 여전히 다소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생산된 자본 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은 측정하기가 간단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고정 자산 범위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PIM 모델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자산범주별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해 가능한 시계열의 길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부채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은 대개 양호하지만, 부채율은 이자지불에 대한 세금공제와 같은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 자본만이 아닌 자기 기관의 기금(총순자산, 주식, 기타 자본)을 분모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식시장변동의 과도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행권의 비금융자산에 관한 데이터는 많은 OECD 국가들의 경우 제공이 가능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총순자산은 계산될 수 없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지표들은 경제적 자원의 총량을 이해하는 데 첫단계를 나타내며, 금융안정 또는 경제적 안정의 이해를 위한 포괄적인 근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금융 자산의 측정법에 대한 중요한 갭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가구와 정부 차원에서 토지, 자연자원과 같은 특히 비생산 자산의 경우에 그러하며, 문화 상품과 역사적 기념물 역시 제대로 감안되지 않고 있다. 금융순자산의 연간 변화의 이유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및 부채의 가격변동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약 해당 기간 동안의 급격한 금융자본의 성장이 자산 가격의 지속불가능한 거품에 의한 것이라면 그 성장은 미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안전에 대한 더 완벽한 평가는 다양한 흐름(flow) 측정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표들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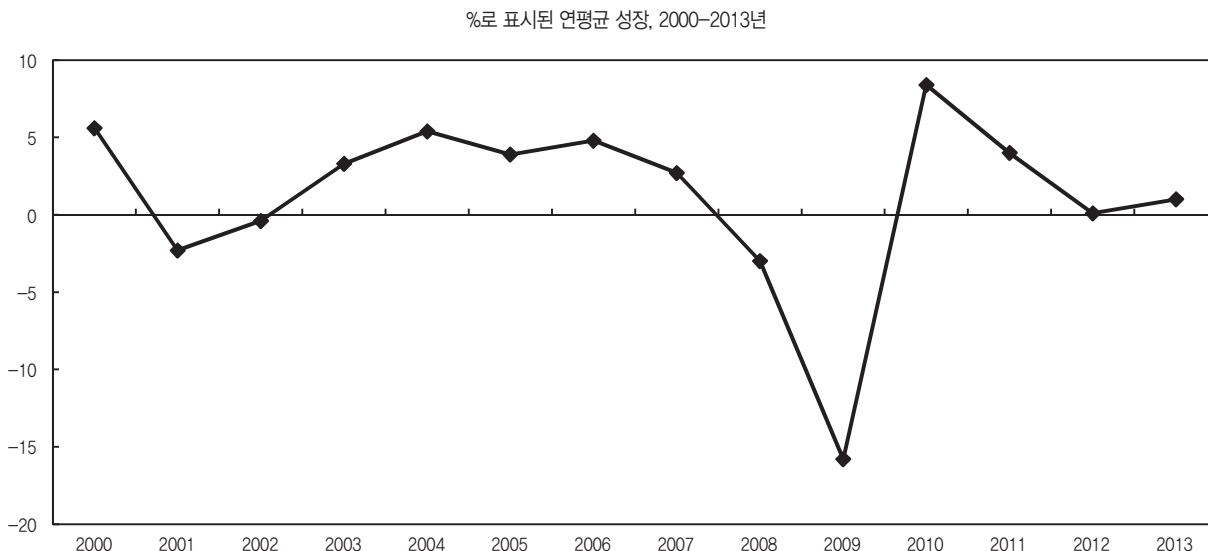
더 읽을 거리:

- OECD (2014c),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4-en.
- OECD (2009), *Measuring Capital – OECD Manual: Second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68476-en>.
- French Conseil d'Analyse Économique and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2010), *Monitoring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Joint Report as requested by the Franco-German Ministerial Council, the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Occasional Reports series*, 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expertisen.html.

OECD(2014c)는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5개 OECD 국가들에 대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고정자산 순 총량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다. 수적인 측면에서 성장은 2005년 이래 에스토니아(40%), 호주(22%), 한국(21%), 노르웨이(16%)에서 가장 강했고 독일(5%), 덴마크(6%), 이탈리아(6%), 헝가리와 네덜란드(모두 7%)에서 가장 미약했다.

OECD 지역 전체적으로 총고정자본형성(박스 3.5 참조)은 2000년 이래 변동이 심했다(그림 3.18). 2000년대 초반의 슬럼프 이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강력한 연간 성장이 있었다. 연간 성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둔화되었고 경제위기와 금융 위기 와중인 2008년(-2.5%)과 2009년(-11.8%)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0년, 연간 성장은 다시 플러스의 영역으로 들어섰으나 이후 몇 년간 미약한 상태이며, 이는 현재 느린 회복의 원인이 되었다.⁴

그림 3.18. 총고정자본 형성, OECD 평균 수치



주: 2000-2002년과 2013년에 대한 OECD 평균값은 추정치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출처: OECD 국민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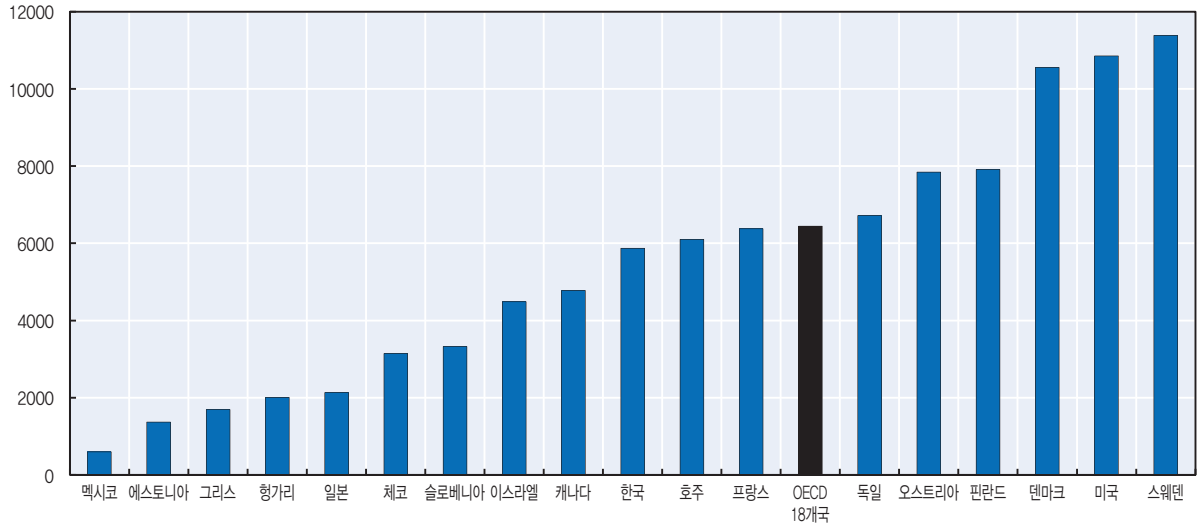
“지식자본”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특히 현재의 자원에 대한 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미래의 생산성 증가와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예상되는 역할을 고려하면 그러하다(유엔유럽경제위원회, 2014). 지식자본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내리기도 측정하기도 어려운데 그리하여 지적재산상품(IPP, 정의를 보려면 박스 3.5 참조)의 평균 값은 여기에서 대리 지표로 사용된다. 2012년에 가장 높은 값의 지적재산상품이 덴마크, 미국, 스웨덴에 발견되었는데 1인당 추정값은 1만 미달러 이상이였다(그림 3.19).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 에스토니아, 그리스에서 지적재산상품의 총가치는 1인당 2천 미달러 미만이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식자본은 경제적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생산 자본보다 가치하락이 빠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지식 자본의 전체 총량을 증강하는데 핵심이다. 그림 3.20에 나타난 11개 국가들의 경우, 2012년에 R&D에 대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핀란드(3.3%)에서 가장 높았고, 그리스(0.7%)에서 가장 낮았다. R&D에 대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개 2000년보다 2012년에 더 높았으나,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그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금융 자본은 미래의 웰빙을 유지시킬 자산 축적(store)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폐쇄경제에서 금융 자본은 제로섬 총량(모든 자산에 대한 등가의 부채가 있음)인 반면, 개방경제에서 어떤 국가의 금융 자산은 금융 부채보다 많을 수 있다. 금융 자산은 결국은 실제 자산에 대한 채권(claims)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대외 금융 포지션(external financial position)은 웰빙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쇼크 발생 시에는 완충장치(buffer)를 제공하고 미래에는 세입원을 제공한다.

그림 3.19. 지적 재산 상품

1인당 미달러화 기준 현재 구매력평가(PPP),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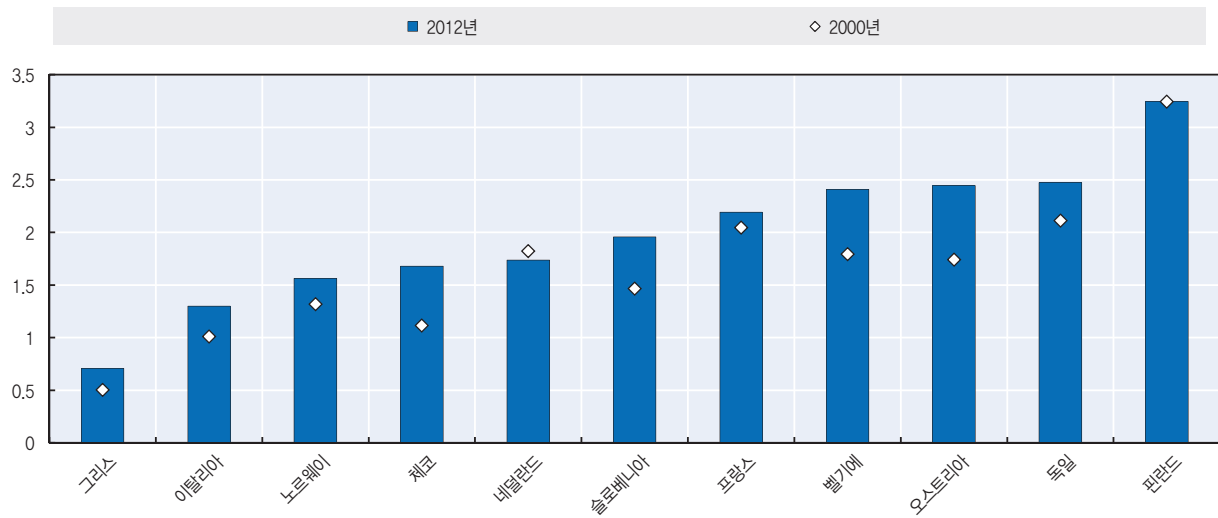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본 표에 포함된 값의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이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OECD에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21>

그림 3.20. R&D에 대한 투자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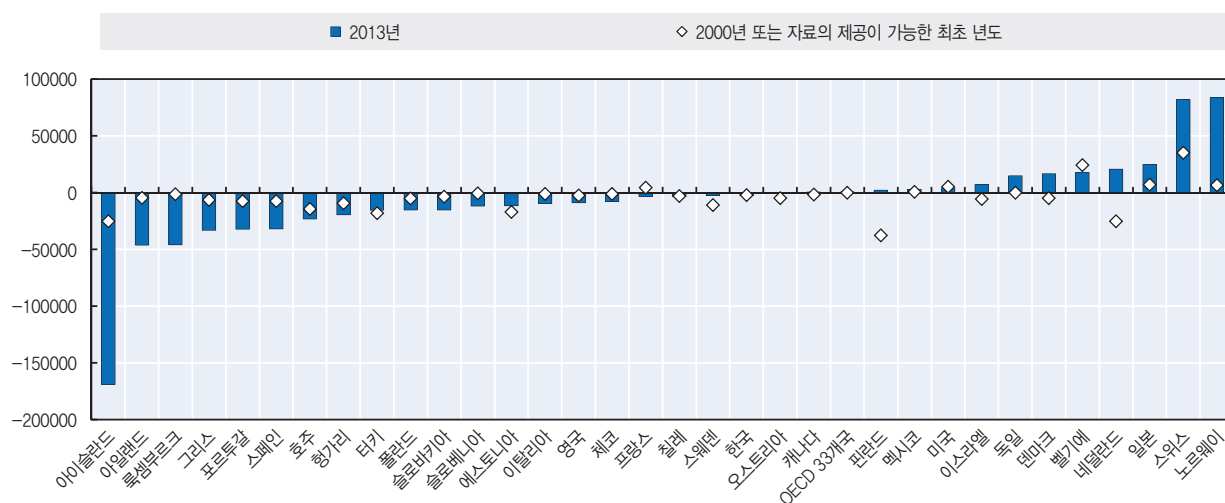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OECD에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38>

국가들의 경제 전반(economy-wide)의 1인당 재무상황은 OECD 국가별로 매우 차이가 크다(그림 3.21).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가용한 33개 OECD 국가들 가운데 2013년에 12개국이 플러스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국가들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금융채권의 총량이 채무를 초과했음을 의미한다.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선두권으로 현재 구매력환산수(PPP)기준 1인당 8만 미달러 이상의 금융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순 자산의 가장 큰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국가들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부채가 자산을 2013년 1인당 최소 3만 미달러를 초과했으며 순부채는 2000년 이래 최소 4배로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의 재무상황은 2000년에 1인당 약 마이너스 250미달러에서 2013년에 14,885미달러로 개선되었다. 노르웨이의 금융 순자산은 동기간에 13배가 증가했다.

그림 3.21. 전체 경제의 금융순자산

1인당 미달러화 기준 현재 구매력평가(PPP)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한국의 경우 2012년, 스위스의 경우 2011년, 멕시코의 경우 2009년이다. 보여진 최초 연도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1년, 한국의 경우 2002년,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3년, 칠레의 경우 2005년,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2008년, 터키의 경우 2010년이다. OECD 평균은 본 표에 포함된 값의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이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OECD에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46>

한 국가 전체의 경제적 자원을 살펴보는 것 외에도, 그 국가경제 내 다른 부문들의 대차대조표를 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비금융자산을 포함시킨 완벽한 부문별 대차대조표는 소수의 OECD 국가들에서만 제공 가능한데 이는 대부분의 평가가 재무상태에만 한정됨을 시사한다(즉, 비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는 대개 제공 되지 않음).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자본 접근법”의 적용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중요한 누락이지만, 현재 제공이 가능한 정보로부터도 약간의 중요한 통찰을 여전히 이끌어낼 수 있다.

예컨대, 은행 및 금융 부문의 안정은 전체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 여러 국가들의 금융 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IMF)는 금융건전성지표들(FSI)을 개발했는데 측정방법의 광범위한 대쉬보드를 다루고 있다(IMF, 2015). G20 “데이터 갭 이니셔티브(Data Gaps Initiative)”는 또한 금융위기 이후 관련된 통계의 가용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권고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으며(IMF-FSB 2009; 2010; 2012), 그러므로 경제 및 금융의 추이가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더 잘 감시될 수 있다. 2008년에 설립된 경제·금융통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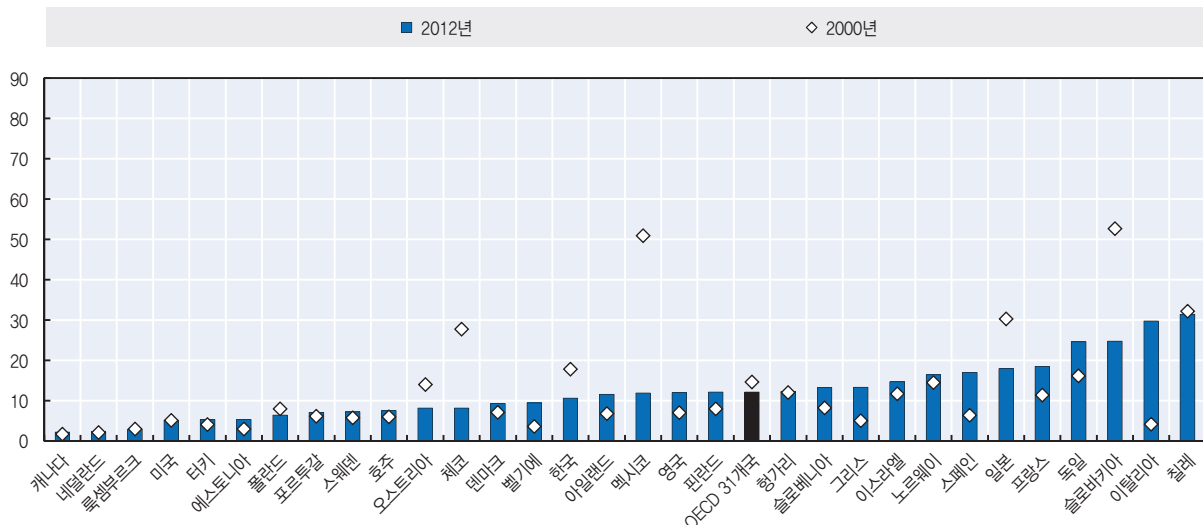
관한 기관간 그룹(IAG: Inter-Agency Group on Economic and Financial Statistics), 국제결제은행(BIS),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통계청, 국제금융기구(IMF), OECD, UN, 세계은행은 이 데이터 갭 이니셔티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은행 부문의 레버리지란 은행권의 금융자산(현금과 예금 등으로 금융대차대조표의 자산란에 기입됨)과 자기자본(주식과 기타 자본 등으로 금융대차대조표의 부채란에 기입됨) 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비록 이러한 측정법이 다소 조악하고, 금융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완벽하게 측정하는데 필요한 많은 지표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비율(레버리지)이 높으면 위험 요소가 되는데 높은 비율이 리스크와 경기순환적 하강국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은행권의 레버리지가 칠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독일에서 자산 대 자기자본의 비율(asset-to-equity ratio)이 대략 25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그림 3.22). 캐나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여 각각 3 미만이었다. 슬로바키아, 일본, 멕시코, 한국,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에서 은행권의 레버리지는 2012년에 2000년보다 최소 5포인트가 낮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그리스, 프랑스, 벨기에, 슬로베니아, 영국에서 은행권 레버리지는 2012년에 2000년보다 최소 5포인트 높았다.

그림 3.22. 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선택된 자산 대 자기자본의 비율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이스라엘, 일본의 경우 2011년, 멕시코의 경우 2009년이다. 최초로 보여진 연도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1년, 한국의 경우 2002년, 덴마크의 경우 2003년, 칠레의 경우 2005년, 룩셈부르크의 경우 2006년, 터키의 경우 2010년이다. OECD 평균은 표에 포함된 값들의 인구 가중 평균이다.

출처: “한눈에 보는 국민계정”,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369-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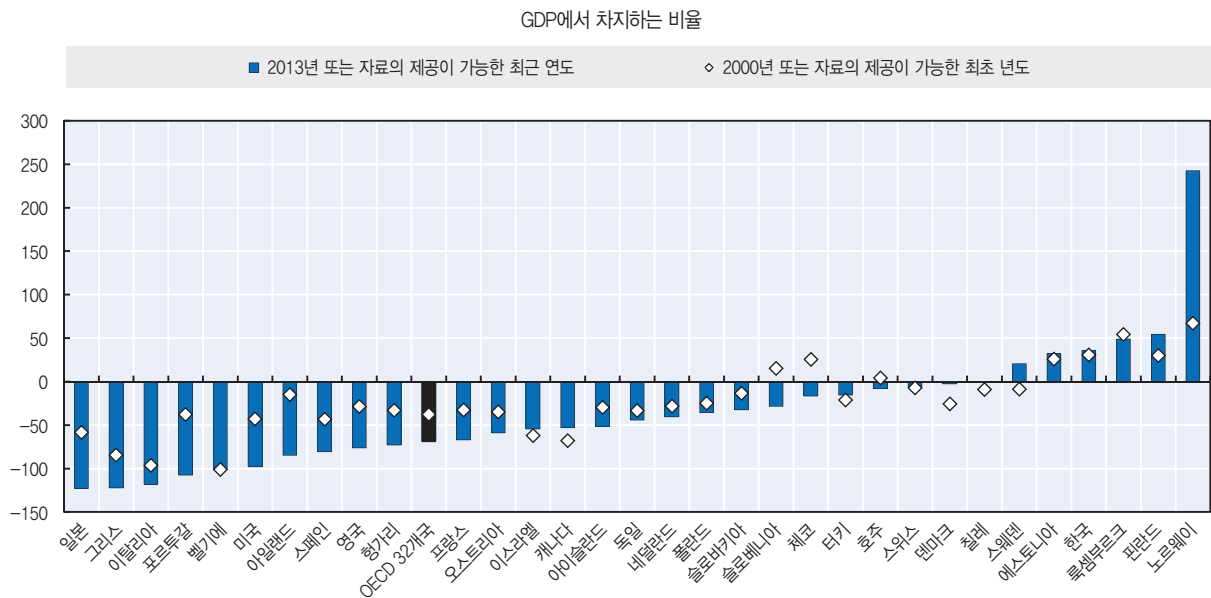
일반 정부의 재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유지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고려요소이며 묵시적인 정부 보증 때문에 민간부채는 빠르게 공적부채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적자를 질 수도 있는데, 경제적 활동과 경제적·인적·사회적 자본(공공인프라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금조달투자 또는 교육·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합)의 증가를 지원하거나 혹은 자연자원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예컨대 정부부채 감축에 대한 갑작스런 압박이 대폭의 급격한 공공지출의 삭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높은 정부부채는 미래의 웰빙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3.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정부의 재정 상태(그림 3.23; 정의를 보려면 박스 3.5 참조)는 여기서 금융순자산(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차액)의 측정치를 통해서 평가되는데, 초점을 지속가능성 자체가 아닌 유동성(liquidity)에 맞추는 경제 정책 논의에서는 대개 총부채의 측정치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평가된다. 2013년(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에 일반 정부의 금융순자산은 GDP의 242%인 노르웨이, 54%인 핀란드, 49%인 룩셈부르크 등 양의 값을 나타내는 정부들부터 GDP의 -118%인 이탈리아, -122%인 그리스, -123%인 일본 등 음의 값을 나타내는 정부들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재무 대차대조표는 비금융자산(인프라, 문화적 자산, 정치보존지역, 예술작품)을 제외시키며 그러므로 정부 금융순자산은 정부가 보유한 총자산의 총량을 파악하지 않는다.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순금융자산이 평균 31.3% 포인트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추세에 예외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로 2000년 이래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금융순자산 비중이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정부 순 재무상태(financial position)의 가장 큰 악화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일본,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순 상태(net position)가 50% 포인트 이상 저하되었다.

그림 3.23. 일반 정부의 금융순자산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헝가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경우 2014년, 한국, 스위스의 경우 2012년이다.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초 연도는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1년, 한국의 경우 2002년, 아이슬란드, 폴란드의 경우 2003년, 칠레의 경우 2005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의 경우 2008년, 터키의 경우 2009년이다. OECD 평균은 표에 포함된 값들의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이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62>

주

1. 본 장의 초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자원들의 총량이지만 많은 OECD 정부들과 통계청들에 의해 사용된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들(SDI)과의 시너지가 확실히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들은 표 3.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 측정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의 에너지 소비, 폐기물과 재활용, 국제 원조 지출, 중퇴자와 미취업 상태이며 정규교육 혹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NEET), 빈곤, 사회통합, 성별 격차의 측정치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 중 일부는 녹색 성장 지표 이니셔티브(OECD, 2014a); OECD 고용 전망(2015e);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다 함께 같이(In It Together), OECD 2015f); OECD 젠더 포탈(OECD, 2015g); 개발 협력에 관한 OECD 연구(OECD 2015h) 등과 같은 다른 OECD 연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2.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6가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다.
3.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C 상승으로 제한시킬 확률을 50%로 갖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6가지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이산화탄소 등가물 기준 대략 491ppm 미만으로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유럽환경청(EEA), 2015).
4. 경기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모든 OECD 국가들은 “잠재 산출(potential output)” 성장률의 급락을 경험했는데 이는 기술 발전의 둔화가 아닌 근로자 1인당 자본 총량의 감소 때문이었다(OECD, 2015e). 경제적 자본 총량의 하락은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면서) 투자가 가용한 저축액수보다 계속 적은 상황인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OECD 국가들이 미래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재개시켰다. 더 많은 논의 내용을 보려면 OECD 경제 전망, 2015의 투자에 관한 특별 장(OECD, 2015i)과 OECD 분석(2015j)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문헌

- Boarini, R., M. Mira d'Ercole and G. Liu (2012), “Approaches to Measuring the Stock of Human Capital: A Review of Country Practic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2/0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8zlm5bc3ns-en>.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5), “Atmospheric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CSI 013/CLIM 052) – Assessment published Feb. 2015. www.eea.europa.eu/data-and-maps/indicators/atmospheric-greenhouse-gas-concentrations-4/assessment (accessed on 26 May, 2015).
- Eurostat (2015), “Quality of life in Europe – facts and views – governance”, in *Quality of Life*, an online publication,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Quality_of_life_in_Europe_-_facts_and_views_-_governance&oldid=237687 (accessed on 4 July 2015).
- FAO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2010),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0 Main Report, FA O Forestry Paper 163, www.fao.org/docrep/013/i1757e/i1757e.pdf.

- French Conseil d'Analyse Economique and the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2010), *Monitoring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Joint Report as requested by the Franco-German Ministerial Council*, the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Occasional Reports series, 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expertisen.html.
- IEA (2014), *Energy,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2014 Insights*, IEA,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0744-en>.
- IMF (2015),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http://fsi.imf.org/Default.aspx> (accessed on 8 July 2015).
- IMF-FSB (Financial Stability Board)(2009), *The Financial Crisis and Information Gaps: Report to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www.imf.org/external/np/g20/pdf/102909.pdf.
- IMF-FSB (2010), *The Financial Crisis and Information Gaps – Action Plans and Timetables*, www.financialstabilityboard.org/2010/05/r_100510/?page_moved=1.
- IMF-FSB (2012), *The Financial Crisis and Information Gaps – Progress Report on the G-20 Data Gaps Initiative: Status, Action Plans, Timetables*, www.imf.org/external/np/G20/pdf/093012.pdf.
- IUCN (2013),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www.iucnredlist.org/about (accessed on 12 April 2015).
- Liu, G. (2011), "Measuring the Stock of Human Capital for Comparative Analysis: An Application of the Lifetime Income Approach to Selected Countri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No. 41*, 2011/0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3h0jnn9r5-en>.
- OECD (2015a), *Aligning Policies for a Low-carbon Econom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3294-en>.
- OECD (2015b), "Carbon dioxide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www.oecd.org/sti/inputoutput/co2, (accessed on 15 July 2015).
- OECD (2015c), *Water Resources Allocation: Sharing Risks and Opportunities*,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9631-en>.
- OECD (2015d),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du/EAG-Interim-report.pdf.
- OECD (2015e),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 OECD (2015f),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 OECD (2015g), OECD Gender Portal, www.oecd.org/gender/data/ (accessed on 12 May 2015).
- OECD (2015h),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ev-data-en>(accessed on 10 July 2015).

- OECD (2015i), “Lifting Investment for Higher Sustainable Growth”, in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5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outlook-v2015-1-46-en.
- OECD (2015j),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4291-en>.
- OECD (2014a), *Green Growth Indicators 2014*, OECD Green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030-en>.
- OECD (2014b),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4-en>.
- OECD (2014c),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4-en.
- OECD (2013a),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92-en>.
- OECD (2013b), *Environment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5715-en>.
- OECD (2013c), *Water Security for Better Lives*,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405-en>.
- OECD (2013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3-en.
- OECD (2012),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The Consequences of Inac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2246-en>.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 (2009), *Measuring Capital – OECD Manual: Second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68476-en>.
- Oeppen, J. and J.W. Vaupel (2002), “Broken Limits of Life Expectancy”, *Science*, Vol. 296, No. 5570.
- Scrivens, K. and C. Smith (2013), “F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Capital: An Agenda for Measurement”,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3/0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bcx010wmt-en>.
- Siegler, V. (2015),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An Analysis of Social Capital in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www.ons.gov.uk/ons/rel/wellbeing/measuring-national-well-being.

- Statistics New Zealand (2011). Key findings on New Zealand'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2010, Statistics New Zealand, Wellington, 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snapshots-of-nz/Measuring-NZ-progress-sustainable-dev-%20approach/key-findings-2010.aspx (accessed on 29 May 2015).
-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3): *Sustainable Development – A Brief Guide 2013: 17 key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01/new.html?gnpID=2013-267 (accessed on 10 July 2015).
- United Nations (2009a)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prepared in cooperation with the OECD and the Statistical Office for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New York and Genev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400&nr=801&menu=35>.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2014),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Recommendations on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www.unece.org/fileadmin/DAM/stats/publications/2013/CES_SD_web.pdf.
- UNU-IHDP and UNEP (2014) *Inclusive Wealth Report 2014. Measuring progress towards sustain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inclusivewealthindex.org>.
- UNU-IHDP and UNEP (2012) *Inclusive Wealth Report 2012. Measuring progress towards sustain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inclusivewealthindex.org>.
- Wilmoth, J.R. (2011), “Increase in Human Longevity: Past, Present and Future”,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Vol. 9, No. 1.
-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WMO) (2014),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Greenhouse Gas Bulletin*, No. 10, 6 November 2014, www.wmo.int/pages/prog/arep/gaw/ghg/GHGbulletin.html (accessed on 10 July 2015).

Database references:

- Eurostat (2015),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pw03&lang=en (accessed on 03 July 2015).
-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accessed on 03 July, 2015).
-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env-data-en> (accessed on 4 July 2015).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546-en> (accessed on 10 July 2015).
-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652-en> (accessed on 10 July 2015).

제4장

아이들의 삶은 어떤가?

아동기는 인간 개발의 독특한 시기이며, 번영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이다. 본 장은 아동 웰빙의 주요 측정 문제들을 논의하고, 아동들의 삶의 10 가지 측면에서의 수행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분석은 많은 OECD 국가에서 상당한 숫자의 아이들이 궁핍한 상태이며, 실직 가구에서 살고 있으며, 빈곤의 위험이 경기 대침체(Great Recession)의 와중에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건강에 대한 위험이 영아기에 낮지만 청소년기에는 매우 높아진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우호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그들 중 다수가 사회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의 아동들이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다. 아동들의 경험은 또한 연령, 성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단히 다르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학우 및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며,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가 보고(self-reported) 건강이 하락한다. 본 장에서 고찰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난한 가정 출신의 아동들은 부유한 가정 출신의 아동들보다 더 낮은 웰빙을 경험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서론: 아동 웰빙이 중요한 이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OECD 지역 내 사람들의 4명 중 1명은 20세 미만으로 약 6%는 5세 미만, 12%는 10세 미만, 13%는 11세에서 19세 사이이다(OECD, 2015a). 연령집단 간 웰빙 성과의 불평등에 관해 *How's Life?*의 이전 장들에서 폭넓게 논의되었지만,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어떤 아동 중심(child-specific)의 웰빙 측정법들이나, 아이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사이의 비교나, 다른 특징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어떠한 비교도 다루지 않았다.

풍부한 연구문헌에서 아동기 웰빙과 성년기 웰빙 사이의 연관성, 특히 교육적 성과에 관한 연관성을 강조했다.¹ 그러므로 아동기의 환경에 대한 이해는 나중의 삶에서의 웰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기 단계의 정책적 개입(early-stage policy intervention)의 기회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부양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웰빙은 부분적으로는 가족의 웰빙과 사회 전체의 웰빙에 좌우될 것이다. 이 연관성은 아동 빈곤(UNICEF, 2014), (교육을 받지 않고 직업도 없는) 비활동 청소년(youth inactivity) (Scarpetta, Sonnet and Manfredi, 2010; Carcillo et al., 2015), 노숙률(OECD, 2015c)의 상승에 의해서 강조되는 것처럼 경기 대침체기(Great Recession) 동안에 명백해졌다.

소득 빈곤, 영유아 건강, 교육과 청소년 활동의 전통적 지표들에 의해 측정되듯이, 아동 성과들은 최근 몇 년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OECD, 2009, 2011 and 2015d).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삶의 성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고, 그러므로 미래에 전반적 웰빙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아동 빈곤과 청소년활동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의 일관성 있는 진전의 부재로 많은 OECD 국가들과 국제 기관들이 아동 웰빙을 더 잘 측정하기 위하여 최근 수년 동안에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박스 4.1).

OECD는 2009년에 아동웰빙에 관한 작업을 시작해서 *Doing Better for Children*(OECD, 2009) 보고서에서 아동 웰빙에 관한 폭넓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측정 프레임 워크를 개발했다. 그 보고서에 포함된 지표들 중 일부는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선택된 성과들에서 진전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좀 더 최근에는, 아동에 관한 가용한 조사 데이터에 대한 OECD의 심도 있는 검토에서 이 분야에서의 주된 측정 갭을 강조했다(Richardson and Ali, 2014). 본 장은 *How's Life?* 접근법과 일관된 방법으로 아동 웰빙을 평가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반으로 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아동 웰빙의 측정 이슈들이 논의되는데 아동 웰빙의 측정이 어떻게 *How's Life?* 프레임 워크에 들어맞는지가 포함된다. 그리고 나서, 본 장에 사용된 지표들과 그 지표들을 선정한 기준이 제시된다. 다음 섹션은 OECD 국가들 전역의 아동 웰빙에 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는데, 평균적 아동웰빙의 국가 간 격차와 다른 특징들을 가진 아동들 간의 불평등을 살펴본다. 마지막 섹션은 그리고 나서 향후의 통계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짓는다.

박스 4.1. 아동 웰빙 측정에 관한 국제적·국가적 이니셔티브들

지난 10년 간 아동 웰빙 측정에 관한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국제 기관들(유니세프(2007, 2009 and 2013), OECD(2009 and 2011), EU 집행위원회(EC: 2008) 등), 학계, 비정부기관들(NGOs), 연구기관들(Bradshaw, Hoelscher and Richardson, 2007; Richardson, Hoelscher and Bradshaw, 2008; Save the Children, 2008 and 2011; and TARKI, 2010)에 의해 시작되었다. 아동 웰빙을 측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많은 OECD 국가들에서 또한 시사성 있는 주제였다:

- 호주 보건복지연구원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착수된 아동보건, 발달과 웰빙 (Child Health, Development and Well-being)연구 (www.aihw.gov.au/child-health-development-and-wellbeing/)는 14세 미만(56개 지표들)과 12세 미만(19개 지표들) 아동들에 대한 주요 웰빙 성과들을 측정한다. 이러한 성과들은 7개 영역(건강, 건강한 발달, 학습과 개발, 위험 요소들, 가족과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시스템 수행도)으로 분류된다.
- 영국에서 국가통계청(ONS)은 15세 미만 아동을 영국의 국가웰빙측정 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조사하고 있다 (ONS 2012, 2014).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설계된 웰빙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국가통계청은 7개의 영역들 (개인적 웰빙, 관계, 건강, 하는 일(what we do), 사는 곳(where we live), 개인의 재정상태, 교육과 기술)에 걸쳐서 아동들의 웰빙(객관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 모두)의 31개 중심 측정법들의 잠정 세트를 개발했다. 공공 협의 이후 2015년에 세트를 업데이트할 목적으로 이러한 31개 지표들 중 22개의 기준점(baseline) 측정이 2014년에 있었다(ONS, 2014).

다른 많은 국가들도 아동의 웰빙 상태를 국가적으로 측정 또는 감시하기 위하여 과거에 공식적 연구에 착수했다. Ben-Arieh et al.(2001)은 벨기에(플랑드르와 왈롱 지역),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모성과 아동 건강 통계)에서 1990년 중반부터 연간 또는 5년에 1번 아동 웰빙 보고서들을 정기적으로 생산해왔음을 강조했다. 저자들은 또한 덴마크와 포르투갈에서 행해진 아동 웰빙에 관한 다수의 1회성 국가보고서들(아동노동, 시설에 있는 아동들, 아동학대에 관한)을 강조했다. 일부의 경우에 아동 웰빙을 감시하는 이니셔티브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관(non-government agencies)에 의해 수행되거나(미국에서 Child Trends는 보건복지부(HHS)의 지원을 받아 시작됨) 완료 후에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스라엘의 State of the Child).

아동웰빙의 측정

아동웰빙의 정의

아동웰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되고 다루어질 수 있다. 본 장과 이 문제에 관한 OECD의 이전 분석(OECD, 2009)에서 사용된 접근법은 아동에게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다수의 삶의 영역들의 측면에서 아동웰빙을 정의한다. 이 접근법은 아동들의 삶을 다차원적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방식은 How's Life?가 전체 인구를 위해 채택한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아동들의 웰빙을 다차원적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와 공통된다(Bradshaw et al., 2007 and 2009 참조). Pollard and Lee(2003)는 예컨대 아동 웰빙을 “정신적/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차원들을 통합한 다차원적 구조”로 정의했고, 반면에 Ben-Arieh and Froncs(2007)는 아동들에게 제공된 “경제적 조건, 또래 관계, 개발을 위한 정치적 권리와 기회”라고 말한다. 다차원성에 대한 강조는 2000년대 중반까지 우세했던 아동 삶 성과들을 감시한 좀 더 제한된 접근법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 국제적 지표들은 자녀가 있는 가구들의 소득 빈곤 측정치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접근법에 대한 불만족의 증가, 아동 삶의 많은 측면들을 다룬 조사에서 나온 아동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 증가, 아동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들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모두 다차원적 접근법의 개발에 기여했다. 실제로, 모든 다차원적 접근법들은 아동들의 삶에 중요한 관련된 영역들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역들을 가장 잘 측정하는 지표들을 선정한다.²

더 폭넓은 How's Life?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본 장 역시 다차원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장에서 아동 웰빙의 관련 영역들은 **오늘 아동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아동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들 삶의 측면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이 구분은 관련 문헌에서 논의된 아동 발달에 관한 두 가지 주요 관점 (“발달적” 관점과 “아동 권리”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박스 4.2).

박스 4.2. 아동 웰빙의 정의 내리기: 학술 문헌으로부터의 통찰

아동웰빙에 관한 문헌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관점들을 강조한다:

- **발달적 관점(developmental perspective)**은 오늘 좋은 아동의 웰빙이 내일 좋은 성인의 웰빙임을 강조한다. 이 접근법은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기술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rofenbrenner, 1979).
- **아동권리 관점(child-rights perspective)**은 “여기 지금(here and now)” 웰빙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 아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이 관점의 어떤 측면들이 아동에게 중요하고 그 측면들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직접적 투입(input)에 의존한다는 점이다(Casas, 1997; Ben-Arieh et al., 2001).

이 두 가지 관점들은 때때로 상호보완적이다: 예를 들면, 오늘 아동을 위한 좋은 교육적 성과들은 대개 내일의 좋은 노동시장 성과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오늘의 좋은 교육적 성과가 아동의 “지금 현재의” 웰빙에 해로울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업 부담을 의미할 수 있다. 현재의 웰빙과 미래의 웰빙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있을 때마다, 아동권리 관점은 항상 발달적 관점과는 다른 아동에 대한 상황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관점들은 How's Life? 보고서에서 사용된 개념적 프레임 워크와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프레임 워크는 두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한다: 첫째,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아동권리 관점이 정의하듯이)과 수단적으로 중요한 것(발달적 관점에서 가정하듯이)을 구분하고, 둘째, “여기 지금”의 웰빙 성과들과 “이 후”의 웰빙 성과들을 구분한다. 실제로, 본 장은 오늘날 중요하고 아동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아동 웰빙 성과들 모두의 증거자료들에 관해 논의한다.

아동 웰빙 문헌은 또한 빈곤한 아동웰빙 성과물에 초점을 둔 접근법(“결핍” 접근법)과 아동웰빙을 긍정적 개념으로 생각한 접근법(“강점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구분한다. 본 장에서 이루어진 아동 웰빙 분석은 이러한 두 관점을 조화시키고 있는데 평균생활조건과 아동 웰빙의 불평등 그리고 가장 궁핍한 아동들의 웰빙을 살펴보기 때문이다.

아동 웰빙의 영역들과 지표의 선정

실제로, 이 분야에서 국제적·국가적 이니셔티브의 대부분은 아동이 가지거나 접근성이 있는 것, 아동의 경험과 일상의 삶의 조건들, 아동의 삶 전체에 대한 주관적 느낌 등 비슷한 영역들의 측면에서 아동의 웰빙을 정의한다(부록 4.A1, 표 4.A.1).

본 장에서 사용된 측정 프레임 워크는 최초의 아동웰빙에 관한 OECD 보고서인 *Doing Better for Children*(OECD, 2009)의 개요에서 서술된 방법론을 근거로 한다. 이 보고서는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을 다룬 6가지 중요 영역들(물질적 웰빙, 주택과 환경, 건강과 안전, 위험 행동들, 학교생활의 질, 교육적 웰빙)에 관한 아동웰빙의 개념을 다루었다. 이 영역들은 아동 웰빙에 관한 국가 간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되었는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합의된 국제기준(UNCRC, 유엔, 1990)³에 근거한다. 아동들의 특수상황에 적용되는 이러한 6가지 영역들은 *How's Life?*에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사용된 영역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에 유념하여 본 장은 아동웰빙을 측정하기 위해서 *How's Life?*에 있는 11개 영역(제1장과 표 4-1 좌측 칼럼) 중 10개 영역을 고찰한다. “일과 삶의 조화” 영역은 배제되는데 성인에만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 영역의 범위는 가족과의 관계(아동 발달에 중심적 역할을 함)와 학교 내 관계(아동이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형성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미래 웰빙 성과들을 결정함)를 포함시키도록 확장된다. 이 영역은 이제부터 “사회 및 가족 환경”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Doing Better for Children*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영역들은 아동 성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사는 가족의 성과들과 관련이 있다. 이는 예컨대 물질적 조건들(가구소득 등)과 환경적 질의 모든 측면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초점은 아동이 부양가족 구성원인 가구이다.

아동 웰빙의 10가지 영역들은 그리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아동이 사는 가족의 웰빙 조건으로 물질적 측면들과 아동이 성장하는 가정환경의 조건들을 주로 파악하며, 다른 그룹은 개인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에게 국한된 웰빙 조건들로 대개 아동 중심(child-centered)의 웰빙 요소들(건강, 교육, 시민 참여, 사회 및 가족 환경,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이다.

표 4.1에 나열된 아동웰빙의 지표들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은 *How's Life?*를 위한 지표들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과 동일하다(지표들은 표면적 타당성(face validity)을 가짐, 요약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를 수용하고 정책적 개입에 민감함, 관련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받아들여짐,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다루는 국가의 범위가 큼, 반복적 수단을 통해 수집됨). *Doing Better for Children*의 방법론(OECD, 2009)⁴에 근거한 두 가지의 추가적 기준이 본 장에서 사용된 지표들의 선정을 주도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지표들은 이상적으로는 출생에서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들을 포함시켜야 한다.⁵
- 아동에게 특수한 웰빙 조건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가족이 아닌 아동이 분석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 중심 접근법(child-centered approach)은 아동 웰빙에 대한 모든 최근 연구에서 공통적이다.

표 4.1. 아동 웰빙의 영역들과 지표들

	아동이 사는 가족의 웰빙 조건들
소득과 자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 아동 소득 빈곤*
일자리와 근로소득	실직 가구의 아동
주택 조건들	장기 실업 상태의 부모를 둔 아동 아동 당 평균 방의 개수
환경적 질	기본적 시설이 부재한 주택의 아동 열악한 환경 조건의 주택 내 아동
	아동에게 한정된 웰빙 조건들
건강 상태	영아사망률* 저체중 출산* 자가보고 건강상태 과체중과 비만* 청소년 자살률 10대 출산율
교육과 기술	PISA 평균 읽기점수** PISA 창의적 문제해결점수** 미취업 상태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 교육적 박탈*
시민 참여	투표 의향 시민 참여
사회 및 가족 환경	부모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10대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학우들이 있다고 보고한 학생 많은 학업 압박을 느끼는 학생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 PISA 소속감 지수 자녀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
개인적 안전	아동살인률* 왕따*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주: * 표가 있는 지표들은 *Doing Better for Children*에도 포함되어 있다. **표가 있는 지표들은 *Doing Better for Children*에 포함되었는데 정의가 약간 다르다.

이 다양한 선정 기준들은 최소기준을 규정하며, 여러 가지 중 하나를 선택(multiple choice)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지표가 아닌 어느 한 지표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에 의해서 28개의 지표들이 선정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Doing Better for Children*에서 사용된 지표들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표들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왔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기록(사망확인서 또는 병원기록 자료 등), 인구전체를 다룬 노동인구통계와 가구조사에서 왔는데 연령 또는 가구특징(자녀의 유무 등)에 근거해서 응답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HBSC),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등과 같은 아동의 삶의 질의 구체적 측면들을 평가하는 전문조사에서 가져왔다(박스 4.3 참조).

이러한 출처들은 아동 경험의 다른 측면에 각각 초점을 맞추지만, 모두 합치면 OECD 국가들의 아동 웰빙의 포괄적인 개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조사들은 대상 국가와 시간의 범위가 불균등하며, 그러므로 이 장에서 제공된

아동 웰빙의 분석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와 비슷하게, 가용한 증거자료는 웰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평가하는데 대개 불충분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본 장에 기술된 아동 웰빙의 추세는 영역들과 지표들의 하위집단(subset)에 한정된다. 가구데이터가 사용된 경우, 조사가중치(survey weights)가 각각의 웰빙 성과를 경험한 아동들에 대한 측정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정되었다. 아동 조사 데이터는 또한 질문에 대한 차별적 무응답(differential non-response)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편향(bias)에 대한 점검을 했다(박스 4.4).

박스 4.3.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조사

본 장에서 제시된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중요한 조사에서 왔다.

- OECD 국제성취도평가(PISA)는 모든 OECD 회원 국가들과 23개의 비회원국가들을 다룬다.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4차례 추가 실시되었다(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PISA는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의 인지능력을 측정한다. PISA는 또한 ICT 기술,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같은 범교과적 역량(cross-curricular skills)에 관한 학생들의 수행도를 측정한다. 데이터는 필기시험을 포함한 배경 및 평가 문항의 수행을 통해서 입수된다. 분석의 단위는 평가시작기간에 15세 3개월된 학생부터 16세 2개월된 학생까지이다. PISA는 2단계로 이루어진 표본에 의존하는데, 첫번째 단계는 15세 학생들이 있는 개별 학교들을 표집하고, 두번째 단계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표집한다. 시험은 각국 내 최소 150개의 학교에서 5천명에서 1만명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학령기 아동 건강 행태(HBSC) 조사는 WHO 유럽과 공동으로 HSBC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되는데 WHO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사는 1983/84, 1985/86, 1989/90, 1993/94, 1997/98, 2001/02, 2005/06, 2009/10년에 수행되었다. HBSC는 11세, 13세, 15세 학생들의 건강 행동, 건강 성과, 개인적·사회적 자원들, 배경 요소들을 측정한다. 데이터는 표준학생설문의 시행을 통해서 수집된다. 학교에 기반한 조사(school-based surveys)는 교실에서 수행된 자가답변(self-completion) 설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표본은 각 연령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약 1,5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다(즉, 각 국가에서 표본은 총 4,500명). 다양한 표집 방법들이 다른 시행년도에 사용되었다.
- 국제시민교육연구(ICCS)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협회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오스트리아, 벨기에(플랑드르 지역), 칠레, 체코, 덴마크, 잉글랜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와 15개의 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2008/2009년에 1차례 실시되었다. 국제시민교육연구(ICCS)는 시민 사회와 체제, 시민적 원칙,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이라는 네 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데이터는 학생들에게는 시험과 설문 시행을 통해서, 교사들과 교장들에게는 설문 시행을 통해서 수집된다. 또한 국가연구센터에 대한 온라인 설문은 시민과 시민권 교육에 대한 국가적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목표 인구는 평균 연령이 13.5세 이상인 8년차 교육을 받는 아동들이다. 각국에 대한 전형적 표본 규모는 약 150개의 학교와 3.5-5천명 사이의 학생이다. 규모비례확률추출방법이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학교 안에서는 시험을 치루기 위해 한 학급이 무작위로 선택된다.

출처: Richardson, D. and N. Ali(2014), "아동 국제조사 평가", OECD 사회, 고용 및 이주 연구보고서, No. 146,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jxzmjrqvntf-en>.

박스 4.4. 조사데이터 내 무응답 편향 조정

조사에서 무응답 편향(non-response bias), 예컨대 특정 아동들이 표집틀(sampling frame)에서 누락되거나 참여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때, 어떤 국가에서 아동 웰빙 성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는 아동 웰빙 성과가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관한 잘못된 추정(flawed estimates)을 야기할 수 있다(Richardson and Ali, 2014).

예를 들면, 많은 과체중 10대들은 체중에 관한 조사문항에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비만에 관하여 과소추정하게 된다. 2010년판 HBSC의 체중 질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은 무응답의 확률이 학생들의 특징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어릴수록, 빈곤 가정 출신이며,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일수록 체중 질문에 답변을 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Richardson and Ali, 2014). 이러한 집단들이 체중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적 무응답(differential non-response)은 이 조사에서 측정된 것처럼 과체중의 유병률의 편향된 추정치를 낳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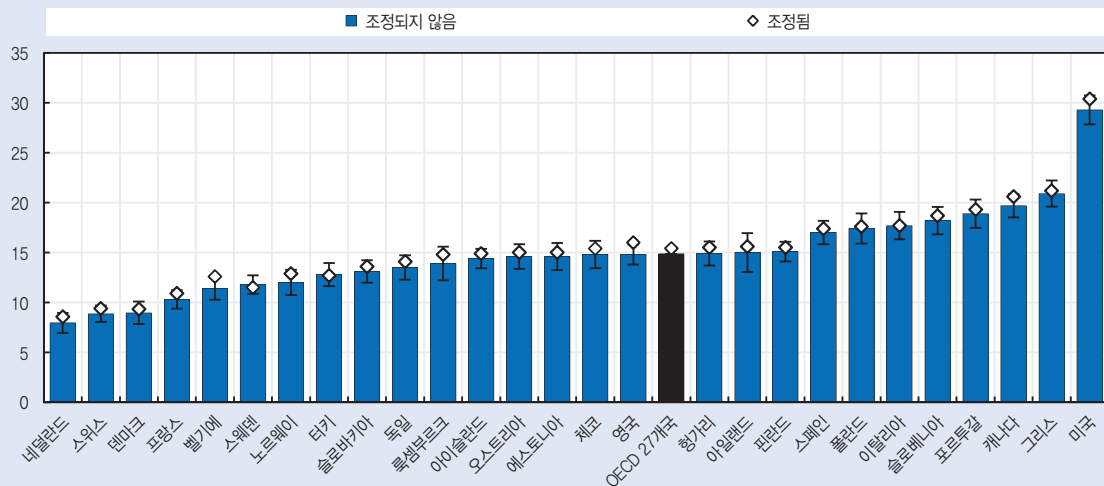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장에 제공된 모든 조사에 기반한 지표들(survey-based indicators)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특징들에 근거하여 무응답 편향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과체중과 비만 지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성별, 가족구성, 가족의 부유함을 그룹핑 변수(grouping variables)로 사용하면서 Richardson and Ali, 2014가 제안한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따랐다.

추정치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대안적 접근법은 공변량(co-variates)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는 것이다(비만의 경우에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 크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질문을 함).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했을 때 결과는 조정된 추정치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조정되지 않은 추정치들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아서 무응답 편향의 부재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편향이 작음을 보여주었다(비만 데이터에 적용된 두 번째 접근법의 결과를 보려면 그림 4.1 참조). 그러므로 본 장에 보여지는 모든 조사지표들은 조정되지 않았다.

그림 4.1. 과체중 아동들

11세, 13세, 15세 아동들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0년



주: 오차막대는 조정되지 않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조정된 지표들은 위에서 설명된 공변량 접근법을 사용하여 추정된다.
출처: 학령기 아동 건강 행태(HBSC) 조사에 근거한 OECD 계산: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70>

측정 도전과제들

아동 웰빙 측정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한 가지 결정적 문제는 아동웰빙 측정법의 개발에 있어서 제한된 아동들의 참여이다(OECD, 2009). 아동 지표들에 관한 이론과 측정작업이 아동들을 자신의 관점을 가진 참가자로 인정하면서 전진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조사도구를 설계하는데 관여시키기 어려울 수 있고 때때로 아이들로부터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⁶ 또한 부모의 관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의 웰빙에 주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컨대 아동의 물질적 웰빙의 대다수 지표들의 기초가 되는 측정 단위는 가족(또는 가구)인데 이는 가구자원들은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과 아이들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암묵적(그리고 강력한) 가정에 근거한다.

아동 웰빙 측정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도전과제들은 제한적인 데이터 가용성이고,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는 때때로 낮은 데이터의 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조사와 행정적 데이터)와 고찰된 국가에 따라 다소 심각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보고 이니셔티브들은 아동들의 삶에 대한 포괄적 그림을 생산해내고 모든 아동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도전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특히, Richardson and Ali(2014)가 강조한 대로 이 분야에서의 연구는 다음의 사항들을 다루어야 한다.

- 아동 웰빙에 초점을 두고 특별히 만들어진(purpose-built) 조사의 부재. 이는 기존의 데이터는 일부 아동 복지 성과들만을 다룸을 의미한다. 기존의 조사들은 소득과 결핍(deprivation)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조사는 건강, 위험한 행동, 소요 시간에도 관심을 갖는다. 주택과 아동들의 관계에 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데, 이는 아동들이 자라는 환경(정서적 그리고 신체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적(contextual)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아동 보호, 유기, 놀이, 정신 건강, 시민 참여, 환경의 질, 안전한 공간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은 주요 영역들에 관한 좀 더 비교 가능한 정보 역시 부족하다.
- 대부분의 가용한 정보는 주로 청소년 위주임. 학업 수행도,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 건강 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지표들은 11세 이상 아이들과 관련되는 반면, 본 장에서 보여진 조사 기반(survey-based) 지표들 중 어떤 것도 9세 미만 아동을 위해 제공이 가능한 것은 없다.
- 모든 범위의 관련된 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특징들에 따라 지표들을 분해할 가능성이 제한적임. 더 나아가, 데이터는 장애 아동, 집에 살지 않는 아동,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 이민 아동들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 각각의 웰빙 영역에서의 경험의 기간과 지속성(또는 전개)에 관한 정보의 부재. 실제로, 대부분의 아동 조사들은 종단면적(longitudinal)이 아닌 횡단면적(cross-sectional)이다.
-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 또는 “취약(hard-to-reach)” 아동들(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기관에 있는 아이들, 또는 일시적 혹은 만성적 노숙 가족의 아이들)에 관한 모든 조사들이 배제됨.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조사들의 변화. 더 구체적 내용과 주요 지표들에 관한 신뢰도 테스트의 예를 보려면 Richardson and Ali(2014) 참조.
- 아동과 가구조사에서의 특정 항목 또는 모듈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한 편향. 이는 질문의 복잡성, 수치 또는 문화적 편견에 기인함.
- 생산된 측정법들에서 불우한 아동들의 참여가 불충분함. 다른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가진 아동들에 의한 대표성 있는 참가를 달성하는 것은 모든 아동 조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도전과제다.

본 장에서 제공된 증거자료는, 개념적 기초와 아동인구의 범위 측면에서, 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에 기반한다. 여기 제시된 아동 웰빙에 관한 분석을 해석할 때, 이 제한점들에 유념해야 한다. 이 문제점들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은 미래의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다(박스 4.5).

박스 4.5. 아동 웰빙에 관한 새로운 국제 조사들

미래에 데이터 가용성과 범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새로운 국제 조사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웰빙측정(MYWEB)** 프로젝트는 현재 유럽의 아동들과 청소년의 웰빙에 관한 종단면적 조사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유럽 전역의 13개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에 의해 시행되며 유럽위원회의 제7차 연구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seventh Research Framework Programme, FP7)의 기금을 받은 이 프로젝트는 아동웰빙의 측정방법과 영역의 전 범위에 걸친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실현가능성 연구의 산출물에는 종단면적 아동웰빙 데이터의 필요성과 사용에 관한 연구, 정책이 어떻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보를 얻을 지에 관한 논의, 선호되는 종단면적 설계(참가자가 20대 중후반이므로 가속적 출생집단설계(birth cohort design) 등)에 관한 시범조사가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http://fp7-myweb.eu/about> 참조.
- **아이들의 세상(Children's World)**은 아동 웰빙의 국제 조사(ISCWeB)로 국제아동지표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hild Indicators)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8세, 10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웰빙 조사이다. 이 조사는 2015년 중반에 2차 발견내용을 보고했다. 아이들의 세상(Children's World)은 아동들이 자신의 웰빙에 대해 평가한 정보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최초의 국제적 조사이다. 이 횡단면 조사는 또한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생활시간에 관한 정보도 수집한다. 현재 아이들의 세상(Children's World)은 15개국 (알제리, 콜롬비아, 잉글랜드, 에스토니아, 이디오피아, 독일, 이스라엘, 네팔,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터키)에서 착수되어 연령 집단당 최소 1천명의 학생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www.isciweb.org/ 참조
-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조사는 2015년도 조사에 삶에 관한 평가문항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주관적 웰빙 측정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에 의해 권고된 문항과 일치하고 또한 많은 OECD 국가의 통계청에 의해 사용된다. 게다가, 좀 더 폭넓게 학생들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선택모듈(optional module)을 PISA 2018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 중이다.
- 마지막으로, 아동의 교육과 웰빙의 영역들에서 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OECD의 지속적 작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 새로운 데이터 수집이 계획 중이다. 첫번째 데이터는 **도시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 종단 연구(Inter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Skills Development in Cities)**인데, 1학년(약 6세)부터 청소년까지 아동들의 비인지적 능력과 삶의 성과에 관한 도시차원의 종단 연구다(OECD, 2015b). 이 조사는 아동기에 교육적 성취도를 높이는 동인에 관한 지식을 확대시킬 것인데, 다양한 웰빙 성과들(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과 교육 성과들, 시민 참여)의 개발에 있어서 사회적·정서적 역량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두번째로 제안된 OECD 데이터 수집은 유아기(early childhood)교육 및 돌봄과 아동 발달을 위한 학습과 웰빙 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조사이다.

아동 웰빙에 관한 증거자료

이 섹션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아동 웰빙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첫 번째, 본 섹션은 위의 표 4.1에 개괄적으로 설명된 아동 웰빙의 지표들의 비교분석을 제시하는데 아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웰빙에 관한 증거자료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동에게만 한정된 웰빙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그룹에 포함된 각 영역에 대해서, 본 섹션은 사용된 지표들을 기술하고 그 지표들이 아동웰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한다.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각 지표에 근거한 성과들은 경기 대침체기(Great Recession) 이전에 관찰된 성과들과 비교되는데, 지표들은 전체 인구에 관련된다. 첫 번째 하위 섹션(sub-section)에서 논의된 모든 증거자료는 국가 내 “동질적” 집단으로서 0-17세 아동들을 고찰하는데 성별,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들은 매우 이질적 집단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위 섹션은 아동들의 웰빙과 삶의 경험이 어떻게 다수의 개인적 또는 가족 요소들에 좌우되는 지를 분석한다. 특히, 이 하위 섹션은 연령, 성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구성, 이민 전 출신국(migration origin)의 측면에서의 격차들을 논의하지만 민족적 격차(ethnic differences)는 고찰하지 않는다. 후자가 일부 OECD 국가들(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본 장에서 사용된 통계에서는 쉽게 파악될 수 없는데 그 격차는 매우 개별화됨(disaggregated) 단계에서는 제공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웰빙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비교분석

아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웰빙

소득과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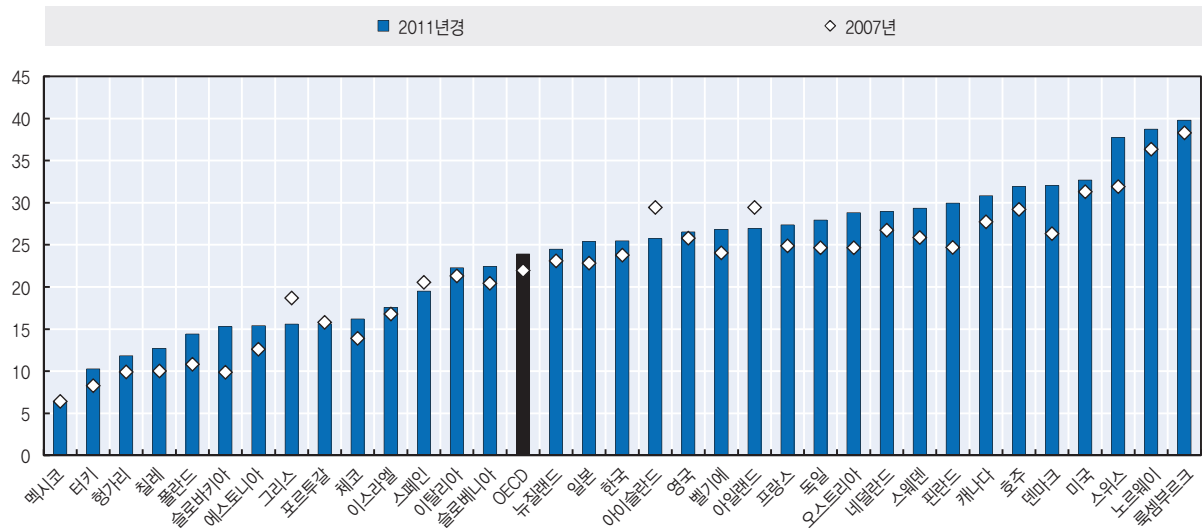
*Doing Better for Children*의 내용에 따라, 아동이 살고 있는 가구의 소득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에 의해 측정되며 또한 18세 미만 아동의 상대적소득빈곤율은 가난한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여진다.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은 학업에 필요한 물품부터 적절한 주택, 더 영양가 높은 식사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물질적 필요를 더 잘 공급할 수 있다. 아동기의 빈곤은 나쁜 건강 상태와 낮은 학업 수행도,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낮은 근로소득과 연관된다(예: Case, Fertig and Paxson, 2005; and Currie et al., 2012).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정부가 아이들이 적절한 삶의 기준을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위임하며, 모든 아동의 권리를 아동용 책과 같은 아동 발달에 중요한 교육물품들에 대한 접근으로 규정한다. 아동 1인당 가처분소득을 비교하고 상대적 소득빈곤을 계산하기 위해서 같은 액수의(균등화) 가구소득을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개별 구성원에게 귀속시킨다.

아동 1인당 평균가처분 소득은 전체 OECD 국가에서 매우 차이가 크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의 아동들이 가장 높은 평균가처분 소득을 가지는데, 멕시코 아동의 평균가처분소득보다 6배 높다(그림 4.2). 아동을 포함시킨 전체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0-17세 아동들의 평균 가처분소득보다 더 높다. 전체 인구의 소득과 아동의 소득 간 가장 큰 격차는 룩셈부르크, 미국, 스위스에서 관측된다.

그림 4.2. 아동 1인당 가처분 소득

평균 균등화 가처분 소득, 0-17세 아동 1인당, 구매력평가(PPP) 1천 미달러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호주, 헝가리, 멕시코, 네덜란드의 경우 2012년, 벨기에의 경우 2010년, 일본의 경우 2009년이다. 구매력평가(PPP)는 사적 소비를 위한 것이다.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459aa7f1-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86>

아동의 평균 가처분소득과 아동의 금융위기 이전 소득을 비교하면 고소득 국가들과 저소득 국가들 사이의 격차가 증가했고 OECD 평균이 약간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금융위기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들, 즉 아이슬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은 2007년과 비교해서 아동의 평균 가처분 소득의 하락을 경험했던 반면에 스위스, 슬로바키아는 가장 큰 증가를 경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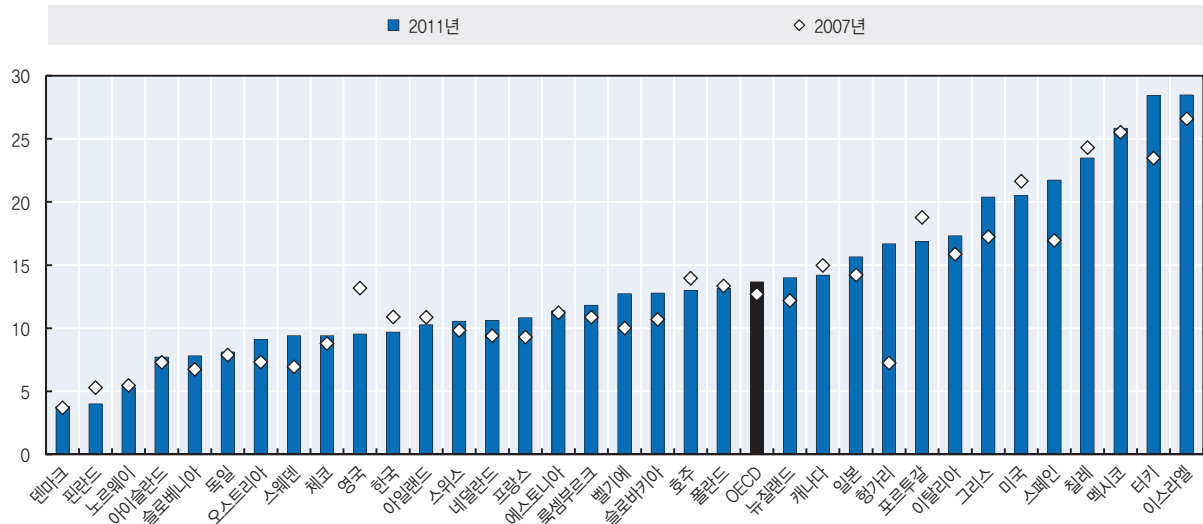
평균 소득은 소득이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면, 전체 인구의 모든 집단들의 물질적 웰빙에 관한 적절한 상황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동 빈곤은,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가진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써 측정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가구 내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노르딕 국가들은 매우 낮은 아동 빈곤율을 보여주지만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아동들의 25% 이상이 가난한 가구에 산다(그림 4.3). 터키와 이스라엘에 있는 아동의 빈곤율은 덴마크의 7배 이상인데 덴마크의 아동 빈곤율이 가장 낮다. 아동 빈곤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 빈곤율보다 높다. 그러나 한국,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아동들은 전체 인구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낮다. 비록 이것이 하나의 배타적 집단은 아니지만(다른 국가들이 아동 돌봄 투자를 늘리고 있음), 모든 노르딕 국가들과 좀 더 최근에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 대비 가족 지출의 비교적 많은 부분을 아동 돌봄 서비스에 투자한다. 이는 가족 정책 균형(family policy balance)에서, 고용지원의 한 형태이며 맞벌이 가족을 장려하는, 보육에 대한 부모지원 서비스를 현금소득 보조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들이 양질의 고용 상태에 유입되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 아동 빈곤 위험을 다루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접근법이 한국과 노르딕 국가들의 상대적 성공의 요인일 것이다.

OECD 국가들의 3분의 2 이상에서 아동빈곤률은 2007년과 비교하여 증가했다. 아동 빈곤의 증가는 헝가리(아동빈곤이 2배 이상이 됨)에서 가장 컸으며, 터키와 스페인이 뒤를 따른다(양 국가에서 약 5% 포인트 증가함).

아동 빈곤은 또한 그리스(3.2% 포인트), 벨기에(2.7% 포인트), 스웨덴(2.5% 포인트)에서 상당히 증가했다. 역으로 아동빈곤의 가장 큰 하락은 영국(-3.6% 포인트)에서 기록되었고 포르투갈(-1.9% 포인트), 핀란드(-1.3% 포인트), 한국(-1.2% 포인트)이 뒤따랐다.

그림 4.3. 아동빈곤율

가처분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에 살고 있는 0-17세 아동의 비율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호주, 헝가리, 멕시코, 네덜란드의 경우 2012년, 벨기에의 경우 2010년, 일본의 경우 2009년이다.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459aa7f1-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595>

일자리와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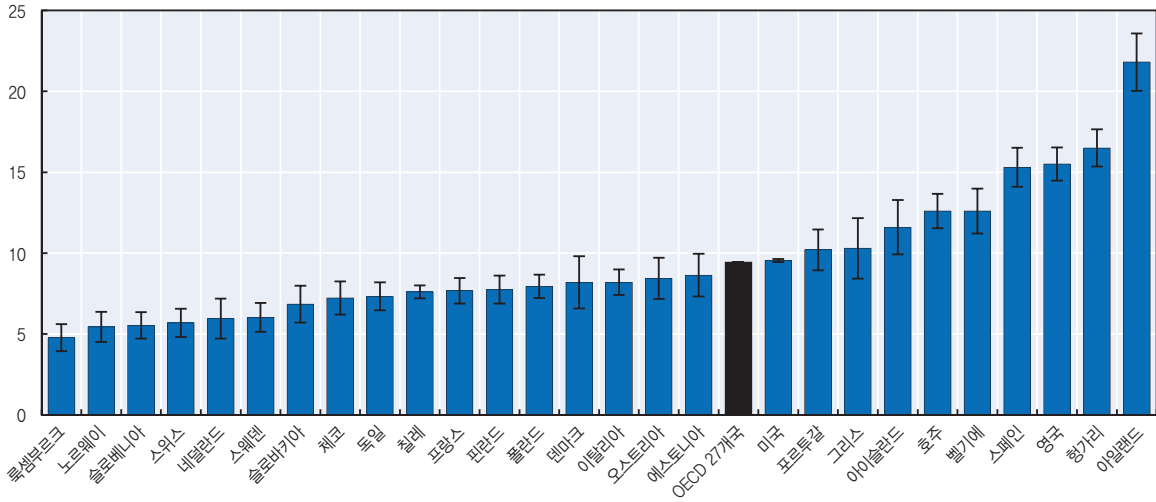
성인 고용 성과들은 가족의 재정적 상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고용된 부모가 자녀를 위한 롤모델로서 끼친 영향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실직으로 인한 수치심(stigmatisation)은 가족 내외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개의 고용 관련 지표들이 아래에 제시된다. 이 두 지표는 고용되지 않은 성인이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17세까지)의 비율과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장기 실직 상태인 아동의 비율이다.

OECD 국가들에서 많은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실직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한다. 2012년에 5명의 아일랜드 아동 중 대략 1명은 고용된 성인가구 구성원이 한 명도 없는 가구에서 살고 있었다. 헝가리, 영국, 스페인에서 15% 이상의 아동들은 가구 내 고용된 성인이 없는 가구에서 살았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위스, 노르웨이에서 취직된 성인이 없는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는데 그 비율은 약 5%이다(그림 4.4).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12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가구에 사는 아동의 비율이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에서 매우 작으며,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들에서 작다. 그러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약 15%의 아동들은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장기 실직 상태이다(그림 4.5).

그림 4.4. 실직 가구에서 사는 아동들

취직된 성인이 없는 가구에 사는 아동의 비율,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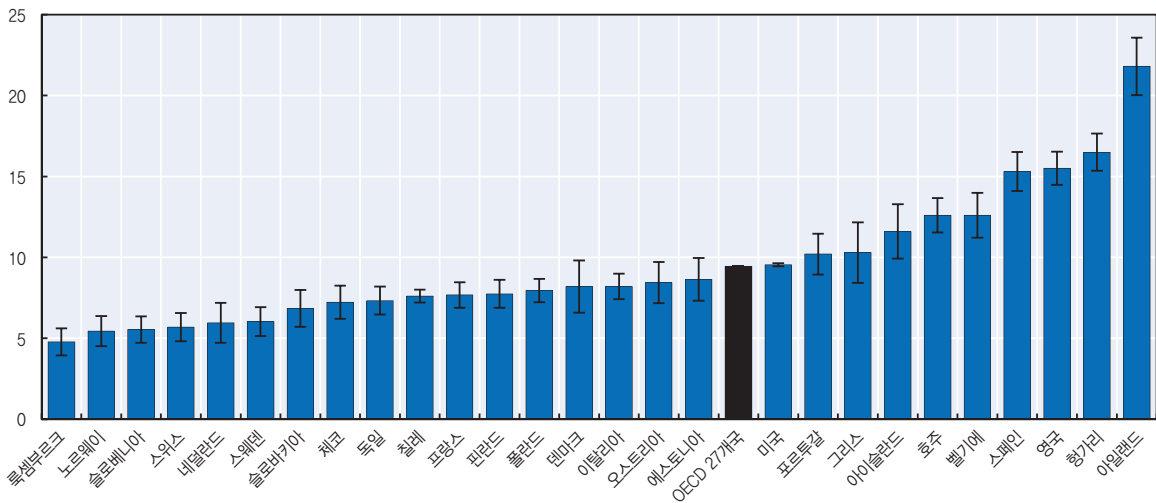
주: 가구 내 최소 성인(18-65세) 한 명의 고용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가용한 모든 아동(0-17세)에 대한 비율로 계산됨.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 2012,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HILDA) 2012(호주), 사회경제국가적 특징(CASEN) 2011 (칠레), 미국지역사회조사(ACS) 2012(미국). EU-SILC는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임. HILDA는 멜버른 대학에 의해 수행된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에 관한 종단적 조사임. CASEN은 사회개발부에 의해 수행된 칠레 사회경제국가적 특징 조사임. ACS는 미센서스국에 의해 수행된 미국지역사회조사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01>

그림 4.5. 장기 실업 상태인 부모가 있는 아동들

취직된 성인이 없는 가구에 사는 아동의 비율, 2012년



주: 가구 내 최소 1명의 부모의 고용 상태에 관한 정보가 제공 가능한 아동(0-17세)의 비율로서 계산됨.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출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 2012, 호주의 경우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HILDA) 조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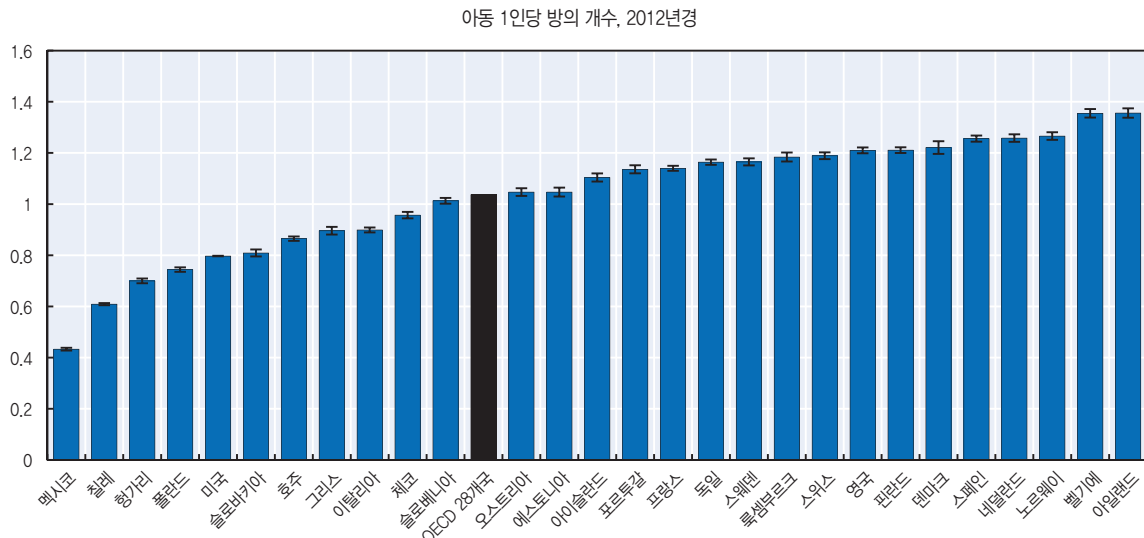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11>

주거 조건

모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주거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제27.3 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동 웰빙의 주거 영역은 아동의 주거환경의 질에 관한 2개의 지표들, 즉 아동 1인당 평균 방의 개수와 기본적 시설이 없는 주택에 사는 아동의 비율과 같은 지표들을 통해 아래에 설명된다.

주택 내 방의 개수는 방(또는 침실)의 숫자를 자녀가 있는 가족의 가구 크기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⁷ 이러한 측정법은 가족이 혼잡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 내의 아동들은 1인당 1개의 방이 있는 가구에서 살고 있다(그림 4.6). 아일랜드와 벨기에에는 OECD 전체에서 아동 1명당 가장 많은 개수의 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멕시코의 아동들은 가장 혼잡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방의 평균 개수는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에 따라 늘어난다. 이러한 발견내용들은 그러나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지표가 국가별로 약간 다른 정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⁸

그림 4.6. 자녀가 있는 가구 내 1인당 평균 방의 개수



주: 방의 개수는 EU-SILC에서 “가구에서 가용한 방의 개수”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는 침실의 개수로 평가된다.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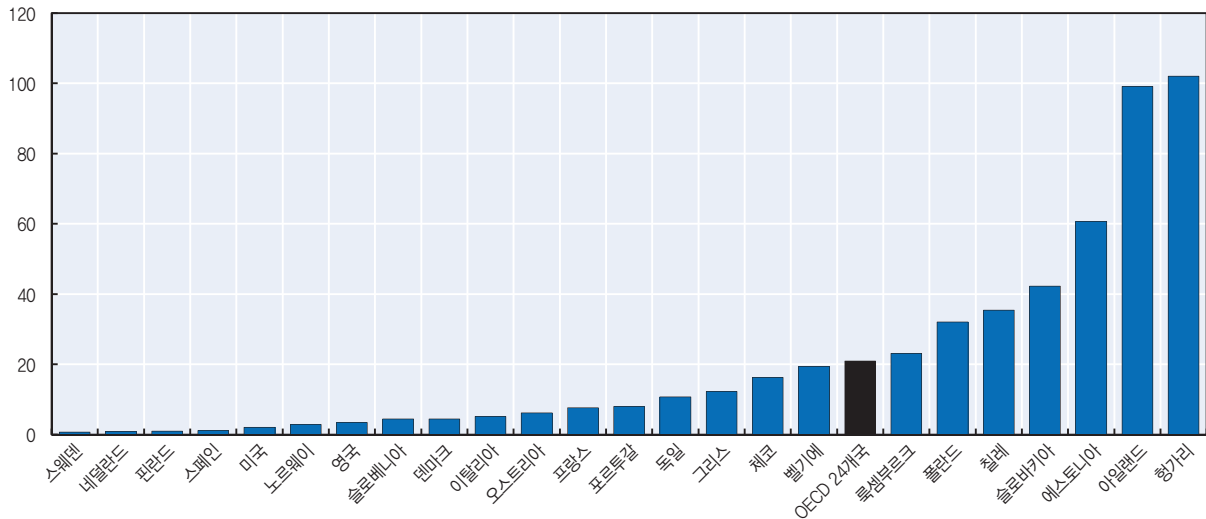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 2012,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HILDA) 2012(호주), 가구소득 및 지출조사 2012(멕시코), 사회경제국가적 특징(CASEN) 2011(칠레), 미국지역사회조사(ACS) 2012(미국). HILDA는 멜버른 대학에 의해 수행된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에 관한 조사임. ENIGH는 멕시코 국가통계청에 의해 수행된 가구소득 및 지출조사임. CASEN은 사회개발부에 의해 수행된 칠레 사회경제국가적 특징 조사임. ACS는 미션서스국에 의해 수행된 미국지역사회조사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27>

주택은, 가족의 위생에 해로운, 가족 전용 실내화장실이 없는 경우 기본적 시설의 부재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이러한 기본적 시설이 없는 주택에 사는 유자녀 가구는 아주 극소수이다(그림 4.7). 헝가리와 아일랜드에서 주택 내 가족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아동은 10명 중 대략 1명이다.⁹ 이러한 패턴을 설명하려면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분석은 다양한 국가들에 널리 퍼져있는 특정 건축 양식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4.7. 기본적 시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아동들

가족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 사는 아동 1천명당 아동의 수, 2012년



주: 가구에 가구 전용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 기본적 시설을 가진 것으로 분류됨.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 2012,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HILDA) 2012(호주), 사회경제국가적 특징(CASEN) 2011(칠레), 미국지역사회조사(ACS) 2012(미국). HILDA는 멜버른 대학에 의해 수행된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에 관한 조사임. CASEN은 사회개발부에 의해 수행된 칠레 사회경제국가적 특징 조사임. ACS는 미센서스국에 의해 수행된 미국지역사회조사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37>

환경적 질

아동들은 대기오염과 기타 환경적 유해 물질에 특별히 취약하다. 호흡기 감염은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아동들 사이의 증가하는 천식 유병률이 대기 오염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자료 역시 존재한다(WHO, 2005). 그러나 대기 오염과 기타 환경적 위협에 대한 아동들의 노출에 대한 비교데이터는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환경적 질은 자신이 사는 지역 내에서 공해와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한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에 관한 지표에 의해 설명되는데, 유럽 국가들과 호주에 대한 지표만이 가능하다.

이 지표는 환경적 조건이 열악한 집에 살고 있는 0-17세 아동의 비율로 정의된다. 환경적 조건은 가구가 소음, 공해와 기타 환경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사용하여 평가된다(다양한 조사에서의 정확한 정의를 보려면 그림 4.8에 대한 주석 참조).

호주는 열악한 환경 조건에 살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아일랜드, 노르딕 국가들, 폴란드, 헝가리가 뒤를 따른다(그림 4.8).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그리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는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사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아동에게만 한정된 웰빙 조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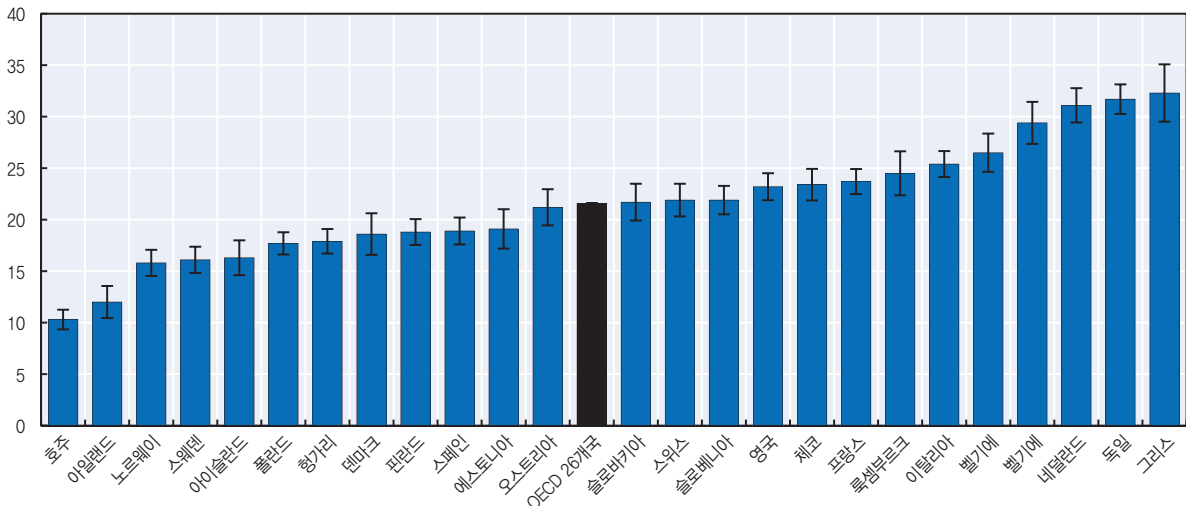
건강 상태

아동의 건강 데이터는 보건 의료인들과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오랫동안 수집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HBSC) (박스 4.3 참조)와 같은 연구 덕분에 행정적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는 광범위한 건강 측면에 대해 입수가 가능하다. 두 개의 지표들, 즉 영아사망률과 저체중출산율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용된다. 두 개의 다른 지표들, 즉 자기 보고 건강 상태와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11세, 13세, 15세 아동에 관해서 보고된다.

이 지표들은 두 개의 추가 지표들, 즉 후기 아동기의 발달을 파악하는 10-19세 아이들의 자살률과 10대 임신률에 의해서 보완된다.

그림 4.8. 열악한 환경적 조건에서 사는 아동들

열악한 환경적 조건의 주택에서 산다고 스스로 보고한 0-17세 아동의 비율, 2012년경



주: 유럽 국가들의 경우 환경적 조건은 가구가 다음 문제들, 즉 i) 이웃 또는 밖(교통, 사업, 공장 등)에서 야기된 주택 내 너무 심한 소음, ii) 공해, 오염 또는 지역 내의 기타 환경적 문제들(연기, 먼지, 불쾌한 냄새 혹은 오염된 물 등) 중 어느 것을 경험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이용하여 측정된다. 호주에서 가구들은, i) 교통 소음, ii)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iii) 공공기물파손(vandalism)과 이웃의 재산에 대한 의도적 훼손을 경험하는 지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이다.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 2012,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HILDA) 2012(호주). HILDA는 멜버른 대학에 의해 수행된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에 관한 조사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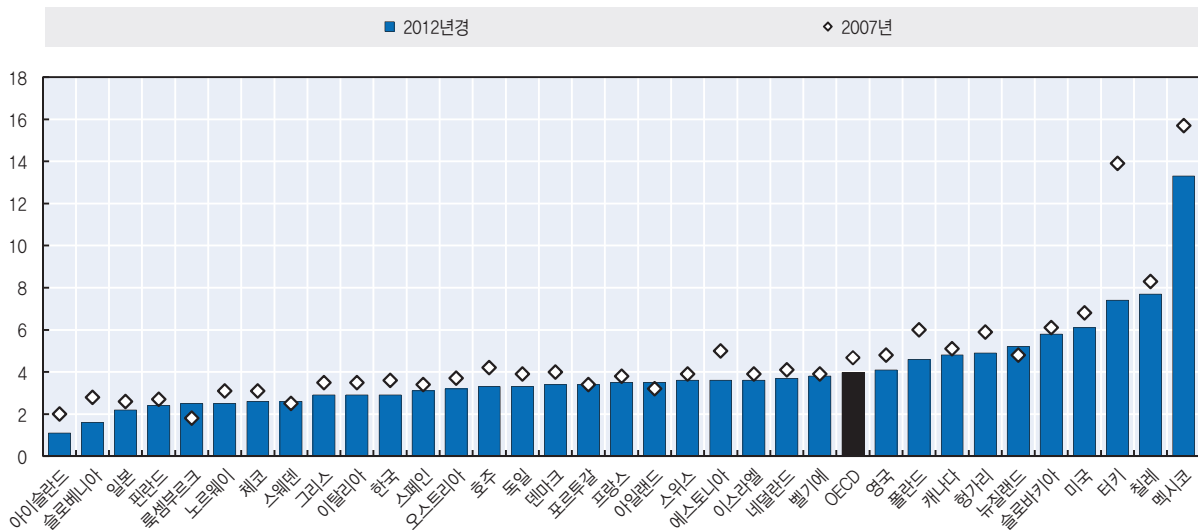
1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로 정의되는 영아사망률은 모성 및 유아 건강에서 다수의 관측된·비관측된 요소들을 파악한다. 또한 영아사망률은 다른 보건 체계의 특징들과 유효성들을 반영한다(2009, OECD).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낮거나 매우 낮은 영아사망률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영아사망률은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일본에서 관측된다(그림 4.9). 멕시코는 1% 이상의 영아사망률을 기록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래 영아사망률은 OECD 지역에서 약간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에 터키의 영아사망률은 어떤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이 하락했고 멕시코가 이를 뒤따랐다. 이러한 결과는 그러나 특히 낮은 영아사망률이 달성된 경우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조산아를 등록하는 국가별 관행이 다르기 때문이다.¹⁰

4. 아이들의 삶은 어떤가?

저체중출산아는 WHO에 의해서 출생 시 2,500그램 미만의 체중으로 정의되는데 영아의 병적 상태 및 사망률과 이후의 아동 성과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영아 건강의 중요한 지표이다 (Hack, Klein and Taylor, 1995). 몇몇 노르딕 국가들의 저체중출산아의 비율이 OECD 지역에서 가장 낮다(그림 4.10). 그리스와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은 저체중일 가능성이 가장 높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달성된 매우 낮은 수준의 영아사망률과 대조를 이룬다(OECD, 2011).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저체중출산율 감소에 있어서 멕시코와 터키에서 가장 큰 개선이 이뤄진 반면, 룩셈부르크와 그리스에서는 저체중출산아의 비율이 악화되었다. 전반적인 OECD 평균은 변함이 없는 상태였다(그림 4.10).

그림 4.9. 영아사망률

출생아(live births) 1,000명당 1세 미만 아동의 사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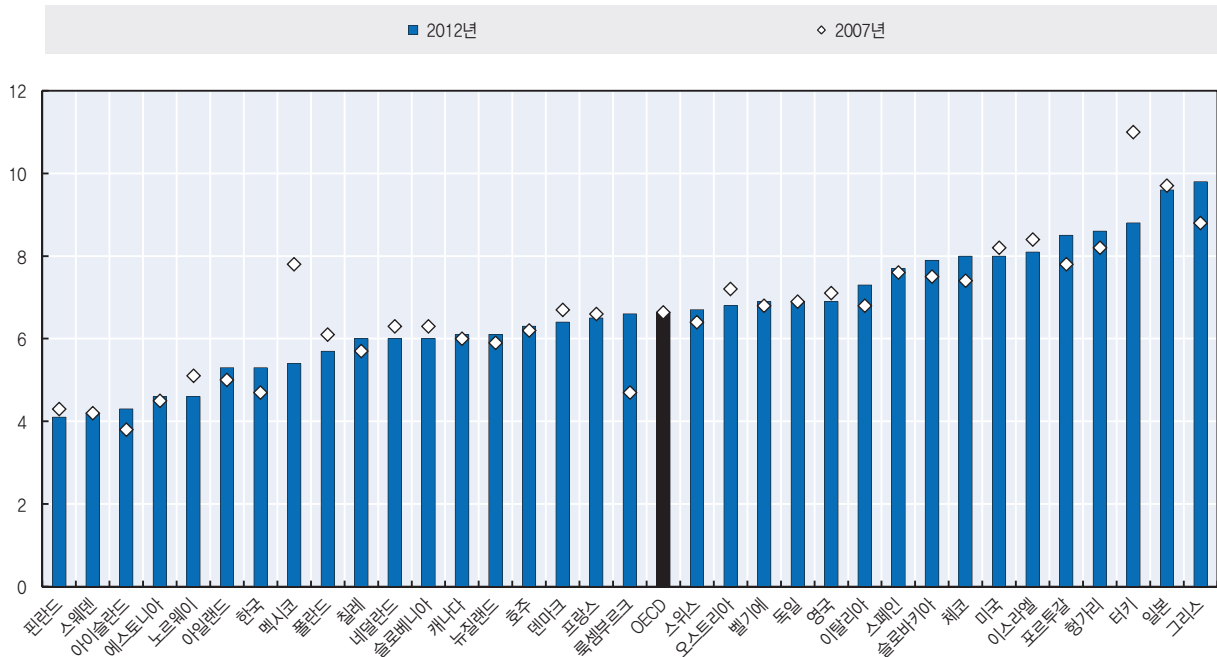
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의 경우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2011년이다.

출처: OECD 보건 통계 데이터 베이스,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55>

그림 4.10.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동들

출생아(live births) 중 2,500그램 미만의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의 비율



주: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는 벨기에의 경우 2010년,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의 경우 2011년이다.

출처: OECD 보건 통계 데이터 베이스,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67>

자가보고 건강은 응답자가 자신의 전반적 건강 상태에 관해 어떻게 느끼느냐를 대변하는 요약 지표이다. 그림 4.11은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보고한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영국, 헝가리, 벨기에이다(그림 4.11). 그리스와 스페인은 자기 보고 건강의 측면에서 가장 수행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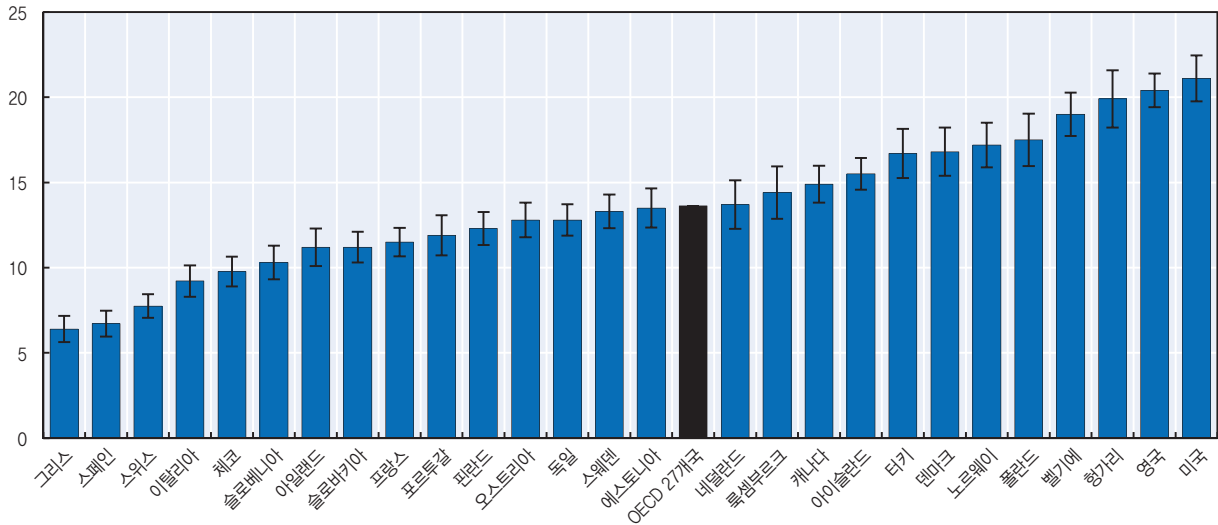
아동들의 과체중과 비만은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7가지 건강 관련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 사이의 과체중과 비만은 공중 보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동 웰빙과 미래 삶의 가능성에 관한 지표이다. 실제로 비만은 훼손된 자존감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수치감의 증가를 통한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미친다(Griffiths, Parsons and Hill, 2010). 어릴 때 과체중이거나 비만의 결과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고(Singh et al., 2008)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또는 11세, 13세, 15세 아동들을 따로 보았을 때 모두 과체중 혹은 비만을 보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그림 4.12).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는 과체중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정신 건강은 웰빙의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아동의 정신 건강에 관한 객관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가능하지 않다. 자살률은 심각한 정신 건강상 문제들의 유병률을 대변해준다. 아동 자살률은, 10-19세 아동 10만명당 고의적 자해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로서 측정되는데(WHO에 의해 ICD10으로 분류됨), OECD 전역에서 매우 낮다. 가장 낮은 아동 자살률이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관측된다. 뉴질랜드는 아동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핀란드, 칠레, 아일랜드가 뒤를 따른다(그림 4.13).

4. 아이들의 삶은 어떤가?

그림 4.11.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한 10대들

자기 인식 건강 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 아동들의 비율,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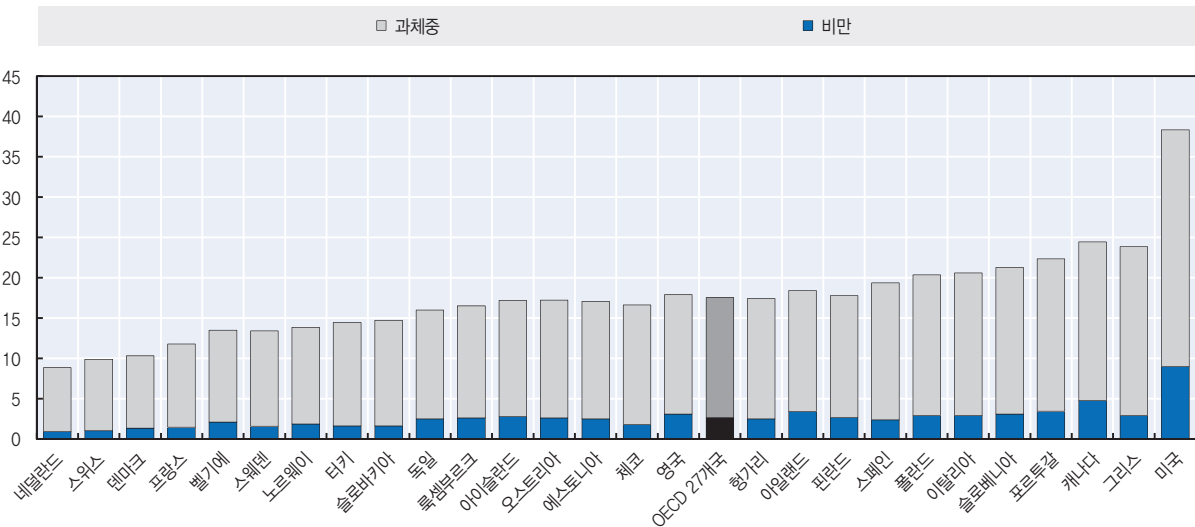
주: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HBSC)조사 2010,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75>

그림 4.12.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아동들

비율,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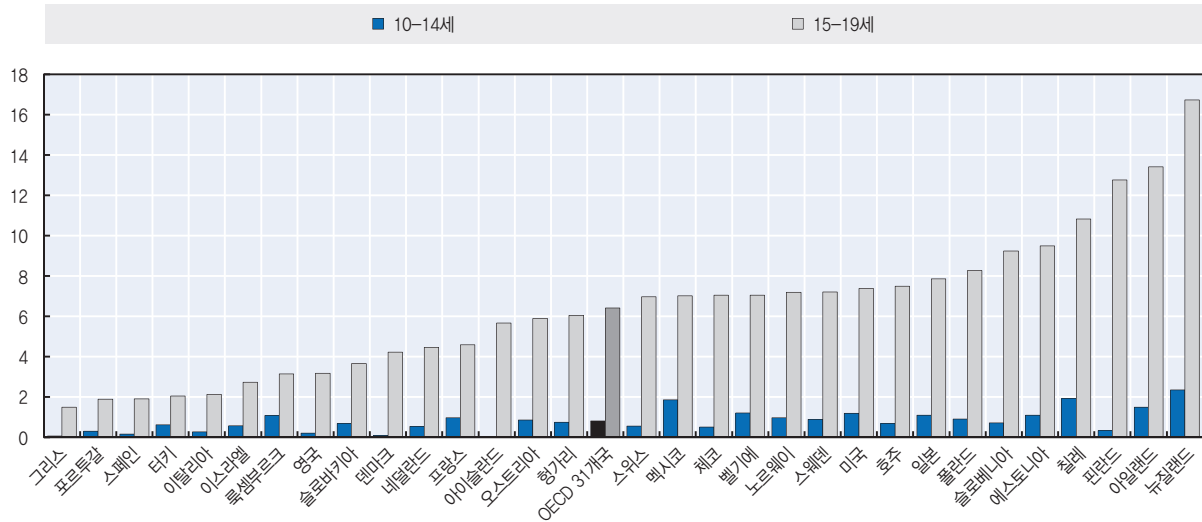
주: 과체중과 비만인 11세, 13세, 15세 남아 및 여아들의 비율, 막대는 비만을 순서로 나열됨.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HBSC)조사 2010,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87>

그림 4.13. 아동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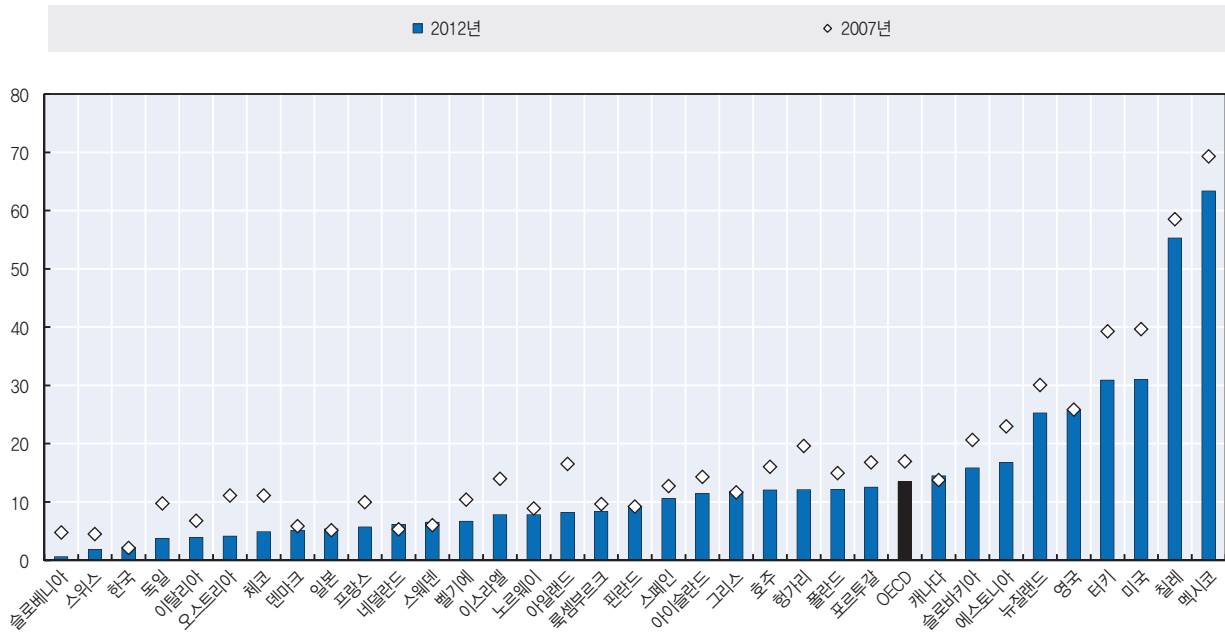
아동 10만명당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 2011년경 기준 3년 평균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사망률 데이터베이스, http://www.who.int/healthinfo/mortality_data/en/.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691>

10대 출산율은 10대 청소년들의 성 보건과 영아가 직면하는 건강위험 모두에 대한 중요한 측면이다. 10대 출산율은 슬로베니아, 스위스, 한국의 거의 “0”인 경우에서부터 칠레와 멕시코의 10대 소녀 1천명당 55건의 출생에 이르는 등 OECD 국가들 간에 차이가 상당하다(그림 4.14). 미국, 영국, 뉴질랜드 또한 다소 높은 10대 출산율을 기록한다. 2007년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0대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했는데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개선이 있었다. 아동들 사이의 기타 위험한 행동 유형들은 박스 4.6에서 기술된다.

그림 4.14. 10대 출산율

1천명의 15-19세 여성 당 출산율



출처: 세계개발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05>

박스 4.6. 아동들 사이의 위험한 행동

다른 보건 성과 지표들과 달리, 흡연, 음주, 신체적 활동은 그 자체가 웰빙 성과가 아니라 건강 행동과 미래 건강 위협의 지표이다. 청소년의 흡연, 음주 및 신체적 활동의 부족은 종종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이다.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담배 소비는 OECD 내 모든 국가들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보건 비용을 초래한다(Currie et al., 2012).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빨리 중독에 이르게 되고, 대부분의 성인 흡연자는 18세 전에 처음 담배를 피웠거나 이미 니코틴에 중독되었다(ibid.). 알코올 섭취는 나쁜 건강과 전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다(WHO, 2002). 주기적 음주와 만취는 열악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성과들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적 성과들, 폭력, 부상, 흡연, 마약사용, 위험한 성적 행동들과 연관이 있다(Currie et al., 2012; OECD, 2015e). 마지막으로 신체적 활동은 장단기적 측면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근골격 및 심혈관 건강 증진, 불안감 및 우울감을 감소시킴) 청소년들 사이에 인지 및 학문적 성취도를 개선시킨다(Currie et al., 2012). 동시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고 어떤 측면에서 성장의 정상적 부분으로 인정된다(OECD,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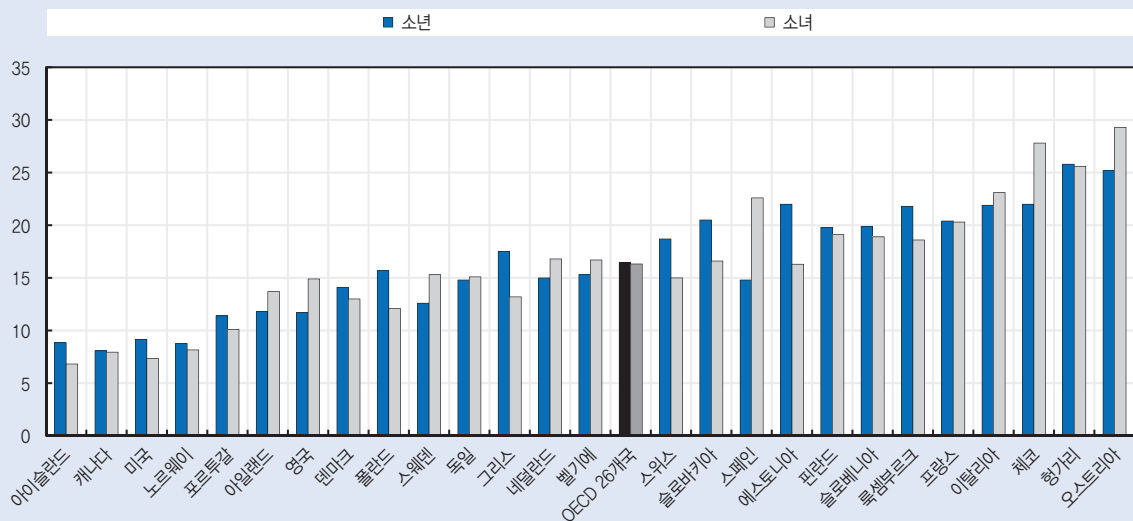
위험한 행동의 지표들은 주기적으로 흡연을 하는 15세 아동, 2번 이상 술에 취한적이 있다고 보고한 13세와 15세 아동, 지난 1주일 동안 중·고강도 신체활동(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을 매일했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 아동들의 비율이 포함된다.

박스 4.6. 아동들 사이의 위험한 행동(계속)

흡연과 음주. 전반적 흡연율(소년과 소녀들에 대한)은 아이슬란드의 경우 7.8%에서 오스트리아의 경우 27.3%에 이른다(그림 4.15). 평균적으로 소녀들의 흡연율이 소년들보다 더 높는데 그 반대의 패턴의 우세한 국가는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이다. 가정이 부유하지 못할수록 모든 국가들에서 더 높은 아동 흡연율과 대개 관련이 있는데 포르투갈, 폴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는 예외다.

그림 4.15. 아동의 흡연율

1주일에 최소 1번 담배를 피우는 15세 소년, 소녀 비율, 2010년



주: 데이터는 결합 비율(소년과 소녀)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나열된다.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HBSC)조사, 2010, www.hbs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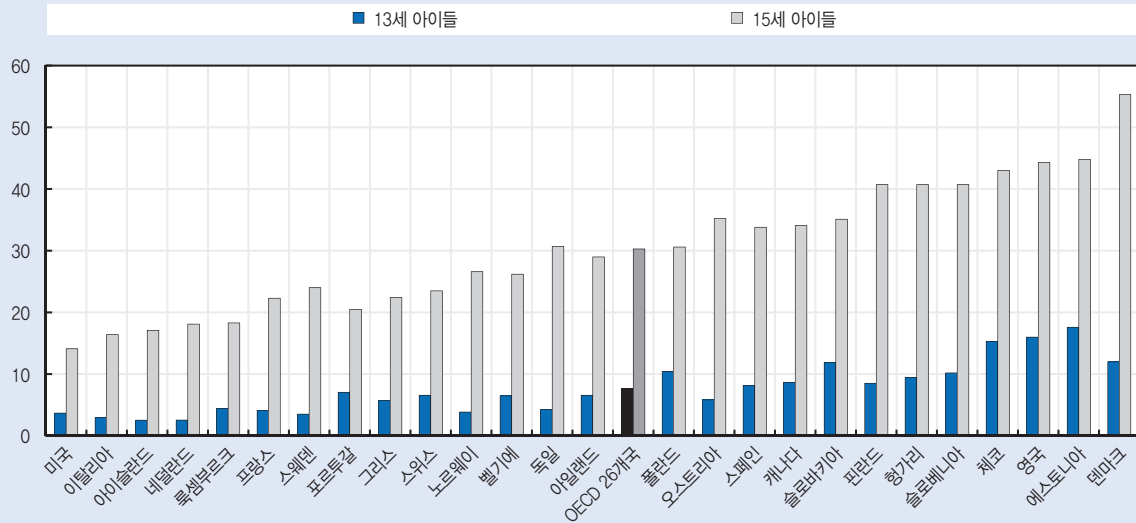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10>

음주율은 모든 국가에서 13세에서 15세 사이에 크게 상승한다(그림 4.16). 평균적으로 15세 소녀의 음주율이 15세 소년의 경우보다 높으나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캐나다에서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난다(Currie et al., 2012). 대상 아동의 범위 측면에서 측정치가 제한적인데 흡연과 음주에 대한 조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극단적 위험군에 있는 아동들은 학교에 규칙적으로 오지 않으므로 조사 되지 않는다.

박스 4.6. 아동들 사이의 위험한 행동(계속)

그림 4.16.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아동들

살면서 적어도 2번 취한 적이 있는 13세와 15세 아이들의 비율, 2010년



주: 데이터는 결합 비율(13세와 15세 아이들)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나열된다.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HBSC)조사, 2010, www.hbs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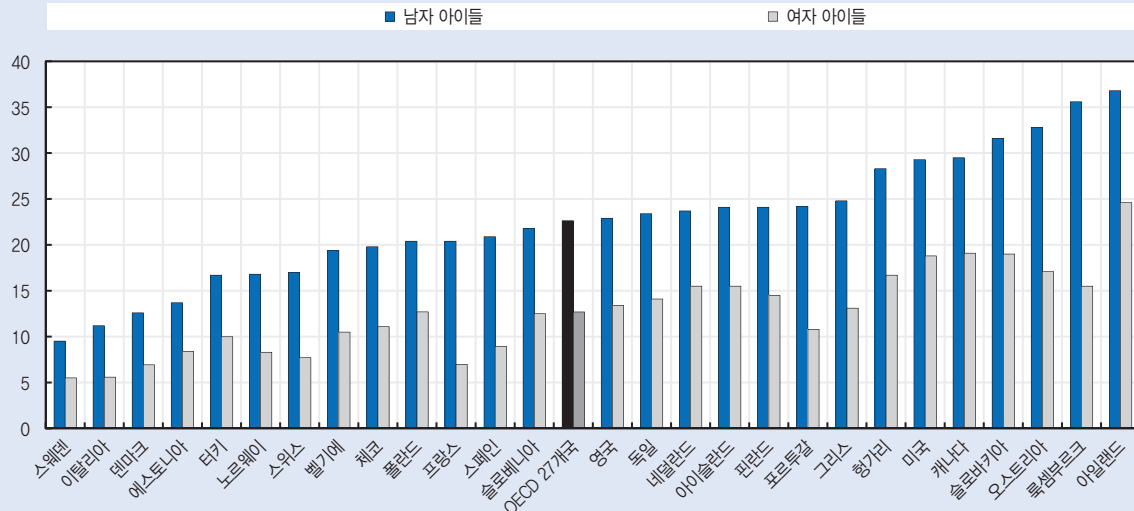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26>

신체적 활동. 문헌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근거해서, Strong et al.(2005)은 아동들은 매일 최소 60분간 중·고강도 신체활동(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는데 이 최저 기준은 현재 일부 정부 및 전문 기관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증거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그림 4.17). 매일 최소 60분간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은 스웨덴의 7.5%로부터 아일랜드의 30.8%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매일의 신체 활동은 여자 아이들보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 15세 아이들보다 11세 아이들의 경우 훨씬 자주 나타난다.

박스 4.6. 아동들 사이의 위험한 행동(계속)

그림 4.17. 매일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들

지난 1주간 매일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한 11세, 13세, 15세 아이들의 비율, 2010년



주: 중·고강도 신체활동(MVPA)을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HBSC) 보고서는 심장박동수와 호흡을 증가시키는(때때로 아이들을 숨이 찬 상태로 만들) 최소 1시간의 운동으로 정의내린다. 각국의 추정치는 국가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보고된 신체활동 비율과 11세, 13세, 15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표본수를 사용한다. 데이터는 학교 기반(school-based) 표본으로 추출한다.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HBSC)조사 2010,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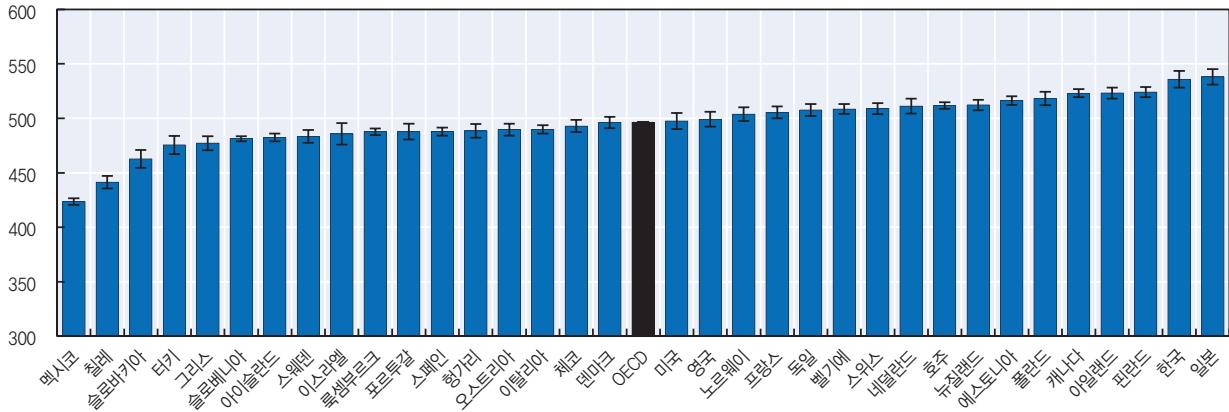
교육과 역량

여기서 사용된 아동에 대한 교육과 역량의 첫 번째 지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2에서 가져온 15세 학생들의 평균 읽기 점수이다. 학업과 삶에서의 성공과 관련된 광범위한 인지·비인지 기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PISA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solving) 점수도 아래에 설명했다. 이 섹션은 또한 직업훈련과 정규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미 취업 상태(NeET)의 15-19세 청소년의 비율 및 교육적 결핍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는 15세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도에 중요한 어떤 항목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측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모든 OECD 국가들 중에서 PISA 평균 읽기 점수가 가장 높은(그림 4.18) 반면에 칠레와 멕시코는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다.¹¹ 칠레,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는 모두 연속적으로 PISA 시행에서 읽기 수행도가 향상되었다(OECD, 2014a). 멕시코와 칠레는 합쳐서 읽기 평균 점수가 가장 낮고 읽기 능력 기준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스라엘과 폴란드는 읽기에서 최고 수행도를 달성한 학생들의 비율을 늘리면서 동시에 최저 수행도를 보인 학생들의 비율도 줄였다(OECD, 2014a).

그림 4.18. 아동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점수

15세 학생들의 평균 읽기 능력, 2012년



주: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출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2(OECD, 2014a), PISA 2012 결과: 학생들은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가(Volume 1), 개정판, 2월,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1996378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47>

읽기, 수학, 과학과 같은 인지 능력은 학업과 삶에서 성공의 유일한 결정요인은 아니며 학업과 삶에서의 성공은 훨씬 광범위한 역량에 달려있다(Rychen and Salganik, 2003).¹² PISA에 의해 정의된 문제 해결 역량은 “해결 방법이 즉각적으로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 여기에는 건설적이고 숙고하는 시민으로서의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에 참여할 의지도 포함된다(OECD, 2014b).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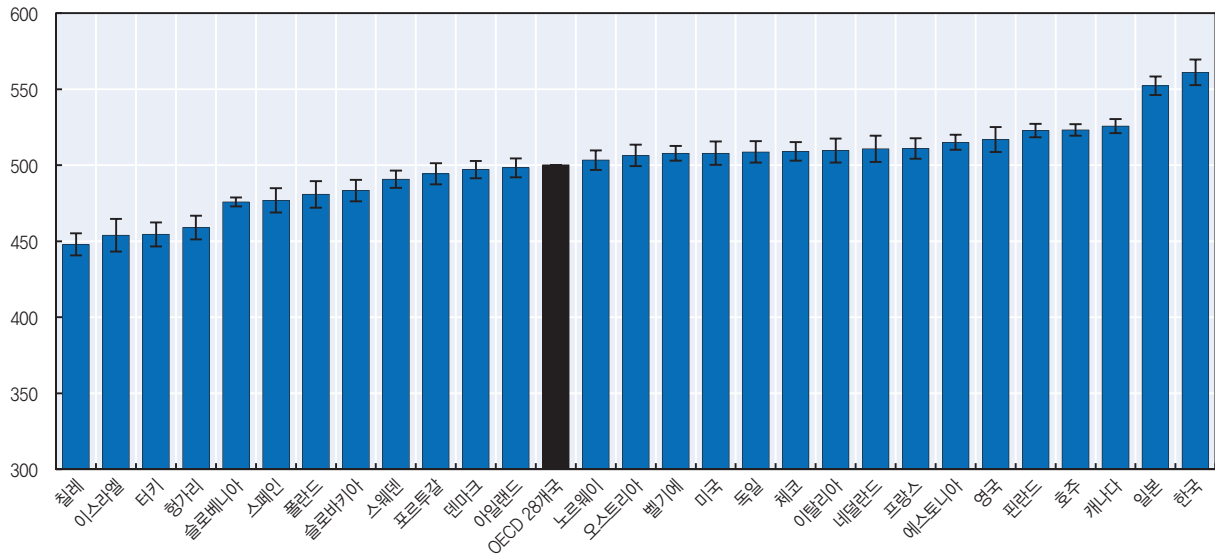
PISA 2012 문제 해결력 평가는 특정 교과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일반적인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컴퓨터 기반 가상 시나리오가 소위 “쌍방향 문제들(interactive problems)”을 생성하는 평가들의 일부로 사용된다. 문제 해결력 수행도는 읽기, 수학, 과학에서의 수행도와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이 세 과목 사이에 관측된 관계보다는 미약하다(OECD, 2014b).

읽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모든 참가국 중에서 복잡한 문제 해결력 평가에서 최고의 수행도를 보인다(그림 4.19).¹⁴ 평균적으로 OECD 지역 내 20%의 학생이 21세기 사회에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 해결 숙달도의 최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림 4.20에서 보이는 지표는 미 취업 상태이며 정규 교육 혹은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NEET) 15-19세 청소년들의 비율을 측정한다. 이 지표는 학교 중퇴율,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 기간, 청년 실업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개인의 웰빙과 경제적 수행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에서 NEET 비율이 10% 이상이다(그림 4.20). 터키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취업이나 직업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이 독일의 거의 8배인데 독일의 경우 비율은 15-19세 청소년의 2.8%에 불과하다. 체코, 폴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역시 매우 낮은 NEET 비율을 보인다.

그림 4.19. PISA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영역에서의 학생들 수행도

15세 아동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에서의 평균 점수, 2012년



주: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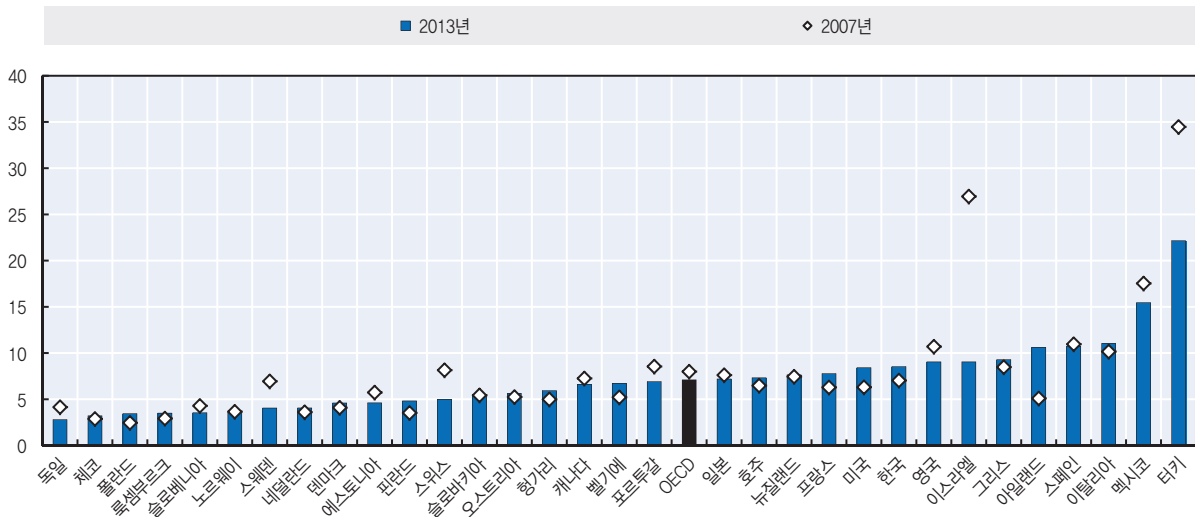
출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2 결과(OECD, 2014b), PISA 2012 결과: 창의적 문제 해결(Volume 5), 실생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1996378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59>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미 취업 상태이며 정규 교육 혹은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NEET) 청소년들의 숫자가 아일랜드(5% 포인트 이상)에서 크게 증가했던 반면 이스라엘(-19% 포인트)과 터키(-12% 포인트)에서 크게 감소했다.

그림 4.20.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취업이나 직업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

15-19세 청소년 중에서의 비율



주: 칠레의 경우 제공 가능한 최근 데이터는 2011년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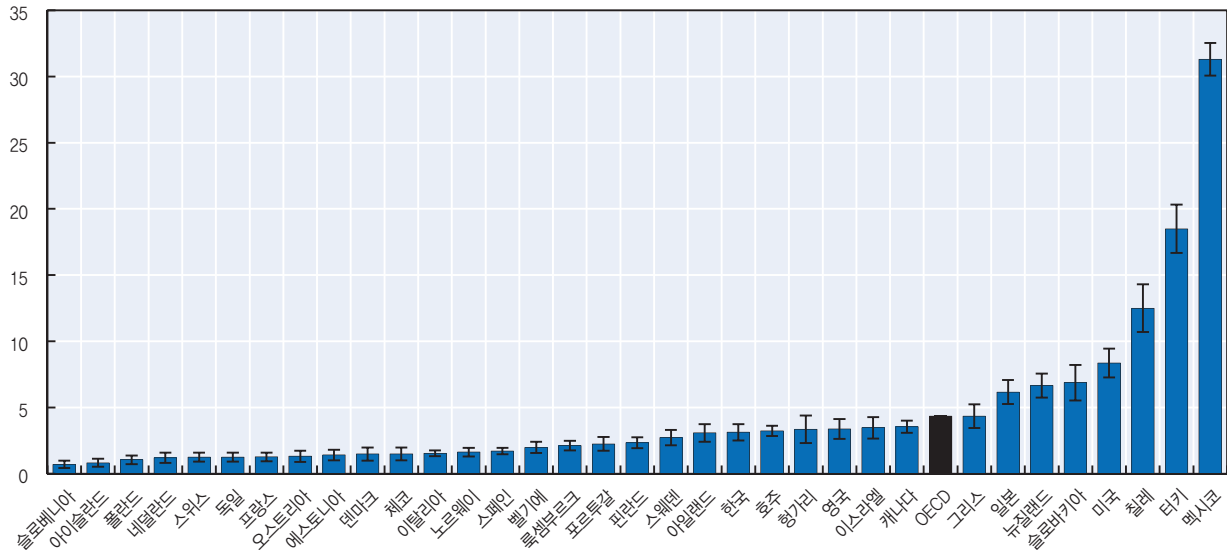
출처: 한눈에 본 OECD 교육 데이터 베이스, <http://dx.doi.org/10.1787/1999148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68>

교육적 결핍은 PISA 2012에 근거해서 15세 학생들 중에 4가지 미만의 교육 물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학생들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 측정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교육적으로 결핍된 15세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다(1천명당 5명 미만). 그러나 이 정의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1천명의 아동들 중 거의 30명이 교육적으로 결핍된 상태이다. 낮은 수행도를 보인 다른 국가는 터키와 칠레이고 미국이 그 뒤를 따른다(그림 4.21).

그림 4.21. 교육적 결핍

4가지 미만의 교육 물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15세 학생들의 비율, 학교 인구에서 15세 학생 1천명당, 2012년



주: 교육 물품에는 공부할 책상, 공부할 조용한 장소, 학업용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교과서, 사전이 포함된다.

출처: PISA 2012에 근거한 OECD 계산, OECD, <http://dx.doi.org/10.1787/1996378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78>

시민 참여 및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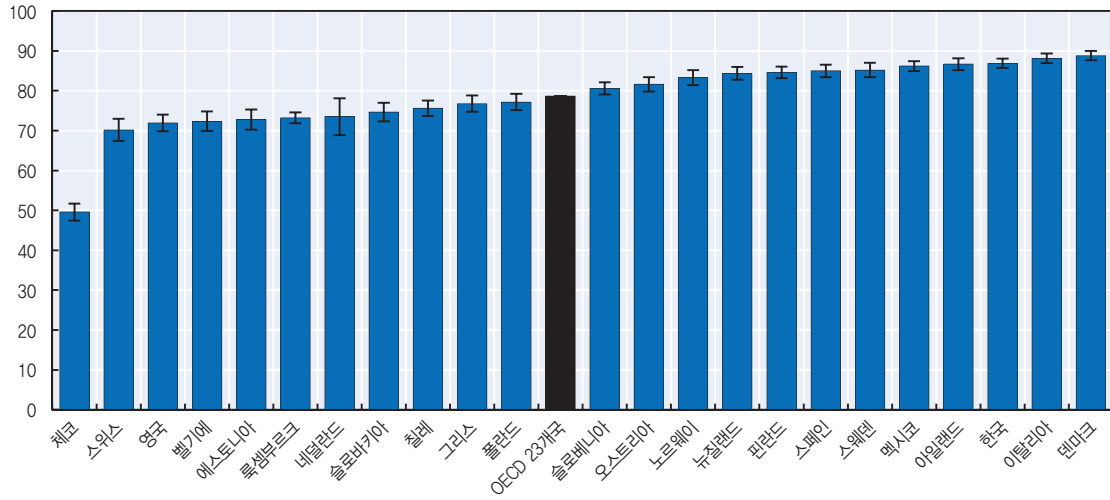
아동들은 공공의 관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단체, 클럽, 자원봉사단체(voluntary groups)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대다수의 아동들은 투표가 허용되지 않지만 국제시민교육연구(ICCS)는 나중에 그들이 국가 선거에 투표할 의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보고된 투표 의향과 청소년의 시민 참여에 대한 측정치가 여기에 아동의 시민 참여 지표들로서 포함된다.

성인이 되면 국가 선거에 아마도 또는 필히 투표할 것이라고 보고한 14세 아동의 비율은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에서 가장 높는데 비율이 거의 90%에 근접한다(그림 4.22). 반대로 체코에서는 14세 아동의 50% 미만이 성인이 되어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의 투표 의향이 반드시 미래 투표에 대한 예측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칠레와 멕시코에서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조사에 참여한 14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단체, 집단 또는 클럽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했다(그림 4.23). 핀란드, 덴마크, 한국에서 4명의 응답자 중 1명 미만이 ICCS 조사에 포함된 4개 유형의 단체 중 1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림 4.22. 아이들의 투표 의향

성인이 되면 국가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14세 학생의 비율,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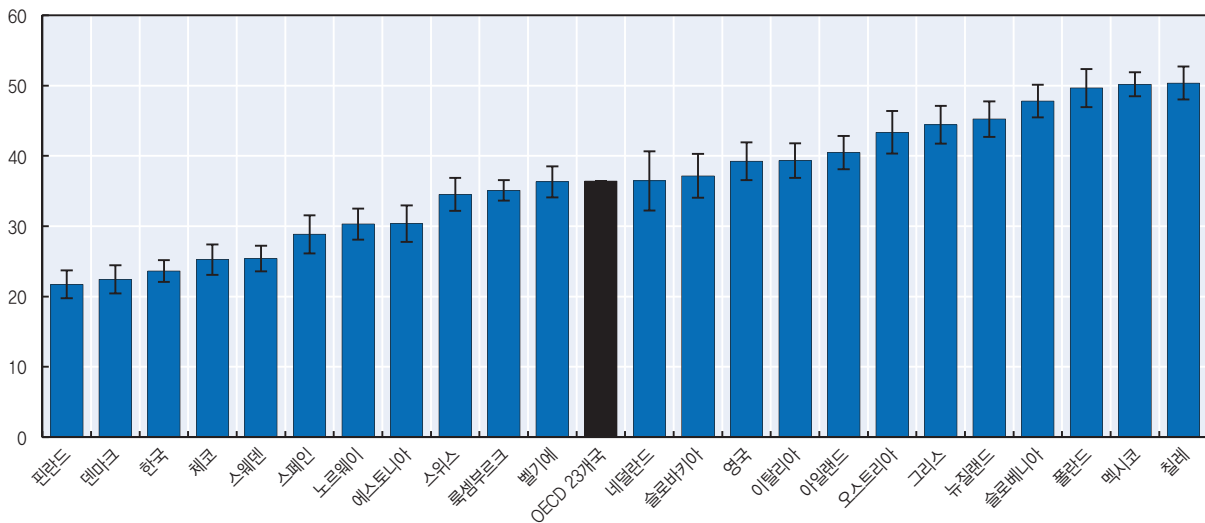
주: 벨기에의 경우 플랑드르 지역의 10대만 해당.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출처: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2009, <http://iccs.acer.edu.au>.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81>

그림 4.23. 사회적 참여를 하는 10대들

지난 12개월 동안 단체, 집단 또는 클럽에 참가한 14세 학생의 비율, 2009년



주: 정당 또는 노조와 연계된 청소년 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지역사회를 돕는 자원봉사단체, 사회적 대의를 위한 모금단체, 민족에 기반한 문화단체, 종교집단 또는 단체,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청소년 단체, 또는 사회적 대의를 위해 모금을 하는 단체에 참여.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출처: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2009, <http://iccs.acer.edu.au>.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793>

사회 및 가족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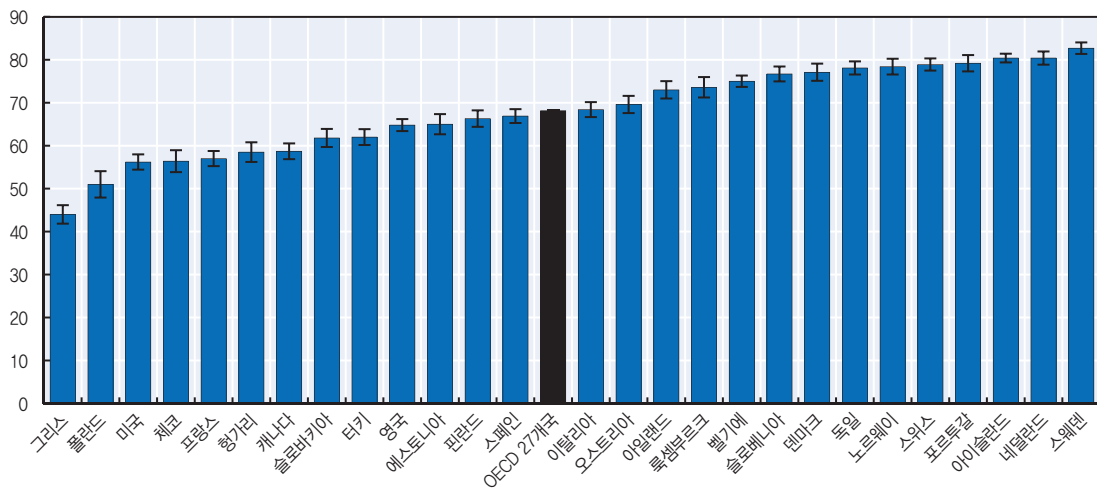
또래(peers)와 가족은 아동 웰빙의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Currie et al.(2012)은,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HBSC)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긍정적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심리적 불평거리를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는 등 긍정적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는 청소년은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고, 웰빙감이 높으며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발달에 가족의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지표들이 제시된다: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급우들이 있다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 학업에 의해 압박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 학교를 좋아한다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 PISA에서 계산한 “소속감 지수”, 부모와 대화가 용이한 학생의 비율, 기본적 보육 활동과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학교에서의 경험은 아동의 자존감, 자기 인식, 건강한 행동의 발달에 결정적일 수 있다. 학우의 지지는 사회 집단이나 생활환경(setting)에 대한 소속감을 증가시킨다(Currie et al., 2012). 학교에서의 또래 집단은 그러므로 아동의 웰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스웨덴의 아동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급우들이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그리스 아동들의 44%만이 자신의 급우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그림 4.24).

그림 4.24. 자신의 급우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고 말한 10대들

대부분의 급우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비율, 2010년



주: 급우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 남자 아이들 혹은 여자 아이들의 비율.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 2010,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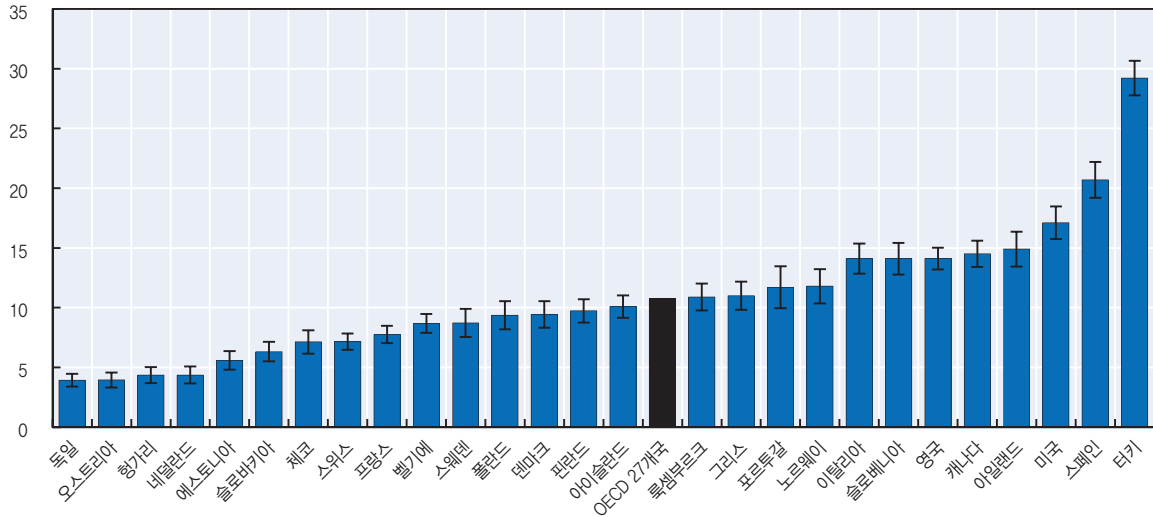
학업으로 인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건강, 위험 행동, 전반적 웰빙과 같은 비학습적 성과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Currie et al., 2012). 약간의 압박이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조사에서 11세, 13세, 15세 학생들은 해야만 하는 학업에 의해 어느 정도 압박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응답선택지는 “많다”에서부터 “전혀 없다”까지 주어진다. 여기 제시된 지표는 학업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느낀다고 보고한 학생들의 비율이다.

4. 아이들의 삶은 어떤가?

평균적으로 OECD 지역에서 10명 중 1명의 아동이 많은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한다(그림 4.25). OECD 전역에 걸친 차이는 커서 터키에서 거의 30%의 학생이 압박을 느끼는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4%만이 압박을 느낀다. 그러나 이 지표가 학업 압박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두 국가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제공 가능하지 않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¹⁵.

그림 4.25. 학업에 의한 압박을 느끼는 아동들

학업 때문에 많은 압박을 느낀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비율, 2010년



주: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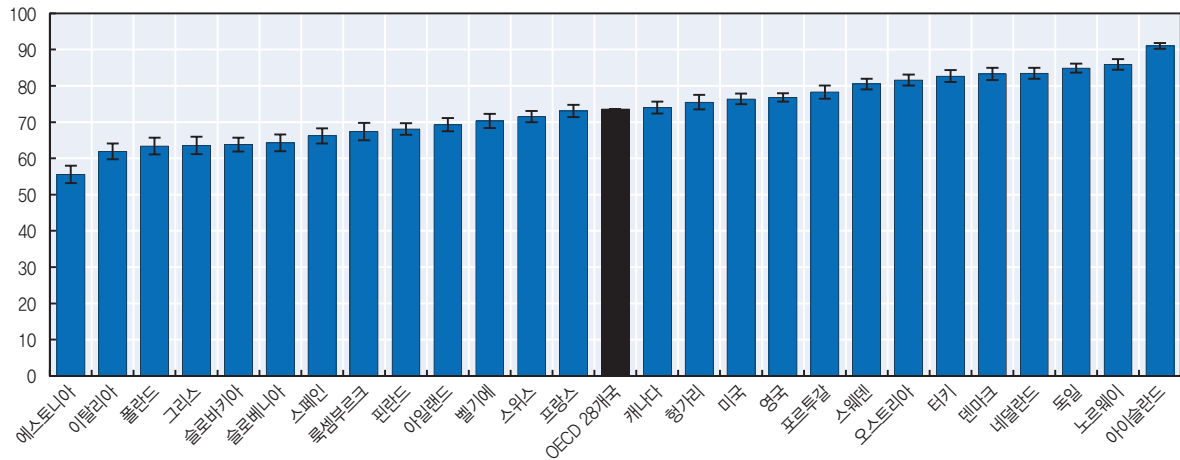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 2010,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16>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자존감, 자기 인식과 건강 행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거나 역으로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학교를 싫어하거나 학교와 연계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안 좋고, 중퇴를 하고,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Currie et al., 2012).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11세, 13세, 15세 학생들 4명 중 3명은 HBSC 2010 조사에서 학교를 좋아한다고 보고했다(그림 4.26). 아이슬란드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좋아하는 반면에 에스토니아의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한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림 4.26.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들

11세, 13세, 15세 아이들 중 학교를 좋아한다고 보고한 비율, 2010년



주: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 2010,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27>

학교 내 학생의 또 다른 웰빙 지표는 PISA “학교에 대한 소속감” 지수로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와 학우들과 얼마나 유대감을 느끼는지를 반영하다. 유대감 부족은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지각(perception), 삶에 대한 만족감,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에 악영향을 미친다(OECD, 2014c). PISA 2012 조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행복도와 만족감을 평가하여 학교의 환경이 자신들의 이상에 가까운지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다. 6가지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요약 “소속감” 지표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는데 이 지표는 OECD 지역 전체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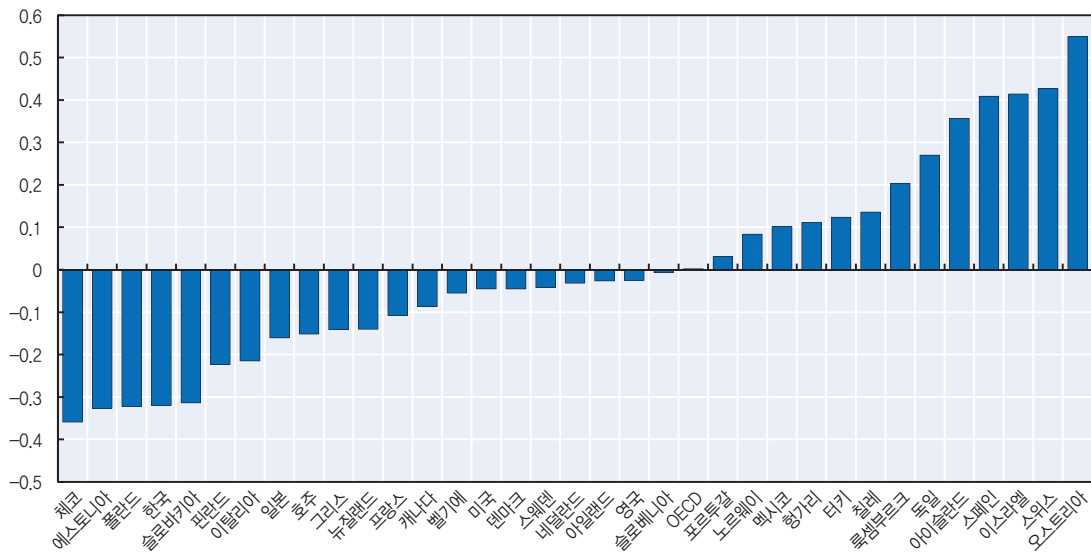
이 “소속감” 지표는 최고치인 오스트리아의 0.55에서 최저치인 체코의 -0.3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그림 4.27).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속감은 동부 유럽 국가들, 일본, 한국에서 낮은 반면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스페인에서 높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 지표는 PISA 읽기와 문제해결력 점수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4. 아이들의 삶은 어떤가?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더 중요하게는 시간의 질이 아동의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다(Monna and Gauthier, 2009). 연구는 또한 양쪽 부모의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부모가 아동과 보내는 시간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호주 아동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부모와 보내는 반면 한국 아동은 하루 1시간 미만을 부모와 보낸다(그림 4.28). OECD 지역에서 아동이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아빠와 보내는 시간의 2배 이상이다. 엄마는 상당한 부분의 신체적 돌봄과 감독을 하는 반면 아빠는 아동과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르치는 일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보낸다. 기본적 양육, 가르침,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부모가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노르딕 국가들, 캐나다, 미국에서 엄마와 아빠가 매우 비슷하다.

그림 4.27.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는 아이들

PISA 소속감 지표는 6개 항목에 대한 Rasch 척도에 근거함,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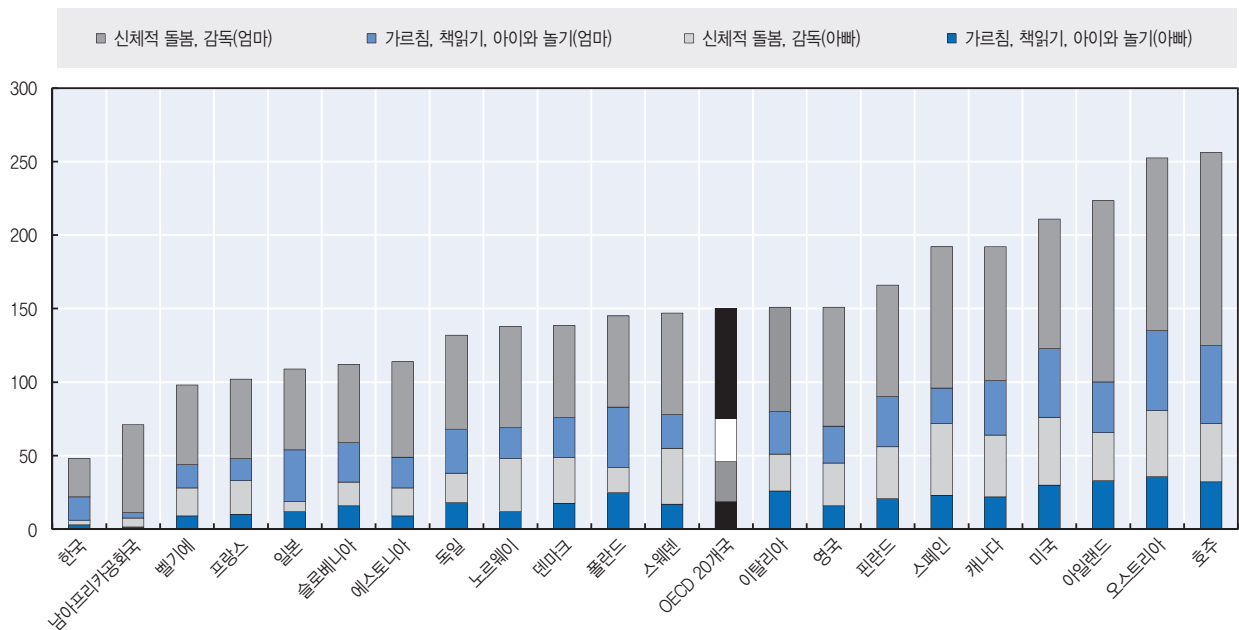
주: 6개 항목(나는 외부인(outsider) 같다,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나는 소속감이 느껴진다, 나는 어색하고 겉도는 느낌이다, 다른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외롭다)에 대한 Rasch 척도에 근거함. 지표는 모든 참가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됨.

출처: PISA 2012, OECD(2014c), PISA 2012 결과: 배울 준비가 된(Volume 3) 학생들의 참여, 동인, 자기 신뢰(Engagement, Drive and Self-Beliefs), <http://dx.doi.org/10.1787/1996378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31>

그림 4.28.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한 시간, 2013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자녀양육에 보낸 시간의 양으로, 응답자 스스로 생활시간 일지에 주된 활동(동시에 다른 활동은 하지 않음)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기본적인 자녀 양육에는 돌봄, 감독, 아동 수송 시간이 포함되나 아동 수송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아일랜드와 한국은 예외임. 데이터는 호주와 캐나다(15세 미만)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의 아이에 대한 돌봄을 말함. 아일랜드와 한국에 대한 데이터는 아동 통학(transporting)에 보낸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음. 데이터는 에스토니아의 경우 1999-20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00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의 경우 2000-2001년, 덴마크의 경우 2001년, 독일의 경우 2001-2002년, 폴란드의 경우 2003-2004년, 벨기에, 아일랜드의 경우 2005년, 일본의 경우 2006년, 호주,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09년, 한국의 경우 2009년,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2009-2010년, 캐나다의 경우 2010년, 미국의 경우 2013년이다.

출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조화로운 유럽 생활시간조사 웹 어플리케이션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s://www.h2.scb.se/tus/tus/>), 비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통계청에서 가져온 공공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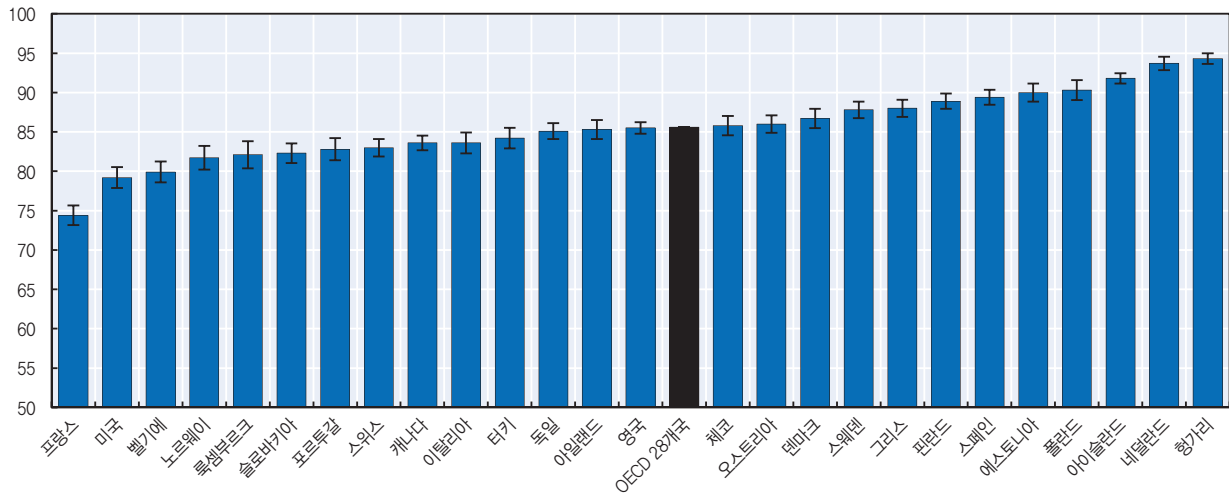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보호 요소로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가족의 지지는 아동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들로부터 완충장치(buffer)의 역할을 한다(Currie et al., 2012). 아동의 부모와의 관계는 엄마나 아빠와 쉽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학생들의 비율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헝가리와 네덜란드에서 부모 중 최소 한 명과 쉽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다(그림 4.29). 그러나 OECD 국가들 간 차이가 별로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80% 이상의 값을 가진다. 프랑스가 예외인데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이 양쪽 부모 중 최소 1명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한다.

개인적 안전

아동의 개인적 안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2개의 지표가 사용된다. 이 지표들은 0-19세 아동 중 고의적 상해(살인)에 의한 아동사망과 아동의 학교에서의 왕따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다. 왕따는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적대적인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동으로 정의된다. 왕따의 피해자들은 우울증, 걱정, 외로움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Currie et al., 2012). 이 두 지표가 개인적 안전과 관련된 요소들을 파악하는 반면에 연구는 또한 방치(neglect)와 다른 형태의 아동 피해는 발달적 측면과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아동 웰빙에 악영향을 미침을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 이 부분은 비교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여기서 고찰되지 않는다.

그림 4.29. 부모와 대화하기 쉽다고 응답한 10대들

양쪽 부모 중 최소 1명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율, 2010년



주: 어머니(의붓어머니) 혹은 아버지(의붓아버지)와 쉽게 대화한다고 응답한 11세, 13세, 15세 여자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의 비율.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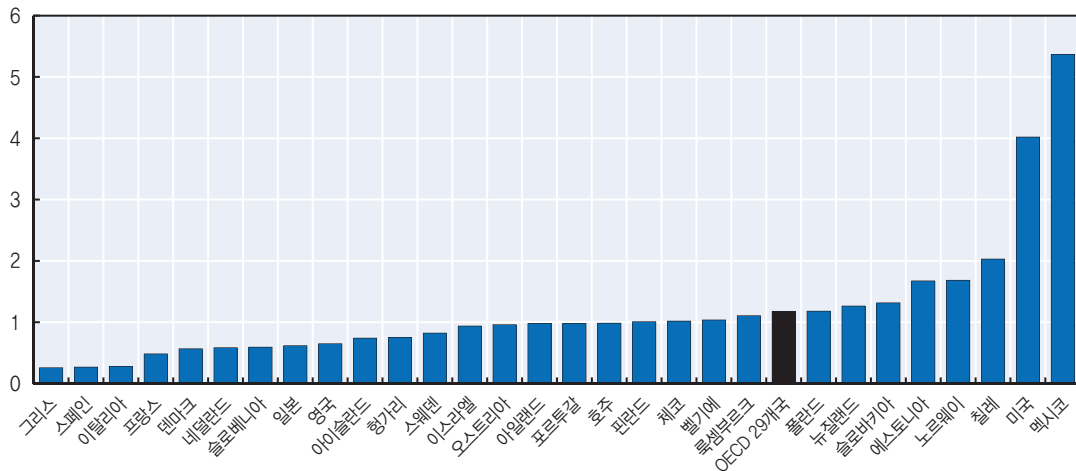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 2010,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57>

OECD 내에서 평균적으로 아동 살해율은 10만명당 1명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차이가 큰데 멕시코와 미국에서 아동 살해율은 다른 OECD 국가들의 2배 이상이다(그림 4.30). 살해율은 아동의 연령대와 가해자의 유형(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차이는 여기서 기록되지 않는다.

그림 4.30. 아동살해율

아동 10만명당 고의적 상해에 의한 사망률, 2011년경의 3년 평균



주: 비교 가능한 정의에 근거한 캐나다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 가능 하지 않음. 아동 살해율에 대한 국가 수치를 찾으려면 http://www.statcan.gc.ca/pub/85-002-x/2014001/article/14114/tbl/tbl31-eng.htm#tbl31n_1을 방문하십시오.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사망률 데이터베이스, www.who.int/healthinfo/statistics/mortality/en/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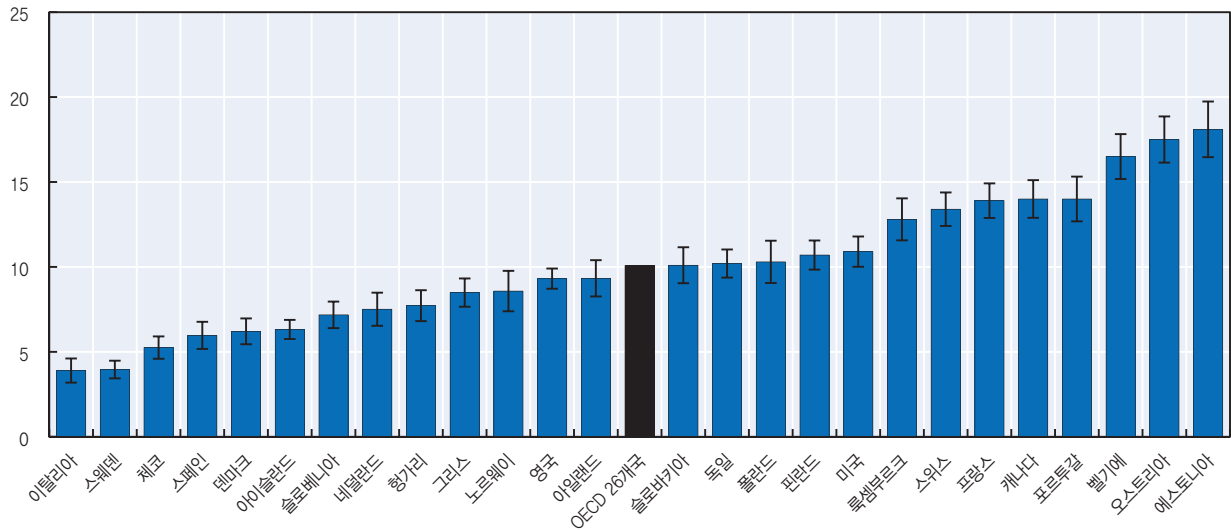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61>

그림 4.31에 보여진 지표에 대해 보면, 만약 다른 학생들이 한 학생에게 고약하고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다면 그 학생은 “왕따를 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거의 동일한 힘 또는 권력을 가진 두 학생이 말다툼을 하거나 싸울 때, 혹은 한 학생이 친근하고 장난조로 놀림을 당할 때는 이 정의에 의한 왕따를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지표는 또한 왕따를 학교에서 발생한 왕따를 가리키므로 점점 흔해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왕따는 배제한다. 앞에 언급한 정의에 근거하면, 학생들 사이의 왕따 발생률은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일부 OECD 국가에서 높은데 15% 이상의 10대 청소년들이 지난 2개월 동안 2회 이상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다(그림 4.31).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제공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면 OECD 전역에서 가장 왕따율이 낮다.

왕따를 당하는 것은 단지 현상의 일면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타인을 왕따시키는 것이 가해자 스스로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에 매우 위험스런 행동과 분열성 행동(disruptive behaviours) 중의 일부는 생애에 걸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아동들은 또한 가족이나 또래들과의 더 많은 단절감(disconnectedness)을 보고하며 성인이 되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Currie et al., 2012).

그림 4.31. 왕따를 당했다고 응답한 아이들

최근 2개월간 최소 2회의 왕따를 당했다고 응답한 아이들의 비율, 2010년



주: 최근 2개월간 학교에서 최소 2회의 왕따를 당했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비율.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 2010,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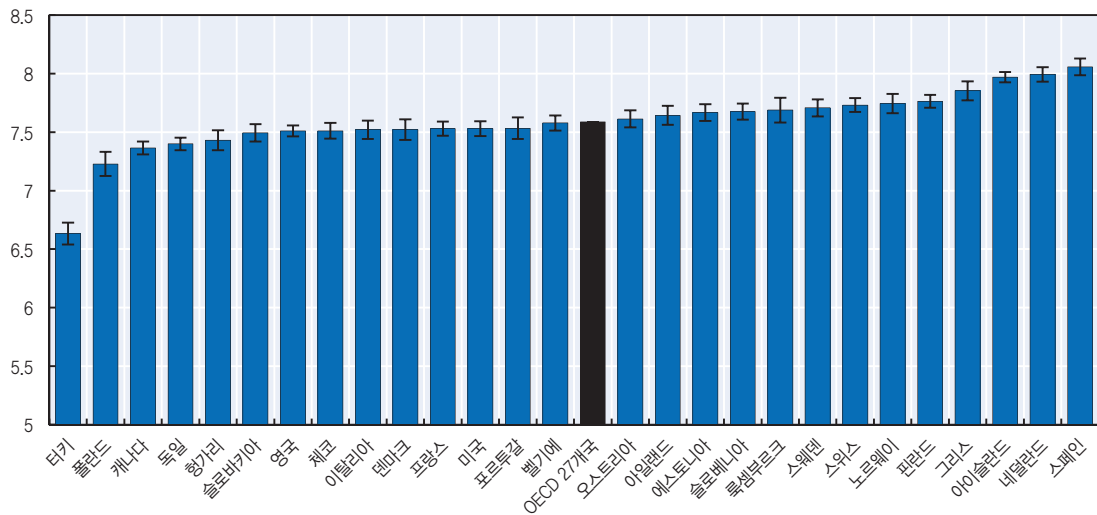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성인기에 더 많은 긍정적인 성과로 이끄는 사회적 역량 및 대처 능력과 연관되는 웰빙의 중요한 측면이다(Currie et al., 2012). 주관적 웰빙은 HBSC에서 11세, 13세, 15세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로서 측정되며, 아래에 보고된 측정치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10)과 가능한 최악의 삶(0)과 비교해서 현재 자신의 삶을 평가하도록 요구한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에 근거한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데이터는 개인적 평가에 근거하며 그러므로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국가별 비교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측정치에 근거하면 스페인,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의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가장 만족하는 반면(그림 4.32) 터키와 폴란드의 아동들이 가장 덜 만족한다. 흥미로운 것은 꺾임세계조사(제2장)에서 동일한 질문을 통해 측정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인의 성과가 아이들에 의해 보고된 성과와 매우 다르다는 점인데, 스페인과 덴마크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¹⁶ 전반적으로 OECD 평균점수는 성인이 아동보다 낮다.

그림 4.32. 아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0-10점(최고점) 기준 11세, 13세, 15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 2010년



주: 오차막대는 국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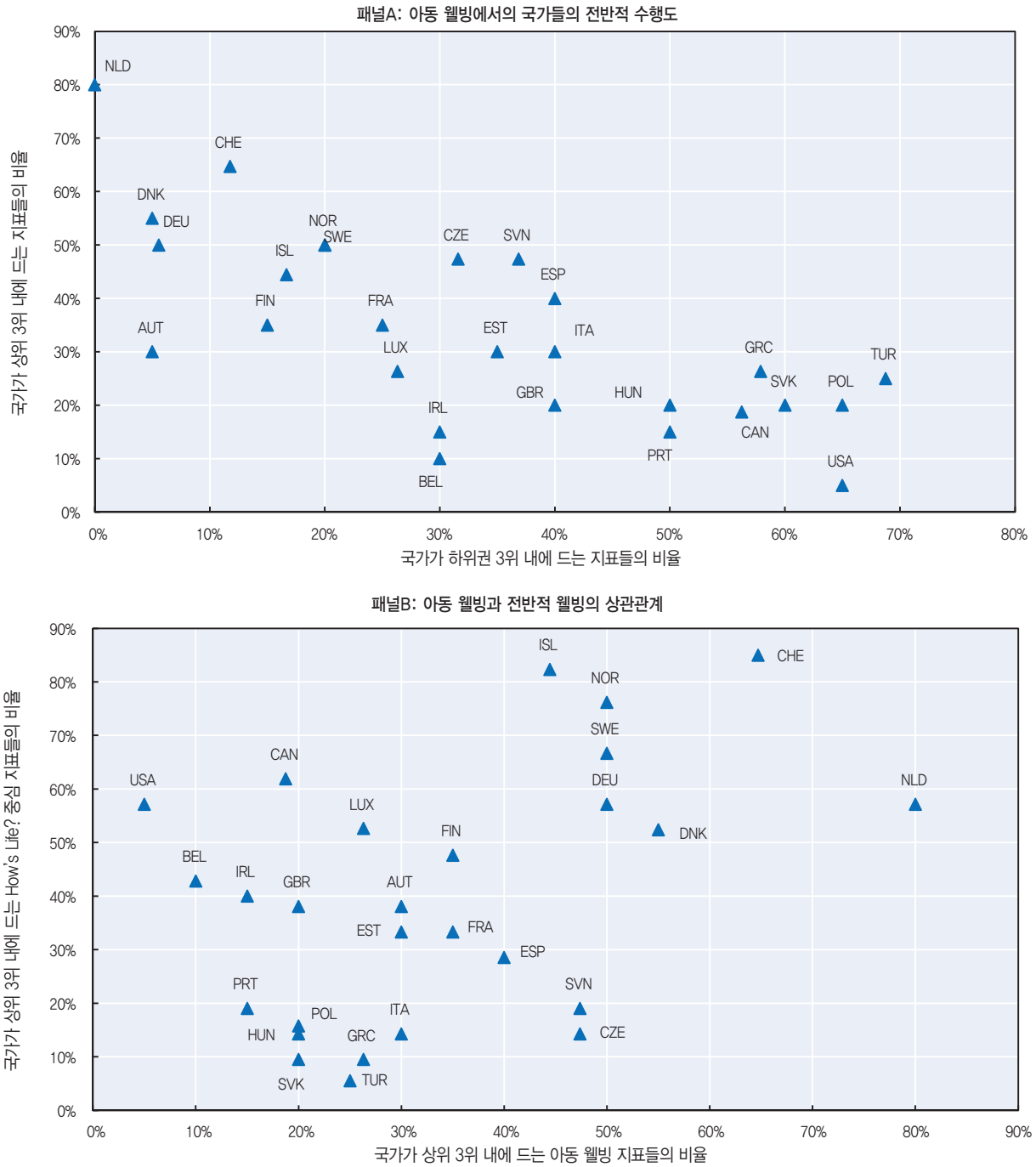
출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 2010,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80>**요약: 아이들 삶의 상태와 성인들 삶의 비교**

모든 점을 미루어볼 때 앞에서 제시된 증거자료는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아이들의 삶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영역들과 지표들의 경우에 국가들의 성과는 아동웰빙의 각기 다른 분야에 걸쳐 큰 차이가 있다. 전반적 아동 웰빙 성과에서 일부 국가의 패턴이 그림 4.33에서 보여지는데, 충분한 관측 숫자가 있는 지표들과 국가들만을 다룬 분석에 근거한다.¹⁷ 네덜란드가 최상의 수행도를 보여주는데 80%의 지표들에서 상위 3위 안에 들고 하위권 3위 안에 드는 지표는 없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역시 아동 웰빙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행도를 보여주는데 거의 50%의 지표들에서 상위 3위권이며 20% 미만의 지표들에서 하위권 3위 안에 든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폴란드, 터키는 대다수의 지표들에서 하위권 3위 안에 드는데 몇 개의 지표들에서만 상위 3위 안에 든다.

한 국가의 아동 웰빙에 대한 수행도는 제2장에서 보여진 How's Life? 중심 지표들에 의해 측정된 일반적 웰빙에 대한 수행도와 상관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지만, 그 상관관계가 완벽하지는 않다(그림 4.33, 패널 B). 예를 들면, 스위스는 일반적 웰빙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 웰빙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캐나다, 미국, 룩셈부르크는 아동 웰빙에서 보다 일반적 웰빙에서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슬로베니아와 체코에서 아동 웰빙의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 두 국가는 제2장에서의 How's Life? 지표들을 살펴보면 수행도가 그리 좋지 않다.

그림 4.33. OECD 전체 국가들의 아동 웰빙 개관



주: 패널 A는 y축에서 어떤 국가가 상위 3위 내에 드는 아동 웰빙 지표들의 비율, x축에서 하위권 3위 내에 드는 아동 웰빙 지표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본 장에 나타난 28개의 지표 중 20개 만이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루는 국가범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적은 수의 지표에서 다루진 국가들(15개 미만의 지표)은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다.

패널 B는 y축에서 어떤 국가가 상위 3위 내에 드는 How's Life? 21개 중심 지표들의 비율, x축에서 어떤 국가가 상위 3위 내에 드는 아동 웰빙 지표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제1장에 포함된 23개의 중심 지표 중 21개 만이 이 분석에서 사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루는 국가범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각선은 국가가 How's Life? 중심 지표들 또는 아동 웰빙 지표들로 평가될 때 동등하게 좋은 수행도를 보여줄을 의미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896>

이 결과들은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국가들의 수행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기준(threshold)과 표본에 포함된 국가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분석은 아동 웰빙이 성인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고 또는 성인 웰빙과 아동 웰빙의 상충관계(trade-off)를 유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 웰빙의 불평등

위에 설명된 모든 지표들은 같은 국가 내 다른 아동 집단들간의 성과에서 커다란 차이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분류기준이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안타깝게도 모든 지표들이 이 모든 특징들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OECD 데이터 베이스에서 가져온 대부분의 지표들은 분해될 수 없는 반면에, 조사에 기반한 지표들은 분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와 같은 조사는 데이터수집을 특정 연령의 아동으로 한정시키는데, 연령분류가 조사 응답자의 나이에 한정됨을 의미한다. 가구소득, 상대적 소득빈곤, 부모의 고용, 주택과 환경적 조건과 같은 가족에 기반한 지표들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과 가장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집단 간 가장 커다란 차이 중의 일부가 아래에 요약되었고 더 구체적인 정보는 온라인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박스 4.7).

박스 4.7. 아동 웰빙에서의 불평등: 데이터 제공 장소

이 섹션에 나타난 아동 웰빙 측면의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모든 데이터는 본 장에서 보이는 차트 밑에 나타난 해당 statlink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그림 4.32의 statlink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의 나이(가구 차원의 데이터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른 아동 웰빙의 가장 큰 차이점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노동시장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5세 미만 아동들은 실직 가구에 살 가능성이 더 높다. 어린 자녀들을 둔 가족은 대개 가정 내 공간이 더 좁다: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가구당 방 개수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데 소수의 국가는 예외이다. 전체 국가들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와 아동이 사는 가구 내 기본적 시설의 부재 사이에 확실한 연관관계는 없지만 일부 국가들에서 5세 이하의 아동들은 기본적 시설이 부재한 가구에 살 가능성이 높다. 나쁜 건강상태를 보고하는 아동의 비율이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에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비만 아동의 비율은 감소한다. 모든 OECD 국가들에서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반면에, 학업 압박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며 이와 비슷하게,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코호트(cohort)의 나이가 11세에서 15세 사이일 때 줄어든다.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 조사에 참가한 모든 국가들에서, 부모 중 한명과 의사소통 하는 것 역시 아동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학우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든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최근 2개월 간 학교에서 최소 2회 왕따를 당했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 아이들의 비율이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든다.

선택된 지표들 중 다수는 또한 성별에 의해 분석할 때 매우 차이가 크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보다 열악한 건강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정반대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보다

더 과체중일 가능성과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OECD 국가들에서 15세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읽기를 더 잘하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15세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수학,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인다. 미취업 상태이며 정규 교육 혹은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NEET) 청소년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국가들에서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이 상황에 처할 확률이 훨씬 높다. 전반적으로 여자 아이들이 교육적 결핍을 당할 확률이 약간 더 낮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엄마나 아빠와 대화하기 쉽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남자 아이들은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여자 아이들보다 왕따를 당할 확률이 높다.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연구(HBSC) 조사에 참가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남자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여자 아이들보다 높다. 동일한 조사에서 다뤄진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남자 아이들보다 더 많은 여자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한다고 보고한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여자 아이들보다 더 많은 남자 아이들이 고의적 상해에 의해 죽는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 이민배경*에 의해서 아동 웰빙을 분해할 때 발견되는 정형화된 주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실직 가정에 사는 아동들은 한 부모만 있는 가구에서 더 흔히 나타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이민 가정 출신¹⁸의 아동들은 실직 가구에 살고, 장기 실직 상태의 부모가 있고, 더 혼잡한 조건에서 살 가능성이 더 높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한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 상태를 보고할 확률이 더 높다.

가족이 부유(가구 내 보유 자동차 수, 휴가 일수, PC의 수, 아동의 침실 존재 여부에 의해 측정됨)할수록 모든 국가들에서 아동들의 더 높은 자가보고 건강상태(self-perceived health)와 연관이 된다. 가족의 부유함은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낮은 아동 과체중율 및 비만율과 연관된다. 모든 국가들에서 높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가진 부모를 둔 아동들이 읽기와 문제해결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높은 교육적 결핍률과 연관이 있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학생들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교육적 결핍의 격차는 교육적으로 결핍된 아동의 전반적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가장 크다. 양쪽 부모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높은 결핍률과 연관이 되는 반면, 이민출신 배경과의 연관성은 OECD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투표할 의향이 있는 10대청소년의 비율은 모든 조사 참여 국가들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본국태생이 아닌(non-native) 아동들은 투표할 의향이 낮다. 시민 참여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본국태생이 아닌(non-native) 10대들은 시민 참여를 덜 한다. 그러나 몇몇 OECD 국가들에서 본국태생이 아닌(non-native) 아동들이 청소년 조직 혹은 단체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덜 부유한 가정의 아동들이 학업에 의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학교를 좋아한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낮다. 학교를 좋아할 가능성과 학교에서의 소속감은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와의 대화를 더 쉽게 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급우들이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2개월간 학교에서 최소 2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11세, 13세, 15세 아이들의 비율은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가족이 더 부유할수록 감소한다. 가족의 부유함 척도에서 하위 3분의 1에 속한 11세, 13세, 15세 아이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 상위 3분의 1에 속한 아이들보다 낮다.

아동 웰빙에 대한 향후 통계적 과제

아동 웰빙을 측정하려는 이전 OECD의 노력에서와 같이, 본 장에서 제시된 분석에는 제한점들이 있다. 한 가지 근본적 문제는 프레임 워크(그리고 사용된 지표들)가 아동 웰빙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사전 개념화(ex ante conceptualization)에 근거하지 않고 대단히 데이터 중심적(data-driven)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아동 웰빙과 관련된 사전 개념화(ex ante conceptualization)의 목적을 위해 수집되었다. 기존의 어떤 조사도 모든 연령 집단들과 모든 OECD 국가들의 아동 웰빙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장은 가능한 데이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해 선택된 개념들이 운용되는 방법과 다루어진 아동들의 연령대에서의 갭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¹⁹

또한 섹션 4.2.3에서 강조된 대로, 아동 또는 가구에 관한 모든 조사는, 특히 학교에 기반한 (school-based)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숙(homelessness), 기관입소(institutionalization), 열악한 건강 혹은 특수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많이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들이 모든 아동에 대한 완전한 대표성을 띠는 것이 아니며, 국가별 그리고 년도별로 다양한 정도의 편향(bias)을 보일 수 있다 (Richardson and Ali, 2014).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는 횡단면적 수집(cross-sectional collections)에서 가져온다. 이는 어떻게 다양한 성과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인과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한 영역의 웰빙이 다른 영역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떻게 정책적 개입이 특정 코호트(cohort)의 웰빙의 추이를 결정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아동 웰빙의 종단면적(longitudinal)이며 목적 중심적(purpose-built) 조사들이 좀 더 널리 활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 정책이 여러 시기에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풀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성과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본 장은 가능한 최상의 데이터에 의존했지만, 추가적 통계 작업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또한 강조했다. Richardson and Ali(2014)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웰빙의 감시를 위한 통계적 과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주요 우선순위들은 다음과 같다.

- 연령 관련 지표들(9세 미만의 아동들은 비교아동조사 데이터에서 빠짐)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아동 웰빙 영역들의 측면에서, 아동 웰빙 측정의 갭(gaps)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일부 조사 데이터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미 입수가 가능하지만(알코올과 기타 약물에 관한 유럽학교조사 프로젝트(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ESPAD) 조사에서 가져온 정신 건강에 관한 데이터²⁰ 등), 비유럽 국가들의 경우 새로운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조사에 대한 조정 또는 추가를 함으로써, 혹은 보완적인 학교 밖 조사를 포함). 우선개입집단들(priority intervention groups)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동 웰빙에서의 불평등과 관련된 더 많은 지표들이 또한 필요하다.
- 주요 국제 조사들 간에 데이터 수집을 조율하기(harmonize)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웰빙 지표들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수월하게 하고 정책을 위한 새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한 가지 이상의 조사에 공동작업을 하는 기금제공 단체들이나 정부 기관들이 이러한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 입수 가능 데이터의 조율(harmonization)이 가능하지 않거나 그 조율이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정책에 제공할 적절한 정보를 생산하지 않는다면(연령 범위에 대한 제한과 위험집단(at-risk groups) 아동을 고려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될 것임), 아동 웰빙의 종단면적 데이터세트(longitudinal datasets)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수의 코호트(cohorts)가 있는 종단면적 데이터세트는 감시와 정책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현재, 웰빙 영역간의 파급 효과(spill-over)를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부족은 최적의 아동정책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것을 제한한다(OECD, 2009).

주

1. 가족 상황과 아동의 초기 경험은 나중의 삶에서 교육성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부모의 고용과 근로소득(Machin, 1998), 아동기 빈곤(Bladnen and Gregg, 2004), 부모의 경제적 지위(인지 능력(cognitive skills)에 대한 통제 후, Bukodi et al., 2014), 여가와 신체적 활동(Dregan and Gulliford, 2013), 왕따(Brown and Taylor, 2008)는 나중의 삶에서 교육적 성과와 모두 연관됨을 증거자료가 보여준다. 다른 연구들은 부모의 자원(Faas et al., 2012), 부모의 투옥(Miller et al., 2105)과 알코올 소비(Balsa et al., 2011)가 아동의 교육 이수율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그리고 일부의 경우에 정신건강 및 복지 의존을 경험할 가능성과 연관됨). 추가적 연구들은 어떻게 어머니의 교육 이수율이 임신기 건강 행동과 영아의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개입되는지(Conti et al., 2012), 그리고 가족 불안정성(family instability)과 아동 행동에 개입되는지(Fomby, 2012)를 보여준다. 아동기의 교육적 성과가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 역시 잘 정립되었다. 코호트(birth cohort) 연구들은 영국에서 교육적 성과(아동기 인지 능력과 교육 이수율 등)는 직업적 성과(Cheng and Furnham, 2012)와 성인이 되어서의 정신적 웰빙(Cheng and Schoon, 2013)과 연관됨을 보여준다. 연구는 또한 교육적 요소들(이수율, 출석, 열망)이 흡연(Maralani, 2014)과 알코올 사용(Crosnoe, 2006)과 같은 건강행동들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2. 개념적으로, 이 연구들은 아동 웰빙을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측면들 혹은 영역들로 이루어진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취급한다. 이 연구들은 종종 동일한 영역과 연관된 모든 지표들을 합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영역들과 관련된 변수들을 결합하여 단일 아동 웰빙 점수로 만드는데 이때 표준화된 척도(예: z-스코어)의 평균을 사용한다. 종합 지표들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동일가중치(equal weight)를 적용한다(영역 내 그리고 영역별).
3.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정부들에게 아동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절한 삶의 기준을 갖도록 보장할 것을 위임하고, 특히 “궁핍한(in need)” 아동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 교육에 접근하도록 하며(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제29조 a), 적절한 주거 환경(제27.3조)을 보장받고, 아동들의 생존과 신체적 발달을 보장하고(제6조), 건강과 안전을 제공하고, 아동들의 돌봄과 보호를 제공할 기관, 서비스와 시설을 개발할 것(제3.3)을 위임한다.
4. *Doing Better for Children*에서 논의된 지표들의 선정에 대한 일부 추가적 기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본 장은 효율성과 공평성 고려사항들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목적을 둔 지표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Doing Better for Children*에서 지표들의 선정을 주도한 또 다른 기준은 “정책에 부합하는” 지표들 즉, 정책적 평가에 적절하고 공공기관(부모나 자녀들 스스로가 아닌)의 책임 영역에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표들에 한정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웰빙 성과들을 살펴보고자한 본 장에서 선택(공공 정책 영역 내 속한 성과들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은 성인기와 아동기 웰빙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법에 기반한 가장 최근의 연구들(UNICEF(2013) 등)과 일맥 상통한다.
5. 이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아동을 규정한 유엔의 정의가 본 장에서 사용됨을 의미한다.
6. 예를 들어, Richardson and Ali(2014)는 무응답률은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음을 보여준다.

7.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에 근거한 수치들은 해당 유럽통계청 수치들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Housing_statistics)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유럽통계청 방법론과 대조적으로 이 보고서는 아동 체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 유럽 국가들에서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비유럽 국가들의 해당 조사는 아동 체중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아동 체중의 사용은 아동이 가구의 가장일 때 관련된 통계인구에서 배제된다는 가정(assumption)을 근거로 한다. 본 장은 이 가정을 활용하지 않으며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정의에 따라, 가구에서 그들의 역할과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아동으로 간주한다.
8.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표들은 거실을 포함한 가구에서 사용 가능한 방의 숫자에 근거하며,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에서 가져오는데, 호주, 칠레, 멕시코, 미국의 경우 지표들은 침실의 숫자에만 근거하고 출처는 호주 가구소득노동통계(HILDA), 멕시코 가구소득 및 지출조사(ENIGH), 칠레 사회경제국가적 특징조사(CASEN), 미국지역사회조사(ACS)이다(그림 4.6 주석 참조)이다.
9.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지표는 다세대(multigenerational) 가구들 내(즉,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 함께 쓰는 위생 시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세대(multigenerational) 가구들 내 함께 쓰는 위생 시설을 고려하면, 수세식 화장실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헝가리(즉, 7.4% vs 10.2%)와 아일랜드(즉, 1.9% vs 9.9%)에서 모두 낮아진다.
10. 캐나다와 미국에서 조산아(premature births)는 출생아(live births)로 등록된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영아사망률과 출생시 저체중의 수치들을 의미하는데 유럽 국가들에서 출생아는 최소 임신주수(minimum gestational age)의 충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OECD, 2009).
11. PISA 읽기 숙달도 척도는 2000년에 시행된 최초의 PISA 읽기 평가에서 OECD 국가 평균 500점, 표준 편차 100이 되도록 설정되었다. 2012년에, OECD 국가들의 평균은 496이고 표준편차는 94였다.
12. OECD 국제성인능력측정조사(PIAAC)는 노동 시장에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발견한다(OECD, 2014b).
13. 읽기 점수와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력점수도 OECD 평균 500점이 되도록 설정되었는데 OECD 국가들 전체에서 약 3분의 2의 학생들이 400에서 600점을 받는다.
14. 문제해결력 시험은 PISA 참가국의 선택사항이다.
15. 예를 보려면 OECD 2014c와 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japan.pdf. 참조.
16. 스페인 아동들은 스페인 성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는데, 반면에 덴마크의 성인들은 아동들보다 약간 높은 평균적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고한다.
17. 분석은 아동웰빙 측면에서 국가들의 전반적 수행도를 살펴보는데, 본 장에서 사용된 지표들에서 좋은 수행도를 기록(국가들 중 상위 3위권)한 비율과 좋지 않은 수행도를 기록(국가들 중 하위 3위권)한 지표들의 비율을 고려한다.

18. 이민자 지위(migrant status)에 의한 아동 웰빙에 관한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본 장에서 사용된 가구조사는 제한된 범위의 이민자들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19. 예를 들어, 행정적 출처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경우, 지표들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통 불가능한데, 예컨대 출생체중과 아동 살해율에 관한 지표의 경우, 연령 혹은 사회·경제적 특징에 의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경우, 정보는 대체로 특정 나이(PISA의 경우 15세, HBSC의 경우 11세, 13세, 15세)와 특정 측면(PISA에서 역량, HBSC에서 건강과 행동)에 국한되므로, 아동보호 또는 유기, 아동의 녹색 공간에 대한 접근성, 혹은 생활시간과 같은 다른 중요한 측면들이 누락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한점들은, 예컨대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교육적 성과 또는 미취학아동의 건강 성과와 같은 정보의 결핍을 초래한다.
20. 알코올과 기타 약물에 관한 유럽 학교 조사 프로젝트(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ESPAD)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과 다른 14개의 비 OECD 국가들을 다룬다. ESPAD는 통합, 심리적 문제, 대마초 사용과 알코올 사용, 담배, 약물 문제들을 다룬다. 데이터는 조사 년도에 16세가 된 학생들에게 시행한 표준화된 학교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다.

참고 문헌

- Ben-Arieh, A., N.H. Kaufman, A.B. Andrews, R.M. George, B.J. Lee and J.L. Aber (2001), *Measuring and Monitoring Children's Well-being*, Springer Publishing, The Netherlands.
- Ben-Arieh, A. and I. Frønes (2007), "Indicators of Children's Well being: What should be Measured and Wh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4, pp. 249-250.
- Blanden, J. and P. Gregg (2004), *Family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 A Review of Approaches and Evidence for Britain*, Discussion Paper No.41, London: Centre for the Economics of Education.
- Bradshaw, J., P. Hoelscher and D. Richardson (2007),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 (1), pp. 133-77.
- Bradshaw, J. and D. Richardson (2009),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Child Indicators Research*, Vol. 2, No. 3, pp. 319-35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S. and K. Taylor (2008), Bullying, education and earnings: Evidence from the National Child Development Surve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7 (4), pp. 387-401.
- Bukodi, E., R. Erikson and J.H. Goldthorpe (2014), The effects of social origins and cognitive ability on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Britain and Sweden. *Acta Sociologica*, 57(4), pp. 293-310.

- Carcillo, S., R. Fernandez, S. Konigs and A. Minea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4.
- Casas, F. (1997), “Children’s Rights and Children’s Quality of Life: Conceptual and Practical Issu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42, pp. 283-298.
- Case A., A. Fertig and C. Paxson (2005), “The lasting impact of Childhood Health and Circumstanc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Vol. 24, No. 2, pp. 365-89.
- Cheng, H. and A. Furnham (2012), Childhood cognitive ability, education, and personality traits predict attainment in adult occupational prestige over 17 yea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81(2), pp. 218-226.
- Cheng, H. and I. Schoon (2013), The Role Of School Engagement in Young People’s Career Development and Mental Well-Being: Findings from Two British Cohorts. In H. Helve and K. Evans (ed.), *Youth, and Work Transitions in Changing Social Landscapes*. London: Tufnell Press.
- Conti, G., J. Heckman, P. Pinger and A. Zanolini (2012), *Transmission of Inequality: Maternal skills, Behavior and Birth Outcomes*. EEA/ESEM Conference, Malaga, 27-31 August 2012.
- Crosnoe, R. (2006), The Connection Between Academic Failure and Adolescent Drinking in Secondary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79(1), pp. 44-60.
- Currie, C., C. Zanotti, A. Morgan, D. Currie, M. de Looze, C. Roberts, O. Samdal, O.R.F. Smith and V. Barnekow (2012),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9/2010 survey.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o. 6).
- Dregan, A and M.C. Gulliford (2013),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over the Life Course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Late Mid-Adult Years: A Cohort-Based Investigation”, *Psychological Medicine*, 43(11), pp. 2447-2458.
- European Commission (2008), *Child poverty and well-being in the EU: Current status and way forward*, Social Protection Committe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http://www.libertysecurity.org/IMG/pdf_ke3008251_en.pdf.
- Griffiths, L.J., T.J. Parsons and A.J. Hill (2010),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in obese children and adolescent: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Obesity*, 2010, Vol. 11, No. 12, pp. 835-846
- Hack, M., N.K. Klein and H.G. Taylor (1995), “Long-term developmental outcome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Future Child* 1995 Spring; Vol. 5, No. 1, pp. 176-96.
- Faas, C., M.J. Benson and C.E. Kaestle (2012), “Parent Resources during Adolescence: Effects on Education and Career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16(2), pp. 151-171.

- Fomby, P. (2012), “Family Instability and School Readiness in the United Kingdom”, *Family Science*, 2(3), pp. 171-185.
- Machin, S. (1998), Childhood Disadvantage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s of Economic Status, in ‘*Exclusion, Employment and Opportunity*’ Atkinson, A.B., J. Hills (eds), LSE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Maralani, V. (2014),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Education and Smoking”, *Social Science Research*, 48, pp. 20-34.
- Miller, H.V. and J.C. Barnes (2015),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Incarceration and Health, Education, and Economic Outcomes in Young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pp. 1-20.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59344-en>
-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8732-en>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4a), *PISA 2012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Volume I)*, Revised edition, Februar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8780-en>.
- OECD (2014b), *PISA 2012 Results: Creative Problem Solving (Volume V), Students’ Skills in Tackling Real-Life Problem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8070-en>.
- OECD (2014c), *PISA 2012 Results: Ready to Learn (Volume III) Students’ Engagement, Drive and Self-Belief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170-en>.
- OECD (2015a), *OECD Population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OP_FIVE_HIST#.
- OECD (2015b), *Inter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Skills Development in Cities*, www.oecd.org/edu/ceri/internationallongitudinalstudyofskillsdevelopmentincities.htm.
- OECD (2015c), *Integrating the Delivery of Social Service for Vulnerable Groups*, forthcoming,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d), *OECD Family Databas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e), *Tackling Harmful Alcohol Use: Economics and Public Health Policy*,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81069-en>.
- ONS (2012),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Children’s Well-being 2012*, www.ons.gov.uk/ons/dcp171766_283988.pdf.

- ONS (2014),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Exploring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the UK, 2014*, www.ons.gov.uk/ons/dcp171776_379712.pdf.
- Pollard, E. and P. Lee (2003), “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61, pp. 59-78.
- Richardson, D., P. Hoelscher and J. Bradshaw (2008), “Child Well-be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Child Indicators Research*, Vol. 1, pp. 211-250.
- Richardson, D. and N. Ali (201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Surveys of Childr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4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zmjrqvntf-en>.
- Rychen, D.S. and L.H. Salganik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 Huber Publishers.
- Save The Children (2012), *The Child Development Index 2012, Progress, Challenges and Inequality*, Save The Children, London, www.savethechildren.org.uk/sites/default/files/docs/Child_Development_Index_2012_UK_low_res.pdf. Accessed October 2012.
- Save the Children (2008), *The Child Development Index: Holding Governments to account for children’s wellbeing*, Save The Children, London, www.savethechildren.org.uk/sites/default/files/docs/Child_Development_Index%281%29_1.pdf. Accessed October 2012.
- Scarpetta, S., A. Sonnet and T. Manfredi (2010), “Rising Youth Unemployment During The Crisis: How to Prevent Negative Long-term Consequences on a Generatio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06, OECD Publishing, Paris.
- Singh, A.S., C. Mulder, J.W. Twisk, W. van Mechelen and M. J. Chinapaw, “Tracking of childhood overweight into adulthood: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besity Review*, Vol. 9, No. 5, pp. 474-488.
- Tarki (2010), *Child Poverty and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Tarki Social Research Institute, Budapest.
- UNCRC (199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New York, www.unhchr.ch/html/menu3/b/k2crc.htm.
- UNICEF (2014), *Children of the Recession: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1, UNICEF, Florence.
- WHO (2005), *Air Quality Guidelines, Global Update 2005*. World Health Organis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Copenhagen, Denmark.
- WHO (2002), *The World Health Report 2002 - Reducing risks, promoting healthy lif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본 장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http://ec.europa.eu/eurostat/help/new-eurostat-website> (accessed on 17 July 2015).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tudy, www.hbsc.org/ (accessed on 17 July 2015).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http://iccs.acer.edu.au> (accessed on 17 July 2015).

OECD Population database,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accessed on 17 July 2015).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accessed on 17 July 2015).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dx.doi.org/10.1787/socwel-data-en> (accessed on 17 July 2015).

WHO Mortality Database, www.who.int/healthinfo/statistics/mortality/en/index/html (accessed on 17 July 201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n 17 July 2015).

부록4.A

아동웰빙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영역들과 지표들에 대한 개관

표 4.A.1. 아동 웰빙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영역들과 지표들에 대한 개관

	유니다차원 지표 (Bradshaw et al., 2007 and 2009) ¹	유니세프 보고서 카드 7(2007)과 9(2010) ¹	CEE CIS 지수 (Richardson et al., 2008)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2009)	Save the children (2008 and 2012) ¹	유럽집행위원회 아동빈곤과 웰빙 (2008) ²	유럽집행위원회 TARKE(2010)	미상무부 (Hobbs and Lippman, 1990) ³	OECD Family Database (2007년 이래)	
건강과 안전	출생시부터 아동 건강 (영아사망률, 출생시 체중) 건강 행동(과체중, 영양 x 2, 신체적 활동; 체질량지수(BMI), 사망률 (모두, 0-19세) 자살률) 예방접종(총역, DPT3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3회), 소아마비)	출생시부터 아동 건강 (영아사망률, 출생시 체중) 건강 행동(영양 x 2와 [dist., 2010]; 신체적 활동[dist., 2010]; BMI); 건강상 문제(병적 상태 [dist., 2010]; 사망률 (모두, 0-19세) 예방접종 (총역 DPT3(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3회), 소아마비)	출생시부터 아동 건강 (영아사망률, 출생시 체중, 모유수유 x 2, 사망률(5세 미만, 우발적 예방접종(총역, DPT3, 소아마비), 건강상 문제 (병적 상태, 호흡기; 병적상태, 설사, 자과; 성장지하; 저체중; 소모성 질환), 건강 행동(영양; 신체적 활동)	출생시부터 아동 건강(출생시 체중, 영아사망률, 모유 수유), 건강행동(신체적 활동), 사망률(모두, 0-19세; 자살), 예방접종(백일해, 홍역)	건강상 문제(BMI); 사망률 (6세 미만)	출생시부터 아동 건강 (모유수유;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출생시 체중); 건강행동(영양, 아침식사; 영양 -하루 5; 치과적 x 2; 신체적 활동 x 2); 건강 문제(BMI)와 ; 정신건강; 병적상태-만성적; 병적상태-감염성); 사망률(자살)과 지해(10-24세); 예방접종C	출생시부터 아동건강 (에이즈 감염; 영아사망률 x 2(첫날 사망률 포함); 출생시 체중); 건강상 문제(병적상태; 당뇨병과 천식; BMI); 사망률(자살) 예방접종	출생시부터 아동건강 (에이즈 감염; 영아사망률 x 2(첫날 사망률 포함); 출생시 체중); 건강상 문제(병적상태; 당뇨병과 천식; BMI); 사망률(자살) 예방접종	출생시부터 아동건강 (모유수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출생시 체중); 건강상 문제(병적상태; 당뇨병과 천식; BMI); 사망률(자살) 예방접종	출생시부터 아동건강 (모유수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출생시 체중); 건강상 문제(병적상태; 당뇨병과 천식; BMI); 사망률(자살) 예방접종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삶; 포레 x 3(2007); 건강)	주관적 웰빙 (건강; 삶; 포레 x 3)	주관적 웰빙 (건강; 삶; 포레 x 3)	주관적 웰빙 (건강; 학교안전; x 2)	주관적 웰빙 (건강; 학교안전; x 2)	주관적 웰빙 (건강; 학교안전; x 2)	주관적 웰빙 (삶)	주관적 웰빙 (삶)	주관적 웰빙 (삶)	
개인의 가족 및 또래와의 관계	가족 관계(어머니, 2009; 아버지, 2009) 또래 관계 (급우)	가족 관계(식사; 대화); 또래 관계	가족 관계(x 2); 또래 관계(x 2)	가족 관계(x 2); 또래 관계(x 2)	가족 관계(x 2); 또래 관계(x 2)	가족 관계(x 2); 또래 관계(x 2)	가족 관계(x 2); 또래 관계(x 2)	가족 관계(x 2); 또래 관계(x 2)	가족 관계(x 2); 또래 관계(x 2)	
물질적 웰빙과 경제적 안전	소득 빈곤(상대적; 격차); 결핍(가구 x 2(one in 2009); 교육 물품); 경제적 압박(2009); 실질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dist., 2010); 소득 빈곤 (상대적; 가구 x 2; 교육 물품과(dist., 2010)); 실질 가구	소득 빈곤(절대적); 결핍(교육 물품 x 2;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소득 빈곤(상대적); 결핍(교육 물품)	소득 빈곤(상대적); 상대적 격차; 지속적; 근로빈곤; 고차원; 최저소득 기준; 절대적); 실질 가구(x 2); 경제적 압박; 결핍(교육 물품; 환경; 가구; 학교 밖 ICT; 서비스 x 2; 서비스; 돌봄 서비스)	소득 빈곤(상대적); 상대적 격차; 지속적; 근로빈곤; 고차원; 최저소득 기준; 절대적); 실질 가구(x 2); 경제적 압박; 결핍(교육 물품; 환경; 가구; 학교 밖 ICT; 서비스 x 2; 서비스; 돌봄 서비스)	소득 빈곤(상대적 x 2); 결핍(교육 물품; 가구 x 2 (극심한 형태 포함) (transfer)	평균가처분소득; 소득 빈곤(상대적) 소득; 빈약한 이전소득 (transfer)	평균가처분소득; 소득 빈곤(상대적) 소득; 빈약한 이전소득 (transfer)	

표 4.A.1. 아동웰빙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영역들과 지표들에 대한 개관(계속)

유리다차원 지표 (Braudshaw et al., 2007 and 2009) ¹	유니세프 보고서 카드 7(2007)과 9(2010) ¹	CEE CIS 지수 (Richardson et al., 2008)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2009)	Save the Children (2008 and 2012) ¹	유럽집행위원회 아동빈곤과 웰빙 (2008) ²	유럽집행위원회 TARKE(2010)	미상무부 (Hobbs and Lippman, 1990) ³	OECD Family Database (2007년 이래)
교육적 웰빙	교육적 성취도 (읽기, 수학, 과학), 교육 참여(청소년), 열망(2007)	교육적 성취도 (읽기, 수학, 과학), 교육 참여(학생,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적 성취도(평균 문자 해독률, 분포)	교육 참여(중등학교)	교육적 성취도(읽기 능력, 문자해독률 ^a (dist.), 교육적 성취도(중퇴자 ^b), 중학교 낙제율, 고등학교 학업이수율, 고등학교 낙제율), 교육 참여(문단결속)	교육적 성취도 (10세 문자해독율, 15세 문자해독율)	교육 참여, 교육 이수율 (x 2)	교육 이수율 (선여, 년수, 졸업률), 교육적 성취도 (10세 문자해독율, 15세 문자해독율)
행동과 위험	위험 행동(흡연, 알코올, 마약, 대마초, 마약, 흡입제, 2007), 성적 건강 (출산율 15-19세, 안전한 성), 15세 미만의 성 활동상, 안전한 성, 15세 미만의 성 활동상, 폭력과 난폭한 행동 (싸움, 양따당함) 행동 (싸움, 양따시킴)	범죄(청소년 범죄율), 위험 행동 (흡연, 알코올, 마약 x 2), 성적 건강 (출산율 15-19세), 안전한 성 x 3, 15세 미만의 성 활동상), 폭력과 난폭한 행동(양따당함 x 2)	위험 행동(흡연, 알코올), 성적 건강 (출산율 15-19세), 폭력과 난폭한 행동 (양따당함)	위험 행동(흡연, 알코올)	범죄(재공된 마약, 범행; 피해자), 위험 행동(사고 x 2 ^a ; 알코올; 흡연 x 3; 마약), 성적 건강 (인신 15-19세, 출산율 15-19세), 폭력과 난폭한 행동(양따 당함; 양따 경험)	위험 행동(흡연, 알코올 x 2; 마약, 불법; 마약-의료용)	성적 건강(년태 15-24세; 임신 15-19세; 출산율 15-19세); 폭력과 난폭한 행동(사망률)	성적 건강(년태 15-24세; 임신 15-19세; 출산율 15-19세); 폭력과 난폭한 행동(사망률)
주태과 지역 환경	환경(범죄; 오염, 등, 2009), 주태 문제, 흡입도	흡입도 (dist., 2010) (위생; 물)	흡입도, 환경(오염 등)	환경(기후; 오염, 등; 놀이 공간^a, 활동 공간), 주태 문제 (인락함; 기본 표준), 흡입도 (공간; 자녀의 비율; 자기 반 ^a % x 2)	환경(기후; 오염, 등; 놀이 공간^a, 활동 공간), 주태 문제 (인락함; 기본 표준), 흡입도 (공간; 자녀의 비율; 자기 반 ^a % x 2)			

표 4.A.1 아동 웰빙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영역들과 지표들에 대한 개관(계속)

유럽다차원 지표 (Bradshaw et al. 2007 and 2009) ¹	유니세프 보고서 카드 7(2007)과 9(2010) ¹	CEE OS 지수 (Richardson et al., 2008)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2009)	Save the Children (2008 and 2012) ¹	유럽집행위원회 아동빈곤과 웰빙 (2008) ²	유럽집행위원회 TARKE(2010)	미상무부 (Hobbs and Lippman, 1990) ³	OECD Family Database (2007년 이래)
학교 생활의 질 (안락; 즐거움)	학교에서의 웰빙	학교에서의 웰빙(출거움)	학교에서의 웰빙 ⁴ 결핍(교육 서비스) ⁵ x 2; 학교에서의 ICT ⁶ ; 학교 보건서비스 ⁷ ; 학교 급식서비스 ⁸	학교에서의 웰빙 ⁴ 결핍(교육 서비스) ⁵ x 2; 학교에서의 ICT ⁶ ; 학교 보건서비스 ⁷ ; 학교 급식서비스 ⁸	학교에서의 웰빙 ⁴ 결핍(교육 서비스) ⁵ x 2; 학교에서의 ICT ⁶ ; 학교 보건서비스 ⁷ ; 학교 급식서비스 ⁸			
가족 형태와 돌봄	가족 형태 (독신 가정; 위탁 가정)	가족 형태(이혼), 아동 훈육(2), 돌봄을 받는 아동 (위탁, 가정, 영아원).	가족 형태(해체)	가족 형태(이혼), 독신 정년; 중간연령-결혼; 중간연령-첫 출산)	가족 형태(해체)			
사회, 경제적, 시민 참여	시민 참여(2 2007), 청소년 고용률(NEET)	아동 노동	청소년 고용률 (NEET)	청소년 고용률 (NEET)	시민 참여(사회적), 청소년 고용률 (NEET) ⁹		시민참여 (자원봉사; 투표), 청소년 고용률(NEET)	

주: 1) 두 연구에 포함된 지표들은 날짜가 표시되지 않음. "dist"는 분포측정치로 제시된 지표를 말한다. "x2"는 프레임 워크에 포함된 지표 유형이 복수지표(multiple indicators)임을 의미한다. 2) 유럽집행위원회 보고서에서 가져온 지표들은 뒤에 "a" (공통적으로 합의된 EU 지표), "b" (공통의 EU 지표는 아니지만, EU 출처들에서 입수가능하여 일부 EU 국가들에서 사용됨), "c" (EU 출처자료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는 EU 지표들에 대한 대체지표, EC 2008)를 붙인다. 3) 17세를 넘은 자녀들에 대한 지표들은 배제되었다.

제5장

주는 것의 가치: 자원봉사와 웰빙

본 장은 OECD 국가들에서 공익(common good)을 위한 비강제적 무급(unpaid non-compulsory) 활동에 할애한 시간인,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특징을 분석한다. 본 장에 수록된 자료는 성인 3명 중 1명은 1년에 최소 한 번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친구, 이웃, 낯선 사람에게 제공한 비공식적인 도움을 고려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 자원봉사는 수혜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신에게도 편익을 생산한다: 자원 봉사는 경력 개발 또는 취업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을 돕고 또한 삶의 만족도의 상승과 긍정적 기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하며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적 정의와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OECD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의 수준과 정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기 어렵지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어야 할 중요 대책들이 논의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서론: 자원봉사가 웰빙에 중요한 이유

자원봉사는 사람들의 웰빙에 대단히 중요하며, How's Life? 프레임 워크에서 사용된 영역들 중 다수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가구의 물질적 조건과 웰빙에 기여한다. 둘째, 대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급여(social provision), 보건의료(health care), 교육, 자연보호 또는 개발협력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흔히 노숙자, 이민자와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자원봉사가 건강 상태, 기술과 역량, 환경의 질과 같은 How's Life?에 포함된 삶의 질 영역의 다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을 의미하는데, 이 성과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또한 분배 측면의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자원봉사는 중요한 형태의 “작업”(제3자 기준을 근거로 하면, 즉 타인들에 의해 수행된 활동)이면서 여가 또는 시민 참여의 일종으로 수행된 개인적으로 보람 있는 활동이다.

자원봉사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확실한 수혜자는 자원봉사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받는 사람이다. 이들은 흔히 전통적 사회 복지 프로그램(social programmes)을 통해서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람들과 시장에 나와 있는 기본적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들 자신에게도 득이 된다. 자원봉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 또는 은퇴 후 노인들(seniors)의 통합(integration)을 위한 도구이다.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겪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를 허용한다. 장년층(older people)에게는 유급 고용에서 은퇴로의 성공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참여한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노동연령연구가 경력개발이나 고용전망을 증진시키는 하드 스킬(프로세스와 도구 활용에 관한 기술)과 소프트 스킬(대인 관계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자원봉사에 쓰여진 시간은 또한 다른 무급 근로 활동에 비해 높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기분과 연관성이 더 높다. 건강, 기술, 주관적 웰빙 측면에서의 이러한 강점들을 감안하면,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의 편익이 수혜자를 위한 것보다 더 크지 않다 해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있다. 활기찬 시민 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잣대로써 자원봉사 활동은 신뢰와 협동의 유대감을 구축하고 공고히 하며 또한 이타주의, 결속력, 시민정신, 다양성 존중의 규범들을 배양하는 등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돕는다(Putnam, 1995, 2000).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 활동은 “좋은 사회(good society)”의 기본구조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자원봉사라는 주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폭넓은 사회적·정치적 관심을 얻고 있다. 자원봉사를 보존하고 장려할 방법 또는 청년들에 대한 준강제적(quasi-mandatory)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토론이 많은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정부 위원회들이 젊은이들, 50세 이상의 장년층, 일하는 부모들, 이민자들과 같은 다양한 집단의 자원봉사를 촉진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박스 5.1).

그러나 정치적 모델과 다수의 국제적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의 범위, 규모와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장은 기존의 비교 정보에 근거하여 이 갭(gap)을 부분적으로 다루어보고자 시도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주된 도전과제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실증 분석(empirical analysis)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나서 OECD 국가들 내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prevalence), 빈도, 분포를 설명하고, 그 다음 섹션에서는 자원봉사와 다양한 웰빙 성과들 사이의 몇 가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대략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자원봉사에 관한 더 나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메워져야 할 통계적 갭을 알아본다.

박스 5.1. 정책 토론에서의 자원봉사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2001년 권고사항에서,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자원봉사를 “빈곤감축, 지속적 개발, 보건, 질병예방과 관리 그리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규정했다(유엔, 2001). 2008년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자원봉사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가장 지속 가능한 형태”라고 말했고, 회원국, 지역 및 지방 정부들에게 “사회적·경제적 결속(cohesion)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을 장려했다(유럽의회, 2008).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노력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2011년이 유럽 자원봉사의 해(European Year of Volunteering)로 선포되었다(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

국가 정부들은 또한 웰빙을 개선시키고, 사회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새로운 서비스와 욕구(needs)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써, 자원봉사를 점진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정부들이 시민에 의한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점점 더 역점을 두고 있으며(영국 정부의 “큰 사회(Big Society)” 이니셔티브, 프랑스의 “시민 서비스(Service Civique)”, 덴마크의 “사회복지 서비스 법(Social Service Act)” 등), 자원봉사의 편익에 관한 광범위한 교육 캠페인에 착수했다.

자원봉사의 정의와 측정

자원봉사의 정의

방과후 과외 활동(extra-curricular after-school activity)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교사, 사회주택(social housing) 건물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간을 제공한 공장 근로자, 이웃집 노인의 보행로에 눈을 치우는 10대 청소년, 법무 비용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에게 법률적 지원(legal assistance)을 제공하는 변호사 등은 모두 자원봉사의 예이다. 1년에 한 번 진단지를 돌리는 일부터 일년 내내 하는 풀타임 자원 봉사자의 일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다양성 때문에, 자원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교적 “새로운” 연구 주제인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 되고 있다. 정의는 범위와 완벽성(exhaustiveness)의 두 측면에서 다르다: 어떤 정의는 자발적인 근로와 자선 활동을 결합시키는데 시간의 기부와 돈의 기부 사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어떤 정의는 비공식 활동을 포함시키지만 다른 정의는 단체 내에서의 자원봉사에만 국한시키거나, 어떤 경우에는 비영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가 회원으로 속해있는 단체 내에서의 활동에만 국한시킨다.

자원봉사에 관한 광범위한 시각이 유럽통계기관장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업무*(타인에 의해 수행 되었을지도 모르는 활동)와 *참여적 행동* 사이의 차이에 근거하여 2013년의 자원봉사의 측정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안했다. 후자(참여적 행동)는 “업무” 외의 활동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 아니며 또는 타인에 의해 대신 수행될 수 없는 활동이다. “참여적 활동”은 시간이나 돈의 제공이 수반될 수 있다. 유럽통계기관장회의에 의해 제안된 접근법에서 “자원봉사”라는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에 속한 활동들의 공통적 특징은 모두 공공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적이지도 않고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장에 있는 모든 경험적 증거자료(empirical evidence)는 “자원봉사 업무”를 말하는데 이는 즉, 다양한 “참여적 활동”들은 배제한다.

자원봉사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근로(work)의 제공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자원봉사 근로의 측정에 관한 매뉴얼(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은 자원봉사 근로를 “비강제적 무급 근로, 즉 자신의 가정 밖의 타인을 위해서 단체를 통하거나 직접 수행된 활동에 개인이 돈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ILO, 2011)¹. 이 정의는 다양한 문화적·법률적 상황에서 자원봉사를 측정하는 개념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데, 자원봉사 업무는 자원봉사자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가치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여가활동과 자원봉사 근로를 구별한다. 또한 자원봉사 근로는 무급이며 어떠한 법적으로 승인된 강제성 없이 수행됨을 강조함으로써 유급 근로와도 구별한다.

모든 종류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더 분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식성(formality)의 정도이다(Wilson and Musick, 1997). 공식적 자원봉사(ILO는 “간접적 자원봉사 근로”라고 일컬음)는 기관들(비영리단체 또는 사기업 등)을 통해 수행된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비정부 기구(NGO)를 위한 모금활동 또는 협회, 학교, 탁아시설, 지역 단체나 위원회 등을 위해 일하는 것 등이 있다. 비공식적 자원봉사(ILO는 “직접적 자원봉사 근로”라고 일컬음)는 다른 가구들을 위한 비공식적 도움과 관련이 있다.² 여기에는 아이들 돌보기, 청소와 정돈, 법률 문제에 대한 도움,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언, 노인/환자 돌보기, 애완동물 봐주기, 식사준비 등이 포함된다(Lee and Brudney, 2012).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공식적·비공식 자원봉사 모두의 중요한 측면이며 이 목적을 위해 수행된 활동들은 이러한 두 상황에서 매우 비슷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측정

자원봉사와 국민계정체제

측정에서의 어려움은 단지 개념적인 면만이 아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데이터가 희소하고 단편적이며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국가의 경제적 통계를 집계할 때 국가들이 사용하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국민계정체제(SNA) 내에서, 비영리단체(NPI)는 “시장 생산자” (기업 부문에 포함됨)로 분류되거나(회비와 요금에서 나온 수입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함), 또는 “비시장 생산자”로 분류되고 정부부문(정부에 의해 재정을 지원받고 통제됨)이나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로 별도 분류된다. 이 경우들 중 각각의 경우에, 비영리단체에 의해 늘어난 가치에 대한 국민계정 측정치는 이러한 단체들의 운영을 위한 금전상 비용에 한정된다.

1968년 이래에 국민계정체제(SNA)는 더 좁은 의미에서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와 가계를 구분했는데, 모든 국가가 자국의 모든 경제 계정에서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의 측정치를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단체(NPI)의 경제적 활동의 커다란 부분이 기업부문과 일반 정부에 대한 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아주 작은 부분만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에 나타나기 때문에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의 경제적 규모와 구성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민계정체계(SNA)는 오로지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부문 안에서 유급근로의 가치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의한 경제적 기여의 많은 부분을 간과한다.

이러한 “숨겨진” 비영리단체(NPI)들이 경제적 활동을 밝혀내기 위하여 2003년에 유엔통계위원회는 존스 홉킨스대학 시민사회연구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가 유엔 통계과(UN Statistics Division)와 국제 전문가 팀과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국민계정체계 내 비영리단체에 관한 핸드북(*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유엔 NPI 핸드북*)을 승인했다(UN, 2003). 이 핸드북은 각 단체 부문의 경제 계정 내에 “숨겨진” 비영리단체(NPI)를 알아내기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들에게 할당되었던 부문에서 NPI를 빼내어서 NPI에 관한 데이터를 NPI 위성계정에 넣을 것을 촉구했는데, NPI 위성계정은 NPI들이 사용한 무급자원봉사 근로의 가치도 기입한 것이다(표 5.1).³ NPI 위성계정은 NPI의 경제적 중요성에 관한 신뢰할 만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포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거의 40개국에서 현재 유엔 NPI 핸드북의 이행을 약속했고 이 중 16개국이 적어도 최초의 NPI 위성 계정을 완성했다.

표 5.1. 국민계정체계(SNA)의 NPI 위성계정 내 비영리단체의 처리

계정	국민계정체계의 부문들					비영리 부문
	비금융법인 부문	금융법인기업 부문	일반 정부 부문	가계 부문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부문	
	(S.11)	(S.12)	(S.13)	(S.14)	(S.15)	
	총계 NPIs	총계 NPIs	총계 NPIs	총계 NPIs	총계 NPIs	
생산						∑ Ni
소득 창출						
자산						∑ Ni

출처: 유엔(2003), 국민계정체계 내 비영리단체에 관한 핸드북, 유엔 출판, Sales No. E.03.XVII.9 ST/ESA/STAT/SER.F/91, New York, http://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f/seriesf_91e.pdf.

평균적으로 NPI 위성계정을 통해서 설명된 NPI 부문의 규모는 표준 1993 SNA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계봉사비영리단체 부문 규모의 두 배이다. 캐나다에서 NPI 부문은 표준 SNA 방법을 통해서 예전에 보였던 것보다 거의 5배가 크다. 국민계정체계의 2008년 개정판(2008 SNA)에 도입된 변화는 국가통계기관들에게 핵심계정(core accounts) 내에서 NPI 구성요소들과 비NPI 구성요소들을 구별하고 NPI 소계(sub-total)를 따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데, NPI 위성계정의 생산을 미래에 더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노동력 조사에서의 자원봉사

2009년에 제18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ICLS)는 “자원봉사자 업무를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이는 “재난지원, 시골지역 교육과 기타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가] 하는 커다란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 통계를 위한” 그 측정의 중요성 때문인데, “노동 통계의 목적 중 하나가 노동의 모든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ILO, 2009).

후속 조치로써 2013년에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CLS)는 업무(work)의 여러 가지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업무의 개념을 확장시킨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무엇보다 “모든 형태의 업무가 경제 발전, 가구의 생계,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하는 기여”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자원봉사자 업무는 통계기관들이 밝혀내고 측정하도록 요청받은 5가지 유형의 업무 중 하나이다(박스 5.2).

박스 5.2.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결의안에서의 자원봉사자 업무

2013년에, 국제노동통계인총회(ICLS)는 “업무(work)”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고 국가통계 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상호 배타적 형태의 업무(표 5.2)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a) 자가생산(own-use production)노동으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 b) 고용 노동으로 급여 또는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근로, c) 무급훈련 노동으로 직장 경험과 기술 취득을 목적으로 무보수로 수행하는 업무, d) 자원봉사로 타인을 위한 급여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업무, e) 기타 노동 활동(결의안에서 규정되지 않음).

표 5.2. 국민계정체계 2008 의 근로 유형

생산의 최종 목적	자가 생산		타인을 위한 사용					
	자가 사용을 위한 생산 업무		취업 (급여 또는 이윤을 위한 근로)	무급의 수습업무	기타 근로 활동	자원봉사 업무		
업무의 형태	서비스	용역				시장 내 및 비시장 단위	가구 내 생산 재화	용역
2008년 SNA와의 관계			SNA 생산 영역 내의 활동들			SNA 일반 생산 영역 내의 활동들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2013), 총회 보고서,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제네바, 2013년 10월 2-11일,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stat/documents/normativeinstrument/wcms_230304.pdf.

이 결의안은 자원봉사자를 짧은 기간 동안에 타인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급의 비강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노동연령의 사람으로 정의 내리는데 여기서, i) “어떠한 활동”은 최소 1시간 동안의 일을 말하고, ii) “무급”은 수행된 일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예외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약간의 지원이나 급료가 있을 수 있고, iii) “비강제적”이란 집단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 성격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와는 다른 민사적, 법적, 또는 행정적 요건이 없이 수행되는 일로 해석되며, iv) “타인을 위한” 생산은 시장과 비시장 단위로 구성된 기관을 통하거나, 자원봉사자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세대 외의 세대를 위해(즉, 직접적 자원봉사) 수행된 일을 말한다.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자원봉사 측정에 관한 ILO 매뉴얼(ILO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에서 제공된 정의와는 다른데, “다른 세대에 사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수행된 무급 근로를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더 좁은 의미의 정의는 수혜자가 가족 구성원일 때는 별개의 가구에 속해 있다 해도 비공식적 돌봄이 자발적이 아닌 의무적인 것으로 흔히 여겨지는 시각을 반영한다(홀로 사는 나이든 부모 등).

자원봉사를 “업무”의 한 가지 형태로 인정함으로써, 2013년 국제노동통계인총회(ICLS) 결의안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를 표준화시킬 길을 열었고, 자원봉사 측정에 관한 ILO 매뉴얼에서 권고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국가 노동력조사(LFS) 또는 기타 가구조사에 관한 “보완내용”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할 명분을 강화했다.

국가 노동력조사(LFS)의 특징들(빈번하고 정기적인 수집, 커다란 표본 크기, 많은 국가들에서 강제적 참여, 매우 전문적인 시행)때문에, 이러한 특별할 모듈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봉사 업무의 양을 결정하고(기관과 경제 부문, 활동 형태, 자원봉사가 전달되는 지역의 종교 또는 도시화 수준 등에 의함), 자원봉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프로파일(연령, 성별, 소득 수준, 교육, 도시 또는 시골 거주, 유급직업 등)을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된다.⁴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아주 소수의 국가(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이탈리아)만이 LFS 임시 모듈⁵을 활용했고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임시모듈의 시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벨기에, 아일랜드)이거나 기존의 자원봉사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ILO의 방법론과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을 탐구 중(영국, 독일)이다.

사회 조사 및 생활시간 조사에서의 자원봉사

자원봉사만을 측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제적 조사는 없다. 자원봉사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자료는 국가 중심적(nation-based)이고 다른 정의, 다른 표본 추출틀, 다른 기준의 기간을 가진 조사들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사들에 근거해서 국가별 자원봉사자의 숫자와 프로파일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⁶ 국제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의 참가에 관한 질문은 대개 광범위한 종류의 다른 주제를 다루는 조사에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사들은 소규모 표본과 다양하고 흔히 비교 불가능한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때는 취소되거나 연기될 위험이 있다(Rochester, Paine and Howlett, 2009). 자원봉사자들은 일반 인구 집단 대비 소규모 조사와 여론 조사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연구결과가 보여주는데, 그 결과 소규모 조사나 여론조사는 대규모의 공식 조사에 비해 자원봉사의 규모에 대한 과대추정을 초래할 수 있다(퓨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2015).⁷

게다가, 국제적 조사는 자원봉사 일의 IGLS 정의에 입각한 질문이 아닌 여러 응답자에 의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포괄적 질문들(catch-all questions)에 대개 의존한다.⁸ 일반적 사회조사에서 대개 사용되는 유형의 질문을 예로 들면, “지난 12개월간 당신은 어떤 기관을 위해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했나요?”다. 이와 같은 독립형 질문들(stand-alone questions)은 응답자들에게 최소의 부담을 준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마음에 무급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개념이 세워지도록 돕는 짧은 도입글(lead-in text)이 없이 자원봉사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을 사용할 때 데이터의 질 문제가 발생한다(Toppe and Groves, 2007).⁹ 또 다른 중요한 한계점은 조사 문항은 자원봉사를 단일 범주로 다루지만 실제로 파악될 현상은 복잡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이다.¹⁰ 그 결과,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에 관한 단순한 통계치 조사 상당한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다.

공식적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에 관한 질문이 대개 매우 표준화된 문구(phrasing)를 사용하지만 비공식적 도움에 관한 질문은 조사별로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조사는 활동 목록에 가구 밖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나이트 부모 등)에 대한 도움을 포함시키며, 다른 조사는 친구, 지인과 타인에게 제공되는 도움만을 언급할 수 있다.

어떤 조사는 이런 방식 또는 저런 방식으로 정의된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적 질문을 넘어서서,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는 기관의 형태나 자원봉사 활동의 목록, 그리고 자원봉사의 동기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시킨다. 그러한 조사들 중 극소수만이 자원봉사 업무에 보낸 시간의 양에 관한 질문을 한다.¹¹

자원봉사 업무의 분석을 위한 또다른 출처는 생활시간 조사(TUS)이다. 이 조사는 사람들이 일상 활동에 할당된 시간의 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기준 기간 동안(대개 하루 또는 1주일) 일지(diary)에

일상적 활동들을 자신의 어휘로 서술하며, 조사를 담당한 기관에 의해서 이 활동들은 그룹화되고, 직접적 자원봉사 업무와 기관 기반의(organization-based) 자원봉사 업무는 대개 주요 범주들 중 하나에 포함된다(Miranda, 2011). 일지 기입법(diary method)은 응답자가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위험을 감소시켜서, 개인의 행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응답자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¹²

자원봉사 활동의 측정 측면에서 생활시간 조사(TUS)는 대개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산출한다: i) 기관 기반 자원봉사와 직접적 자원봉사를 포함시킨 표준 목록 활동들에 소요된 평균 시간에 대한 전체인구의 추정치, ii) 자원봉사 활동의 참가자들이 할애한 평균 시간의 추정치, iii) 참가율, 즉 이러한 활동을 보고한 인구의 비율. 국가적 조사에 사용된 활동들에 대한 정의 및 분류가 생활시간 활동에 대한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for Time Use: ICATUS)와 대개 비슷하지만(ICATUS에는 15개의 주요 그룹이 있고 각 그룹에는 5개의 하위그룹(sub-group)이 있음), 조사의 특징, 표본추출된 일지 기입 일수, 활동의 범주화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차이가 있다. 최근 발표된 생활시간 조사 조율을 위한 유엔유럽위원회 가이드라인(UNECE Guidelines for Harmonising Time Use Surveys)은 이 분야에서 국가별 비교 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유엔유럽위원회, 2013).

일반적 추정치는 생활시간조사(TUS)가 개인이 자원봉사에 사용한 시간의 양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일반적 조사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점이다.¹³ 그러나 자원봉사는 특정 시기에 매우 집중될 수 있는데, 즉 사람들이 표본 추출된 날에 공공롭게 자원봉사를 안 할 수 있으므로, TUS는 자원봉사 참여를 과소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TUS가 저빈도(low frequency)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더 이상)쓸모 없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면, 자원봉사에 관한 데이터는 초기 단계이고(위성계정 및 LFS의 임시 모듈 등) 자원봉사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없다(사회 조사와 TUS 등). 자원봉사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자원봉사 노력에 대한 지원을 만들어내고 자원봉사 노력을 지지할 정책을 설계하기가 어렵다.

자원봉사를 측정할 지표들의 선정과 데이터 출처

데이터의 제약과 방법론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은 자원봉사의 규모와 특징에 관한 추정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보를 이용한다. 본 섹션에서 제공된 실증적 분석의 초점은 ICLS에서 채택된 정의에 근거하여 자원봉사 업무(기부와 같은 다른 형태의 참여적 행동이 아님)에 맞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 정의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맞도록 조정되었다. 공식적·비공식적 자원봉사의 측면들이 모두 조사되었는데, 이용 가능한 정보의 대부분은 기관을 통해 수행된 활동들과 관련이 있었다. 사람들이 삶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참여의 성격은 바뀔 수 있고, 분석은 또한 다른 인구 집단(학생, 노동연령인구, 노인 등)에 대한 자원봉사의 태도를 평가한다.

자원봉사에만 특별히 초점을 맞춘 국제적 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위성 계정과 임시 LFS 모듈의 제한된 국가범위(country-coverage)를 반영해서, 아래 제시된 증거자료는 주로 사회 조사와 생활시간조사와 같은 “부차적” 출처에서 주로 가져왔다.

자원봉사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하기 위하여, 본 장은 광범위한 출처를 활용한다. 다른 조사들과 연구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불일치는 자원봉사에 대한 통계분석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참고용으로만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참가율이 노동연령인구보다 노인 인구에서 낮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두 집단에 대한 증거 자료가 다른 조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공식적 자원봉사의 발생률과 빈도에 관한 증거자료는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국제성인 능력측정 프로젝트)에서 추출된다. PIAAC 조사는 OECD 20개국(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 3개의 OECD 국가 하위 독립체(벨기에의 플랑드르, 영국의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다(OECD, 2013). 본 조사의 주된 초점은 노동 연령인구의 기술과 역량에 맞추지만 자원봉사에 관한 질문도 포함시켜서 응답자들에게 자선단체, 정당, 노동조합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를 위한 무급 근로 등 지난 12개월 간 자원봉사 일을 했는지를 묻는다. 가능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i) 한 적이 없다, ii) 한 달에 1회 미만, iii) 1주일에 1회 미만이나 한 달에 최소 한번, iv) 1주일에 적어도 1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v) 매일.¹⁴

비공식적 도움에 대한 참가율은 제3차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의 웰빙 모듈을 사용하여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다. 웰빙 모듈에는 비공식적 도움에 대한 다음의 질문을 담고 있다: “당신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은 계산하지 말고, 직장 혹은 자원봉사 단체 내에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얼마나 자주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했습니까?”. 가능한 응답에는: i) 1주일에 최소 1회, ii) 한 달에 최소 1회, iii) 3달에 최소 1회, iv) 6개월에 최소 1회, v) 덜 자주함, v) 하지 않음.¹⁵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도움 모두에 사용된 시간의 양에 관한 질문은 OECD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된다.¹⁶

PIAAC 조사는 노동연령인구에 초점을 두므로 학생과 노인과 같이 자원봉사 부문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다른 인구집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두 집단(학생과 노인)의 기여를 고려에 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적 데이터 출처가 고찰되었다.

- 국제시민교육연구(ICCS)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의 비교연구프로그램으로 23개 OECD 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과 15개의 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시민교육연구(ICCS)는 대략 14세의 학생(즉, 8학년 혹은 동등 학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학생들에게 단체(즉, 청소년 단체, 환경 단체, 인권 단체, 모금 단체, 문화 단체 또는 청소년 참여 캠페인)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다.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가율과 성인 및 노인인구의 자원봉사 참가율에 대한 비교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분석은 면접 설문 전 12개월 동안에 최소 한 번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한 학생들에 한정된다.
- 유럽 건강·고령화·은퇴 조사(SHARE)¹⁷는 18개의 유럽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에서 50세 이상인 사람들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공한다.¹⁸

공식적 자원봉사에 관한 질문은 “자원봉사일 또는 자선단체일 중 한 가지를 지난 12개월 동안에 한 적이 있는가?”이며, 비공식적 도움에 관한 정보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당신은 당신 가구 밖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이웃에게 개인적 돌봄 또는 실제 집안일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반한다.

자원봉사에 관한 보충 정보(활동 분야 등)와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웰빙 성과 간 관계에 관한 보충 정보는 유럽/세계가치조사(EVS/WVS)와 갤럽세계조사에서 추출된다. 이 조사들은 완전한 국가 범위(country-

coverage)를 참작하지만, 작은 표본 크기와 다른 방법론적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다. 표 5.3은 OECD 국가들의 자원봉사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 섹션에서 사용된 여러 출처들의 통계적 품질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표 5.3. 자원봉사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출처의 품질

지표	출처	통계적 품질			
		잘 정립된 수집 도구	비교 가능한 정의(ILO)	국가범위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공식적 자원봉사(발생률)	PIAAC	~	V	~	2012년
	ESS	~	V	~	2006년
	EQLS	~	V	~	2012년
	유로바로미터	~	V	~	2012년
	갤럽세계조사	X	V	~	2014년
	유럽/세계 가치 조사	X	V	V	2008년
	OECD 생활시간조사	V	~	V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 포인트
비공식 자원봉사(발생률)	PIAAC	~	~	~	2012년
	ESS	~	V	~	2006년
	EQLS	~	X	~	2012년
	유로바로미터	~	~	~	2012년
	갤럽세계조사	X	~	V	2014년
	유럽/세계 가치 조사	X	X	V	2008년
	OECD 생활시간조사	V	~	V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 포인트
자원봉사의 빈도	PIAAC	~	~	~	2012년
	ESS	~	~	~	2006년
	EQLS	~	~	~	2012년
	유로바로미터	~	~	~	2012년
	갤럽세계조사	X	X	V	2014년
	유럽/세계 가치 조사	X	X	V	2008년
	OECD 생활시간조사	V	~	V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 포인트

주: V 기호는 선택된 지표가 표에서 보여진 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하며, ~기호는 지표가 기준에 많이 충족함을 의미하며, X기호는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한된 정도로만 충족함을 의미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12>

자원봉사에 관한 증거자료

자원봉사의 보급률과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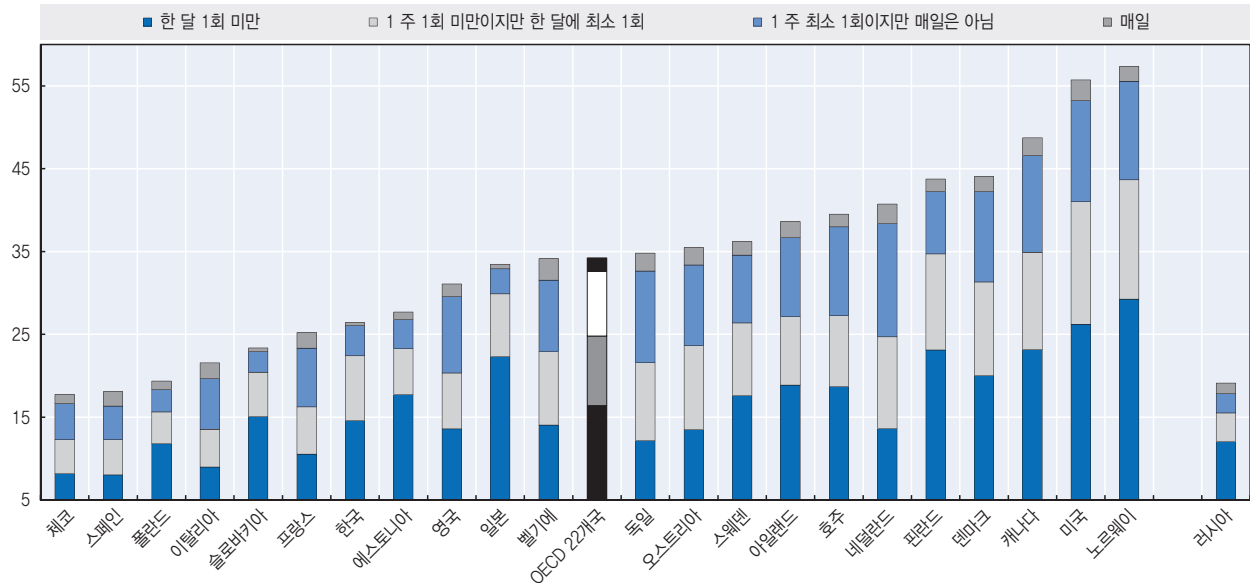
아래 그림 5.1은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성인 3명 중 대략 1명이 지난 12개월 동안 기관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고함을 보여주는데, 자원봉사 참여율은 스페인과 체코의 18%에서 미국과 노르웨이의 55%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결과는 노르딕 국가들과 영어 사용국가들에서 더 높은 자원봉사 참가율이 보고되었고 남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낮은 참가율이 보고되었던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예: Plagnol and Huppert, 2010). 공식적 자원봉사 참가율이 영어 사용 국가들에서 더 높다는 일반적 발견 내용이 지역 차원에서도 역시 적용되는 것 같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에 PIACC 조사에서 영어 사용 응답자와 불어 사용 응답자를 따로 고찰할 때, 자원봉사 참가율이 각각 52%와 36%로 나타난다.¹⁹

그림 5.1. 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참가율

지난 12개월 간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고한 노동연령인구의 비율, 빈도에 따른, 2012년



주: 벨기에의 자료는 플랑드르 지방 자료임,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 대한 데이터를 합쳐서 제공됨(영국으로). 러시아의 데이터는 모스크바시를 제외함.

출처: OECD(2012)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OECD 성인 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 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909>

공식적 자원봉사의 발생 빈도 역시 국가별로 다르다(그림 5.1). 자원봉사 발생률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에서 단지 3.2%의 자원봉사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매일 자원봉사활동에 시간을 썼다고 보고한다. 매일 자원봉사를 한다고 보고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9.5%)으로 기록되지만 자원봉사의 전반적 보급률은 낮다(인구 5명 중 1명 미만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이따금씩(한 달에 1회 미만) 자원봉사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이 비율(한 달에 1회 미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네덜란드에서 34%이고 일본에서 67%이다. 1주일에서 최소 1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일본에서 가장 낮고(9%) 네덜란드에서 가장 높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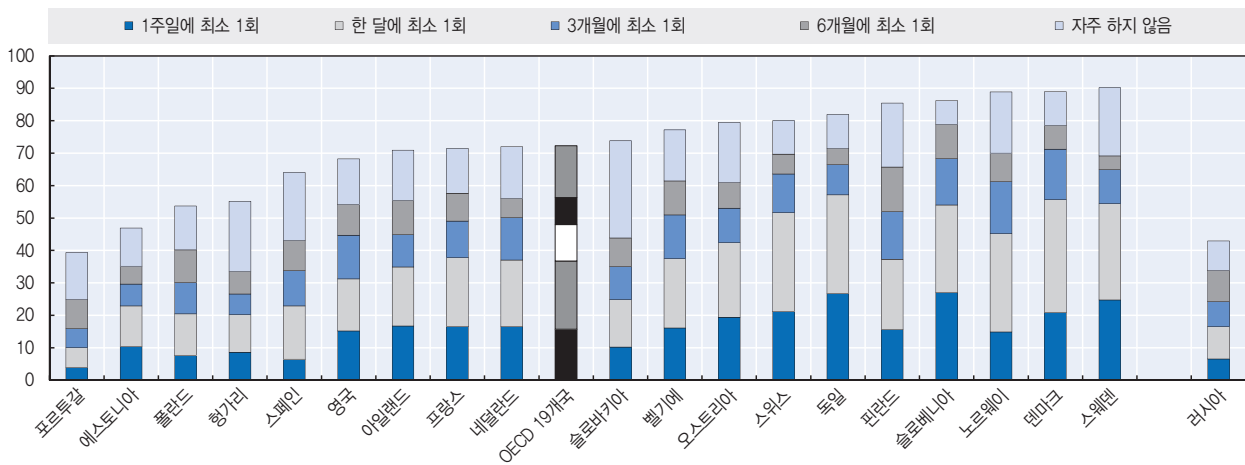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만이 공익(common good)을 위한 무급의 비강제적활동에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유럽사회조사(ESS)로부터 나온 증거 자료를 보면 비공식적 자원봉사가 OECD 유럽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데 그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노동연령 성인 10명 중 7명이 친구, 이웃과 낯선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에게 일정한 형태의 비공식적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한다(그림 5.2).

이 비율은 대부분의 남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OECD 평균을 밑도는 반면,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응답자의 약 90%가 지난 12개월 동안에 비공식적 자원봉사 활동에 시간을 사용한 적이 있음을 보고한다. 빈도에 관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비공식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의 절반이 정기적으로(한달에 1번 또는 일주일에 1번)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비율은 독일(70%)에서 가장 높고 포르투갈(26%)에서 가장 낮다.

남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관측되는 낮은 비공식 자원 봉사율은, 긴밀한 가족간 유대감과 낮은 복지 서비스의 특징을 가진 이 국가들에서 높은 부모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은 대개 다른 가족 구성원(예: 딸과 조부모)에 의해 제공되며 응답자에 의해 비공식적 자원봉사의 형태로 보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Dykstra and Fokkema, 2011; Hank, 2007). 또한,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측면 외에도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같은 배경적(contextual) 요소들이 자원봉사의 수준을 크게 결정할 것이다(Plagnol and Huppert, 2010).²⁰ 공식적 자원봉사 활동과 비공식적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에 관한 국가 차원의 측정치들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는데 이는 그 활동들이 하나의 폭넓은 개념에 대한 다른 표현(manifestations)이라는 점을 시사한다.²¹

그림 5.2. 유럽 국가들의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참가율

지난 12개월 동안 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노동연령인구의 비율, 빈도에 의함, 2006년



출처: 유럽사회조사(ESS, 2006)에서 추출한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유럽사회조사 Round 3 데이터, 데이터 파일 edition 3.5(데이터베이스), 노르웨이 사회과학 데이터 서비스, 노르웨이- 데이터 기록보관소와 ESS 데이터 배포자, www.europeansocialsurvey.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919>

다른 출처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그림 5.1에 보여진 공식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그림 5.2에 보여진 비공식적 도움에 대한 참여율 사이의 직접적 비교를 가능하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나 유럽사회조사에서 추출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비록 이 비율들이 PIACC 조사에서 추출한 비율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가별 순위는 대략적으로 비슷하여, 노르딕 국가들과 영어 사용 국가들의 공식적 자원봉사 활동 참가율이 남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유럽사회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비공식적 도움과 공식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모두 계산하면 전자(비공식적 도움)가 후자(공식적 자원봉사 활동)보다 더 높는데 이는 OECD 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공식적 자원봉사자들보다 잠재적으로 더 많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사용된 국제적 조사의 형태를 통해 수집된 자원봉사의 빈도에 관한 데이터는 자원봉사 일에 소요된 시간의 양에 대한 대략적 개념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 관한 추가적 정보는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자료 제공이 가능한 생활시간조사에서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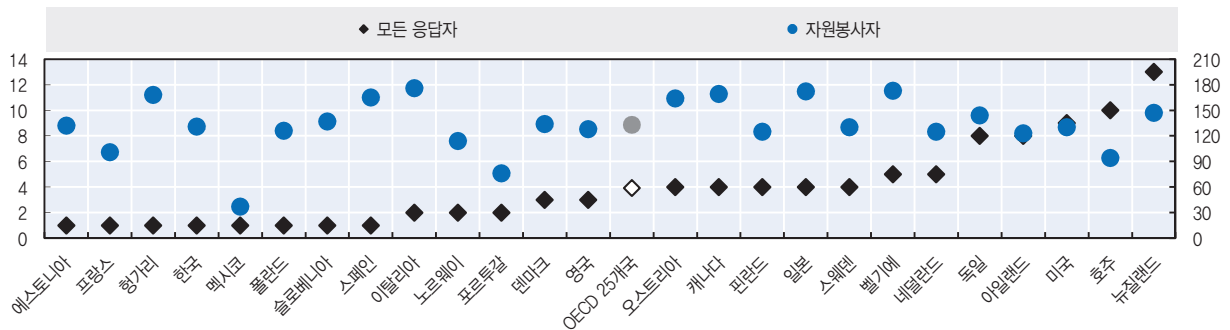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공식적·비공식적 자원봉사 활동에 쓴 시간(15-64세 연령범주; 그림 5.3, 좌측 수직축)과 더불어서, 생활시간 일지에 자원봉사 일을 기입한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쓴 시간을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운데, 여기서 그 시간은 특정 일에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들을 위한 대리지표(proxy)로서 사용된다(그림 5.3, 우측 수직축). 첫 번째 측면을 보면, 전체 인구에 의해 공식적 자원봉사에 평균적으로 사용된 시간은 매우 적어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일 5분 미만이며 뉴질랜드의 경우 13분이다. 그러나 특정 일에 실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에 의해 소요된 평균 시간의 양을 고찰해 보면 양상이 달라진다. 실제로, 이 경우에, 1일 공식적 자원봉사 일에 사용된 시간은 멕시코의 경우 1시간 미만이고 벨기에,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 거의 3시간에 달한다. 전체 OECD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자원봉사한 날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공식적 자원봉사에 헌신한다(그림 5.3, 패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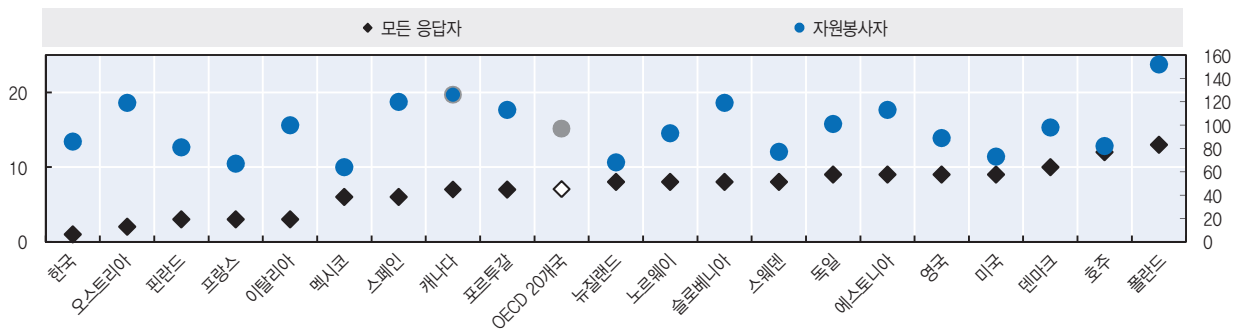
그림 5.3. 공식적·비공식적 자원봉사에 할애한 시간

하루동안 자원봉사한 평균 분수, 모든 응답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15-64세 사람들

패널 A: 공식적 자원봉사, 2013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패널 B: 비공식적 자원봉사, 2013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국가들은 모든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공식적 자원봉사(패널 A)와 비공식적 자원봉사(패널 B)에 할당된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 2013년, 일본의 경우 2011년, 캐나다의 경우 2010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 2009-2010년, 한국, 멕시코의 경우 2009년,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08년, 호주의 경우 2006년, 네덜란드의 경우 2005-2006년,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의 경우 2005년, 폴란드의 경우 2003-2004년, 독일의 경우 2001-2002년, 덴마크의 경우 2001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00-2001년, 헝가리의 경우 1999-2000년, 포르투갈의 경우 1999년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응답자가 20-74세, 호주의 경우 15세 이상, 한국의 경우 10세 이상을 의미한다.

출처: 조화로운 유럽 시간 사용 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s://www.h2.scb.se/tus/tus/>; 유럽 통계청 생활시간 데이터베이스,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tus_00selfstat&lang=en; 공공용 생활 시간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국가 통계청에서 가져온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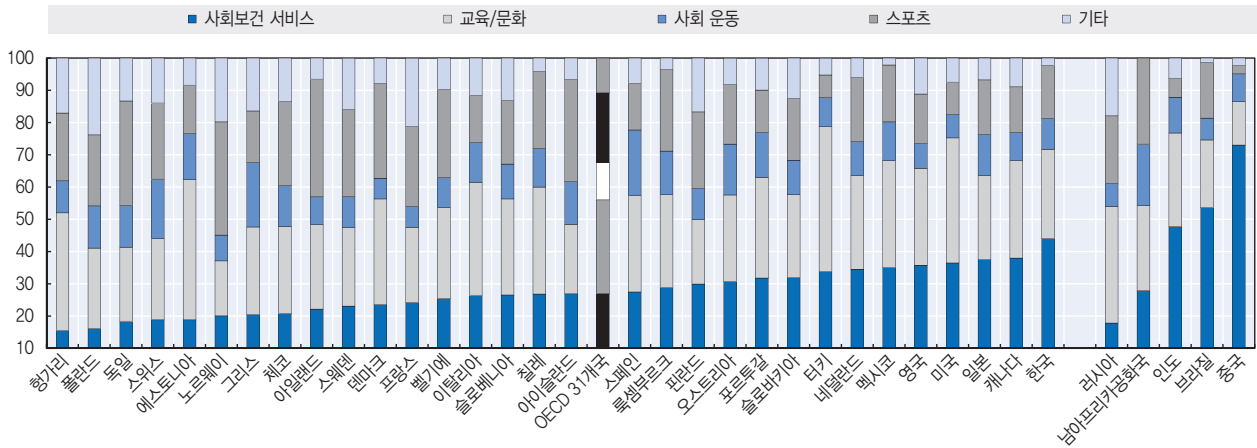
비공식적 자원봉사의 측면에서 보면, 고찰된 OECD 국가들에서 전체 인구는 하루 평균 7분을 다른 가구의 구성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돕는데 사용한다. 아주 적은 시간(하루 1분)이 한국에서 사용된 반면, 폴란드에서 사람들은 비공식적 도움에 13분을 사용한다(그림 5.3, 패널 B).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소요된 시간의 길이 역시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프랑스(67분)와 멕시코(64분)에서 비공식적 자원봉사 일에 자원봉사자가 사용한 시간은 OECD 평균인 1시간 30분을 훨씬 밑돈다. 스펙트럼의 다른 끝에는 스페인과 캐나다가 있는데 이 국가들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비공식적 활동에 하루 2시간 이상을 할애한다(그림 5.3, 패널 B). 이러한 발견내용들은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자원봉사를 책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소위 “시민 핵심(civic core)”의 관용을 강조하는 반면, 자원봉사 부문이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에게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 부문의 취약성을 강조한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활동적인 부문에 관한 정보는 2008 유럽/세계 가치 조사(EVS/WVS)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이 출처에 근거해 보면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보전 서비스, 교육/문화, 사회 운동(환경, 인권, 평화, 여성의 권리 등),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서 주로 활동한다(그림 5.4).

OECD 전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가장 주된 두 부문은 사회보전 서비스와 교육/문화이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은 북부 유럽과 유럽 대륙(즉,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독일, 프랑스)에서 덜 중요한 반면, 미국과 몇몇 신흥경제대국(즉, 브라질, 인도, 중국)에서는 지배적이다.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부문 역시 북부 및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을 유인하고 있는데, 아이슬란드,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에서 3명의 자원봉사자 중 1명이 이 부문에서 활동한다. 사회운동 부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다수의 남부 유럽 국가들(예: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널리 퍼져 있다.

그림 5.4. 활동 분야 별 자원봉사자의 분포

자원봉사자의 비율, 2008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의 경우 2000년, 중국,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01년을 의미한다. 잉글랜드와 북 아일랜드의 데이터는 합쳐져서 제시됨(영국으로).

출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s Survey, 2011)에서 추출한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유럽 가치 조사 2008, 통합 데이터세트 (EVS 2008), 데이터 파일 버전 3.0.0, GESIS 데이터 기록보관소, <http://dx.doi.org/10.4232/1.11004>; 비유럽 국가들의 경우 세계가치조사협회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09), 세계가치조사, Wave 5 2005-2008, 공식합계 v. 20140429, 세계가치조사협회(데이터베이스), www.worldvaluessurvey.org, for non-European countr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931>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프로파일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기로 하는 결정에는 많은 요소들이 근거가 된다. 이 요소들에는 소득, 교육, 건강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징들(Schlozman, Burns and Verba, 1994; Day and Devlin, 1998)뿐만 아니라 주관적 성향(subjective dispositions), 태도, 사회적 역할(Curtis, Baer and Grabb, 2001)도 포함된다. 자원봉사를 하는 경향 역시 생애주기(life cycle)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Erlinghagen, 2010; Oesterle, Johnson and Mortimer, 2004; Tang, 2006). 부록의 표 5.A.1과 5.A.2는 공식적 부문과 비공식적 부문에서 OECD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징들에 관한 개관을 제공한다.²² 그림 5.5와 5.6은 다양한 인구 집단들에 대한 정기적(한달에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과 보급률(prevalence)을 보여준다.²³

공식적 자원봉사(그림 5.5와 부록의 표 5.A.1)에 관해서 보면, 남성과 여성은 매우 비슷한 비율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은 다르다(남성은 스포츠 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고, 여성은 사회 및 보건 부문에서 대개 자원봉사를 함).²⁴ 나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결정과 시간 할당 결정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25-34세의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가장 적게 하고 그 다음으로 적게하는 연령층은 55-65세의 사람들(34%)이다. 이는 65세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자원봉사 사이의 역U자형 관계를 시사하는데 청년기(25-34세)에서부터 자원봉사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대략 35-55세 사이에 정점에 이르고 은퇴전 연령층(pre-retirees)에서 다시 감소한다(Wilson, 2000).²⁵

자원봉사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증가한다(Erlinghagen, 2010; Hank and Erlinghagen, 2010; Hank and Stuck, 2008). 몇 가지 요소들이 이 패턴에 기여한다. 첫째, 교육은 많은 자원봉사 과제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적 가치(civic values)를 고양시킨다.²⁶ 둘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단체의 구성원들을 알 가능성이 더 높다(Bekkers et al., 2007; McPherson, Popielarz and Drobnic, 1992). “요청을 받는 것(being asked)”이 어떤 기관에 가입하는 중요한 유인요소(incentive)이므로(Oesterle, Johnson and Mortimer, 2004; Prouteau and Wolff, 2008)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서클(circle) 내에서의 참여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²⁷ 그림 5.5(그리고 부록의 표 5.A.1)는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48%)이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들(24%)에 비해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2배임을 확인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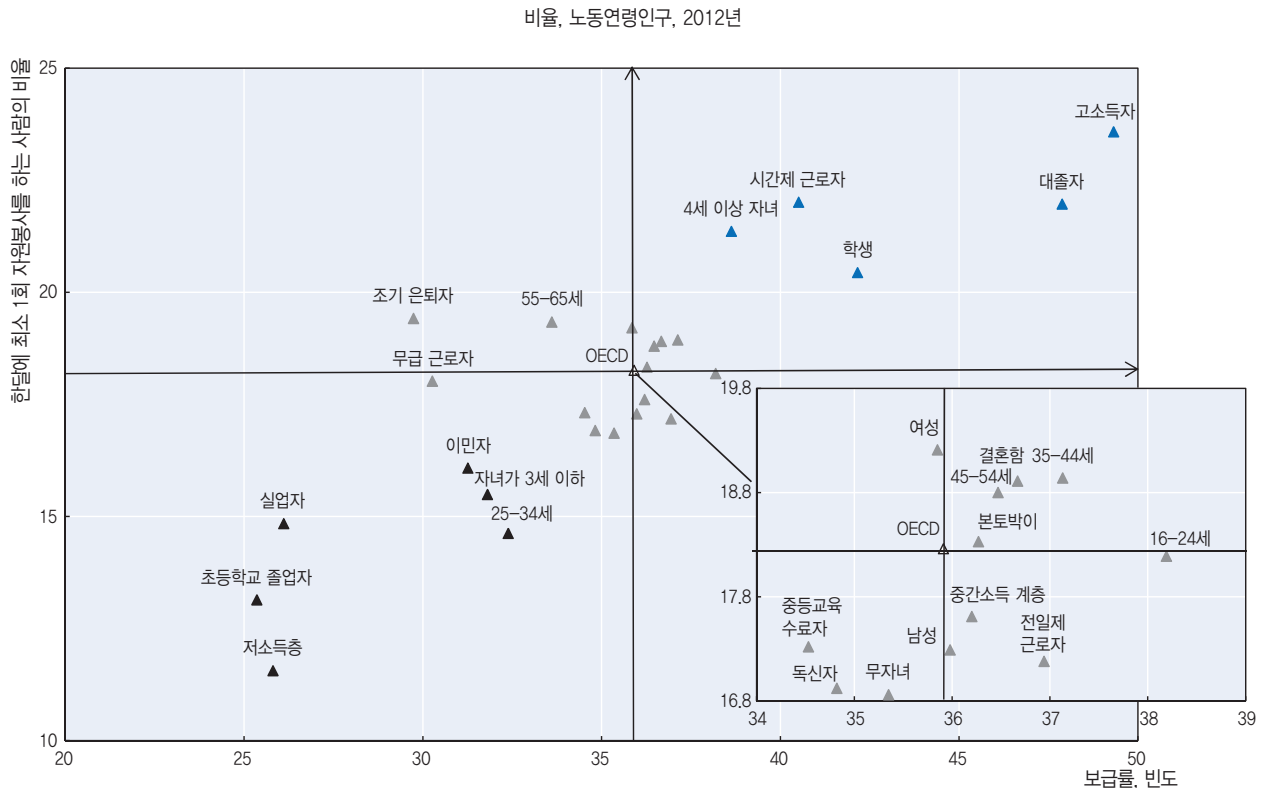
교육과 소득은 관련성이 크다: 그러므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공식적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 4명 중 1명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지만, 이 비율은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 거의 2배가 된다(부록의 표 5.A.1). 또한 시간제(part-time) 근로자 또는 전일제(full-time) 근로자들조차 비활동(inactive) 인구보다 자원봉사를 하는 비율이 더 높다.²⁸ 그러나 국가에 기반한(country-based) 연구는 시간제 또는 전일제 근로자들이 실질 상태이거나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은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Vézina and Crompton, 2012).

결혼했거나 사실혼(common-law) 관계의 커플들이 독신자들보다 공식적 장소에서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 자원봉사의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소는 가구 내 학령기 자녀(즉, 4-17세)를 둔 경우이다. 많은 학령기 자녀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써(Albertini and Radl, 2012) 학교 및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다(Gee, 2011).²⁹ 그림 5.5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39%)이 자녀가 없는 부모들(35%)과 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32%)보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더 높음을 입증한다.

사회가 점점 더 다문화화 됨에 따라 자원봉사는 이민자를 통합하고 포용적 시민 가치를 고양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민자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부문에 대단히 유익한데 그들이 기관관리 능력과 언어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고, 어떤 기관에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그림 5.5는 이민자들이 토박이(native-born)들보다 기관 내에서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적음을 보여준다.

그림 5.5. 선정된 인구집단의 OECD 지역 내 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평균 참여율과 빈도



주: 좌표평면(coordinate plane)에 다른 사회·인구통계학적 집단들의 위치를 정하면, 어느 집단이 OECD 평균보다 참여율과 빈도가 높으며(이러한 집단들은 파란색으로 표시, 사분면 우측 상단에 위치함), 어느 집단이 OECD 평균보다 참여율과 빈도가 낮으며(검은색, 사분면 좌측 하단에 위치함), 어느 집단이 OECD 평균에 가까운지(회색, 좌표평면의 원점에서 가까움)를 알 수 있다.

출처: OECD에서 가져온 데이터(2012)에 근거한 OECD 계산, OECD 성인역량 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 www.oecd.org/site/pia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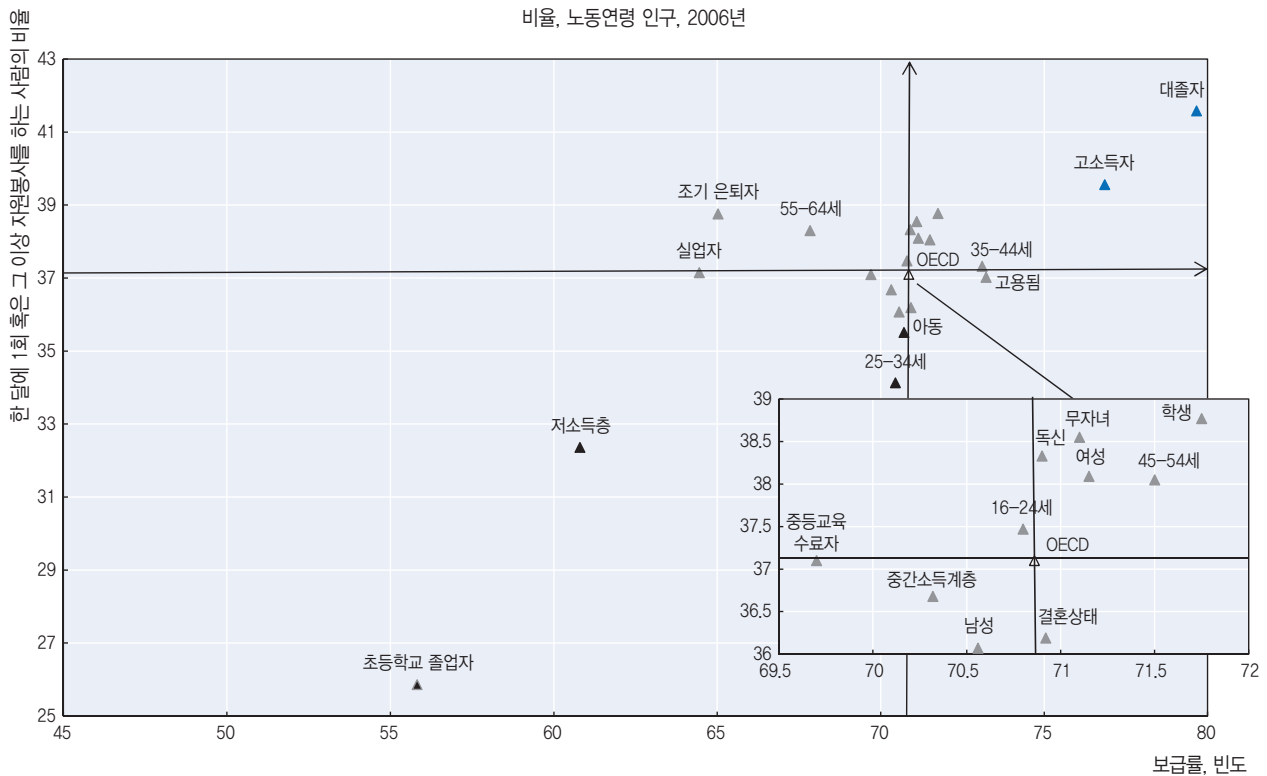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941>

비공식적 자원봉사(그림 5.6과 부록의 표 5.A.2)로 화제를 돌려보면, 자원봉사자들은 역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높다: i)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다(대졸자(80%) 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56%)), ii) 고용되었다(고용상태(73%) 대 실직 상태(65%)), iii) 가구 소득이 높다(고소득층(77%) 대 경제적 자원이 적은 계층(61%)). 비공식적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율은 64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집단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이네 68-73%이다. 비공식적 자원봉사의 빈도 역시 대부분의 연령집단에 걸쳐 비슷한데 모든 연령 집단들 내에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비공식적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20-26%가 1주일에 최소 한 번 자원봉사를 하는 반면에, 비공식적 자원봉사자 3명 중 거의 1명이 한달에 최소 한 번 자원봉사를 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아마도 그들이 자원봉사를 할 더 큰 관계망과 더 많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수행에 중요한 것으로 입증된 더 높은 사회적·인지적 역량을 보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취약계층(disadvantaged)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한다(Bekkers, 2005; Schlozman, Verba and Brady, 1999). 어떤 장애물은 경제적인 것이고, 어떤 장애물은 자원봉사에 관한 의식과 접근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에 기인하고, 어떤 장애물은 줄 것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다시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기회의 격차(opportunity gap)의 존재와 그 격차의 영구화 문제를 제기한다. 자원봉사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됨을 고려하면,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의 구성원들은 더 소외되고 그들의 인적·사회적 자원을 늘릴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림 5.6. 선정된 인구집단의 OECD 지역 내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평균 참여율과 빈도



주: 좌표평면(coordinate plane)에 다른 사회·인구통계학적 집단들의 위치를 정하면, 어느 집단이 OECD 평균보다 참여율과 빈도가 높으며(이러한 집단들은 파란색으로 표시, 사분면 우측 상단에 위치함), 어느 집단이 OECD 평균보다 참여율과 빈도가 낮으며(검은색, 사분면 좌측 하단에 위치함), 어느 집단이 OECD 평균에 가까운지(회색, 좌표평면의 원점에서 가까움)를 알 수 있다.

출처: 유럽사회조사(ESS, 2006)추출 데이터를 근거로 한 OECD 계산, 유럽사회조사 Round 3 Data, 데이터 파일 edition 3.5.(데이터베이스), 노르웨이 사회과학 데이터 서비스, 노르웨이-데이터 기록보관소 및 ESS data 배포자, www.europeansocialsurvey.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955>

두 인구집단에 특별히 초점을 맞춤: 학생과 장년층

PIAAC 조사는 노동 연령층의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서비스의 참여자가 아닌 수혜자로 오랫동안 확인되어온 두 집단인 학생과 장년층을 대체로 누락시킨다. 이러한 누락은 중요성을 띠는데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어 생애과정(life course)의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Shannon(2009)은 8세부터 12세 아동들 사이의 자원봉사를 연구했는데 매우 어린 아이들도 매우 폭넓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업무의 수행은 지속적인 유형·무형의 혜택을 제공함을 보여준다(박스 5.3).

박스 5.3. 어린 나이의 자원봉사 활동의 평생 효과(life-time eff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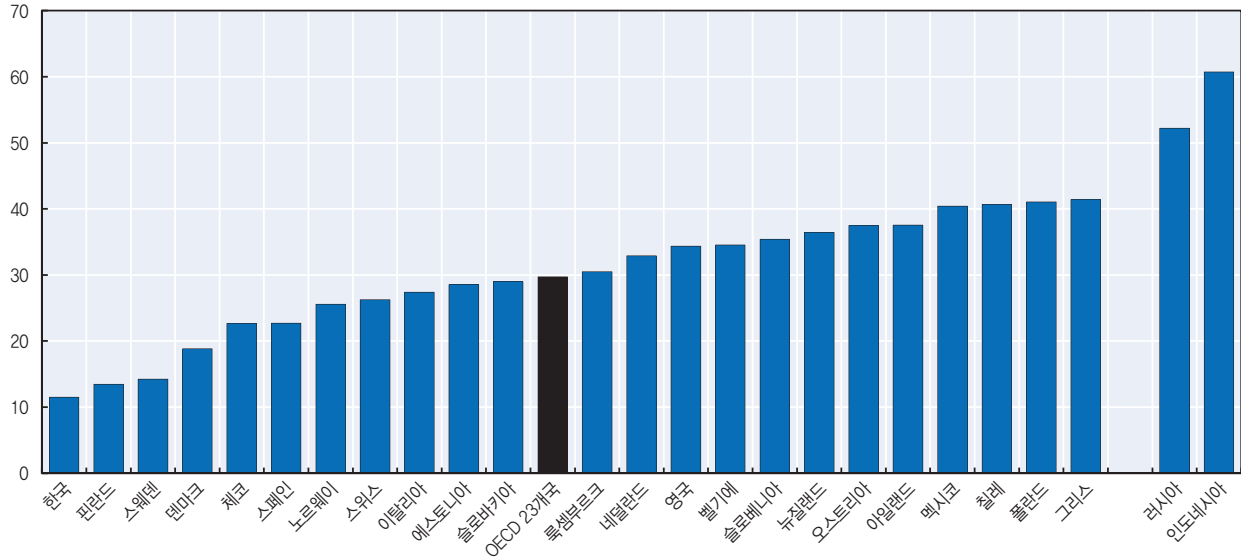
어린 나이의 자원봉사활동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고취시키고, 위험한 행동을 막으며, 10대 임신, 학교 중퇴, 약물 남용, 폭력 등 청소년들이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임을 보여준다(Hart et al., 2007; Wilson and Musick, 2000). 자원봉사는 또한 아동들에게 중요한 삶의 기술(life skills)과 가치를 육성시키는데, 이는 도시저소득층 지역에 사는 아동들처럼 그러한 기술과 관심사를 개발할 기회가 적은 아동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게다가, 자존감(self-esteem), 긍정적 자신감(self-confidence), 책임감, 배움에 대한 흥미를 늘려줌으로써 아동들의 심리 발달을 촉진한다(Lewis, 2002; Phalen, 2003).

어린 나이에 하는 자원봉사는 또한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달 이론가들 (developmental theorists)은 아동기와 초기 사춘기 동안의 경험은 평생의 가치(lifelong values)를 형성시키고 목적의식을 제공함을 시사한다(Lewis, 2002). 또한, Hart et al.(2007)은 청소년기에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나이 듦의 연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 of ageing)”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이 이론은 성인기의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습득한 버릇을 대개 유지한다고 주장한다(Wilson, 2012).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는 2009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이 조사는 평균 연령이 13세 6개월인 청소년들의 시민적 태도(civic attitudes)와 가치를 연구하는 국제적 조사이다.³⁰ 기관 중심(organization-based)의 자원봉사율은 국가 간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대체로 높다(그림 5.7).³¹ 그리스, 폴란드, 칠레, 멕시코에서 대략 14세 학생들의 40% 이상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고한다. 저울의 다른 쪽 끝에 있는 한국과 핀란드에서는 학생 10명 중 1명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보고한다.

그림 5.7. 학생들의 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

지난 12개월 사이에 공식적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 8학년 학생, 대략 14세, 2009년



주: 도표는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의 부문 중 최소 1개 부문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고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청소년 단체, 환경 단체, 인권 단체, 모금 단체, 문화 단체, 청소년 참여 캠페인.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랑드르만을 의미함. 영국의 데이터는 잉글랜드만을 의미함.

출처: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 2009)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근거로 한 OECD 계산,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데이터베이스), www.iea.nl/iccs_2009.htm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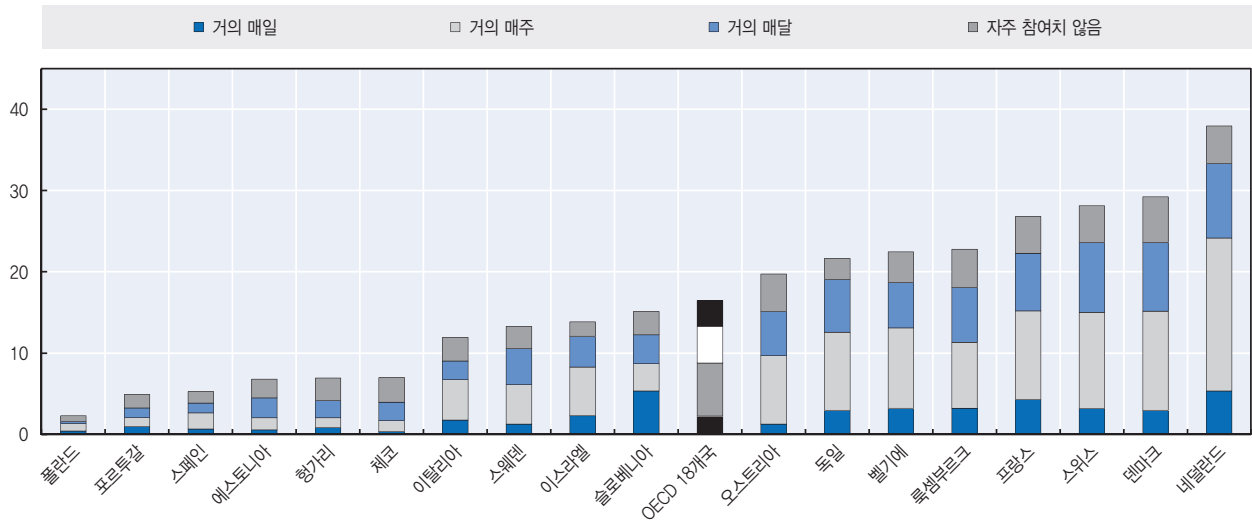
10대들의 경우 관측된 높은 비율과 커다란 국가별 차이는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야하는 일부 국가의 학제(national school system) 요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 전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금활동과 청소년 참여 캠페인에 적극적이다. 그리스, 폴란드, 러시아에서 청소년이 환경 단체에서 자원봉사 하는 일은 아주 흔하다. 이와는 반대로, 작은 비율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만이 인권과 문화 부문으로 유입된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흔히 일과 적극적인 부모역할 등 자신들이 잃어버린 사회적 역할에 대한 좋은 대체재로 자원봉사를 인식한다. 노년에 하는 자원봉사는 사회와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끼칠 수 있는데, 자원봉사는 고립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시키며, 자원봉사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고정관념(stereotype)을 변화시키고, 사회적·정치적 의식을 고취시킨다(Haski-Leventhal, 2009). Van Willigen(2000)은 자원봉사가 갖는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는 장년기에 증가함을 발견하는데, 장년층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기여하는 각각의 시간에 대해 더 큰 심리적 편익(psychological benefits)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유럽 건강·고령화·은퇴 조사(SHARE)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OECD유럽 회원국들에서 전반적으로 50세 이상 인구의 16%가 면접질문 시행 전 12개월 동안에 최소 1회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한다. 네덜란드(38%)와 덴마크(29%)는 50세 이상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자원봉사를 했고, 프랑스와 스위스(27-28%), 그리고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독일(21-22%)이 뒤를 따른다. 이탈리아(12%), 포르투갈과 스페인(5-6%)에서 자원봉사를 한 장년 인구의 비율은 유럽대륙의 평균을 크게 밑돈다. 50세 이상의 성인인구의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은 동부 유럽에서도 보고되고 있다(그림 5.8). 장년인구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4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유지되다가(OECD 지역에서 평균 21%), 65세 이상이 되면 하락하는데(12% 수준으로) 아마도 기능적 제약 때문일 것이다.

그림 5.8. 유럽 국가들 내 50세 이상 인구의 공식적 자원봉사 참여율

50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자원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15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에 대한 데이터는 2011년임.

출처: 유럽 건강·고령화·은퇴 조사(SHARE; 2015)에 근거한 OECD 계산, SHARE, 5차 조사, Release 1.0.0(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6103/SHARE.w5.100>; SHARE (2013), SHARE, 4차 조사, Release 1.1.1(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6103/SHARE.w4.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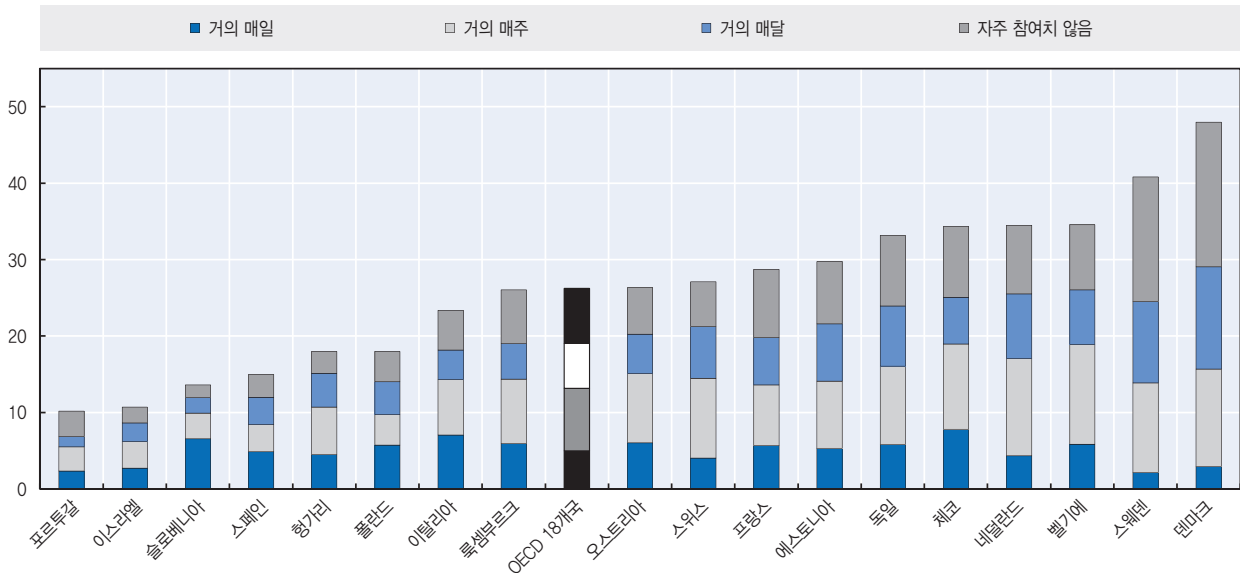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970>

지난 해에 공식적 장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5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거의 6분의 1(15%)이 거의 매일, 5명 중 2명(40%)이 거의 매주, 그리고 4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숫자가 거의 매달 자원봉사를 했다(그림 5.8). 국가 간 차이가 크지만, 다소 비체계적이어서 전반적 참여수준과는 무관하다.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관해서 보면, 응답자의 4분의 1이 가족, 친구들 혹은 이웃에게 비공식적 도움을 제공했다(그림 5.9). 국가 간 격차는 공식적 자원봉사에서 관측된 것과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데, 덴마크(48%)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와 체코(34-40%), 그리고 그 다음 수준의 국가들은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26-29%)이다. 비공식적 자원봉사의 참여율은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15-18%) 그리고 이스라엘과 포르투갈(10-11%)에서 훨씬 낮다. 평균적으로, 조사대상인 OECD 국가들에서 비공식적 자원봉사는 65세 미만의 인구(37%)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고, 65-74세 인구의 참여율은 28%이며 고령층에서는 13.5%로 떨어진다.

그림 5.9. 유럽 국가들 내 50세 이상 인구의 비공식적 자원봉사 참여율

5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자원봉사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15년 혹은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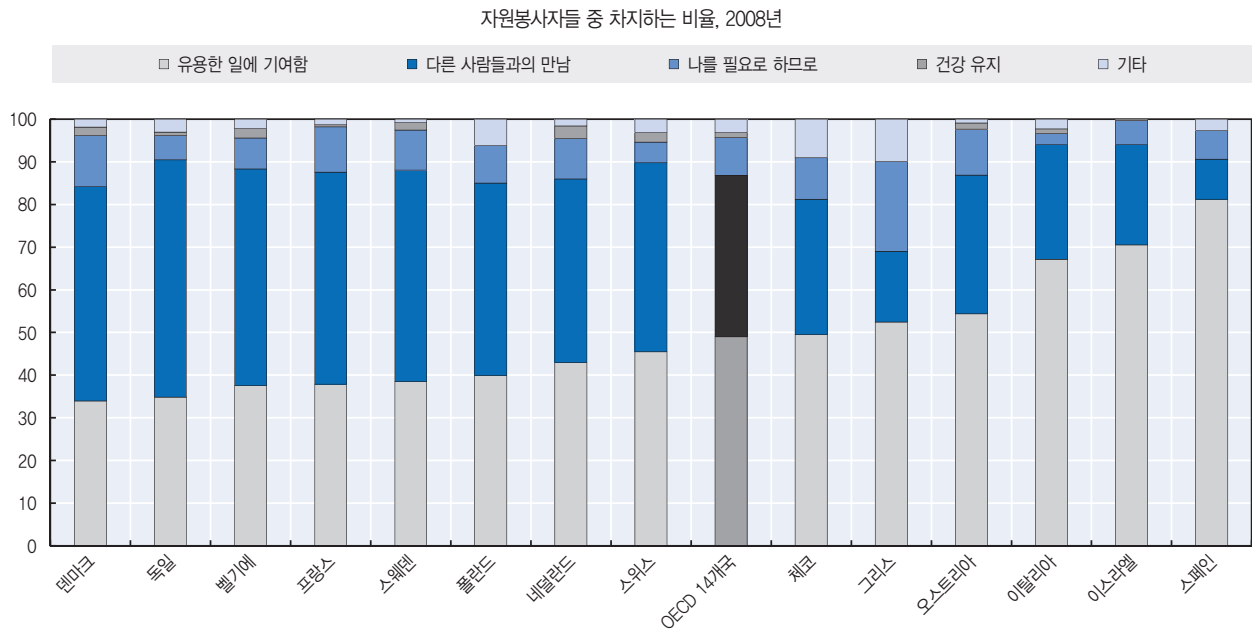
주: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에 대한 데이터는 2011년임.

출처: 유럽 건강·고령화·은퇴 조사(SHARE; 2015)에 근거한 OECD 계산, SHARE, 5차 조사, Release 1.0.0(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6103/SHARE.w5.100>; SHARE(2013), SHARE, 4차 조사, Release 1.1.1(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6103/SHARE.w4.111>.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983>

비공식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람의 절반은 매주 또는 그보다 더 자주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도움의 전반적 보급률(prevalence)과 빈도 사이에는 역의 관계(inverse relationship)가 존재한다. 슬로베니아에서 장년층의 참여율이 낮은 반면에 도움 제공자의 대략 50%는 거의 매일 도움을 제공한다(그리고 25%의 도움 제공자는 “매주” 돕고 있음). 반면에,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비공식적 도움의 보급률(prevalence)이 남부 유럽보다 훨씬 높지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규칙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자원봉사는 참여율, 참여 빈도, 활동, 기관의 종류 측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의 측면에서도 생애주기(life course)에 따라 다르다. 청소년과 성인 인구가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에 관한 가용한 비교 증거자료가 거의 없는 반면에, 제2차 유럽 건강·고령화·은퇴 조사(SHARE: 성격이 다른 소수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에서 가져온 정보는 장년층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중요한 동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임을 시사한다(그림 5.10). 이스라엘과 남부 유럽에서 장년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주된 동기는 무언가 유익한 일은 한다는 느낌과 관련이 있는 반면, 50세 이상의 유럽 대륙과 북유럽 사람들은 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그림 5.10. 유럽 국가들에서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



출처: 유럽 건강·고령화·은퇴 조사(SHARE; 2013)에 근거한 OECD 계산, SHARE, 2차 조사, Release 2.6.0(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2010.6103/SHARE.w2.26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59992>

자원봉사의 웰빙 편익 측정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고, 이웃집 노인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산출물(output)의 가치는 얼마인가? 비시장생산(non-market production)의 가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는데(박스 5.4) 여기에는 산출방법(output method)과 투입방법(input method)이 있다(O'Neill, 2001; Prouteau, 2006; Prouteau and Wolff, 2004; Sajardo and Serra, 2011). 산출 방법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서 사용된 접근법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 생산과의 직접적 비교를 허용한다(Abraham and Mackie, 2005). 그러나 이 방법은 시장 환경에서 생산된 비슷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며, 그러므로 데이터의 제한 때문에 투입 방법이 대부분의 현실적 적용에서 사용되고(Ahmad and Koh, 2011; Salamon, Sokolowski and Haddock, 2011) 여기서도 이 방법이 사용된다.

박스 5.4. 자원봉사 일의 경제적 가치 산정

자원봉사 일의 경제적 가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될 수 있다. **산출방법(output method)**은 자원봉사에 의해 생산된 재화 혹은 용역의 가치를 매긴다. 경제계정(economic accounts)을 집계할 때 사용되는 방법과 개념적으로 더 가깝기는 하지만 이 접근법을 실제로 적용하는데는 중대한 장애물들이 있다(Prouteau, 2002). 첫째, 자원봉사 일에서 생산된 산출(outputs)에 대한 명확하고 완벽한 확인을 요한다. 둘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유사대체재(close substitute)가 시장에 없는 경우가 흔하다.¹

투입방법(input method)은 자원봉사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들어가는 투입물(inputs)에 대한 화폐적 가치(monetary value)를 부여한다. 대부분의 현실적 적용에서, 고려되는 투입물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된 일에 한정된다. 이러한 투입 접근법은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이행된다.

-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자원봉사자가 무보수 자원봉사를 하면서 포기한 근로소득(wage income)을 수량화한다. 이 접근법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이 접근법은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더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거나(예: 은퇴자들) 혹은 경제활동 인구인적이 없었던 이유(예: 학생 혹은 무급 가사노동자)로 인해 어떠한 유급근로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한다. 둘째, 각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자유 시간(free time)에 두는 가치는 주관적이며 개인들 간의 비교가 어렵다.
-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은 서비스가 유급 근로자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가정할 때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었을 가치를 산정한다. 이 접근법에 대한 최선의 적용(**전문가 급여 접근법: specialist wage approach**)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수행된 업무(tasks)를 구체적 범주(예: 법률 서비스)로 분류하고 해당 업무가 보수를 받는 전문가(예: 변호사)에 의해 수행되었을 경우의 비용을 계산한다. 하지만 이 적용은 부담이 큰데, 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유급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사이의 생산성 차이에 대한 조정을 요하기 때문이다. 대체비용법을 적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반인(**generalist**) 급여 접근법이다.² 대체비용법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ILO에 의해 권장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 역시 약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약점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수행된 일은 유급 근로자에 의해 수행된 일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1. 이는 자원봉사 부문에서 생산되는 대다수의 산출물에 해당되는데 특히 수요 부문(demand side)의 지불능력(financial solvency)이 거의 없는 경우이거나, 공공적(public) 성격의 산출물이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2. 이 주제에 관한 소수의 국제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대안들을 기준급여(benchmark salary)로 사용했다: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평균 급여(유엔, 2003); 비농업(non-agriculture) 부문의 평균 급여(Anheier and Salamon, 2001), 해당 활동 영역 내 비영리단체의 급여(Mertens and Lefevre, 2004).

출처: Abraham, K.G. and C. Mackie(eds.) (2005), 시장을 넘어서(Beyond the Market): 미국에 대한 비시장 계정 설계(Designing Nonmarket Accounts for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OECD 국가들에서의 자원봉사 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 5.4는 생활시간 조사(TUS)에서 가져온 자원봉사(공식적·비공식적)에 소요된 시간 수에 관한 정보,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에서 가져온 각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hourly wage)에 관한 정보,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GDP에 관한 데이터를 결합한다. 대체비용 접근법은 자원봉사에 소요된 시간에 화폐적 가치를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전문화된 노동의

가격에 관한 가용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표 5.4는 각국의 평균적인 시간당 노동비용에 의존한다. 시간당 임금은 주 40시간 근로와 1년 52주(유급 휴가 포함)를 가정하여 연간 전일제(full-time equivalent)로 환산된다. 국가별 비교를 위하여 명목적 가치(nominal values)는 민간 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PPP)를 활용하여 2013년 기준 미달러화로 환산된다.³²

표 5.4. OECD 지역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

2013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	
	금액(2013년 가치, 10억 미달러, 구매력평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3년 가치, 10억 미달러, 구매력평가)
호주	49.4	4.7
오스트리아	4.5	1.2
벨기에	5.1	1.1
캐나다	36.3	2.4
덴마크	6.7	2.7
에스토니아	0.5	1.4
핀란드	2.9	1.3
프랑스	19.2	0.8
독일	117.6	3.3
헝가리	0.5	0.2
아일랜드	3.5	1.7
이탈리아	19.6	0.9
일본	33.2	0.7
한국	7.8	0.5
멕시코	19.7	1.0
네덜란드	7.7	1.0
뉴질랜드	6.4	4.1
노르웨이	5.9	1.8
폴란드	25.3	2.8
포르투갈	4.3	1.5
슬로베니아	1.2	2.0
스페인	22.1	1.4
스웨덴	11.3	2.6
영국	60.2	2.5
미국	621.7	3.7
OECD 25개국	1 093	1.9

주: 생활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13년, 일본의 경우 2011년, 캐나다의 경우 2010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 2009-2010년, 한국, 멕시코의 경우 2009년,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08년, 호주의 경우 2006년, 네덜란드의 경우 2005-2006년,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의 경우 2005년, 폴란드의 경우 2003-2004년, 독일의 경우 2001-2002년, 덴마크의 경우 2001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00-2001년, 헝가리의 경우 1999-2000년, 포르투갈의 경우 1999년이다. 비공식적 자원봉사를 한 시간 수에 관한 정보는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의 경우는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

출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조화로운 유럽 시간 사용 조사 웹 어플리케이션을 근거로 한 OECD 계산, <https://www.h2.scb.se/tus/tus/>; 유럽통계청 생활시간 데이터베이스,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tus_00selfstat&lang=en; 공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국가통계청에서 가져온 표; OECD(2015a), “국민계정 총액, SNA 2008: 국내총생산(GDP)”,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001-en>; and OECD(2015b), “연간 전일제 근로소득과 연간 총노동비용 (미달러 기준), 25-64세 인구”,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eag-2010-table88-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29>

표 5.4는 실제 미달러로 환산된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의 대략적 추정치(2번째 칼럼)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3번째 칼럼)을 보여준다. 데이터의 제약과 방법론적 shortcuts 때문에 불확실성의 범위는 크지만, 이 추정치들은 자원봉사 부문이 OECD 지역에서 1조 미달러에 해당하고 GDP의 상당한 부분(1.9%)을 차지하는 등 커다란 경제세력임을 시사한다.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는 호주, 독일, 뉴질랜드, 미국에서 특히 높다(GDP의 3% 이상).

우리가 줄 때 우리는 얼마나 받는가?

자원봉사의 혜택들은 타인에게 흘러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신들에게도 흘러들어온다: 그 혜택들에는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친구 사귀기, 삶의 경험 확장, 자신감 상승, 긍정적 기분의 경험, 새로운 기술의 습득 등이 있다. OECD 웰빙 프레임 워크를 따라서, 이러한 혜택들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3개의 대제목(main headings)으로 분류된다: i) 건강 상태, ii) 기술과 근로소득, iii) 주관적 웰빙.

건강 상태

이전의 연구는 자원봉사와 건강 상태의 긍정적 관련성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양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리고 낮은 사망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다(박스 5.5).

박스 5.5. 자원봉사와 건강 상태의 관계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더 강력한 관계망(network)을 형성한다.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얻는 건강상 편익은 신체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직장 및 결혼생활과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결속(social integration)이 더 이상 가용하지 않은 시기인 노령의 단계에 특히 분명하다.

다수의 연구(Wilson and Musick(2000) 참조)는 낮은 사망률과 높은 기대 여명 측면에서 자원봉사에 신체건강상의 편익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몇몇 역학 연구(epidemiological studies)는 자원봉사 참여와 건강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종단면적 데이터에 의존했다: 대부분의 역학 연구는 건강한 사람이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가 좋은 건강의 원인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통해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데 있어서의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또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원봉사가 갖은 대부분의 건강상 편익은 노년기에 집중된다.³³ 유럽 건강·고령화·은퇴 조사(SHARE)는 생애의 나중 단계의 사람들의 삶의 상태와 웰빙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와 건강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표 5.5는 조사 대상 국가들의 노인 자원봉사자들과 노인 비자원봉사자들 사이의 몇 가지 건강 지표들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표는 인과적 경로(causal pathway)에 관해 아무 것도 추론될 수 없지만 건강과 자원봉사 사이의 상당한 상관관계를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공식적 자원봉사를 하는 노년층 사람들은 비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비공식적 도움과 건강 사이의 관계는 특히 우울증(depression)의 경우 다소 약하다. 그러나, 국가 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비공식적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국가들(예: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비공식적

도움은 우울증의 감소와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에,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예: 포르투갈).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국가들에서 비공식적으로 돕는 역할은 대개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발생하고 더 강한 사회적 책임감과 낮은 사회적 인정(low social recognition)과 관련된다. 비공식적 도움 제공자는 그러므로 자원봉사 활동의 피로(fatigue)와 번아웃(burnout)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서 자원봉사가 우울증에 대해 갖는 건강에 좋은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Li and Ferraro, 2005).

표 5.5. 유럽 국가들 내 50세 이상의 사람들의 자원봉사 참여에 의한 건강 성과

비율, 2015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자기-보고 건강			우울증(Euro-D scale)			노령까지 살 가능성 ¹		
	좋음/매우 좋음			낮음/우울증 없음			50% 이상의 가능성		
	자원봉사 안함	공식적 자원봉사	비공식적 자원봉사	자원봉사 안함	공식적 자원봉사	비공식적 자원봉사	자원봉사 안함	공식적 자원봉사	비공식적 자원봉사
오스트리아	64.5	79.7	75.0	79.1	83.5	80.6	62.1	78.6	71.4
벨기에	68.7	80.6	78.4	71.3	76.1	69.5	51.3	66.2	62.7
체코	54.1	72.4	58.9	70.1	75.3	71.3	34.6	46.2	44.0
덴마크	70.5	84.6	79.8	79.1	86.6	83.1	65.4	79.7	73.7
에스토니아	26.1	52.6	37.4	59.4	78.9	65.3	46.6	64.5	57.8
프랑스	57.1	78.5	73.0	63.1	70.2	61.6	48.1	62.3	59.8
독일	51.4	72.1	66.4	73.6	81.5	74.5	51.8	63.6	62.7
헝가리	33.6	47.3	37.8	56.6	71.5	57.7	27.5	49.1	34.2
이스라엘	64.1	77.5	69.2	79.7	83.1	77.2	51.0	78.6	66.2
이탈리아	54.9	72.0	64.9	63.6	68.5	60.0	58.0	73.5	72.1
룩셈부르크	61.2	82.3	71.5	71.0	77.7	71.3	58.8	71.5	67.5
네덜란드	61.4	81.0	71.5	78.5	85.7	78.7	59.9	72.4	72.3
폴란드	38.9	36.3	58.4	58.1	33.3	55.5	54.4	35.2	42.7
포르투갈	36.9	48.6	44.3	61.3	68.9	41.6	53.8	56.9	56.3
슬로베니아	57.7	77.3	71.6	73.2	81.4	77.0	54.9	67.2	63.3
스페인	54.0	70.9	62.5	66.4	73.5	66.6	57.4	75.1	63.8
스웨덴	72.6	79.9	80.5	79.0	85.5	80.5	53.5	66.6	70.4
스위스	79.6	90.5	86.1	81.4	84.7	84.2	63.9	69.9	69.9
OECD 18개국	55.9	71.3	65.9	70.3	75.9	69.8	53.0	65.4	61.7

주: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에 관한 데이터는 2011년을 말함.

응답자들에게 어느 연령까지 살 것인지 또는 노령까지 살 것인지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 0에서 100까지 점수를 매길 것을 요청했다 (예컨대, 50-65세 연령 집단 사이에서는 75세).

출처: 유럽 건강·고령화·은퇴 조사(SHARE, 2015)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SHARE, Wave 5, Release 1.0.0 (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6103/SHARE.w5.100>; SHARE(2013), SHARE, Wave 4, Release 1.1.1(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6103/SHARE.w4.1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38>

기술과 근로소득

자원봉사는 또한 생애 초기와 중년기(Strauß, 2008) 그리고 후기 직장생활(career)에서 노동시장 편익(labour-market benefits)을 가져온다(박스 5.6) (Lancee and Radl, 2012). 일부 저자들은 자원봉사가 유급 근로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해왔다 (Vegeris et al., 2010).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가 정보기술, 언어, 비즈니스 경영과 고객 관계와 같은 “하드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시간 엄수 및 규율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증진시킨다고 일반적으로 보고한다(Hirst, 2001; Corden and Sainsbury, 2005; Newton, Oakley and Pollard, 2011; Nichols and Ralston, 2011).³⁴ 이와 마찬가지로 관리자들은 직무현장기술(workplace skills)이 자원봉사를 통해 습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Volunteering England, 2010).³⁵

PIAAC 결과는 대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자원봉사자들에 비해 더 높은 문자해독력, 수리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며 더 높은 임금을 받음을 보여준다(표 5.6).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자원봉사와 직무현장기술/근로소득 간 상관관계는 허구적(spurious)이며 누락된 변수들(예: 나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둘째, 표 5.6에서 강조된 긍정적 관계는 가용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만약 있다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표 5.6. 성인 숙달도 수준과 시간당 임금,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국가별

평균값, 노동연령인구, 2012

	문자해독력 숙달도		수리력 숙달도		문제해결능력 숙달도		시간당 임금 ¹	
	비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
호주	272	293	259	281	284	295	18.3	19.8
오스트리아	266	276	270	285	282	287	18.6	20.0
벨기에	269	288	273	295	277	288	21.6	23.5
캐나다	262	285	254	277	273	291	18.9	21.1
체코	272	283	273	287	280	294	8.8	9.9
덴마크	264	279	271	287	280	287	23.3	24.4
에스토니아	272	287	269	284	274	286	14.5	17.1
핀란드	282	295	276	291	288	291	9.4	10.2
프랑스	257	277	247	275			18.6	20.2
독일	263	283	263	288	278	290	18.1	20.1
아일랜드	261	275	249	266	274	280	20.4	23.4
이탈리아	248	260	244	260			15.8	17.4
일본	295	298	285	294	295	293	15.6	17.1
한국	270	280	260	272	282	284	17.1	20.4
네덜란드	279	291	275	289	284	290	20.8	22.7
노르웨이	269	286	267	287	281	290	23.0	25.3
폴란드	264	280	257	273	272	284	8.8	11.1
슬로바키아	272	281	273	285	280	285	8.6	9.9
스페인	248	267	243	261			16.3	19.3
스웨덴	273	291	271	293	284	295	18.4	19.3

	문자해독력 숙달도		수리력 숙달도		문제해결능력 숙달도		시간당 임금 ¹	
	비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
영국	265	288	254	280	275	291	15.1	16.8
미국	256	281	236	266	267	284	19.5	23.1
OECD 22개국	267	283	262	281	279	289	16.8	18.7
러시아	273	285	268	277	275	282	5.0	5.3

주: 벨기에에 대한 데이터는 플랑드르 지방을 의미함.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잉글랜드와 북 아일랜드만을 의미함. 러시아의 데이터는 모스크바시를 제외함.

시간당 임금에는 보너스가 포함되며 PPP(구매력평가)로 조정된 미달러로 표시됨. 본 표본은 노동연령 근로자만을 포함시킴. 임금 분포도는 1번째와 99번째 백분위수를 제거하기 위해 손질됨.

OECD 19개국 자료인 문제해결력 숙달도는 예외임.

출처: OECD(2012)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OECD 성인 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 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40>

그러나 다수의 개인적 특징들, 표본선정편향과 인과관계 문제점들을 통제한 계량경제분석(econometric analysis)은 자원봉사가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술 습득을 촉진하고 임금 프리미엄을 가져옴을 시사한다(박스 5.6과 부록 5.B).

주관적 웰빙

자원봉사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타인을 돕기 위해 무급 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지만(Becchetti, Pelloni and Rossetti, 2008; Dolan, Peasgood and White, 2008; Helliwell, 2003; OECD, 2011; Post, 2005), 반면에 소수의 연구는 여러 가지 개인적 특징들(연령, 성별, 개인적 특성, 고용 상태, 소득 등)을 통제한 후에는 자원봉사의 영향이 상당히 감소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Bjørnskov, 2006; Meier and Stutzer, 2008; Li, Pickles and Savage, 2005). 그러나 자원봉사와 주관적 웰빙에 관한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횡단면적 자료(cross-sectional data)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가 주관적 웰빙에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하다(박스 5.7).

박스 5.6. 자원봉사, 근로소득, 기술 사이의 관계

몇몇 연구는 자원봉사가 지식, 기술, 업무 태도, 자신감, 자존감, 정신적·신체적 건강, 웰빙을 증진시킴으로써 “개인의 고용가능성(individual employability)”에 기여한다고 결론을 내린다(Corden and Sainsbury, 2005; Hirst, 2001; Newton et al., 2011; Nichols and Ralston, 2011). 그러나 이러한 “고용가능성” 증가(gains)가 어느 정도로 높아진 유급 고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명확(mixed)하다(Kamerade and Ellis Paine, 2014; Ellis Paine, McKay and Moro, 2013). 게다가, 자원봉사 참여가 근로자에게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이 아직 확실치 않고 국가별 그리고 근로자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원봉사자 참여의 결정요소로서 교육의 관련성은 잘 정립된 상태이지만, 자원봉사가 성인인구에 의해 습득된 기술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별로 없는데 주로 데이터의 제약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록의 표 5.B.1에서 보여지는 분석은 자원봉사 참여와 직무현장 기술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첫번째 시도이다. 다수의 변수들이 거짓관계(spurious relations)를 통제하기 위해서 포함된 반면에, 인과관계 이슈는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을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로 사용한 두 단계의 최소제곱 회귀프레임 워크(least squares regression framework)에서 처리된다.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와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통제한 후에 PIAAS에 기반한 추정치들은 자원봉사가 직무현장기술(workplace skills)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자원봉사가 근로소득(earnings)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면 기존의 증거자료는 제한적인데 이는 주로 이 관계를 제대로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 세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7%에서 19%에 이르는 자원봉사로 인한 임금 프리미엄을 발견한다. 부록의 표 5.B.1의 마지막 칼럼은 자원봉사에 돌아가는 “실질” 근로소득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두 가지 방법론적 접근법이 자원봉사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었다. 첫째, 자원봉사의 효과를 추정할 때 내생성편향(endogeneity bias)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기술 프리미엄의 경우에 사용된 것과 비슷하다. 둘째, 노동시장참여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프레임 워크는 잠재적인 표본 선택편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Heckman 기법). 역인과관계와 선택 편향을 통제한 후에 PIAAC에 기반한 추정치들은 자원봉사가 시간당 임금을 14% 증가시킴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추정치들과 일치한다(Day and Devlin, 1998; Hackl, Halla and Pruckner, 2007; Prouteau and Wolff, 2006).

표 5.7은 자원봉사가 숙달도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던 PIAAC데이터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발견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놓았다(전체 결과는 부록 5.B에서 제공됨). 공식적 자원봉사가 기술 숙달도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제2차 PIAAC 조사의 발표(release)로 인해 진전이 있을 것이다.

박스 5.6. 자원봉사, 근로소득, 기술 사이의 관계(계속)

표 5.7. 기술숙달도와 근로소득에 대한 공식적 자원봉사 계수

	문자해독력	수리력	문제해결 능력	시간당 임금 ¹
사회·경제적 통제	11.0**	10.8**	8.0**	0.14***
공식적 자원봉사	YES ²	YES ²	YES ²	YES ³
역의 인과관계	YES	YES	YES	YES
자기선택편향				YES ⁴
국가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주: **5% 수준에서 유의미함, *** 1% 수준에서 유의미함.


1. 종속변수 “시간당 근로소득”은 시간당 근로소득의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임. 시간당 근로소득은 보너스를 포함하며 구매력평가(PPP)로 조정된 미달러로 표시됨. 임금 분포도는 1번째와 99번째 백분위수를 제거하기 위해 조정됨. 표본에는 노동연령인구만 포함됨.

2. 연령, 성별, 외국 태생 지위(foreign-born status), 취업유지 기간(job tenure), 직업의 종류에 대해 조정된 계수

3. 연령, 성별, 외국 태생 지위(foreign-born status), 취업유지 기간(job tenure)에 대해 조정된 계수

4. 노동력 참여 등식은 연령, 성별, 자녀 유무, 결혼 상태, 배우자의 고용에 대해 통제됨.

출처: OECD(2012)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OECD 성인 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 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58>

박스 5.7. 자원봉사와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

점점 더 많은 수의 연구에서 자원봉사와 삶에 대한 만족도, 자존감 등과 같은 심리적 특징들과의 관련성을 연구한다. 이 연구의 다수는 자원봉사참여가 주관적 웰빙을 증진시킴을 시사한다.

자원봉사가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다른 채널들이 밝혀지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은퇴와 배우자와의 사별 등과 관련된 역할 손실의 상쇄를 도움으로써, 주관적 웰빙에 유익하고 또한 개인적인 위기 때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Van Willigen, 2000). 둘째, 자원봉사는 더 나은 주관적 웰빙으로 이끌 수 있는데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Wilson and Musick, 2003).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는 지원 제공자의 자존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Krause and Shaw, 2000).

위의 각각이 자원봉사와 주관적 웰빙 간 관계의 합리적 경로이지만 성과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일부 연구는 공식적 자원봉사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비선형 효과(non-linear effect)를 보여주는데(Van Willigen, 2000), 적당한 양의 자원봉사가 최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도움과 같은 다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는 각기 다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5.8은 공식적 자원봉사의 참여와 두 가지의 다른 주관적 웰빙(삶에 대한 만족도, 감정 밸런스) 사이의 관계를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여준다.³⁶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온 공식적 자원봉사에 관한 질문은 “지난달에 당신은 시간을 내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까?”이다.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비자원봉사자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³⁷ 부록의 표 5.C.1은 감정 밸런스 메트릭(affect balance metric)에 포함된 감정들의 분포를 자원봉사 참여유무 및 국가별로 제시하는데, 이 증거자료는 자원봉사자들이 비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긍정적 감정들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부정적 감정에 관해서는 어떤 분명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결과는 예컨대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예: 호스피스에 거주하는 사람들 혹은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일은 도움제공자 사이에 슬픔과 번아웃(탈진)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Gabard, 1997; Haski-Leventhal and Bargal, 2008).

개인의 여러 가지 특징들(즉, 성별, 연령, 소득과 교육수준, 결혼상태, 부모의 지위, 거주지역)을 통제한 후에도,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크고 중요하다(그림 5.11, 검은색 수평선). 그러나 자원봉사의 평균 효과에 초점을 맞추면 비선형적 관계(non-linear relationship)가 감춰질 수 있다(Binder, 2015; Binder and Freytag, 2013). 그림 5.11은 자원봉사가 모든 오분위(quintiles)에 걸쳐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임을 보여주지만, 그 관계는 더 높은 단계의 삶의 만족도에서는 약화된다(더 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부록의 표 5.C.2 참조). 최하위 오분위에서 나타나는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강한 연관관계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자들 자신의 불행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막 역할(protective role)을 제공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 같다(Binder and Freytag, 2013).

표 5.8. 주관적 웰빙 지표들,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국가별

평균값, 2014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삶에 대한 만족도		감정 밸런스	
	0-10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	
	자원봉사를 하지 않음	공식적인 자원봉사를 함	자원봉사를 하지 않음	공식적인 자원봉사를 함
호주	7.2	7.5	75.9	76.2
오스트리아	7.0	7.5	79.5	83.5
벨기에	6.8	7.1	75.9	77.9
캐나다	7.2	7.4	76.9	77.7
칠레	6.8	6.9	77.2	79.4
체코	6.5	6.6	70.4	78.2
덴마크	7.5	7.7	80.0	85.8
에스토니아	5.4	6.2	72.1	81.2
핀란드	7.4	7.6	81.7	84.7
프랑스	6.4	6.8	77.4	81.3
독일	7.0	7.3	77.0	85.3
그리스	4.7	5.9	59.2	72.7
헝가리	5.1	5.3	67.3	85.9
아이슬란드	7.5	7.7	84.5	86.5
아일랜드	6.7	7.1	76.9	80.8

5. 주는 것의 가치: 자원봉사와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감정 밸런스	
	0-10 칸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	
	자원봉사를 하지 않음	공식적인 자원봉사를 함	자원봉사를 하지 않음	공식적인 자원봉사를 함
이스라엘	7.3	7.7	66.6	70.7
이탈리아	6.0	6.1	63.5	64.6
일본	5.7	6.1	77.0	86.9
한국	5.7	6.3	66.5	71.2
룩셈부르크	6.8	6.9	81.3	83.9
멕시코	6.4	6.9	81.5	84.4
네덜란드	7.2	7.4	85.5	84.5
뉴질랜드	7.3	7.7	78.4	84.0
노르웨이	7.4	7.7	79.2	84.4
폴란드	5.1	5.6	74.3	75.6
포르투갈	5.1	5.7	61.5	67.3
슬로바키아	5.8	6.0	71.9	78.8
슬로베니아	5.4	6.4	64.5	78.5
스페인	6.4	6.4	70.3	69.2
스웨덴	7.2	7.6	80.7	79.0
스위스	7.4	7.7	83.4	86.2
터키	5.4	5.7	61.0	70.8
영국	6.5	6.8	78.9	79.6
미국	6.9	7.3	75.5	76.7
OECD	6.5	6.8	74.5	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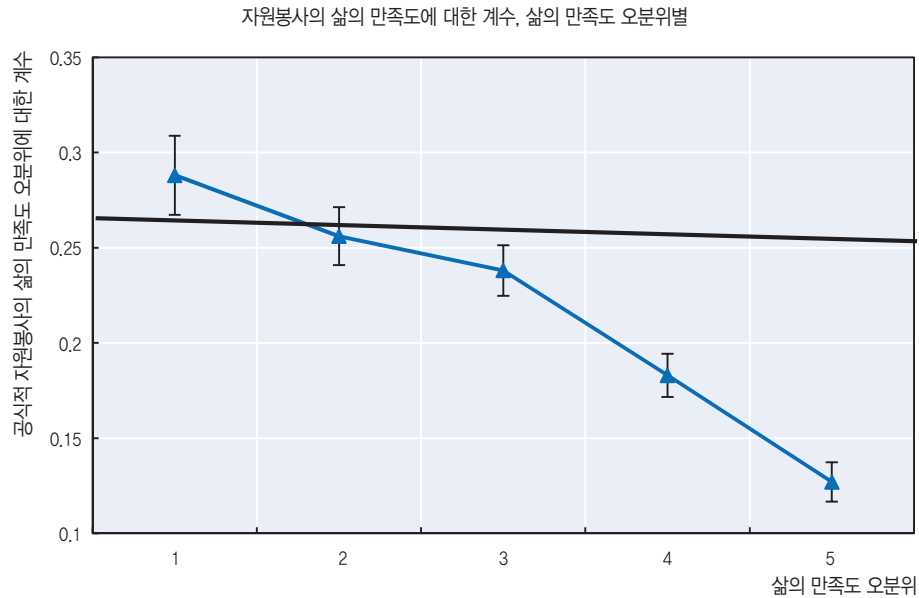
주: 아이슬란드와 터키의 경우 데이터는 2013년 자료임.

출처: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65>

자원봉사와 주관적 웰빙 간 관계의 평가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alternative approach)은 다수의 OECD 국가들(프랑스, 미국 등)에서 수집된 생활시간조사의 감정 모듈(affect module)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모듈들은 특정 시기에 평가된 구체적 활동들이 경험된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를 허용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봉사가 가장 즐거운 활동들 중 하나이며 자원봉사하는 날에 사람들은 비자원봉사자들보다 불쾌한 상태에서 더 적은 시간을 보냄을 보여준다(박스 5.8).

그림 5.11. 공식적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은 모든 OECD 국가들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가용가능한 년도에서 통합되었다. 수평선은 전체 표본에 대한 자원봉사의 계수(0.264***)를 제공한다. 삶의 만족도 오분위들에 대한 계수의 오차구간은 95% 신뢰구간에 해당한다. 삶의 만족도 오분위들에 대한 계수는 최저 오분위의 0.288***부터 최고 오분위의 0.127***에 이른다.

출처: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06>

박스 5.8. 미국 생활시간 조사의 자원봉사와 주관적 웰빙

2013년 미국 생활시간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에서 가져온 웰빙 모듈이 일상의 “행복”과 자원봉사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된다. 분석은 하루 동안 경험된 감정들에 대한 두 가지 측정법을 고찰한다: 즉, 감정 밸런스와 불쾌한 상태로 보낸 시간의 비율(U 지표)을 고려한다. 표 5.9는 감정 밸런스의 평균 값에 의해 순위가 매겨진 15가지(90가지 중에서)의 가장 즐거운 활동들의 목록을 보여준다. 비기본적 보육(non-basic childcare), 오락(entertainment), 종교활동, 집밖에서의 레저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 그룹에 속하는데, 이 결과는 이전의 연구들과 일관성이 있다(Kahneman et al., 2004; Krueger et al., 2009; White and Dolan, 2009).

그림 5.12는 자원봉사가 사람들이 경험하는 웰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확증한다. 예를 들어, 표본으로 추출된 날에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 중 거의 4분의 1을 불쾌한 상태에서 보냈는데, 반면에 이 비율은 그 날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경우 5분의 1 미만이다(각각 24%와 19%임; 패널 A).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원봉사를 했던 날에 자원봉사자들은 비자원봉사자들보다 1시간을 더 유쾌한 상태에서 보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날에 불쾌한 감정들보다 유쾌한 감정들을 더 많이 보고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자원봉사자들(95%)의 경우 비자원봉사자들(87%, 패널 B)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박스 5.8. 미국 생활시간 조사의 자원봉사와 주관적 웰빙(계속)

표 5.9. 미국 생활시간 조사의 감정 밸런스와 U 지수, 활동별

평균값, 노동연령인구, 2013년

활동	감정 밸런스	U 지수
자원봉사활동: 별도로 분류되지 않음	4.25	0.028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외)	3.90	0.055
자원봉사활동: 사회서비스와 돌봄 활동(의료 제외)	3.75	0.068
사회적 행사 참석 또는 주최	3.74	0.070
종교 또는 영적 활동	3.59	0.096
비공식적 도움: 비가구(non-household) 아동을 위한 돌봄과 도움	3.45	0.099
자원봉사활동: 문화적 활동 참여	3.42	0.063
자원봉사활동: 회의와 훈련 참석	3.40	0.211
스포츠, 운동 또는 레크리에이션 참여	3.40	0.129
사교와 의사소통	3.33	0.148
가구 아동들에 대한 돌봄 및 도움	3.29	0.171
쇼핑	3.22	0.121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행사 참석	3.09	0.043
정원손질 및 실내화초 가꾸기	2.93	0.153
비가구(non-household) 성인들을 위한 도움	2.85	0.189

주: 감정 밸런스는 응답자가 모든 긍정적 느낌들에 대해 매긴 평균 점수와 모든 부정적 느낌들에 매긴 평균 점수 사이의 차이(difference)로 정의된다. 이는 -6에서 6사이 중 어떤 값이 될 수 있다. "U 지수"는 불쾌한 상태로 지낸 시간의 비율을 측정한다: 어떤 한 가지 특정 사건(episode)의 경우에, 이는 부정적 감정들(스트레스, 피곤함, 슬픔, 고통) 중 어떤 감정의 최대치가 행복한 감정의 수치를 초과하면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된다. 15회 미만으로 관측된 활동들은 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출처: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2015)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미국 생활시간 조사(ATUS) 2013(데이터베이스), 노동통계국, www.bls.gov/tus/#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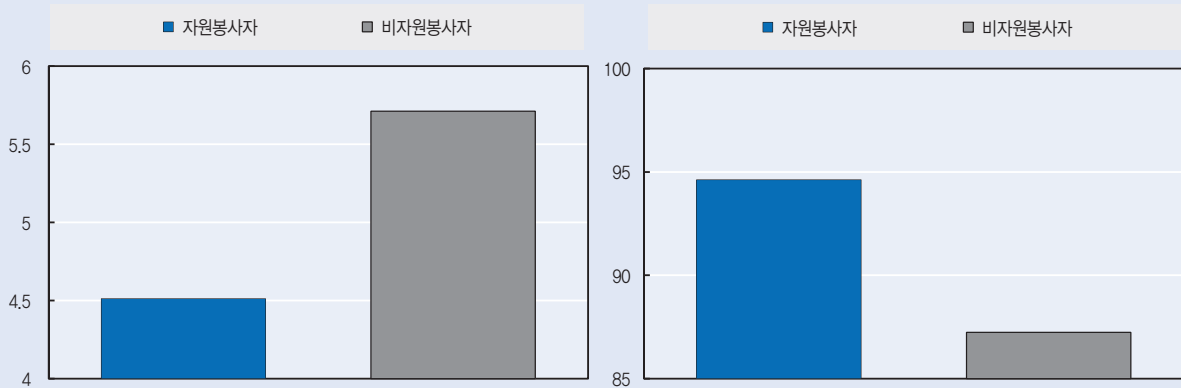
박스 5.8. 미국 생활시간 조사의 자원봉사와 주관적 웰빙(계속)

그림 5.12. 미국 생활시간 조사의 불편한 상태로 지낸 시간과 긍정적 감정 밸런스, 자원봉사활동 유무별

노동연령인구, 2013년

패널 A: 하루에 불편한 상태에서 지낸 시간 수 (U 지수)

패널 B: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주: “자원봉사자”라는 말은 해당 일에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비자원봉사자”라는 말은 해당 일에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감정 밸런스는 응답자가 모든 긍정적 감정들에 매긴 평균 점수와 모든 부정적 감정들에 매긴 평균 점수의 차이라고 정의된다. “U 지수”는 불편한 상태로 지낸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어떤 한 가지 특정 사건(episode)의 경우에 부정적 감정들(스트레스, 피곤함, 슬픔, 고통)중 어떤 감정의 최대치가 행복한 감정의 수치를 초과하면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된다.

출처: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2015)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 OECD계산, 미국 생활시간조사(ATUS) 2013(데이터베이스), 노동통계국, www.bls.gov/tus/#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11>

자원봉사에 대한 향후 통계 과제

자원봉사에 관한 일부 비교통계(comparative statistical) 정보가 가능하여 본 장에 제시된 분석의 토대를 제공했지만, 많은 중요한 측면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자원봉사의 규모, 구조, 효과에 관한 더 나은 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ICLS 결의안에 의해 권고된 방침에 의거하여 많은 조사들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일관성있게 적용함 (공식·비공식 데이터 생산자 모두에게 해당). 이렇게 한다면, 조사들(노동력 조사, 생활시간 조사, 일반가구조사 등)이 포함된 활동들(특히 혼자 살거나 다른 가구에 사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에 관한 활동들), 응답자가 자원봉사 일을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기간(지난 4주간 또는 지난 12개월 등), 자원봉사의 수행 빈도와 지속기간, 생산된 서비스 유형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험적 측정치를 개발함. 이는 모든 비영리단체들(NPI)을 다루고 자원봉사 일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시킨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의 주기적 집계를 통해 가능한데, 진행중인 무급가사서비스노동 가치산정에 관한 유엔유럽경제위원회 태스크포스(UNECE Task Force on Valuing Unpaid Household Service Work)가 추구하는 방침에 의거한다.

- “일” 외의 자원봉사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매트릭스를 개발함. 여기에는 기부(현금과 현물) 및 자원봉사 기관의 회원이 되거나 그러한 기관에서 벌이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비근로(non-work)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형태의 비근로 활동들은 일종의 “정치·시민 참여”로서 더 잘 이해되지만(Boarini and Diaz, 2015), 자원봉사가 어떻게 사회적 자본에 기여하고, 활기찬 시민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지를 측정하는데 중요하다.
- 추가적 출처의 활용.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비영리협회 또는 비영리단체의 국가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부는 대개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 등록부는 비영리협회가 의무적으로 그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협회의 전문 직원, 무급 자원봉사자의 수, 활동 부문, 기금원(funding source)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귀중한 데이터 출처이다. 이 등록부들에서 온 정보는 정기적으로 수집되며 자원봉사 부문에 의해 전파되어야 하며, 통계청은 이 통계정보를 입증한다(또한 통계청의 보고에 사용함).

주

1. ILO 정의는 자원봉사 일의 특징들(즉, 생산적 근로가 수반되는 비강제적 무급 노동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의 가구를 위해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지역적 상황에 상관없이 연구의 영역이 한결같이 규정되도록 보장한다. ILO 매뉴얼은 기준의 해석에 대해 생겨날 수 있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2. 이 접근법에서, 비공식적 자원봉사를 규정하는 특징은 제공된 어떤 일 또는 서비스가 자원봉사자 자신의 가구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은 자원봉사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웃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은 자원봉사에 해당된다.
3.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체계(SNA)분류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관 부문들이나 경제적 활동들에 흩어져 있는 특정 유형의 기관들에 관한 데이터를 모은다. 비영리단체(NPI)의 경우에, 위성계정은 금융법인기업(financial corporations), 비금융법인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s), 정부(government),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 가계(households) 부문에 할당된 NPI에 관한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이는 NPI “부문”의 완벽한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4. 그러나, 자원봉사 일의 측정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LFS에 대한 의존 역시 연구 가능한 이슈들의 범위를 제한한다. ILO 매뉴얼에 의해 제안된 자원봉사 모듈은 다음의 5가지 이슈들: i) 자원봉사자들은 누구인가?, ii) 그들은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가?, iii) 특정 기준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각 활동에 소요한 시간의 양은 얼마나 되나?, iv) 활동이 한 개인을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기관을 통해서 수행되는지, 그리고 만약 기관을 통해서라면 기관의 유형은 무엇인가?(예: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v) 이 자원봉사가 기여하는 분야 혹은 부문은 어디인가?(예: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스포츠 등). ILO 매뉴얼은 자원봉사 일에 관한 질문을 위해 4주의 조사기간(reference period)을 채택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회 조사에서 사용되는 12개월 기간 프레임보다 상당히 짧으며, 자원봉사 일의 규모(자원봉사자의 수)에 대한 낮은 추정치로 이어진다.
5. 폴란드에 대한 LFS 임시 모듈로부터의 증거자료는 공식적·비공식적 자원봉사가 모든 근로자의 대략 10%를 차지하고 (넓은 의미의)GDP의 3%에 근접함을 보여준다. ILO 매뉴얼과 관련되긴 하지만, 헝가리의 자원봉사에 관한 임시 LFS 모듈은 좀 더 긴 기준기간을 사용한다(면접설문전 4주가 아닌 12개월임).

6. 국가들의 상당한 횡단면(cross-section)에서의 자원봉사에 관한 비교데이터를 수집한 소수의 조사 중 하나는 존스홉킨스대학 비교 비영리부문 프로젝트(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Salamon et al., 1999). 이 조사는 자원봉사자의 수, 자원봉사 활동 시간 수, 활동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 데이터 중 대부분은 옴니버스 인구조사에 특별히 위임된 별지내용(specially commissioned inserts)을 통해서 수집되었으며, 어떤 국가에서는 특수기구조사(special organizational surveys)가 대신 활용되었다.
7. 퓨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분석은 미국 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1997년에 약 36%에서 현재 9%로) 자원봉사자들이 전체 인구에 비해 조사들에서 과대대표 되는(over-represented) 경향이 있음을 강조한다(퓨연구센터, 2015). 이 연구는, 대부분의 변수들에 대해 소규모 표본 여론조사(small-sample polls)는 가구 특징들에 대한 비편향적(unbiased) 추정치를 제공하는 반면, 작년에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이 대규모의 공식적 조사(27%)에서보다 소규모의 여론조사(55%)에서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8.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도와주었는지에 관해 묻는 질문은, 수 시간 동안 도움을 제공한 일부터 길거리에서 길을 알려준 것과 같은 우연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해당한다고 응답자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기관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했는지에 관한 질문의 답에 졸업 조건으로 필수적인 의무적 지역사회 봉사활동 또는 단순한 행사 참석(종교 의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9. Toppe and Groves(2007)는 “적지 않은” 비율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자신은 간주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로 여겨져야 하는 일들을 했음을 발견했다.
10. 달리 말하면, 자원봉사의 복잡한 현실은 1차원적 측정법으로 단순화 된다: 즉 단체들을 하나의 단일적이고 강건한 독립체(uniform and robust entity)인 것처럼 가정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전반적으로(예 또는 아니오) 예측한다(Cnaan and Amroffell, 1994; Cnaan, Handy and Wadsworth, 1996).
11. 원칙적으로 기관에 대한 조사는 기관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투입(input) 문서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기관에 근거한(organization-based) 자원봉사만을 파악한다. 게다가, 조사의 활용에 대한 주된 장애물은 자원봉사 부문이 높은 이직률(turnover), 비교적 비공식적 접근방법, 열악한 정보 기록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인데 이는 데이터가 종종 신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2. 자기 기입식 일지(self-administered diary)의 사용이 유럽과 북미에서 일반적인 반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다수는 생활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활동 목록을 사용한다.
13. 그러나 생활시간 조사(TUS)는 응답자가 자원봉사하는 기관의 종류나 수행하는 일의 종류 등 해당 활동이 일어나는 기관의 환경(setting)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꺾림세계조사(GWP)는 “지난 달에 당신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나요?”라는 공식적 자원봉사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킨다. 좀 더 최근 내용이며 모든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 섹션에서 사용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조사의 질문이 자원봉사 참여 빈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갤럽세계조사(GWP)는 또한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킨다. 좀 더 최근 내용이며 모든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 섹션에서 사용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조사의 질문이 ICSL의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16. 갤럽세계조사 질문은 “지난 달에 당신은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나요?”인데, 이 질문은 도움제공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개 제공되는 비공식적 도움에 대한 측정치가 아닌 “좋은 시민(good citizen)”임에 대한 대리지표(proxy)로 응답자들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17. OECD 생활시간 데이터 베이스에서, 비공식적 자원봉사는 비가구(non-household)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 사용된 시간으로 정의된다(그러므로 여기에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도움을 포함시킬 수 있음).
18. 본 장은 2015년 3월 31일 기준 유럽 건강·고령화·은퇴 조사(SHARE) Wave 5 release 1.0.0(DOI: 10.6103/SHARE.w5.100), 2013년 3월 28일 기준 SHARE Wave 4 release 1.1.1(DOI: 10.6103/SHARE.w4.111), 2013년 11월 29일 기준 SHARE Wave 2 release 2.6.0(DOI: 10.6103/SHARE.w1.260 and 10.6103/SHARE.w2.260)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한다. 기금지원 기관들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www.share-project.org를 참조하십시오.
19.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www.share-project.org와 Malter and Börsch-Supan(2015)을 참조하십시오.
20. 이 연구결과는 Vézina and Crompton(2012)에서 보여진 증거자료와 일치하는데,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율이 캐나다 퀘벡(Québec; 37%) 주에서 가장 낮고, 영어사용 지방들에서 가장 높다(41-58%).
21. 예컨대, 일부 동부 유럽 국가들의 낮은 자원봉사율은, 그 국가의 시민들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공공선을 위해 무보수 노동을 강제적으로 제공해야 했지만, 현재 그들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이 이유가 될 수 있다(Hodgkinson, 2012).
22. Pearson의 두 가지 종류의 자원봉사(공식적, 비공식적) 간 상관관계는 0.73이며 1%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에서 유의미하다.
23. 사회·경제적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 것 외에, 사회심리학자들은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특성들을 평가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동인(driver)으로써 성격(personality)의 중요성은 사회적 조건 및 규범과 비교해서 약한 것처럼 보인다(Bekkers, 2005; Musick and Wilson, 2008).
24. 그림 5.5와 그림 5.6에 보이는 분석을 위해서, OECD 평균값은 인구 가중치를 준 수치이다. 그러므로, 단순 평균인 그림 5.1과 그림 5.2에서 보여진 OECD 평균치와 약간 다르다.
25.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 자원봉사 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의 3배인 반면에, 칠레에서 사회 및 보건 부문의 자원봉사자들의 거의 70%는 여성이다. 이러한 성별 격차 패턴들은 유급 노동 시간에서 발견된 성별 격차 패턴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
26. 그림 5.5는 노동연령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원봉사율은 은퇴기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7. Wilson(2000)에 따르면, “교육은 자원봉사를 촉진하는데 왜냐하면 교육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공감력(empathy)을 늘리고, 자신감(self-confidence)을 증강시키기 때문이다.”

28. Oesterle, Johnson and Mortimer(2004)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더 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원봉사가 결국은 자기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할 수 있다.
29. 이는 노동시간 참여는 자원봉사를 촉진한다는 견해를 입증하는 경향이 있는데(Wilson, 2000) 아마도 직무경험이 기술을 산출하기 때문인데 이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관계는 본 장(chapter)의 후반부에서 더 논의되고 분석된다.
30. 연구는 학부모회(parent-pupil association)의 자원봉사를 배제할 때 부모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보다 자원봉사를 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Prouteau and Wolff, 2008).
31. 2009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는 38개국의 5,300개 이상의 학교에서 14만명 이상의 8학년(동등 학년) 학생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다. 질문지는 4가지 학습내용 영역(시민 사회와 체제, 시민사회 원칙,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을 다루는데 다양한 주제를 포함시킨다.
32. 그림 5.7에서 보여진 % 수치들은 그림 4.23에서 보고된 수치들과 약간 다른데 여기서 종교 및 정치 기관에 대한 참여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33.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명목 통화로 표시된 자원봉사활동에서 사용된 노동 가치=평균 시간당 세후 노동비용* 1일 평균 노동 시간*1년 동안 날짜 수*인구(16세 이상). 이 방법은 가정생산(home production), 즉 가구 내 사용을 위해서 가구에서 생산된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hmad and Koh(2011)에 의해 사용된 방법과 대체로 일치한다.
34. 자원봉사의 건강편익은 노년층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Omoto and Snyder, 1995). 그러나 자원봉사자(helper)와 비자원봉사자(non-helpers)간 건강성과(health outcomes)의 차이는 젊은 사람들에서 더 감지하기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의 건강은 노화와 연관된 취약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35.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격증(certification)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흔히 관심을 갖는다. 프랑스 베네볼라(France Bénévolat)에 의해 발간된 Passeport Bénévole(www.passeport-benevole.org)는 자원봉사 일을 통하여 습득된 기술, 자격, 그리고 얻어진 경험을 기록한다. 2007년에 도입된 이래, 10만 passes가 배포되었다. 이러한 passes는 자원봉사자들의 기술에 대한 서술(description)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를 공식화하고 그러므로 더 입증이 쉽도록 만든다. 요지는 또한 기술과 자격을 해당 자원봉사자의 경력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체코에서 자원봉사 중에 습득된 역량과 자격을 증명하는 개인의 기술과 자격 포트폴리오가 개발되었다.
36. www.volunteering.org.uk/who-we-can-help/employers/the-business-case-for-esv 참조(2015년 5월 29일 액세스됨).

37. 갤럽세계조사에서 사용된 삶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지표는 칸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에 근거하는데, 사람들에게 0에서 10까지를 기준으로 최선의 삶과 최악의 삶과 비교한 현재 자신의 삶에 점수를 매기라고 요청한다. 대조적으로, 감정 밸런스(affect balance)는 평가적(evaluative) 웰빙이 아닌 경험된(experienced) 웰빙을 파악하며, 어제 경험한 세가지 긍정적 감정(기쁨, 폭 신 느낌, 미소짓거나 웃기를 많이 함)과 세가지 부정적 감정(걱정, 분노, 슬픔)에 근거하는데, 이 지표는 만약 각 응답자가 경험한 긍정적 감정들의 숫자가 부정적 감정들의 숫자보다 많을 때 1의 숫자를 띠고 그렇지 않을 때 0의 숫자를 띤다.
38. 이러한 결과들은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데이터 제약 때문에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사람들이 행복할 때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와 동시편향(simultaneity biases; 더 높은 자원봉사율과 더 많은 행복으로 이끄는 종교와 같은 어떤 제3의 요소)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참고 문헌

- Abraham, K.G. and C. Mackie (eds.) (2005), "Beyond the Market: Designing Nonmarket Accounts for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Ahmad, N. and S. Koh (2011), "Incorporating Estimates of Household Production of Non-Market Services into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terial Well-Being",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2011/0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3h0jgk87g-en>.
- Albertini, M. and J. Radl (2012),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Social Class: Inter-Vivos Transfers as Means of Status Reproduction?", *Acta Sociologica*, Vol. 55, No. 2, pp. 107-123.
- Anheier, H.K. and L.M. Salamon (2001), "Volunteering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Initial comparisons", *Civil Society Working Paper series*, No. 10, Centre for Civil Socie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http://eprints.lse.ac.uk/29049/1/CSWP_10_web.pdf.
- Becchetti, L., A. Pelloni and F. Rossetti (2008), "Relational goods, sociability, and happiness", *Kyklos*, Vol. 61, pp. 343-363.
- Bekkers, R. (2005),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Relations with Resources, Personality, and Political Values",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3, pp. 439-454.
- Bekkers, R., B. Volker, M. van der Gaag and H. Flap (2007), "Social Networks of Participants in Voluntary Associations", in *Social Capital: Advances in Research*, N. Lin and B.H. Erickson (ed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Binder, M. (2015), "Volunteering and life satisfaction: A closer look at the hypothesis that volunteering more strongly benefits the unhappy",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22, No. 11, pp. 874-885.
- Binder, M. and A. Freytag (2013), "Volunteering, subjective well-being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34, pp. 97-119.
- Bjørnskov, C. (2006),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2, No. 1, pp. 22-40.

- Boarini, R. and M. Diaz (2015), “Cast a Ballot or Protest in the Street – Did our Grandparents Do More of Both?: An Age Period-Cohort Analysis in Political Participation”,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2015/0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636gn50jb-en>.
- Cnaan, R.A. and L.M. Amroffell (1994), “Mapping volunteer activit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23, No. 4, pp. 335-51.
- Cnaan, R.A., F. Handy and M. Wadsworth (1996), “Defining who is a volunteer: Conceptu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25, No. 3, 364-83.
- Corden, A. and R. Sainsbury (2005), *Volunteering for employment skills: A qualitative research study*, University of York: Social Policy Research Unit, York.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9), “Council decision of 27 November 2009 on the European Year of Voluntary Activities Promoting Active Citizenship (201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0/37/EC), http://ec.europa.eu/citizenship/pdf/20091127_council_decision_en.pdf.
- Curtis, J.E., D.E. Baer and E.G. Grabb (2001), “Nations of Joiners: Explaining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in Democratic Socie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6, pp. 783-805.
- Day, K.M. and R.A. Devlin (1998), “The Payoff to Work without Pay: Volunteer Work as an Investment in Human Capital”,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31, No. 5, pp. 1179-1191.
- Dolan, P., T. Peasgood and M. White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9, pp. 94-122.
- Dykstra, P.A. and T. Fokkema (201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 West European typology of late-life families”, *Ageing and Society*, Vol. 31, No. 04, pp. 545-569.
- Ellis Paine, A., S. McKay and D. Moro (2013), “Does volunteering improve employability? Insights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and beyond”, *Voluntary Sector Review*, Vol. 4, No. 3, pp. 333-353.
- Erlinghagen, M. (2010), “Volunteering after Retirement. Evidence from German Panel Data”, *European Societies*, Vol. 12, No. 5, pp. 603-625.
- European Parliament (2008), *Report on the role of volunteering in contributing to economic and social cohesion*,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REPORT&reference=A6-2008-0070&language=EN.
- Gabard, D.L. (1997), “Volunteer burnout and dropout: issues in AIDS service organization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Service Administration*, Vol. 19, No. 3, pp. 283-303.
- Gee, L.K. (2011), “The Nature of Giving Time to Your Child’s School”,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40, No. 3, pp. 552-565.

- Hackl, F., M. Halla and G.J. Pruckner (2007), “Volunteering and income – The fallacy of the good Samaritan?”, *Kyklos*, Vol. 60, pp. 77-104.
- Hank, K. (2007),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European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9, No. 1, pp. 157-173.
- Hank, K. and M. Erlinghagen (2010), “Dynamics of Volunteering in Older Europeans”, *Gerontologist*, Vol. 50, No. 2, pp. 170-178.
- Hank, K., and S. Stuck (2008), “Volunteer Work, Informal Help, and Care among the 50+ in Europe: Further Evidence for ‘Linked’ Productive Activities at Older Ag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7, No. 4, pp. 1280-1291.
- Hart, D., T.M. Donnelly, J. Youniss and R. Atkins (2007),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s a Predictor of Adult Voting and Volunteer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44, No. 1, pp. 197-219.
- Haski-Leventhal, D. and D. Bargal (2008), “The volunteer stages and transitions model: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volunteers”, *Human Relations*, Vol. 61, No. 1, pp. 67-102.
- Haski-Leventhal, D. (2009), “Elderly Volunteering and Well-Being: A Cross-European Comparison Based on SHARE Data”, *Voluntas*, Vol. 20, No. 4, pp. 388-404.
- Helliwell, J.F. (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Vol. 20, pp. 331-360.
- Hirst, A. (2001), *Links between volunteering and employability: Research repor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London.
- Hodgkinson, V. (2012), “Volunteering in Global Perspective”, *The Values of Volunteering: Nonprofit and Civil Society Studies*, Dekker, P. et al. (eds.),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New York.
- ILO (2013),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Report of the Conference, Geneva, 2-11 October,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stat/documents/normativeinstrument/wcms_230304.pdf.
- ILO (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167639.pdf.
- ILO (2009), “Report of the Conference –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24 November-5 December 2008,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stat/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01467.pdf.
- Kahneman, D., A.B. Krueger, D.A. Schkade, N. Schwarz and A.A. Stone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Vol. 3, pp. 1776-1780.

- Kamerade, D. and A. Ellis Paine (2014), "Volunteering and employability: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Voluntary Sector Review*, Vol. 5, No. 2, pp. 259-273.
- Krause, N. and B.A. Shaw (2000). "Giving Social Support to Ot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Changes in Self-Esteem in Late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55B, No. 6, pp. 323-333.
- Krueger, A.B., D. Kahneman, C. Fischler, D. Schkade, N. Schwarz and A.A. Stone (2009), "Time Us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France and the 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93, pp. 7-18.
- Lancee, B. and J. Radl (2012),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Transition from Work to Retirement",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 67, No. 4, pp. 481-490.
- Lee, Y. and J.L. Brudney (2012), "Participation in formal and informal volunteering: Implications for volunteer recruitment",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Vol. 23, No. 2, pp. 159-180.
- Lewis, M. (2002), "Service Learning and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Vol. 28, pp. 655-667.
- Li, Y. and K.F. Ferraro (2005), "Volunteering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Social Benefit or Selection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46 (March), pp. 68-84.
- Li, Y., A. Pickles and M. Savage (2005), "Social capital and social trust in Brit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1, pp. 109-123.
- Malter, F. and A. Borsch-Supan (eds.) (2015), *SHARE Wave 5: Innovations & Methodology*, MEA, Max Planck Institute for Social Law and Social Policy, Munich.
- McPherson, J.M., P.A. Popielarz and S. Drobnic (1992), "Social Networks and Organizational Dynam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7, pp. 153-170.
- Meier, S. and A. Stutzer (2008), "Is Volunteering Rewarding in Itself?", *Economica*, Vol. 75, pp. 39-59.
- Mertens, S. and M. Lefebvre S. (2004), "La difficile mesure du travail benevole dans les institutions sans but lucratif", in *Institut des Comptes Nationaux, Le compte satellite des institutions sans but lucratif 2000 et 2001*, Banque Nationale de Belgique and Centre d'Economie Sociale d'HEC-Ecole de Gestion de l'Universite de Liege, Brussels.
- Miranda, V. (2011),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hrjm8s142-en>.
- Musick, M.A. and J. Wilson (2008), *Volunteers: A social profile*,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Newton, B., J. Oakley and E. Pollard (2011), *Volunteering: Supporting transitions*, 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 https://vinspired.com/content_packages/636.
- Nichols, G and R. Ralston (2011), "Social inclusion through volunteering: the legacy potential of the 2012 Olympic Games", *Sociology: The Journal of the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45, No. 5, pp. 900-914.
- O'Neill, M. (2001), "Research on living and volunteering: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30, pp. 505-514.
-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4256-en>.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sterle, S., M.K. Johnson and J.T. Mortimer (2004), "Volunteerism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 Life Course Perspective", *Social Forces*, Vol. 82, No. 3, pp. 1123-1149.
- Omoto, A.M. and M. Snyder (2002), "Considerations of community: The context and process of volunteerism",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5, No. 5, pp. 846-67.
- Pew Research Centre (2015), "Assess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Public Opinion Surveys", March, Washington, DC, <http://www.people-press.org/files/legacy-pdf/Assessing%20the%20Representativeness%20of%20Public%20Opinion%20Surveys.pdf>.
- Phalen, K.F. (2003), "Kids of Character", *Volunteer Leadership Journal*, Summer, pp. 4-9.
- Plagnol, A.C. and F.A. Huppert (2010), "Happy to help? Explor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variations in rates of volunteering across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97, pp. 157-176.
- Post, S.G. (2005), "Altruism, happiness, and health: It's good to be g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12, pp. 66-77.
- Prouteau, L. (2006), "La mesure et la valorisation du benevolat", Colloque ADDES (7 Mars), Universite de Nantes, Nantes Atlantique Universites, <http://addes.asso.fr/wp-content/uploads/2015/03/2006-Prouteau-definitif.pdf>.
- Prouteau, L. (2002), "Le benevolat sous le regard des economistes", *Revue francaise des affaires sociales*, Vol. 4, No. 4, pp. 117-134.
- Prouteau, L. and F.C. Wolff (2008), "On the relational motive for volunteer work",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9, No. 3, pp. 314-335.
- Prouteau, L. and F.C. Wolff (2006), "Does volunteer work pay off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 35, pp. 992-1013.

- Prouteau, L. and F.C. Wolff (2004), “Le travail benevole : un essai de quantification et de valorisation”, *Economie et statistique*, Vol. 373, pp. 33-56.
- Putnam, R.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New York.
- Putnam, R.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1, pp. 65-78.
- Rochester, C., E. Paine, A. and S. Howlett (2009), *Volunteering and Society in the 21st Century*, Palgrave Macmillan, Hampshire, England.
- Sajardo, A. and I. Serra (2011), “The Economic Value of Volunteer Work. Methodological Analysis and Application to Spai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40, No. 5, pp. 873-895.
- Salamon, L.M., S. Sokolowski and M. Haddock (2011),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volunteer work globally – concepts, estimates and a roadmap to the future”,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 82, No. 3, pp. 217-252.
- Salamon, L.M., H.K. Anheier, R. List, S. Toepler, S.W. Sokolowski and Associates (1999),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Baltimore.
- Schlozman, K.L., N. Burns and S. Verba (1994),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Journal of Politics*, Vol. 56, No. 4, pp. 963-990.
- Schlozman, K.L., S. Verba and H.E. Brady (1999) “Civic Participation and the Equality Problem”, in T. Skocpol and M.P. Fiorina (eds.),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Shannon, C.S. (2009), “An untapped resource: Volunteers aged 8 to 12”,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38, No. 5, pp. 828-845.
- Strauß, S. (2008), *Volunteering and Social Inclusion: The Inter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Civic Engagement in Germany and Great Britain*, VS-Verlag, Wiesbaden.
- Tang, F. (2006), “What Resources are needed Volunteerism?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25, No. 5, pp. 375-390.
- Toppe, C. and R. Groves (2007), “What is Volunteering and How Can It Be Measured”, Paper prepared and presented at the JHU/UNECE Workshop on Volunteer Measurement, Geneva.
- United Nations (2003),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XVII.9 ST/ESA/STAT/SER.F/91, New York, http://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f/seriesf_91e.pdf.

- United Nations (2001), *Role of Volunteerism in the Promotion of Social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fifty-sixth session (A/RES/56/38), www.unv.org/en/news-resources/resources/un-resolutions/doc/role-of-volunteerism-in.html (accessed on 29 May 2015).
- UNECE (2013), *Guidelines for Harmonising Time Use Surveys*, United Nations, Geneva, www.unece.org/fileadmin/DAM/stats/publications/2013/TimeUseSurvey_Guidelines.pdf.
- Van Willigen, M.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55B, pp. 308-318.
- Vegeris, S., K. Vowden, C. Bertram, R. Davidson, F. Husain, K. Mackinnon and D. Smeaton (2010), “Support for newly unemployed and Six Month Offer evaluations: A report on qualitative research findings”, DWP Research Report No. 691,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London,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14463/rrep691.pdf.
- Vezina, M. and S. Crompton (2012), “Volunteering in Canada”, *Canadian Social Trends*,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o. 11-008-X, Statistics Canada, www.statcan.gc.ca/pub/11-008-x/2012001/article/11638-eng.pdf.
- Volunteering England (2010), *Policy briefing: Get Britain working*, November, London.
- White, M.P. and P. Dolan (2009), “Accounting for the richness of daily activities”, *Psychological Science*, Vol. 20, pp. 1000-1008.
- Wilson, J. (2012), “Volunteerism research: A review essa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41, pp. 176-212.
- Wilson, J.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pp. 215-240.
- Wilson, J. and M.A. Musick. (2000),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volunteer”,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62, No. 4, pp. 141-168.
- Wilson, J. and M.A. Musick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2, pp. 694-713.

데이터베이스 참고문헌

- European Social Survey (2006), *European Social Survey*, Round 3 Data, Data file edition 3.5. (database), Norwegian Social Science Data Services, Norway – Data Archive and distributor of ESS data, www.europeansocialsurvey.org/ (accessed on 29 May 2015).
- European Values Survey (2011), *European Values Study 2008*, Integrated Dataset (EVS 2008), Data file version 3.0.0 (database), GESIS Data Archive, <http://dx.doi.org/10.4232/1.11004> (accessed on 29 May 2015).

- Eurostat (2015), *Time Use Database*,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tus_00selfstat&lang=en (accessed on 5 July 2015).
-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accessed 10 June 2015).
-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web application, <https://www.h2.scb.se/tus/tus/> (accessed on 1 July 2015).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database), http://www.iea.nl/iccs_2009.html (accessed on 29 May 2015).
- OECD (2015a), “Aggregate National Accounts, SNA 2008: Gross domestic product”,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001-en> (accessed on 24 May 2015).
- OECD (2015b), “Annual full time earnings and annual labour costs in equivalent USD, 25-64 year-old population”,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eag-2010-table88-en> (accessed on 24 May 2015).
- OECD (2012), *OECD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database), www.oecd.org/site/piaac/ (accessed on 1 July 2015).
- SHARE (2013),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Wave 4, Release 1.1.1 (database), <http://dx.doi.org/10.6103/SHARE.w4.111> (accessed on 29 May 2015).
- SHARE (2013),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Wave 2, Release 2.6.0 (database), <http://dx.doi.org/10.6103/SHARE.w2.260> (accessed on 29 May 2015).
-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2015),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Wave 5, Release 1.0.0 (database), <http://dx.doi.org/10.6103/SHARE.w5.100> (accessed on 29 May 2015).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2015), *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2013* (database), Bureau of Labor Statistics, www.bls.gov/tus/#database (accessed on 24 April 2015).
-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09), *World Values Survey*, Wave 5 2005-2008, Official Aggregate v.20140429,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database), www.worldvaluessurvey.org (accessed on 15 May 2015).

부록 5.A

자원봉사자들의 특징

표 5.A.1. 공식적 자원봉사의 보급률과 빈도, 개인과 가구의 특징별

%, 노동연령인구, 2012년

개인과 가구의 특징	보급률(빈도에 상관없음)	참여 빈도에 의한 보급률			
		매일	1주일에 최소 한번	1주일에 한번 미만	한 달에 한번 미만
성별					
남성	36.0	1.6	7.2	8.4	18.7
여성	35.9	1.8	8.1	9.3	16.6
연령					
16-24세	38.2	1.32	7.56	9.31	20.0
25-34세	32.4	1.26	5.43	7.93	17.8
35-44세	37.1	1.95	7.97	9.02	18.2
45-54세	36.5	1.81	8.16	8.83	17.7
55-65세	33.6	1.71	8.25	9.38	14.4
교육					
초등학교 교육	24.4	1.5	5.2	5.7	12.0
중등학교 교육	34.5	1.6	7.4	8.3	17.2
대학교 교육	47.9	1.9	9.2	10.9	25.9
고용 상태					
전일제 고용	36.9	1.4	7.0	8.8	19.8
시간제 고용	40.5	2.1	9.2	10.8	18.5
실직상태	26.1	2.4	6.1	6.3	11.3
학생	42.2	1.3	8.4	10.8	21.7
무급근로자	30.3	2.1	8.4	7.6	12.2
조기 은퇴자	29.7	2.3	9.1	8.1	10.3
결혼 여부					
결혼	36.7	1.8	8.0	9.1	17.8
독신	34.8	1.5	7.1	8.4	17.9
가구구조					
무자녀	35.4	1.5	6.8	8.6	18.5
3세 미만의 자녀	31.8	1.4	5.4	8.7	16.3
3세 이상의 자녀	38.6	1.9	8.5	11.0	17.3
가구의 경제 상태					
저소득	25.8	1.9	3.1	6.5	14.3
중간소득	36.2	1.5	7.7	8.5	18.6
고소득	49.3	1.8	9.0	12.8	25.7
가족 배경					
이민자	31.3	1.76	7.4	7.0	15.2
토박이	36.3	1.66	7.6	9.1	17.9

출처: OECD(2012)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OECD 성인 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 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85>

표 5.A.2. 비공식적 자원봉사의 보급률과 빈도, 개인과 가구의 특징별

%, 노동연령인구, 2006년

개인 및 가구의 특징	보급률(빈도에 상관없음)	참여 빈도에 의한 보급률				
		1주일에 최소 한번	1개월에 최소 한번	3개월에 최소 한번	6개월에 최소 한번	자주 하지 않음
성별						
남성	70.6	14.5	21.6	11.9	7.6	15.0
여성	71.2	17.8	20.3	10.0	8.3	14.7
연령						
16-24세	70.8	16.1	21.4	9.4	6.9	17.0
25-34세	70.5	13.9	20.2	10.9	9.1	16.3
35-44세	73.1	16.3	21.1	12.5	9.0	14.4
45-54세	71.5	16.9	21.2	11.2	8.4	13.8
55-64세	67.8	17.7	20.6	10.4	6.1	13.1
교육						
초등학교 교육	55.8	12.3	13.6	8.0	6.8	15.2
중등학교 교육	69.7	16.3	20.8	10.3	7.3	15.0
대학교 교육	79.7	17.6	24.0	13.8	10.1	14.2
고용 상태						
고용됨	73.2	15.7	21.3	12.2	8.8	15.2
실직상태	64.5	17.6	19.5	9.3	7.2	10.8
학생	71.8	16.0	22.7	9.1	6.9	16.9
조기 은퇴자	65.0	18.0	20.8	7.5	5.3	13.5
결혼 여부						
결혼	70.9	15.7	20.5	11.8	8.6	14.4
독신	70.9	16.9	21.5	10.0	7.2	15.4
가구구조						
무자녀	71.1	17.1	21.5	10.1	7.1	15.3
자녀가 있음	70.7	15.3	20.3	11.9	9.0	14.3
가구의 경제 상태						
저소득	60.8	14.9	17.5	8.9	6.5	13.1
중간소득	70.3	15.9	20.8	10.5	8.1	15.1
고소득	76.9	17.0	22.6	13.0	8.5	15.8

출처: 유럽사회조사(ESS; 2006)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유럽사회조사 라운드 3 데이터, 데이터 파일 edition 3.5. (데이터베이스), 노르웨이 사회과학 데이터서비스, 노르웨이 - 데이터 기록보관소 및 ESS 데이터 배포자, www.europeansocialsurvey.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94>

부록 5.B

자원봉사와 인적 자본

표 5.B.1. 공식적 자원봉사가 기술 숙달도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설명 변수	기술 숙달도			시간당 근로소득 ³
	문자해독력 ¹	수리력 ¹	문제해결력 ²	
공식적 자원봉사	10.998 (12.05)**	10.791 (9.75)**	7.993 (7.30)**	0.14 (8.40)***
여성	-4.194 (6.01)**	-14.186 (17.27)**	-8.952 (11.90)**	-0.232 (-14.1)**
연령	-0.456 (11.66)**	-0.335 (8.45)**	-0.837 (20.75)**	0.016 (21.09)***
영구 계약	10.976 (8.65)**	17.218 (11.13)**	13.222 (9.47)**	0.09 (2.85)**
임시 계약	8.538 (4.72)**	13.39 (6.06)**	11.625 (5.77)**	-0.27 (-4.85)**
해외 출생	-28.861 (19.05)**	-29.089 (17.78)**	-20.635 (12.01)**	-0.196 (-6.34)**
숙련된 직업	40.746 (26.10)**	46.591 (29.02)**	32.649 (14.98)**	
반숙련 화이트칼라 직업	21.798 (14.38)**	23.789 (14.75)**	15.812 (7.87)**	
반숙련 블루칼라 직업	8.444 (5.31)**	11.258 (6.83)**	1.332 (-0.55)	
문자해독 능력				0.002 (3.35)**
수리 능력				0.001 (-0.66)
문제해결 능력				0.002 (3.62)**
상수(Constant)	264.116 (109.03)**	248.799 (102.93)**	289.218 (99.40)**	1.574 (13.09)***
λ				-0.346 (-22.26)***

표 5.B.1. 공식적 자원봉사가 기술 숙달도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계속)

1. 분석은 OECD 20개국(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과 3개의 국가 내 하위 정부(벨기에에 있는 플랑드르 지방, 영국 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다.

2. 분석은 OECD 17개국(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미국)과 3개의 국가 내 하위 정부(벨기에에 있는 플랑드르 지방, 영국 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다.

3. 종속변수 “시간당 근로소득”은 시간당 근로소득의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이다. 시간당 근로소득은 보너스를 포함하며 구매력평가(PPP)로 조정된 미달러로 표시된다. 임금 분포도는 1번째와 99번째 백분위수를 제거하기 위해 손질된다. 표본에는 노동연령인구만 포함한다. 분석은 OECD 20개국(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과 3개의 국가 내 하위 정부(벨기에에 있는 플랑드르 지방, 영국 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다. 마이너스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 λ 는 자기선택 편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주: 표 안에 있는 계수는 기술 숙달도와 시간당 근로소득에 설명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국가고정효과(country fixed-effects)는 표에서 보이지 않는다. 괄호 안에 Z 값:*** 1% 수준에서 유의미함, **5% 수준에서 유의미함, *10% 수준에서 유의미함.

출처: OECD(2012)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OECD 성인 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 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205>

부록 5.C

자원봉사와 주관적 웰빙

표 5.C.1. 긍정적·부정적 느낌들, 자원봉사 참여와 국가별

전날에 긍정적 감정들(기쁨, 폭 신 느낌, 많이 미소 짓거나 웃음)과 부정적 감정들(걱정, 분노, 슬픔)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2014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국가	긍정적 감정들						부정적 감정들					
	폭심		기쁨의 경험		웃음		슬픔		분노		걱정	
	비자원 봉사	공식적 자원봉사	비자원 봉사	공식적 자원봉사	비자원 봉사	공식적 자원봉사	비자원 봉사	공식적 자원봉사	비자원 봉사	공식적 자원봉사	비자원 봉사	공식적 자원봉사
호주	69.0	62.7	79.0	81.0	75.3	74.7	22.6	19.9	16.4	15.0	37.7	35.8
오스트리아	70.3	70.5	74.6	81.6	76.1	84.0	13.3	10.6	11.3	12.3	27.9	24.6
벨기에	63.9	66.4	76.1	80.8	81.9	82.2	21.5	22.1	12.5	15.6	40.1	41.7
캐나다	66.8	68.1	83.9	83.6	82.6	84.1	22.5	25.0	13.0	17.3	40.6	36.6
칠레	58.6	65.1	86.8	93.4	85.8	86.7	21.9	23.0	17.7	15.0	43.4	45.0
체코	59.3	57.2	70.1	79.9	63.1	72.7	14.5	19.1	22.6	13.5	34.3	35.2
덴마크	66.7	69.1	88.4	90.6	76.4	81.9	18.5	17.5	15.9	13.3	37.7	30.6
에스토니아	61.8	65.2	72.7	84.9	57.7	73.2	21.2	15.7	9.9	11.0	31.3	32.0
핀란드	69.6	67.3	75.4	80.7	78.3	83.1	14.6	15.3	8.9	5.7	33.2	45.8
프랑스	63.4	67.8	76.8	86.4	80.7	90.5	15.6	20.4	13.8	23.3	31.3	30.4
독일	69.1	71.2	77.4	83.4	72.7	80.1	18.6	15.0	14.0	11.3	27.5	22.1
그리스	64.9	55.9	66.1	84.3	70.6	84.8	29.9	11.0	29.9	22.8	58.7	47.5
헝가리	56.8	49.8	68.5	88.0	56.8	72.9	21.4	16.8	14.5	9.3	37.8	28.5
아이슬란드	54.4	61.3	86.5	91.5	84.7	89.9	10.6	14.8	8.1	9.3	24.8	30.4
아일랜드	69.9	72.1	78.7	86.8	72.8	78.1	20.9	18.8	13.3	14.5	35.1	34.5
이스라엘	60.0	66.2	60.6	70.6	57.7	58.9	23.2	19.5	25.3	19.5	35.8	33.2
이탈리아	63.1	59.2	70.0	65.9	74.0	71.7	35.1	42.0	15.2	20.5	53.4	60.1
일본	68.9	79.9	63.6	80.7	76.6	86.7	10.5	10.5	15.4	15.0	32.7	27.3
한국	64.8	74.5	58.0	77.7	64.5	79.4	21.8	17.4	20.0	13.2	47.7	37.1
룩셈부르크	69.1	73.3	80.0	85.8	77.0	81.4	13.9	18.7	11.6	14.7	24.7	21.6
멕시코	70.0	69.9	72.6	80.2	77.2	78.6	16.7	22.8	8.6	8.0	44.5	33.3
네덜란드	68.2	70.1	87.6	90.7	83.3	87.4	18.0	19.7	10.6	7.9	36.8	40.2
뉴질랜드	64.9	60.9	85.2	85.3	84.6	83.2	15.7	18.4	12.3	14.6	28.0	31.4
노르웨이	61.6	70.7	85.9	90.3	76.8	85.5	17.4	16.4	13.2	10.0	30.2	26.6
폴란드	56.5	60.0	76.2	81.7	76.8	85.0	17.9	18.2	21.8	18.2	27.7	28.5
포르투갈	55.5	60.8	55.0	64.0	69.9	73.6	34.1	28.9	10.0	13.7	62.7	67.0
슬로바키아	68.9	73.3	72.1	86.5	68.6	73.8	18.6	18.3	27.1	23.0	35.3	35.2
슬로베니아	69.0	76.7	54.6	61.6	64.0	72.0	16.6	19.2	18.9	16.1	52.5	50.5
스페인	71.1	72.3	66.0	68.2	76.8	74.4	22.8	26.9	25.8	22.6	53.1	47.7
스웨덴	64.7	62.3	86.6	90.6	79.1	82.1	19.7	19.9	14.0	17.0	28.7	28.8
스위스	72.7	71.2	82.2	84.0	82.3	80.6	17.6	14.3	14.4	13.2	25.0	28.2
터키	72.1	77.7	59.3	81.2	64.2	90.1	36.7	35.8	39.7	38.1	41.4	58.4
영국	64.3	64.6	78.0	81.8	76.5	85.4	18.6	24.4	15.1	18.5	39.2	36.7
미국	68.2	69.3	80.4	90.4	81.2	83.3	23.4	23.9	18.4	18.0	40.2	45.4
OECD	65.2	67.1	74.5	82.2	74.3	80.3	20.2	20.0	16.4	15.6	37.7	37.0

주: 아이슬란드와 터키에 대한 데이터는 2013년을 의미한다.

출처: 갤럽세계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211>

표 5.C.2. 공식적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분위 회귀분석

설명변수	삶에 대한 만족도				
	첫 번째 오분위	두 번째 오분위	세 번째 오분위	네 번째 오분위	다섯 번째 오분위
공식적 자원봉사	0.288 (11.20)**	0.256 (16.79)**	0.238 (15.63)**	0.183 (16.12)**	0.127 (9.55)**
남성	-0.11 (5.28)**	-0.003 (-0.23)	-0.027 (2.07)*	-0.067 (6.51)**	-0.046 (3.68)**
기혼	-0.163 (7.48)**	-0.236 (17.45)**	-0.159 (11.15)**	-0.08 (6.84)**	-0.073 (5.19)**
연령: 25-34세	-0.218 (4.44)**	-0.074 (2.60)**	-0.084 (3.08)**	-0.049 (2.34)*	0.019 (-0.79)
연령: 35-54세	-0.261 (5.92)**	-0.061 (2.33)*	-0.077 (3.10)**	-0.031 (-1.61)	0.082 (3.70)**
연령: 55-64세	-0.212 (4.38)**	-0.049 (-1.7)	-0.022 (-0.77)	0.056 (2.62)**	0.179 (7.32)**
연령: 65세 이상	-0.009 (-0.2)	0.005 (-0.16)	0.069 (2.45)*	0.134 (6.31)**	0.282 (12.14)**
중등교육	0.407 (14.69)**	0.217 (11.31)**	0.213 (9.66)**	0.118 (6.24)**	-0.027 (-1.31)
대학교육	0.366 (9.93)**	0.231 (9.50)**	0.152 (5.92)**	0.028 (-1.33)	-0.205 (8.77)**
의지할 사람이 있음	0.560 (19.29)**	0.254 (11.60)**	0.232 (8.63)**	0.113 (4.61)**	-0.047 (-1.67)
건강문제	-0.229 (10.01)**	-0.022 (-1.43)	-0.067 (3.90)**	-0.034 (2.34)*	0.009 (-0.52)
가구소득	0.597 (35.49)**	0.523 (49.51)**	0.477 (44.54)**	0.283 (31.69)**	0.101 (12.63)**
소도시 혹은 마을	-0.104 (3.24)**	-0.183 (9.36)**	-0.182 (8.79)**	-0.17 (10.71)**	-0.167 (9.06)**
대도시	-0.136 (4.01)**	-0.227 (11.11)**	-0.241 (11.20)**	-0.144 (8.77)**	-0.133 (6.94)**
대도시 근교	0.081 (2.13)*	0.07 (3.06)**	0.031 (-1.3)	0.054 (3.08)**	0.046 (2.22)*
상수(constant)	-2.313 (13.81)**	0.43 (4.03)**	1.78 (16.48)**	4.635 (49.97)**	8.01 (93.83)**
R ²	0.2	0.26	0.22	0.23	0.22
N	31,924	32,253	32,241	31,839	30,034

주: 분석은 모든 OECD 국가들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국가의 가능한 해에서 합산한다. “가구소득” 변수는 가구가처분소득의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를 말한다. 괄호 안에 Z 값: *는 값이 10%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에서 유의미함을, **는 값이 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는 값이 1%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출처: 갤럽세계조사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227>

제6장

지역으로 들어가기: 지역의 웰빙 측정

본 장은 OECD의 국가 내 하위지역들(sub-national)에서의 웰빙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와 지표들을 제공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의 상황은 개인의 특성들과 장소의 특성들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들의 웰빙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 고찰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본 장에 제시된 지표들은 웰빙의 9가지 영역을 다루며,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장은 여러 웰빙 영역에서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고, 지역 내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국가 내 하위지역 차원에서의 웰빙의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할 주요 조치들이 논의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서론: 웰빙의 측정을 위해 지역적 관점이 중요한 이유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지방의 상황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사람들의 지역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제대로 기능하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더 건강한 삶, 더 나은 취업기회, 더 결속력 있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가 포함될 수 있다.

국가 내 하위 지역의(sub-national) 데이터와 지표들은 영토별 웰빙의 분포에 관한 정보를 늘려주고, 어떻게 웰빙 영역들의 강점들 또는 약점들이 성격이 다른 인구 집단들 사이뿐만 아니라 장소별로도 분포되는 지를 보여줄 수 있다. 웰빙 지표들의 국가 평균은 대개 한 국가안에 있는 지역들 간의 커다란 격차를 숨긴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이탈리아의 지역 간 고용률이 33%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캄파니아(Campania)주는 40%에 불과했고 볼차노(Bolzano) 지역은 73%에 이르렀는데, 이 격차는 OECD 국가들 간에 관측된 격차와 비슷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내 주(states)별 기대수명 연수의 격차가 6년인데, 이는 OECD 국가들 간 격차보다 3년 짧을 뿐이다.

지역과 지방 정부들은 사람들의 삶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많은 정책들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OECD 지역의 공공지출의 대략 40%는 국가 내 하위 정부들(sub-national governments)에 의해서 집행되며, OECD 지역에서 국가 내 하위 정부 공공 지출의 70%는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일반 공공 서비스에 쓰여진다(OECD, 2013). 또한 정책 간 다수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지역에 한정(location-specific)되는데, 예를 들어 토지사용, 수송 및 주택 정책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정책의 여러 요소(strand)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발생한 특정 지역에서 좀 더 쉽게 관리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웰빙 측정은 정책 입안자들이 개선이 가장 필요한 곳에 대한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리한 점들과 불리한 점들의 공간적 집중도(spatial concentration)를 더 잘 평가 및 감시하고, 정책이 활용할 수 있는 시너지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지역 웰빙의 측정치들이 일상생활의 조건들과 관련되므로, 그 측정치들은 또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needs)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긴급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역량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회복을 돕는다. 지역 차원에서의 웰빙 측정지표(metrics)를 개발하려는 다수의 이니셔티브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시작되었는데, 제공이 가능한 정보를 확대시키고, 지역 개발 정책의 설계와 평가를 돕고, 특정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accountability)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박스 6.1).

2014년 10월에 발간된 OECD 보고서 *How's Life in Your Region?* (OECD, 2014a)은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의 개념적 프레임 워크와 한눈에 보는 지역(Regions at a Glance)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의 웰빙 측정을 국가 내 하위 지역(sub-national)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이 프로젝트에서 34개 OECD 국가들 내에 있는 362개의 지역에 대한 비교 가능한 지표들이 개발되었으며 이 지표들은 9가지 웰빙 영역을 다루었다.

박스 6.1. 국가 내 하위 지역 단위의 웰빙 측정을 위해서 선택된 이니셔티브들

지역의 웰빙 지표들은 다양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 지표들에 대한 이전의 경험은 이 지표들이 국가, 지역 당국(보통 독립 기관들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정부기구(NGOs)들에 의해 사용되어왔음을 시사한다.

최근 국가 이니셔티브들은 국가 내 하위 지역(sub-national) 차원에서 가능한 웰빙에 관한 정보를 확대시켜서 전체 국가를 다루려고 하고 있다. 웰빙의 측정지들 간의 중요한 격차와 국가의 발전도(progress)를 인식하여, 2013년 이래 호주통계국(ABS)은 호주의 발전도에 대한 측정(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 보고서에 지방 수준의 지표들을 논의하는 장을 MAP의 각 웰빙 영역을 위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3년에 국가통계국(ISTAT)과 경제·노동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Economics and Labour, CNEL)가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웰빙(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BES)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지표들(웰빙의 12개 영역들에 포함) 중의 대부분은 주(regional) 단위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BES(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웰빙) 프레임 워크는 미래에 조정되어 대도시들과 현(provinces)에 적용될 것이다. 2013년에 터키 통계 연구소(Turkish Statistical Institute)는 연례 삶의 만족도 조사(annual Life Satisfaction Survey)를 지방 수준(TI3 지역)으로 확대시켰는데, 이 조사는 행복, 개인의 개발,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터키 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는 또한 사회경제개발 보고서(SEDI)를 2013년에 출간했는데 이 보고서는 8개 영역(인구통계학, 교육, 건강, 고용, 경쟁력과 혁신, 재정적 능력, 접근가능성, 삶의 질)에 있는 61개의 지표들에 따라서 지방과 지역의 순위를 매긴다

2012년에 폴란드 지역 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와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국가 하위 지역 단위("powiat": 유럽통계청 분류에서 지역행정단위(LAU1)에 해당됨)에 적용되는 UNDP/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했다. 그 지수(지역인간개발지수(LHDI)라 칭함)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 건강(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암과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에 의해 측정됨), 교육(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과 중등학교 기말고사 평균성적), 복지(1인당 평균 소득 수준). UNDP, 바르샤바 경제대학(Warsaw School of Economics)과 중앙통계청(CSO)에 의해 수행된 이 조사는 2007-2010년에 중앙통계청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행정 기록을 사용한다. 조사 결과는 사회발전 측면에서 커다란 격차를 나타내는데, 도시와 큰 타운과 그 외곽지역들이 시골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수행도를 보여준다(http://issuu.com/undp_poland/docs/lhdi_report_poland_2012_eng). 장기국가개발전략: 폴란드 2030(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Poland 2030)에서 폴란드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측정하는 주된 지표들로서 GDP와 함께 인간개발지수(HDI)를 사용할 것을 선언했다. 지역인간개발지수(LHDI)지표는 지역/지방의 전략적 목표들과 국가의 전략적 목표들과의 연관성(link)을 개선시켰다. 지역인간개발지수(LHDI)지표는 지방 정부의 활동들을 기획·감시·평가하는 효과적 도구이며, 이 연구는 지역/지방 차원에서 공공정책을 개선시키고 전략적 목표들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박스 6.1. 국가 내 하위 지역 단위의 웰빙 측정을 위해서 선택된 이니셔티브들 (계속)

지방 정부들은 또한 웰빙의 특정 영역들에서의 지역적 도전과제 또는 수행도를 감시하고, 지역들 간 공공 기금 할당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웰빙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예를 들면, 개인적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네덜란드 중앙통계국은 1990년대 후반에 **범죄조사(Crime Survey)**를 도입했고 이후에 **안전감시조사(Safety Monitoring Survey)**를 도입했다. 이 조사들은 신체조건, 사회적 조건, 안전 조건, 범죄에 대한 두려움, 피해, 인근지역문제(neighbourhood problems), 국가-지역-지방 차원에서의 경찰의 기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영국에서 뉴캐슬(Newcastle)에서의 **삶을 위한 웰빙 전략(Well-being for Life Strategy)**은 2013-2016년 기간 중 착수할 조치들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데, 교육, 고용, 건강이라는 웰빙의 구체적인 3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의 매력과 경제 성장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남덴마크 지역(region of Southern Denmark)은 2012년에 **좋은 삶(Good Life)**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광범위한 웰빙 지표들이 각 지역의 지자체(municipalities)를 위하여 수집되는데, 인구통계학적·사회적 현상을 감시하고 더 나은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호주통계청(2011)은 지역-사회경제지수(Socio-Economic Indexes for Areas: SEIFA)를 계산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역들의 순위를 매기는데, 이 지수는 기금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미국에서 경제적·환경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택, 수송, 환경 정책을 통합하려는 연방 이니셔티브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Sustainable Communities: PSC)**은 5가지의 웰빙 영역과 연관된 여러 지역 단위에 대한 비교가능한 지표들을 제공한다.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지역사회는 프로젝트 사이클의 여러 단계(설계, 이행,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웰빙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가 정책 개입을 위한 우선순위 영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웰빙 측정치들을 사용한다. 헝가리에서, EU 통합정책(Cohesion Policy)기금을 받는 지역들은 사회와 인구동태, 주택과 생활 조건, 지방 경제와 노동시장, 인프라와 환경이라는 네 영역의 24가지 지표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2007-2013년 동안 33개의 가장 빈곤한 마이크로 지역(micro regions)에서 경제 발전, 고용, 교육, 집시의 통합(Roma integration)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네덜란드에서, 텔로스 연구센터(Teleo Research Center)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과 주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태적 자원을 측정한다. 이탈리아의 사르디니(Sardini)지역에서, 2007-2013년 사이의 EU 통합정책의 이행이 수행도평가계획(performance scheme: Obiettivi di Servizio)의 도입을 통해서 지지를 받았다. 수행도평가계획은 공공 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측면에서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던 4개의 정책 영역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근거하여 지역정부는 2014-2020년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을 위해서 광범위한 웰빙 측정치들을 확인했다. 로마는 2012년에 웰빙 전략을 도입해서 나중에 웰빙측정을 했다: 사람들이 웰빙의 영역들에 어떻게 가치를 매기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역사회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했고, 지방 정부는 지역개발전략을 만들기 위하여 웰빙 측정치들을 사용했다. 멕시코에서 모렐로스 주(State of Morelos)는 웰빙 영역들의 세트를 감시하기 위해서 일련의 지표들을 알아냈고, 이 지표들을 2013-2018년의 주 개발계획(State Development Plan)에 포함시켰다.

박스 6.1. 국가 내 하위 지역 단위의 웰빙 측정을 위해서 선택된 이니셔티브들 (계속)

2010년에 뉴질랜드의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를 제공하는 사회 보고서(Social Report)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16개의 지역 위원회의 지역들(areas)에 대한 여러 영역(건강, 지식과 기술, 직업, 삶의 경제적 기준, 시민권리와 정치적 권리, 문화적 정체성, 여가, 안전, 사회적 관계)의 웰빙 지표들을 담고 있다. 새 보고서가 2015년 후반에 출간될 것이다. 또한 2014년에 출판된 지역경제활동보고서(Regional Economic Activity Report) 제2판은 그 국가의 16개 지역위원회의 지역들에서의 경제적 수행도에 관한 비교 평가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들이 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지표들은 인구통계학적 정보, 삶의 수준과 일자리(지역의 GDP 포함), 기술과 직업, 국가·국제적 연계성, 공공부문 지출과 같은 여러 영역들을 다룬다.

지방 단위에서 측정된 웰빙 지표들은 또한 비정부기관(NGO)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적 의식을 촉진시키고 정책적 조치들을 옹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종류의 예들은 콜롬비아(보고타 Bogotá, Cómo Vamos)와 멕시코(멕시코 시티 Ciudad de México, Cómo Vamos)에서 발견된다. 보고타 Cómo Vamos는 삶의 질의 5가지 측면과 관련된 일련의 지표들을 제공한다: 매년 이니셔티브를 운영하는 기관은 삶의 질 보고서(quality of life report), 시민의식 조사(citizen perception survey), 보고타 시위원회가 달성한 결과에 관한 감사·평가 보고서를 출간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Young Foundation은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지역 기관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웰빙·탄력성측정법(Wellbeing and Resilience Measure: WARM)이라는 측정도구를 도입했다.

출처: 호주통계청(ABS; 2011), “지역-사회경제 지수”, ABS, 캔버라, www.abs.gov.au/websitedbs/censushome.nsf/home/seifa(2015년 5월 29일 액세스 됨; 호주통계청(2013), “호주 발전도 측정”; 보고타 Cómo Vamos, “보고타 Cómo Vamos”, 보고타, 콜롬비아, www.bogotacomovamos.org/media/uploads/documento/new/librillo1_v4.pdf(2014년 7월 10일 액세스됨); Bogotá Cómo Vamos: www.bogotacomovamos.org and www.bogotacomovamos.org/concejo(2014년 7월 10일 액세스됨); Hák, Tomás, Moldan Bedřich and Lyon Dahl Arthur(eds.) (2007), 지속가능성 지표: 과학적 평가, Island Press, Young Foundation, www.youngfoundation.org(2015년 5월 29일 액세스); Istat(2014), “Il benessere equo sostenibile”; Koopman, M., H.-J. van Mossel and A. Straub(eds.) (2009), 네덜란드 공공임대주택 부문 (Social Rented Sector) 수행도 측정 IOS Press, 암스테르담; 뉴질랜드 사회개발부(2010), 사회보고서 2010, 사회개발부, 웰링턴, 뉴질랜드;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2014), 지역경제활동보고서 2014, 기업혁신고용부, 웰링턴, 뉴질랜드; OECD(2014a), “뉴캐슬시(영국)”, OECD(2014a), “로마 도(Province) (이탈리아)”, OECD(2014a), “사르디냐 주(Region) (이탈리아)”, OECD(2014a), “남덴마크 지역(덴마크)”, OECD(2014a), “몰레로스 주(멕시코)”, OECD(2014a), “OECD 내 모두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미국 파트너십” OECD(2014a), How’s Life in Your Region?: 정책 입안을 위한 지역 및 지방의 웰빙 측정, OECD 출판국, 파리; 텔로스 웹사이트, www.telos.nl/default.aspx(2015년 5월 29일 액세스됨); Zauberman, R.(2010), 유럽에서 피해자와 불안: 조사에 대한 검토 및 사용, VUB University Press; 터키 통계 연구소 (2013), “삶의 만족도 조사”; 터키개발부(2013), “사회·경제적 발전연구(SEDI)”, <http://www3.kalkinma.gov.tr/bolgesel.portal>(2015년 5월 29일 액세스); 국가 인간개발보고서: 폴란드 2012. 지역 및 지방 인간개발 http://issuu.com/undp_poland/docs/hdi_report_poland_2012_eng(2015년 5월 29일 액세스됨).

국가 하위 지역 단위에서의 웰빙 측정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관심 대상의 지리적 규모가 국가마다 다르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예를 들면 행정지역, 기능지역(functional areas), 대도시 지역, 도시 또는 학군 등이 다를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사람들의 일상활동의 범위와 공공정책의 영향권과 관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내 하위 지역 데이터는 국가 데이터보다 대개 더 희소하므로 훨씬 광범위한 출처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 가구와 개인들에 관한 조사 데이터가 소지역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는 경우는 드물다.

본 장은 OECD 보고서(2014a)에 담긴 증거자료에 근거해서, 여러 지역의 웰빙의 분포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고, 미래의 통계 작업에서의 주요 우선순위를 밝힌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섹션 2는 OECD보고서 *How's Life in Your Region?*의 근거가 되는 지역과 지방의 웰빙 측정을 위한 프레임 워크의 개관(overview)을 제공하고, 국가 내 하위지역 단위에서의 웰빙 측정의 주요 도전과제를 확인하는데 하위지역 단위의 웰빙 지표들의 더 포괄적인 세트를 개발하기 위한 혁신기법의 몇 가지 예를 제공한다. 섹션 3은 OECD지역 웰빙 프레임 워크의 선택된 웰빙 영역들에서 나타난 지역적 격차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다. 본 장은 특별히 *How's Life?* 프레임 워크에는 없는 지역들 내 웰빙의 한 가지 핵심 영역인 “서비스 접근성(access to service)”의 측정을 살펴본다. 마지막 섹션은 이 분야에서의 주요 통계적 갭(statistical gap)을 확인하며, 미래에 추구되어야 할 통계작업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데 작업의 목적은 지역들의 웰빙 상태에 관한 좀 더 강건한(robust) 통계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웰빙의 측정

지방 단위의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프레임 워크

OECD *How's Life?* 프레임 워크에 근거한, OECD 국가 내 하위지역 프레임 워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강조한 다차원적 개념으로써, 현재의 웰빙을 이해하고, 성과(투입과 동인이 아닌)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들, 사회 집단들(최근 이민자, 노인 등), 지역(territories)간 웰빙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평균치를 넘어설(beyond averages)”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그림 6.1). *How's Life?*를 위해 사용된 프레임 워크에서 추가된 *How's Life in Your Region?*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의 웰빙이 개인적 특성들과 장소에 기반한(place-based) 특징들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고용된 상태는 예컨대 사람들의 웰빙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고, 기술과 교육과 같은 개인적 특징들과, 훈련의 이용, 교통에 대한 접근성, 노동시장 조건들과 같은 상황적 요소들(contextual factors)에 의해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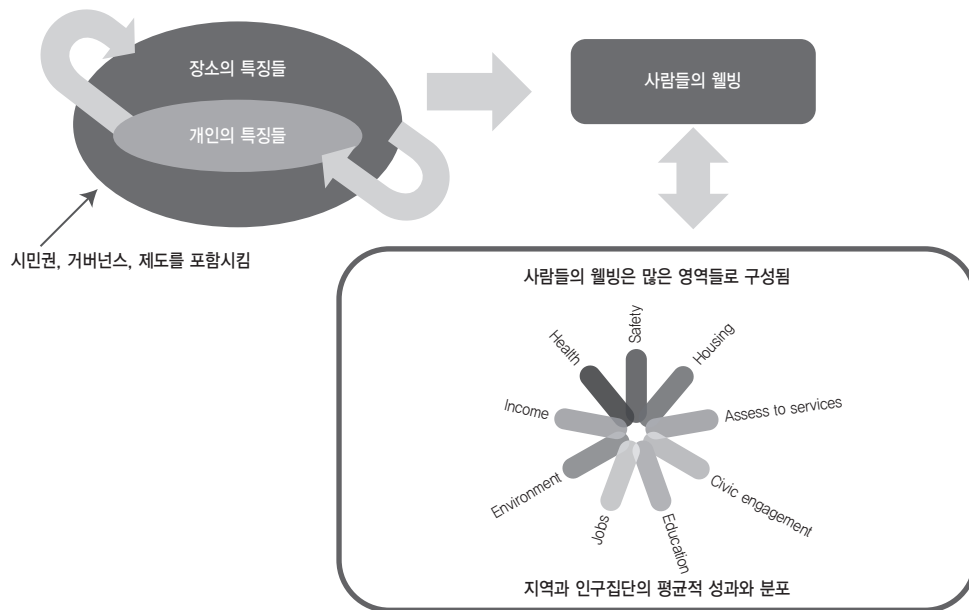
표 6.1은 지역 수준에서 웰빙 성과를 생산하기 위해 장소에 기반한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적 특징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에 대한 몇가지 추가적인 예를 보여준다.

표 6.1.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장소에 기반한 웰빙의 여러 가지 동인들

장소에 기반한 요소들	↔	개인적 특징들	=	사람들의 웰빙
- 지역 경제 상황의 역학관계		- 가족		- 고용
- 지역의 노동력 풀		- 교육		- 소득
- 훈련에 대한 접근성		- 기술		- 근로소득
- 교통		- 동기		- 빈곤율
- 정보 네트워크		- 생물학적·유전적 요소들		- 출생시 기대수명
- 교육 기회		- 생활방식		- 영아사망률
- 사회적 조건(주택, 난방, 상대적·절대적 불평등 등)		- 위험한 행동		
- 환경적 조건들(공해, 편의시설 등)		- 소득		

개인과 장소에 관한 정보는 유리한 점들과 불리한 점들의 공간적 집중도(spatial Concentration)를 더 잘 이해시키고, 불평등(개인적 그리고 장소에 기반한)의 여러 출처들이 서로 힘을 강화시키는지를 더 잘 이해시킨다 (Sampson, 2008; Wilson, 1987). 개인의 특징들과 장소의 특징들을 결합시킨 비슷한 웰빙 측정 접근법은 최근에 남덴마크 지역의 “좋은 삶(Good Life)” 이니셔티브(OECD, 2014c)와 호주의 지역·사회·경제지수(SEIFA)에 의해서 채택되었다(호주통계청, 2011, 박스 6.1). 이러한 경험들에 근거해서, 일련의 장소에 기반한(place-based) 요소들이 OECD 지역 프레임 워크에 포함된다.

그림 6.1. 지역과 지방 수준의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프레임 워크



출처: OECD (2014a), *How's Life in Your Region?*,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이러한 지역적 프레임 워크가 작동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세트의 비교 가능한 지표들이 362개의 OECD 지역들에 대한 9가지 웰빙 영역들에서의 성과들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된 지역적 지표들이 *How's Life?*에서 사용된 지표들과 동일하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웰빙 영역이 지역적 프레임 워크에 포함되었지만, *How's Life?*에서 고찰된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주관적 웰빙”이라는 세 영역은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지역적 프레임 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 측정방법들을 유용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웰빙을 더 심도 있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단위의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는 자율적 영역(autonomous dimension)으로써 주관적 웰빙을 포함시키는데, 삶의 만족도를 통해서 측정된다. 다른 자가보고(self-reported) 지표들은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지역적 프레임 워크에 있는 어떤 지표도 사람들 자신의 웰빙에 대한 자기 보고 경험들(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생각, 또는 삶의 만족도 측정치들, 표 6.2)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주로 정보의 부족 때문이며, 조사 데이터는 대개 지역과 지방 수준에서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

지역적 웰빙 지표들은 OECD 지역적 웰빙 데이터베이스(<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와 OECD 지역적 통계 데이터베이스(<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제한된 세트의 중심지표들도 OECD 지역적 웰빙 웹툰(www.oecdregionalwellbeing.org); 을 통해 제공이 가능한데 이러한 지표들은 표 6.2에서 볼드체로 보여진다.

측정의 도전과제들

OECD 지역적 웰빙 프레임 워크는 개인적 특징들과 장소 기반 특징들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강조한다. 선택된 지표들은 개인들(예: 출생시 기대여명)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사는 장소(예; 지역의 대기의 질)와도 관련된다. 측정의 첫 번째 도전과제는 국가 내 하위지역 수준에서 통계분석이 수행될 때의 지리적인 범위와 관련이 있다. 정책 입안에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 범위와 공공 정책의 개입 영역과 연관된다. 실제로 지역들은 각 국가마다 다른 개념(행정적,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등)에 따라 정의되며, 지역들마다 데이터의 가용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 OECD의 지역분류는 국가의 하위 단위를 규정할 때 행정구역경계와 기능구역경계로 구별한다. 행정구역경계는 OECD의 대지역(large regions)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박스 6.2): 국가의 정의에 의존하며 대개 국가 내 하위지역 정부들의 첫 번째 행정계층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지역들(large regions)에 관한 데이터는 정책설계와 공공서비스 전달(public service delivery) 측면에서 국가 내 하위지역 정부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중요한데, 2013년에 OECD 국가들에서 공공지출의 40% 이상과 공공 투자의 3분의 2 이상이 국가 내 하위지역 정부들에 의해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인들이 살고 일하고 만나는 장소들이 그들을 둘러싼 행정적 경계와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이는 장소들이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연관성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연관성은 대개 지방, 지역 그리고 행정적 경계를 초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소들은 흔히 국가통계청에 의해 “기능적 지역”으로 그룹화된다. 전통적 행정구역경계가 아닌 기능적 지역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정책들을 더 잘 통합하고 지역의 욕구(needs)에 더 잘 부응함으로써, 인프라, 수송, 주택, 학교, 문화와 여가공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개선시킬 수 있다. 2012년에 OECD/EU는 OECD 29개국에 적용되는 기능적 도시지역(Functional Urban Area: FUA)의 조화로운 정의를 개발했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능적 도시지역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OECD, 2012).

표 6.2. 지역과 국가 단위의 웰빙의 측정을 위한 영역들과 지표들

영역		<i>How's Life in Your Region?</i>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지역적 지표들	<i>How's Life?</i> 중심 지표들에 포함된 국가적 지표들
물질적 조건	소득(수준과 분포)	수준: - 가구가처분소득(평균과 중위) 분배: - 가구가처분 소득과 시장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 가구가처분 소득과 시장소득에 대한 오분위 배율(S80/S20) - 지역의 상대적 빈곤(가처분 소득과 시장소득에 대한 headcount ratio, 빈곤선이 국가중위소득의 40%, 50%, 60%에 설정됨)	- 가구가처분소득 - 가구순금융자산
	일자리	- 고용률 - 장기 실업률 - 실업률	- 고용률 - 장기 실업률 - 근로자 당 연평균 근로소득 - 실업자가 될 확률
	주택	- 개인당 방의 개수	- 1인당 방의 개수 - 주택관련 지출 - 기본적 시설이 없는 주택
삶의 질	건강 상태	- 출생시 기대여명 - 연령보정사망률	- 출생시 기대여명 - 인지하는 건강상태
	교육과 역량	- 교육이수율 - 학생들의 인지능력(PISA)	- 교육이수율 - 학생들의 인지능력(PISA) - 성인인구의 역량
	환경의 질	- 대기의 질(PM _{2.5}) - 산림과 식생 손실 - 재활용 도시폐기물 - 녹색공간에 대한 접근성	- 대기의 질(PM _{2.5}) - 수질에 대한 만족도
	개인적 안전	- 살인률 - 자동차도난율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살인률(폭행으로 인한 사망) - 자기 보고 피해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 투표율	- 투표율 - 정부이해당사자 참여
	서비스 접근성	- 광대역 연결 - 최근접 병원까지의 평균 거리 - 공공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 (선택된 도시에만 해당) - 미충족 의료 욕구(needs)	
	일과 삶의 균형	제공 가능하지 않음	- 매우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 -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사회적 관계 주관적 웰빙	제공 가능하지 않음 제공 가능하지 않음	- 사회적 관계망 지원 - 삶에 대한 만족도

주: 몇가지 지표의 경우, 데이터는 제한된 숫자의 국가들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하고, 다루는 범위는 지역 단위로 측정된 학생인지능력(PISA), 재활용 도시폐기물, 최근접 병원까지의 평균 거리, 공공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 미충족 의료 욕구(needs)의 경우에 특히 제한됨. 볼드체로 표기된 지표들은 OECD 지역적 웰빙 웹툴을 통해 제공 가능함 (www.oecdregionalwellbeing.org).

출처: OECD(2014a), *How's Life in Your Region?*,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Regional well-being", OECD Regional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707-en>; OECD 지역통계치(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박스 6.2. 지역들(regions)은 어떻게 정의되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 OECD는 국가들의 행정조직을 반영해서 지역들은 두 개의 지역단위로 분류한다. OECD 대지역(TL2)은 국가 내 하위지역 정부의 첫번째 행정계층인데 예를 들면 캐나다의 주(Provinces), 스페인의 자치주(Comunidades Autonomas), 프랑스의 레지옹(대도시권; Régions), 미국의 주(States)가 있다. 본장에서 제시된 웰빙 지표들은 362개의 OECD 대지역들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대지역에 관한 데이터는 또한 다양한 웰빙 영역들에서의 지역간 격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런 경우에 국가 내 격차가 국가 간 격차보다 크음을 보여준다. 대규모 행정구역에는 지방정부들(local governments)과 다른 경제적 기능을 가진 많은 지역들이 포함되므로(예: 도시와 시골지역들), OECD는 또한 “소지역(smaller regions)”에 대한 공통 분류를 했다. 소지역은 대지역의 하위부분(sub-divisions)이며 일반적으로 행정단위(administrative units)에 해당되는데,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은 예외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소지역은 국가에 의해 설정되었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또는 경제적 구획(economic divisions)이다. 인구밀도, 시골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 도시 지역의 크기, 도심(urban centers)까지의 거리에 의존한 OECD 시골-도시 유형분류체계는 소지역들을 “주로 외진 시골”, “도시에 가까운 시골”, “중간”, “주로 도시”로 분류한다(Brezzi et al., 2011).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들은 OECD 시골-도시 유형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의 시골/도시에 대한 국가적 정의를 가지고 있으나 선택된 기준(thresholds)이 다를 수는 있다.

이 지표들의 대부분은 원하는 지리적 단위에서 값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 출처들을 통합해서 OECD가 생산한 추정치들이며, 제한된 영역들과 국가들만을 다룬다.

다른 계층들(tiers)간 분석의 선택은 측정전략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상충관계(trade-off)를 의미한다. 국가통계청은 대개 많은 행정지역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특히 큰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소지역과 기능적 지역에 대해 수집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지역 단위들(small units)에 대한 데이터(나중에 다른 지역에 합쳐질 수 있음)를 제공하려는 일부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작은 지역 단위의 공식적 통계치의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인구총조사(Census Population) 데이터에 국한된다. 이점이 지역 단위에서 웰빙의 포괄적인 측정에 대한 주된 제약요소이다.

웰빙 지표의 생산을 위한 조사기반(survey-based) 정보는 보통 지역 또는 지방 규모에서는 가능하지 않은데, 이는 조사들이 대개 국가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이다(Wishlade and Yuill, 1997; OECD, 2013). 그러나 국가 내 하위지역(sub-national) 정보를 더 많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국가들은 조사 관행에 다양한 변화를 채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은 지역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표본 구조의 변화, 다년평균(multi-year averages)의 사용,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의 세부사항(details)의 발표가 포함된다. 그러나, 표본 구조의 변화는 조사를 운영하는데 추가적 비용을 낳거나, 결과의 분석 측면에서 상충관계(trade-offs)를 야기할 수 있다(예를 들어, 지역 표본들은 표집된 인구의 다른 특징들에 관한 정보의 손실 때문에 활용 가능할 수 있음).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청들과 다른 데이터 생산자들은 다른 지역 단위에서 웰빙 지표들을 집계할 대안적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르딕 국가들은 보통 등록 데이터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동일한 개인에 관한 행정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에 연결되기 위하여 개인 식별정보(personal identifiers)를 사용한다.

다른 옵션들에는 지리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온라인 조사 또는 활동에서 응답자 위치(localization) 활용, 인프라 또는 자연 자원 등록부(registries)와 다른 통계 데이터/글로벌(위성 기반)데이터와의 통합(환경적 수행도와 토지 관리 측정치들의 도출을 위함)이 있다. 다른 출처에 근거해서 국가 내 하위지역 웰빙 지표들의 세트를 개발하려는 국제적·국가적 이니셔티브의 예들은 박스 6.3에 제시된다.

박스 6.3. 다른 지역 단위의 웰빙 측정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출처들

여러 출처의 데이터들을 통합시킴으로써 국가 내 여러 하위 지역 단위의 웰빙의 측정을 개선시키려는 몇가지 이니셔티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작되었다.

2011년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소지역(small areas; 즉, 도시와 인근지역들)에 대한 “빈곤지도(poverty maps)”를 만들 것을 위임했다. 국가 인구조사 데이터와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조사(EU-SILC)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결합시킴으로써, 이 이니셔티브는 자치도시, 구(district), 하위지역, 지역 단위에서 7개의 EU 국가들(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 대한 소득빈곤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관한 추정치를 산출했다. 이러한 추정치들은 대지역 단위에서 감추어졌던 지역 내의 커다란 소득 불평등을 강조했고 구체적인 빈곤지역(pockets of deprivation)을 밝혀냈다.

덴마크 국가 및 지역 보건 당국들은 성인들의 웰빙, 생활방식,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0년 이래 “How are you?”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자치도시 단위에서 가능하며 국가, 지역, 도시 단위에서 보건 부문 내 활동을 계획하고 정성화하기 위하여 행정데이터와 통합된다. “Good Lif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남덴마크 지역은 개인적 안전, 건강, 관계, 자기실현(self-actualisation), 지역의 자치도시들(municipalities)의 지역 환경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례 조사데이터를 2012년 이래 수집하고 있다.

프랑스국가통계청(INSEE)은 지역 단위(Une approche de la qualité de vie dans les territoires)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를 2015년에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자치도시 단위에서 잠재적으로 가능한 13개 웰빙 영역과 관련된 27개 지표들을 확인한다. 데이터 출처는 행정기록, 지방조사, 국가조사이다. 국가의 새 지도가 소지역의 다양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생산되고 있다(최종 결과는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구분된 주민 5만명 미만의 지역으로 정의된 2,677개의 지역에 관한 것이다).

헝가리에서 지역개발과 공간기획정보체제(Regional Development and Spatial Planning Information System: TeIR)는 다른 지역 규모에서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출처들(헝가리중앙통계청, 정부기관, 행정 등록명부, 자치도시, 위성데이터)로부터 가져온 통계, 지리, 정책 데이터를 통합한다. TeIR은 지역개발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이 헝가리와 그 지역에서 미친 영향을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TeIR은 지역개발감시와 평가시스템(Regional Development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T-MER)을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하는데, T-MER은 공간적 감시와 활동 평가를 위한 통일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지표들을 다른 단위에서 포함시킨다.

박스 6.3. 다른 지역 단위의 웰빙 측정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출처들(계속)

2014년과 2015년에, 이탈리아국가통계청(Istat)은 도시 지역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웰빙에 관한 보고서(Urbes)를 출간했다(www.istat.it/it/archivio/153995). Urbes 프로젝트는 행정기록, 인구총조사, 국가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 프로젝트는 29개의 이탈리아 대도시들의 네트워크와 연관되며,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고 이탈리아 도시 지역의 웰빙 상태에 관한 최선의 지표들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보고서는 도시 지역의 웰빙에 대한 좀 더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치도시와 현(provincial) 단위에서 11개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65개의 지표들을 근거로 한다. 이 보고서는 국가 수준에서 이탈리아국가통계청(Istat)과 이탈리아지방자치단체 협의회(ANCI)에 의해 배포되며,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멕시코지역사회경제(Regiones Socioeconómicas de Mexico) 보고서는 멕시코 국립지리통계청 (Mexican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INEGI)이 작성했고, 2004년 이래 연방, 자치시, 지리 통계기본(Áreas Geo-statísticas Básicas: AGEB) 단위에서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오직 주(state)와 자치시(municipal) 단위의 데이터를 포함시켰던 이전의 Cuadernos de Información para la Planeación de los Estados를 따랐다. 멕시코지역사회경제(Regiones Socioeconómicas) 보고서의 목적은 인구조사 데이터에서 가져온 다수의 지표들을 계산함으로써, 4개 영역(주택, 건강, 교육, 고용)에서의 성과에 관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다양한 지역 단위에서 여러 지표들의 표시(mapping)를 허용하는 웹툴(web tool)과 함께 멕시코 국립지리통계청(INEGI)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폴란드 중앙통계청은 국가 내 하위지역 수준에서의 웰빙 지표들을 제공한다. 2011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던 사회통합조사(Social Cohesion Survey)는 삶의 질, 빈곤, 사회적 자본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해, voivodships(TL2)를 포함한 여러 지역 단위에서 일련의 지표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2014 폴란드의 삶의 질, 사회적 자본, 빈곤, 사회적 배제 보고서에 포함되었다(<http://stat.gov.pl/en/topics/living-conditions/living-conditions/qualityof-life-social-capital-poverty-and-social-exclusion-in-poland,4,1.html>). 사회통합 조사 제2판은 폴란드에서 국가 내 하위지역 웰빙에 관한 더 광범위한 정보의 출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르투갈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두가지 이니셔티브는 포털사이트(web portal)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제공하고 또한 데이터와 접근성지표(access indicators)를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행정근대화협회(Agency for Administrative Modernisation) 웹사이트에서 오픈 데이터세트는 주제에 따라서 분류되며, 애플리케이션은 교통사고(road accidents)를 측정하거나 시민들에 의한 지역의 다목적(multipurpose) 행정센터의 사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사이트(igeo.pt)는 토지관리 도구(land management instruments)와 환경적 수해 등에 관한 지리적 데이터를 여러 국가 기관들로부터 수집한다. 이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은 시각화(Web Map Service) 또는 querying(Web Feature Service)을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이입(import) 수 있다. 포르투갈 통계청은 또한 공간데이터 관리와 시각화를 지원할 인프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INE GeoPortal)을 개발하고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지리공간정보 지도보기와 다운로드를 위한 웹서비스와 온라인 메타데이터 카타로그를 탐색하는 서비스를 통한다.

박스 6.3. 다른 지역 단위의 웰빙 측정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출처들(계속)

스위스연방통계청(FSO)은 자치시 단위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를 2014년에 출간했다. 데이터는 스위스도시감사국(Urban Audit Switzerland)에 의해 사용되며, 스위스의 10대 도시들(주민 수 5만명 이상)에서의 13개 웰빙 영역에 따른 24개의 지표들을 보여준다. 데이터 출처는 행정기록, 지역조사, 국가조사이다. 제공된 지표들은 미래에 보완되어서 도시 내 웰빙에 관한 더 완벽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2000년 이래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에 의해서 복합결핍지수(Indices of Multiple Deprivation: IMD)가 생산되고 있다. 복합결핍지수(IMD)는 7개 영역, 즉 고용, 소득, 건강, 범죄, 교육, 삶의 환경, 서비스 장벽에서의 결핍 수준을 측정한다. 복합결핍지수(IMD)는 행정자료, 조사, 인구조사에서 가져온 40개의 지표들을 사용한다. 처음에는, 지수가 구 단위(district ward: 선거구를 위한 가장 작은 지역에 해당함)에서 구축되었지만, 2004년 이래 “저층위슈퍼산출지역(lower-layer surper output areas; 약 1,500명의 주민이 거주함)”이라는 더 작은 단위에서도 가능하다. 복합결핍지수(IMD)는 슈어 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s)와 같은 사회서비스 장소를 안내하고 지역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과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과 같은 재생 사업의 대상선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에 OECD는 우주 기구(space agencies) 또는 학계 컨소시엄(academic consortia)에 의해서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위성 데이터(예: 다른 해상도(resolution)를 가진 전 세계의 공기 중 초미세먼지(PM_{2.5}) 노출도에 관한 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사용하여 토지피복(land cover) 및 그 변화, 대기의 질, 온실가스 배출(emissions), 기타 환경적 지표들을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How's Life in Your Region?*(OECD, 2014; 표 6.2)에서 사용된 대기오염 지표는 위성관측에서 가져온 분진(PM_{2.5})에 대한 사람들의 노출 추정치이다. 대기 오염에 대한 위성 감시(satellite monitoring)는 지상기반감시소(ground-based monitoring stations)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지상감시소가 부족함)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일관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14), EU 가입국가들 – EU 신규 회원국들의 빈곤 지도: completion memo. 워싱턴, DC,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4/06/19764353/european-union-eu-accession-countries-povertymapping-new-members-eu-completion-memo>; 덴마크보건계약청 (2014), “Danskernes Sundhed – Den Nationale Sundhedsprofil 2013”; Sundhedsstyrelsen, Copenhagen, <https://sundhedsstyrelsen.dk/~media/1529A4BCF9C64905BAC650B6C45B72A5.ashx>; 남덴마크 지역(2015), “KONTUR Region Syddanmark 2014”, pp. 42-51, <http://detgodeliv.regionsyddanmark.dk/publikationer/kontur>; ATTRACT SEE(2014), “공동 지역감시체제 이행을 위한 헝가리 실행계획” www.attract-see.eu/; INSEE(2015), “Une approche de la qualité de vie dans les territoires”, 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g_id=0&ref_id=ip1519; 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México, <http://sc.inegi.org.mx/niveles/index.jsp?s=est&c=11724>; 포르투갈 행정 근대화국, www.dados.gov.pt/pt/inicio/inicio.aspx; and Igeo Portal, www.igeo.pt/; 스위스연방통계청: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international/03/04/07.html; UK 지역사회 지방정부부, “영국 결핍지수”, Crown Copyright, 런던, www.gov.uk/government/collections/english-indices-ofdeprivation; Brezzi, M. and D. Sanchez-Serra(2014), “Breathing the same air? OECD 도시와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 OECD 지역개발연구보고서, 2014/11, OECD 출판국, <http://dx.doi.org/10.1787/5jxb7rkxf21-en>(이 출처의 모든 웹사이트들은 2015년 5월 29일 액세스됨)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출처에서 가져온 대안적 데이터(alternative data)도 국가 내 하위지역 단위에서 웰빙 평가를 위한 데이터 이용이 국가 간 호환적(harmonized)이라면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 출처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의 늘어난 가용성(즉,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생산 속도의 폭발적 증가)은 활용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와 군중들로부터 얻은 데이터(crowd-sourced data)는 이미 구체적인 지리적 단위에서 폭넓은 이슈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UN과 국가정부 사이의 공동 프로젝트는 공공 트윗(public tweets)로부터 일일식량가격(daily food prices)을 추출하는데, 이는 식량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의 생활비용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IEAG, 2014).

상당한 방법론적 제약(constraints)이 개인의 조사에 대한 응답에 근거해서 국가 내 하위지역에서 비교가능한 웰빙 지표들을 생산할 능력을 제한한다(예: 공공 서비스 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자기 보고 피해자 경험 또는 이용 가능한 사회적 지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주택, 교육, 안전과 같은 일부 웰빙 영역들에 대한 지표들의 가용성 개선은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할 능력에 달려있다. 같은 이유로, 국가 수준에서 How's Life?에 보고된 “주관적 웰빙”,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의 웰빙 영역들은 현재 지역 프레임 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영역들은 국가 단위의 조사 데이터로 독특하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웰빙의 지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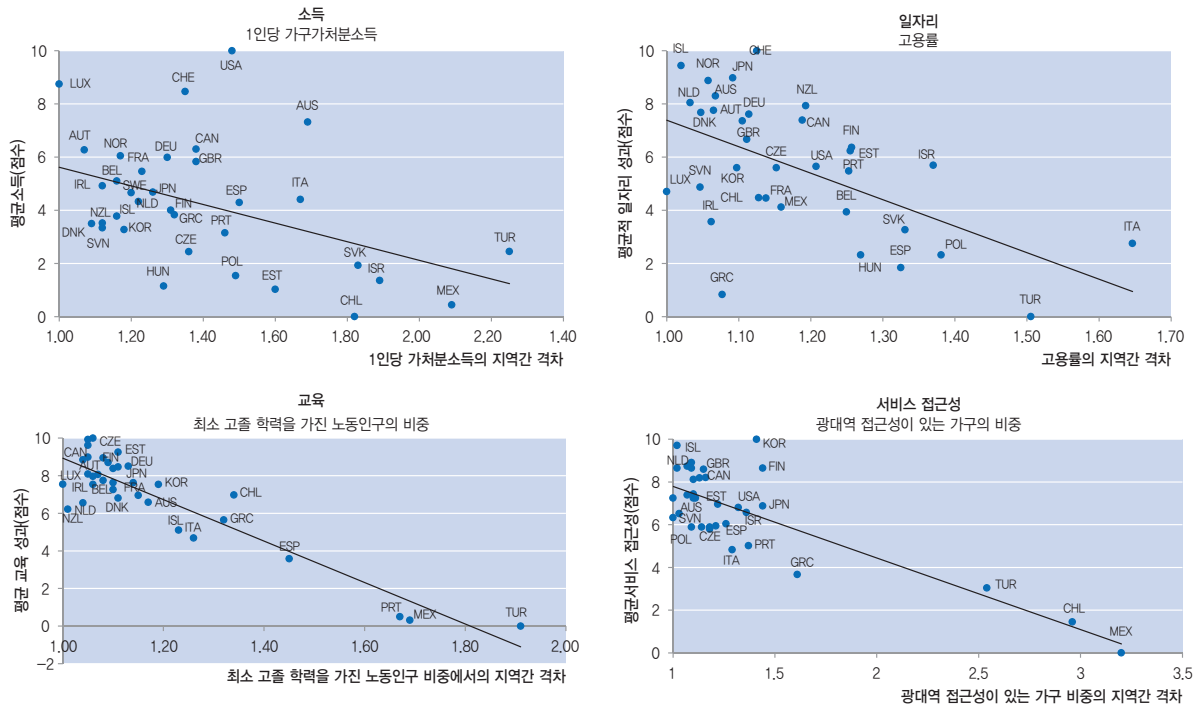
How's Life?에서와 같이, How's Life in Your Region?에 포함된 웰빙 영역들과 지표들은 두 개의 큰 영역, 즉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일자리, 소득, 주택은 물질적 조건과 관련된 3가지 영역이고, 건강, 교육, 안전, 시민 참여,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삶의 질과 관련된 6가지 영역이다. 국가 내 지역간 격차는 고찰된 대부분의 지표들의 경우에 큰 데 일부 경우에는 국가 간 관측된 격차보다 더 크다. How's Life in Your Region?에서 검토된 증거자료는 또한 2008년 경제 위기가 국가 수준에서 고용률과 소득 수준의 하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OECD 국가들 중 거의 절반에서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켰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이는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의 더 큰 실업률 상승을 일반적으로 반영한다(OECD, 2014b). 이 섹션은 소득, 일자리, 교육, 환경, 서비스 접근성 등 격차가 특별히 컸던 선택된 웰빙 영역들에서 지역적 격차의 크기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나머지 영역들(주택, 건강, 시민 참여, 안전)에서 지역적 격차에 대한 설명은 OECD에서 발견될 수 있다(2014b).

더 낮은 지역적 격차는 더 높은 수준의 국가적 웰빙과 관련이 있다

국가내 하위지역 단위(sub-national level)의 웰빙에 초점을 둬으로써 전국규모(nation-wide)의 지표들이 사람들이 경험한 삶의 조건들에 관한 부분적 그림만을 제공한 사례들을 강조한다. 첫째, 한 가지 웰빙의 영역에서 비슷한 국가 평균값을 가진 국가들이 동일한 영역에서 매우 다른 지역적 격차를 경험할 수 있다. 1인당 소득과 관련하여 터키와 체코의 경우¹ 이 두 국가에서 1인당 가처분소득 평균은 국가 수준에서 대략 11,500달러이지만, 지역의 평균값은 터키의 경우 6,000달러에서 15,500달러 사이지만 체코에서는 10,5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에 불과하다. 역으로, 비슷한 지역간 격차를 가진 국가들이 매우 다른 국가평균 웰빙 점수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와 이탈리아는 1인당 가처분소득이 상당히 다르지만 동일한 지표의 지역간 격차는 매우 비슷하다(그림 6.2).

그림 6.2. 웰빙의 4가지 영역에서의 국가평균 vs 지역간 격차

2013



주: 362개의 OECD 지역들에서 지표들의 값은 0에서 10까지의 점수로 변환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성과를 의미함. 각 그림의 y축은 각 영역에 대한 국가평균점수를 나타냄. x축에 나타난 지역간 격차는 각 영역에 대해 고찰된 지표들의 지역의 상위 20%(5번째 오분위)의 값과 하위 20%(1번째 5분위) 값의 비율로써 계산됨.

출처: OECD(2014a), How's Life in Your Region?,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23>

지역간 웰빙 격차와 전반적 웰빙 수준 간 관계의 커다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웰빙 영역들의 경우에(예: 소득, 일자리, 교육, 서비스 접근성) 커다란 지역적 격차가 있는 OECD 국가들은 또한 흔히 더 낮은 국가 웰빙 점수를 경험한다. 이 영역들의 각각에 대해, 그림 6.2는 국가 수준의 평균 웰빙 점수와 동일한 영역에서의 지역적 격차의 정도(지역의 상위 20% 값과 하위 20% 값 사이의 비율로써 측정됨)를 나타낸다.

교육과 서비스 접근성에서 관측된 음(-)의 상관관계는 이상치(outlier)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최저 점수를 받은 3개 국가들에 의해 주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경우에서 이 국가들을 분석에서 배제하면 상관관계는 강건성(robust)이 유지된다.² 그림 6.2에서 나타난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면 각 웰빙 영역에서 국가 간 격차는 평균적으로 수행도가 높은 국가들보다 수행도가 낮은 국가들 사이에서 더 크다.

웰빙 성과에서 공간적 격차의 영향에 관하여 보면, 최근 문헌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개인들 특히 젊은이들에 의해 경험된 웰빙 성과들은 나중의 삶에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개인들이 선택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서의 삶의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장기적으로 그들의 웰빙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provision)과 관계된 영역들에서 특히 관련성이 높다. 교육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동을 위한 좋은 학교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은 그들의 미래 기회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분석은 주거지(neighborhood)의 평균 소득이 개인이 미래에 소득을 벌어들일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데, 이 효과와 부모 소득과의 관련성은 50%이다(Rothwell and Massey, 2015). 다른 연구는 세대간 사회적 이동성(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이 미국 내 도시들끼리 상당히 다름을 보여준다.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나타내는 도시들은 평균적으로 더 낮은 소득 불평등, 더 적은 인종차별(segregation), 더 좋은 초등학교의 특색을 보인다(Chetty et a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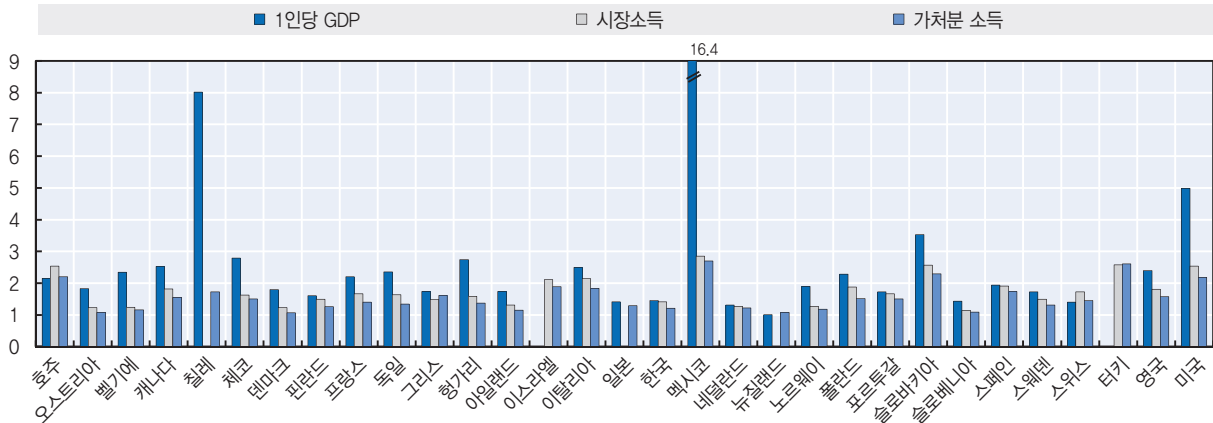
이 패턴들은 교육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s)”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개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 싸여진 상황에 의해 혜택을 받는데, 즉 지역의 교육 수준은 긍정적 사회적 외부효과(social externalities)를 산출한다(Moretti, 2004). 대체로, 이는 웰빙 성과들의 지역적 격차가 사람들의 전반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소득 수준은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에서 차이가 크다

생활 수준 측면에서 지역적 격차를 고찰할 때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측정법은 지역의 GDP이다(OECD, 2013). 그러나 GDP는 주민이 누리는 소득이 아닌, 각 지역의 경제적 생산의 측정법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또한, 천연자원의 이용이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산출된 소득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지역이나, 경제적 생산이 타 지역에 사는 근로자들에 의해서 보장되는 대도시권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생산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소득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의 지역적 격차는 가구가처분소득의 지역적 격차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의 지역간 격차는 미국,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과 같은 고소득, 중간소득 국가들과 칠레, 멕시코, 터키와 같은 저소득 국가들 등 많은 OECD 국가들에서 크다(그림 6.3). 가구소득의 커다란 격차는 또한 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에서 관측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보다 소득이 약 10%가 높았다(유럽통계청, 2013). OECD 국가들의 절반에서 가구 소득의 지역간 격차는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증가했는데 낙후된 지역들의 미약한 수행도 때문이었다. 지역간 격차는 시장소득에서 더 높는데, 왜냐하면 이전(transfer)과 조세(taxation)가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사이의 격차(gap)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구소득의 격차는 같은 국가 내 지역 간 생활비용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편향될(biased) 수 있다.

그림 6.3. 1인당 GDP, 가구시장소득, 가구가처분소득의 지역적 격차

지역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비율, 2013년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국가통계청에 의해서 제공된 지역 국민계정 정보에 근거하며, 소득 데이터가 OECD의 소득과 생활여건(EU-SILC)에 대한 EU 통계조사나 터키 통계조사에 근거하는 터키와 스위스는 예외이다. 데이터는 TL2 단위의 지역을 말하는데 데이터가 NUTS1 단위에서만 가능한 터키의 경우는 예외이다. 데이터는 칠레,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의 경우 2012년,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2011년을 의미한다. 지역 최대값과 지역 최소값 사이의 비율은 구매력평가(PPP)로 조정된 가치 기준(2010=100) 1인당 미달러로 표시됨.

출처: OECD 지역 웰빙(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31>

일부 지역에서 소득불평등은 국가 전체의 소득불평등 보다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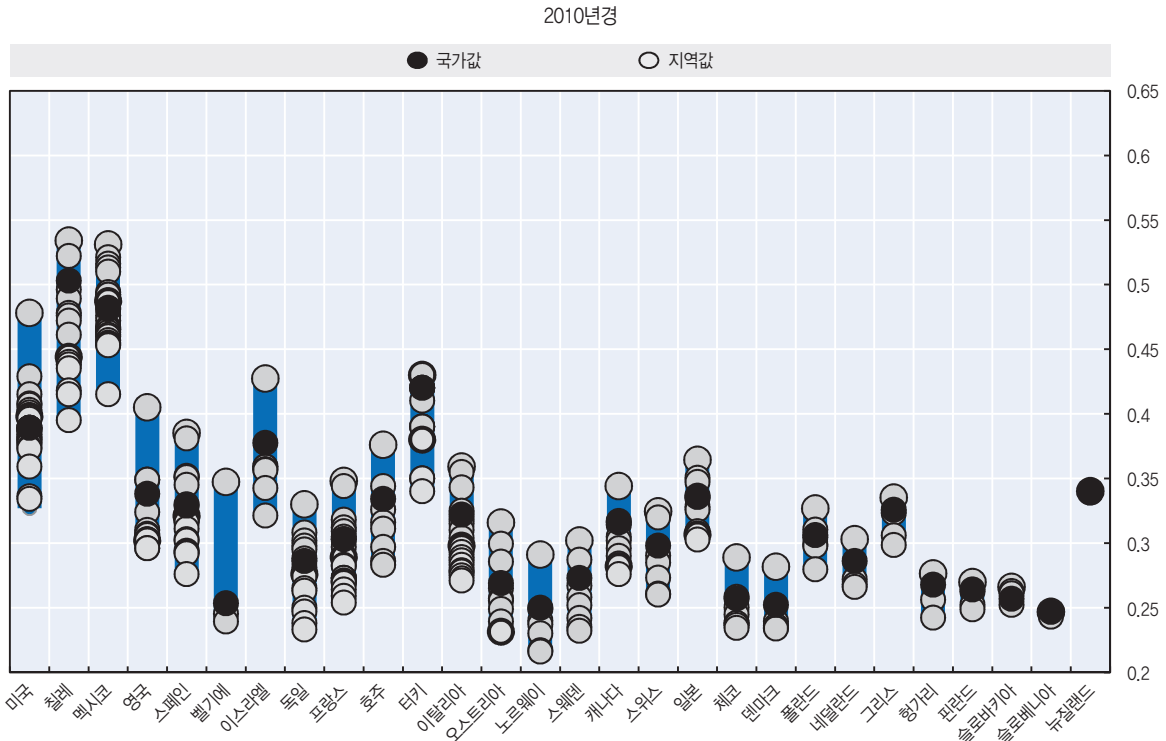
국가 내 하위지역 수준에서 개인단위의 데이터는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개인과 장소의 특징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지역적 수준에서 가구소득 분포의 측정은 사회 및 재분배정책의 타격을 설정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방법론적 제약이 지역 내 소득 불평등의 비교가능한 측정법의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가구 조사가 지역 단위에서 대표성을 띠도록 설계되는 경우는 드물고, 도시와 시골 지역들 간의 지역인구규모와 생활비용 간의 격차는 소득 불평등의 평가를 편향되게 할 수 있는데 특히 빈곤선(poverty lines)의 확인과 관련하여 더욱 그렇다. 생활비용의 차이 측면에서, 최근 연구는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 간 가격차이에 대한 고려는 지역 빈곤율의 추정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Jolliffe, 2006; 세계은행(World Bank), 2015). 국제적 비교 프로그램(ICP)은 가구지출조사(HES)의 사용을 통하여 가격의 지역적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 집계(data compilation)에 착수했다. 이는 구매력평가(PPP)를 계산하기 위하여 ICP 분류와 통합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공간적 디플레이터(spatial deflators)로서 사용될 수 있다.³

2014년에 OECD는 지역 내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추정치들을 발표했는데 이 특징들은 Piacentini(2014)에서 논의된다⁴. 이 추정치들이 지역 간 가격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국가빈곤선과 지역빈곤선을 모두 사용하여 계산되는데 지역 빈곤선(각 지역의 중위소득의 비중으로 설정됨)이 지역별 생활비용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지역 수준에서 가능한 생활비용 측정치들의 부족이 지니계수와 같은 지역 소득 불평등 지표들의 해석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구가처분소득 분배의 지역적 격차는 평균적으로 소규모 OECD 국가들에서보다 대규모 OECD 국가들에서 더 높는데, 또한 그 격차가 대규모 도심(urban centres)이 있는 일부 소규모 국가들(예: 벨기에, 영국)에서 높다.

멕시코의 트락스칼라(Tlaxcala)주(0.41)와 구에레로(Guerrero)주(0.53) 사이의 가구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격차는 멕시코와 뉴질랜드의 국가평균 지니계수의 격차와 비슷하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가장 지니계수가 낮은 아이오아주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캐나다와 프랑스의 국가 평균의 차이에 가까운 반면에, 워싱턴 DC에서의 가구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는 칠레와 멕시코 사이의 국가평균 지니계수 격차와 비슷하다(그림 6.4).

그림 6.4. 가구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의 지역값



주: 국가들이 지역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의거 순위가 매겨졌다. 패널의 각 점은 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0(완전한 평등)에서 1(모든 소득이 한 개인에게 돌아감)까지로 표시되는 소득집중도의 측정방법이다.

출처: OECD 지역 웰빙(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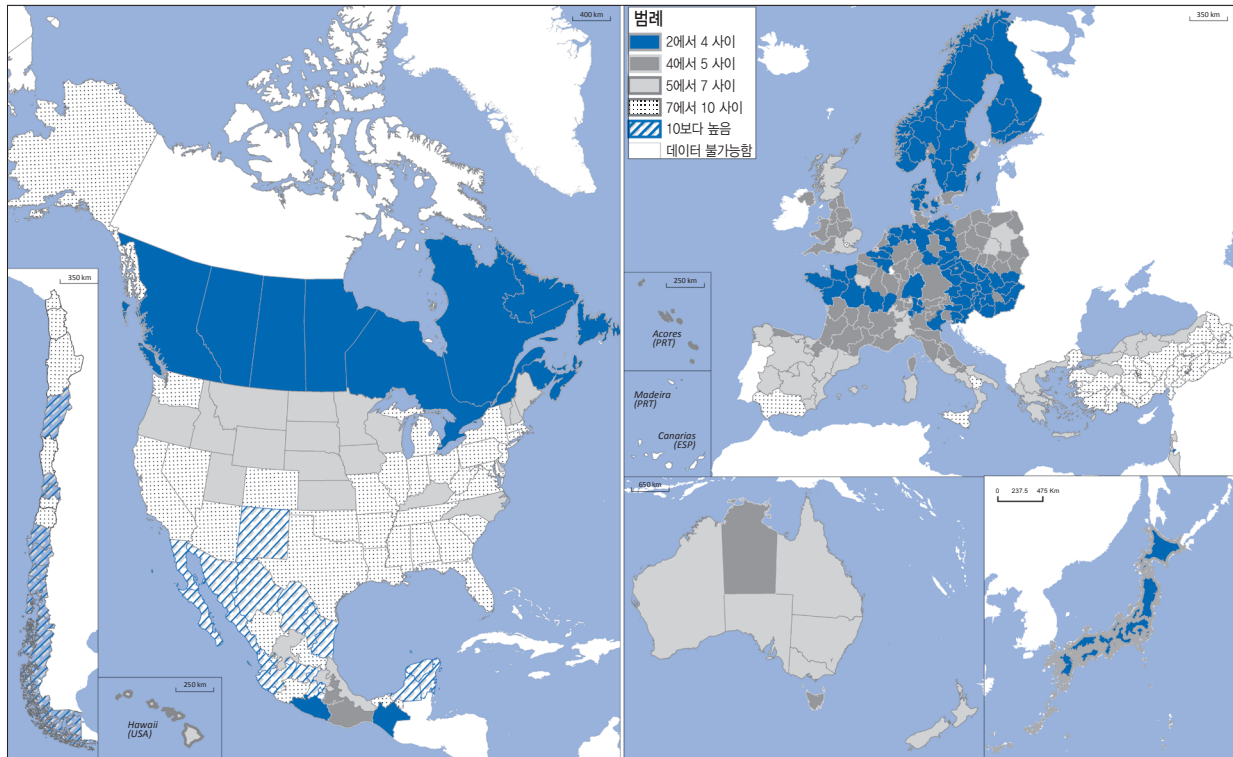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46>

한 국가의 지역들 내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국가별로 매우 차이가 크다. 일본과 노르딕 국가들의 지역들 내에서 가처분소득의 상위 20% 가구는 하위 20% 가구의 2배에서 4배를 벌며, 반면에 칠레와 멕시코 지역들 내에서 소득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20%의 사람들보다 최소 10배를 번다. 유럽 국가들에서 지역 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가구 사이에 가장 큰 격차가 기록된 국가는 스페인, 그리스, 터키, 남부 이탈리아이다(그림 6.5). 소득불평등은 또한 지역의 도시 구조에 달려있고, 대도시일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Kanbur and Zhuang, 2013; Royuela et al., 2014).

지역 내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들에 관한 실증연구는 고용밀도(Ciccone, 2002)와 인구밀집 도심과의 근접성(Rice et al., 2006)과 같은 지역 노동시장의 몇 가지 특징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높은 임금 프리미엄에 의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높은 소득으로 연결된다(Glaeser and Mare, 2001).

그림 6.5. 지역 내 소득불평등

각 지역의 분배 최상위 오분위와 최하위 오분위의 가구가처분 소득 간 비율, 2010년경



주: 본 문서와 여기 포함된 지도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영토에 대한 지위 혹은 주권, 어떤 영토, 도시 혹은 지역의 국가 간 국경선, 경계 및 명칭에 대한 어떤 편견을 배제한다. 행정적 경계의 출처는 국가통계청과 국제식량기구(FAO) 글로벌 행정단위 계층(GAUL)이다.

출처: OECD(2014a), How's Life in Your Region?,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52>

OECD 지역들에 대한 분석은 소득 불평등은 실업률과 노인인구(70세 이상)의 비중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고등학교 이수율, 60-69세 연령대의 인구의 비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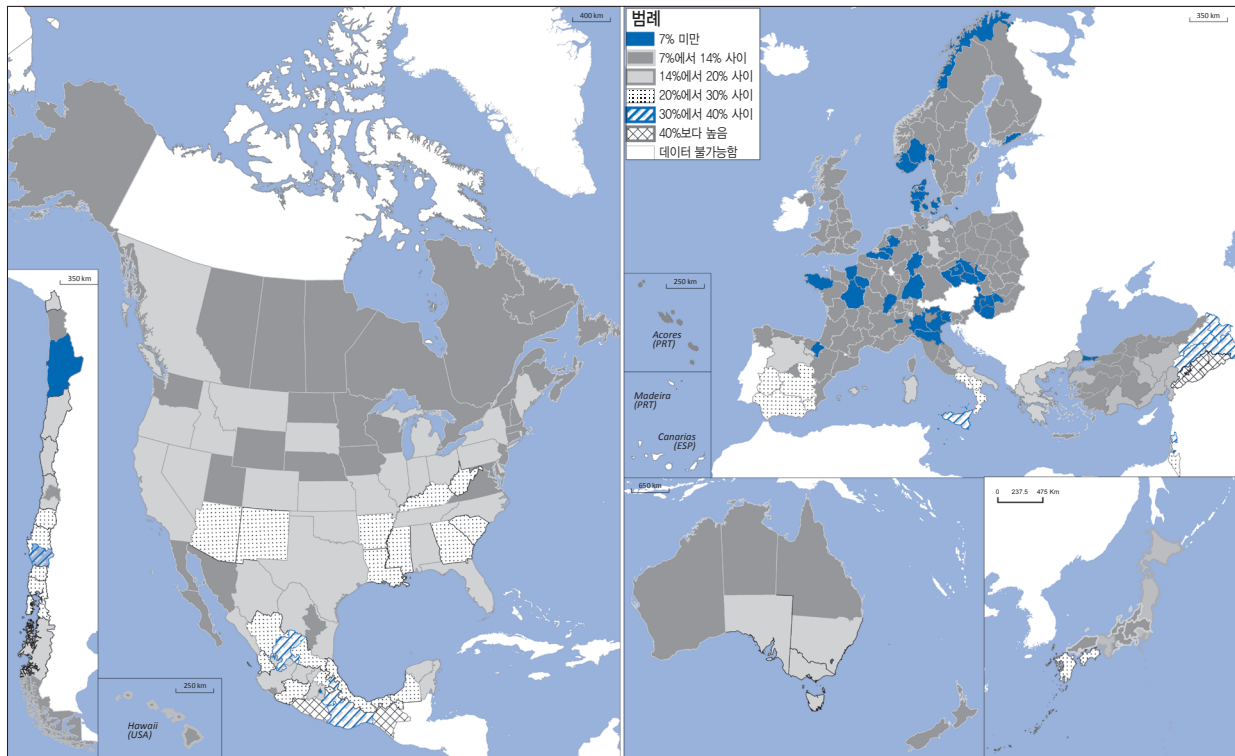
소득불평등은 또한 빈곤율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지역수준에서 확인되는 관계이다. OECD 지역 웰빙 데이터베이스는 빈곤선이 국가중위소득의 60%, 50%, 40%에 설정된 상대적 빈곤율의 추정치를 제공한다.⁵ 빈곤율 측면에서 지역적 격차가 국가들 내에서 매우 높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찰된 27개국 중 8개국에서 지역간 소득 빈곤(국가 중위소득의 50%로 측정됨) 격차가 OECD 국가들 간 격차보다 크다. 멕시코에서 소득 빈곤율은 연방구(Distrito Federal)의 5.4%에서 치아파스(Chiapas)의 48.9%에 이르며, 터키에서 소득 빈곤율은 이스탄불(Istanbul)의 4%에서 동남 아나톨리아(Anatolia)의 50.4%에 이른다(그림 6.6).

지리적 영역의 빈곤 표시는 빈곤 퇴치 정책이 더 세밀한 지리적 분류(breakdown)와 주된 결정요인에 대한 더 나은 지식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세밀한 지리적 사항이 표기된 “빈곤 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적·국제적 이니셔티브들이 시작되었다. 빈곤 지도는 인구조사가 시행되는 년도 사이에 빈곤을 감시하기 위하여 대개 인구조사데이터와 가구조사데이터(또는 세금 데이터)를 연결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멕시코에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와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도시와 주 단위의 영양 및 소득빈곤지도를 개발했는데 도시빈민 가구의 삶의 수준을 개선시키려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것이다(Székely Pardo et al., 2007; Lopez-Calva et al., 2007; 세계은행(World Bank), 2015). 미국에서 소지역 소득빈곤 추정(Small Area Income and Poverty Estimates, SAIPE) 프로그램은 모든 학군, 카운티, 주에 대한 소득과 빈곤 통계의 연간추정치를 제공하는데, 연방 프로그램에서의 기금 할당에 관한 선택을 지원하고, 기금을 할당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와 지역 당국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6.6. 지역별 상대적 빈곤율

2010년경



주: 국가중위소득의 50%가 빈곤선이 설정된 가운데 빈곤한 사람들의 비율(poverty headcounts). 본 문서와 여기 포함된 지도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영토에 대한 지위 혹은 주권, 어떤 영토, 도시 혹은 지역의 국가 간 국경선, 경계 및 명칭에 대한 어떤 편견을 배제한다. 행정적 경계의 출처는 국가통계청과 국제식량기구(FAO) 글로벌 행정단위 계층(GAUL)이다.

출처: OECD 지역적 웰빙(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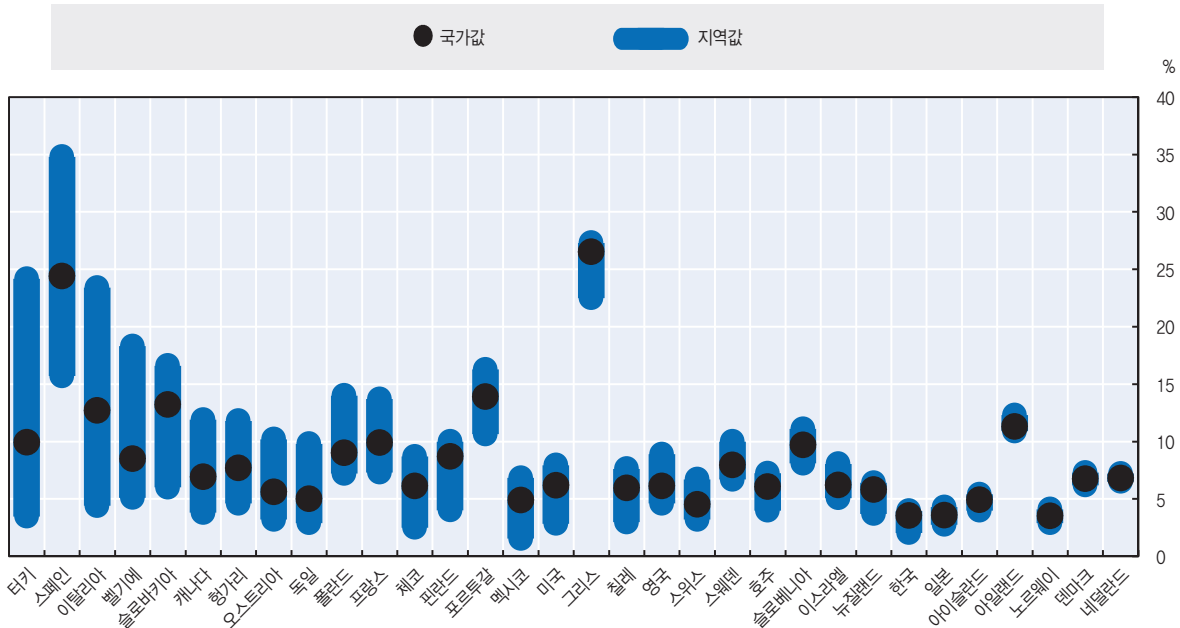
실업 측면에서 지역적 격차는 크고 2008년 이래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자리 창출은 인적 자원과 산업적 믹스(mix) 때문에 경쟁력이 더 높고 매력적인 제한된 숫자의 OECD 국가들에 의해 크게 주도되었다: 전체적으로 1999년에서 2013년 사이에 OECD의 고용 성장의 40%가 단지 10%의 OECD 지역들에 의해 이루어졌다(OECD, 2013). 2014년에, 실업률 측면에서 지역적 격차(OECD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사이의 차이는 33% 포인트)는 OECD 국가 간 격차(23% 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실업률의 가장 큰 지역적 격차는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에서 발견된다(10% 포인트 이상).

일부의 경우에 지역간 실업률 격차는 모든 OECD 국가 간 실업률 격차만큼 큰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 지역인 캄파니아(Campania)와 트렌토(Trento) 간의 실업률 차이(대략 20% 포인트)는 스페인과 스위스의 국가평균 간 격차와 비슷하다(그림 6.7).

그림 6.7. 실업률 측면에서의 지역적 격차.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역의 최대값과 최소값, 2014년



주: 데이터는 칠레와 이스라엘의 경우 2013년을 의미함. 데이터는 TL2 지역을 의미함. 캐나다에 대한 값은 유콘(Yukon), 노스웨스트(Northwest) 지방, 누나부트(Nunavut) 지역을 제외함. 덴마크에 대한 값은 올란드(Åland)를 제외함.

출처: OECD 지역 웰빙(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73>

금융위기 발발 이후 지역별 실업률의 추세가 이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10개의 OECD 국가들에서, 2008년 이래 40% 이상의 국가 실업률 상승은 한 지역에만 집중되었다(OECD, 2013). 청년실업률과 장기 실업률의 지역간 차이는 총 실업률보다 더욱 크며 2008년 이래 악화되었다. 스페인은 청년실업률에서 지역간 격차가 가장 커서, 가장 수행도가 좋은 지역과 가장 나쁜 지역 사이에는 30% 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한다. 안달루시아(Andalusia)와 카탈로니아(Catalonia) 두 지역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스페인에서 실직한 청년 수 증가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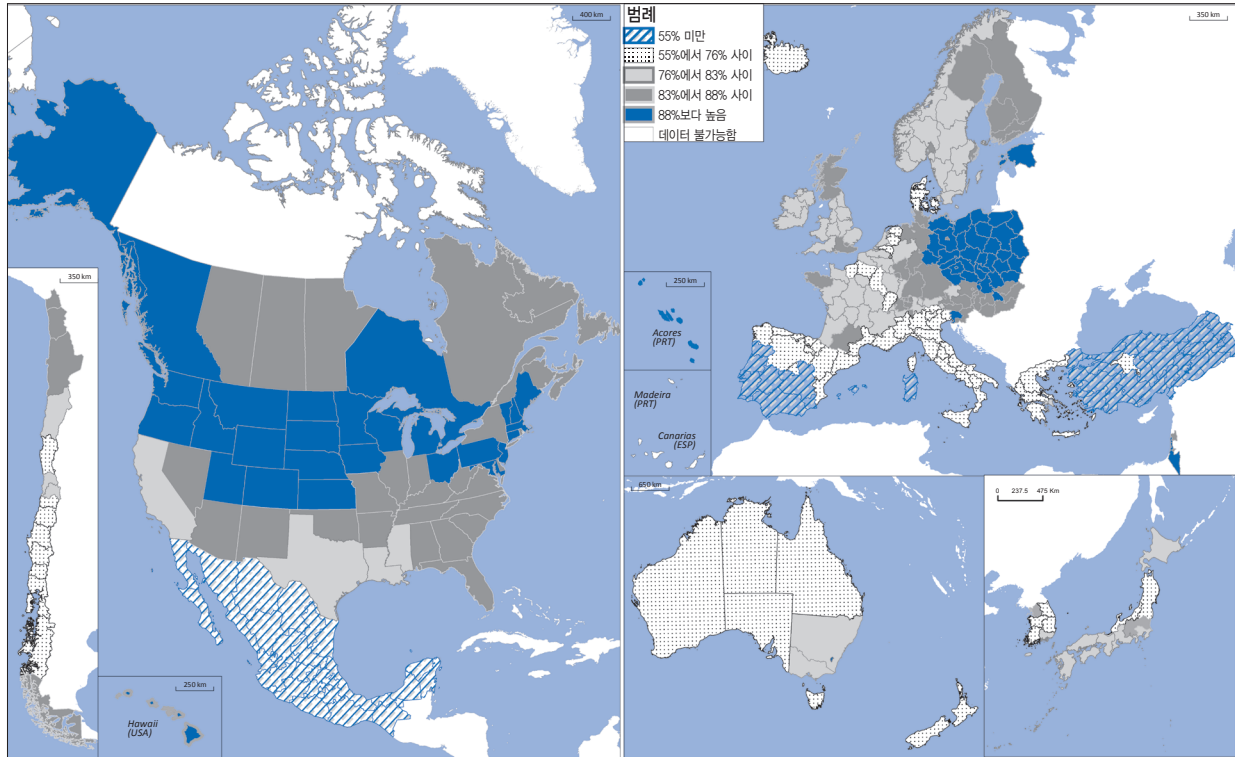
교육적 성과에서 공간적 격차가 크다

웰빙의 비물질적 영역들 중에서, 교육이 특별히 중요한데 가구소득, 고용, 시민참여, 건강 등 많은 다른 성과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OECD 지역 웰빙 프레임 워크에서, 교육적 성과들은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이 지표는 지역의 기술역량에 관한 하나의 측정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측정법은 PISA와 PIAAC OECD 조사를 통해 측정된 학생 혹은 성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들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은 OECD 지역들 중 소수의 하위 범주(subset)에서만 가능하다.

교육적 성과 측면에서 지역적 격차는 위에서 검토된 다른 웰빙 측정치들의 경우와 같이 크다. 2013년에,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터키의 일부 지역들에서 노동인구의 절반 미만이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했는데, 반면에 동부 유럽 국가의 지역들에서 노동인구의 대략 80% 이상이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했다. 북미 지역들에서 최소 고졸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심(central)” 지역에서 “주변(peripheral)” 지역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림 6.8).

그림 6.8. 노동인구의 교육이수율 측면에서의 지역적 격차

최소 고졸학력을 가진 노동인구의 비율, 2013년



주: 본 문서와 여기 포함된 지도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영토에 대한 지위 혹은 주권, 어떤 영토, 도시 혹은 지역의 국가 간 국경선, 경계 및 명칭에 대한 어떤 편견을 배제한다. 행정적 경계의 출처는 국가통계청과 국제식량기구(FAO) 글로벌 행정단위 계층(GAUL)이다.

출처: OECD 지역적 웰빙(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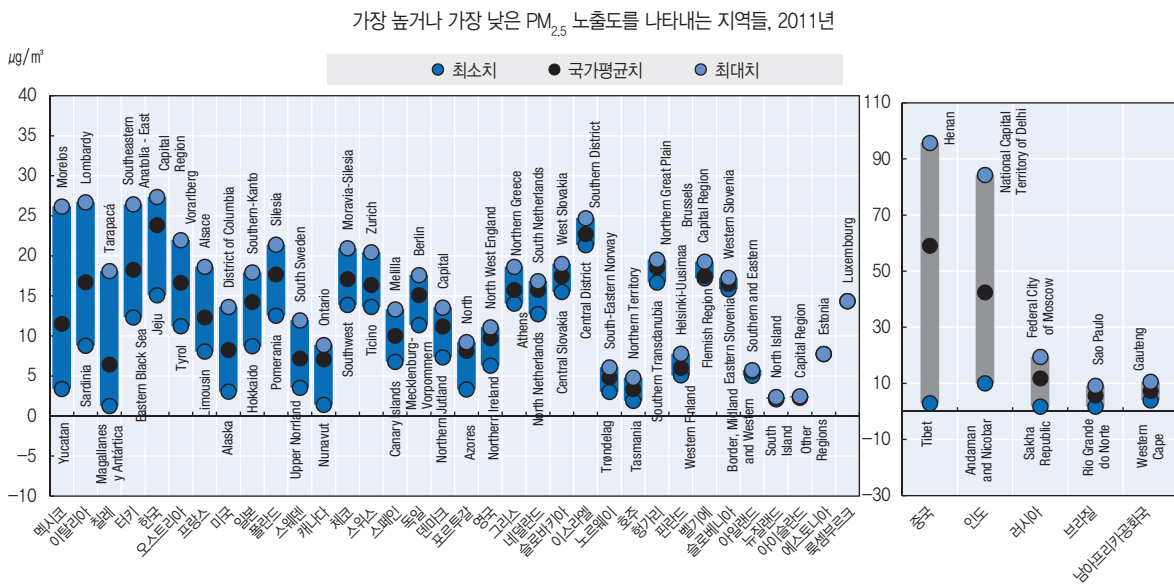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86>

대기오염은 절반의 OECD 지역에서 권고한계치를 초과한다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도와 그 원인은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사는지, 개발 국가 또는 저개발 국가에 사는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 공공 보건의 관심사인 것 외에도 환경의 질은 또한 개인의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거주 장소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White et al., 2013; Ferreira, 2013). 국가별 그리고 국가 내 대기오염의 규모와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일관성있는 측정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OECD는 위성 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을 결합하는 방법론을 개발했다 (박스 6.3; Brezzi and Sanchez-Serra, 2014). 이러한 방법론은 각 지역의 공기 중 초미세먼지(PM_{2.5}) 농도에 대한 평균적 노출도를 측정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측정에 근거하면, 대기오염에 대한 평균적 노출도(PM_{2.5} 수준)는 2002년에서 2011년 사이에 34개의 OECD 국가들 중 31개국에서 감소했는데 예외가 되는 국가는 이스라엘, 뉴질랜드, 터키뿐이다. 측정치들은 지역별 초미세먼지(PM_{2.5}) 노출도 측면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여주는데, 가장 높은 노출도는 멕시코, 이탈리아, 칠레, 터키에서 기록된다. 2011년 추정치들에 따르면, OECD 지역들중 58%에서(OECD 전체 인구의 64%에 해당함) 대기오염의 수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최대 권고치인 입방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 매우 높은 수치가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들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칠레의 국가 평균 초미세먼지(PM_{2.5}) 노출도는 입방미터당 6.4 마이크로그램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국가 내 1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권고치인 입방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그림 6.9).

그림 6.9. 대기오염에 대한 평균 노출도의 지역적 격차



주: 데이터는 3년평균(2010-2012년) 측정치를 말함. 값은 각 지역에서 대기오염의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지역 평균은 PM_{2.5} 관측치에 제곱미터당 사람 수로 가중치를 내며 각 지역 내 값을 합침으로써 구한다.

출처: OECD 지역 웰빙(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Van Donkelaar et al.(2015)에 근거한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091>

인구의 지리적 집중도, 경제적 활동, 여러 출처들로부터의 배출가스(emissions) 때문에, 도시들은 대개 국가의 나머지 지역보다 높은 대기오염도를 기록한다. 그러나, 도시들의 상이한 특징들(기후, 위도, 인구밀도, 지리적 확장, 교통망, 경제적 활동 등)과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지역의 노력들(교통, 에너지,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제와 정책)은 같은 국가 내 도시별 대기의 질의 커다란 격차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쿠에르나바카(Cuernavaca; 멕시코), 밀라노(Milan; 이탈리아), 구라모토(Kuramoto; 일본)에서의 평균적 PM_{2.5} 노출도는 같은 국가 내 다른 도시들보다 3배가 높은 반면에, 캐나다, 핀란드, 칠레,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에서의 모든 도시들은 대기오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Brezzi and Sanchez-Serra, 2014).

현재 국가 내 하위지역 수준에서 대기오염 외에 어떤 환경적 성과도 호환가능한 국제적 방법으로 계산될 수 없다. 활용 가능한 환경 지표들을 확대시키는 것이 많은 OECD 국가에서 우선사항이다.

서비스 접근성이 공간별로 매우 다르다

같은 지역 내에서조차, 서비스 접근성은 개인이 사는 구체적 장소에 따라 확연히 다를 수 있다. OECD 지역적 웰빙 프레임 워크의 서비스 접근성 영역은 두 가지 기본적 서비스(예: 공공서비스(public utilities)와 보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데, 이 두 서비스는 교육, 문화·자연적 편의시설(amenities), 정보통신기술(ICT), 교통 등 삶의 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적 조건 측면에서 바람직한 삶의 기준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교통수단에 대한 폭 넓은 선택권 등 교통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은, 사람들이 직장과 여가를 즐길 장소에 가는 것을 돕고 통근시간을 줄여준다. 서비스 접근성이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영역이 OECD 지역적 웰빙 프레임 워크에 추가되었는데, 이 영역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영역이 아니라 개인적 웰빙의 다른 측면들의 동인(driver)으로써 간주될 수 있다.

“서비스 접근성(access to services)”이라는 넓은 영역은 물리적, 경제적, 제도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분해될 수 있는데, 이 접근성들은 모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리적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은 특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의 용이성으로 이해된다. 경제적 접근가능성은 서비스 자체의 비용과 관련된 거래비용(예: 공공교통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말함) 등 서비스의 구매가능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접근성은 법률, 규범, 사회적 가치와 같은 제도적 요소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미래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 측면은 특정 지역에서 다른 인구집단들 사이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분배되는냐이다.

서비스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지표는 광대역 연결망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가구의 비중(OECD(2014a) www.oecdregionalwellbeing.org)인데 모든 OECD 지역에 대한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다. 광대역 연결망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보 및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갖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광대역 연결망에 대한 접근성이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반면에 도농간 격차(urban-rural divide)는 특히 소지역 단위로 측정할 때 다수의 국가에서 여전히 나타난다(OECD, 2014a). 현재 이용이 가능한 지표는 서비스 접근성의 물리적 영역을 파악하지만, 광대역의 실제 사용에 관한 정보(예: 광대역 서비스 제공사에 등록된 가구의 비중,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질)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지표의 경제적·제도적 측면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와 시골 지역 간에 다르다

OECD 지역적 웰빙 프레임워크는 국가들의 하위 표본들(subsamples)에 대해 입수가 가능한 두 지표를 통해서 보건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적 불평등을 측정한다: 이 두 지표는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제도적 접근성의 측면들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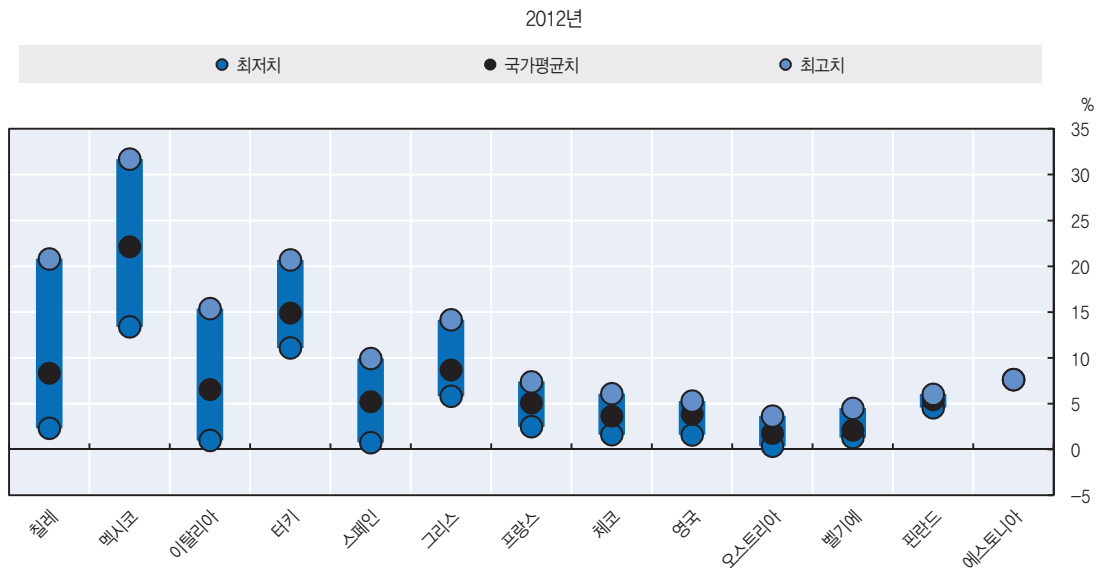
병원, 의원(clinics),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PCP)와 같은 물리적 자원의 공간적 분포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OECD 보고서인 *How's Life in Your Region?*은 독일, 프랑스, 미국에 있는 OECD TL3 지역들의 병원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이 지표는 지역의 1 제곱미터 내 인구의 수에 가중치를 주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측정법은 평균적으로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병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OECD, 2014a).

두 번째 지표는 보건 서비스를 요구하는 인구의 특징들과 관련이 있다. 이 지표는 의료 치료나 검진이 필요했을 때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한 번 또는 그 이상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을 측정한다. 이 지표는 응답자가 비용, 대기시간, 의사에 대한 두려움, 교통문제 등과 같은 의료검진이나 치료를 포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표시하는 가구조사를

통해서 수집된다. 데이터 표집 때문에, 의료검진을 포기한 이유들 사이에서 지역값을 구분할 수 없으나, 이 지표는 경제적 혹은 다른 장애물로 인해서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겪는 어려움에 관한 대리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

소수의 국가 가구 조사들만이 지역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는 작은 표본 규모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이용 가능한 측정법은 진찰을 받지 않는 이유들(예: 경제적, 지식, 문화적)을 구분할 능력이 제한적이다(Koolman, 2007; Allin and Masseria, 2009).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국가들의 경우, 최초의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은 국가 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의료적 욕구의 지역적 차이가 상당히 큼을 보여주는데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는 가장 수행도가 좋은 지역과 가장 수행도가 나쁜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다(그림 6.10). 6개국에 대한 지역 데이터에 근거한 실증분석은 개인적 특징들을 통제한 후에도 충족되지 않은 의료적 욕구 측면에서 상당한 지역적 격차를 발견한다(Brezzi and Luongo, 근간예정인 OECD 지역개발연구보고서).

그림 6.10. 충족되지 않은 의료적 욕구를 보고한 인구 비율에서의 지역적 격차



주: 최고값과 최저값 간 차이에 따라서 지역의 순위가 매겨짐

출처: OECD(2014a), How's Life in Your Region?,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0102>

지역적 웰빙의 측정을 위한 향후 통계적 과제

국가적 단위에서 수행된 다른 측정 노력들과 비교해서, 웰빙 측정의 지역적 혹은 국가 내 하위지역(sub-national) 접근법은 바람직한 공간 단위에서 지표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고 비교 가능한 통계치를 찾는 도전과제에 직면한다. 웰빙 지표들을 생산하기 위한 조사에 기반한(survey-based) 정보는 흔히 지역 또는 지방 수준에서 입수가 가능하지 않은데, 조사는 대개 국가 수준에서만 대표성이 있는 인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기 때문이다.

조사관행을 바꾸어서 큰 지역들(작은 지역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표본구조의 변화, 다년(multi-year)평균의 사용, 표준오차의 계산에 필요한 조사의 세부사항 발표 등)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국가 내 하위 단위/지역 단위의 웰빙 측정의 미래는 공식적 통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 외에 광범위한

데이터 출처와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에 크게 달려있다. 여기에는 행정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의존, 다른 출처들의 이용(예: 지역별 임대료 차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좀 더 폭넓은 사용, 여러 다른 출처들의 통합이 포함된다. 특정 조사의 설계와 소지역추정기법과 같은 혁신적 도구의 사용 역시 미래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다.

지역적 웰빙을 측정할 때 직면하는 도전과제들과 통계청의 예산 압박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 갭을 메꾸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과에 정책 연관성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의 5가지 우선사항이 강조될 수 있다:

- **대지역에 대한 현재의 OECD 웰빙 지표 세트를 좀 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추가적인 웰빙 영역들을 포함시켜서 세트를 확장시킴.** 표 6.2에서 확인된 OECD 대지역에 대한 웰빙 지표들의 세트는 국가통계청의 지원을 받아 매년 업데이트될 수 있고, 특정 국가들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갭을 메우고 비 OECD 국가들을 위한 유사한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관적 웰빙⁶ 측정치, 사람들의 자가보고 피해, 학생과 성인의 역량 측정치, 사회적 관계의 측정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세트가 또한 미래에 확장될 수 있다.
- **지역 혹은 지방 수준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더 나은 지표들의 개발.** 서비스 접근성의 영역은 지역 수준에서 사람들의 웰빙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이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유일한 지표는 광대역 연결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이 영역의 측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 센터들(예: 학교, 병원, 기차역, 녹지공간 등)의 위치에 관한 공간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를 행정데이터(예: 해당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와 사람들의 거주지 정보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에 관한 데이터와 통합시킴으로써,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접근 가능한(여러 지역 수준에서)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계획을 위해서 GIS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서비스의 위치와 서비스의 성격들에 관한 데이터는 여전히 희소하다. 더 나아가, 서비스의 물리적 접근 가능성을 넘어서,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측정지표(metrics)가 필요하다. 교통, 헬스케어, 아동보육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은 특히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개 지역적으로 제공되어 공간에 따라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품질에 관한 정보가 다양한 출처(행정 데이터,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공통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좀 더 상세한 지리적 단위에서의 웰빙 측정을 장려함.** 더 나은 웰빙 측정지표(metrics)에 대한 수요는 주로 도시, 자치정부, 지역사회에서 나타난다. 인구가 최소한 50만명인 275개의 대도시에 관한 지표들을 담은 OECD 대도시데이터베이스(Metropolitan Database)는 웰빙 지표들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측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단위에서 통계 정보가 특히 부족한데, TL2 지역들과는 달리 대도시 지역들이 행정지역에 반드시 해당될 필요가 없고, 국가통계청들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 중 다수는 이 규모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데이터 생산 방법들을 알아내고 이러한 지역들에 관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조치이다.

- **모든 통계 출처들에 도시와 시골 지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의를 적용.** 도농의 격차(rural-urban divide)는 개발도상국들과 일부 OECD 국가들의 많은 웰빙 영역들(교육, 서비스 접근성, 보건 등)에서 존재한다(OECD, 2011b). 다양한 지리적 단위에 대한 믿을 만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조차, 최소의 요건은 다른 유형의 웰빙 지표들(예: 노동력 조사, 일반가구조사, 피해자 조사 등)의 집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가구 조사는 응답자가 시골 혹은 도시 지역에 사는 지를 분류할 때 일관성 있는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일관성 있는 분류는 또한 도시와 시골 지역에 대한 별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엔지속 가능한 개발목표(UNDG)의 감시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골과 도시 지역에 관한 OECD/EU 정의는 그러한 국제적 노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 **지역 내 웰빙 불평등의 측정.** 본 장에서 검토된 증거자료는 웰빙 측면의 격차가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에서 모두 중요함을 보여준다. 지역 차원에서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OECD가 수행한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은 미래에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되어야 하고 다른 OECD 국가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별 가격 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구매력평가를 반영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개인단위의 불평등 측정치들도 또한 가구자산 또는 기술과 역량과 같은 다른 측면의 웰빙에 중요하고, 이 분야들에서 신뢰할 만한 지역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국가 단위와 동일한 정의와 데이터 출처에 근거할 때, 그러한 정보는 국가적 측정치들을 지역 내와 지역 간 구성요소로 분해하는 것을 허용하여, 개인 그리고 지역 수준 특징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웰빙 측정을 위한 통계정보를 개선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 논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논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지역들과 도시들은 지역적 경쟁력과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일관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웰빙 이니셔티브에 착수했다. OECD 보고서 *How's Life in Your Region?*(2014a)은 지역적 웰빙 지표들이 정책 입안에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한 7가지 사례연구를 제공한다(박스 6.4). 분석된 지역 이니셔티브들에 공통적으로 세가지 요소가 나타난다. 첫째, 웰빙 측정지표(metrics)는 지역적 상황에 맞춰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표의 숫자를 늘리고 정확성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와 연계시킨다. 둘째, 측정은 정책 대화(policy dialogue)와 연결되어야 하고,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가능한 규제 조치들과 정책 조치들을 확인하여, 부문별 다른 수준의 정부간 정책 입안을 조율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웰빙 측정에 그들의 욕구를 반영시키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열린 대화와 데이터의 사용은 처음부터 시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이다.

OECD 보고서 *How's Life in Your Region?: 정책 입안을 위한 지역과 지방 웰빙의 측정(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은 정책 입안에서 웰빙 측정지표(metrics)를 사용한 여러 가지 방법론과 정치적 해결책에 관한 7가지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제공한다. 여러 사례연구들은 어떻게 지표들이 정책 입안과정의 여러 단계(지역적 웰빙 성과지표들의 선정,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에 대한 추이의 감시, 사회적 변화의 촉진을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의 이행 등)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좋은 예를 제공한다.

박스 6.4. 정책 입안에 웰빙지표들을 사용하기 위한 지역적 이니셔티브들

이탈리아 로마(Rome)의 경우, 지역사회조사, 웹툰,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웰빙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포괄적 자문 프로세스가 사용되었다.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Sardinia) 지역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웰빙 목표들을 위해서, 공공 기관, 민간 부문,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참여한 결과 공공 서비스 전달(public service delivery)에서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다(예: 5년 동안에 매립되는 도시폐기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고 재활용되는 도시 폐기물의 비율이 27%에서 48%로 상승했다). “Good Life”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남덴마크는 객관적 지표들과 지각기반(perception-based)지표들을 결합한 포괄적 지역 웰빙 지표 세트를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켰는데 지역의 사회적 발전도를 감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네덜란드 북부지역은 학계(예: Groningen 대학교)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정교한 웰빙 세트를 개발했다. 영국의 뉴캐슬(New Castle)은 광범위한 지역 웰빙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적 요건들(2012 보건복지법에 의거해서 지역 보건웰빙위원회를 설립함)을 활용한 도시의 좋은 예이다. 멕시코 모렐로스(Morelos) 주는 기결정된 기한 동안에(주정부 명령에 의거한 기간) 여러 웰빙 영역에서 확실한 기준과 목표에 따라 주개발계획(state development plan)을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미국의 파트너십(US Partnership for Sustainable Communities)은 모든 크기의 관할지역에 대한 국가적 이니셔티브이다. 이는 연방 정책과 기금을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부담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교통 선택권을 제공하고, 교통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니셔티브는 포커스 그룹과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확인된 기존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지역 정책 입안가들에게 지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출처: OECD(2014a), How's Life in Your Region? 정책 입안을 위한 지역과 지방 웰빙의 측정(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주

1. 1인당 수입에 관한 데이터는 국가의 지역 가구계정에서 가져오며, 멕시코, 터키, 스위스는 예외인데 값이 국가가구조사에서 계산된다. 지역별 가치분소득은 현재의 국가통화로 수집되며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불변 미달러와 불변 구매력평가(PPPs)로 변환된다. 변환은 국가수준에서 최종소비지출의 명시적 가격 디플레이터(deflator)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역별 가치분소득값은 그리고 나서 1인당 소득을 구하기 위해 지역 인구로 나눈다. 지역가구계정에서 가져온 지역 수준의 가치분소득은 가구조사데이터와 비교하여 매년 입수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2. 모든 국가들이 고려되고 그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유지할 때, 그리고 3개국 제외될 때 피어슨 계수는 각각 0.9와 0.8이다.
3. 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http://go.worldbank.org/OPQO6VS750>(2015년 5월 29일 액세스됨)참조.
4. Piacentini(2014)에 보고된 추정치들은 OECD가 매년 OECD 소득분배데이터베이스에 발표하는 국가 추정치들의 근간이 되는 것과 비슷한 정의 및 데이터 출처에 근거한다.

5. 2010년에 대한 28개 OECD 국가들의 입수 가능한 지역적 추정치들은 균등화 가구소득(세금과 이전 전의 소득인 시장소득과 세금과 이전 이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의 개념에 근거하는데 이는 명목가적으로 지역간 가격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
6. OECD 지역 웰빙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빈곤 추정에 사용된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유럽통계청에서 사용된 정의와 약간 다르다.
7. 예를 들면, 2011년 4월 이래 영국국가통계청(ONS)은 연간 인구조사에 한 세트의 주관적 웰빙 질문들을 포함시켰다. 조사는 매년 16세 이상의 약 16만5천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과 걱정 등에 대한 느낌, 삶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롭다고 느끼는 정도에 근거하여 답변을 수집한다. 영국국가통계청(ONS)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대해서 지방과 카운티 수준, 지역(NUTS1)수준에서 주관적 웰빙의 네가지 측면의 각각에 대한 추정치들을 보고한다. 사용자가 지방 수준에서 결과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쌍방향(interactive) 맵(map)은: www.neighbourhood.statistics.gov.uk/HTMLDocs/dvc124/wrapper.html(2015년 5월 29일 액세스됨)에서 이용 가능하다.

참고문헌

- Allin, S. and C. Masseria (2009), “Unmet need as an indicator of health care access”, *Eurohealth*, Vol. 15, No. 3, pp. 7-9.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Socio-Economic Indexes for Areas”, ABS, Canberra. www.abs.gov.au/websitedbs/censushome.nsf/home/seifa (accessed 29 May 2015).
- Brezzi M., and P. Luongo (forthcoming), “Regional disparities in unmet medical needs: a multilevel analysis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 Brezzi, M. and D. Sanchez-Serra (2014), “Breathing the same air? Measuring air pollution in OECD cities and region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rb7rkxf21-en>.
- Brezzi, M., L. Dijkstra and V. Ruiz (2011), “OECD Extended Regional Typology: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mote Rural Region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11/0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6z83tw7f4-en>.
- Chetty, R., N. Hendren, P. Kline and E. Saez (2014),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e geograph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 No. 4, pp. 1553-1623.
- Ciccone, A. (2002) “Agglomeration effects in Europe”,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6, No. 2, pp. 213-227.
- Ferreira, S., A. Akay, F. Brereton, J. Cunado, P. Martinsson, M. Moro and T.F. Ningal (2013), “Life satisfaction and air quality in Europe”, *Ecological Economics*, Vol. 8(C), pp. 1-10.

- Glaeser, E.L. and D.C. Mare (2001), “Cities and Skill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9, No. 2, pp. 316-342.
- IEAG (2014), *A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a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Publishing.
- Jolliffe, D. (2006), “Poverty, Prices, and Place: How Sensitive I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overty to Cost of Living Adjustments?”, *Economic Inquiry*, Vol. 44, No. 2, pp. 296-310.
- Kanbur, R. and J. Zhuang (2013), “Urbanization and inequality in Asia”, *Asian Development Review*, Vol. 30, No. 1, pp. 131-147.
- Koolman, X. (2007), “Unmet need for health care in Europe”, in *Comparative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issues and challenges*, Proceedings of the EU-SILC Conference, Helsinki, Eurostat, pp. 181–191.
- Lopez-Calva, L.F., L. Rodriguez-Chamussy and M. Szekely (2007), “Poverty Maps and Public Policy: Lessons from Mexico”, in T. Bedi, A. Coudouel and K. Simler (eds.) *More Than a Pretty Picture: Using Poverty Maps to Design Better Policies and Interventions*, World Bank, Washington, DC, Chap. 10, pp. 3–22, <http://ideas.repec.org/b/wbk/wbpubs/6800.html> (accessed 29 May 2015).
- Moretti, E. (2004), “Estimating the social return to higher education: evidence from longitudinal and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Journal of Econometrics*, 121, No. 1-2, pp. 175-212.
- OECD (2014a),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mak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 OECD (2014b), *OECD Regional Outlook 2014: Regions and Cities: Where Policies and People Mee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415-en>.
- OECD (2014c), *How's Life in Your Region? Case study on the region of Southern Denmark*,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 OECD (2013),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3-en.
- OECD (2012), *Redefining “Urban”. A New Way to Measure Metropolitan Area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4108-en>.
- OECD (2011a),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 (2011b), *OECD Regions at a Glance 201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1-en.

- ONS (2011), “Measure what matters. National Statisticia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debate on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shing, United Kingdom.
- Piacentini, M. (2014), “Measuring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at the regional level in OECD countries”, *OECD Statistic Working Paper* 2014/0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zf5khtg9t-en>.
- Rice, P., A.J. Venables and E. Patacchini (2006), “Spatial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Analysis for the regions of Great Britai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36, No. 6, pp. 727-752.
- Rothwell, J.T. and D.S. Massey (2015), “Geographic Effects on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Economic Geography*, Vol. 91, No. 1, pp. 83-106.
- Royuela, V., P. Veneri and R. Ramos (2014), “Income inequality, urban size and economic growth in OECD regions”,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14/1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rcmg88l8r-en>.
- Sampson, R.J. (2008), “Moving to Inequality: Neighborhood Effects and Experiments Meet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4, No. 1, pp. 189-231.
- Szekely Pardo M., L.F. Lopez-Calva, A. Melendez Martinez, E.G. Rascon Ramirez and L. Rodriguez-Chamussy (2007), “Poniendo a la pobreza de ingresos y a la desigualdad en el mapa de Mexico”, *Economia Mexicana NUEVA EPOCA*, vol. XVI, 2.
- Van Donkelaar, A., R.V. Martin, M. Brauer and B.L. Boys (2015) “Use of Satellite Observations for Long-Term Exposure Assessment of Global Concentratio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123, No. 2, pp. 135-143.
- Wilson, W.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Wishlade, F. and D. Yuill (1997), “Measuring disparities for area designation purposes: Issues for the European Union”, *Regional and Industrial Policy Research Paper*, N. 24, European Policies Research Centre.
- White, M.P., I. Alcock, B.W. Wheeler and M.H. Depledge (2013), “Would you be happier living in a greener urban area? A fixed-effects analysis of panel data”,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6, pp. 920-928.
- World Bank (2014), “EU Accession Countries. Poverty Mapping of New Members in EU: Completion memo”,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4/06/19764353/european-union-eu-accession-countries-poverty-mapping-new-members-eu-completion-memo> (accessed 29 May 2015).

World Bank (2015), “A Measured Approach to Ending Poverty and Boosting Shared Prosperity: Concepts, Data, and the Twin Goals”, *Policy Research Report*,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elibrary.worldbank.org/doi/book/10.1596/978-1-4648-0361-1> (accessed 10 June 2015).

데이터베이스 참고문헌

Eurostat (2013),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last accessed 26 June 2015).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last accessed on 26 June 2015).

“Regional well-being”,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707-en> (last accessed on 11 June 2015).

“Metropolitan areas”,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531-en> (last accessed on 26 June 2015).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위원회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How's Life? 2015: 웰빙의 측정

발행 일: 2016년 9월

원저: OECD

번역 · 발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Tel. 02-3702-7144

www.oecdkorea.org

인쇄: 아이프리넷